

다시 고향마을로
돌아온 사람들

경기도 DMZ
자유의 마을 대성동

경기도 DMZ 자유의 마을 대성동

DMZ
파주 대성동마을
문화자원조사

다시 고향마을로
돌아온 사람들

경기도 DMZ
자유의 마을 대성동



Global Inspiration
세계속의 경기도

PAJU

DMZ
파주 대성동마을
문화자원조사

다시 고향마을로 돌아온 사람들

경기도 DMZ 자유의 마을 대성동

일러두기

- 이 책은 경기도와 파주시의 의뢰로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에서 진행한 대성동마을 민속조사보고서이다.
- 현장조사는 2014. 5.~2014. 11.까지 진행하였으며 DMZ 내에 위치한 마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보자의 이름은 비공개로 하였다.
- 책에 수록한 내용은 연구진들이 문헌 · 구술조사를 통해 작성하였기에 본지의 내용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파주 대성동마을 문화자원조사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한반도에 DMZ(비무장지대)가 설정된 이래, 파주 대성동 '자유의 마을'은 오랜 시간 외부의 출입이 차단되었습니다. 그 사이 주민들은 제약과 불편을 감수해 왔습니다. 반면 반세기동안 고립된 관계로 자연생태 환경과 옛 마을의 전통이 잘 보존되었습니다. 통일 후 변화를 대비하는 경기도에서는 DMZ 안 대성동마을의 현재 상태를 기록하고 마을의 자연, 고고, 역사, 민속 등 문화자원을 발굴하고자 종합적인 마을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대성동마을이 경기도의 대표 마을로 조성될 수 있을 만큼 문화 자원이 풍부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파주 대성동마을에는 한성백제시대로 추정되는 토성과 조선시대 강릉 김씨 동원군파묘역 등 많은 유적이 있습니다. 이 유적들은 대성동 마을의 오랜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계화되기 이전의 옛 농기구들도 원형 그대로 잘 남아 있습니다. 이 유물들은 역사유적과 함께 잘 보존하여 방문객들에게 교육 자료로 활용하면서 통일시대를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성동 마을은 그 오랜 역사만큼 수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토리를 줍다가 이북으로 끌려갔다 온 이야기는 DMZ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경험들로 대성동마을이기 때문에 채록할 수 있는 경험담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기록으로 남겨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도 바로 우리 세대가 해야 할 일입니다. 또한 문화콘텐츠 활용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그 혜택이 대성동 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몫일 것입니다.

대성동 마을의 문화자원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파주시 관계자 및 대성동마을 주민들 그리고 경기문화재연구원 직원과 외부 연구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 12

경기도지사 남 경 필

세계에서 유일한 문화자원의 보고(寶庫) 대성동마을

파주에는 지구상에 남아 있는 유일한 분단국가의 상징인 DMZ이 있습니다. DMZ은 분단의 고통과 단절의 의미가 아닌 평화와 생명의 공간으로 이미지가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런 평화와 생명의 DMZ의 중심에 민간인 마을 대성동마을이 있습니다. 분단역사 현장인 대성동마을을 조사하고 기록한 「대성동마을 문화자원조사 보고서」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소중한 문화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성동마을에는 50여 가구 200여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북한의 최근접 거리에서 정전협정 후 60여 년 동안 출입이 통제된 불안정한 상황에서 생활 하면서도 평화통일의 날을 염원하며 마을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결혼을 하고 민속생활 풍습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 삶의 공간 자체가 세계유일의 문화자원을 보유한 마을박물관인 것입니다.

대성동마을의 생생한 생활사를 증언해 줄 어르신들이 고령으로 이제 몇 분 안계십니다. 더 늦기 전에 마을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작업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기록을 토대로 세계유일의 분단역사 현장을 에코뮤지엄으로 만들어 세계적인 안보관광의 명소로 만들어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대성동마을의 주민 한분 한분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땀으로 기록을 만들어 내는데 애쓰신 경기문화재단의 연구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파주 대성동마을과 주민들을 위해서 이 보고서가 기반이 되어 파주의 자긍심이 되는 훌륭한 문화자원개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4. 12

파주시장 이 재 홍

목차

1. 대성동의 마을환경과 역사

1–1 마을의 자연·지리적 환경 ····· 12
1–2 마을의 고고·역사적 환경 ····· 19
1–3 마을의 인문환경 ····· 31
1–4 문화유적과 인물 ····· 58

2. 자유의 마을, 대성동의 형성

2–1 옛 지도를 통해 본 대성동마을 ····· 100
2–2 자유의 마을이 되기까지 ····· 106

3. 주민들의 의식주생활

3–1 등걸잠뱅이와 사리마다 입고 – 의생활 ····· 133
3–2 걸어서 간 개성장 – 식생활 ····· 137
3–3 선전마을로 다시 자리잡은 가옥 – 주생활 ····· 145

4. 생업과 생활용구

4–1 주요생업활동 ····· 180
4–2 마을 속 박물관 – 생활용구들 ····· 212

5. 세시풍속과 놀이

5–1 마을의 한 해, 세시풍속 ····· 252
5–2 대성동마을 사람들의 놀이 ····· 267

6. 일생의례

6–1 혼자서 삼 가르고 – 출산 ····· 277
6–2 100사람이 나눠먹은 백설기 – 백일과 돌 ····· 281
6–3 트럭타고 온 시집 – 혼례 ····· 282
6–4 안하고 죽으면 원혼이 된다는 – 환갑 ····· 288
6–5 남은 자들의 의례 – 상장례 ····· 289
6–6 조상님께 드리는 정성 – 제례 ····· 298

7. 민속신앙과 민간의료

7–1 마을사람들의 신앙생활 ····· 308
7–2 병원이 없던 시절의 의료생활 ····· 316

8. 마을주민 생애사

8–1 마을 할아버지의 살아오신 내력 ····· 330
8–2 마을 할머니의 살아오신 내력 ····· 344

9. 마을에 전해오는 이야기

9–1 마을주민들의 기억 속 주요사건 ····· 392
9–2 마을주민들의 옛이야기 ····· 399
9–3 마을주민들의 노랫소리 ····· 419
9–4 마을주민들의 속담 ····· 421

10. 문화콘텐츠 활용프로그램

10–1 개요 ····· 426
10–2 에코뮤지엄의 개념과 사례, 대성동 적용 방안 ····· 432
10–3 대성동 자유의 마을 전시계획 및 체험프로그램 제안 ····· 465
10–4 문화자원 활용방안 수립을 위한 사례 ····· 508

부록. 사진으로 보는 대성동마을의 과거와 현재

1. 옛 사진 속 대성동마을 ····· 544
2. 대성동마을의 현재 ····· 562
3. 대성동마을에서 ····· 564



1 대성동의 마을환경과 역사

1. 대성동의 마을환경과 역사

1-1 마을의 자연 · 지리적 환경

1) 지리적 환경

파주 대성동 자유의 마을은 한반도 비무장지대 북위 37°56′28.03″, 동경 126°40′44.92″에 위치해 있으며 행정구역으로는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에 해당된다. 이 마을은 자유의 다리로부터 북으로 약 12.5km, 개성시로부터 남으로 약 11.5km 정도 떨어져 있다. 마을 동북쪽 약 1km 지점에는 판문점이 위치하며 서쪽의 군사분계선과는 400m 정도 거리에 있다. 군사분계선 건너편에 위치한 기정동마을과의 거리는 1.8km 이다.

대성동마을의 북쪽으로는 휴전선을 경계로 북한의 개풍군 진서면 어룡리와 마주하고 서쪽으로는 개성의 백전리, 서남쪽으로는 풍덕군 봉동면 지금리, 남쪽으로는 파주시 장단면 동장리, 동쪽으로는 연천군 백학면 사매리와 접해 있다. 대성동자유의 마을은 북쪽으로 어룡리, 서쪽으로 발송리, 남쪽으로 조산리, 동쪽으로 금릉리와 송현리로 둘러싸여 있다. 이 지역은 접경지역(DMZ) 내부로 사람들의 출입이 통제되어 자연 생태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다.

대성동마을이 있는 장단의 북부에는 마식령산맥(馬息嶺山脈)이 황해도와 분수령을 이루고 그 지맥이 장단내부 영역에 뻗어 있어 지형은 동남을 향하여 완만하게 경사를 이루고 있다. 북반부에 수룡산(秀龍山 ; 해발 717m)이 있고 남반부는 낮은 지대를 이루고 있어 사천(沙川)과 임진강연안에 비옥한 평야가 펼쳐져 있다.[1] 대성동마을을 중심으로 동북쪽으로 대덕산(大德山 ; 해발237m), 동쪽으로 군내면 정자리와 진서면 금릉리 경계에 있는 백학산(白鶴山 ; 해발 229m), 남쪽으로 도라산(都羅山 ; 해발 267m), 서쪽으로 진봉산(進鳳山 : 해발 400m), 서남쪽으로 덕물산(德物山 ; 해발288m), 군장산(軍藏山 ; 해발 278m), 여니산(如尼山 ; 해발241m) 등의 산지가 형성되어 있다. 이 산들은 모두 해발 200m가 넘는 산들로 군사시설이 들어서 있고 일반인들의 접근이 어렵다.

대성동 서쪽의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분지천은 연천군 왕징면 고왕산(高旺山 ; 해발 355m) 부근에서 발원하여 소사미천을 이루며 남쪽으로 흐르다가 사미천(沙彌川) 본류와 합류하여 진서면 어룡리를 가로지르며 흐른다. 이 분지천은 개성 동부에서 흐르는 지류와 도평리 판문교(板門橋) 부근에서 합류하여 사천(沙川)을 형성하며 남쪽으로 흘러 가다가 임진강으로 들어간다. 사미천(沙彌川)의 수원(水源)은 대둔산(大屯山)에서 시작하여 내려오면서 정석산(定石山)·수룡산(秀龍山) 등에서 발원한 여러 지류와 합쳐 대강면(大江面)으로 들어와 임진강으로 흘러들어간다.[2] 사천(沙川)의 수원(水源)은 경기도 개성군 영남면이고 개성의 남면과 장단의 진남면을 관통하는 수로 연장길이는 30.0km, 유역 면적은 366.0㎢이다.[3] 이 분지천(分地川)과 사천(沙川)을 경계로 동쪽의 장단군과 서쪽의 개풍군으로 구분된다. 이 하천의 주변에는 충적평야가 형성되어 있어 도작농경(稻作農耕)에 적당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임진강 하류는 하안 침식평야가 전개되어 곡창 지대를 이루고 있다.

장단지역의 지질은 경기육괴(京畿陸塊)의 북단에 속하고 선캠브리아기의 경기변성암복합체가 형성되어 있다. 임진강 이북의 초리, 용산리, 석곶리 일대에는 화강편마암, 안구상편마암이 분포하며 오랜 기간 침식작용으로 낮고 평평한 구릉지를 이루고 있다. 신생대에 형성된 현무암류의 대지는 플라이스토세(홍적세)에 만들어 졌고 현무암이 냉각되면서 갈라져 솟아오른 암괴들로 이어진 구릉 들이 분포되어 있다.[4]

대성동마을은 한반도 중서부의 최북단에 위치해 있어 북부의 대륙성 기후와 남부의 난온대 기후의 점이지대(漸移地帶) 특색을 지니고 있다. 장단의 연평균 기온은 10.4°C, 1

1) 장단군지편찬위원회, 『장단군지』, 1980, p.36.
2) 앞의 책, p.42.
3) 경기도박물관, 경기도 3대 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임진강』 Vol.1-임진강의 환경과 삶, 2001, p.234.
4) 경기도박물관·육군박물관·서울지방국토관리청, 『남북연결도로(통일대교~장단간) 문화유적 시굴조사보고서』, 2001, pp.6~7.

월평균 기온은 -6.2°C, 8월 평균기온은 25.3°C이며 연 강수량은 1,184㎜이다.[5]

사천(沙川)을 끼고 있는 대성동과 그 주변 지역은 사람들이 살기 적합한 주거환경에 조성되어 있어 선사유적과 삼국시대의 산성이 남아 있다. 대성동마을은 이러한 자연·지리적 배경으로 형성되었다. 조산리 대성동마을은 개성군 동면 백동리 마을의 사철 내개울 모래가 쌓여 산을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조산리가 되었다. 대성동 지역은 대덕산 발용산에서 흐르는 냇물이 늘무리(板門里) 다리 밑으로 흐르고 송도에서 흐르는 냇물과 합류하여 사천(沙川)이 되었다. 고려말 대홍수로 개울 모래가 내려와 부락 앞의 개울 변 높은 산이 성같이 둘러싸였다고 하여 대성동이라[6] 하고 그 하천의 이름을 대성천(臺城川)이라 하였는데 조선시대에 사천(沙川)으로 바꾸었다.[7]

1747년에서 1750년 사이에 그려진『해동지도(海東地圖)』장단부 지도에 태성(台城)[8]이라는 지명이 표기되었다. 1911년에 작성된『조선지지자료(朝鮮地誌資料)』[9]와 1918년에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에 의해 작성된 개성(開城) 지도[10]에 대성동이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대성동마을은 1747년 이전에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자연 · 생태 환경

DMZ 지역은 약 반 세기동안 수많은 생명을 품고 있는 자연의 모습을 간직한 "식물과 동물의 낙원"이 되었다. 산에는 떡갈나무와 신갈나무의 2차 식생과 물억새·억새초지가 발달해 있다. 산 계곡에는 달뿌리풀과 갈대가 풀 바다를 이루고 있다. DMZ 일원에는 사향노루, 산양, 삵과 같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비롯한 생물이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장단반도 일원에는 두더지, 오소리, 너구리, 대륙족제비, 고양이,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다람쥐, 멧밭쥐, 멧토끼 등 10과 12종, 법정보호종인 삵이 출현하고 있다.[11] 이 지역에는 식물 2237종, 포유류 45종, 조류 260종, 양서·파충류 31종, 어류 143종 등 2710여종이 서식하고 있다.

5) 백종오, 「파주 비무장지대(DMZ) 주변지역 문화유적 현황」, 『통일촌마을조사 보고서–통일촌 사람들, 그 삶의 이야기』, 경기문화재단, 2013, p.115.
6) 파주문화원, 『파주지명유래와 전설지』, 1997, p.192.
7) 주6 앞의 책, p.473
8) 서울대학교 규장각, 규장각자료총서『해동지도』상, 경세원, 1995, p.73.
9)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조선지지자료–경기도편』, 2008, p.424.
10) 경기도·경기문화재단, 『경기도의 근현대지도』, 2005, p.42.
11) 경기개발연구원, 「한강하구 습지 및 수변 생태자원에 관한 연구」, 위탁연구 2007–22, 2008, p.69.

『신증동국여지승람』「장단도호부(長湍都護府)」 토산조[12]에 실(錄), 삼(麻), 송이(松覃), 웅어(葦魚), 눌치(訥魚), 쏘가리(金隣魚), 숭어(秀魚), 은어(銀魚), 게(蟹), 석창포(石菖蒲)가 기록되어 있어 대성동과 장단지역의 서쪽으로 흐르는 사천에 물고기와 식물의 양상을 알 수 있다.『여지도서(輿地圖書)』「長湍府」 물산(物產)조[13]에는 백어(白魚), 금어(金魚), 숭어(秀魚), 눌치(訥魚), 웅어(葦魚), 금(金), 은(銀), 석창포(石菖蒲), 화생해(花生蟹;게)가 기록되어 있어 조선시대에 이 지역의 식생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웅어, 눌치, 숭어, 석창포 등이 장단지역에 나는 특산물로 알려져 있다. 1849년(憲宗15년)에 편찬된『장단지(長湍志)』「토산(土產)조」[14]에는 실(絲), 삼(麻), 웅어(葦魚), 눌치(訥魚), 숭어(鰡魚), 잉어(鯉魚), 백어(白魚), 하순(河肫),[15] 쏘가리(錦鱗魚), 게(蟹), 석창포(石菖浦)[16], 금은화(金銀花), 산약(山藥)이 기록되어 있고 암게(雌蟹), 오가피(五加皮), 금은화줄기(金銀花叢莖)를 진상(進貢)하였다. 장단지역의 특산물 중에 실(錄), 삼(麻), 웅어(葦魚), 눌치(訥魚), 쏘가리(金隣魚), 숭어(秀魚), 게(蟹), 석창포(石菖蒲)는 조선시대 초기부터 말기까지 지속적으로 산출되었음을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러한 조선시대의 특산물들은 지금까지도 자연생태환경이 잘 보존되어 이어지고 있다.

(1) 포유동물(哺乳動物)

조사지역인 대성동 팔각정에서 집박쥐의 분(糞)이 확인되었고 이 종은 주로 빈집이나 나무구멍 등에서 서식하고 박쥐무리 중에 인가와 가까이 살고 있는 종으로 그 수도 많다. 대성동에서는 오소리가 서식하고 있는 굴이 발견되고 오소리는 잡식성으로 번식력이 강하다. 또한 대성동의 삼림지대에는 흰 넓적다리 붉은 쥐가 분포하고 있다.[17]

12) 민족문화추진회, 『신증동국여지승람 2』, 고전국역총서 41, 1982, p.337.
1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료총서 제20『여지도서』상, 1973, p.58.
14) 주2 앞의 책, pp.317~318.
15) 하순은 물가에서 잡은 물고기를 얇게 저미어서 양념을 하여 말린 고기이다. (http://hanja.naver.com/hanja)
16) 석창포는 천남성과의 상록이고 여러 해 살이 풀로 뿌리줄기는 옆으로 뻗고 마디가 많으며, 잎은 뭉쳐나고 선 모양이다. 6~7월에 잎처럼 생긴 꽃줄기 끝에 누런 녹색 꽃이 수상(穗狀) 화서로 핀다. 뿌리와 줄기는 청량 건위제나 구충제로 쓰고 관상용으로 재배한다. 흐르는 물가에 자라는데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등지에 분포한다. 뿌리는 의식이 혼미하거나 소화 불량, 건망증 따위에 쓰인다.(http://krdic.naver.com/detail)
17) 파주군, 『파주군지』 상–역사와 인물, 1995, p.79.

(2) 조류(鳥類)

참갯지렁이와 말똥게 등 다양한 생명체가 살고 있는 임진강 하구 습지보호구역에는 동아시아 철새이동 경로의 중간기착지로 천연기념물인 저어새·흰꼬리수리·검독수리·개리·재두루미 등 수 만 마리가 강변의 하천습지와 농경지 등에 서식하고 있다.[18] 파주 군내면에서는 39종으로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종이면서 천연기념물199호인 황새를 비롯하여 천연기념물 327호인 원앙, 천연기념물 201호인 큰고니, 고니 그리고 독수리(천연기념물 243호), 흰꼬리 수리(천연기념물 243호), 빛개구리매(천연기념물 323호) 등 5종의 희귀 맹금류가 관찰되어 이곳이 두루미류 뿐만 아니라 맹금류의 도래지로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19]

1996년 국제적 멸종위기 조류 "저어새" 종 보존 국제협력사업에서 홍콩과 대만에서 방사한 "저어새" 5마리 중 4마리가 서해 해상의 DMZ 지역에 번식을 위해 정착하였음이 위성추적 발신기 탐사에 의해 밝혀졌다. 대성동 자유의 마을 북쪽에 위치한 자연습지는 조류가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계절에 따라 오리류, 백로류, 뜸부기류, 도요새류 등의 조류와 겨울에는 천연기념물 조류인 두루미류, 알락개구리 매 등 희귀조류가 찾아오고 있다. 대성동 야산에는 딱새류를 비롯하여 뻐꾸기류, 딱따구리류, 까마귀류, 대성동의 경작지 부근에는 할미새류, 멧새류, 도요새류 등[20]이 관찰된다. 대성동 자유의 마을 인근 농경지에는 1966년 2월과 1979년 1월에 국제적 멸종위기 종인 "따오기" 1개체가 관찰되었다. 대성동마을 저수지에는 여름철에 백로류인 덤불해오라기, 가을부터 겨울, 봄에 오리류, 겨울에 천염기념물인 두루미, 재두루미가 휴식을 취하고 있다.[21] 이와 같이 조사지역은 멸종위기의 따오기, 저어새 등의 삶의 터전으로 자연 생태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어류(魚類)

군내면 조산리에 위치한 대성동 자유의 마을 신설저수지와 여기에서 유출되는 임진강 지류인 사천수계의 소수로(小水路)에서는 피라미, 끄리, 누치, 참마자, 미꾸리, 동자개, 얼룩동사리 등이 서식하고 있다. 대성동마을의 구성저수지와 여기에서 유출되는 임진강 지류인 사천수계의 수로(水路)는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고 여기에는 피라미, 끄리, 붕어, 묵납자루, 점줄종개, 동자개, 얼룩동사리, 잉어 등이 살고 있다.[22]

(4) 식물(植物)

파주의 민통선지역은 대부분 500m이하의 야산과 평야지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초지, 아까시나무림, 조림지 등으로 덮여 있다. 조사지역의 군남면 대성리에는 상수리나무가 주로 우거져 있다.[23] 파주시 장단면일대 민통선지역은 물박달나무림, 신갈나무림, 상수리나무림으로 구성되었고 거곡리 일대는 염습지가 조성되어 있다. 장단반도 일대에 산재하고 있는 구릉성 산림 지역의 식생은 참나무류, 아까시나무 식생군집이 광범위하게 발달하고 있다. 상층으로는 수고 6m 내외의 상수리나무, 갈참나무, 아까시나무가 자라고 있고, 중층으로는 진달래, 산사나무, 산뽕나무, 콩배나무 등이 출현하고 있다. 하층으로는 상수리나무 치수, 찔레, 멍석딸기, 싸리, 쥐똥나무 등이 서식한다. 이 지역은 전체적으로 상수리나무, 보리수나무, 개암나무, 산뽕나무, 산벚나무, 생강나무, 신나무, 개옻나무, 국수나무, 팥배나무, 두릅나무, 찔레꽃, 노박덩굴 등이 출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해발 50m미만인 군내면 대성동 주변의 구릉지는 상수리나무 숲이 형성되어 있다. 상수리나무의 열매는 신석기시대이래로 농경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식물이다.[24] 이 대성동마을의 상수리나무 군락은 숲지붕층(林冠層)에 우점하고 있고 키가 작은 나무층(관목층)은 상수리나무, 갈참나무, 떡갈나무, 신갈나무 등의 참나무류와 개옻나무, 보리수나무, 붉나무, 노린재나무, 회잎나무 등의 식물군락이 생육하고 있다. 숲바닥에는 상수리나무의 실생(seedling)을 비롯하여 낙엽활엽수림을 구분하는 진단종(diagnostic species)인 반상록성 초본 노루발풀이 존재한다. 대성동마을 내에는 향나무, 은행나무 등이 심어져 있고 주변 야생 숲정이에는 아까시 나무가 생육하고 있다. 하천 가장자리를 따라 신나무와 족제비사리, 부락 근처의 야산에 가래나무와 귀룽나무가 생육하고 있다.[25]

18) 이동화, 『이야기 京畿 600년 경기는 명당이다』, 2014, pp.170~179.
19) 주3 앞의 책, p.87.
20) 주17 앞의 책, p.80.
21) 경기개발연구원, 「DMZ 일원 자연환경보존 및 생태관광 추진방향 설정 연구」, 2007, p.40.
22) 주17 앞의 책, p.82.
23) 박은지 외, 『DMZ가 말을 걸다–평화와 생태의 상징, DMZ의 모든 것』, 2013, pp. 111~113.
24) 주17 앞의 책, p.85.
25) 주17 앞의 책, p.87.

초본류로는 자귀풀, 단풍잎돼지풀, 새팥, 망초, 강아지풀, 억새, 새잎꿩의비름, 애기쉽싸리, 비쑥, 깨풀, 큰엉겅퀴, 가는잎쇄기풀, 병풀, 닭의장풀, 애기똥풀, 무릇, 등골나물, 갈퀴꼭두서니, 괭이밥, 야산고사리, 층층이풀, 차풀, 새 등이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다. 장단반도 일대의 습지는 크게 논과 자연습지로 구분되며, 자연습지는 부분적으로 갈대, 부들, 달뿌리풀 등이 우점하는 하천변 습지성 초지식생군집과 개망초, 쑥 등의 초본들이 있다. 하안변 습지는 임진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갈대 군락, 물억새 군락, 개망초 군락, 강아지풀, 매듭풀 군락이 발달하고 있으며 수로를 따라 부분적으로 고랭이류의 군락이 발달하였다. 장단반도 내륙 안쪽으로는 대면적 초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논과 구릉성 산림이 산재하고 있다. 광범위한 초지는 망초 군락이 우점적으로 발달한 가운데, 개망초, 비쑥, 사철쑥, 물억새, 달뿌리풀 군락이 발달하여 있다. 부분적으로 웅덩이에는 애기부들, 올풀, 송이고랭이, 쇠돌피, 피, 애기괭이사초, 고랭이 등의 습지식생 군락이 발달하였다.

독수리 월동서식지 부근에는 갈대 잔존 군락과 망초 군락이 광범위하게 발달하였고 내륙 쪽으로는 부분적으로 매듭풀, 전동사리, 차풀, 가락지나물, 꽃 향유 등의 소규모 군락과 달뿌리풀 군락이 형성되어 있다. 가장자리에는 돌콩, 토끼풀, 환삼덩굴 군락이 집중되어 있으며, 또한 주기적인 임진강 범람으로 인해 웅덩이가 형성되고 습지 식생이 발달하였다. 내륙 초지 전체에 걸쳐 족제비싸리, 갯버들, 아까시나무의 치수들이 자라고 있으나 발달정도가 미미하다. 산림지와 인접 논, 도로와의 경계부에는 논두렁의 식생이 형성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산뽕나무, 보리수나무, 아까시나무 군락과 물억새, 족제비싸리 군락, 그리고 개망초 군락이 있다.[26)]

대성동 부근의 저습지에는 큰고랭이가 우점종이며, 세모고랭이, 갯하늘지기, 송이고랭이, 바늘골, 달뿌리풀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신설저수지의 초본류는 김의털이 지면을 덮고 있고 고삼, 양지꽃, 개싸리, 억새, 무릇, 비수리, 애기붓꽃, 활나무, 개솔새, 미역취, 산개고리, 구절초, 마타리, 파리풀 등이 자라고 있다. 이 중에 북미원산의 미국 미역취는 화분병[27)]의 원인으로 UN군이 대성동지역을 관리하면서 들어온 품종이다.

26) 경기개발연구원, 「DMZ 일원 자연환경보존 및 생태관광 추진방향 설정 연구」, 2007, pp.47~48.
27) 주17 앞의 책, pp.87~105.

(5) 곤충류(昆蟲類)

파주 대성동마을에서 2010년에 새로 조사된 곤충은 4목 22종으로 멸종 위기의 2급 곤충인 애기뿔소소똥구리(Copris tripartitus)와 왕은점표범나비(Fabriciana nerippe)가 서식하고 있다.[28)]

1-2 마을의 고고 · 역사적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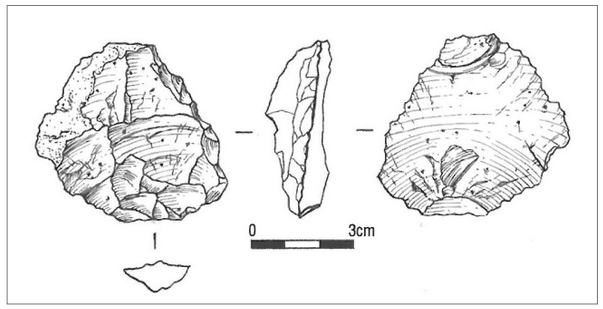
1) 고고 · 역사적 환경

(1) 구석기시대

구석기시대는 신생대 제3기 말 플라이오세(Pliocene)에서 제4기 갱신세 말 빙하기가 종식되는 1만년 무렵까지 400만년 이상 지속된 시기이다.[29)] 파주 지역은 임진강과 그 지류를 따라 주변에 구석기시대부터 역사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적들이 확인된다. 파주 지역은 우리나라의 구석기 유적들이 밀집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이다. 이 지역의 구석기 유적으로는 임진강유역의 장산리, 가월리, 주월리, 동파리, 금파리, 노상리, 와동2리, 장터거리, 구리동, 야당리, 동패리 등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되고 있다.[30)] 이 유적 중 장단면 노상리와 진동면 동파리는 조사지역의 마을 인근에 위치해 있다. 최근에는 파주 운정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교하읍 와동리 일대의 시굴조사에서 구석기 유적의 존재가 확인된 바 있다.[31)]

파주 대성동마을의 인근지역인 경의선 연결도로(통일대교~장단)구간내 유적 제 4지구에서 흑요석제 긁개가 수습되었다. 이 유적에서는 흙요석제 긁개와 규질암과 석영질의 격지 등이 수습되었는데 우리나라 후기 구석기시대 유물과 비교하면 비교적 큰 편에 속한다.[32)]

28) 이진구 등, 「경기북부 DMZ 접경지역의 곤충생태 조사 결과」, 한국응용곤충학회 추계학술발표회, 2011, p.49.
29) 경기문화재연구원·경기도박물관, 경기문화재연구원 개원 10주년 기념 「경기 발굴 10년의 발자취」, 2009, p.7.
30) 경기도박물관, 「월롱산성」, 2004, p.485.
31) 기전문화재연구원, 「파주 운정(1)지구 문화재 시굴조사 약보고서」, 2006, pp.124~126.
32) 주4 앞의 책, pp.60~62.



도면 1. 경의선 연결도로(통일대교~장단)구간 제4지구 출토 흑요석제 긁개



경의선 연결도로(통일대교~장단간)구간 제4지구 출토 흑요석제 긁개

이러한 구석기 유적의 분포로 볼 때 대성동 인근지역은 구석기시대이래로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잡고 살아 왔음을 알 수 있다.

파주에서는 임진강이 흐르는 적성, 파평, 문산 등지에서 비교적 많은 구석기 유적·유물이 확인되고 있어 구석기인들이 임진강을 끼고 집단적으로 생활했음을 알 수 있다. 적성 율포리 지역과 파평 금파리 지역들에서 돌을 이용해 만든 석기들이 대량 발견되고 있으며 특히 금파리 구석기 유적에서는 타원형으로 생긴 움집터가 발견되기도 하였다.[33] 파주에서 발견되는 구석기 유적·유물을 통해 이 지역에서 구석기 시대부터 사람은 움집에서 어로·수렵·채집생활을 하며 살았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2) 신석기시대

한국 신석기시대는 B.C.8,000년경 제주도 고산리 유적에서 토기가 출토된 이래로 B.C.6,000년경에 남해안 일대에 신석기토기가 등장하고 경기도 지역에서 청동기시대가 개시되는 B.C.15~14세기까지로 볼 수 있다.[34] 신석기시대는 농경생산을 통한 잉여 생산물의 저장과 인구증가가 이루어진 사회이다. 파주의 신석기유적은 적성의 율포리 유적이 알려져 있다.[35] 그 외에 교하 다율리의 지석묘 조사과정에서 주변의 장방형 주거지에서 무문토기와 함께 즐문토기편이 수습되었다. 파주에서는 적성 주월리와 문산 선유리, 교하 다율리, 월롱 덕은리 옥석동(玉石洞) 일대에서 주거지 및 빗살무늬토기, 마제석촉 등이 출토되었다. 주월리 유적에서는 지표에서 마제석부, 마제석촉, 옥제장신구 등이 수습되어 신석기 후기에 편년되고 있다. 옥제 장신구는 중국의 요하유역 신석기시대 홍산(紅山)문화와 관련된 것이다. 이 외에 조리면 봉일천리, 적성면 독서동, 파주읍 백석리 등에서도 즐문토기편이 수습된 바 있다.[36]

특히 월롱면 덕은리 옥석동 유적에서는 빗살무늬 토기 파편들과 고인돌 밑에서 발견된 수혈 주거지는 신석기 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들이다. 수혈 내부에는 기둥구멍이나 노지와 같은 시설이 없고 즐문토기 편들이 발견되었다. 토기의 문양은 어골문을 구성하는 평행 사선문, 호형문, 복선사격자문, 점열문, 복선거치문이 있고 저부는 첨저이다.[37] 파주지역에서 출토되는 빗살무늬토기는 한반도 중서부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丸底土器群(환저토기군)에 속해 있다.[38] 이러한 즐문토기편이 수습되는 신석기 유적은 임진강을 따라 연천 학곡리와 우정리 등에서도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39] 임진강을 주변으로 조사지역에도 신석기시대 사람들이 살았음을 알 수 있다.

(3) 청동기시대

청동기시대는 무문토기와 마제석기가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청동기가 제작되는 시기로 정형화된 지석묘와 석관묘가 등장하고 농경을 생계경제로 삶을 영위한 시대이다. 경기도의 청동기시대의 시기는 B.C.13~15세기에서 B.C.300년까지로 볼 수 있다.[40] 청동기 시대는 인류가 청동으로 도구나 무기를 만들어 쓰기 시작한 때로부터 철기를 만들어 쓰기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청동기시대에 들어와 임진강 유역 일대는 청동기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 파주지역의 청동기 유적은 교하리, 다율리, 당하리, 옥석리, 덕은리, 야동리 유적 등이 있고 임진강유역에서는 선유리, 식현리, 장산리, 하포리, 노상리 등이 청동기시대 유적으로 알려져 있다.[41] 청동기시대 역시 강가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었음을 알 수

33) http://www.pajucc.or.kr/main/about_paju.php
34) 주29 앞의 책, p.26.
35) 주30 앞의 책, p.485.
36) 韓永熙, 「新石器時代, 韓國考古學의 半世紀」, 제19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문, 韓國考古學會, 1995, p.42.
37) 김재원·윤무병, 「한국지석묘연구」, 『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6책, 1967, pp.26~28.
38) 한영희, 「신석기시대-지역적 비교」, 『한국사론』12 - 하, 국사편찬위원회, 1993, pp.496~506.
39) 주19, 앞의 책, pp.94~125.
40) 주29 앞의 책, 2009, p.50.
41) 주30 앞의 책, p.486.

있는 것이다.

교하리 유적에서는 지석묘 4기와 지석묘 하부에서 장방형의 수혈주거지 2기가 조사되었으며 공렬토기·석검·석촉 등이 출토되었다. 다율리·당하리 유적에서는 지석묘 25기와 주거지 1기가 조사되었으며, 이외에 적성면 식현리, 문산읍 당동리에서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이외에 지표조사로 산남리, 야당리, 와동리, 선유리, 진동면 하포리와 초리 등지에서도 지석묘가 확인되었다.

(4) 초기철기시대

초기철기시대는 중국 동북지역에 자리 잡았던 연(燕)나라의 영향으로 주조철기가 보급되고 점토대토기, 세형동검, 적석목곽묘 등과 같은 새로운 문화가 유행한 시대이다. 청동기시대가 막을 내리는 기원전 4세기말~3세기 초에서부터 한군현(漢郡縣)의 영향으로 단조철기가 대량으로 보급되는 본격적인 철기시대인 원삼국시대가 시작되는 기원전 1세기까지 초기철기시대로 설정할 수 있다.[42] 초기철기시대에 해당하는 점토대토기 단계의 유적으로는 최근에 조사된 갈현리, 당하리 유적이 있다.[43] 갈현리 유적에서는 원형점토대토기 편과 회백색토기 옹 등이 다량 출토되었으며[44] 당하리 유적 1호 토광묘에서는 원형점토대토기와 흑도장경호가 각각 1점씩 출토되었다.[45] 이외에 적성면 주월리, 문산읍 선유리, 문산리, 독서동, 조리면 뇌조리, 조산동, 문산읍 내포리 등지에서 점토대토기와 우각형파수부토기 등이 수습된 바 있다. 주월리 유적에서 출토된 부뚜막시설은 철기문화의 보급과 더불어 유입된 것이다.

(5) 원삼국시대

경기지역의 원삼국시대는 기원전 1세기 무렵부터 백제가 초기국가로 출현하는 기원후 3세기 중반 후반 무렵까지의 시기이다.[46] 원삼국시대 유적은 조사예가 많지 않으며 장단면 노하리, 군내면 정자리,[47] 그리고 파주 주월리 유적[48]이 대표적이다. 주월리 유적은 1996년 주거지 3기를 포함한 7개의 유구, 1997년에는 주거지 6기를 포함한 총 17개의 유구가 조사되었으며 주거지는 凸자형 및 방형의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유적의 연대는 96-7호 주거지의 목탄 시료의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중심연대는 A.D 4세기대로 나타났다. 이 유적에서는 장란형토기, 심발형토기의 개체가 확인되고, 본격적인 직구단경호 등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대체로 시기를 3세기 중반을 전후한 시기로 파악하고 있다. 최근 와동리 일대에서도 원삼국시대에 해당하는 유적이 조사된 예가 있어 앞으로 이 시기의 자료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6) 삼국시대

백제는 도성의 위치에 따라 한성기(기원전18년~475), 웅진기(475~538), 사비기(538~660)로 삼분된다. 마한 54국 중 서울의 백제국이 주변의 세력을 통합해 가면서 강력한 고대국가를 세우고 4세기 중엽 최전성기를 맞는 백제는 경기, 충청, 전라, 강원, 황해도까지 영토를 확장하였다. 파주는 마한(馬韓) 54국 중 원양국(爰襄國)과 상외국(桑外國)에 속했고, 1849년(憲宗15년)에 편찬된 『장단지(長湍志)』「건치연혁(建置沿革)」조에 장단은 삼한시대에 습천군(隰川郡)[49]이라는 기록이 있다. 한강 유역인 위례성을 중심으로 한 초기 백제가 점차 성장하면서 이 일대를 장악하게 되었다. 백제 근초고왕 시대의 장단지역의 지명은 야야현(耶耶縣) 또는 야아현(夜牙縣)이었다.[50] 이 일대를 중심으로 백제와 말갈과의 전투기록이 삼국사기에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면 삼국초기에 고구려 세력 하에 있던 말갈이 백제 영토를 자주 침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조사지역인 군내면 대성동에 토성지의 흔적이 있으나[51] 백제시대의 토성인지는 고고학적 조사와 확인이 필요하다.

고구려는 건국초기 중국의 요동·요서지방과 부여지방으로 영토 확장에 주력하다가 4세기초반 낙랑군과 대방군을 축출하고 황해도 일원으로 진출한 이후 본격적인 남하를

42) 주29 앞의 책, p.80.
43) 기전문화재연구원, 『파주 당하리 유적』, 경인 M&B, 2006, pp.70~71.
44) 주36 앞의 책, pp. 70~72.
45) 주43 앞의 책, pp.70~71.
46) 주29 앞의 책, p.104.
47) 주30 앞의 책, p.486.
48) 경기도박물관, 『파주 주월리 유적』, 1999, pp.247~266.
49) 徐有耒, 『長湍志』 卷之上, 建置沿革, 三韓時爲隰川郡, 1849, p.14.
50) 파주군·파주문화원, 『파주의 역사와 문화유적』, 1995, p.16.
51) 주50 앞의 책, p.247.

실시한다.[52] 4세기에 접어들면서 대외팽창에 주력한 광개토왕 1년(391)은 한강 유역 점령 후 백제계 지명을 고구려 식으로 개명하여 파주의 금촌・교하・탄현 일대를 천정구현(泉井口縣), 파주・문산 일대를 술이홀현(述爾忽縣), 장단・군내 지역을 장천성현(長淺城縣), 파평 일대를 파해평사현(坡害平史縣), 적성에는 낭비성(娘臂城)을 설치하였다. 『삼국사기(三國史記)』「지리지」에는 임강현(臨江縣)을 고구려의 장항구현(獐項口縣)[53]으로 표기하였다.

신라는 6세기 초 법흥왕 대에 중앙집권적인 귀족국가를 이룩하여 6세기 중엽 진흥왕 대에는 대규모의 영토 확장이 이루어졌다. 한반도 동남부에서 국가로 성장한 신라가 소백산맥을 넘어 한강유역으로 진출한 것은 진흥왕 때인 6세기 중엽이다. 서기 551년 신라와 백제는 동맹을 맺어 한반도 중부지방에서 고구려를 축출하고 신라는 죽령을 넘어 한강 상류지역을 점령하였고 백제는 한강하류지역을 되찾게 된다. 553년 신라는 백제로부터 한강하류 지역을 탈취한 후 신주(新州)를 설치하고 555년에 북한산에 진흥왕순수비를 세웠다.[54] 그러나 파주를 비롯한 임진강 유역은 7세기 초까지도 여전히 고구려의 소유였던 것으로 보인다. 임진강 남안 일대가 신라의 판도에 들어온 것은 칠중성이 신라 김유신 장군의 대활약으로 신라의 소유가 된 진평왕 51년(629) 이후의 일로 보인다. 한편 칠중성 내에서 백제. 고구려 와편만이 아니라 신라계 와편 또한 다수 출토되는 사실은 이 일대의 소유가 백제에서 고구려로, 고구려에서 신라로 바뀌어 갔음을 증명하는 것이다.[55]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파주지역의 관방유적을 살펴보면 동북쪽으로 문산천 변에 봉서산성과 서남쪽으로 오두산성이, 곡릉천 변으로 장명산보루, 심학산보루, 명봉산성이 위치하며 동북쪽으로 임진강 북안으로 당포성, 아미리보루, 호루고루, 덕진산성, 도라산 봉수, 조랑진보루가 위치해 있다. 임진강 남안으로는 육계토성, 금파리성, 이잔미성, 임진진, 장산진, 그리고 임진강 남안 내륙으로 아미성과 수철성, 칠중성, 감악산보루, 무건리보루, 노고산보루 등 다수의 관방유적이 분포하고 있는 것이다.[56] 이러한 산성과 보루는 임진강 유역이 삼국시대 접경 지역의 양상을 잘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다.

조사지역 인근에 위치한 덕진산성은 파주시 군내면 정자리 산13번지에 있고 초평도의 서북쪽, 임진강의 북안에 해발 65m인 야트막한 산의 정상부에 축조하였다. 덕진산성 주변에 높은 산이 없어 넓은 지역을 관망할 수 있는 군사적인 요충지이다. 덕진산성의 남동쪽에 위치한 초평도는 임진강을 건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중요 교통로로 이용되고 있다. 덕진산성은 이 교통로의 길목을 통제할 수 있다. 초평도의 서쪽에 수내나루는 동쪽의 임진나루와 함께 임진강을 건너 개성으로 가는 주요 교통로였다. 이 덕진산성은 4~5세기경 고구려시대에 초축한 후 통일신라, 조선시대에 이르기 까지 보축이 이루어진 산성이다.[57] 덕진산성 내부에는 우물터가 있고 덕진단이 내성 가운데 제일 높은 표고 65m 지점에 있다[58]고 전한다.

(7) 통일신라시대

신라는 660년에 백제, 668년에는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675년 당과 매초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듬해 기벌포(伎伐浦)에서 당의 수군을 격멸함으로 삼국을 통일한 것은 676년의 일로 태종 무열왕을 거쳐 문무왕대에 이루어 졌다. 이후 신문왕은 중국 제도를 모방하여 중앙관직과 지방 행정조직을 대폭 정비하였고 경덕왕은 주·군·현의 명칭을 중국식으로 바꾸었다. 신문왕 5년(685)에 전국을 9州 5小京으로 개편하였는데 파주는 한산주(漢山州)에 속하게 되었다. 이어 경덕왕(景德王) 16년(757)에는 전국적으로 지방 군현의 명칭을 한식(漢式)으로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현 파주 일대인 파해평사현을 파평현(坡平縣)으로 술이홀현을 봉성현(峰城縣)으로 낭비성을 중성현(重城縣), 천정구현을 교하군(交河郡)으로 그리고 장천성현은 장단현(長湍縣)으로 각각 그 명칭이 바뀌었고,[59] 우봉군(牛峰郡)[60] 영현(領縣)[61]에 속하게 되었다. 나말여초의 혼란기에 신라 중앙의 통제가 약화되면서 파주지역은 철원에 근거지를 두고 있던 궁예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8) 고려시대

918년에 왕건이 고려를 건국한 후 936년에 후삼국을 통일한 후 태조(太祖) 23년(940)에 주(州)·군(郡)·현(縣)의 명칭을 개편하였는데 이 때 파주는 광주(廣州)로, 중성

52) 주40 앞의 책, p.186.
53) 이병도 역주, 『삼국사기국역편』, 1993, p.538.
54) 주40 앞의 책, p.216.
55) http://www.pajucc.or.kr/main/about_paju.php
56) 주 35 앞의 책, pp.45~46.
57) 주19 앞의 책, pp.397~402.
58) 국립문화재연구소, 『군사보호구역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경기도편』, 2000, p.259.
59) http://www.pajucc.or.kr/main/about_paju.php, 2008.1.4.
60) 파주군사편찬위원회, 『파주군사』 상권, 파주군, 1984, p.115.
61) 주1 앞의 책, p.21.

현은 적성현으로 개칭되었다. 995년에는 장단·적성·파평 등이 개성부에 속하게 되었다. 이후 10도(道)가 5도(道)로 바뀌면서 파주 지역은 양광도(楊廣道)에 속하였다. 고려(高麗) 목종(穆宗) 4년(1001)에 시중(侍中) 한언공(韓彦恭)의 고향이 장단지역이었던 이유로 단주(端州)로 승격시켰다.[62]

이어 현종 9년(1018)에는 전국을 4도호부 8목 56주군으로 개편하면서 파평현과 적성현을 장단현에 예속시키고 현령(縣令)을 두어 상서도독(尙書都督)의 소관으로 만들었다. 문종(文宗) 16년(1062)에는 장단현을 직접 개성부에 편입시켰다. 명종(明宗) 4년(1174) 장단 지역에 궁궐을 조영하면서 봉성현을 서원현(瑞原縣)으로 바꾸어 감무를 두었다. 공양왕 2년(1390)에는 경기도를 좌도와 우도로 나누면서 장단·적성·파평현을 경기좌도에, 교하·서원현을 양광도에 속하게 하였다.

장단지역에 존재하는 고려시대 왕릉 유적은 경릉(景陵)과 영릉(英陵), 지릉(智陵)이 있다.[63] 경릉(景陵)은 고려 11대왕 문종의 능으로 장남면에 위치해 있고 영릉(英陵)은 고려 15대 숙종의 능으로 진서면 판문리에 있다. 지릉(智陵)은 고려 19대 명종의 능으로 장남면에 있고 서북쪽으로는 개풍군과 인접하여 있다. 장남면에는 신라 경순왕릉(敬順王陵)이 있다.[64] 개성은 고려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 인근 지역에 왕릉이 존재하는 것이다.

진동면 서곡리 산 112번지에 위치한 벽화고분은 서곡리 마을의 동남쪽으로 해발 90m 야산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흘러내린 구릉의 능선 상에 존재한다. 1991년 문화재연구소에 의해서 발굴 조사된 벽화고분은 길이 394cm, 너비 202cm, 깊이 103cm의 장방형 수직 토광 안에 석곽을 마련하고 그 안에 목관을 안치하였다. 이 석곽 판석에 그려진 벽화의 내용은 천장에 북두칠성과 삼태성(三台星)을 표현하였고 네 벽에는 십이지(十二支)를 나타낸 전신인물상이 그려져 있다. 동벽과 서벽에는 5인의 인물상이, 남벽에는 1인의 인물상이 그려져 있고 묘지석이 출토되어 고려 공민왕(1352년)때 축조된 권준의 무덤임을 알 수 있었다.[65]

파주시 군내면 점원리의 박석명의 묘에서 동북구릉 상부에 고려석실분(高麗石室墳)이 노출되어 있다. 석실의 크기는 동서 130cm, 남북 66cm, 높이 60~70cm이며 내부는 2단의 석괴로 쌓았다. 현재 남아 있는 개석의 길이는 165cm, 너비 56cm, 두께 18cm이며

62) 주12 앞의 책, p.326.
63) 주4 앞의 책, p.7.
64) 주1 앞의 책, p.239.
65) 주4 앞의 책, pp.117~118.
66) 주58 앞의 책, p.268.

암질은 화강암이다.[66] 고려시대의 수도가 개성이었기 때문에 조사지역은 그 인근에 위치해 있으므로 왕의 릉(陵)과 귀족들의 분묘가 분포되어 있는 것이다.

조사지역 인근에 위치해 있는 고려시대 불교유적으로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56호로 지정된(1995년 8월 7일) 파주 마애사면석불(坡州 磨崖四面石佛)은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산 31-1번지에 있고 해발 191m의 일월봉 정상 아래쪽으로 800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다. 높이는 동면상 111㎝, 남면상 99㎝, 서면상 90㎝, 북면상 126㎝이다. 불상은 네 구 모두 가부좌를 틀고 앉은 좌상으로 원형두광과 신광을 갖추고 연화좌 위에 결가부좌한 자세를 알아볼 수 있다. 현재 남아있는 상태에서 파악하기로는 동면상이 약합(藥盒)을 들고 있으며 남면상은 오른손을 밖으로 하였고 북면상은 오른손을 가슴부근에, 왼손은 무릎 위에 두고 연화대좌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는 모습과 원형두광 및 신광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연화대좌의 모습이나 원형 두광과 신광 표현은 북면상 만큼 명확하지는 않으나 다른 상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67]

(9) 조선시대

우왕 14년(1388)에 이성계는 요동정벌을 포기하고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병권을 장악한 후 공양왕 3년(1391) 사전개혁을 단행하였다. 1392년 이성계는 조선을 개국한 후 행정구역을 다시 개편했는데, 태조(太祖) 2년(1393) 서원현이 군으로 승격되었고 태조 3년(1394)에 수도를 개경에서 한양으로 옮기고 교하군을 현으로 강등시켜 한양에 속하게 하였다. 그 다음해에 개성부를 유후사(留後司)로 개칭하였고 1398년에는 파평현과 서원현을 합하여 원평군(原平郡)을 만들었다. 태종(太宗) 13년(1413)에는 교하현이 원평군에 소속되었고 교하현 소속의 심악은 고양현(高陽縣)에 속하게 되었다.

태종(太宗) 14년(1414)에는 장단현을 임강현과 합하여 장임현(長臨縣)이라 한 후 장임현은 임진현과 합하여 임단현(臨湍縣)으로 하고서 나중에 임강현을 두었다. 세종(世宗) 원년(1419)에 다시 장단현령(長湍縣令)을 두었다가 세조(世祖) 2년(1456)에 장단·임강을 없애고 임진현에 예속시켰다. 세조 4년(1458)에 다시 임강(臨江)·임진(臨津)을 장단현으로 소속시켰고 세조 5년(1459)에 중궁(中宮)의 증조, 고조, 현조의 세 무덤이 장단에 있기 때문에 군(郡)으로 승격시키고 군청을 도원역(桃源驛)으로 옮겼다. 예종 원

67) 주57 앞의 책, p.77.

년(1469)에는 진(鎭)을 설치하고 도호부(都護府)로 승격시켰다.[68] 이와 같이 조선 전기에는 파주 관내의 행정 구역 개편이 잦았으나 대체로 파주목·장단도호부·교하군·적성현의 골격을 잡게 되었다.

임진왜란을 거친 후 광해군대에 이르러 교하(交河)로의 천도(遷都)가 제기되었다. 광해군(光海君) 4년(1612)에 술관(術官) 이의신(李懿信)이 한양의 왕기가 쇠하였으니 길지(吉地)인 교하로 천도하자는 상소를 올렸다. 이에 광해군은 교하 지역을 살피고 형세를 그려오게 하는 등 관심을 보였으나 반대의견이 많아 천도가 실행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교하천도론은 유사 이래에 파주를 포함한 임진강 일대의 전략적·지리적인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전략적 위치에 있는 조사지역의 도라산 봉수는 임진강과 인접하여 서쪽에는 고려시대 수도 개성과 가장 인접해 있다. 도라산 봉수는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산 14번지의 해발 167m인 도라산 정상에 위치해 있다. 도라산 일대에서는 동남쪽으로 3km 거리를 두고 임진강이, 동쪽으로 6km에는 덕진산성이 전략적 요충지인 초평도의 모습이 관망된다. 이 봉수에 대하여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임진현(臨津縣)」조에는 "경기 임진현 서쪽에 소재하며 북쪽으로 임강 천수산, 동쪽으로 원평 성산에 응한다"[69]고 기록되어 있다.

도라산 봉수에서 사천강 너머로 개성과 마주보고 있고 도라산 동남쪽에는 봉수대 축조에 사용된 화강석 축대가 있다.[70] 도라산 봉수 맞은편 동남쪽에는 파주 성산(城山)·대산(大山) 봉수가 남북으로 2km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 노선의 도라산·성산·대산 봉수는 모악(母岳)의 동봉(東峰)에 응하는 봉수로 평안도와 황해도에서 오는 육로(陸路) 봉수이다. 파주읍 봉서리 성산봉수는 봉서산성내에 위치하는 봉수이고 파주읍 봉암리 대성봉수는 봉서산성과 2km 인접하여 있다. 봉서산성에서 남쪽으로 월롱산성이 위치하고 월롱산성 남동쪽에 위치한 기관봉에 기관봉 봉수[71]가 위치해 있다. 이 봉수 라인을 타고 한양까지 도달했던 것이다.

조선시대 출판된 『신증동국여지승람』·『대동지지』·『여지도서』·『읍지』에 의하면 장단부는 교통의 요지로 역참과 발소가 존재하였다. 역참의 규모가 가장 큰 것은 동파역(東坡驛)이었다. 이 역은 동쪽10리 진동면(津東面)에 있으며 연서역(延曙驛)에 소속되어 있었다. 상등마 4필, 중등마 6필, 하등마 4필과 이(吏)32명, 노(奴)15명, 비(婢)6명이 있었다. 도원역(桃源驛)은 동도면에 있었으며, 역도로서 구화역·백령역·옥계역·단조역·상수역을 속역으로 하고 있었다. 현재 파주시 군내면 점원리 도두머리에 있었다고 한다. 이 지역은 지금도 역촌 또는 역말이라고 부른다. 상등마 1필, 중등마 3필, 하등마 5필과 이(吏)32명, 노(奴), 비(婢)6명이 소속되어 있었다. 구화역(仇和驛)은 북쪽 50리 강서면(江西面)에 있으며, 도원역에 소속되어 있었다. 중등마 2필, 하등마 1필과 吏3명, 奴8명, 婢2명이 소속되어 있었다. 백령역(白嶺驛)은 동쪽 50리 장동면(長東面)에 있으며, 도원역에 소속되어 있었다. 상등마 2필, 중증마 5필, 하등마 2필과 吏16명, 奴18명, 婢11명이 소속되어 있었다. 발소(撥所)인 동파발첨(東坡撥站)은 동쪽 15리 진동면 동파리에 있었으며, 발장(撥將)1인과 발군 5명, 말 5필이 있었다. 초현발첨(招賢撥站)은 서쪽 13리 진북면 조산리(造山里)에 있었으며, 발장 1인과 발군 5명, 말 5필을 두고 있었다.[72]

장단 지역의 사천에는 판적교(板積橋), 사천교(沙川橋), 사미천교(沙彌川橋) 등의 교량이 있고 고량진(高浪津), 덕진도(德津渡), 용산도(龍山渡), 저포(猪浦) 등의 도진포(渡津浦)가 존재한다. 교량은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석교(石橋)는 주의 관아건물 남쪽에 있었다. 대천교(大川橋)는 임단관(臨湍館) 동쪽에, 금릉교(金陵橋)는 송남면(松南面)에, 초현교(招賢橋)는 초현발소(招賢撥所)에 있었다. 판문교(板門橋)는 송남면에 있었는데, 예전에는 판재(板材)로 다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사천교(沙川橋)는 중서면(中西面)에, 삼미천교(三彌川橋)는 강서면(江南面)에 있었다. 물이 크게 불어나면 선박이 왕래할 수 있었다고 한다. 두현교(頭峴橋)는 장동면(長東面)에 있었다[73]고 한다.

1849년(憲宗15년)에 편찬된 『장단지(長湍志)』 방리(坊里) 호구(戶口)조[74]에 의하면 조사지역의 진북면 조산리에는 35호에 남자 37명, 여자 21명이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1930년대에 조사지역인 장단군 군내면 조산리에는 21세대의 강릉김씨[75]가 살고 있었다.

68) 주12 앞의 책, p.327.
69) 國史編纂委員會, 『朝鮮王朝實錄』 5, 世宗實錄(4), 探求堂, 1986, p.618.
70) 김주홍, 「경기북부지역 봉수의 고찰 - 도라산 봉수를 중심으로-」, 『남북연결도로(통일대교~장단간) 문화유적 시굴조사보고서』, 경기도박물관 · 육군박물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001, pp.219~234.
71) 주30 앞의 책, pp.434~435.
72) 주3 앞의 책, p.293.
73) 주3 앞의 책, pp.293~294.
74) 주1 앞의 책, p.315.
75) 주60 앞의 책, pp.635~636.

(10) 근대

한반도 서해안에 이양선(夷洋船)이 출현한 이후 한국은 근대화의 여명이 비추기 시작하였다. 1894년 갑오경장(甲午更張)의 단행으로 지방제도에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다. 헌종(憲宗) 15년(1849)에 간행된『장단지(長湍志)』「방리조(坊里條)」에 장단군은 20개면 63개리로 구성되어 있고 대성동마을은 진북면 조산리에 속해 있었다.[76] 고종(高宗) 32년(1895)에 기존의 군현제(郡縣制)에 입각한 8도제(道制)가 폐지되고 전국을 23부(府) 336군(郡)으로 개편하였다. 이에 파주목이 한성부 파주군이 되었고, 적성현과 장단현은 군으로 승격되었으며 교하군은 파주군에 속하였다가 복구되었다. 이듬해인 1896년에는 23부제를 폐지하고 13도(道)가 설치되었는데 파주는 경기도 관할에 속하게 되었다. 일제 강점 직후에 파주 지역은 파주군·교하군·장단군·적성군의 4개의 군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1911년에 장단군은 20개면 68개리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장단군은 전체 10면 67리의 체제가 되었고 장단면 지역이 진남면에 편입되었다. 이때 조사지역인 대성동은 진북면 조산리, 송산리일부와 개성군 동면 백동음리 일부지역을 병합하여 군내면 조산리가 되었다.[77] 1934년에 장단군이 10개면 66개리로 구성된 이후에도 대성동마을은 군내면 조산리에 소속되었다.[78]

해방 직후인 1945년에는 적성현과 장단현이 군으로 승격되었고 국토분단과 함께 5개면이 북한에 편입되고 5개면 41개리만 남게 되었다. 1962년 11월 21일자 법령(法令) 1178호에 의해 연천군과 파주군이 폐합(廢合)된 후[79] 군내면은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에 의하여 파주군 임진면(현 문산읍)에 편입되었다. 1972년에는 장단군 장단면, 군내면, 진동면, 진서면을 편입하여 15면으로 조정되었으며 이듬해에는 아동면이 금촌읍으로, 임진면이 문산읍으로 승격되면서 2읍 13면의 행정구역을 갖추게 되었다. 1977년 11월에 장단, 군내, 진동, 진서 4개면이 파주군으로 편입되었다.[80] 1979년 5월 1일 군조례 제610호에 의하여 출장소가 설치되어 백연리와 조산리를 포함한 4개 면을 관할하고 있다.[81]

76) 주1 앞의 책, pp.25~26.
77) 주50 앞의 책, p.243.
78) 주1 앞의 책, p.28.
79) 주1 앞의 책, p.30.
80) 주60 앞의 책, p.116.
81) 주50 앞의 책, p.241.

1-3 마을의 인문환경

현재(2014년 7월 기준) 마을에는 48가구 51세대 20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 남자가 100명, 여성이 108명이다. 마을의 주요 생업은 농업이며 그 이외의 생업으로는 2가구가 문산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파주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1명 있다.

대성동마을은 강릉 김씨 집성촌으로 마을에 강릉 김씨는 14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강릉김씨의 입촌 시기와 배경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강릉 김씨로 마을에서 살아온 주민 김O래 씨는 12대조 산소와 13대조 산소가 마을 근처에 있는 것으로 보아 300-400년 전에 강릉 김씨 선조가 이 마을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교의 유일한 교육시설인 대성동초등학교의 전교생은 유치원을 포함하여 한 학년에 5명씩 총 35명이고 재직 중인 교사는 26명이다. 이 중 대성동에 살고 있는 학생은 유치원생 2명, 초등학생 3명으로 총 5명이다. 올해(2014년)는 9월 18일에 운동회를 개최하였고 학교에서 가장 크게 치러지는 행사는 졸업식이다.

표1. 대성동마을 개요

구 분	내 용
명 칭	자유의 마을(대성동마을)
행정구역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
위 치	북위 37°56′28.03″, 동경 126°40′44.92″
생 업	농업
기 후	연평균기온 10.4℃, 강수량 1,184㎜
주변 주요시설	DMZ, 판문점, 도라산전망대, 남북출입국사무소, 자유의 다리, 군사분계선
자연환경	대덕산(大德山, 해발237m), 백학산(白鶴山, 해발229m), 도라산(都羅山, 해발 267m), 진봉산(進鳳山, 해발 400m), 덕물산(德物山, 해발288m), 군장산(軍藏山, 해발 278m), 여니산(如尼山, 해발 241m), 분지천, 사천(沙川)

1) 대성동마을 사람들의 생활

현재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대부분 휴전협정 당시 마을주민으로 기록에 남아 있는 사람들과 그 후손들이다. 그 이외의 주민들은 거주권을 인정받을 수 없었다. 남쪽에는 자유의 마을 대성동을, 북쪽에는 평화의 마을 기정동을 하나씩 만들기 위해서 휴전 직전 내보냈던 마을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여 마을을 조성했다.

대성동주민의 경우 군에 입대하는 것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경작권은 인정되며 지방세 등을 면제 받는다.

대성동마을의 주민으로 인정이 되면 출입증이 발급되어 신분증 대신에 출입증을 가지고 신원확인을 받는다. 통일대교의 출입은 24시간 가능하고 JSA의 출입은 주민의 경우 주간에는 자유로운 편이다. 마을 주민 이외에는 경호병의 호위를 받으며 출입해야 하기 때문에 매 시 30분에 JSA부대 앞에서 함께 모여 출입한다.

일 년에 240일(8개월 정도)을 마을에서 거주해야 거주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을 마을에서 보내는지 확인하고자 매일 민정반에서는 마을주민 인원체크를 한다. 마을주민 인원체크는 동절기와 하절기 다른 시간에 진행된다.

마을 밖에서 지내지만 거주권이 유지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첫째는 병원에 입원한 경우, 둘째는 군에 입대한 경우, 셋째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 외지 생활을 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될 때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마을을 담당하고 있는 부대 대장의 허가를 받아 거주일수가 부족해도 거주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마을 안에는 초등학교만 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을 밖으로 나가야 한다. 대부분 문산에 있는 학교로 진학하며 이전에는 대성동초등학교 졸업 시 전국의 어떤 학교라도 지원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공동학군제를 실시하여 파주 관내의 학생 중 추첨을 통해 대성동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여 중고등학교도 문산 등 파주 관내의 학교로만 진학이 가능하게 되었다. 지금은 대부분의 가정에 자가용이 있어서 마을에서 통학을 하는 주민들도 있지만 교통수단이 없던 시절에는 진학을 위해서 무조건 마을 밖에 거주해야만 했다.

2) 대성동마을의 지명유래

대성동마을은 임진강 지류인 사천변 평야지대에 있는 조산리(造山里)에 속한 마을이다. 예로부터 조산리는 조산이 있어 붙여진 이름으로 조산, 조산동이라고도 했는데, 조산리의 조산(造山)은 개성군 동면 백동리 마을의 하천 모래가 쌓여 산을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조산리가 되었다고 한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고려말 대홍수로 개울 모래가 내려와 부락 앞 개울변 높은 산이 성같이 둘러싸였다고 하여 대성동이라 하고 그 하천의 이름을 대성천(臺城川)이라 하였는데 조선시대에 사천(沙川)으로 바꾸었다[82]고

82) 파주문화원, 『파주지명유래와 전설지』, 1997, p. 473.

표2. 대성동마을 주변 옛 지명

구분		『朝鮮地誌資料』	한국땅이름학회	비고
谷名	조산리	발송곡(鉢松谷)	태성산	
	송산리	오산곡(烏山谷)		
嶺峙峴名	조산리	연봉현(蓮峰峴)	갓굴재, 서낭당고개, 솔재, 성재	
	송산리	경시현(敬是峴), 굴암현(窟岩峴)		
野坪名	조산리	단포평(短浦坪), 방하평(方下坪)	가마뚜들기, 굿논, 쉰배미, 장구배미, 재롱갯들 찬재	
	송산리	빙시평(氷矢平), 장안평(長安坪), 석우평(石隅坪)		
江川名	조산리	태성천(台城川), 방하천(方下川)	–	
	송산리	전초천(前峭川), 석우천(石隅川)		
洞里村名	조산리	태성동(台城洞)	대성동 구파발(구파발 장터), 솔재, 초현장거리, 방축골(防築洞), 찬우물(冷井洞)	
	송산리	광명동(光明洞), 냉정동(冷井洞), 방축동(防築洞), 율천동(栗串洞), 마산동(馬山洞)		
기타	조산리	–	삼신우물	
	송산리	초현주막(招賢酒幕), 장안평보(長安坪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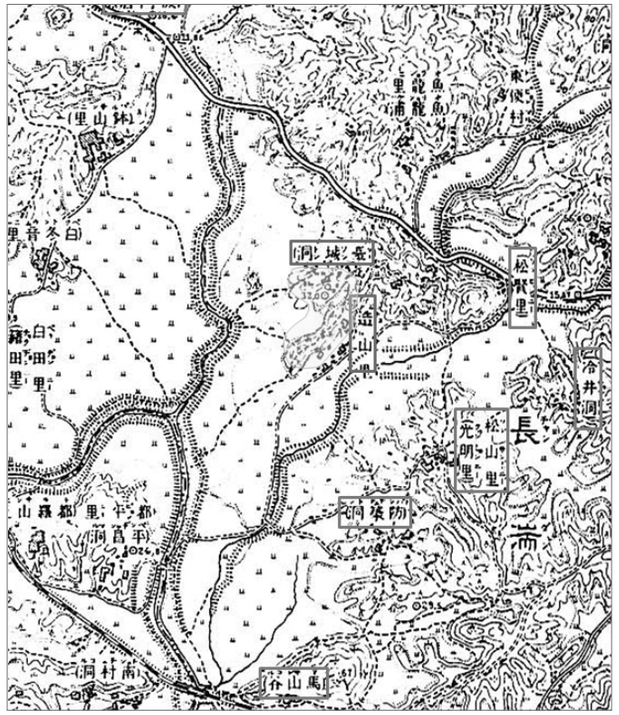
한다. 조산리의 서쪽 대덕산 발용산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하천은 분지천, 판적천이라고 하는데, 마을의 서쪽에 위치하여 북에서 남으로 흐른다. 이 물은 개성에서 내려오는 사천과 합류하여 임진강으로 흘러간다.

대성동마을 주변으로는 이 지역 중심 마을인 조산리가 있고, 이를 비롯한 구파발, 솔재, 초현장거리, 방축골, 찬우물 등이 있는데, 구파발은 초현장거리 남쪽에 있던 마을로 파발(把撥)이 있던 곳이라 하여 붙은 이름으로, 장이 섰다 하여 구파발 장터라고도 불렀다. 그 북쪽의 초현장거리는 조선시대에 초현참이 있었던 곳이라 전해지며, 찬우물은 마을의 차가운 우물에서 비롯되었다. 이밖에 이곳에는 갓굴재, 서낭당고개, 솔재, 성재 등의 고개가 있었고, 가마뚜들기, 굿논, 쉰배미, 장구배미, 재롱갯들 찬재 등의 들이 있었다. 마을 가운데에 삼신우물이라는 우물이 있는데, 전에 산신제를 지낼 때 여기서 물을 길어다 썼다고 한다.[83]

1911년에 작성된 『조선지지자료(朝鮮地誌資料)』[84]를 살펴보면, 진북면 조산리와 바로 인접한 송산리(松山里) 지명이 기록되어 있다. 이 주변에 산명(山名)은 기록된 바가

83) 한국땅이름학회, www.travelevent.net 참조.

84) 『조선지지자료(朝鮮地誌資料)』에는 100년전 사용되었던 순우리말 지명을 세밀하게 살필 수 있는 자료로, 당시의 지리정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2008년 경기문화재단에서 『경기 땅 이름의 참모습』이라는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경기문화재단, 『경기 땅 이름의 참모습』, 2008 참조.



1/50,000 지형도(1918년 제작)



널문다리(돌아오지 않는 다리)

없는 것으로 보아 이름 있는 큰 산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곡명(谷名)으로는 조산리의 발송곡(鉢松谷)과 송산리의 오산곡(烏山谷)이 기록되어 있다. 주요 고개(령치현명 嶺峙峴名)로는 조산리의 연봉현(蓮峰峴)과 송산리의 경시현(敬是峴), 굴암현(窟岩峴)이 기록되어 있다. 평야나 들판(야평명(野坪名))으로는 조산리에 단포평(短浦坪)과 방하평(方下坪)과 송산리에 빙시평(氷矢坪), 장안평(長安坪), 석우평(石隅坪)이 기록되어 있어 주변에 넓은 들이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강천명(江川名)으로는 조산리의 태성천(台城川), 방하천(方下川)과 송산리의 전초천(前峭川), 석우천(石隅川)이 있었던 것으로 나온다. 태성천은 분지천(판적천)을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른 하천의 경우 현재로서는 그 위치를 알기 어렵다. 한편, 동리촌명(洞里村名)에서는 조산리의 경우 태성동(台城洞)이 유일하나, 송산리에는 광명동(光明洞)을 비롯해 냉정동(冷井洞), 방축동(防築洞), 율천동(栗串洞), 마산동(馬山洞) 등이 기록되어 있어 조산리 보다 송산리에 많은 마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 송산리에는 『大東輿地圖』에서도 확인되는 초현참과 관계된 초현주막(招賢酒幕)이 기록되어 있고, 장안평보(長安坪洑)가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도 인근에 농업용 저수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대성동마을 주변 옛 지명(마을주민 김O래 씨 면담을 바탕으로)

우리 옛 땅이름과 조선지지에 기록된 이름을 비교해 살펴보면 우선 조산리에 있는 마을은 태성산 아래 대성동마을이 있고, 이 마을을 지나는 하천이 태성천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대부분은 조산리 남쪽에 있는 송산리에 속한 옛 지명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광명동이 송산리, 마산동이 구파발, 냉정동은 찬우물, 방축동은 방축골인 것으로 판단된다. 초현장거리는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에 표기된 초현참(招賢站) 주변으로 생각되는데, 이곳에 초현주막(招賢酒幕)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예전 송산리는 장단을 거쳐 개성으로 가는 의주길의 길목에 자리잡은 마을로 역참, 장터, 주막 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대성동마을은 의주길에서 서남쪽으로 들어와 자리잡고 있었다.

이러한 옛 지명들은 1916년 제작된 근현대지도에서도 확인된다. 우선, 지도의 중심에 조산리 대성동마을이 동쪽산에 기대어 서남향하여 자연스럽게 자리잡고 있고, 산너머에

표3. 대성동마을과 그 주변 옛 지명

지명	위치	내용	구분
널문다리	판문점 서쪽 북한과 연결되는 1번국도(의주길) 상에 위치한 다리(사천)	고지도에는 판문교 또는 판적교라는 지명이 보인다. 현재는 '돌아오지않는다리'라고 불리고 있다. 이 다리 남쪽은 '도끼만행사건(1978년 8월 18일)'이 발생한 곳이기도 하다.	다리
알미	판문점 남서쪽	예전에는 산골짜기였으나, 현재는 논과 밭이 있다. 지명유래는 알 수 없다.	논밭
초당골	판문점 남쪽	원래는 산과 밭이 있었다. 지명유래는 알 수 없다.	논밭
개발이	초당골 서쪽	원래 인삼밭이 있었다. 지명유래는 알 수 없다.	논밭
갓바위	초당골 동쪽	갓처럼 생긴 바위가 있어서 갓바위라고 한다. 예전에는 초가집 몇 채가 있었다.	바위
어룡리	갓바위 북쪽	널문리라고도 하며, 어룡골이라고도 한다. 예전에 마을이 있었다고 한다.	마을
공수골	초당골 남쪽	예전부터 논이 있던 자리다.	논밭
연당골	대성동마을 북동쪽 골짜기	예전 이곳에 인공연못이 있었다고 한다.	연못
돌다리	공수골과 연당골 사이에 논에 있던 돌다리	예전에 논을 건너는 돌다리가 있었다고 한다.	다리
복죽개	대성동초등학교 뒷산	학교 뒷산을 복죽개라 불렀다. 지명유래는 알 수 없다.	산
차돌베기	대성동 북쪽 낮은 산, 공회당 뒤쪽	김O래 씨 8대조 묘소가 있는 곳으로 예전에 이곳에 차돌이 많았다고 한다. 차돌을 부딪쳐 불꽃을 내어 불을 붙이기도 하였다.	산
성재(성째)	대성동마을 서쪽 사천변	태성을 이르는 지명으로 예전부터 마을에서 성재라 불렀다고 한다.	인공
구릉세이	태성 서쪽 분지천 주변의 구릉	지명유래는 알 수 없다.	
앞논	대성동마을 내부	개발되기 이전 마을의 중심(양지말, 응지말 사이)에 있던 논을 일컫는다.	논밭
처녀밭	대성동마을 서쪽 논	현재 김O수씨댁 앞을 처녀밭이라 했다고 한다. 지명유래는 알 수 없다.	논밭
대장말	현재 대성동교회 뒷편	대성동교회, 민정반 뒤편에 있던 작은 마을	마을
성황당	동네앞에서 대성동마을로 넘어오는 길목에 성황당나무가 있었다고 함	동네앞에서 대성동마을로 넘어오는 고갯마루(옛 대장말 인근)에 당나무가 있어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무속
당수	공회당 앞쪽, 국기게양대, 대성동교회에 당수가 있었다고 함	공회당 앞쪽에 참나무(현재는 부러져있음)가 있는데, 원래 마을 대동굿을 지낼 때 만신이 도가집에 들러서 굿을 한 다음 이곳에 와서 '조라수'를 받치고 대동굿을 시작했다고 함. 당수는 이곳 외에 국기게양대 인근, 대성동교회 인근에도 있었다고 함.	무속
동네앞	1번 국도에서 대성동 진입로 인근	지명유래는 알 수 없다.	마을
역구내	분지천과 사천이 만나는 인근	작은 내천을 이르는 말로 추정된다.	하천
광무성재	대성동 남쪽 구릉지	지명유래는 알 수 없다.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흔적이 있다.	마을
조산	대성동 남쪽 구릉지 건넌마을	조산리의 명칭이 유래된 마을로 대성동마을보다 훨씬 큰 마을이 있었던 곳이라 한다. 전형적인 배산임수 지형이다.	마을
신지미 (쉰지미)	조선 동쪽에 있는 북쪽으로 난 골짜기	지명유래는 알 수 없다.	논밭
우더미	신지미 북쪽 골짜기	지명유래는 알 수 없다.	논밭
간데미	우더미 남쪽 골짜기	지명유래는 알 수 없다.	논밭
군논	송현리 인근 논	어룡저수지 남쪽 1번국도변에 있는 논	논밭
송현리	판문점을 못간 1번 국도변	예전에 마을이 있었던 곳이라 한다. 소나무골짜기에서 송현이라는 지명이 유래된 것으로 추측된다.	마을
호릉골 (허릉골)	송현리 북쪽 골짜기	허씨들 묘소 5~6개소가 모여 있는 곳이라 하여 허릉골이라 했다고 한다.	묘소
남천말	호릉골 북쪽 마을터	예전에 마을이 있었다고 한다.	마을
김천말 (금천말)	대성저수지에 있던 마을	예전에 마을이 있었다고 한다.	마을
백학동	김천말 동쪽에 있는 산	'백학산'이라고 불린다.	산
냉정리	김천말 남쪽	냉정리 '윗샘뜰'에는 찬우물이 있었다고 한다. 인근에 '아랫샘뜰'도 있다.	마을
쿵쿵바위	냉정리 남쪽에 있던 바위	사람이 올라가 뛰면 '쿵쿵' 울리는 바위가 있었다. 미군들이 없애버렸다고 한다.	바위
굉메 (송산리, 광명리)	조산리 남쪽에 위치한 마을	굉메라고 하는데, 이곳에는 1945년경 설립된 '광명공립국민학교'가 있었다고 한다.	마을
화성골	굉메 남쪽에 있는 골짜기	지명유래는 알 수 없다.	–
광청웅개	굉메에 있던 샘터	한국전쟁 전 이곳 샘에서는 물이 마르지 않았다고 한다. 겨울에도 따뜻한 김이 날 정도로 물이 좋았다고 한다. 가물치를 잡거나, 아낙네들이 빨래터 등으로 이용했다고 한다. 대성동 종합개발 시 없어졌다.	샘터
돌모루	방축동 북쪽	돌이 많이 나서 돌모루라고 한 것 같다.	–
미포	돌모루 남쪽	비가 오면 물이 차는 곳을 미포라 했다.	–
방축골 (방축동)	조산리 남쪽	사천변으로 방축이 있어서 방축골이라 불려진 것으로 추측된다. 마을이 있었다.	마을

는 장단에서 개성으로 향하는 의주길이 표시되어 있다.(의주길 위에 송현리라 표기되어 있음) 그 남쪽으로 송산리(광명리), 냉정동(찬우물), 방축동, 마산동 등이 넓은 범위에 표기되어 있어 조산리에 비해 매우 넓은 지역이 송산리에 포함됨을 알 수 있다. 조산리 북쪽으로는 분지천을 건넌 곳에 판문점이 표시되어 있어 지금의 판문점과는 그 위치가 다르다.

마지막으로 대성동마을 주민 인터뷰를 통해 파악한 마을 지명은 다음과 같다. 인터뷰는 2014년 8월 13일(수) 마을회관에서 진행하였으며, 이 마을 지명 유래를 많이 알고 있는 김O래 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지명은 크게 산, 바위, 연못 등 자연지명과, 논, 밭, 다리, 묘소 등의 인공지명, 그리고

마을지명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주변지명을 살펴본 결과 한국전쟁 이전 이곳 일대에는 전통적인 자연마을이 곳곳에 산재해 있었고, 여러 가지 자연지형지물에 그 명칭이 부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인근에서 가장 큰 마을로는 '조산'을 들 수 있으며, 굉메(송산리 또는 광명리)는 1945년경 설립된 '광명공립국민학교'가 있을 정도로 큰 마을이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어룡리, 남천말, 김천말, 냉정리, 방축동 등에도 작은 마을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자연지형지물에서 유래한 지명으로는 '갓바위(갓처럼 생긴 바위)', '쿵쿵바위(쿵쿵소리 나는 바위)', '광청웅개(샘)', '연당골(연못)', '구릉세이', '미포', '돌모루' 등이 있고, 주변 산이나 구릉지, 하천 등에도 그 명칭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대성동초등학교 뒷산을 '복죽개', 공회당 뒤쪽 산을 '차돌베기'[85], '구릉세이(태성 서쪽 분지천 주변 구릉)', '역구내(분지천과 사천이 만나는 인근)' 등이 있다. 대성동 주변의 논과 밭 등에도 각각의 이름이 있었다고 한다. '알미', '초당골', '개발이', '공수골', '우더미', '간데미' 등 그 수만 해도 10개소에 달한다. 이렇듯 대성동마을과 그 주변의 지형지물, 인공물, 경작지 등 거의 대부분에 그 명칭이 부여되어 예전 전통마을의 지명체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3) 대성동마을의 주요시설

(1) 마을 주변 주요시설

대성동 '자유의 마을'은 군사분계선 안에 위치해 있는 마을로, 분단을 기점으로 주변의 주요도시 및 시설과의 관계에서 큰 변화를 겪었다. 본 절에서는 대성동마을 주변의 주요도시와 시설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① 개성시

대성동마을이 있는 조산리는 예로부터 분지천을 경계로 개성부에 접한 마을이었다. 6·25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대성동에서 가장 가까운 대도시는 개성(송도)으로 대성동과는 동일 생활권이자 문화권을 형성해왔다. 대성동마을이 장단에서 개성으로 가는 의주길

85) 차돌이 많아 붙여진 이름이다. 차돌을 부딪쳐 불꽃을 내어 불을 붙이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곳에는 김O래 씨의 8대조 묘소가 있다고 한다.


1900년대 초반 개성 남대문 일대 도심풍경(출처:『조선고적도보』)


최근 개성도심풍경(출처:구글어스 사진자료)

상에 위치한 주요 교통거점(초현참, 초현주막)이어서 개성으로의 왕래가 용이하였던 것이다. 개성은 마을 서쪽으로 직선거리 11k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한나절이면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마을 사람들 증언에 따르면 분단 이전까지만 해도 마을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개성까지 장을 보러 다녀오기도 하였으며, 개성에 장이 들어서면 농산물 등을 내다 팔기도 했다고 한다.

직선거리로 20km나 떨어져 있고, 임진강을 건너야 당도할 수 있는 파주시보다 개성으로 가는 것이 훨씬 용이했을 것이다. 그러나 분단 이후 대성동마을 주민들의 생활권은 개성에서 파주시나, 문산읍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파주시 버스터미널에서 대성동마을까지 버스를 타고 오고갈 수 있다.

② 개성공단

대성동마을 서남쪽 약 4km 지점에는 개성공단이 들어서 있다. 개성공단은 분단을 딛고 우리민족이 공동으로 번영해 나아가기 위한 상징적인 장소이다. 대성동마을에서는 이러한 개성공단 전체 모습이 보일 정도로 가까운 위치에 있다.


개성공단 전경

개성공단은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교류협력의 하나로 2000년 8월 9일 남쪽의 현대 아산과 북쪽의 아태, 민경련간 '개

성공업지구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 체결이 공단 조성의 단초가 되었다. 그 후 2003년 6월 개성공단 착공식, 2004년 6월 시범단지 2만 8천평 부지조성, 2004년 10월에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사무소를 개소하였고, 2007년 6월에는 1단계 2차 분양업체를 선정하였다. 2007년 10월에는 1단계 기반시설 준공이 있었고, 이후 점차 확대·발전하였으며, 2010년 9월에는 입주기업 생산액이 10억 달러를 돌파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2012년 1월에는 북측 근로자가 5만명을 돌파하였다.[86] 먼 훗날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개성공단이 확대되면 인접하고 있는 대성동과 기정동마을도 평화와 상생의 마을로 거듭날 것이라 기대한다.

③ 기정동마을


대성동 건너편 기정동 '평화의 마을' 전경

기정동마을은 대성동마을과 함께 대한민국 분단 현실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마을이 되었다. 인접한 이웃마을인 두 마을은 마을 사이에 넓은 곡창지대를 두고 있다. 현재는 사천(沙川)을 따라 형성된 경계로 가로막혀 있지만 예전에는 마을간 교류가 많이 있었다고 한다. 두 마을은 불과 1.8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도 60년간 왕래를 전혀 못하고 있다.

현재 기정동마을 역시 대성동마을과 마찬가지로 1953년 7월 정전협정을 체결할 당시, '남북 비무장지대에 각각 1곳씩 마을은 둔다.'는 규정에 따라 조성됐다. 북한에서 유일하게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민간인 거주지인 것이다. 대성동마을에 100m 높이의 국기게양대가 있듯이 기정동마을에는 165m에 이르는 인공기게양대가 있는데, 서로 마주보고 있어 분단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④ 판문점

대성동마을에서 북쪽으로 1.5km 지점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판문점이 위치해 있다. 판문점은 남북한의 비무장지대에 있어 주로 회담이 개최되는 건물을 포함한 그 주변 장소를 일컫는다. 하지만 6·25전쟁 이전에는 이곳에도 전통마을이 있었다.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이 지역은 개성부(開城府) 판문평(板門平)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이 부근에 널문다리(板門橋)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설과 이 마을에 널판지로 만든 대문〔널문〕이 많았기 때문에 '널문리'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도 한다. 사람들은 이 널판지 다리를 판문교(板門橋)라고 불렀는데 『개성군면지』와 고지도에도 표기되어 있어 예로부터 개성으로 통하는 주요 관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6·25전쟁 이전 널문리는 장단군 진서면 선적리(仙跡里)와 개풍군(開豊郡) 봉동면(鳳東面) 침송리(針松里)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농촌마을이었다.


판문점 전경(출처:구글어스 사진자료)



도라전망대 전경(출처:구글어스 사진자료)

이곳이 국제적인 이목을 끌게 된 것은 한국전쟁 휴전회담 이후이다. 북한이 1951년 10월 7일 회담장소로 널문리 주막마을을 제의하였고, 국제연합측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회담장소가 이곳에 차려지게 된 것이라 한다. 이후 이곳에서는 휴전회담 본회의 159회를 비롯하여 총 765회에 이르는 각종 회의를 거쳐 드디어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휴전협정이 조인되었다. 판문점의 위치는 서울 서북쪽 48㎞, 개성 동쪽 10㎞ 지점이다. 판문점 한복판에는 휴전선이 가로지르고 있다.[87]

⑤ 도라전망대

도라전망대는 대성동마을 동남쪽 4.3km 지점에 위치한 전망대로 도라산 정상이자 서부전선 군사분계선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다. 송악산 OP(관측소)가 폐쇄된 후 1986년 사업비 약 3억 원을 들여 국방부가 설치한 통일안보관광지로 1987년 1월부터 일반인에게

86) 「개성공단」,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조.

87) 「판문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조.

공개되었다. 건물총면적은 803.31㎡로, 관람석(500석)·VIP실·상황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망원경 수십 대가 설치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개성공단과 개성시 변두리의 모습을 선명하게 볼 수 있으며, 그 밖에 개성의 송악산과 금암골(협동농장), 북한 선전마을인 기정동마을, 김일성 동상 등을 볼 수 있다.

이 지역은 민간인통제지역으로 승용차의 출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관람을 원하면 파주시의 'DMZ 안보연계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임진각관광지 또는 도라산역에서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관람이 이루어지는데 여행코스는 도라전망대-제3땅굴-도라산역-통일촌마을로 구성된다.

⑥ 도라산역과 남측CIQ(남북출입사무소)



남북출입사무소(출처:구글어스 사진자료)



통일촌 장단콩마을

대성동마을 동남쪽 5.3km지점에 경의선 도라산역과 남측CIQ가 위치해 있다. 도라산역은 경의선 최북단에 위치한 역으로, 행정구역상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노상리에 속한다.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에서 700여m 떨어져있으며, 평양까지 205km, 서울까지 56km 거리에 있다. 이 역은 당초 DMZ에 복원하기로 했던 장단역이 취소되면서 남쪽의 문산역과 북쪽의 봉동역 사이에 신설되었다. 2000년 9월 남북합의로 시작된 경의선 복원사업으로 2001년 4월 착공, 2002년 3월 말 완공되었다. 남북출입사무소는 대한민국과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간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통일부 소속기관이다. 개성공단으로 가는 남측CIQ는 도라산역과 인접해 있다.

⑦ 통일촌마을

군사분계선 남쪽 대성동마을과 가장 가까이에 인접한 마을로 대성동 주민들과도 교류가 활발하다. DMZ 밖에 위치해 있어 UN군 관할 하에 있는 대성동마을에 비해 통일촌마을 출입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대성동 '자유의 마을' 주변의 주요 도시와 시설

1970년대 초부터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로 통일촌마을이 조성되었는데, 이 지역에 1백만㎡의 재배면적을 확보하여 콩농사를 짓고, 전통장류 가공시설을 운영하면서 장단콩을 지역 특산물로 육성하고 있다. 해마다 11월에는 임진각관광지 일원에서 '파주장단콩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2012~2013년에는 「2012 DMZ지방브랜드세계화시범사업」을 통해 마을주민이 참여하는 마을박물관이 오픈되었고, 마을 전체는 에코뮤지엄으로 꾸며졌다. 최근 들어서는 수많은 국내·외 탐방객이 찾는 문화안보와 생태관광 마을로 거듭나고 있다. 대성동마을과 달리 군사분계선 바깥쪽에 위치해 있어 일반인과 관광객의 접근이 용이하여 마을 발전 여건에 있어 대성동마을에 비해 큰 장점이 있는 마을이다. 최근 통일촌은 안전행정부, 경기도, 파주시, 경기문화재단이 추진한 「2012년 DMZ지방브랜드세계화시범사업:경기도 파주 통일촌브랜드마을」을 통해 새단장 되었다.[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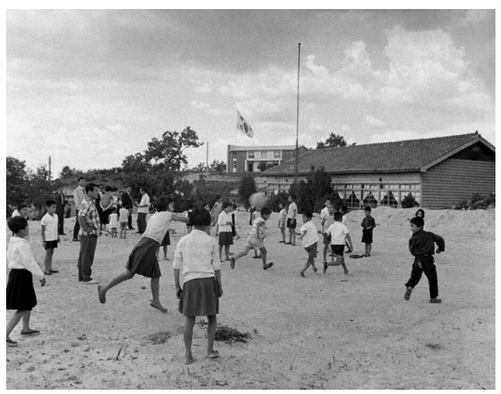
88) 경기문화재단, 『통일촌브랜드마을 육성사업 성과보고서』, 2013.
경기문화재단, 『통일촌마을조사보고서(통일촌사람들 그 삶의 이야기)』, 2013.

(2) 마을 내 주요시설

대성동마을은 우리나라 최북단 DMZ 내에 위치한 유일한 마을이다. 그 역사가 오래된 유서 깊은 마을인 만큼 전통적인 농촌마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을 것 같지만, 분단의 상황이 엄연한 만큼 일반적인 농촌마을의 모습과는 다른 독특함을 확인할 수 있다. 2차례에 걸친 종합개발사업 및 농지정리를 비롯한 마을현대화사업과 함께 DMZ 특수지역을 상징하는 민정반 사무실, 100m 높이의 국기게양대 등이 자리하고 있어 이색적인 농촌풍경을 만들고 있다.



1969년 제1회 대성동국민학교 졸업식



1968년 홍종철 공보부장관 시찰당시 국민학교 전경

① 대성동초등학교

대성동마을에 유일한 교육시설인 대성동초등학교는 마을의 초입에 자리 잡고 있다.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마을 안쪽에 해당하는 위치이다. 대성동초등학교는 6·25전쟁 이후 1954년 주민 자치로 운영되다가 1968년 5월8일에 대성동국민학교로 인가, 개교하였다. 1969년 첫 번째로 졸업식이 거행되었고, 지금까지(2014년 2월) 총 46회의 졸업식을 거치면서 많은 학생들을 배출하였다.

1983년 병설유치원 1학급을 인가받았으며, 1996년 3월 1일에 대성동초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교훈은 '생각은 깊게, 행동은 바르게, 항상 최선을 다하는 어린이가 되자'이며 교목은 은행나무, 교화는 개나리이다. 특기적성 교육의 일환으로 검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JSA 군인과 함께 영어공부를 하며, 컴퓨터자격증반도 운영하고 있다. 2006년에 영어교과 특성화 학교로 지정되어 '영어로 여는 아침' 활동과 '영어체험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초등학교는 크게 4차례의 변화를 거치게 되는데, 첫 번째는 1968년도 당시 대성동국민학교의 모습이다. 목조건물로 지붕은 박공지붕이며, 외장은 일식 비닐판벽으로 마감하였다. 이후 1972년 6실 규모로 국민학교가 신축되면서 기존 목조 건물은 '태권도 연무관 자유의 마을도장'으로 이용된다. 1975년 촬영된 사진에는 2층 규모의 현관과 측면으로 4개 교실이 증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1980년 「대성동 2차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학교건물은 철거하고, 학교 본관을 새롭게 신축하였다. 이때 본관 건물 뿐 만 아니라 학교주변의 조경, 담장, 식재공사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1972년 대성동국민학교 신축



1975년 대성동국민학교 전경(증축)



1980년 신축

대성동초등학교 변화 과정

② 국내 최고(最高)의 국기게양대



공회당 옆 국기게양대(1975년, 출처:국가기록원)



대성동마을 국기게양대

현재 국기게양대(2014)

대성동마을 민정반 사무실 옆에는 국내 최고 높이의 국기 게양대가 자리잡고 있다. 원래는 대성동 공회당 언덕 위에 위치해 있었으나, 1980년 현재의 위치로 옮겨 더 높게 설치한 것이라 한다. 게양대 높이는 100m에 20cm 모자란 99.80m이고, 게양대 높이에 걸맞게 태극기의 크기는 가로 18m, 세로 12m에 달한다고 한다. 1979년부터 1983년 사이에 이루어진 대성동 제2차 종합개발 공사 시 세워졌던 국기게양대는 당초 85m로 설계되었으나 국기봉이 짧고 국기 게양 및 하기 시에 국기가 손상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고 한다. 이에 1981년 12월부터 1982년 1월에 걸쳐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국기봉의 높이를 15m 더 높여 보강하여 현재의 높이인 100m가 된 것이라 한다.

이 국기게양대는 분단의 아픔을 여실히 보여주는 시설물로 북한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높게 설치한 것이다. 이에 맞서 군사분계선 너머에는 북한의 인공기가 마주보고 있는데, 북한 기정동 인공기 게양대도 원래는 80m 남짓이었으나, 이를 제거하고 약 165m 높이로 다시 만들어 세웠다고 한다. 이는 게양대 높이에서도 남북의 자존심 대결을 엿볼 수 있다.

③ 유엔군사령부 소속 민정반사무실[89]

마을 중심에는 마을주민들의 안전 및 구호를 위해 마을에 상주하고 있는 유엔군사령부 소속 민정반 사무실이 위치해 있다. 민정반은 1963년부터 미군 제1기갑사단 민사처에 소속된 민정반이 마을에 상주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이 사무실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365일 상주하고 있으며, 외부인이 마을에 출입하거나 주민 영농 작업 시에 에스코트 하는 등 마을주민의 안전을 위한 업무와 대성동마을에 대한 제반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민사행정 뿐만 아니라 휴전협정을 수행하며, 마을내부 경비, 마을 주민의 복지, 그리고 구호업무 등에 대한 제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금도 대성동마을을 출입하려면 반드시 민정반에 신고해야 한다. 원래 대성동마을의 민정반은 북한과 가장 가까운(지금의 팔각정 부근)에 있었으나 현재는 마을의 가장 안쪽에 자리 잡고 있다. 이 역시 1980년 종합개발 당시 현재의 위치로 옮겼다. 민정반은 비무장지대 군사시설로 사진촬영이 금지되어 있다.

④ 대성동마을회관



현 마을회관

대성동마을회관은 1997년 신축되었는데, 마을식당과 구판장, 노인정, 회의실과 롯데시네마(영화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재까지 마을주민의 편의를 제공해주고 있다. 그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구조이다. 마을회관 시설 중 꼭 가 보아야할 곳은 옥상에 위치한 관망대이다. 이곳에서는 서쪽으로 개성공단과 기정동마을, 북서쪽으로는 개성의 송악산이 바라다 보인다.

89) 민정경찰(DMZ police)은 본래 정전협정(Armistice Agreement, 1953년 7월 27일)으로 설치된 비무장지대(DMZ)의 출입을 허가받고, 비무장지대 내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의 집행을 위해 예정된 인원을 지칭한다.

⑤ 팔각정



대성동 팔각정(1980년 완공)

1980년 12월 18일 파주시에서 방문객들을 위해 설치한 팔각정은 마을에서 가장 북한과 가까운 곳에 설치된 시설물이다. 그 위치는 대성동마을 명칭의 근거가 되는 대성(台城)[90] 정 중앙에 위치해 있다. 망원경 없이 북한 전경(기정동마을, 개성공단, 개성 송악산 등)을 볼 수 있는 2층 규모의 정자(亭子) 형태의 건물이다. 2010년에는 총격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2층 북측 방향 전면부 3개면에 방탄유리를 설치하였다. 방탄유리와 이를 통해 바라다 보이는 희뿌연 북한의 모습은 분단의 실상을 실감하게 한다.

한편, 팔각정은 1993년 5월 13일 제주도 대성동마을과 자매결연이 맺어진 곳이기도 한데, 서부전선 최북단인 파주 대성동마을과 우리나라 최남단인 제주도 남원읍 대성동마을이 이름이 같다는 인연으로 자매결연 하였다고 한다. 양쪽 마을 이장·주민 등 40여명과 파주군 내 기관장, 휴전감시위원단 파견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결연식에서는 두 마을 대표들이 지역 특산물을 서로 교환하고, 한글로 마을명이 같은 인연을 기념하며 서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기로 다짐했다고 한다.[91]

90) 옛 토성으로 언제 축조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그 형태와 규모로 보았을 때 삼국시대 토성이 아닌가 추측된다.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소규모 토성이다. 마을 주민들 증언에 따르면 주변에서 기와 등이 많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91) 경향신문 1993년 5월 13일 기사 참조.

⑥ 공회당

대성동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의 하나로 공회당 '자유의 집'을 들 수 있다. 공회당은 마을의 동쪽 낮은 산자락 정상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지금은 수목이 우거져 전망이 그리 좋지 않지만, 건립 당시만 해도 마을의 전체가 내려다보이는 경관이 좋은 자리였다. 새로운 마을회관이 들어서기 전까지 이곳은 마을주민의 집회·회합의 장소로 사용되었다. 대성동국민학교 학생들의 졸업식이나, 정부의 위문품지급(추석선물, 연말 위문품 전달) 등 거의 모든 마을행사를 치른 장소이자 대성동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 유서 깊은 장소이자,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건물이라고 하겠다.

공회당(자유의 집)이 지어지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1959년 유엔사가 그 해 크리스마스 전까지 낙후된 자유의 마을을 근대화시킨다는 계획을 세웠고 이때 마을주민의 유일한 회합장소로서의 공회당도 건립되었다고 한다. 이때는 공회당 뿐 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알선으로 미군이 기증한 발전기를 도입하였고, 근대식 문화 주택과 동사무실, 의무실, 목욕탕 등의 공공시설도 세워졌다고 한다.[92]

공회당은 1959년 신축된 이후 1980년 근 20년 동안 대부분의 마을행사를 개최할 만큼 그 기능과 활용도가 높았으나, 1980년 대성동초등학교 졸업식을 끝으로 새롭게 단장한 마을회관, 대성동초등학교 등 공공시설 등으로 회합장소가 변경되면서 점차 그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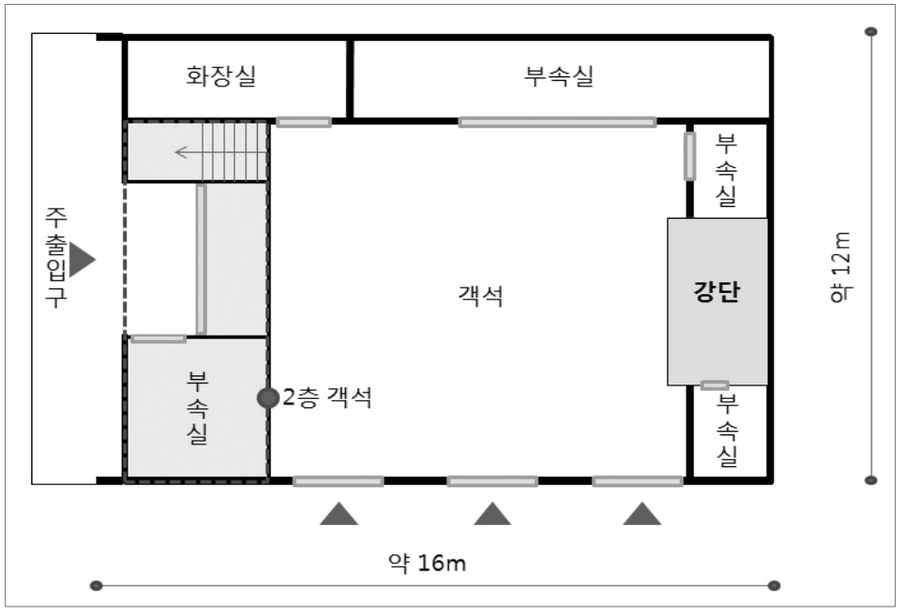
공회당 '자유의 집' 전경(출처:윤주영 문공부장관 방문기념, 1972년 촬영)



공회당 '자유의 집' 실내(출처:제3회 대성동 국민학교 졸업식, 1971년 촬영)

공회당 '자유의 집' 마을행사 모습

92) 시멘트 블록으로 지은 매우 단순한 집으로 판단된다.



대성동 공회당 '자유의 집' 약실측 평면도



공회당 '자유의 집' 외관(1974)

을 잃어가 지금은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다.[93] 공회당(자유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서의 상징성, 마을 전체가 내려다보이는 위치에 건립한 장소적 위계성과 더불어 건축학적으로도 주목되는 점이 있다. 우선 1959년 고립된 농촌마을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최신 재료를 사용한 최신 건물이었다는 것이다. 철근과 콘크리트, 시멘트블록과 붉은 벽돌 등 당시로서는 흔히 사용하기 어려운 고급 건축재료였고, 건물의 외관 역시 세련된 모습이다.

건축디자인 측면에서 보면 공회당 건물은 전형적인 모더니즘 건축으로 분류할 수

93) 방치되어 있는 공회당 건물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을주민이 상당히 많았고, 개보수를 통해 재활용하여 마을 기념관이나 박물관, 홍보센터 등으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상당수 있었다. 공회당 건물은 대성동마을에서는 상징적인 건물이고, 마을주민들에게는 많은 추억이 배어 있는 기억의 공간으로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 현재는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며,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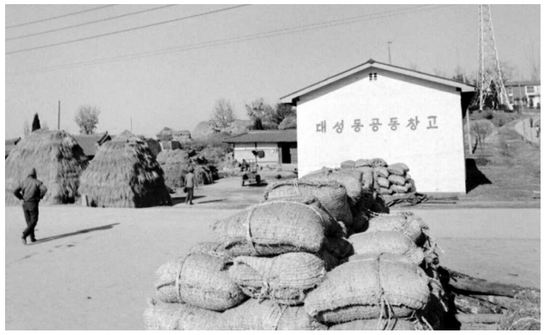

공회당(자유의 집) 정면 및 내부모습

있다. 한국에서의 모더니즘 건축의 본격적인 시작은 한국전쟁 이후인데, 공회당 역시 한국전쟁 직후 건립된 지극히 모던한 디자인의 건축물로 건축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94] 자세히 살펴보면 입면 디자인에 있어 각각 다른 재료(시멘트블록, 모르타르미장, 붉은 벽돌)를 적절히 사용하여 세련한 디자인을 완성시켰다. 입면을 한정짓는 기둥과 지붕선 안에서 서로 다른 재료를 통한 면분할(주출입구 오른쪽면은 시멘트블록을 옆으로 쌓아 촘촘한 개구부가 군집을 이루는 반개방적인 입면으로 디자인하였음), 보이드와 솔리드, 크기가 서로 다른 리듬감 있는 개구부 등은 단순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잘 보여주고 있다.

평면계획은 집회와 회합의 장소(강당)로서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평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쪽의 주출입구를 두고 건물의 측면으로 부출입구를 3개소 두었으며, 주출입구 위로는 2층으로 설계하여 객석을 만들어 공간의 효율을 높였으며, 출입구 좌우로 화장실, 계단실, 부속실 등을 배치하였다. 강당 부분은 높은 천장을 두어 회합장소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소화하고 있으며, 무대의 좌우와 부출입구의 반대쪽(산과 인접하여 접근로가 없는 부분)으로는 부속실을 객석과 나란히 배치하여 기능을 만족시키고 있다.[95] 답사를 통해 전반적으로 외관 등을 살펴 본 결과 아직까지 구조체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나, 지붕과 내부시설은 훼손이 심각한 상태이며, 주변의 식목 등이 주변 시야를 가릴 뿐 만 아니라 건물의 외벽에 손상을 가하고 있어 빠른 시일에 잡목 제거가 필요한 실정이다. 대성동 마을에서 충분히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몇 남지 않은 건물로 조속히 보존대책과 활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94) 비슷한 시기에 건립된 모더니즘 건축으로 수원시청사 건물을 들 수 있다.
95) 기록에 남아 있지 않아 확실치 않지만, 대부분의 DMZ 주요 군사시설물이 그렇듯 이 건물 역시 미군들(미군 건축설계전공자)에 의해 설계된 것으로 추측된다.

⑦ 마을창고



대성동마을창고 모습(1977년 추곡수매)

여느 농촌마을이 그렇듯이 대성동마을 역시 대대로 농업이 마을주민들의 주요 생업이었다. 1970년대 마을종합개발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잘사는 농촌마을을 조성하는 것이 대성동마을 조성의 목적이었다. 이러한 농촌마을에서는 창고나 곳간과 같은 저장시설이 필요한데, 예전에는 주로 개인별로 주택의 부속창고나 곳간을 이용하였으나, 현재는 마을 곳곳에 대형 영농창고가 설치되어 있어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다. 마을에 창고가 처음 지어진 것은 1972년 대성동개발사업 때의 일이다. 현재까지 이때 지어진 마을창고가 마을의 한쪽에 자리잡고 있는데, 시멘트블록조 위에 목조트러스를 얹고 그 위에 슬레이트 맞배지붕을 얹은 모습으로 단순한 모습이다. 당시까지만 해도 대성동마을에서 유일한 대형 마을창고였다. 물론 1972년 종합개발 당시 문화주택과 함께 집집마다 개별창고를 새롭게 지어주었으나, 마을 공용의 경운기 등의 농기계를 보관하거나, 농사의 규모가 커지면서 마을 공동창고가 요구되었던 것이다.

1980년 대성동종합개발사업으로 인해 옛 건물은 대부분 사라졌으나, 1959년 공회당 '자유의 집'과 1972년 마을창고만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 중에 하나로 남아 있다. 단순한 외관과 실내공간이지만, 지금은 찾아보기 어려운 트러스지붕구조와 40년 가까운 역사의 흔적과 기억을 담고 있는 건물로 충분히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대성동마을창고 외관과 실내(2014)



대성동마을 주요시설 위치도

4) 마을조직

대성동마을에는 마을의 대소사에 관여하는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가 있고 상장례 때 서로 돕기 위해 구성한 상조회, 생산활동을 하며 서로 돕는 생업조직 등의 마을조직이 있다. 혼자 살아갈 수 없는 마을생활에서 마을조직은 주민간의 상부상조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1) 노인회



노인회 단체관광사진(제주도/김O래 보유사진)



노인회 복놀이(2014/박세운 제공사진)

대성동마을에서 노인회는 2001년부터 시작되었다. 가입조건은 65세 이상이며 연회비 2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가입된 회원수는 39명이고 노인회의 회장은 김O규 씨, 총무는 박O학 씨가 맡고 있다. 회장의 임기는 2년이고 특별한 요건 없이 연령순으로 회장을 맡아 하고 있다. 노인회에 준회원이 있는데 준회원을 제외하면 노인회 인원이 별로 없다. 50세가 넘은 사람들은 준회원으로 등록시켜서 지원을 받아 여행을 다닐 수 있다. 65세 이상은 20명이 채 되지 않는다.

노인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중복에 모여 음식을 해먹는 '복놀이'와 봄에 회원들과 함께 가는 '단체관광'이 있으며 연말결산은 12월 20일 경에 한다.

노인회에서 가는 관광은 일 년에 1번 봄에 간다. 작년 봄에는 양양과 속초로 여행을 갔다. 여행은 주로 1박2일로 가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길게 가지 않는다. 후방에는 인원이 많아서 지원금이 많이 나오지만 여기는 인원이 없어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없다.

복놀이는 초복, 중복, 말복 중 하루를 정해 음식을 차려 먹는데 중복에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추석 때도 모여서 술과 음식을 나누어 먹는데 마을회관에 모여서 닭 등을 먹는다. 이러한 모임에 필요한 음식은 부녀회에서 도와주는데 노인회에서 일정금액을 주거나 재료를 사다 주면 부녀회에서 음식을 해주는 방식이다.

노인회 회원 중 여성회원들끼리는 1달에 1번, 1인당 1만원씩 걷어서 마을 밖으로 점심을 먹으러 나가기도 한다. 겨울에는 경로당에 모여서 여성회원들 끼리 밥을 해먹지만 그 이외의 계절에는 농사일이 바빠 오후 3-4시 경에 시간이 되는 회원들끼리 모여 이야기를 하며 휴식을 취한다.

노인회 회원들이 주로 모이는 장소는 마을회관으로 이전에는 회관 2층 이장실에 방이 2개로 나뉘어져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뉘어 모이셨는데 2층을 올라다니기가 쉽지 않아서 지금 회관 1층에 방 하나를 할머니들이 사용하시고 할아버지들은 회관 앞마당 가건물에 있는 방에서 모인다. 새로 짓는 노인회관은 단층으로 방을 두 개 만들어서 할머니와 할아버지 방으로 나누어 사용할 예정이다.

(2) 부녀회



마을 복놀이 음식을 준비하는 부녀회원들(박세운 제공사진)

현재 부녀회에 가입된 회원은 21명이고 부녀회의 회장은 신O식 씨, 부회장은 조O숙 씨, 김O영 씨가 총무를 맡고 있다. 회원 중 7명은 노인회원이자 부녀회원인 주민들이다. 2개월에 한 번씩 운영을 위한 회의를 하는데 낮시간은 바쁘기 때문에 저녁시간대로 회의일정을 맞춘다. 마을에 외부인이 들어와 식사를 해야 하는 경우 마을회관 1층에 있는 식당을 부녀회에서 운영하는데 마을 안에는 식당이 없기 때문에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공사가 길어지는 경우에도 식당을 운영하여 인부들의 점심을 해주기도 한다. 이 밖에도 재활용품을 판매하거나 행사 찬조금 등으로 수익을 얻는데 마을에 일정액을 사용료 명목으로 지불하고 남은 수익을 연말에 결산한다. 부녀회비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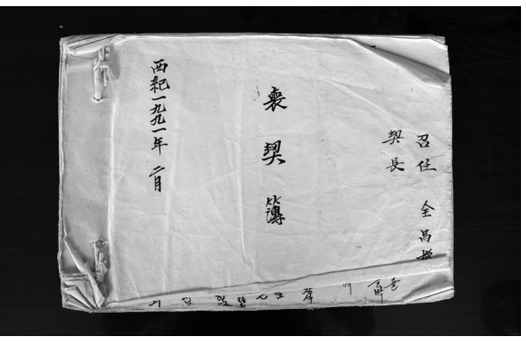
(3) 청년회



청년회 친목모임(박세운 제공사진)

현재 회원은 19명이며 가입을 위한 연령조건은 없다. 청년회 회장은 전O삼 씨이고 총무는 김O련 씨가 맡고 있다. 입회비나 회비는 없으며 공공비축미(米)의 입고와 출하 등 마을의 공동작업시 청년회에서 노력봉사를 하고 있다.

(4) 상조회



마을 상조회 기록문서(김O성 보유)

마을주민이 상을 당했을 경우 돕기 위해 조직된 것이다. 마을 주민들이 상을 당하면 함께 도와주고 밥값과 술값이라도 내자는 취지에서 만들었다. 40~50년 정도 유지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김O성 씨가 상조회 내역을 기록한 문서를 가지고 있다.

(5) 생업조직

① 맑은쌀지킴이와 판문점영농조합

논농사를 짓는 주민들끼리 만든 작목반이 2개 있다. 쌀과 관련해서는 맑은쌀 지킴이와 판문점영농조합이 있다. 주민들끼리는 작목반이라고 부르지만 정식 등록을 위해 조합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농협에서 지원 사업을 줄 때 개인에게는 주지 않기 때문에 조합을 만들어서 지원을 받는다. 작목반이나 법인조합을 만들어 실적을 올려놓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지원 사업을 준다. 판매도 공동으로 하는 것이 수월하다. 마을에서 논농사를 짓는 주민 전부가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출자해서 만든 것이다.

두 조직의 차이는 구성원이며 비슷한 연배끼리 모여서 만든 것이다. 맑은 쌀 지킴이는 4명, 판문점영농조합은 5명이 가입되어 있다. 판문점 영농조합의 대표는 김남석 씨이다.

② 대성동단지

파주시 장단콩 연구회에 16개의 단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성동단지가 포함된다. 파주시에 소속된 콩을 짓는 농가들이 읍면별로 나뉘어 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대성동 단지는 A단지와 B단지로 나누어지며 A단지 7가구, B단지 13가구로 총 20가구가 소속되어 있다. A단지와 B단지 각각 회장과 총무가 있으며 두 단지의 총괄은 김진웅 씨가 맡고 있다. 매년 11월에 열리는 장단콩축제 때 대성동에서 생산하여 판매되는 콩을 관리하기 때문에 축제 전까지는 축제에서 판매할 콩들을 함께 탈곡하고 선별한다. 축제기간 동안 대성동 부스를 운영하는 역할도 하는데 축제가 3일이면 하루는 A단지, 다른 하루는 B단지, 마지막 날은 A, B단지 사람들이 함께 나가서 파는 식이다.

단지에 소속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7~8가구 정도가 콩농사를 짓고 있다. 단지에 소속되어있지 않은 콩농가는 소속이었다가 나가신 분도 있고 농사규모가 작아서 단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가구들이 대부분이다. A단지가 B단지보다 먼저 콩농사를 하시던 분들이 많이 소속되어 있어서 A단지에 소속된 가구 수가 더 많았는데 나이가 많은 분들이 농사짓기가 점점 어려워지자 단지활동을 하지 않게 되었다.



마을회관 옆 '대성동맑은쌀지킴이' 사무실



사진 1. 대성동과 그 주변지역의 문화유적 분포지도



사진 2. 대성동 토성 전경

1-4 문화유적과 인물

1) 대성동마을과 그 주변지역의 문화유적

(1) 대성동 토성

- 소재지 :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 596~597번지
- 시　대 : 한성백제
- 규　모 :
  - 성곽내부 지름 : 76m 50cm, 성벽 내부 둘레 : 240m 21cm
  - 성곽외부 지름 : 76m 74cm, 성벽 외부 둘레 : 240m 96.36cm
  - 성벽 폭 : 12m, 높이 6m,
  - 성벽 동문 폭 : 4m 70cm, 서문 폭 7m
- 현　황 : 사진 2

대성동 토성(위도 37°56'32.58"N, 경도 126°40'25.25"E)은 마을에서 서쪽으로 약 200m 지점에 위치해 있고 토성지의 흔적이 있다[96]는 기록이 있을 뿐 정밀 조사되지 않았다. 토성지 안에는 1980년대에 대성동마을을 새로 조성하면서 팔각정을 축조하였다. 토성의 서쪽에는 사천이 해자처럼 흐르고 있고 사천을 건너면 남북한 군사분계선이며 그 너머는 개성이다. 대성동마을은 송산리와 개성군 동면 백동리의 일부가 병합되어 만들어졌는데 사철 내 개울 모래가 쌓여 산을 만들었다고 하여 '조산리(造山里)' 라는 지명으로 호칭하였다고 한다. 또한 대성동 지역은 대덕산 발용산에서 흐르는 냇물이 늘무리(板門里) 다리 밑으로 흘러 송도에서 흐르는 냇물이 합류하여 사천이 되었는데 송도 말 대홍수로 개울 모래가 내려와 부락 앞의 개울 변에 높은 산이 성같이 둘러싸였다고 하여 대성동(臺城洞)이라 불렀다[97]고 한다. 이와 같은 전설로 미루어 볼 때 '조산리'와 '대성동'이라는 지명은 모두 토성과 관련되어 호칭된 것이다. 토성은 토루와 문지가 잘 남아 있고 비록 작은 규모의 평지성이지만 백제가 고구려와 대치하던 4세기에서 5세기 대 근초고왕의 북진정책 때 전략적 요충지에 축조한 성으로 생각된다.

96) 주 50 앞의 책, p.247.
97) 주 6 앞의 책, p.192.

(2) 대성동 유물산포지 1

▫ 소재지 :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 222~224번지 일대
▫ 시　대 : 고려~근대
▫ 현　황 : 사진 3

대성동 유물산포지 1(위도 37°56'13.49"N, 경도 126°40'36.92"E)은 현재 대성동마을에서 서남쪽으로 난 길을 따라 약 500m 정도 가면 동북쪽 구릉 사면에 밭이 형성되어 있다. 이 밭 사이에 청동제 용문 청동 재떨이, 조선시대 토기, 기와, 도자기 편들이 산포되어 있다. 마을의 주민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일대에 기와 가마터가 있었다고 전한다. 구 대성동마을은 이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고 이 지역에서 현재의 대성동마을로 이주하였다고 한다.



사진 3. 대성동 유물산포지 1 전경

▫ 유　물 : 사진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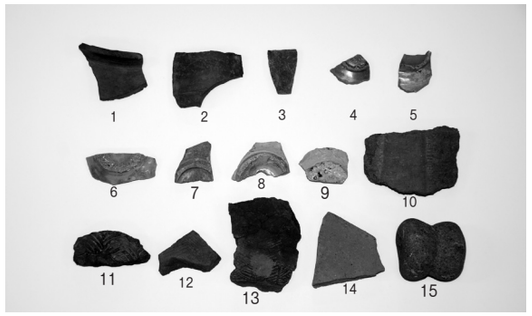


사진 4. 대성동 유물산포지 1 출토
토기, 도자기, 기와, 방추차



사진 5. 대성동 유물산포지 1 출토 청동제재떨이

1. 토기

유물 번호	색 조			태토	경도	두께 (cm)	설 명
	외면	속심	내면				
1	회흑	적회	회청	조질	경질	0.7 ~ 0.9	회청색경질토기 경부 편으로 내·외면에 격자 타날 한 후 물레로 돌렸다. 태토는 일부 기포가 형성되어 있고 운모가 섞여 있으며 잘 정선되었다. 굽의 지름은 4.6cm이다.
2	회청	적회	회청	조질	경질	0.9 ~ 1.0	회청색경질토기 몸통 편으로 내·외면에 격자 타날 한 후 물레로 돌렸다. 내면에는 대나무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물레로 돌린 흔적이 선명하게 나 있다. 태토는 일부 기포가 형성되어 있고 운모와 고운 모래가 섞여 있다.
3	회청	적회	회청	조질	경질	0.7	회청색경질토기 몸통 편으로 내면에 격자 타날 한 후 물레로 돌렸고 외면은 물손질 흔적이 있다. 태토는 운모가 섞여 있고 잘 정선되었다.

2. 도자기

유물 번호	색 조			태토	유태색	두께 (cm)	설 명
	외면	속심	내면				
4	청회	회청	청회	니질	청 회색	0.5 ~ 0.7	청자 저부 편으로 내·외면의 유약에 빙열이 나 있고 전면적으로 고르게 잘 발라져 있다. 굽과 내면에 모래 받침이 붙어 있다.
5	회	적회	회	니질	회색	0.59 ~ 0.7	분청사기 저부 편으로 태토는 고운 점토로 잘 정선되었다. 유약은 순 회색을 띠며 저부 내부를 제외하고 고르게 잘 발라져 있다. 저부의 직경은 4.7cm이며 내부에 모래 받침이 묻어 있다.

유물 번호	색 조			태토	유태색	두께 (cm)	설 명
	외면	속심	내면				
6	적회	적회	회백	니질	회백	0.5 ~ 0.8	백자 저부 편으로 외면에 유약이 벗겨졌고 내면의 유약에 빙렬이 관찰된다. 외면의 굽 외부에는 음각선이 둘러져 있다. 죽절굽이며 굽의 지름은 6cm이다.
7	회	회백	회	니질	회	0.35 ~ 5.7	백자 저부 편으로 내·외면에 전면적으로 유약이 잘 시유되었다. 굽바닥과 내저 원각에 모래 받침이 묻어있다. 굽의 지름은 5.4cm이며 기형 조성 시 물레의 흔적이 선명하게 나 있다.
8	회백	백	회백	니질	회백	0.6 ~ 1.1	백자 저부 편으로 내·외면에 전면적으로 유약이 잘 시유되었다. 굽바닥과 내저 원각에 모래 받침이 묻어있다. 외면의 굽 외부에는 음각선이 둘러져 있다. 굽의 지름은 6cm이며 기형 조성 시 물레의 흔적이 선명하게 나 있다.
9	회백	백	회백	니질	회백	0.71 ~ 1.5	백자 저부 편으로 내·외면에 전면적으로 유약이 잘 시유되었다. 굽바닥과 내저 원각에 모래 받침이 묻어있다. 굽은 평저이며 지름은 4.6cm이며 기형 조성 시 물레의 흔적이 선명하게 나 있다.

3. 기와

유물 번호	색 조			경도	두께 (cm)	설 명
	외면	속심	내면			
10	회청	회청	회청	경질	2.0 ~ 2.2	회청색경질선문수키와 편으로 태토는 모래와 운모가 포함되어 있고 일부 기포가 생성되어 있다. 외면에는 파도문이 중복되어 시문되어 있고 내면에는 포목 흔적이 있다. 측면에는 와도 흔적 나 있다.
11	회청	적회	회청	경질	2.3 ~ 2.8	회청색경질파도문수키와 편으로 태토는 모래와 운모가 포함되어 있고 일부 기포가 생성되어 있다. 외면에는 선문이 시문되어 있고 내면에는 포목 흔적 위에 물손질과 빗질 흔적이 있다. 측면에는 와도 흔적 나 있다.
12	회청	회청	회흑	경질	1.5 ~ 1.6	회청색경질어골문암키와 편으로 태토는 운모가 포함되어 있고 일부 기포가 생성되어 있다. 외면에는 어골문이 시문되어 있고 내면에는 포목 흔적 위에 빗질 흔적이 있다.
13	회흑	회청	회청	경질	2 ~ 2.1	회청색경질어골문암키와 편으로 태토는 작은 모래와 운모가 포함되어 있고 일부 기포가 생성되어 있다. 외면에는 어골문이 중복되어 시문되어 있고 내면에는 포목 흔적과 도구로 타격한 흔적이 있다.
14	회	회백	회	연질	0.9 ~ 1.7	회청색연질선문암키와 편으로 태토는 석영과 운모가 포함되어 있고 일부 기포가 생성되어 있다. 외면에는 선문이 일부 시문되어 있고 내면에는 물레 흔적이 있다.

4. 방추차

유물 번호	규격(cm)			석질	색조	설 명
	가로	세로	두께			
15	6.6	6.2	5.4	화강암	회백	가마니나 돗자리 등을 짤 때 쓰이는 방추차로 중간에 새끼줄을 매달 수 있도록 홈을 만들었다. 타원형의 작은 돌을 갈아서 만들었고 석질에는 운모와 장석이 포함되어 있다.

5. 청동제재떨이

유물 번호	규격(cm)		재질	문양	설 명
	지름	두께			
16	10.6	0.4	청동	용문	청동제용문재떨이로 외곽 상면에 여러 용문을 양각해 놓았고 담배 대를 올려놓을 수 있도록 반 원뿔모양으로 3개의 홈을 파 놓았다. 이 재떨이는 담배 대를 사용하던 근대 시기에 대성동마을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3) 대성동 유물산포지 2

▫ 소재지 :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 235번지 일대

▫ 시　대 : 조선~근대

▫ 현　황 : 사진 6

대성동 유물산포지 2(위도 37°56'13.84"N, 경도 126°40'47.65"E)는 대성동 유물산포지 1에서 동쪽으로 연결된 도로를 따라 약 300m 정도 가면 동남쪽 구릉 사면에 밭이 형성되어 있다. 이 밭 사이에 조선시대 토기, 기와, 도자기, 맷돌 편들이 산포되어 있다. 마을의 주민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일대는 구 대성동마을의 중심지였다고 한다. 유물산포지 2의 남쪽 면은 대성저수지에서 흐르는 냇물이 개천을 이루고 있고 개천 너머에는 도작농경지가 펼쳐져 있다.



사진 6. 대성동 유물산포지 2 전경

□ 유 물 : 사진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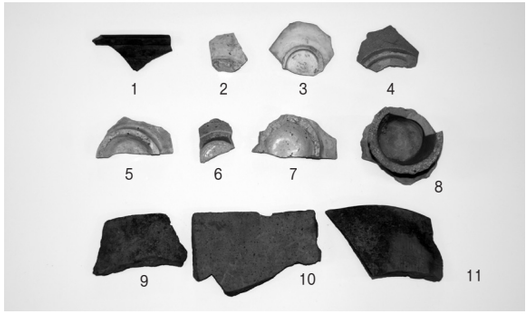


사진 7. 대성동 유물산포지 2 출토 토기, 도자기, 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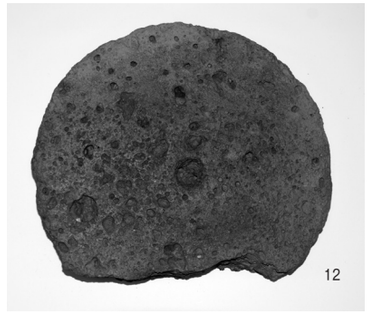


사진 8. 대성동 유물산포지 2 출토 맷돌

1. 토기

유물 번호	색 조			태토	경도	두께 (cm)	설 명
	외면	속심	내면				
1	회흑	회	회흑	조질	경질	0.38 ~ 0.4	회흑색경질토기 구연부 편으로 구연부는 외반되어 있고 구연부와 내·외면에 물레로 돌린 흔적이 관찰된다. 태토는 일부 기포가 형성되어 있고 운모가 섞여 있으며 잘 정선되었다. 구연부의 지름은 34cm이다.

2. 도자기

유물 번호	색 조			태토	유태색	두께 (cm)	설 명
	외면	속심	내면				
2	백	순백	백	니질	백색	0.8 ~ 1.2	백자 저부 편으로 내·외면의 유약은 전면적으로 고르게 잘 발라져 있다. 굽과 내면에 모래 받침이 붙어 있다. 태토는 니질 점토로 잘 정선되어 있다.
3	백	순백	백	정질	백색	0.31 ~ 0.9	백자 저부 편으로 태토는 고운 점토로 잘 정선되었으나 일부 기포가 형성되어 있다. 유약은 순 회색을 띠며 저부내부를 제외하고 고르게 잘 발라져 있다. 죽절 굽으로 저부의 직경은 5cm이다. 내부에 점토 받침 흔적이 묻어 있다.
4	회	적회	적회	니질	회	0.6 ~ 1.2	백자 저부 편으로 굽 내부에 유약이 벗겨졌고 내·외면에 유약이 고르게 발라져 있다. 외면의 굽 외부에는 음각선이 둘러져 있다. 죽절굽이며 굽의 지름은 8cm이다. 태토는 니질 점토로 잘 정선되었고 굽 부분은 적회색을 띠고 기체는 소성이 잘되어 회색을 띠고 있다.
5	회	회백	회	니질	회	0.7 ~ 1.2	백자 저부 편으로 내·외면에 전면적으로 유약이 잘 시유되었고 외부에 빙렬이 나 있다. 굽바닥과 내저 원각에 모래 받침이 묻어있다. 굽의 지름은 7.2cm이며 기형 조성 시 물레의 흔적이 선명하게 나 있다. 태토는 니질 점토로 잘 정선되어 있고 석영이 섞여있다.
6	회	백	회	니질	회	0.6 ~ 1	백자 저부 편으로 내·외면에 전면적으로 유약이 잘 시유되었다. 굽바닥과 내저 원각에 모래 받침이 묻어있고 외면의 굽 외부에는 음각선이 둘러져 있다.
7	회백	백	회백	니질	회백	1 ~ 1.5	백자 저부 편으로 내·외면에 전면적으로 유약이 잘 시유되었다. 굽바닥과 내저 원각에 모래 받침이 묻어있다. 굽은 평저이며 지름은 8.4cm이다. 태토는 니질 점토로 잘 정선되어 있고 석영이 섞여있다.
8	회	백	회	니질	회	0.85 ~ 1	백자제기 저부 편으로 내·외면에 저부 바닥을 제외하고 전면적으로 유약이 잘 시유되었다. 굽바닥과 내저 원각에 모래 받침이 묻어있다. 굽의 지름은 7.9cm이다. 태토는 니질 점토로 잘 정선되어 있고 석영이 섞여있다.

3. 기와

유물 번호	색 조			경도	두께 (cm)	설 명
	외면	속심	내면			
9	회	회	회적	경질	1.1 ~ 1.9	회색경질무문암키와 편으로 태토는 모래와 운모가 포함되어 있고 일부 기포가 생성되어 있다. 외면에는 무문이며 내면에는 포목 흔적이 있고 물손질 하였다.
10	회	회	회	경질	2.3 ~ 2.8	회청색경질복합문암키와 편으로 태토는 운모가 포함되어 있고 일부 기포가 생성되어 있다. 외면에는 세선무계 복합문이 시문되어 있고 내면에는 포목 흔적이 있다.
11	회	회	회흑	경질	1.6 ~ 1.65	회청색경질선문암키와 편으로 태토는 운모가 포함되어 있고 일부 기포가 생성되어 있다. 외면에는 선문이 시문되어 있고 내면에는 포목 흔적과 물손질과 빗질 흔적이 있다.

4. 맷돌

유물 번호	규격(cm)		석질	색조	설 명
	지름	두께			
12	30.4	7.55	현무암	흑회색	한 짝의 맷돌 중 하단에 속한 것으로 중간 부분에 홈의 지름은 3cm이며 일부 결실되었다. 석질은 현무암으로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다. 이 맷돌은 대성동 주민이 새로운 주거지로 옮겨가기 전까지 근세까지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4) 대성동 유물산포지 3

▫ 소재지 :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 1030번지 일대
▫ 시　대 : 조선~근대
▫ 현　황 : 사진 8

대성동 유물산포지 3(위도 37°55'54.92"N, 경도 126°41'5.54"E)은 대성동 유물산포지 1에서 남쪽으로 연결된 도로를 따라 대성동 저수지로부터 흐르는 수로와 논 농사지대를 지나 약 1km 정도 가면 북쪽 구릉 사면에 밭이 형성되어 있다. 이 밭 사이에 조선시대 토기와 도자기 편들이 산포되어 있다. 대성동 유물산포지 3지역 역시 구 대성동마을의 중심지 안에 포함되었다.



사진 8. 대성동 유물산포지 3 전경

▫ 유　물 : 사진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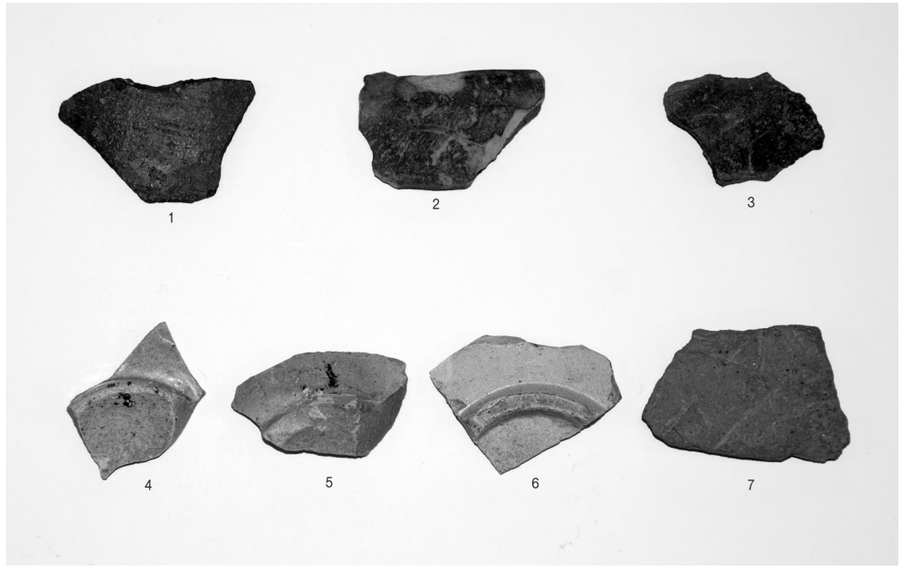


사진 9. 대성동 유물산포지 3 출토 토기, 도자기, 기와

1. 토 기

유물 번호	색 조			태토	경도	두께 (cm)	설 명
	외면	속심	내면				
1	회청	적회	회흑	조질	경질	0.6 ~ 0.8	회청색경질토기 몸통 편으로 내·외면에 격자 타날 한 후 물레로 돌린 흔적이 관찰된다. 태토는 일부 기포가 형성되어 있고 모래와 운모가 섞여 있으며 잘 정선되었다.
2	회흑	회	회흑	니질	연질	0.6 ~ 0.8	회흑색연질토기 파수부 편으로 내·외면에 회흑색으로 마면하였고 시루 등의 손잡이에 부착했던 토기 편이다. 내·외면에 빗질과 물손질 흔적이 관찰된다. 태토는 일부 기포가 형성되어 있고 속심은 흑회색을 띠고 있으나 그 주위는 회색이다.
3	회청	적회	회흑	조질	경질	0.85 ~ 0.95	회청색경질토기 구연부 편으로 외면에 타날문을 시문한 후 빗질을 하였고 내면에는 도구를 대고 물레로 돌린 흔적이 선명하다. 태토는 일부 기포가 형성되어 있고 속심은 흑회색을 띠고 있으나 그 주위는 적회색이다.

2. 도자기

유물 번호	색 조			태토	유태색	두께 (cm)	설 명
	외면	속심	내면				
4	회백	백	회백	니질	회백색	0.56 ~ 0.72	백자 저부 편으로 내·외면의 유약은 굽 내부를 제외하고 전면적으로 고르게 잘 발라져 있다. 굽과 내면에 모래 받침이 붙어 있다. 태토는 니질 점토로 운모가 섞여있고 잘 정선되어 있다.
5	회백	적회	적회	니질	회백색	0.71 ~ 1.1	백자 저부 편으로 태토는 고운 점토로 잘 정선되었으나 소성이 불완전하여 적회색을 띠고 있다. 유약은 회백색을 띠며 저부내부를 제외하고 고르게 잘 발라져 있으나 내부는 박락되었다.
6	순백	백	순백	니질	순백색	0.55 ~ 0.9	백자 저부 편으로 굽 내부에 제외하고 내·외면에 유약이 고르게 발라져 있다. 외면의 굽 외부에는 음각선이 둘러져 있다. 굽의 지름은 4.8cm이다. 태토는 니질 점토로 잘 정선되었고 내면에 모래가 묻어있다.

3. 기와

유물 번호	색 조			경도	두께 (cm)	설 명
	외면	속심	내면			
7	회청	회청	회청	경질	1.32 ~ 1.9	회청색경질선문암키와 편으로 태토는 모래와 운모가 포함되어 있고 일부 기포가 생성되어 있다. 외면에는 선문을 시문한 후, 내면에는 포목으로 누른 후 물손질하였고 전반적으로 표면이 박락되어 정확한 형상은 알 수 없다.

(5) 김정주(金廷胄) 묘역

- ▫ 소재지 :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 986번지 일대
- ▫ 시　대 : 조선(1750)
- ▫ 현　황 : 사진 10~13

김정주 묘역(위도 37°56'40.08"N, 경도 126°40'40.40"E)은 마을의 북쪽 끝 부분인 대성동길 204-40에서 동북쪽으로 약 200m지점의 야산에 위치해 있다. 이 마을이 강릉김씨 집성촌이기 때문에 강릉김씨 선조들의 묘역이 집성촌 주변으로 산포되어 있는 것이다. 김정주 묘역은 묘표와 봉분, 상석, 고석, 향로석, 망주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위치한 향로석과 상석 서쪽에서 묘표 사이에 구 향로석이 놓여 있다. 묘표에는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고 1771년 효자 정려문을 하사받았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옛 비석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최근에 후손들이 세운 것이다. 이 묘역의 동편 계체석 옆에는 차돌이 노출되어 있는데 지석묘의 개석처럼 보인지만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김정주 묘역에서 서남쪽으로 약 10m 지점에는 상석과 향로석으로 구성된 강릉김씨 묘가 자리를 잡고 있다.



사진 10. 김정주 묘역 전경



사진 11. 김정주 묘역 동쪽 계체석 옆에 놓여있는 차돌



사진 12. 김정주 묘역 계체석에 놓여 있는 구 향로석

□ 묘 표

前面(北)

策揚武功臣贈資憲大夫

江陵金公廷胄之墓

配貞夫人羅州丁氏

配貞夫人密陽朴氏 祔

側面(東)

父 聖善 廷胄 子 永禹

永斗

永器

永鼎

後面(南)

廷胄公은 聖善公의 子요. 哲命東原君의 七世孫이며 始祖 溟州君王의 三十三世孫이시다. 公께서는 文武에 능통하시어 進士와 武功까지 받으시었다. 父母에 孝誠이 至極하여 많은 사람으로부터 尊敬을 받았으며 先親께서 患憂로 계실 때 精誠을 다하여 즐겨 드시는 물고기를 낚시로 직접 잡으시어 반찬으로 올렸으며 또한 先親께서 病患中에 드실 고기를 잡으려 하니 추운 冬節이라 四方에 얼음은 얼고 눈이 쌓이어 고기 잡기를 근심하여 연못의 얼음을 두두려 깨니 큰 붕어와 고기들이 잡혀 찬을 하여 올리니 病患이 치유되시었다 한다. 近洞의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孝誠이 至極하여 病患이 치유되시었다고 칭찬이 자자하였다고 한다. 또한 꿈속에 사람이 나타나 집에 불이 났으니 急히 일어나 父母와 祀堂을 구하여라하여 急히 일어나 달려가 父母와 祀堂을 求出하였다고 한다. 喪이나 忌日에는 생선전을 올려야 하는데 추운 冬節이라 얼음이 얼고 눈이 쌓이어 근심하고 있는 中에 남쪽에서 검은 구름이 몰려오더니 갑작이 비가 오고 물이 흐르니 큰 붕어와 고기들이 마당에 나타나 근심을 놓았다 한다. 이 모두가 精誠과 孝行에 感動되어 이루어진 일이라 하여 遠近의 많은 사람들이 나라에 上疏하여 공에게 英祖辛卯西紀一七七一年八月에 孝子旌閭를 나라에서 하사하시었다.

後孫一同

側面(西)

英祖庚午西紀一七五0年三月十五日 生 進士

壬寅西紀一七八二年九月三日 卒

戊申西紀一七八八年策揚武功臣贈資憲大夫賜

新卯西紀一七七一年八月 賜孝子旌閭



사진 13. 김정주 묘역 묘표

▫ 유 물 : 사진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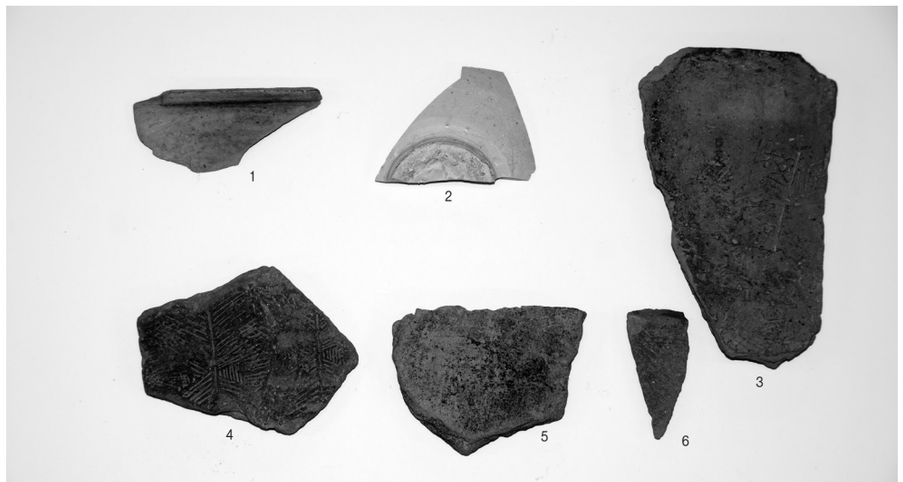


사진 14. 김정주 묘역 출토 토기, 도자기, 기와

1. 토기

유물 번호	색 조			태토	경도	두께 (cm)	설 명
	외면	속심	내면				
1	회흑	회	회흑	정질	연질	0.4 ~ 0.6	회흑색연질토기 구연부 편으로 구연부는 외반되어 있다. 내·외면에 표면은 박락되어 제작 방법에 대한 흔적은 확인 할 수 없다. 태토는 일부 기포가 형성되어 있고 운모가 섞여 있으며 잘 정선되었다. 구연단의 폭은 1.7cm, 구연부의 지름은 34.4cm이다.

2. 도자기

유물 번호	색 조			태토	유태색	두께 (cm)	설 명
	외면	속심	내면				
2	순백	백	순백	니질	순백색	0.35 ~ 0.9	백자 저부 편으로 내·외면의 유약은 전면적으로 고르게 잘 발라져 있다. 굽과 내면에 모래 받침이 붙어 있다. 태토는 니질 점토로 운모가 섞여있고 잘 정선되어 있다. 굽 외면에 도구로 물레로 돌려 깎은 흔적이 있고 굽의 지름은 6cm이다.

3. 기와

유물 번호	색 조			경도	두께 (cm)	설 명
	외면	속심	내면			
3	회흑	회청	회흑	경질	1.1 ~ 2.5	회흑색경질교석품명문암키와 편으로 태토는 모래와 운모가 포함되어 있고 일부 기포가 생성되어 있다. 외면에는 선문, 어골문, 그리고 직사각형 안에 "校石品"이라는 명문이 찍혀있다. 내면에는 포목으로 누른 후 물손질하였다.
4	회흑	회청	회청	경질	1.9 ~ 2.2	회흑색경질복합문암키와 편으로 태토는 모래와 운모가 포함되어 있고 일부 기포가 생성되어 있다. 외면에는 어골문 격자문 등이 중복되어 시문되어 있다. 내면에는 포목으로 누른 흔적이 있고 포망은 1㎠당 20올 내외이다.
5	회흑	적회	회흑	연질	2.01 ~ 2.35	회흑색연질선문암키와 편으로 태토는 운모가 포함되어 있고 일부 기포가 생성되어 있다. 외면에는 선문이 시문되어 있다. 내면에는 포목으로 누른 흔적이 있고 포망은 1㎠당 20올 내외이다.
6	회흑	회청	회흑	경질	1.05 ~ 1.1	회흑색경질복합문암키와 편으로 태토는 고운 모래와 운모가 포함되어 있고 일부 기포가 생성되어 있다. 외면에는 어골문 등 복합문이 시문되어 있다. 내면에는 포목으로 누른 흔적이 있고 포망은 1㎠당 20올 내외이다.

(6) 강릉 김씨 동원군 파 묘역

▫ 소 재 지 : 파주시 진서면 어룡리 일대
▫ 시　　대 : 조선
▫ 조사내용 : 사진 15~25

이 묘역(위도 37°56'49.67"N, 경도 126°41'42.03"E)에는 강릉 김씨 동원군파 가계도 哲命-守宗-萬成-一範-克慶-聖善-廷胄 중에 萬成부터 聖善까지 분포되어 있다.

① 김성선(金聖善) 묘역

김성선 묘역은 김일범 묘역에서 동쪽으로 약 3m 지점에 위치해 있고 묘역의 석물은 향로석, 상석, 고석, 계체석, 묘표로 구성되어 있고 최근에 조성된 것이다. 묘역의 봉분은 쌍분으로 서쪽에 연일정씨, 동쪽에 김성선의 屍身이 안치되어 있다. 묘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고 1984년 增來가 건립하였다.



사진 15. 김성선 묘역 전경



사진 16. 김성선 묘역의 향로석, 상석, 계체석과 묘표 전경

□ 묘 표

全面(南)

贈戶曹參議

江陵金公聖善之墓

淑人延日鄭氏

後面(北)

墓 長湍佛谷 先塋下

宗孫 東均

西紀一九八四年八月十五日 增來 建立

② 김극경(金克慶) 묘역

김정주의 조부로 알려진 김극경 묘역은 대성동마을 입구를 나와서 동북쪽으로 약 200m 정도가면 어룡저수지가 나오는데 이 어룡저수지를 지나 북쪽 산의 능선에 김극경 묘를 포함하여 4기의 묘가 배치되어 있다. 김극경 묘역에는 상석, 향로석, 묘표, 동자석, 문인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묘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고 1984년에 종손 東均이 건립하였다.

□ 묘표

全面(南)

贈戶曹參判

江陵金公克慶 之墓

貞夫人牛峰李氏

後面(北)

墓長湍佛谷 亥坐

宗孫 東均

西紀一九八四年八月十五日 泰猶建立

側面(東)

乙未生 壬午年進士 癸亥卒



사진 17. 김극경 묘역 전경



사진 18. 김극경 묘역의 동자석, 상석, 향로석, 묘표 전경



사진 19. 김극경묘역 문인석(서)



사진 20. 김극경묘역 문인석(동)



사진 21. 김극경묘역 동자석(서)



사진 22. 김극경묘역 동자석(서)

③ 김일범(金一範) 묘역

김일범 묘역은 김극경 묘역에서 동북쪽으로 약 5m 지점에 위치해 있고 묘역의 석물은 향로석, 상석, 고석, 계체석, 묘표로 구성되어 있고 최근에 조성된 것이다. 묘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고 1984년 元來가 건립하였다.

○ 묘표

全面(南)

配 淸州韓氏

之墓

江陵金公一範

後面(北)

墓 大興籠洞 壬坐

宗孫 東均

西紀一九八四年八月十五日 元來 建立



사진 23. 김일범 묘역의 상석, 향로석, 계체석과 묘표 전경



사진 24. 김만성 묘역 전경



사진 25. 김만성 묘역의 향로석, 상석, 고석, 묘표, 계체석, 봉분 전경

④ 김만성(金萬成) 묘역

김만성 묘역은 김극경 묘역에서 서남쪽으로 약 10m 정도 떨어져 위치하고 있다. 이 김만성 묘역의 석물은 향로석, 상석, 계체석, 묘표, 망주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쪽 망주석의 세호는 내려오고 동쪽 망주석의 세호는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다. 묘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고 1984년 천희가 건립하였다.

□ 묘표

前面(南)

配東萊鄭氏

之墓

江陵金公萬成

側面(西)

辛酉 生 甲辰 卒

後面(北)

墓大興籠洞 丁坐

宗孫 東均

西紀一九八四年八月十五日天熙建立

(7) 교량(橋梁)


사진 26. 교량 준공비

- 소 재 지 : 파주시 진서면 어룡리 452 일대
- 시　　대 : 일제강점기
- 조사내용 : 사진 26~28

대성동마을에 남아있는 교량은 2개로 교량 1(위도 37°56'49.55"N, 경도 126°41'10.14"E)은 대성동마을로 들어가는 입구 부분에서 어룡저수지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한다. 임진강에서 개성으로 난 1번국도 동쪽에 어룡저수지로부터 내려오는 물이 북에서 남쪽 방향으로 흐르는데 이 개천의 수로를 건널 수 있도록 교량을 설치한 것이다. 시멘트 교량 양옆으로는 석축으로 쌓았고 다리 밑에는 화강암에 "四二六三年十二月竣功"이라는 직사면체의 준공비가 있어 1930년대에 준공된 교량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량은 남쪽으로 약 1km 떨어진 대성저수지로 들어가는 입구에도 교량 2(위도 37°56'31.01"N, 경도 126°42'15.12"E)가 설치되어 있다.


사진 27. 대성동마을 입구에서 어룡저수지 길목에 위치한 교량 1


사진 28. 대성저수지에서 내려오는 개천의 교량 2

(8) 대성저수지 건물지 유적

- 소 재 지 : 파주시 진서면 금릉리 1160~1163번지 일대
- 시　　대 : 근대
- 조사내용 : 사진 29~41

대성저수지 건물지 유적(위도 37°56'42.22"N, 경도 126°42'16.24"E)은 대성동마을에서 동쪽으로 약 3km 지점에 위치하며 1970년대 말 대성동마을이 새로 조성되면서 농경지와 함께 저수지가 만들어졌다. 조사 당시 비가 오지 않아 저수지 바닥이 드러났을 때 지표조사가 이루어져 건물지 9동이 확인되었다. 주민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마을 주변으로는 저수지가 형성되기 이전 사천의 지류가 흐르고 있었고 냇가 주변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으나 6·25전쟁으로 인하여 마을이 폐쇄되어 오늘에 이른 것이다. 건물지가 완전하게 드러나 있지 않아 실측이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인근지역이어서 군인들의 통제가 심해서 일부의 유물을 수습하고 기록을 남길 수밖에 없었다. 이 건물지에는 도자기, 장군, 우물지, 고래, 주춧돌 등이 지표에 노출되어 있었다.

1호 건물지는 대성저수지의 둑 부분에서 서북쪽에 위치하며 건물지 동쪽에는 원형의 우물이 있다. 1호 건물지의 남쪽에는 가로173cm, 세로 122cm, 반폭 25cm의 "日"자형 하부구조가 드러나 있다. 건물지의 남북 길이는 400cm 이고 주춧돌의 간격은 다음과 같다.

(단위 cm)

동서/남북	1행	190	2행	165	3행
1열	▫	190	▫	160	▫
2열	▫	190	○ 결실	170	▫

2호 건물지는 1호 건물지에서 북쪽으로 약 5m지점에 위치해 있고 장축방향은 남북으로 길이 710cm이며 동쪽의 우물의 지름은 156cm이고 시멘트 두께는 8~14cm인데 비교적 잘 남아 있다. 이 건물지의 주변에는 토기와 도자기, 철기 편들이 산포되어 있다. 철기 유물 중에는 철제가래, 철제바퀴축, 철제작두 등이 수습되었다.

3호 건물지는 2호 건물지에서 북쪽으로 약 5m지점에 위치해 있고 장축방향은 남북으로 길이 170cm이다. 건물지 초석의 간격은 다음과 같다.

(단위 cm)

동서/남북	1행	120	2행	240	3행	260	4행
1열	○ 결실	?	▫	240	▫	260	▫
2열	▫	120	▫	240	▫	?	○ 결실

4호 건물지는 3호 건물지에서 서북쪽으로 약 7m지점에 위치해 있고 5호 건물지는 4호 건물지에서 동남쪽으로 약 7m지점에 있다. 6호 건물지는 5호 건물지에 북쪽으로 5m지점에 있고 7호 건물지는 6호 건물지에서 동쪽으로 약 10m지점에 위치해 있다. 8호 건물지는 7호 건물지에서 북쪽으로 5m지점에 있고 9호 건물지는 8호 건물지에서 북쪽으로 7m 지점에 위치해 있다. 이 건물지의 번호는 남쪽에서 동쪽으로 가면서 부여하였고 저수지가 조성되기 이전에 개천의 흐름에 따라 건물이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29. 대성저수지 건물지 유적 전경



사진 30. 1호 건물지 전경



사진 31. 1호 건물지 동쪽의 우물



사진 32. 1호 건물지 부근에 노출된 옹기편



사진 33. 2호 건물지의 전경과 고래 노출장면



사진 34. 3호 건물지 전경



사진 35. 4호 건물지 전경



사진 36. 5호 건물지 전경



사진 37. 6호 건물지 전경



사진 38. 6호 건물지 동쪽에 위치한 우물



사진 39. 7호 건물지 전경



사진 40. 8호 건물지 전경



사진 41. 9호 건물지 전경

□ 유 물 : 사진 42~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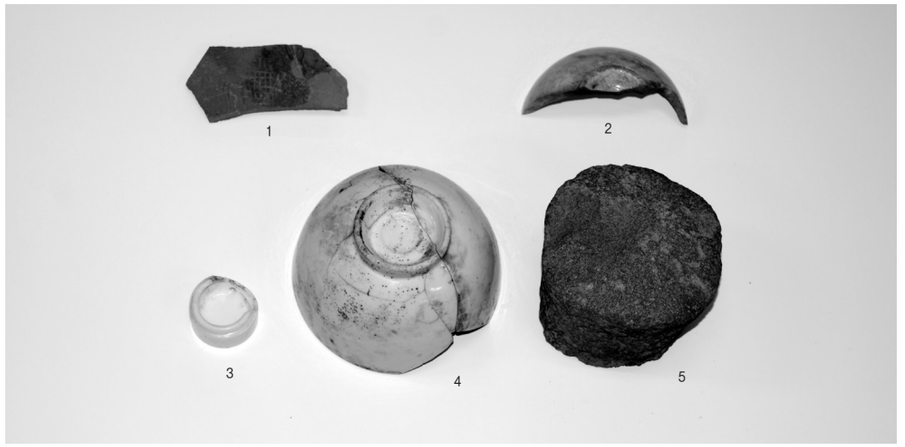


사진 42. 대성동 저수지 건물지 출토 토기, 도자기, 절구공이



사진 43. 대성동 저수지 건물지 출토 철제쟁기



사진 44. 대성동 저수지 건물지 출토 철제 수레 축



사진 45. 대성동 저수지 건물지 출토 철제작두

1. 토기

유물 번호	색 조			태토	경도	두께 (cm)	설 명
	외면	속심	내면				
1	회	회청	회흑	정질	경질	0.4 ~ 0.6	회색경질토기 몸통 편으로 외면에는 타날문을 시문한 후 물손질하였고, 내·외면에 빗질과 물레의 흔적이 있다. 태토는 일부 기포가 형성되어 있고 운모가 섞여 있으며 잘 정선되었다.

2. 도자기

유물 번호	색 조			태토	유태색	두께 (cm)	설 명
	외면	속심	내면				
2	회백	백	회백	니질	회백색	0.4 ~ 0.7	백자 발편으로 기형의 1/20이 남아있다. 내·외면의 유약은 전면적으로 고르게 잘 발라져 있고 빙렬이 나 있으며 내면의 열에는 회색선이 빙렬 사이로 그어져 있다. 태토는 니질 점토로 운모가 섞여있고 잘 정선되어 있다. 굽 지름은 4.6cm, 구연부의 지름은 12.6cm이다.
3	순백	순백	순백	니질	순백색	0.41 ~ 0.75	백자 발로 구연부 일부만 결실되었고 기형이 비교적 잘 남아있다. 내·외면의 유약은 전면적으로 고르게 잘 발라져 있다. 태토는 니질 점토로 정선되어 있다. 굽 지름은 6.2cm, 구연부의 지름은 14.3cm이다.
4	순백	순백	순백	니질	순백색	0.5 ~ 0.6	백자로 기형의 구연부와 몸통의 일부가 결실되었고 저부와 몸통이 수직으로 연결되었다. 내·외면의 유약은 전면적으로 고르게 잘 발라져 있다. 태토는 니질 점토로 잘 정선되어 있다. 굽 지름은 4.5cm, 구연부의 지름은 3.9cm이다. 이 유물은 근대에 화장품 등을 넣었던 화장 도구로 생각된다.

3. 절구공이

유물 번호	규격(cm)		석질	색조	설 명
	지름	두께			
5	12.1	11.2	화강암	회흑색	일부 구멍이 나 있는 화강암으로 만든 석제 절구공이 편으로 몸통의 대부분은 결실되었다. 이 절구 공이는 현재에도 대성동마을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곡식을 분쇄할 때 쓰는 도구이다.

4. 철기

유물 번호	규격(cm)			설 명
	가로	세로	두께	
6	22	1.7	21.7	철제쟁기로 소나 말에 끌려 논밭을 가는 농기구이며 작물을 재배할 땅을 갈고 흙을 잘게 부수는 데 사용해 왔다. 농경 기구가 기계화되지 않았을 때까지 사용하던 쟁기 날이며 뒷면에 나무로 끼울 수 있는 홈이 나 있다.
7	17	16	9	철제바퀴 축으로 사람이나 짐을 나르는 데 사용된 수레바퀴 축이며 2점이 발견되었다. 형태는 원형으로 바퀴와 관련된 부속 철기들이 주위에서 수습되었다.
8	24	7	2.2	철제작두 편으로 몸통의 일부만 남아 있다. 곡물과 견과류를 탈곡, 절단하는 농업용 농기구로 칼날이 몸통에 붙어있는 형태이다.

(9) 김덕함(金德諴) 선정비

- 소 재 지 : 파주시 진서면 금릉리 1138번지
- 시　　대 : 조선
- 규　　모 : 두께 26cm, 가로 60cm, 높이 155cm
- 조사내용 : 사진 46


사진 46. 김덕함청렴선정비

김덕함 선정비(위도 37° 56'29.89"N, 경도 126° 42'2.27"E)는 대성동마을 입구로 들어가기 약 1km 이전에 1번 국도 우측에 위치해 있다. 비석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고 1609년에 설립되었다.

前面(西)
府使金德諴淸廉善政碑
萬曆三十七年二月 日 立

光武 三年(1899) 十一月에 제작된『長湍郡誌』「先生案」조에는 "金德諴 文通訓"이라는 간단한 기록이 남아 있다. 김덕함(金德諴, 1562;명종 17~1636; 인조 14)은 문신으로 자는 경화(景和), 호는 성옹(醒翁), 본관은 상주(尙州)이다. 1588년(선조 21) 진사에 합격한 후 광해군 때 군기시정(軍器侍正), 1623년 인조반정으로 집의(執義), 참의(參議)를 거쳐 부제학(副提學), 대사성(大司成), 대사간(大司諫)을 역임하였다. 1626년(인조 5) 정묘호란 때 호소사(號召使)를 지냈다가 여주목사, 춘천부사를 지냈고 시호는 충정(忠貞)이다.[98]

98) 이희승 등,『한국인명대사전』, 한국인명대사전편찬실, 신구문화사, 1995, p.91.

(10) 허공(許珙) 묘역

▫ 소 재 지 : 파주시 진서면 금릉리 산2 번지
▫ 시　　대 : 고려
▫ 조사내용 : 사진 47~48

허공(許珙) 묘역(위도 37°56'46.47"N, 경도 126°41'56.47"E)은 대성동마을 입구에서 1번 국도를 따라 남쪽으로 약 1km 정도 내려오면 좌측으로 나 있는 소로를 따라 10m 정도 들어가서 우측으로 형성된 서록 구릉지에 위치해 있다. 허공 묘역의 봉분은 모두 3기가 남아 있는데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2기가 가묘(假墓)이고 1기만이 허공(許珙)의 시신이 들어 있다고 한다. 허공(許珙) 묘역의 석물은 묘역에서 서쪽으로 약 10m지점에 신도비가 위치해 있고 3기의 묘역마다 석물과 묘표를 다르게 설치하여 놓았다. 허공 신도비는 비대, 비신, 팔작(八作)지붕의 옥개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해서로 명문을 기록하였다. 서쪽 하단에 있는 묘역에서부터 번호를 부여하여 허공(許珙) 묘역 1에는 봉분, 상석, 문인석과 상석 뒤에 묘표가 있으나 묘표에 글씨는 마모되어 있다. 허공(許珙) 묘역 2에는 봉분과 그 앞에 작은 묘표가 있을 뿐 아무런 시설이 없다. 허공(許珙) 묘역 3에는 봉분, 상석, 향로석, 묘표, 계체석이 보이고 묘역 좌측에 직사각형의 작은 기둥에 뚜껑을 올려놓았다. 묘표 前面(西)에는 "高麗文靖大夫僉議中贊修文殿大學士監修國史判典理司富 世子師文敬公許珙之墓"라고 쓰여 있고 나머지 면에도 비문 글씨가 있으나 마모되어 읽기가 어렵다.

허공(許珙, 1233;고종 20~1291;충열왕 17)은 고려 문신으로 초명은 의(儀), 자는 온궤(韞匱), 본관은 공암(孔巖:陽川)이다.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 수(遂)의 아들로 고종 말 문과에 급제하여 정사점필원(政事點筆員), 국학박사(國學博士), 호부시랑(戶部侍郎), 첨서추밀원사(簽書樞密院事), 전주도 도지휘사(全州道都指揮使)에 올랐다. 1275년(충열왕 1)에 지추밀원사(知樞密院事) 성절사(聖節使)로 원나라에 다녀와서 밀직사사(密直司使), 세자조호(世子調護)가 되고 1284년 수국사(修國史)로 원부(元傅)와 함께 『고금록(古今錄)』을 편찬하였다. 충렬왕의 묘정에 배향되고 시호는 문경(文敬)이다.[99]

99) 주84 앞의 책, p.1008.

(11) 허공(許珙)신도석표(神道石表)

▫ 규　　모
　○ 비　대 : 가로 110cm, 세로 70cm, 높이 150cm
　○ 비　신 : 가로 61.5cm, 높이 132cm, 두께 20cm
　○ 옥개석 : 길이 : 119cm
▫ 건립연대 : 萬曆三十九年(1611)九月 日立
▫ 비문내용 :

前面(東)
高麗國匡靖大夫僉議中贊(?)
文敬公許公諱珙神道石表
康熙戊子(1709)九月十七日十六世孫長湍府使許穎(?)與諸宗齋會幷改四憤莎草得誌石於第一位壙中前面卽是 先祖侍中文敬公墓也累百年未定之疑始釋於今日豈非子孫之幸耶

側面(南)
治事諸孫　右議政沈喜壽　　順愍(?)君 景溫　都承旨李睟光 吏曹參◯南以恭 司僕主◯金◯主
完平府院君李元翼 淸平府院君韓應寅 寧堤君錫齡　會宜◯◯鄭沆 令◯◯◯風 司◯主◯◯◯
領議政李德馨 延興府院君金悌男 兵曹判書朴弘耈 僉知鄭◯ ◯◯府使金尙寬 成均館博士趙◯
左議政李恒福 文陽府院君柳自新 吏曹判書李廷龜 右承旨洪慶◯ 司◯◯◯◯汝沃義禁府都正趙量
領中樞府使尹承勳 茂城君尹泂　　右尹李必榮　副◯◯◯◯敍 ◯◯人薛德及

後面(서)
先祖侍中文敬公神道石表成吾先君之志也自◯ 先世時相傳 侍中墓在長湍府招第◯◯◯◯◯◯原而十中卒(?)老小火
說　許侍中墓云然而年代愍邈隴荒慶石物頹(?)殘且只五◯荎同城不◯何者◯◯◯

○○○○○上宮子 東○○○○○○
是路者望(?)一隴瞻舞於(耳+谷)左而巳而吏(?)年間開城府甚堂墓府(?)人所倫芹(?)
是(?)遠(?)先○○○○○○○○○○
去而改封稹稹焉仍念 侍中墓廣左荒野了(?)恐又有此患及等白○正(?)爲之戍○運
(?)○○○○○○○○○○○○○○
先墓之在是一以警倫者之可目俾和(?)禁威屬(?)謗以疲(?)經逆而荂(?)梁(?)李局後
此○○○○○○○○○○○○○○
過語筴曰子之光大夫招賢立參之討誠監(?)而○遠(?)在○○○○丕丕不○○給志
而○○○○○○不○○○○○○
後失其石故先(?)遑容易舉事矣巳酉秋許正郎涵句○○○○不○○○○○○○○
○人之本○○○○下他正○○○○
不忌旁近其漸可惡云嗚呼先君慮患之慮(?)至此而餘(?)達(?)與門中○○○○○下
○○○○○○○丙○○之○以○○○
於內外雲仍鳩合財力而謀之噫事誠意(?)於不可 已者山(?)念先方(?)子之志(?)○○
○○○○不○○大之○○右之○○
之餘不能保朝暮而獨○大事眞傳騎屈之時收給橞(?)橞(?)撫(?)○飢畏愍(?)○○○
○○○○未行○○○○○○○○

協誠而病後微其幸雖不獲大稱所期撫○一見先君子牧(?)北哀也○○○○○○○
○○○○○○○○○○○○○○
自有麗史本傳令不復贅　公之雲仍請孫萬經不億靑○頃(?)朝(?)六(?)一○○○○
○○○○○○○○○○○○○○
忠佐衛大護軍前任吏曹判書兼知春秋館同知 ○○方(?)後江○○○○○○○○○
○○一不沈死○○○○○○○○
萬曆三十九年九月 日立

側面(北)
子姓諸孫　　軍資監正 昕 縣監 寔　　王溥 坪 玄風縣監 佶 縣監 ○○○
吏曹參判 晉　軍器僉正 晏 司憲府監察 宙 洗馬　直長 必(?) ○○○○○
及第 順前任左議政 戶曹正郎 涵 茂山僉使 完 兵曹佐郎 ○○○ ○○○○○

高山察訪 褵　幼學　褷 佐郎 嵱　監察 寧(?) 直長 七　○○○○○○
及第 筠前任參議 幼學 禧 都總府經 歷 典獄王簿 身○ 三負文玉 ○○○○○



사진 47. 허공묘역 전경



사진 48. 허공신도석표

2) 마을의 인물

(1) 고려시대 인물

① 김순(金純)

김순(金純)의 성은 김씨(金氏)이고, 이름은 순(純)으로, 임진현(臨津縣)[100] 사람이다. 아버지는 신호위상장군(神虎衛上將軍)으로 추봉된 인단(仁旦)이고, 조부는 신호위중랑장(神虎衛中郎將)으로 추봉된 유정(惟正)이며, 증조는 신호위상장군으로 추봉된 유달(有達)이다. 어머니 송씨(宋氏)는 신호위 상장군으로 추봉된 송원(宋元)의 딸이다. 김순은 1171년(명종 1) 섭별장(攝別將)으로 관직에 나갔고 섭중랑장(攝中郎將), 섭장군(攝將軍), 천우위섭대장군(千牛衛攝大將軍), 금오위대장군(金吾衛大將軍), 예빈경(禮賓卿), 직문하성(直門下省), 천우위섭상장군 판위위사(千牛衛攝上將軍 判衛尉事), 금오위상장군 전중감 겸 대자우정도솔부솔(金吾衛上將軍 殿中監 兼 大子右淸道率副率), 호부상서 용호군상장군(戶部尙書 龍虎軍上將軍), 병부상서, 호부상서(戶部尙書)로서 추밀원(樞密院)에 들어가 부사(副使)가 되었다. 1191년(명종 21) 공부상서 동지추밀원사(工部尙書 同知樞密院事), 이부상서 지추밀원사(吏部尙書 知樞密院事), 은청광록대부 참지정사 예부상서(銀靑光祿大夫 叅知政事 禮部尙書), 금자광록대부 수대위상주국(金紫光祿大夫 守大尉 上柱國), 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郎平章事)를 거쳐 1196년(명종 26)에는 동중서문하평장사 판호부사(同中書門下平章事 判戶部事)에 임명되었다.[101]

② 우현보(禹玄寶)

우현보(禹玄寶, 1333;충숙왕 복위 2~1400;경종 2)는 고려시대 문신으로 자는 원공(原功), 호는 양호당(養浩堂), 본관은 단양 적성군(赤城君) 길생(吉生)의 아들이다. 공민왕 4년(1355)에 문과에 급제하여 춘추관 검열, 대사헌, 문화찬성사, 삼사좌사 등을 역임하였다. 조선왕조가 개국하자 광주(光州)로 유배를 가게 되고 포은 정몽주가 피살되었을 때 천마산의 스님에게 옷과 관을 장만하여 길지에 장례를 치러주었다. 그는 장단에 들어가 녹(祿)을 먹지 않고 콩을 심어 먹었다. 이때부터 두죽재상(豆粥宰相)이란 말이 나왔고 정종 2년 68세의 나이로 타계하였고 시호는 충정(忠靖)이다. 묘소는 장북면 항동리에 있다.

③ 이색(李穡)

이색(李穡, 1328;충숙왕 15~1396;태조 5)의 자는 현숙(顯叔), 호는 목은(牧隱)이며 한산(韓山) 사람이다. 벼슬은 시중(侍中)이었으며 조선조에는 한산백(韓山伯)으로 봉해졌다. 시호는 문헌(文獻), 또는 문정(文靖)이다.[102] 위화도회군 후 창(昌)을 왕으로 옹립하고 명나라 사신으로 가서 고려에 대한 감국(監國)을 청한 것이 화근이 되어 장단으로 유배되었다. 장단에 우거하면서 그는 충신불사이군(忠臣不事二君)이라고 하여 출사하지 않았다.

④ 한언공(韓彦恭)

한언공(韓彦恭, 940;태조 23~1004;목종 7)은 장단 한씨(長湍 韓氏)로 고려 건국 이전부터 송악의 왕건 가문과 혈연적으로 연결된 호족이고 문벌귀족이다. 왕건의 어머니인 위숙왕후(威肅王后)는 장단 한씨(長湍 韓氏)이다.[103] 고려(高麗) 목종(穆宗) 4년에 시중(侍中) 한언공의 고향이 장단지역이었던 이유로 단주(端州)로 승격시켰다.[104] 한언공은 문사출신으로 견송사신(遣宋使臣)을 역임하는 등 여러 관직을 지냈고 내사시랑 평장사(內史侍郎 平章事)에 이르렀다. 개국 후 특진하여 식읍일천호(食邑一千戶)를 받았고 시호는 정신(貞信)이며 목종묘정(穆宗廟庭)에 배향되었다.[105] 한언공의 아들인 한조의 여식은 정종의 용의왕후(容懿王后)가 되었다.

⑤ 한안인(韓安仁)

한안인(韓安仁 ?~1122;인종 원년)은 향공(鄕貢)으로 벼슬이 호부시랑(戶部侍郎)에 이른 한규(韓圭)의 아들이고 이름은 교여(曒如)이다. 예종(睿宗) 때에 우부승선(右副承宣) 형부상서(刑部尙書)에 이르렀다. 명달(明達)하고 학문을 좋아하며 글을 잘 짓고 주역점(周易筮)을 잘 쳤다. 이자겸(李資謙)과 사이가 좋지 않아 죽음을 당했고 시호는 문열(文烈)로 추증(追贈)되었다.

100) 경기도 長湍郡 지역에 있던 고려시대의 縣. 당시 王京 開城府에 속해 있었다.
101) 김순 묘지명. 소재 : 서울 국립중앙박물관(No. 신5848), 연대 신종 즉위년(1197). www.krpia.co.kr
102) 주12 앞의 책, pp.354~355.
103) 주50 앞의 책, p.45.
104) 주12 앞의 책, p.326.
105) 주12 앞의 책, p.354.

⑥ 한충(韓冲)

한충(韓冲, ?~1129;인종 7)은 예종조(睿宗朝)에 우보궐(右補闕)로 제수되었다가 이자겸이 한안인(韓安仁)을 죽일 때 한충은 한안인의 종제(從弟)라 하여 외방(外方)에 귀양을 보냈다. 이자겸이 패한 후 예부시랑(禮部侍郎)이 되어서 국자제국(國子祭國)을 지냈다. 성품이 강직하고 말을 기탄없이 하며 학문에 독실하고 문장에 능했다. 정치는 청렴함과 은혜를 숭상하여 가는 곳마다 명성과 업적이 있다.[106]

(2) 조선시대 인물

장단지역의 역사적 인물로는『여지도서(輿地圖書)』「장단부(長湍府)」인물조[107]에 효자 김천익(金天益), 열녀 양씨(烈女楊氏), 효자 최혜균(崔惠均), 효녀 개덕(介德), 효녀 유씨(柳氏), 효자 함준광(咸俊光)이 기록되어 있다. 효자 김천익과 열녀 양씨에게는 정여(旌閭)를 세워 기념하게 하였고 나머지 효자와 효녀에게는 집을 수리(復戶)하여 주었다.

① 구봉서(具鳳瑞)

구봉서(具鳳瑞, 1597;선조 30~1644;인조 22)는 문신으로 자는 경휘(景輝), 호는 락주(洛洲)이다. 아버지는 군수 계(棨)로 장단의 락하(洛河)에서 태어났다. 1617년(광해군 9) 생원시에 2등으로 합격하고, 1624년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을 거쳐 홍문관수찬을 역임하고 서천군수·나주목사를 거쳐 1638년 전라도관찰사가 되었다. 이어 경상도관찰사를 재임하고 호조참의가 되어 비변사제조(備邊司提調)를 겸하였다. 사람됨이 강직하였으며, 재치가 있었고, 권력에는 추호도 아부하려 함이 없었다. 그 재치가 청나라와의 외교에서 마찰을 줄여 인조로부터 한때 제일의 신하로 신임을 얻었다. 시호는 경헌(景憲)이다.

묘와 신도비가 비무장지대 내 파주시 장단면 석곶리에 위치하고 있고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어 묘는 정확한 위치를 찾기 힘들다. 다만 구씨 묘역 입구에 세워진 구봉서의 신도비는 확인되었는데 총고(總高)가 210㎝이고 비신(碑身)은 83×137×29㎝이다. 한국전쟁 중에 맞은 총탄 자국이 여러 군데 남아있다. 내용에 보면 '권석주에게 시를 배워 진사시에서 詩부문에서 1등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송시열이 찬하고 후손 찬(璨)이 썼으며 김락현(金洛鉉)이 전(篆: 비석을 새김)을 썼다.[108]

② 구변(具卞)

구변(具卞, 1529;중종 24~?)은 문신으로 자는 시중(時仲)이며 아버지는 정랑 수복(壽福)이다. 숙부(叔父)인 군수 수연(壽延)의 양자로 입양되어 후사가 되었다. 조식(曺植)의 문인으로 1552년(명종 7)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1558년에는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권지(承文院權知)로 있다가 1567년 사간원정언이 되었다. 1568년(선조 1) 이조좌랑으로 춘추관기사관(春秋館記事官)이 되어『명종실록』의 편찬에 참여하였으며, 그 뒤 다시 정언·수찬 등을 거쳤다. 그러나 이듬해 이조좌랑으로 있을 때 기대승(奇大升)·박순(朴淳) 등의 당여(黨與)였기 때문에, 인물됨이 청요직(淸要職)에 맞지 않는다는 김개(金鎧)의 상소에 의해 체직 당하였다. 그 뒤 진주목사로 나가서 최영경(崔永慶)과 함께 덕천동에 터를 잡고 서원을 세우고 후진양성에 힘썼다. 비무장지대내 파주시 장단면 석곶리에 위치해 있는 묘역에는 봉분 2, 동자석 1쌍, 망주석 1쌍, 상석 1, 향로석 1, 묘표 1기가 남아 있다. 묘표는 증손 봉서가 세웠다.[109]

③ 구신충(具信忠)

구신충(具信忠)은 조선 전기의 명신으로 세조의 등극에 공을 세워 원종공신 3등에 녹훈된 이후 세조 4년(1458) 사헌집의, 세조 6년(1460) 첨지중추원사와 병조참의에까지 올랐다. 세조가 특히 아끼던 신하로 그가 병으로 죽었을 때 세조가 호조에 명하여 쌀·콩 아울러 20석, 종이 70권 및 관곽을 부의(賻儀)하게 하였다. 비무장지대 내 파주시 장단면 석곶리에 위치해 있는 묘역에는 봉분 2, 장명등 1, 문인석 1쌍, 상석 1, 묘표 1 가 있다. 묘표는 갓을 씌운 형태로 봉분이 2개인 데도 본인의 이름만 새겨져 있다.[110]

④ 서명빈(徐命彬)

서명빈(徐命彬, 1692;숙종 18~1763;영조 39)은 문신으로 본관은 달성(達城)이며 자는 질포(質甫)로 영의정 종태(宗泰)의 아들이며, 좌의정 명균(命均)의 아우이다. 1723년

106) 주12 앞의 책, p.354.
107) 주13 앞의 책, p.59.
108) 주3 앞의 책, pp.216~217.
109) 주3 앞의 책, pp.217~218.
110) 주3 앞의 책, p.218.

(경종 3) 정시문과(庭試文科)에 병과로 급제하고, 영조 3년(1727) 7월 사헌부지평에 임명되었다. 그는 대사헌·예조판서·형조판서·한성부판윤·지돈령부사(知敦寧府事)·우참찬·이조판서,판의금부사·한성부판윤·좌참찬을 역임하였다. 묘소는 파주시 장단면 노하리에 있고 임진각에서 자유의 다리를 건너 좌회전하여 강변을 따라 직진하면 노하리 방면으로 들어가는 길 좌측에 있는 조랑진 보루의 남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묘역은 남서방향으로 조성되어 있고 원형의 봉분에 호석을 둘렀으며 사성이나 용미는 갖추고 있지 않다. 봉분 정면에 상석이 있고 좌측에 1기의 묘갈이 남서향으로 세워졌고, 봉분 좌우에 망주석 1쌍이 배치되어 있는데 현재 우측의 망주석은 반파된 채 방치되어 있다. 묘갈은 기단과 비신, 팔작지붕 형태의 옥개석으로 구성되었고, 재질은 모두 화강암이다. 아들인 서래수(徐來修)가 글을 지었고, 숭정 기원후 3丁亥(1767)에 건립하였다. 크기는 비신 64×24×156㎝, 기단 120×80×51㎝, 옥개석 116×80×43㎝이다.[111]

⑤ 이서(李曙)

이서(李曙, 1580~1637)의 자는 인숙(寅叔), 호는 월봉(月峰), 시호는 충정(忠正)이며 효령대군의 10세손이다. 1603년(선조 36) 무과에 급제하여 진도군수를 역임한 후 1618년(광해군 10)에 인목대비의 폐모론에 반대하였고 장단부사(長湍府使)와 경기방어사를 겸직하였다. 이때 세워진 이서선정비(李曙善政碑)가 군내면 정자리 96.3m 고지 산 서북쪽에 위치해 있다. 1623년(인조 1) 김유(金瑬)·이귀(李貴)와 더불어 광해군을 폐위하고 인조를 세워 호조판서, 정사공신(靖社功臣)으로 완풍부원군에 봉해졌다. 1626년(인조 4)에는 수어사(守禦使)가 되어 남한산성을 수축하고 병자호란 때 병사한 후 남한산성에 온조왕과 인조의 사당을 세우고 함께 봉향되었다.[112]

⑥ 이종성(李宗城)

이종성(李宗城, 1692~1759)의 자는 자고(子固), 호는 오천(梧川), 시호는 효강· 문충(孝剛·文忠), 본관은 경주(慶州),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의 5세손이며 좌의정 이태좌(李台佐)의 아들이고 장단 출신이다. 1711년(숙종 37)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고, 1747년(영조 23)에 문과에 급제한 후 삼사(三司)를 거쳐 홍문관 전한(弘文館典翰), 부제학(副提學), 좌의정, 영의정, 1757년(영조 28)에는 내의원 봉상시도제조(奉常侍都提調), 영중추부사(領中樞府使)가 되었다. 이종성은 장단 오목(長湍 梧木)에서 살았다고 하여 오목대신(梧木大臣)이라고 불렀다[113]고 하며 그의 집터가 남아 있다. 사후 장조(莊祖)에 배향되고 저서로는『오천집(梧川集)』이 있다.[114]

(3) 일제강점기 인물

① 강기동(姜基東)

강기동(姜基東, ?~1909)은 항일운동가로 고향이 장단이며 고랑포에서 일본 헌병 보조원으로 있으면서 옥문을 열어 의병을 구출하고 투옥되었다가 탈옥하여 1908년 강원호(姜元浩), 오수영(吳壽泳)과 함께 의병을 조직하여 항거하였다. 1962년 대한민국 건국 공로훈장 복장(復章)을 받았다.[115]

② 김수민(金秀敏)

김수민(金秀敏, ?~1908)은 의병장으로 장단 출신이다. 1907년 장단에서 의병을 일으킨 농민출신의 장수로 13도 총 도독이 되었다. 그는 화약과 탄약 제조법을 알고 있었고 장단의 덕음동(德蔭洞)을 거점으로 군량을 비축하고 보부상을 모집하여 정보대로 활용하였다. 300명의 병력으로 개성의 일본 수비대를 습격하였다.[116]

③ 백종열(白鍾烈)

백종열(白鍾烈, ?~1938)의 호는 혜원(惠園)이며 독립운동가이고 장단 출신이다. 1917년 남만주에 망명하여 1919년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한 후 한족회(韓族會)에 가담하다가 이듬해에 북로군정서(北路軍政署)에 들어가 제1대대 소대장이 되었다. 청산리 전투에서 활약하였고 1925년 신민부(新民府) 군무부 참모과장을 지냈다.[117]

111) 주3 앞의 책, pp.215~216
112) 주58 앞의 책, pp.259~260.
113) 주58 앞의 책, p.261.
114) 주50 앞의 책, p.271.
115) 주1 앞의 책, p.262.
116) 주1 앞의 책, p.263.
117) 주1 앞의 책, p.265.



2 자유의 마을, 대성동의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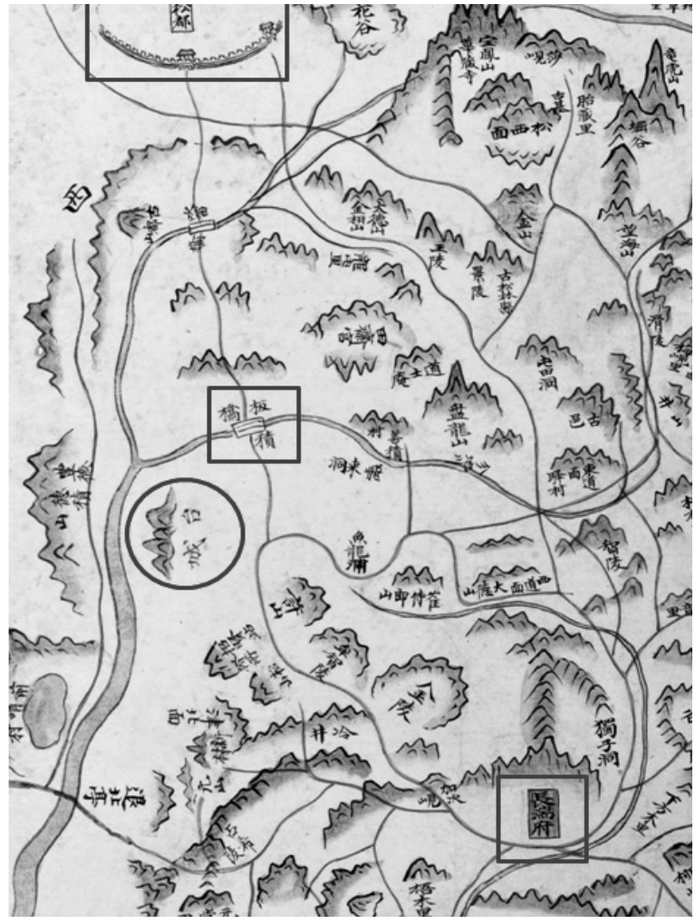
2. 자유의 마을, 대성동의 형성

2-1 옛 지도를 통해 본 대성동마을

대성동마을은 주변의 다양한 문화유적으로 보아 선사시대 이래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삼국시대에는 고구려와 백제, 신라가 한강유역을 차지하기 위해 각축전이 벌어졌던 곳으로 마을 서쪽 기정동마을과 맞닿는 곳에는 마을 이름의 유래가 되는 대성(台城)이 남아 있는데, 삼국시대 축조된 산성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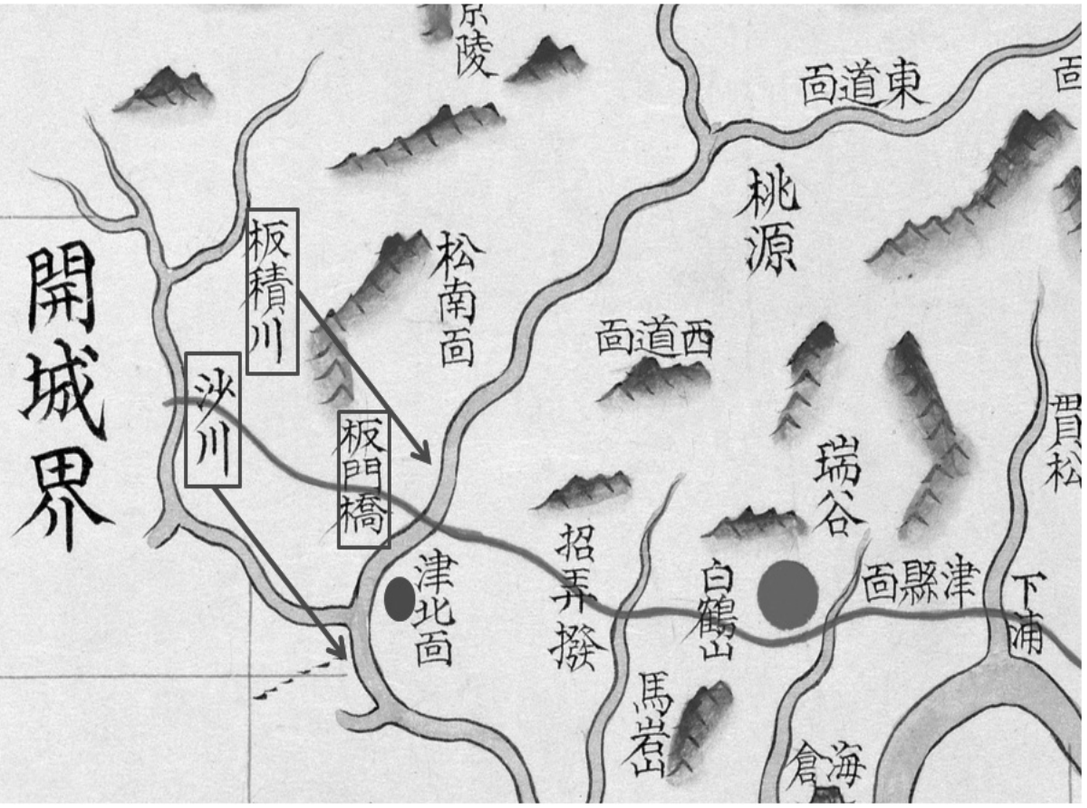
조선시대의 대성동마을이 속해있었던 군내면(郡內面) 일대는 장단군 진현내면(津縣內面)과 진북면(津北面)에 속한 지역으로, 1930년 일제강점기에 군내면으로 통합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진현내면은 끝이 15리이고, 진북면은 서쪽으로 처음이 10리, 끝이 20리이다."라고 되어 있다. 『여지도서』에는 진현내면이 관문 동쪽으로 10리 떨어져 있으며, 진북면은 관문 서쪽으로 20리 떨어져 있고 개성부와의 경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장단읍지』에 보면 진현내면은 읍내면(邑內面)으로도 기록되어 있다. 진북면은 현의 서쪽으로 10리에 위치하여 판문교(板門橋)로 이어지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으며 개성부와 경계를 이루고 있었다고 한다. 대성동마을 인근에 판문교가 있으므로 1930년 이전에는 진북면에 속한 마을임을 알 수 있다.

본 절에서는 고지도를 통해 대성동 주변의 지형지세와 옛 지명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고지도에는 전통적 자연관에 따른 특징적 산수(山水)와 지형지물이 강조되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대성동마을의 주변환경과 지명 등을 파악하는데 용이하다. 수집한 관련 고지도는 총 5점으로 18세기~19세기에 제작된 지도들이다. 이들 지도의 중심에는 장단부의 '객사'나 '읍내' 등이 표현되어 있고, 지도의 왼쪽 위로는 개성(松都)이, 오른쪽과 아래쪽에는 북에서 남으로 흘러 서해로 흘러가는 임진강을 비롯한 주변 산세가 정교하게 표현되어 있다.


『해동지도(海東地圖)』 장단부

우선, 1747년에서 1750년 사이에 그려진 『해동지도(海東地圖)』 장단부 지도[118]를 살펴보면 송도(松都) 인근에서 발원한 물이 남쪽으로 흘러오다 분지천(分之川)과 합수하는 곳에 '대성(台城)'이란 지명이 표기되어 있다. 주변 산세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 자그마한 산(山)으로 그려져 있는데, 그 안쪽에 사천과 등지고 대성이란 표기가 되어 있다. 장단부에서 개성으로 가는 길 '의주길(義州路)'[119]이 표현되어 있는데, 분지천을 건너는 곳에 '판적교(板積橋)'라 표기 되어 있고 다리가 그려져 있다. 대성동마을은 장단부와 개성을 연결하는 길목에서 조금 치우친 곳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8) 서울대학교 규장각, 『해동지도』 상, 규장각자료총서, 1995, p.73.
119) 조선시대의 9대 간선로 중 서울~의주를 연결한 제1로이다. 경기도의 영서도(迎曙道), 황해도의 금교도(金郊道), 평안도의 대동도(大同道)의 3역도(驛道)로 이루어진 총 1,080리의 교통·통신로로서, 주요 지선 30개와 연결되고 26역이 분포되어 있었다. 한양~고양~파주~장단~개성~금천~평산~서흥~봉산~황주로 이어지고, 평안도에 들어가서 중화~평양~순안~숙천~안주~가산~정주~의주 등 해안지역의 주요 읍을 따라 연결되었다. 김정호(金正浩)의 『대동지지(大東地志)』에 '서북지의주일대로(西北至義州一大路)'라는 표제 아래 자연적·사회적 사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두산백과 참조.



장단 지도(長湍 地圖)

18세기 후반에 그려진 『장단 지도(長湍 地圖)』[120]에서는 『해동지도(海東地圖)』의 지명과 다소 차이가 확인된다. 개성(송도)을 지나 남쪽으로 흘러내려오는 강은 예로부터 사천이라 불려왔는데, 개성과 이 일대의 토질에 모래가 많아 그 하류쪽으로 모래가 많이 쓸려 내려오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판적천과 판문교의 위치에 있다.

『장단 지도(長湍 地圖)』에서는 '판적천(板積川)' 아래에 '사천(沙川)'이라 표기되어 있고, 그 한참 아래쪽에 진북면과 '판문교(板門橋)'가 표기되어 있다. 하지만, 『해동지도(海東地圖)』에는 진북면과 대성(台城), 판적교가 한곳에 모여 있다. 하천의 위치와 자연지형, 주변 고을명을 따져보면 판적교와 판문교는 의주길 상에 위치한 분지천을 건너는 동일한 다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고, 판적천에 판적교가 있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 가

120) 『장단 지도(長湍 地圖)』, 18세기 후반 제작, 채색 필사본,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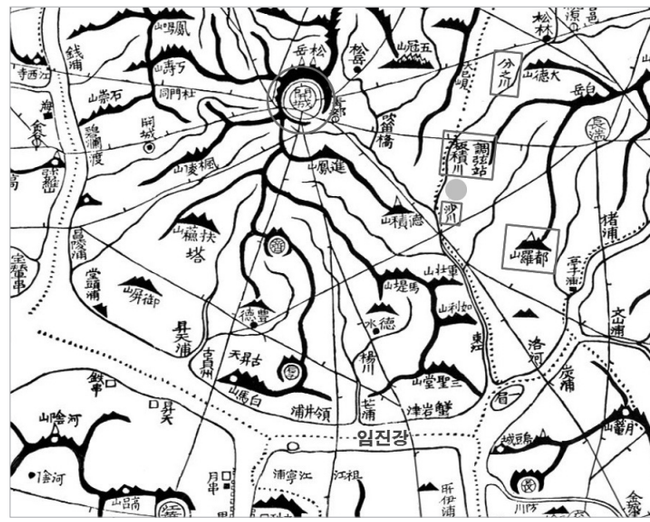
정이 맞는다면 『장단 지도(長湍 地圖)』 상에서의 판적천과 사천 표기는 그 아래쪽 진북면 인근 즉, 대성(台城)쪽에 있어야 논리적이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지도를 통해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

19세기 전반에 제작된 『광여도(廣輿圖)』 장단부 지도를 살펴보면, '대성(台城)'이란 지명이 표기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지도의 정중앙에 읍내(邑內)가 표시되어 있으며 읍내의 북서쪽에 진북면이 자리잡고 있고, 그 인근에 산(山)으로 그려진 위치에 대성(台城)이란 지명이 보인다. 송도(개성)에서 발원한 물이 태성 인근에서 합류하는데, 바로 사천(沙川)이다. 대성의 동북쪽에서 내려오는 하천에는 하천 이름 대신 판적교(板積橋)라 표기되어 있는데, 의주길은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적교를 건너 개성과 연결된다. 이상으로 보았을 때 앞에서 논한 『장단 지도(長湍 地圖)』 상의 판적천과 사천의 위치가 잘 못 표기되었음을 본 지도를 통해 알 수 있으며, 판문교와 판적교가 동일한 다리임을 알 수 있다.

1861년 제작된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121]를 살펴보면 서북쪽에 개성(開城)이 보이고, 그 대각선 아래쪽에 도라산(都羅山)이 위치해 있다. 개성시를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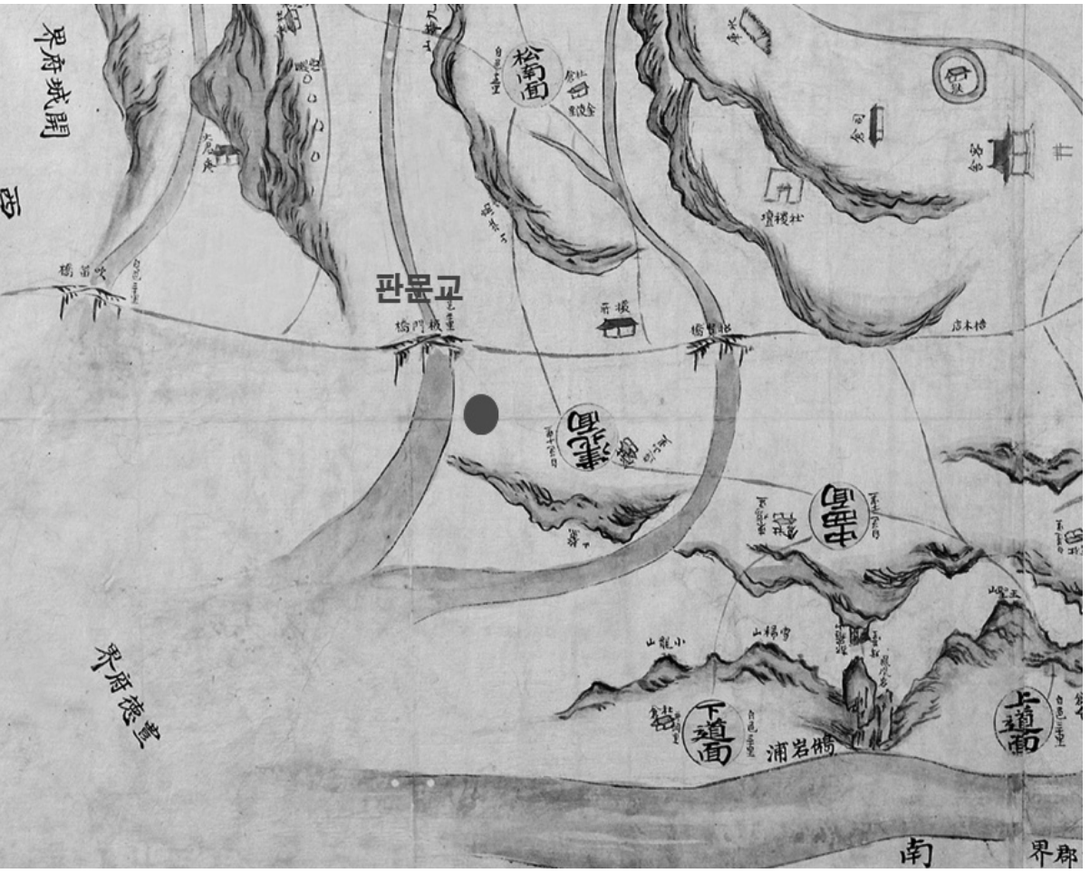
『광여도(廣輿圖)』 장단부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121) 김정호(金正浩), 1861년 제작.

통하는 배천과 오천이 합수한 물이 남쪽으로 흘러 사천(沙川)이 된다. 사천은 판적천(板積川)과 만나 합수하게 되는데, 이 판적천의 상류는 분지천(分之川)이라 표기되어 있다. 판적천 바로 옆에는 조현참(調弦站)이란 표기가 있는데, 뒤에서 다룰 조산리 초현장거리로 추정된다. 이곳은 예로부터 조현발소(調絃撥所), 초현참(招賢站)이라 불리던 역참이 있던 곳인데, 처음에는 보현원(普賢院)이 있었으나 후에 조현역(調絃驛)으로 바뀌었고, 세종 때 역을 폐지하였다고 한다. 현재 조현참은 지도상에서만 그 위치만 짐작할 뿐 현재는 남아 있지 않다. 대동여지도가 제작되던 19세기 말까지도 조현참의 흔적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는 장단에서 조현참을 지나 판적천을 건너 개성으로 향하는 '의주길'이 표시되어있기 때문이다. 본 지도에는 대성(台城)이란 지명은 보이지 않지만, 그



『장단(長湍)』 고지도(1872년 제작)

위치를 추론해 보면 사천과 판적천 사이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1872년 제작된 『장단(長湍)』 고지도[122]를 살펴보면,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보다 주변 산세와 하천, 주요도로는 자세히 표현되어 있으나, 대성동 등의 작은 마을이나, 주요 시설은 표기되어 있지 않다. 오른쪽 서쪽으로 개성부계(開城府界)가 표기되어 있고, 그 동편에 진북면이 자리잡고 있다.

장단읍에서 출발하여 진북면을 거쳐 판문교(板門橋)를 지나 개성으로 향하는 '의주길'이 표시되어 있는데, 『광여도(廣輿圖)』에 표기된 판적교와 같은 위치로 판단된다. 이 지도에서는 대성(台城)이란 지명은 보이지 않지만, 대략적인 위치를 추정해 보면, 판문교 남쪽 인근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아래는 위에서 살펴본 고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주요 다리와 하천, 지명으로 대성동마을 서쪽에 북에서 남으로 흘러 사천과 만나는 하천의 명칭은 분지천, 판적천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대성의 북쪽 의주길 상에서 분지천을 건너는 다리의 명칭은 판적교 또는 판문교(현재의 판문점 인근)임을 알 수 있다. 지도상에 개성(송도)과 장단부(읍내), 진북면 등이 표현되어 있어 조선시대 이 지명의 고을들이 동일한 생활권이었음을 알 수 있다.

표4. 대성동마을 개요

지도명	제작시기	다리	하천		주요지명
			개성 방면	연천 방면	
『海東地圖』	1750년	판적교	–	분지천	송도(松都) 태성(台城) 장단부(長湍府)
『長湍 地圖』	18세기 후반	판문교	사천	판적천(오기)	진북면(津北面)
『廣輿圖』	19세기 전반	판적교	–	–	읍내(邑內) 태성(台城)
『大東輿地圖』	1861년	판적교	사천	분지천→판적천	조현참(調弦站) 도라산(都羅山) 장단(長湍)
『長湍』 고지도	1872년	판문교	–	–	진북면(津北面)

122) 『장단(長湍)』, 1872년 제작, 채색필사본,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2-2 자유의 마을이 되기까지

1) 마을 형성과정 개관



【3】 日曜金 日三十月一十年二十九百二千四紀檀

마지막 自由의 마을

『X마스』前에이룩

近代化의理想村으로

…… 갈대만이 넘실대는 休戰線上의 臺城洞 ……

【臺城洞에서本社 權五기記者發】 ……

대성동문화주택 조성 관련 기사(출처:동아일보, 1960.3.17.)

대성동마을의 형성은 한반도 현대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대성동마을에 사람들이 언제부터 모여 살았는지 알 수 없으나, 늦어도 삼국시대부터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성동마을을 살펴볼 수 있는 이른 시기의 자료로는 조선시대 고지도와 읍지(邑誌), 일제강점기 자료 등이 있는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때까지만 해도 의주길에 인접한 전형적인 농촌마을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남북이 분단되고, 이후 6·25전쟁이 일어나면서 대성동마을은 큰 변화를 겪게 된다.

한국 전쟁이 발발한 후, 주민들 중에 후방으로 피난을 가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때 마을에는 16세대 60명의 노인과 아이들만 남게 되었다. 이후 정전이 되면서 피난을 떠났다 돌아오는 주민도 있었다. 1951년 10월 정전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리게 되었고, 판문점 인근에 위치한 남쪽의 대성동마을과 북쪽의 기정동마을이 전투 지역에서 제외되었다고 한다. 이때부터 두 마을은 한반도에 DMZ에 위치한 남북한 각각의 유일한 마을이 되었고, 대성동마을은 유엔사 관할 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후 1953년에 북한의 기정동과 대성동마을이 민간인이 거주할 수 있는 마을로 인정이 되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대성동마을은 예전의 대대로 내려오는 마을의 모습 그대로였다.

1959년 유엔사와 정부에 의해 추진된 크리스마스 전까지 낙후된 자유의 마을을 근대화시킨다는 계획에 따라 마을에 조금씩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한다. 미군이 기증한 발전기가 도입되었고, 유엔사와 정부의 지원 하에 블록주택(문화주택) 3동이 지어졌으며, 공회당(자유의 집)과 동사무실, 의무실, 목욕탕 등의 공공시설이 세워졌다.

이때 지어진 문화주택은 보건사회복지부와 미국 USOM[123]에서 무상으로 지어주었는데, 부실 공사와 농가에 맞지 않는 설계로 주민들이 입주를 거부하였고 이에 검찰이 내사에 착수하여 공사 담당 회사의 보충 공사가 이루어지는 우여곡절을 겪게 되었다.[124]

1965년에는 정부의 지원 아래 기와집이, 1968년 5월에는 대성동국민학교도 신축되었다. 1969년에는 대성동마을주민들에게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었다.

이후, 1972년 완료된 제1차 대성동 종합개발에 의해 주택과 도로, 공동 시설, 전기 가설, 경지 정리 등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주택 개량과 시설 현대화, 학교 개축, 하천 정비, 상수도 설치, 경지 정리 등의 23개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후 1980년 제2차 대성동 종합개발 사업을 통해 저수지 신설, 농경지 정리, 주택현대화 등 현재 대성동마을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살펴 본 바와 같이 대성동마을은 두 차례의 대규모 종합개발에 의해 현대화된 농촌마을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러한 대규모 종합개발의 배경에는 1970년대 경제성장과 함께 남북한이 체제경쟁에 열을 올리던 시대적 상황이 빚어낸 것인데, 북한의 기정동마을(평화의 마을)이 그러하듯 남한의 대성동마을(자유의 마을)도 북한을 향해 남한의 우월함을 선전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컸을 것이다. 이후에도 대성동마을은 민간인이 거주하는 최북단 지역으로 정부의 각종 혜택과 꾸준한 지원과 관심으로 현재의 마을에 이르게 되었다. 요약하면, 1959년 문화주택건설 및 공공시설 설치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 전통마을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1973년 대성동 개발사업과 1980년 대성동 종합개발을 거치면서 완전히 새로운 마을로 재탄생되었다.

123) United States Operations Mission(미국 대외 원조 기관).
124) "보충공사키로 말썽난 대성동주택", 《동아일보》, 1960년 3월 17일 작성.

표5. 대성동마을 주요 발전현황

연 도	내 용	대성동
1950년 6월	6·25전쟁 발발	전통적인 농촌 자연마을
1951년 1월	1·4후퇴시 대부분의 마을 주민 피난	마을 비움
1953년 8월	휴전협정에 의해 북한의 기정동과 함께 비무장지대 내에 민간인이 거주할 수 있는 마을로 인정	DMZ내 유일한 민간인 마을 (자유의 마을 설치, 1953.8.3)
1959년 12월	문화주택(블록건물)을 건설하였으며, 공회당(자유의 집)과 동사무실, 의무실, 목욕탕	공공시설 설치 (문화주택)
1962년 11월	장단군에서 파주군 군내면 조산리로 행정구역 개편	
1963년	장단군 임진면으로 편입 미 제1기갑사단 민사처 소속 민정반 파견	
1965년	정부지원하에 블록건물 철거하고 기와집 신축	
1968년 5월	대성동국민학교 건축	
1969년	주민등록증 발급	
1971년~72년	대성동 종합개발사업 착수 (주택, 저수지 신축 및 농지 정리)	구마을과 신마을로 나뉨 (새마을주택)
1974년	대성동 정미소 신축	
1976년	JSA경비대대로 민정반 업무 이양 대성동 교회 신축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발생	8월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북한군이 미군장교 2명을 도끼로 살해한 사건
1978년	영농한계선 표지판 80개 설치	
1979년~80년	대성동 종합개발사업(1단계) 주택개량, 민정반사무실, 팔각정, 국기게양대 신축 국민학교 2층으로 확장	구마을 사라지고, 마을전체 종합개발 완료 (현대식 주택)
1982년~83년	대성동 종합개발사업(2단계) (저수지신설, 경지정리사업)	
1994년 6월	자유의 마을 대성동 현판 설치	
1998년 10월	마을 복지회관 건립	

2) 국가기록문서를 통해 본 마을의 형성과정

앞에서 대략적인 대성동마을의 발전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국가기록문서를 토대로 좀 더 자세한 마을의 변화과정과 그 정책배경, 개발방향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성동마을과 관련된 국가기록문서는 국가기록원에서 수집하였다. 마을 조성과 관련된 기획, 계획, 예산집행까지 모든 과정이 정부주도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방대한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마을이 DMZ내에 위치한 관계로 비공개자료도 일부 있었으나, 3차례에 걸친 대성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자료는 대부분 수집이 가능하였다. '자유의 마을'과 관련된 총59개 문서철 373건의 문서 중 21개 철 130여건 1500페이지 내외 분량의 자료를 시기별로 분류하였으며, 이 중 마을의 형성과정과 변화과정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1) 「대성동 '자유의 마을' 종합개발」

가장 이른 시기의 대성동마을 조성과 관련된 자료들은 「분류번호 1143, 1968년, 제목 : 자유마을 대성동지역 조사측량설계」라는 문서철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농림부 장관 명의로 발송된 문서의 수신처는 '토지개량조합연합회장'으로, 그 내용은 '자유의 마을' 대성동 지역의 경지정리 및 방수제 수축을 위한 조사측량설계를 실시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1969년 9월 2일자 내부결재 문서, 「자유의 마을 대성동지역 개발사업 조사측량설계 보조금 정산」에 따르면, '측량설계 사업은 미8군의 요청에 의하여 휴전선 북방 완충지대에 위치한 대성동마을의 개발사업을 지원하고자 미8군, USOM, 토련, 농촌진흥청, 농협, 전매청 및 정부간에 수차 회의를 거쳐 그 지리적 및 정치적 특수성을 감안 이를 적극 지원키로 합의된 바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휴전선 접경마을인 대성동을 농업기반의 마을로 개발하기 위해 1968년 경 경지정리를 위한 조사측량설계를 실시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1971년부터는 본격적인 대성동 개발 관계문서가 확인되는데, 1971년 생산된 문서는 관계부처의 협의를 통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문서들이 대부분이다.

표6. 1971년 대성동마을 주요시설 현황

사업명	수량	년도	지원부처	비고
공회당	1동	1959	내무부	노후
목욕탕	1동	1959	USOM 및 보사부	사용불능
기와	36동분	1966~68	USOM 및 보사부	
슬레이트	29동	1956	USOM 및 보사부	
상수도		1958	AFAK	사용불능
전주, 전선	20개	1958	AFAK	
창고	1동			
발전시설	발전기1대, 발동기1대			
TV	2대			
마을문고	1조			
교통수단	미군트럭1대(문산까지)			

1971년 파주군에서 「대성동(자유의 마을)현황」이란 보고 문건을 만들게 되는데, 대성동의 연혁과 인구 및 가구, 농지면적, 문화시설 등이 조사되어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1953. 8. 3. 원주민 30세대(160명)를 군사정전 협정 제8. 9항에 의거 동 지구에 거주케 하였으며, 수복 지구와 동 인접 지구의 행정 구역에 관한 임시 조치법(1962.11.21. 법률 제1178호)에 의거 파주군 임진면 관할구역으로 편입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때까지만 해도 대성동마을은 장단군 조산리의 일부 지역으로 표기되어 있다. 인구는 농가가 32호로, 남자 92명, 여자 100명, 경지면적은 175ha로 1호당 평균 5.6ha, 문화시설로는 공회당, 초등학교 등이 기록되어 있다. 위 내용은 대성동마을의 본격적인 개발에 앞서 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문서로 판단된다. 이후 1971년 7월 29일 경기도에서는 '대성동개발계획'이란 보고문건을 만들었는데, 수신처가 한미1군단장과 내무부장관이다. 문건에는 대성동마을을 자유대한의 대표적인 부락으로 개발한다는 것과 주민과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로 한미1군단과 합동으로 개발한다는 것, 부락주민의 자조 협동정신을 앙양하기 위한 무상지원을 지양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개발사업 책정원칙으로 반공의식 고취, 경제적 발전을 과시할 수 있는 사업, 부락에서 희망하는 사업을 밝히고 있다.[125] 즉, 마을개발의 목적이 이러한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북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고, 북한을 향해 남한의 우월성을 선전 할 목적으로 개발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1971년 내무부에서 작성한 「자유의 마을 개발계획(안)」에는 좀 더 구체적인 마을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다.[126] 우선, 개발계획을 수립 이전 마을의 현황에 대해 조사하여 정리해 놓았는데, 1959년 유엔사와 정부가 지원해준 시설이 대부분 기록되어 있다. 1959년 이후 마을의 변화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공회당과 목욕탕, 상수도, 전신주 등의 공공시설과 교통수단인 미군트럭 1대가 기록되어 있다.

본 문서에는 대성동마을의 개발목적과 방침, 추진계획 등이 정리되어 있고, 개발실시요령과 추진일정을 수립해 놓았다. 개발목적을 자유대한의 국력과시와 이상적인 시범부락 건설에 두었으며, 사업은 1972년 3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수립하였다. 실시요령에서는 마을의 조성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담고 있다. 특히 택지정리와 주택건설에 대한 실시요령에서는 현대식건물로 이축 집단화하고, 건축물이 북괴의 가시권내에 전시되도록 높은 지대에 미관을 살려 배열하라는 지시 뿐만 아니라 주택의 색깔, 지붕의 형태

125) 지방 1194-2009, 수신:내무부장관, 참조:개발과장, 제목:대성동(자유의마을)개발계획 수립보고, 발신:경기도지사, 1971년 7월 29일

126) 내무부, 「자유의 마을 개발계획(안)」, 1971.

등까지도 세세히 지침을 정하고 있어 북한을 향한 전시마을의 목적으로 조성 계획을 수립한 것이 명확히 드러나 있다.

또한 국기게양대 설치에 대한 요령, 통일동산 조성, 방송시설(고성능스피커 설치) 및 홍보활동 등 마을조성의 목적이 대성동마을 주민들에 대한 배려보다는 북한을 향한 전시마을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마을 개발계획은 1972년 1월 10일 주민동의 획득을 시작으로 1972년 연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 개발목적 : 자유대한의 국력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는 이상적인 시범부락으로 개발
● 개발방침 : 부락을 정책적 안목에서 전면 재개발(택지정리 및 시범주택건립)
정부지원 하에 경기도에서 시행
주민위주로 사업책정, 새마을 가꾸기 사업실시
문화복지시설
● 추진계획
· 71년 12월 10일 : 위원회구성
· 71년 12월 15일 : 세부계획수립
· 71년 12월 31일 : 부락현황도 및 개발계획도 작성
· 71년 12월 31일 : 현지회의
· 72년 3월 1일 : 사업착공
● 실시요령
1. 택지정리 :
가. 현재 무질서한 취락형태를 전면 정리하여 새로운 현대식 건축물로 이축 집단화 한다.
나. 취락구조는 지형을 참작하여 모든 건축물이 북괴의 가시권내에 전시되도록 높은 지대에 질서 있게 미관을 살려 배열하고 구획한다.
다. 부락 내 도로는 5M 이상의 도폭을 유지하고 유실수를 가로수로 식재한다.
라. 하수도는 모두 복개하고 도로망에 따라 시설한다.
마. 부락 주변 외곽에 경내 및 자체방어시설을 고려한다.
2. 공동시설
가. 마을 회관은 현 공회당과 병행하여 쓸모있게 설계한다.
나. 마을회관은 측면이 북괴를 바라보도록 하고, 내부구조는 회관, 공동창고, 영사실, 진료실, 휴게실 등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2층으로 설계한다.
다. 마을회관 후정에는 광장 겸 공동작업장을 조성한다.
라. 마을회관 옥상에 "자유의 마을"을 상징하는 네온사인 시설을 고려한다.
3. 주택 :
가. 주택은 1세대 독립으로 적정규모로 30동을 건립하되 지형을 참작하여 마을회관 주변과 학교주변에 집단화 한다.
나. 주택의 구조는 생활공간과 작업공간을 분리하고 옥내에 욕실을 설치하며, 주택마다 국기게양대를 설치한다.
다. 주택의 자재는 우미견고한 것을 선택하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시공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외부공사(벽)은 가급적 밝은색(백색, 황색 등)으로 도장하고 지붕은 색깔있는 기와(슬레이트 및 시멘트)로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마. 축사 및 변소 등 부속건물은 주택과 분리하여 집단으로 건립한다.

4. 영농기계화 :
가. 적 가시지역내의 경지는 가급적 모두 72년 영농기 이전에 경지정리하고 영농을 기계화 할 수 있도록 농로를 개설한다.
나. 경지정리계획에는 수리시설을 고려하여 수리문제를 해결 하여야 한다.
다. 영농기계(트랙터. 경운기, 고성능분무기, 살분무기 등)의 공급 및 관리운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5. 국기게양대 :
가. 초대형국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충분한 높이와 견고한 구조를 갖추고 게양에 편리한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나. 초대형국기는 주기적으로 교체 지원한다. 다. 국기게양대의 위치는 마을회관 전면으로 한다.
6. 통일동산 :
가. 마을회관 주변 부락 중앙의 전망 좋은 장소에 자유대한의 통일을 상징하는 동산을 만든다.
나. 동산에는 통일과 자유평화를 상징하는 기념탑을 건립한다.
다. 동산은 녹지로서 미화한다.
7. 방송시설 :
가. 불가전망 적당한 위치에 고성능스피커(500W)를 설치하여 북괴의 대남방송을 방해하고 부락 내 주민 공지사항을 방송한다.
나. 방송운영 및 관리는 학교에서 담당한다.
다. 방송자료 및 자재는 정기적으로 공급한다.
8. 학교시설 증축 :
가. 학교시설은 가급적 2층으로 설계한다.
나. 오락시설, 운동시설을 완비한다.
9. 도로 주변정화 :
가. 가로수는 유실수로 식재한다.
나. 화단을 설치한다.
10. 뻐스 구입 :
가. 마이크로 버스 또는 대형 버스를 구입한다.
나. 버스의 유지관리는 부락자체에서 해결한다.
다. 버스의 운행은 72.1월 이내에 가능하도록 긴급히 조치한다.
11. 전화사업 : 세부 실시요령은 별도 시달한다.
12. 홍보활동 :
가. 반공강연, 반공영화 상영, 계몽좌담 등 홍보활동을 정기 및 수시 실시한다.
나. 반공 및 계몽영화 필름, 화보사진, 포스터, 기타 간행물 등을 정기 및 수시 지원한다.
13. 새마을가꾸기사업 :
가. 새마을 가꾸기 사업 대상부락으로 지정한다.
나. 계획상 미 책정된 분야 및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보완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4. 사업추진 일정
1. 주민동의 획득 : 72. 1. 10 까지
2. 세부실시 계획 보고 : 72. 1. 30 까지
3. 부락현황도 및 개발계획도 제출 : 72. 2. 15 까지
4. 관계부처 현지회의 개최 : 72. 2. 20
5. 택지정리, 주택, 공동시설 설계도 제출 : 72. 2. 28 까지
6. 개발사업 전면 착공 : 72. 3. 1
7. 경지정리 : 72. 4. 30 까지 준공
8. 주택 및 마을회관 건립 : 72. 6. 30 까지 준공
9. 사업진척 상황보고 : 매월 5일까지
10. 입주예정자 현황보고 : 입주예정자 결정 즉시
※ 내부무 작성「자유의 마을 개발계획(안)」요약, 1971년

이러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자, '자유의 마을 대성동 민정팀'에서는 지역여건에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건의사항을 정리하여 수정건의안을 제출한다.[127]

이 중 주택문제에 대한 문제점과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문제점으로 '옛 집은 허는가?', '새집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30동 건립만 언급되었는데 세대 증가 시 대책은?' 등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세부건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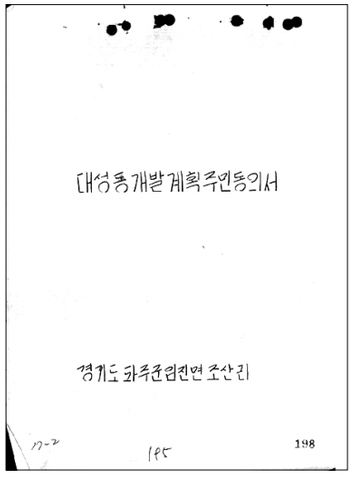
① 인구(세대) 증가에 대비하여 좋은 집은 보강하고 존속
② 새집 소유권 인정
③ 매 가호당 국기 게양대 설치는 비현실적, 관리곤란(국기비치, 사용법 계몽교육)
④ 변소 집단 건립시 불결 우려, 수세식 변소를 욕실과 같이 건립
~~⑤ 주민 설득 후 아파트 건립 무방~~
⑥ 상하수도 고려
⑦ 택지정리 예산 삭감 전용
⑧ 연료대책(난방, 취사) 고려

이에 대한 의견수렴 난에는 ①번 항목에 대해 '기 건립 기존가옥은 견학이 요망됨', '예산이 제한되었음으로 좋은 집은 보수·존속시키고 새집 건립 동수를 줄여 투자 집중', ⑤에 대해서는 '아파트는 주민 전체가 반대'한다고 하며 줄로 그어 삭제하였다. 기타 의견으로 '헌집을 헐고(새집은 보강조건으로) 마을 앞 토성을 헐면 북괴 가시권에 든다.' '난방은 지하열 이용(숙명여자대학교 물리과 김이청 교수)' 등이 언급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건의사항은 일부만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주택의 경우 사용권은 인정되지만 소유권은 현재까지도 인정되고 있지 않으며, 현재까지 토성(대성)도 잔존하고 있다. 또한 난방을 위해 지하열을 이용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논의과정을 거쳐 주민동의를 받게 되는데, 원래 기한인 1972년 1월 10일 보다 5일이나 빠른 1월 5일 사업계획에 대해 주민동의를 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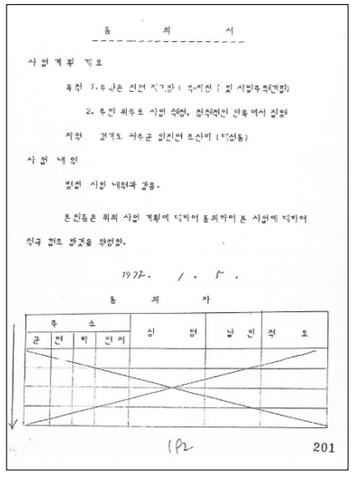
이러한 대성동개발계획과 더불어 주민들에 대한 선무대책 및 특수활동계획 등이 수립된다.

127) 자유의 마을 대성동 민정팀,「대성동 종합 개발 수정 건의안」, 1971.


대성동개발계획주민등의서

경기도 파주군임진면 조산리

198


동 의 서

사업계획 개요

목적 : 주민을 전면 지지함 (주비전) 및 시범추진(면함)

2. 주민 회주로 사업 추행. 정책적인 면등 에서 검토

지역 경기도 파주군 임진면 조산리 (대성동)

사업 내용

별첨 사업 내역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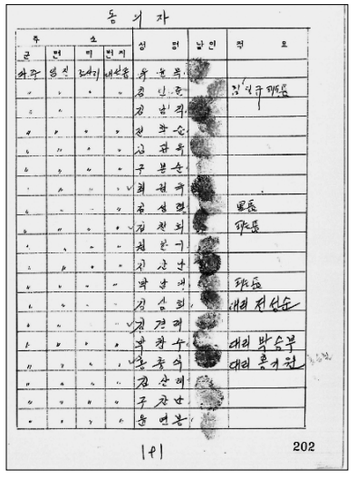
본인등은 위의 사업 계획에 대하여 동의하며 본 사업에 대하여 적극 협조 할것을 약정함.

1972. 1. 5.

동 의 자

주소				성명	날인	적요
로	번	비	번지			

201


동 의 자

주소				성명	날인	적요
로	번	비	번지			
파주	임진	대리	대성동	유 동 욱		
〃	〃	〃	〃	홍 남 훈		김구대령
〃	〃	〃	〃	김 남 석		
〃	〃	〃	〃	김 학 순		
〃	〃	〃	〃	김 관 욱		
〃	〃	〃	〃	구 봉 순		
〃	〃	〃	〃	최 천 규		
〃	〃	〃	〃	홍 성 렬		통장
〃	〃	〃	〃	김 천 희		부통
〃	〃	〃	〃	최 한 기		
〃	〃	〃	〃	김 상 순		
〃	〃	〃	〃	박 상 배		부통
〃	〃	〃	〃	김 성 희		대리 전산순
〃	〃	〃	〃	김 건 래		
〃	〃	〃	〃	구 창 수		대리 박순부
〃	〃	〃	〃	노 춘 이		대리 홍기권
〃	〃	〃	〃	김 순 례		
〃	〃	〃	〃	구 간 난		
〃	〃	〃	〃	홍 연 분		

202

1971년 문서 중에는 제목이 「접적주민 선무대책」이라는 문건이 있는데, 주민들의 승공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한 행사의 하나로 '크리스마스트리 설치'를 추진한 내용이 담겨 있어 주목된다. 행사명은 '크리스마스트리 시설'이고, 위치는 '대성동', 점등기간은 '12월 21일 일몰직후부터 연말까지(야간)', 협조는 '문화공보부, 종교단체' 등으로 되어 있다. 본 행사의 목적으로 '연말연시에 접적주민의 승공사상을 한층 더 고취시키고 대북선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선무대책으로 특정지역에서 성탄절 축하행사를 갖는 방안'임을 밝히고 있다. 1971년까지만 해도 북한과 남한의 경제사정은 그리 차이가 없었고, 양쪽 체제에 대한 경쟁이 한창 치열하던 시기의 접경지 분위기를 알 수 있게 한다.[128]

거의 비슷한 시기(1971.12)에 문화공보부에서 작성된 「"자유의 마을(대성동)"에 대한 특수활동계획(안)」은[129] 이러한 당시 분위기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는데, 특수활동계획의 목적을 '휴전선 완충지대에 있는 대성동 맞은편 북괴의 "평화촌"에서 주야로 감행하는 대남선전에 주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반공사상앙양, 정부에 대한 신뢰감 상승, 동시에 북괴보다 월등히 앞서가는 한국의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애국관을 고취하고,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자유대한을 동경케하고, 공산주의 사회체제보다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과시하도록 한다는데 두고 있다.'과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한 방침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별로 북괴를 능가하는 자유 대한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 동

128) 발신:내무부장관, 수신:문화공보부장관, 경기도지사, 참조:지방과장, 대공과장, 제목:「접적주민 선무대책」, 1971년 12월 18일.
129) 문화공보부, 「"자유의 마을"(대성동)에 대한 특수활동계획(안)」, 1971년 12월.


대성동 자유의 마을 성탄절 트리 점화식, 1974년 12월 22일(출처:국가기록원)

마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특수활동이 제시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반공강연, 계몽 작담, 반공 및 계몽영화상영 등의 특수활동을 실시하며, 세부계획으로 대성동 국민학교 졸업식 지원(졸업생선물, 재학생선물, 주민선물, 태극기 지원, 국민학생용 축구공, 배구공 각 5개 지원) 등 당시 여건으로 가능한 다양한 계획이 제시되었다.[130] 특수 활동계획은 당시 접경지인 대성동 주민들의 의사나 실질적 요구 사항과는 관계 없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수립한 계획으로, 결과적으로는 대성동마을에 많은 혜택을 가져다주었다. 그만큼 이 마을이 최전선의 마을로 북한과의 체제우위를 과시할 필요가 있었고, 북한으로부터의 선전선동에 마을주민들의 동요를 막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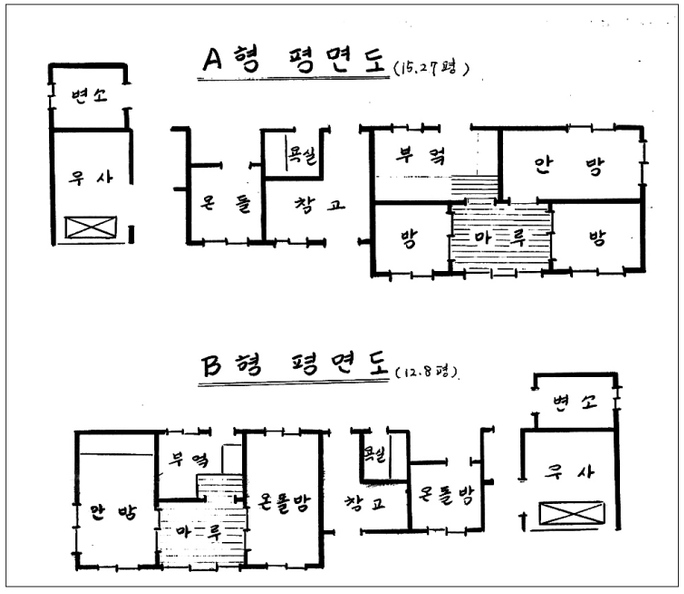
이후 1972년 2월 25일 특정지역 개발 현지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성동마을 종합정비계획에 착수하게 된다. 「대성동 주택 설계에 대한 참고자료」를 통해서 당시의 주택평면과 재원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데, 총 A, B, C형의 3가지 유형의 주택이 제시되었다.[131]

이 참고자료에는 주민들의 의견도 기록되어 있는데, 우선 변소는 실내가 아닌 부속건물에 배치하는 것을 원하고 있으며, 부엌은 장작을 연료로 하므로 면적을 많이 차지하며,

130) 협조사항 중앙정보부 및 군사정전위원회의 지원협조 등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131) 내무부, 「대성동 주택 설계에 대한 참고자료」, 1972.

머슴방이 별도로 필요함이 기록되어 있다. 이 밖에 필요한 시설로 축사(우사, 계사, 돈사), 개인창고(농기구, 연료, 곡물 보관), 변소(재간 포함)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설계지침과 함께 본 문서에는 주택의 평면도가 제시되어 있다.[132]

이후, 대성동 개발사업은 각계부처와 경기도, UN과 주한미군 등이 서로 협조관계 속에서 순조롭게 진행되었음을 상호기관 사이에 주고받은 관련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전기시설공사에 대한 문제, DMZ 안에 있는 대성동마을의 항공사진 촬영문제, 버스 기증 문제, 인부들의 진출입 문제 등, 공사현장이 비무장지대에 있는 관계로 개발공사가 시작되면서 UN군 및 주한미군과의 잦은 의견교환과 협조관계가 형성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성동 자유의 마을 1972년 대성동 개발계획 새마을주택 평면도(출처:국가기록원)

이렇게 개발 사업이 진행되던 와중인 1972년 5월 13일 주택신축에 대한 대성동주민들의 건의서가 다시 개진되는데, 이곳에 살아가야할 사람들의 삶의 공간이므로 주민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을 보인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의견서에는 '1956년 유솜과 보사부의 협조로 건축된 슬레이트 가옥(12평)의 대부분이 주택으로 사용치 않고 창고나 헛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계획 중인 11~15평 주택 역시 이러한 결과가 예상될 것이며, 이는 국고의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 건의하고 있다. 1956년에 지어진 주택은 시멘트블록조에 슬레이트를 얹은 가옥으로 보기는 깔끔해 보일지 몰라도 냉난방에 매우 취약하고, 규모가 작아 당시 주민들의 외면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1972년 새롭게 계획한 주택 역시 1956년 주택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 것 같다. 또한 주민들은 '당초 내무부에서 20평 주택을 약속했는데, 11~15평 주택은 약속과 다르며, 주민들의 현지 실정과도 맞지 않는 매우 협소한 주택이 될 것이라 주장'하면서, '예산 때문에 축소해서 지어야 한다면 차라리 기존 주택을 미관상 보기 좋게 개·보수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당시 주민들의 의견은 설득력 있고, 타당한 생각이라고 판단된다.


1972년 완공된 대성동마을 새마을주택
(출처:e-영상자료관, 제목-잘 사는 마을, 촬영일-1972.12.23)

이후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새마을 주택이 예정대로 공급된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 주택은 인근의 통일촌에도 비슷한 시기에 지어졌으나, 이 역시 1980년대 초반 대부분 경관주택(전면박공집)으로 바뀌게 된다.

이후 부속건물 신축문제[133], 마을문고의 기증, 공동축사와 사일로(타워식) 건설, 경운기 지원, 관급자재의 조달요청 등 공사와 관련한 문서가 다수 확인되는데, 이를 통해 1972년 5월 착공 이후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 사업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72년 10월 '준공식 개최계획 문서'가 내무부에서 경기도로 발송되는데, 준공식과 관련하여 세세한 지시사항과 마무리 지시사항이 기록되어 있다.[134]

구분	호수	평균가족수	방수	마루	부엌	욕실	사업비	비고
A형	9동	7~11명	3~4	4~5평	3평	1개	동당 1,000천원	
B형	13동	5~6명	2~3	2~3평	3평	1개	동당 700천원	
C형	9동	1~4명	2	2평	2평	1개	동당 400천원	
계	31동						21,000(평균 700천원)	

132)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관련문서를 검토하다 보니 1971~1972년 당시 대성동 개발을 담당했던 내부무 직원 중 개발담당관으로 근무하며 사업에 깊이 관여했던 사람이 후에 제30대, 제34대 국무총리를 역임하게 되는 고건 전 국무총리이다.

133) 파주군, 「"자유의 마을" 대성동주택부속건물신축계획서」, 1972년 7월 19일.
- 목적:대성동전면개발계획에 의거 주택이축사업에 따른 부속건물 신축
- 규모 및 구조:건평 14.2평, 블록조 슬레이트지붕(25동)
- 시설:변소, 창고(광), 욕실, 일꾼방, 우사 등

134) 발신:내무부, 수신처:경기도지사, 제목:대성동 개발 사업 준공 계획, 1972년 10월 7일.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대성동 개발사업의 준공을 10월 중순경에 가질 예정이니 일자 및 준공행사계획
(식순, 팜프, 초청범위 등)을 10월 12일까지 작성할 것
2. 준공을 앞두고 마무리 작업의 방향을 다음 원칙에 의거 세밀히 추진할 것
가. 마무리 작업 원칙 : 10년 전에 개발한 상태로 주변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할 것
1) 부락 주변 주택지 내부 등의 환경을 미화하고, 안락하고 윤택한 분위기를 조성할 것
2) 주민을 입주시킨 주택 내부 하나하나를 몇 년 살아온 집처럼 정돈되고 안정된 상태로 손질할 것
3) 관광지 이상의 조경을 조성할 것
4) 새마을 정신으로 충만된 자조, 자립, 협동의 주민조직과 부락운영 동태를 유지할 것
나. 마무리 손질을 해야 할 사항
1) 주민의 입주 : 조기 주택 배정, 입주 및 집안 정돈
2) 국기 게양대의 보완 : 상단연장(3M), 지상 게양, 국기 크기 확대
3) 마을 안길의 포장 및 측구 공사 : 간선 안길 공회당 진입로 포장
4) 태성의 경지 및 녹지 조성, 태성까지의 포장
5) 공동창고 부근의 포장 : 공동작업장
6) 주차장의 포장 및 전망대 설치
7) 학교 뒤 언덕 손질 및 주택지, 경사지 녹화
8) 간이 공동축사 및 싸이로 건립 : 공회당 아래
9) 주택 생울타리 및 화단설치, 마당 블록 깔기
10) 태성 앞 경지 정리의 조기 착공
11) 양수장 확장 공사의 조기 착공
12) 택지 조성지 전면 숲의 정돈 : 시계 소통
13) 테레비 공급 알선
14) 73새마을 가꾸기 사업책정 및 착공
3. 도 기획관리실장이 총책임관이 되어 준공 마무리작업에 차질 없도록 현장 지휘할 것. 끝.

이 준공계획 지시가 있은 후 경기도에서는 바로 추가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내무부에서는 이후에도 수차례의 추가 지시사항 전달(1972년 11월 3일)과 함께, 한전을 통한 송전협조를 의뢰(10.30)하는 등 대성동마을의 연내 완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기록들이 보인다. 하지만, 내무부가 당초 계획한 10월 중순 완공과는 달리 대성동마을의 준공식은 12월에나 개최할 수 있게 된다. 어떠한 연유에서 인지는 모르겠으나, 추측해 보면, 10월 중순이면 한창 수확기에 접어든 바쁜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였고, 또한 막바지 공사가 완료되지 못한 결과로 추측된다.

1972년 개발사업의 결과에 대해서는 1972년 12월 21일「자유의 마을」개발사업 준공행사와 관련한 대통령 보고문건을 통해 그 성과를 알 수 있다.[135]

1968년 "대성동지역 조사측량설계"를 시작으로 1971년 마을조성 사업계획이 수립되었고, 1972년 5월에 착공하여 불과 10개월 만에 대성동마을 개발사업이 완료되었다. 이렇게 1972년 12월 21일「대성동 자유의 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완공식을 끝으로 일단락을 맺는다.

표7. 대성동 자유의 마을 개발사업 준공행사 관련 대통령 보고문건 요약

1972년도 대통령각하 연두순시시에 보고드린바 있는 경기도 파주군 대성동 "자유의 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완공하고 별첨 내용과 같이 준공행사를 갖고자 보고 드립니다.

첨부 :「자유의 마을」개발사업 준공행사계획
1. 일　　시 : 1972. 12. 21(목) 14:00
2. 장　　소 : 자유의 마을 현지 공회당
3. 주　　관 : 경기도지사
4. 참석범위 : 관계부처 관계관 / UNC 및 8군관계관 / 현지주민 등(약200명)
5. 행사내용 : 준공식 및 부락시찰(별첨 초청장 참조)
6. 개발사업 : 대성동 개발현황(별첨 개발현황 참조)

部處	事業名	事業量	事業費(천원)	備考
合 計		19개 사업	113,330	※사업기간 : 72.5.1 ~ 72.12
內務	소 계	11개 사업	59,375	
	택지정리	7,500평	3,750	하수도 1,500M 암거 9개소
	주택신축	25동(A형 15.2평 B형 12.8평)	31,165	11. 20 입주완료 / 6세대 기존주택 거주슬레이트 53동분 (대한슬레이트공업협회) 유리 60상자(한동판유리)
	부속건물	23동(14평)	10,460	주민부담 6,900
	공동창고	1동(50평)	2,000	
	민정반사무실	1동(20평)	1,280	
	국기게양대	철탑48M	1,920	국기(가로6.75M, 세로 4.5M)
	간이상수도	1개소	1,500	급수장 1, 배수장 1
	스피커시설	1개소	200	
	자유의집 보수		1,400	
	공동탈곡장, 주차장	2개소	3,000	
	간이축사, 사일로	2동	2,700	

135) 발신:내무부, 수신:청와대 비서실장(정무담당비서관), 국무총리실(정무담당비서관), 제목 : 파주군 자유의 마을 개발사업 준공행사 보고, 1972년 12월 20일

部處	事業名	事業量	事業費(천원)	備考
文敎	학교증축	교실, 교무실 등	8,364	교실2, 교무실 1, 교원사택 2동
農村	소 계	2개 사업	14,091	
	경지정리	15ha	11,624	
	경운기	7대	2,467	주민부담 740, 융자 1,727
商工	전기가설	6.5km	9,000	융자
建設	소계	2개사업	20,000	
	砂川 整理	838m	5,000	
	도로 포장	847m	15,000	
其他	마이크로버스	1대	2,500	신진 자동차공업주식회사 기증[136] 준공식장에서 운행
	마을문고	1조(책100권)		사단법인 마을문고본부 기증

(2) 대성동 종합개발계획(1차, 2차)

1975년에는 내무부에서 「민통선북방개발연구 종합보고서」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되는데, 추진경위에 "정부여당 연석회의에서 維政會(金昌圭 의원 외 4인)가 민통선북방 시찰결과를 보고(1973. 9. 6)"라 되어 있고, 그 아래에 "閣下께서 민통선북방지역 주민들의 정착의욕과 자립정신을 갖도록 하는 방향에서 恒久對策을 마련하도록 吩咐하심(1973. 9. 6)"으로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정부여당 관계자들의 보고를 받은 후 내무부에 민통선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민통선북방 시찰이 실시된 1973년 9월은 장단군 백연리 통일촌 입주식(1973년 8월)이 있은 지 1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 1971~1972년 대성동 개발, 1973년 통일촌 조성사업이 있은 이후이다. 이 두 마을의 사업이 끝난 시점을 시작으로 약 2년 동안 연구를 통해 1975년 보고서가 제출된다.

보고서에는 민통선 북방 마을로 통일촌 2곳과 재건촌 8곳이 명시되어 있으며, 각 관계부처(내무부, 국방부, 농수산부)별로 소관업무와 지침 및 개발방향 등이 서술되어 있다.[137]

이후 1978년에 대성동에 대한 개발계획이 다시 수립된다. '1972년 대성동 종합개발'이 끝난지 불과 6년도 되지 않은 1978년 9월에 경기도지사 명의의 공문(「민통선 북방 전략촌 재개발 계획 수립」)이 내무부장관으로 보내진다.[138]



1973년 제1차 종합개발 이후 대성동 전경(출처:국가기록원)

이 문서는 '민통선 북방 전략촌인 대성동 및 통일촌 재개발 계획 수립' 내용으로 중앙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앞의 문서와 관련하여(발신:내무부장관, 수신:농수산부장관(경지개선과장), 1978년 11월 3일) 내무부장관은 대외비 문건으로 농수산부장관에게 협조요청을 보내게 되고, 경기도의 건의 및 중앙정보부의 협조요청으로 현지확인 결과 재개발의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 문건에는 1979년 사업추진계획이 수립 중에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으며, 그 내용은 경지정리 90정보, 농업용수시설 6개 사업, 농업기계화사업 2개 사업이 담겨있다. 즉, 이때의 종합개발 주요목적은 농경지개발에 있었다. 이후 여러 건의 문서를 통해 1979년 가을부터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되며, 사전에 조사측량설계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이어진다. 결국 이때의 사업결과로 경지정리 면적이 지금의 모습과 같이 조산리 일대를 비롯한 주변으로 확대되는 결과를 낳았다.

1979년 문서에서는 「판문점 주변(대성동) 개발 추진계획」이라는 명칭과 「대성동 종합개발계획」이란 명칭으로 혼용되어 사용하는 것이 특이한데, 그 이유는 대성동을 비롯하여 그 주변지역으로 경지정리 사업이 확대되는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136) 준공식 관련문서에 「신진라이트 버스 수증서 송부」라는 문건이 있어 당시 '신진자동차주식회사 사장'이 마을에 버스1대를 기증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전에는 미군트럭을 이용했던 마을주민에게는 새로운 교통수단이 생긴 것이다.

137) 즉, 이 보고서는 분단으로 인해 방치되거나 버려졌던 민통선 인접지역 마을개발의 기본 방향을 정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138) 발신:경기도지사, 수신:내무부장관, 참조:특수지역과장, 제목:민통선 북방 전략촌 재개발 계획 수립, 1978년 9월 6일.

(7)사업추진요령
(가) 주택개량사업
〈模型〉
· 주택의 외형은 전시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는 모형개발
· 특히 지붕색은 주변환경과 조화되고 원경가시결과가 극대화되도록 유의 배치
  · 지붕형은 牌栱型
〈配置〉
· 주택의 크기는 단층주택은 25평 이상, 2층 주택은 35평 이상, 부속사는 12평 이상으로 건립
· 2층 주택은 38가구 중 30%정도 배치
· 택지는 가구당 200평이상 확보
※ 주택배정 및 관리요령에 대하여는 별도지침시달
(나) 민정반 사무실
· 민정반 사무실은 마을 전면에 배치하되 총건평 60평 정도로 하고 지붕위에 望樓設置
(다) 도로
· 마을내 도로는 노폭을 충분히 확보하여 기계화 영농에 편리확보(간선도로 10m 이상, 지선도로 6m 이상)
(라) 가로등
· 가로등은 마을간선도로와 마을 외곽에 설치
(마) 국기게양대
· 현재 마을회관 옆에 설치된 국기게양대 48m를 민정반 사무실옆으로 이전, 85m 높이로 설치
※ 특수천 대형(12m × 16m) 국기제작
(바) 태성 개발
· 대성중앙에 팔각정 건립
· 대성내 잡목을 제거하고 固囲들 축소하여 석축 및 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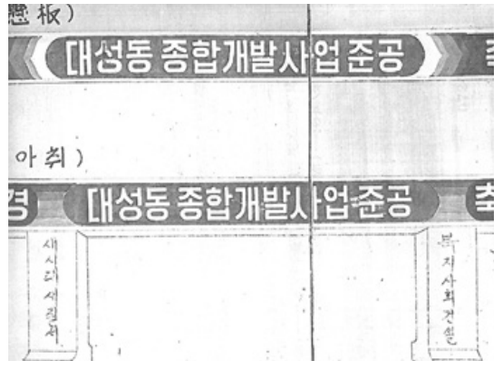
1979년 1월 11일 중앙정보부는 「판문점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대통령각하 재가 통보」라는 문건을 통해 각 추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수신처는 경제기획원, 내무부, 문교부, 농수산부, 건설부, 보사부 등이다. 재개발 사업의 주요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 또한 1972년처럼 날로 발전해 가는 기정동마을(평화의 마을)에 대항하기 위한 선전마을의 재정비 필요성과 전후 못쓰게된 이 지역의 수많은 농경지를 재개발하기 위함으로 추측된다.[139]

이후, 1979년 3월 19일 내무부에서 작성한 「대성동종합개발계획」이란 보고서에는 이

139) 1979년 1월 30일 농수산부, 수신:내무부장관, '대성동 종합개발사업 추진 계획서 제출'이란 문건에 따르면, 사업내용으로 경지정리 200ha, 집수암거부양수장 1개소, 스프링클러 2개소, 농업기계 11대, 개간 10ha 등이 명기되어 있다.

때 추진한 개발사업 내용이 종합적으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대성동 종합개발계획」의 목적과 방침을 살펴보면, 우선 추진기간은 '1979. 1~1979. 11. 30'로 되어 있으며, 목적은 '남북 특수지역의 종합개발로, 한국의 국력신장을 대내외에 전시하고, 지역주민의 안보의식과 정착의욕을 제고한다.'고 되어 있다. 개발방침에 대해서는 '대상사업은 마을현대화사업, 생산기반사업, 환경개선사업으로 하며, 사업추진은 내무부 주관하에 관계부처협조,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한다. 소요사업비는 법적 제한규정에 不抱하고 주민 부담분까지 포함하여 설계 소요사업비를 소관별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1972년 개발사업이 선전마을 조성'에 있었다면 금번의 사업은 마을의 현대화와 주변 농경지의 개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까지만 해도 식량자급과 함께 유휴지 개발의 필요성이 있었고, 휴전선 주변에 대한 농경지 개발이 주목을 받고 있던 시기였다.


1981년 제2차 종합개발 모습(출처:e-영상역사관)



대성동 종합개발사업 준공식 현판안 (출처:국가기록원)

이 문서에서 '농경지정리, 수리시설, 영농기계화사업(농수산부)'과 '간이합수시설사업(보건사회부)', '하천정비사업(건설부)'은 논의에서 제외하고 마을조성과 관련된 '마을현대화 및 환경개선사업(내무부)', '학교강당증축 및 환경정비사업(교육부)' 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해당문서 7항에 사업추진요령이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이때도 주택건설에 있어 가장 중요시된 부분은 북한을 향한 전시효과였다. 멀리서도 보일 수 있도록 2층 주택을 건설한다든지, 국기게양대를 더 높게 재설치하는 등의 계획은 다분히 북한 지역 기정동에 대한 경쟁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계획 하에 1979년 3월 27일 현지측량을 실시하게 되고(1979. 3. 27. 내무부→농수산부, 대성동종합개발사업 현지측량 실시) 이후 수차례의 관계기관회의를 거친 후



대성동 주택입주식(1980년 9월 19일, 출처:국가기록원)

1979년 7월부터 경지정리사업을 시작하게 된다(1979.7.28., 경기도→농수산부장관, 대성동지구 경지 정리 사업 시행).[140]

이때 이루어진 종합개발은 1972년 종합개발에 비해 공사규모나 내용면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대규모 사업으로 농경지정리, 수리시설(저수지, 양수장 등), 하천정비사업 등을 통해 현재와 같은 대성동마을의 근간이 이루어지게 된다. 본 공사와 관련된 내용은 1980년 9월 16일 경지정리 총공사비 산정이 끝이 나고, 대성동마을현대화 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1980년 12월 대성동마을 준공식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

'대성동 주택입주식'과 '대성동종합개발사업준공' 관련 문서를 통해 마을현대화 사업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입주식은 1980년 8월 28일 내무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1980년 9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데 보도자료 제목은 "非武裝地帶內 自由의 마을 台城洞住民36世帶 住宅入住式擧行"이다. 유엔군이 관할하던 비무장지대의 특성상 이들 기관과 협조

140) 대성동개발에는 내무부와 국정원, 보사부, 교육부, 농수산부, 건설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와 경기도와 파주군 등의 지방정부, 유엔사와 미군 등이 관여하고 상호 협력하며 진행되었다.

관계 속에서 사업이 진행되었으므로 관계자들에 대한 감사패와 포상 수여도 하게 된다.[141] 「대성동(자유의 마을)주택입주식 결과보고」에 따르면, 행사는 1980년 9월 19일(금), 11:00~13:00에 대성동마을 앞 광장에서 거행되었다. 내무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특수지역과장, 경기도 회계관, 파주군수, JSA, 미8군 공병참모부 작전계획과장, 문교부 공보과장 등) 등이 참석하였고, 현지주민 229명이 참석하였다. 주택건설사업을 맡은 현대건설 직원 및 인부 100여명과 민정반 장병 50여명도 참석하였다고 한다.[142] 입주식이 11:00~11:45분, 테이프절단이 11:45~11:50 순으로 진행되었고, 주택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는 정부의 특별지원에 감사하고 대북심리전효과 앙양 및 주민정착의욕 제고, 자력발전능력 촉진을 들고 있다.

입주식 3달 후인 12월에는 '대성동 종합개발사업준공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종합개발의 1단계사업을 실질적으로 완료한 것이다. 내무부에서 1980년 12월 15일 작성한 보도자료를 보면 그간의 실적과 준공식 거행 내용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보도자료 제목은 「자유의 마을 대성동 종합개발사업준공식 거행(비무장지대 내의 유일한 자유의 마을 대성동이 標準 福祉農村으로 變貌)」이다.

보도자료의 내용을 요약하면, 종합개발사업은 내무부주관으로 농수산, 건설 등 관계 6개 부처 합동으로 추진하였으며, 마을현대화사업, 생산기반조성사업 및 하천정비사업 등 22개 사업 총 6,508백만원을 투입하여 2년간에 걸친 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마을현대화 사업(내무부, 경기도)으로는 주택개량 36동(27~34평), 공동이용시설 4개 사업(도정공장, 공동창고 등), 환경정비 7개 사업(팔각정, 어린이 놀이터), 민정반사무실 1동, 국기게양대 1개소를 설치하였고, 생산기반조성사업(농수산부)으로 경지정리 20ha, 농업용수개발 2개소, 농지정리 15ha하였으며, 문교부와 보사부, 건설부는 대성동국민학교 신축(196평 2층)과 상수도시설 및 하천정비 3,797m를 완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준공식은 1980년 12월 18일에 거행되었으며, 새롭게 신축한 대성동국민학교 강당에서 거행되었다. 식순은 경과보고(경기도 기획관리실장), 유공자 포상(장관 표창 및 감사패),

141) 발신 : 특수지역과, 수신 : 총무과장, 제목 : 대성동 종합개발사업 유공 외국인에 대한 감사패 수여, 대상자 : '유엔군사령부 공동경비구역 중령 제임스 맥리 쿠스만 사령관, 내용 : 대성동 개발사업 지원, 대성동 민사행정을 통한 안보정착 및 친선도모 등, 1980년 9월 2일. / 발신 : 특수지역과, 수신 : 총무과장, 제목 : 대성동 종합개발사업 유공자 포상, 대상자 : '경기도 기획관리실 주사보 한기택(사업촉진 및 현장지도 감독 철저), 경기도 회계과 기원보 김용환(현장에 주재 주택시공감독 철저) 등), 1980년 9월 2일.

142) 당시 현대건설 사장은 이명박으로 정부로부터 대성동마을 주택신축공사를 입찰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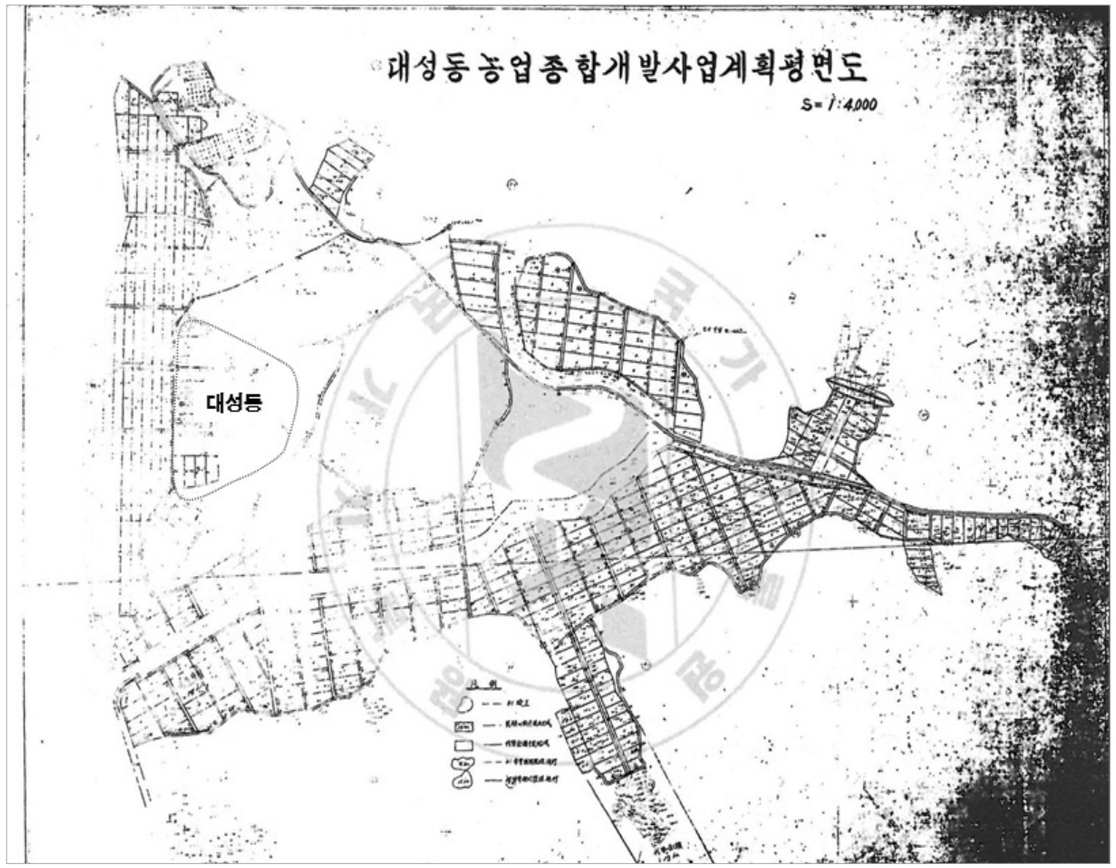
式辞(경기도지사), 기념품전달(내무부, 경기도), 테이프절단, 현장시찰(학교 → 민정반 사무실 → 국기게양대 → 공동창고 → 공동정미소 → 주택 → 팔각정)로 이루어졌으며, 기념품으로는 자전차 1대(이장용), 벽시계 1개(민정반 사무실)가 지급되었다고 한다.

위 내용에서 특히, 내무부에서 시행한 마을현대화 사업과 교육부의 학교신축 등은 2014년 현재의 대성동마을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시설들이다. 이때의 종합개발이 지금 대성동마을의 근간이 된 것이다.

이후 「'82년도 대성동 농업종합개발사업시행계획서」라는 보고서(농업진흥공사, 1982. 1)를 통해 2차 종합개발계획의 내용을 알 수 있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 7월~1981년 12월' 사업을 '1단계 공사'로, 1982.1~1983.6 까지를 '2단계 공사'로 설정하고 있다. 즉, 기존의 1단계 사업이 완료되고, 이에 대한 후속사업으로 2단계사업으로 추진한 것이다. 2단계 사업의 주된 내용은 농업용수 관계시설, 경지정리 확대, 농지증대 등이 주된 내용이었다. 2단계 사업은 1983년 완료되는데, 마지막 문건은 주민대표 김O래 씨가 농수산부 장관에게 보내는 청원서와 이에 대한 농수산부의 회신으로 끝을 맺는다. 그

표8. 대성동 종합개발사업 실적 보도자료(1980년 12월 15일, 출처:국가기록원)

주관부처	사업별	물량	사업비 (백만원)	비고
	계	22개 사업	6,508	
내 무 부	마을현대화사업	14개 사업	1,225	
	주택건립	36동	886	단독(27~34평) 34동 / 2호연립(57평) 2동
	민정반사무실	1동 / 86평	61	
	공동이용시설	4개사업	97	공동창고, 도정공장 등
	국기게양대	1개소 / 85m	33	기존 48m
	환경정비 기타	7개 사업	148	팔각정, 안길포장 등
보 사 부	간이상수도시설	1개사업	28	
교 육 부	학교신축	1개사업(196평)	197	2층 건물/ 본관증축·수선, 미화담장, 조경공사, 도로포장, 비품구입 등
농수산부	생산기반사업	5개사업	4,399	
	경지정리	200ha	974	80~83년까지 시행
	농업용수개발	저수지 2개소	3,292	
	개간	15ha	50	
	농업기계화	10대	39	
	기타 스프링클러	6ha	44	
건 설 부	하천정비	3,797m	659	



대성동 종합개발사업 준공식 현판안(출처:국가기록원)

내용은 마을 주민들은 방축골 및 화성골(소지명) 약 70정보에 대한 개발약속을 이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농수산부의 입장은 동지역의 여건, 시행상의 절차 등의 문제로 추가시행은 불가하고, 현재 계획으로 마무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끝을 맺는다.

이상으로 1971년부터 1972년까지 진행된 "대성동 종합개발"과 1978~1983년 6월까지 이루어진 "대성동 종합개발"에 대해 국가기록문서를 근거로 살펴보았다. 이상을 통해 대성동마을은 3차례 큰 변화를 겪은 것을 알 수 있다.

요약하면, 한국전쟁 이후 마을에 주민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1958~1959년 유엔

과 정부의 지원 하에 건설된 문화주택과 공회당 등의 공공시설을 통해 1차적으로 마을에 변화가 생겼고, 1971~1972년 대성동종합개발을 통해 마을의 기본틀(마을의 공간구조)이 만들어졌으며, 이후 1978~1980년 대성동종합개발(1단계) 사업을 통해 지금의 마을 모습(도로, 현대식주택, 팔각정 등)으로 현대화 되었다. 이러한 대성동 개발의 목적은 DMZ인근의 유휴농경지 개발과 함께 북한을 의식한 '선전마을개발'이 주된 목적이었음을 국가기록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경제적 지원을 국가에서 담당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표9. 대성동 '자유의 마을' 주요 변천과정

시 기	내 용	주택
6·25전쟁	마을 파괴	–
1953년 8월~1968년	1953년 8월 휴전협정 및 주민 귀환 1959년 문화주택, 공회당, 동사무실, 의무실, 목욕탕 등	기와집, 초가집 일부 문화주택(시멘트블록집)
1971년~1972년	대성동 종합개발	새마을주택(시멘트블록집)
1978년~1980년	대성동 종합개발(1단계)	양옥집(1층집, 2층집, 연립 등)
1982년~1983년	대성동 종합개발(2단계)	–



3 주민들의 의식주생활

3. 주민들의 의식주생활

의식주생활은 삶의 기본적인 요소로 한 마을의 의식주생활을 통해 그 마을의 문화와 지혜를 엿볼 수 있다. 대성동마을 주민들의 의식주생활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마을의 안과 밖을 드나드는 것이 여느 마을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전쟁 중에는 남북 군인들의 대립으로 마을 밖 출입이 힘들었고 휴전 이후에는 '민사표'라고 해서 미군들이 군용트럭을 이용해 일주일에 한번 문산으로 사람들을 실어다 주었다. 돌아오는 차가 따로 없어서 한번 나가면 일주일을 문산에서 보내야 했기 때문에 문산에 지낼 곳이 없는 사람은 마을 밖으로 나가는 것이 힘들었다. 또 흙길을 따로 문이 없는 군용트럭을 타고 지나가면 먼지가 많이 나서 담요를 쓰고 타기도 했다. 결혼식장





과거 마을의 유일한 교통수단이었던 군용트럭(김O규 보유사진)

에 갈때는 옷에 먼지가 많이 묻기 때문에 보자기에 옷을 싸가지고 가서 결혼식장 근처에서 갈아입기도 했다. 마을에서 생산되는 작물들의 판매도 농협을 통해 판매하는 것이 아니면 미군트럭을 이용해서 판매하였다. 나중에는 군용트럭이 일주일에 두 번 운행을 하였다.

군용트럭으로 출입을 하다 이후에는 매일 9시에 문산으로 나가고 4시 반에 마을에 들어오는 미니버스가 다녔는데 운행 횟수에 비해 타는 사람이 적어 운영적자로 금세 운행이 중지되었다.

현재는 집집마다 1대 이상의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 출입은 주로 개인 자가용을 이용한다. 지금은 마을 주민 차량들 앞 유리에 UN마크와 함께 대성동마을의 약자인 'TSD'라고 쓰여 있는 스티커를 붙여 마을 주민의 차량을 표시하지만 그 전에는 군인차량처럼 차량에 직접 'TSD'와 함께 번호를 써넣었다.

문산에서 통일촌을 거쳐 마을로 들어오는 버스가 하루에 3회 운행되는데 그 시간은 아침 6시, 정오, 오후 6시이다. 나이가 많으신 마을주민들은 자가 운전이 불가하여 출입이 불편하기 때문에 혈압약과 같이 주기적으로 받아야하는 약 등을 버스운전기사가 대신 전달해 주기도 한다.

3-1 등걸잠뱅이와 사리마다 입고 – 의생활

1) 의복제작과 구입

일제강점기에는 누에를 키우는 잠업도 많이 했지만 비단을 짜지는 않았다. 과거에는 목화도 많이 심어서 목화로 무명천을 짜고 무명천에 물을 들여 옷을 만들어 입기도 했지만 8·15해방 이후까지 직접 무명천을 짜는 집은 거의 없었다. 목화를 많이 기르던 때에는 목화가 여물기 전인 단맛이 나는 '면화다래'를 아이들이 많이 따먹었다.

삼을 심어 삼베도 짜 입었는데 1945년에서 1948년 이후에는 과정이 복잡하고 힘들어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옷감을 직접 만들지 않게 된 후부터는 장에서 광목 등 옷감을 사와 옷감에 사용하는 물감을 이용해서 염색을 해 옷을 지어 입었다. 마을 주민인 김O예 씨(여, 77)는 옷을 잘

만들었는데 겨울에 입는 점퍼도 전부 만들어 입었다. 6·25전쟁 이후부터는 가정형편에 따라 달랐지만 장에서 옷을 사 입는 일이 많아졌다.

6·25전쟁 전에는 깃 없는 긴팔 와이셔츠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등걸잠뱅이를 입었다. 아랫도리는 허리띠를 매는 바지를 입었다. 그 시절 남자아이들은 '사리마다'라 부르는 팬티처럼 생긴 아랫도리를 입고 살았다. 상의는 입지 않기도 하고 등걸이를 입기도 했다.

"우리 어린시절에는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 벌거 벗고 살지? 그 식이야."[143]

"우리민족은 백의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광목에다가 물도 안 들인거. 그거를 주로 솜바지저고리를 해서 입었어요. 많이. 내가 흔히 봤어요. 이 노인들도 솜을 가운데다 넣고 겨울엔 추우니까 솜을 두고 바지를 지었어요. 그럼 아주 근사해 처음에 한건 근데 자꾸자꾸 입으면 낡잖아요. 그럼 좀 지저분해지죠. 옛날에 의복은 백의민족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거 같애.
염색을 안 하고 그냥 속에다가 솜을 두고 추위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입었어요. 그걸 아주 많이 봤어. 6·25사변 전에. 근데 지금은 의복이 발달되고 좀 좋게 나오니까 잠바도 나오고 오리털 잠바다 뭐다 해서 입잖아요. 그러니까 바지저고리가 없어지는 거죠 불편하고 입기도 망하니까. 여름에는 홑바지저고리라고 솜을 뺀 거를 입죠. 그전엔 런닝샤스도 없어요. 우리나라 직물이 발달이 안 되가지고 심지어 런닝샤스도 없고 그냥. 홑잠뱅이라 그래 잠뱅이. 그걸 입었죠. 그거는 하얀거니까 흙물이 쉬들어요. 지저분해. 그래도 그거 빨아서 입는 거야. 비누도 좋지 않고 6·25사변 전에는 비누 그런 것도 흔하지 않고."[144]

여자아이들은 하얀저고리에 까만 치마나 까만저고리에 까만치마를 입었다.

2) 전쟁 중의 의생활

전쟁 중에는 특히 의복을 구하기 더 어려웠기 때문에 광목으로 바지저고리를 만들어 입었다. 여자들은 한복을 지어입고 남자들은 바지에 저고리를 입었다. 전쟁통에 신발을 제대로 신고 다녔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미군들이 쓰는 담요는 구할 수 있어서 밤에 보초 설 때 구덩이를 파고 그 위에 미군담요를 덮은 채로 밤을 지냈는데 겨울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담요위에 서리가 내려 담요가 하얗게 변해 있었다. 미군주둔지가 마을과 가까웠기 때문에 그곳에서 버려지는 옷이나 신발 등을 가져다 입기도 했다.

3) 의복관리

빨래는 여름엔 냇가에 나가 했지만 겨울에는 '주루물'이라고 불리던 마을 우물에서 했었다. 마을에 있던 3개의 우물 중 주루물에서 나는 물이 가장 덜 차가웠기 때문에 겨울에 이곳에서 빨래를 자주 했다. 농사일이 바쁠 때는 빨래할 시간도 없어서 해가 진 뒤에 저녁에 빨래를 하러 가기도 했다. 광목은 방망이로 두드려서 빤 후 다시 양잿물로 빨고 삶아야 때가 지워졌기 때문에 빨래를 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다.

"빨래는 주로 잿물을 내려가지고 추운 겨울에는 가마솥이 있어요. 큰 가마가 있어. 집집마다. 거기다 물을 디어(데워). 거기다 물을 디면은 그 뜨뜻한 물을 냉수하고 섞어서 적당히 손 시렵지 않도록 만든 다음에 군불에다 빨아야 돼. 행구는 거만 냉수에 행구고. 그렇게 해서 지혜롭게 넘어가신거야. 옛날에 비누가 없어도 그렇게 지혜롭게 다 넘어갔어요."[145]

"저 아랫녁에 유성온천인가 가면은 따뜻한 물 나온다는데 여기는 없었어. 옛날에는 찬물로 다 했지. 물에 가서 냇물에 가서 하던지 집에서 우물에 가서 하던지 찬물로 하지, 시양 장갑이나 있지 그 전엔 장갑이 어딧어. 근데 처음에만 인제 새빨갛게 언동안만 손이 시렵지 나중에는 안 시려와."[146]

양잿물을 사용하기 전에는 콩깍지를 태운 재를 탄 물에 빨래를 했다.

143) 박O선(남, 82) 제보
144) 김O래(남, 76) 제보
145) 김O래(남, 76) 제보
146) 김O예(여, 77) 제보

"잿물이라고 어떻게 하냐면 시루에다가 재를 넣어. 그리고 그 물을 거기다 부으면은 잿물이 내려가요. 그럼 그게 비누야. 그물에다가 세탁을 해. 내가 그걸 내 눈으로다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지금 젊은이들은 그 자체도 모를 거야. 짚을 때면 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밑에다가 고운 천 같은 걸 놔. 재가 그냥 내려가면 안 되니까. 거기다 물을 부어. 그걸 시루라고 그래요. 그럼 그 재를 통과한 물이 잿물이야. 그 물이 비누역할을 하는 거야. 그물이. 거기다 세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천연적인 재료야. 말하자면 오염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세제 이런 거는 오염이 되지만은 그 당시에는 비누가 재를 내린 그거가 오염을 안 시키는 거야."[147]

시장에서 잿물가루를 사오면서부터 양잿물을 이용해 빨래를 했는데 양잿물에 쌀겨를 섞어서 비누를 만들어 쓰기도 했다. 6·25전쟁 때는 개성사람들이 겨로 만든 비누를 와서 팔기도 했다. 나중에는 면실기름을 가지고도 비누를 만들었다. 잿물에 밀가루와 면실기름을 넣고 저으면 된다. 따로 끓일 필요는 없는데 물에 양잿물 덩어리를 넣고 재료들을 넣으면 양잿물이 저절로 끓었기 때문이다. 그것을 적당한 크기로 굳히면 비누가 되었다. 지금도 폐식용유를 이용해서 비누를 만들기도 한다.

4) 신발

6·25전쟁 전까지도 짚신을 삼아 신었다. 이후에는 겨다(게다(げた))를 만들어 신었었는데 겨다는 신기가 불편하고 무거워서 오래 신지 못했다.

농사를 짓지 않고 장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던 개성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6·25전쟁 중에도 고무신이나 팔 물건들을 지고 마을에 와서 먹을 곡식으로 바꾸어 가기도 했다. 전쟁이 끝나고 후방에 연락이 된 후부터는 후방에서 고무신을 구해 신었다.

5) 두발관리

6·25전쟁 전에는 마을 초입, 지금의 '자유의 마을 대성동' 간판이 있는 사거리 초소자리에 이발소가 있어서 그곳에서 이발을 했다. 지금은 논이지만 그 전에는 마을도 있고 경찰서도 행길가 마을에 있었으며 개성으로 가는 버스도 그 마을에 섰다. 개성으로 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주막도 술집도 있었지만 전쟁 때 마을 사람들이 피난을 나가면서 마을이 사라졌다. 전쟁이 이후 이발소도 없어지고 마을 밖 출입이 어려워지자 집에서 직접 이발기를 구입해 이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자주 이발하지 않기 위해서 남자아이들은 머리를 아주 짧게 밀어주었다.

파마도 많이 했었다. 처음에 파마는 불파마를 했는데 불파마는 불 속에 집게를 넣었다가 말아둔 머리에 뜨거운 집게를 꽂아 두는 방식이었다. 너무 뜨거우면 부채질을 해서 식혀주었다. 불파마도 미용실에서 하는 것으로 금촌에 있는 미용실에 가서 했다.

지금은 파마나 이발을 하기 위해 문산에 있는 미용실을 주로 이용한다.

3-2 걸어서 간 개성장 - 식생활

대성동의 식생활환경은 농사를 지어 수확한 곡식을 주식으로 먹으면서 마을 앞 냇가에서 잡은 물고기나 참게를 반찬으로 먹는 형태였다.

마을의 우물은 5개가 있었다. 거름말 대장말과 건넛말, 간댓말(양지말), 그리고 아래대장말까지 해서 5개가 있었다. 두레박을 내려 먹는 깊은 우물도 있었지만 바가지로 떠먹어야 하는 우물도 있었다. 마을 가운데에는 주루물이라고 불리는 우물이 있었는데 이 물은 식수보다 빨래를 할 때 많이 이용했다. 샘이 솟아나오는 것이 보일 정도로 샘이 잘 나왔고 여름에는 물이 아주 차갑고 겨울에는 덜 차가운 물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금은 이러한 샘은 찾아 볼 수 없다. 우물을 오랜기간 동안 쓰지 않았고 그동안 마을에 변화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흔적도 찾아보기 힘들다. 쇠죽물도 밥물도 우물물을 퍼 와서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점심을 먹고 물지게를 이용해 우물에 가서 물을 떠다가 집에다 옮기고 나면 오후 3~4시가 되었다.

마을 근처에 '강창웅덩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겨울에도 물이 얼지 않았고 김이 올라오는 것이 보일 정도로 따뜻한 물이 고여 있었다. 가물치가 많이 살아서 그 웅덩이에서 고기를 많이 잡았었다. 여성주민들의 대부분이 이 웅덩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한참 이전에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6·25전쟁 전에는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불을 피울 때 연료는 장작으로 했다. 때문에

147) 김O래(여, 76) 제보

땔감을 해와야 했는데 주변에 높은 산이 없어서 10~20리씩 걸어가서 나무를 해왔다. 지금 군인들의 GP가 있는 백학산 자락까지 걸어가야 했다. 땔감은 주로 남자들이 소달구지를 끌고 가서 해다주는 경우가 많았다.

나무 다음엔 연탄, 기름(석유)을 사용했고 지금은 대부분이 전기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다.

요새는 군것질 거리 등 식생활 환경이 나아졌지만 간식이 없고 마땅한 농기구도 없이 힘들게 농사일을 해야 했던 이전에는 밥을 하루에 6번 해야 했다. 식사준비를 미리 하고 정리를 하고나면 잠도 오래 잘 수가 없었다. 새참도 나르려면 30분 넘게 걸어가야 했다. 새참을 이고 걸으려면 힘이 아주 많이 들었다. 새참으로는 국수, 두부, 콩국, 빈자(빈대떡)등을 해먹었다.

"새벽 1시에 밥을 먹고 마름질하고 탈곡하고 해가 뜨면 아침먹고 새참먹고 점심먹고 참먹고 저녁먹고 6번 해야 해. 그러다가 큰집에 갔다가 일이 깨졌는데 너무 좋아. 비가 부슬부슬와서 일을 못하니까 너무 좋아."[148]

1) 전쟁통에 구한 먹거리

전쟁을 겪는 중에서도 먹기 위해 작은 규모로라도 계속 농사를 지었다. 마을 앞 '동그랑산'에 숨어 있는 중공군을 피해 목숨을 걸고 추수를 하러 다니기도 하고 폭격으로 타버린 쌀을 씻어 먹기도 했다.

그나마 논이나 밭에서 나는 곡식들은 농사를 지어서 구할 수 있었으나 마을 안으로 출입하는 사람도 없고 마을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기 때문에 소금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마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막사에서 얻어오거나 피난나간 사람들이 놓고 간 것을 찾아서 먹기도 했다.

"소금이 문제였어요. 소금. 소금이 없는 걸.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내가 미군부대를 놀러가는걸 요새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미군부대 가면 '야 그거 한국사람 만나면 소금 좀 얻을 수 없냐고 물어보라'고 하셔. 소금이 가장 필요한 거거든. 아 소금 없는 게 식량보다 더 귀하던데. 그래가지고 김치를 해 먹을라도 소금이 있어야 하잖아요. 김치도 심어놨는데 종자는 있는데 소금이 없는거야. 다 떨어져서. 일 년이 지나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한국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 소금을 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소금 좀 한 푸대 얻을 수 없냐 그랬지. 소금을 쪼그만 푸대로 하나 줬어요. 미군이. 아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반가워 하시는거야. 우리 어머니가. 고기보담도 더 좋아 하시는 거지. 소금을 내가 얻어온 기억이 있어요."[149]

소금뿐만 아니라 고기나 구하기 어려운 먹거리들을 미군부대에서 많이 얻어왔는데 아이들이 미군막사로 찾아오면 배가 고파서 오는 것으로 생각했는지 남은 돼지고기나 씨레이션(C-ration), 초콜릿 등을 나누어 주었다. 씨레이션은 미군 전투식량으로 식사는 물론 디저트, 커피까지 들어있었는데 매일 비슷한 음식만 먹다가 접한 씨레이션을 맛있게 먹었던 것으로 김O래 씨(남, 76)는 기억하고 있다. 담배가 들어있기도 했는데 그런 것은 아버지께 가져다 드렸다.

"미군들이 또 고기도 줘요. 미군들이 다리를 어떻게 그 참 잘했어. 요리를 그 사람들은 쪄서 나오는 돼지다리 고긴데 그걸 내다 버렸어. 그거 지들이 먹고 남아 보급이 흔해요. 그냥 미군부대에 가면 먹을게 널려 부전해 그냥. 씨레이션서부터 뭐 그냥. 뭐 그런 고기도 많이 얻어다 먹고. 미군부대에 옆에 가면 배고파서 왔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지 씨레이션을 줘요. 그냥 또. 그래서 매일갔지. 거길 또.
(그렇겠죠.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생전 처음 보는 씨레이션 통이거든요. 아 그런 때 따는게 또 없잖아. 간신히 통을 얻어 왔는데. 높이는 한 이만하고 굵기는 한 요만한데 높이는 한 요만 할 거야. 파랗게 뺑기칠(페인트칠)하고 뭐 글씨를 썼는데 영어로 썼는데 영어를 알아 뭘 알아. 그래서 그걸 칼로 이렇게 도려서 땄죠. 따는 기계도 없잖아요. 아 그랬더니 요리를 그렇게 맛있게 했더라고 그냥. 어떤 거는 뜯으면 콩이 반 들고 소고기를 다진 게 덩어리로 동그랗게 해서 3개를 넣었어. 그리고 위에는 또 콩이고. 어이구,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맛있게 요리를 했더라고. 무척 얻어다 먹었어요. 또 어떤 걸 뜯으면은 커피를 하나 끓여 먹을 수 있는 거 하고 껌도 들어있고 휴지가 하나 들어있고 담배가 또 한 각

148) 권O순(여, 80) 제보

149) 김O래(남, 76) 제보

이 들어있어. 담배는 우리 아버지 가져다 드리고 껌 이런 거는 꺼내서 씹어보기도 하고 커피는 생전 처음 커피를 뭐 먹어 봤나요. 먹어보니까 쓰고 그러니까 다 쏟아 버리고. 그런 기억이 나요."[150]

2) 장담그기

정월에 장을 담그는데 주로 말날 많이 담근다. 그 날 담가야 장맛이 달고 좋다는 어른들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때 담근다. 소금의 양은 달걀을 띄워 맞춘다. 고추장은 봄에도 담그지만 가을에도 담그는데 가을에 담글 때는 메주보다 간단하고 빠르게 만드는 고추장메주를 만들어서 담그기도 한다.

간장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는 항아리를 옮겨서 햇간장을 섞어 주어야 한다. 김O예 씨가 간장은 담가서 그냥 두었더니 5~6년 정도 되어서 항아리가 깨져버렸다. 간장이 오래 묵으면 아랫부분에 소금이 많이 쌓여서 딱딱하게 굳으면서 항아리가 깨져버린 것이다. 나중에 그 소금덩어리를 씻어내려고 했는데 물을 넣어도 잘 녹지 않았다. 또한 햇간장을 섞지 않고 오래 묵힌 간장은 맛이 없다. 오래 묵힐수록 까맣고 짠 맛이 강해지기 때문에 음식을 해도 음식이 까맣게 되고 짜게 된다.

고추장이나 된장은 1년 이상 두고 먹지 않는데 고추장은 2년 이상 묵으면 수분이 날아가 딱딱해 지기 때문이다. 오래 두어 굳어진 된장에는 첨물(간수)을 섞으면 굳은 것이 풀어진다.

3) 술담그기

술은 누룩을 이용한 '누룩술'과 시장에서 파는 술 담그는 약을 가지고 담그는 '약술'이 있었다. 시아버지가 계실 때는 항상 집에 술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자주 술을 담갔지만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자주 술을 담그지는 않았다. 요새는 술은 사서먹고 담가 먹는 일은 없다.

"예전에는 누룩도 다 집에서 만들었어. 밀을 쪄서 그릇에다 놓고 밟아. 밟아가지고 덩어리를 만들어서 쑥을 베어다가 그 위에다 착착 놓고 쑥을 탁 덮어두면 뜨듯하니까 뜨잖아. 한 일주일 열흘은 둬야지 뜰 때까지 놔둬야지.
약술은 밥알이 아주 하얗게 돼. 밥알이 하얗게 튀겨져. 약술은 밥을 쪄. 쌀을 불린 다음에 시루에 넣고 쪄가지고서는 그걸 식혀. 한김 나가게 식힌 다음에 약을 쳐. 약은 문산에 가게에서 파는데 봉다리에 술하는 약 주세요 하면 줘. 그걸 넣고서 버무리면 버무려서 자루에 담아 놓으면 밥알이 하얗게 튀겨져. 그렇게 다 튀겨진 다음엔 이슈트(이스트)를 사다넣고 하는거야. 누룩은 안 섞어. 약술엔 누룩을 안 넣는거야."[151]

"약술은 쪄가지고 밥을 쪄서 식혀가지고 그걸 버무려요. 약을 쏟아가지고 그냥 골고루 섞어지라고 버무려요. 그러면 하얗게 튀겨져요. 자루에 담아가지구 뜨뜻한데다 놔둬 그러면 그것이 하얗게 튀겨져요. 그럼 그걸 항아리에 쏟아가지고 이슈트(이스트)가 있어 그걸 좀 넣고 물을 쪼금 넣고 많이 느면 싱겁고. 물을 많이 넣으면 술이 독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물을 어느정도 잡는 양이 있잖아요.
인제 어른들 없으니까 술도 안 담가 놓고 편해 아주."[152]

4) 김장

김장은 품앗이 힘으로 담근다. 친한 집들이 모여 하루에 한집씩 돌아가면서 담근다. 김장은 입동을 기준으로 전에 담그기도 하고 지나고 담그기도 하는데 이전에는 김치가 빨리 익어버리지 않도록 입동이 지나고 많이 담갔지만 지금은 김치냉장고에 보관을 하기 때문에 입동전에 담그는 경우도 많다.

김장담그기 전날에는 배추를 씻어서 절여두고 무를 썰어둔다. 양념은 마늘, 파, 액젓, 고춧가루, 생강 등을 넣고 만드는데 액젓은 예전에는 황시기젓(황새기젓)을 다져서 많이 넣었는데 최근에는 멸치액젓, 까나리액젓, 갈치액젓, 새우젓 등 각 집안의 사정에 맞게 넣는다. 권O순 씨는 액젓대신에 생새우를 넣는다.

지금은 포기김치나 알타리김치 등을 많이 담그지만 예전엔 '보쌈김치'나 '호박김치'도 담갔다. 보쌈김치도 김장김치를 담글 때 같이 담갔는데 옛날에 도지하고 나면 땅주인에게 조금 해서 주거나 특별한 사람이 올 때 하는 특별한 음식이었다. 과거에는 벼나 곡식

150) 김O래(남, 76) 제보
151) 홍O순(여, 78) 제보
152) 권O순(여, 81) 제보

을 타작하기 위해 마당질을 할 때 꼭 상에 올렸다. 보쌈김치는 배추잎사귀에 포기김치와 같은 양념으로 버무린 잣, 감, 사과, 배, 실고추 등을 넣어 한 덩어리씩 쌈처럼 만들었다. 윗부분은 묶는 것이 아니라 배추잎을 포개어 쌈이 풀어지지 않게 싸놓는다. 먹을 때는 쌈을 한 덩어리씩 꺼내어 먹었는데 배추김치처럼 조금 익혀 먹어야 맛있다. 남O옥씨(여,79)가 시집을 왔던 시절만 해도 해먹는 집이 많았으나 만드는데 손이 많이 가서 지금은 해먹지 않는다. 호박김치도 했는데 포기김치를 하는 똑같은 양념에 호박을 썰어서 배추와 함께 버무려 만들었다. 포기김치와 다른 점은 배추보다 호박을 더 많이 넣어 만든다는 점이다. 호박김치에 사용하는 호박은 재래종인 늙은 호박으로 만들었고 포기김치처럼 반찬으로 놓고 먹기 보다는 주로 돼지고기 등과 함께 찌개를 끓여먹었다.

> "호박김치라고 그것도 많이 하구 호박 썰어서 배추 좀 넣구선 김치처럼 양념해서 버무려서 만들지 뭐. 호박김치는 배추보다 호박을 더 많이 넣는거야. 그거는 그냥 지져먹는거야. 호박은 옛날 재래종으로 해 늙은 거. 그건 주로 인제 돼지고기 넣고 통째넣고 지져먹는거예요. 그거는. 돼지고기랑 넣고 끓여먹어. 인젠 안 먹어서 안해."[153]

보쌈김치도 호박김치도 개성 쪽에서 즐겨먹던 음식인데 개성이나 북쪽이 고향이신 분들이 많아 마을에서 해먹는 집이 많았다.

5) 시장

6·25전쟁 이전에는 개성과 장단역에 있었던 장을 이용했다. 거리상으로는 장단역장이 더 가까웠으나 개성장으로 가는 길이 더 잘 되어 있어서 자주 이용했다. 지금은 두 군데 모두 북쪽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갈 수 없다.

개성장은 걸어서 한나절이면 갔다 올 수 있었다. 25리(9km) 정도 되는 거리였다. 박O선 씨(남, 82)의 어린 시절에는 개성장까지 걸어갈 일이 종종 있었는데 물건을 사러가기보다는 심부름을 다녀오는 일이 많았다. 심부름은 주로 논농사를 짓지 않는 개성사람들에게 이엉을 엮어다 팔거나 나무땔감도 해다가 팔 때 언제까지 이엉이나 나무를 준비해 주어야 하는지, 양은 몇 달구지 정도 해 와야 하는지를 물어보러 갔다 오는 일이었다. 지금은 전화로 물어볼 일들을 한나절동안 걸어 다니면서 물어봐야 했다.

전쟁 이후에는 마을 내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물건을 외부에서 사와야 했다. 이전에는 민사처에서 제공하는 군용트럭을 타고 금촌까지 가서 물건을 사왔었다가 1980년대부터는 트럭이 문산으로 운행을 해서 문산에서 장을 봤다. 한번 나가면 일주일을 밖에서 지내야 했고 친척집 등 지낼 곳이 없으면 여관 등에서 비용을 지불하며 지내야 했기 때문에 장을 자주 보러 나가지는 않았다.

이렇듯 자주 장을 보러가지 못하던 시절에는 마을 안에 가게가 있었다. 미군트럭을 운영하던 시절에도 가게가 있었다. 1980년도 개발 이전에는 개인집의 일부를 고쳐서 가게를 했었다. 가게도 여러 집이 했었는데 박O선 씨 댁 아랫집과 지금 부녀회장님 댁에서도 했었다. 가게라고 해도 다양한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담배나 소주 등 술을 조금 파는 정도였다. 생필품을 두고 파는 것이 아니었다. 가게는 한 집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 이집 저집에서 하다 안 하다를 반복했다. 새로 노인정을 짓고 있는 자리가 최근까지 가게가 있던 자리이다. 가게가 완전히 없어진 지는 5~6년정도 되었는데 집집마다 2대 이상의 자가용을 보유하게 되면서 밖으로의 출입이 자유로워지면서 주민들의 이용이 줄어들게 되고 가게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없어지게 되었다.

현재도 장을 보기 위해서는 문산으로 많이 간다. '문산전통시장'이 4일과 9일에 열리지만 문산에 큰 마트 등이 많이 생겨 장날이 아니어도 물건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지금도 마을 내에는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운전을 하지 못하는 나이 많은 주민들은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다른 주민들이 출입할 때 함께 차를 이용하거나 버스를 이용한다.

6) 일상식

남O옥 씨(여, 79)가 시집왔을 때만 하더라도 마을 앞 개울과 저수지 등에서 잡은 물고기가 좋은 반찬거리였다. 물고기는 샘이 나는 웅덩이에서 잡거나 냇가에다 그물을 쳤다가 걷어오기도 했다. 남O옥 씨의 시아버지는 고기를 많이 잡아오셨는데 매일 잡아온 고기를 말리기 위해 손질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그 때 가끔 잡히던 가물치도 아주 컸다. 가장 많이 잡히던 붕어를 말려서 쪄먹었는데 무와 파, 마늘, 고춧가루를 넣고 붕어와 함께 조리면 맛이 좋았다. 매운탕도 많이 끓여 먹었는데 고추장과 파란고추를 숭덩숭덩 썰어넣고 끓이면 남자들이 아주 잘 먹었다.

153) 남O옥(여, 79) 제보

북쪽에서 댐을 건설하기 전에는 마을 냇가에서 참게도 많이 잡을 수 있었다. 참게는 냇물에서 그물을 쳐서 잡기도 하고 '가리'라는 것으로 잡기도 했다. '가리'는 위는 좁고 아래는 넓게 깔대기처럼 생긴 것으로 물고기나 참게를 넓은 부분으로 가두어서 위쪽의 좁은 구멍으로 꺼내었다. 칡덩굴로 엮어서 만들었다. 참게는 매운탕에 넣기도 하고 참게장을 담가먹었는데 요새는 게도 별로 없고 잘 잡지 않아서 게장을 잘 담그지 않는다. 끓여서 식힌 간장을 이용해 참게장을 만들었는데 양념은 따로 하지 않고 먹기 직전에 양념을 해서 먹었다. 개성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만두도 수시로 만들어 먹었는데 고기와 김치, 두부를 다져 넣고 숙주나물도 넣고 참기름, 깨소금, 파, 마늘, 소금 등 양념이 많이 들어가야 맛있다. 밀가루로 피를 만들어 먹었다. 올해는 김O예 씨가 사고로 건강이 좋지 않아 만들지 않았지만 못자리 낼 때나 모내기 할 때 만두를 만들어 새참으로 해먹었다. 여름에는 호박만두도 많이 먹었다. 호박만두의 속은 애호박을 채 썰어서 절여두었다가 소금기를 빼서 짜낸 후 고기와 섞어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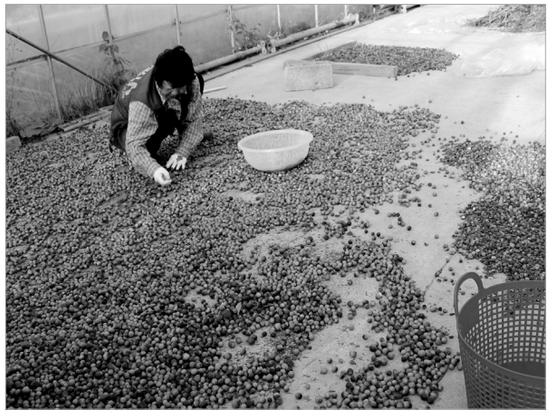
"애호박 파란 거. 그것 채 썰어서 절였다가 짜가지고 고기하고 섞어다가 양념 만들어서 만두 속 싸는 거지."[154]

봄에는 산에서 구할 수 있는 나물을 이용해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대성동에서 많이 구할 수 있었던 봄나물은 마타리, 원추리, 니까삭, 고사리, 쇠비름, 쇠고비나물 등이었다. 냉이는 해토가 되자마자 나오는 나물이었다. 김O예 씨는 국을 끓여 먹기보다는 무쳐서 많이 먹었다. 마타리는 약간 깔깔한 나물이다. 니까삭은 깔깔하고 맛은 좋지 않았지만 여름에도 자라났기 때문에 그걸 캐어다가 끓여먹곤 했다. 예전엔 나무를 때고 지냈기 때문에 산에 풀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나물을 캐기가 쉬웠다. 예전엔 취나물도 많이 났는데 산에 사람도 자주 다니지 않고 풀도 베어주지 않다보니 풀이 겹겹이 쌓여서 나물이 자라지 않게 되었다.

김O예 씨의 아들은 천마농사를 짓고 있는데 천마를 직접 심어 키우는 것은 아니고 천마가 잘 자라는 곳을 가꿔주어 천마가 더 잘 자라게 하는 방식으로 한다. 봄에 수확하여 판매하기도 하고 천마주를 담가 먹기도 한다.

가을에는 마을 산에 가서 도토리를 주워 도토리묵을 만들어 먹는다.

154) 남O옥(여, 79) 제보



도토리 껍질 까기



도토리 앙금 만들기

산에서 주워 온 도토리를 햇볕에 잘 말려 두었다가 껍질을 까고 알맹이만 모아서 가루로 만든 후 그 가루를 물에 푼다. 도토리가루 물을 체나 포대로 걸러 낸 뒤 그 가루를 가라앉혀 앙금을 만든다. 이렇게 만든 고운 도토리가루를 물과 섞어 잘 저어 끓이면 도토리묵이 된다.

3-3 선전마을로 다시 자리잡은 가옥 - 주생활

1) 대성동마을 과거와 현재의 배치변화

(1) 1958년 이전

대성동마을과 그 주변은 조선시대 옛 지도에도 표기되어 있을 만큼 오래된 마을이다. 고려시대 수도인 개성과 인접하고 있어 마을의 역사는 조선시대 이전까지 올라갈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실증적인 마을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다. 그나마 1918년 제작된 지형도를 통해서 대략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우선 동쪽으로 구릉지(산)가 대성동마을을 감싸고 있으며, 그 너머로 의주길이 자리잡고 있다. 서쪽으로는 넓은 농경지와 분지천이 북에서 남으로 흘러가고 있다.



1918년 수치지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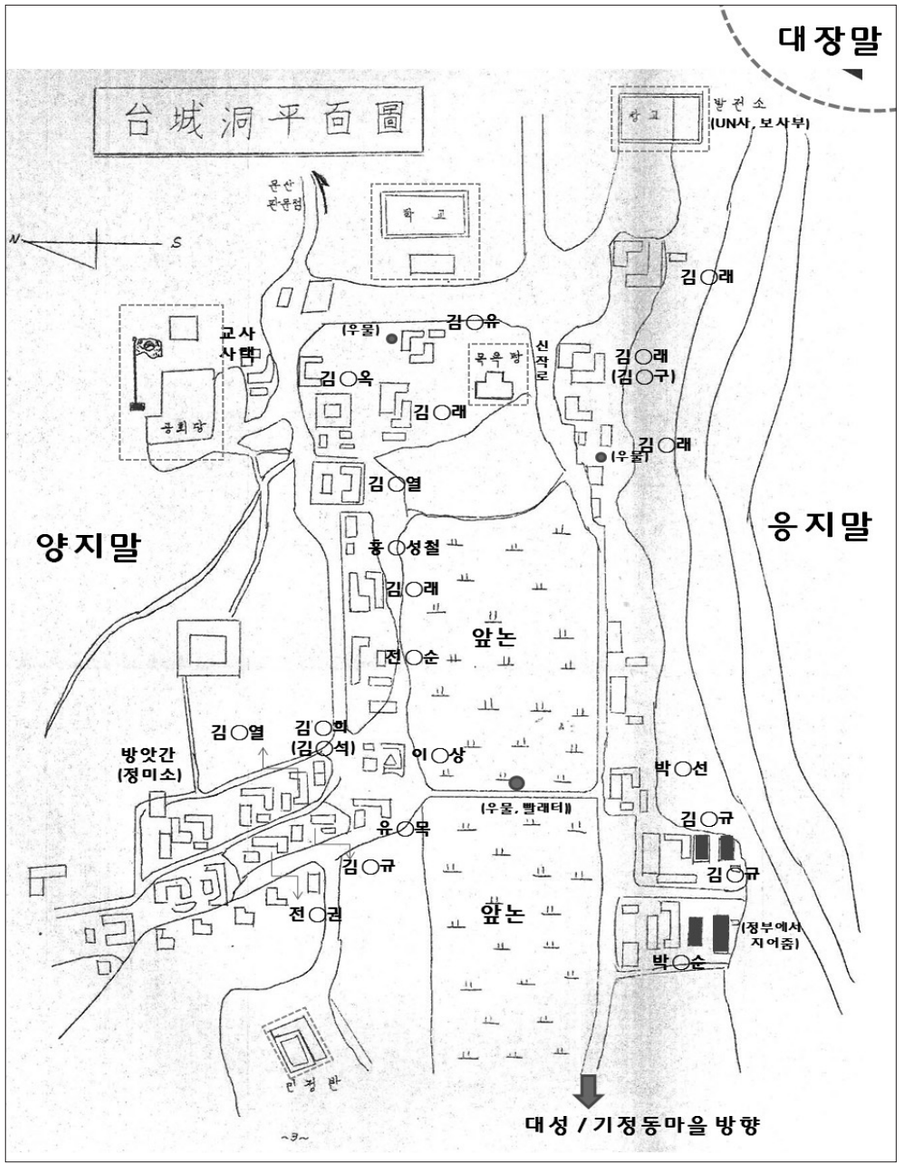
조산리로 표기되어 있는 곳에 건물(가옥)이 몇몇 표기되어 있으며, 현재 대성동마을 위치에는 농경지와 건물 1~2채 이외에는 별다른 시설물은 없다. 조선시대 및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곳은 현재 대성동마을의 남쪽인 조산리가 중심마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성동마을은 조산리 인근의 촌락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1959년

1959년은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 마을주민이 모여살기 시작한 지(1953년) 6년 정도가 지난 시점으로 마을주민들 증언에 따르면 이때까지만 해도 변변한 집 대신에 초가집이나 움집을 짓고 살았다고 한다. 1959년 미군과 정부의 주도하에 문화주택과 동사무소, 공회당 등이 건립되면서 대성동마을은 어느 정도 농촌마을로서의 틀을 갖추고 정착된 시기로 볼 수 있다. 1972년 대성동개발사업 이전 마을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제작한 마을배치도와 사진자료가 남아 있어 당시 마을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마을은 크게 공회당이 있는 능선 아래쪽 마을인 양지말과 '앞논' 건너편 응지말(당시는 나지막한 능선이었으며, 이곳을 중심으로 마을이 자리잡음)로 구성되어 있었다. 공회당과 학교(대성동국민학교), 발전소, 목욕탕[155] 등의 공공시설이 마을의 가장 안쪽에 자리잡고 있었으며, 민정반은 가장 서쪽 북한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었다. 마을로 진입하는 주도로는 학교 왼쪽 문산, 판문점방향의 길이 공회당 앞을 지나 양지말로 이어지고, 학교 오른쪽 길은 신작로로 응지말로 이어진다. 이 길을 따라 양쪽 능선 아래쪽에 'ㄱ'자, 'ㅁ'자 또는 '一'자형 살림집들이 자리잡고 있었으며, 중간 중간에 정부에서 지어주었다고 하는 '一'자형 '문화주택'이 있었다고 한다.

155) 마을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목욕탕은 이박사(이승만대통령)때 지었으나, 보일러 기술자가 없어서 얼마 후 유명무실해졌다고 한다. 장작을 때는 보일러였다.



1972 대성동 개발사업 이전 마을배치도 (출처:국가기록원, 1972 대성동 종합개발, 재편집)

한편, 대성동마을 초입(고개를 넘어오는 도로 인근)에는 대장말이 있었는데, 10여가구가 모여 살았던 동네라고 하는데, 현재 대성동마을 주민인 김O예 씨 김O래 씨 등이 당시 대장말에서 살았었다. 그러므로 이 당시에는 양지말, 응지말과 더불어 인근의 대장말

이 지금의 대성동마을의 근간이 되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사진자료를 통해 당시의 마을모습을 엿볼 수 있는데, 길가로 초가집들이 자리잡고 있으며, 그 너머 언덕위에 공회당 건물을 볼 수 있다. 마을주민들은 한복을 차려 입고 있는데, 눈이 쌓여 있는 것으로 보아 설날에 찍은 사진으로 추측된다.

(3) 1972년

1971년 시작해서 1972년 완료된 대성동 종합개발은 대성동마을 배치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개발사업의 주요 내용은 대북선전 목적의 주택신축, 국기게양대 설치 등과 주민의 자립영농을 위한 경지정리사업이 주를 이루었다.

개발사업 초기 대략적인 개발계획이 담긴 계획도를 살펴보면, 우선, 주택신축은 기존 마을의 남쪽(응지말 남쪽 구릉지)에 계획 하였고, 현재 팔각정이 위치한 대성 안쪽에는 기념탑 설치 계획이 표기되어 있다. 영농과 관련하여서는 마을의 서쪽 군사분계선을 따라 장방형으로 대단위 경지를 정리하고, 마을 북서쪽 소류지(지금의 어룡저수지) 인근에 양수장을 설치하여 경지정리 구역까지 연결하는 계획이 표기되어 있다. 이러한 개발계획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서 상세히 다루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한다. 이러한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1972년 완공식을 기념하여 각계주요인사에게 안내장을 발송하게 되는데, 이 안내장 마지막 장에 대성동종합개발의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감도가 첨부되어 있다.[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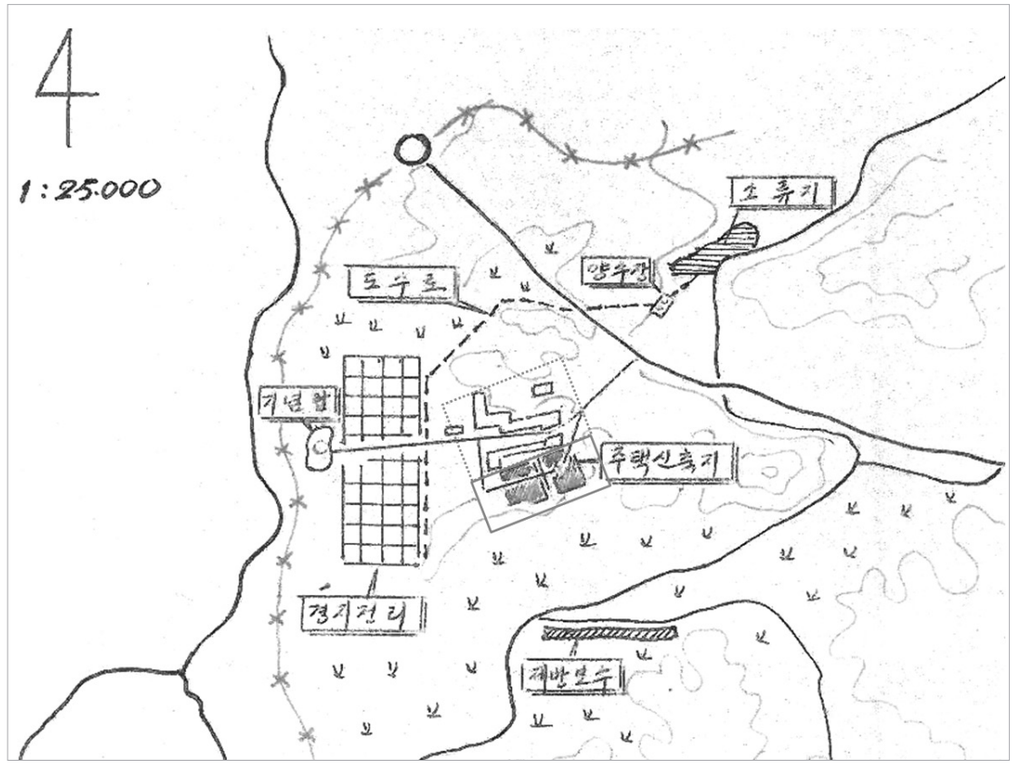


1960년대 마을모습1-양지말
(출처:국가기록원)



1960년대 마을모습2-양지말
(출처:국가기록원)

우선, 도로를 살펴보면 학교를 기준으로 북쪽에 있던 기존 도로가 사라진 대신 1번 국도에서 마을로 진입하는 약 847m의 도로가 포장되었으며, 신마을을 중심으로 격자형 도로망이 설치되어 총 9개의 주거블록이 형성되었다. 한 블록 당 2~4가구를 배치하였는데, 신축주택은 총 25동이라 표기되어 있다. 새롭게 설치한 공공시설로는 마을의 가장 서쪽에 공동축사와 사일로(silo), 주차장, 공동상수도 집수장이 설치되었으며, 국민학교 맞은편에는 공동창고가 새롭게 들어섰다. 마을 주변으로는 총 45ha의 농경지가 봄과 가을에 경지정리사업이 진행되었다. 1972년도 대성동마을의 배치는 구마을은 잔존시키면서 공공시설을 보강하였고, 옛 응지말 뒤편 구릉지를 정비하여 새로운 마을이 들어선 것이 가장 큰 변화이다. 기존의 농촌마을은 자연과 지형지세에 순응하여 자연스러운 마을



1972 대성동 개발사업 개발계획도(출처:국가기록원, 1972 대성동 종합개발)

156) UN군 관계자, 미군 관계자를 고려하여 영어를 병기한 것으로 보인다.

배치를 형성하는데 반해, 선전목적으로 조성된 신마을은 격자형 도로와 정형화된 주택, 공공시설물 등으로 인해 대성동마을에 새로운 배치질서가 적용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198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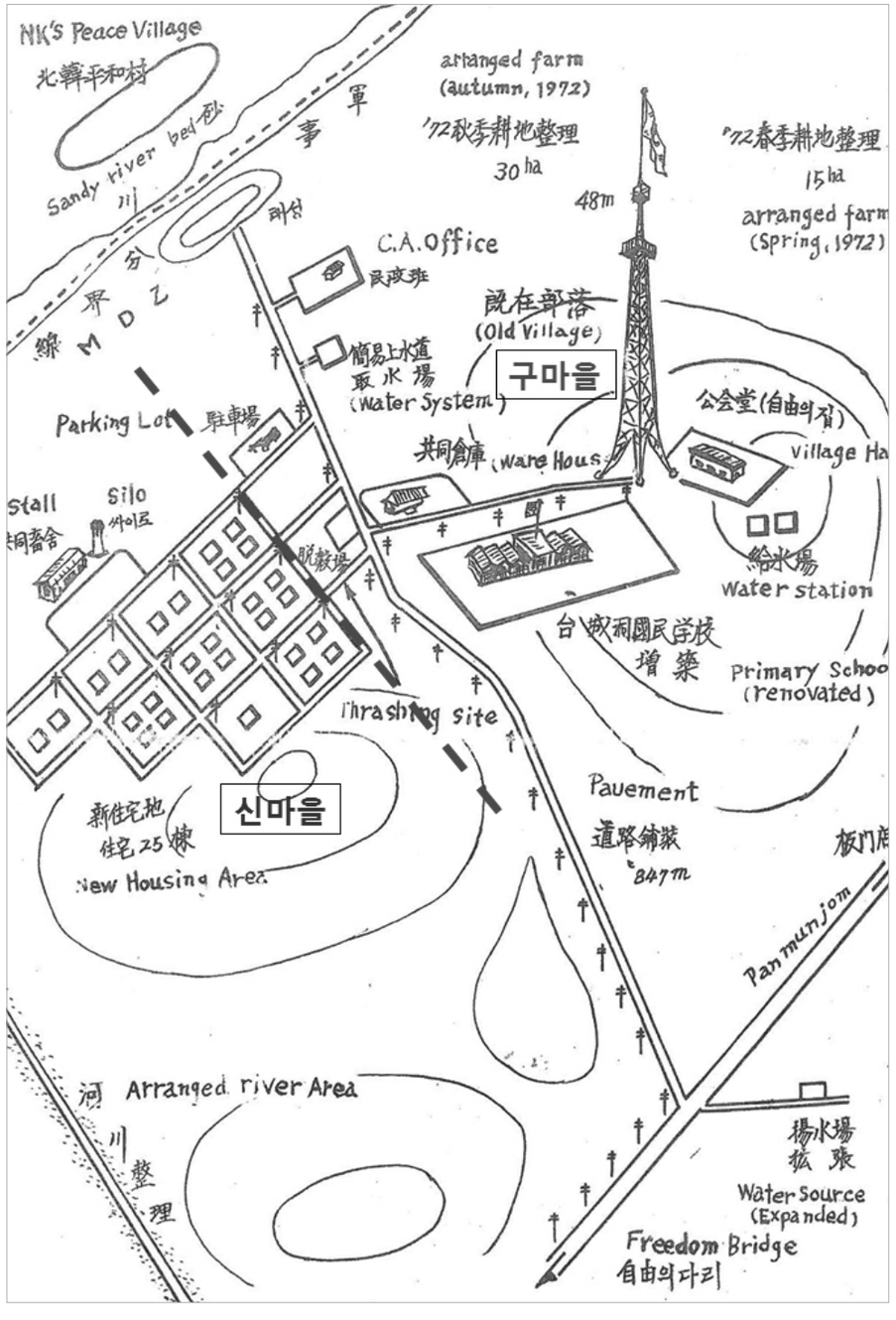
1979년 시작한 대성동 종합개발은 1980년 12월 준공되었다. 이때 개발은 북한 기정동마을(평화의 마을)에 대응하여 대북 선전을 위한 마을현대화에도 그 목적이 있었지만, 더 나아가 1971년부터 추진해왔던 DMZ 주변의 농지개발 및 경지정리사업에 그 중요도를 두고 있었다. 구마을과 신마을이 나란히 자리잡고 있었던 것과 달리 1979년 종합개발을 통해 구마을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고, 그 자리에는 격자로 구획하여 주택필지와 공공필지가 조성되었다. 이로써 옛 대성동마을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현대화된 대성동마을로 재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다.

북한을 향한 전면필지(두블록)에는 층고가 높은 현대식 주택(1층주택, 2층주택, 2층 연립주택 등)이 조성되었고, 그 뒤쪽으로 공공시설이 자리 잡게 되었다. 계획상으로는 마을의 가장 안쪽에 여전히 국민학교와 마을회관(공회당), 민정반사무소 등의 공공시설이 위치해 있고, 마을 중심에는 놀이터와 체육시설, 공동창고, 정미소 등이 계획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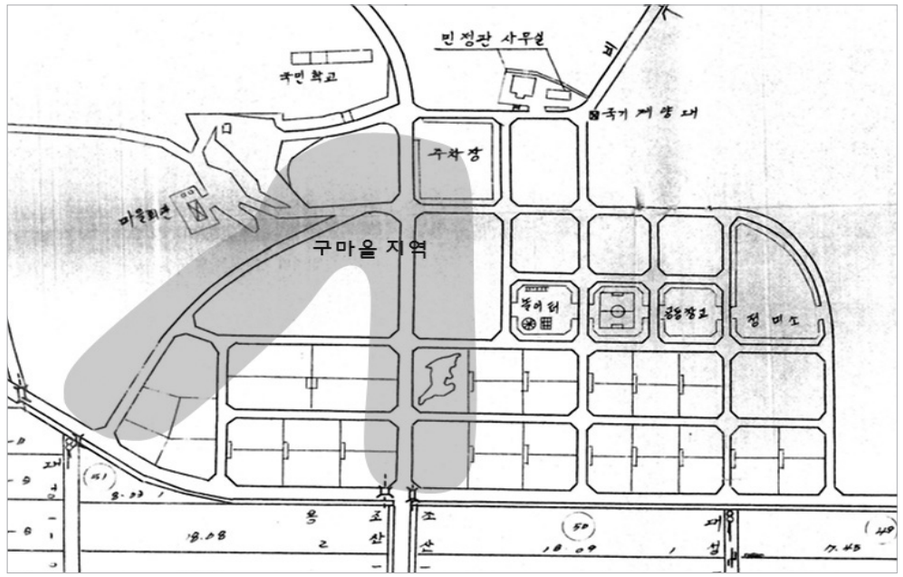
도로로 구획된 각각의 블록은 남북방향으로 세장 형태로 주택필지의 경우 6필지 또는 4필지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마을에서 가증 높은 시설물인 국기게양대는 공회당 인근에서 민정반 옆에 새롭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계획도 상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태성 중앙에 2층 높이의 팔각정도 들어서게 된다. 이렇게 대성동마을은 1980년 종합개발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이전의 마을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일반적인 농촌마을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현대화된 농촌마을로 재탄생하였다.

(5) 현재 대성동마을의 배치

1980년 대성동 종합개발로 이후 대성동마을은 바둑판식 도로망과 상하수도시설, 각종 공공건물 등의 인프라시설과 현대식주택이 조성되면서 당시는 찾아보기 어려운 쾌적



1972 대성동 개발사업 준공식 안내장 마을조감도 (출처:국가기록원, 1972 대성동 종합개발, 재편집)



대성동 농업종합개발사업계획평면도 (출처:국가기록원, 1980 대성동 종합개발)



1973년 대성동마을 전경



1981년 대성동마을 전경(출처:국가기록원)

한 농촌마을로 변화하였다. 또한 주변의 광대한 농경지를 경지정리하면서 마을주민들은 대규모 영농을 영위할 수 있었다. 마을의 전체배치는 1980년대 조성된 당시의 모습을 근간으로 주민들의 삶의 변화와 편의에 따라 부분적으로 변화되었다. 공회당을 대신하여 마을의 중심에 마을회관을 신축했고, 마을 곳곳에 농기계창고(공동창고, 개인창고 등)가 신설되었다. 주택 주변 담장은 대부분 사라졌으며, 유실수와 각종 수목이 무성히 자라나 있다. 1980년 준공 이후 한세대인 30년이 지나면서 몇몇 주민들은 타지에 나가 살게 되면서 빈집이 4~5가구 생겼으며, 난방 등의 문제로 인해 최근 신축한 주택도 6가구 정도 생겨났다.

요약하면, 대성동마을은 유서 깊은 자연마을(농촌마을)로 자연지형에 순응한 전통적인 마을배치를 유지해 왔으나, 접경지 마을의 특수성으로 인해 정부의 시책에 따라 전체적인 마을 배치가 변화되었다. 그 첫 번째는 1959년으로 이때까지만 해도 전통적인 마을배치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공공시설과 문화주택 등이 기존 주택 사이사이에 건립되었고, 신작로(1번국도와 연결되는 마을진입로)가 생겨났다. 1972년 대성동종합개발에서는 기존마을의 남쪽 구릉을 격자형 택지로 조성하였고, 이때 새마을주택이 보급되면서 기존 기와집과 초가집이 남아 있는 구마을과 새마을주택이 조성된 신마을로 구분되었다. 이후 1980년 대성동종합개발로 인해 구마을은 사라지게 되었고, 마을전체가 격자형 도로망을 갖춘 계획마을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2) 대성동마을 주택변화

(1) 대성동마을의 옛 주택

① 1959년 문화주택

한국전쟁으로 마을이 폐허가 된 상황에서 휴전협정과 동시에 피난 갔던 마을주민들은 비무장지대 유일한 민간인 거주지역인 대성동에 모여 살게 된다. 마을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당시는 폭격으로 인해 성한 집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움막이나 토굴을 짓고 살아야했다. 당시 사진자료를 보면 몇몇 기와집(일식기와)과 초가집들이 가옥의 대다수였



2014년 대성동마을 배치도





1960년 문화주택 전경(출처:국가기록원, e-영상역사관)

던 것으로 보인다. 1959년에 이르러 보건사회복지부와 미국 USOM에서 무상으로 문화주택과 가옥에 사용할 기와를 제공해 주었다. 그런데 문화주택의 경우, 부실 공사와 농가에 맞지 않는 설계를 이유로 주민 측이 입주를 거부하는 사태를 겪게 되었고, 보수공사를 하는 우여곡절을 겪는다. 주민증언에 따르면 문화주택은 겉보기에만 그럴듯했지 농촌의 실정은 전혀 반영하지 못한 주택으로 그 규모도 10~15평 내외로 무척 협소했고, 냉난방에 몹시 취약하여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농촌생활에 따르는 부속건물(창고) 등이 마련되지 않아 매우 불편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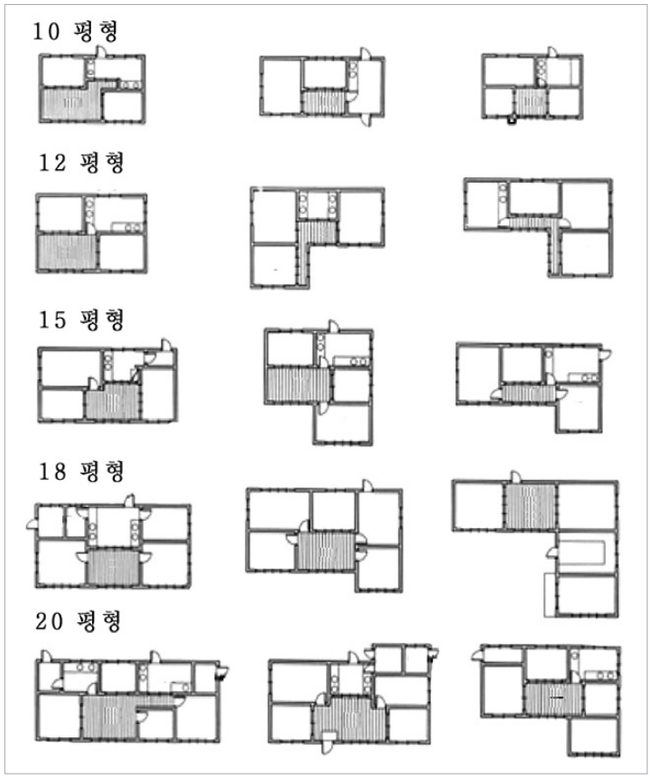
이때 지어진 문화주택은 현재 남아 있지 않고, 도면자료도 없어 사진자료를 통해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전면 3칸 정도의 규모에 중앙에 현관과 마루가 있고, 양 옆으로 온돌방과 그 뒤쪽으로 부엌 등이 있는 평면으로 추측된다. 시멘트블록조 벽체 위에 목조틀로 맞배지붕을 설치하고 마감은 슬레이트로 얹은 간단한 구조로 보인다. 이후 1972년 종합개발까지 대성동주민들은 기존의 기와집, 초가집과 함께 문화주택에서 생활하였다.

② 1972년 새마을주택(대성동 개발)

1959년 문화주택과 공공시설이 조성된 지 12년이 지난 1971년 대성동마을 남쪽에 기존 마을규모 정도로 택지를 조성하고 새마을주택이 조성된다. 1970년 초반은 '새마을운동'이 한창 본 궤도에 올라 '농촌근대화촉진법'에 근거한 '농촌근대화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던 시기였다. 1970년을 기점으로 정부의 다양한 노력으로 양질의 주택 보급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당시 보급된 농촌주택 모델인 '농촌표준주택설계도(이하 표준설계도)'는 농촌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건축유형의 개발과 함께 농촌주택 설계를 위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정책의도[157] 아래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표준주택 평면구성은 겹집형태(복열)로 중앙 거실(대청)을 중심으로 그 좌우로 온돌방을 두었으며, 그 뒤쪽으로 안방과 부엌 등을 두는 형식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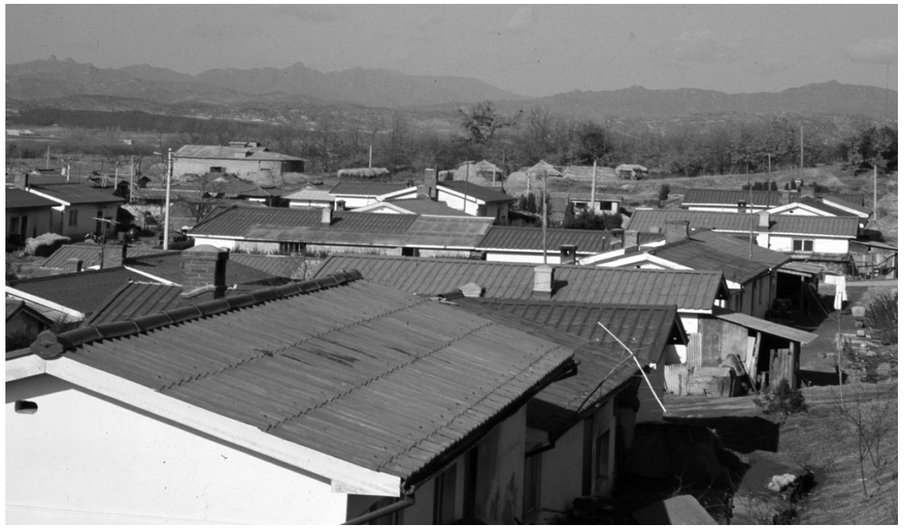
1971년에 조성을 시작하여 1972년 완료된 대성동 개발사업에 이러한 '농촌표준주택설계도'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 공급된 새마을주택은 총 25동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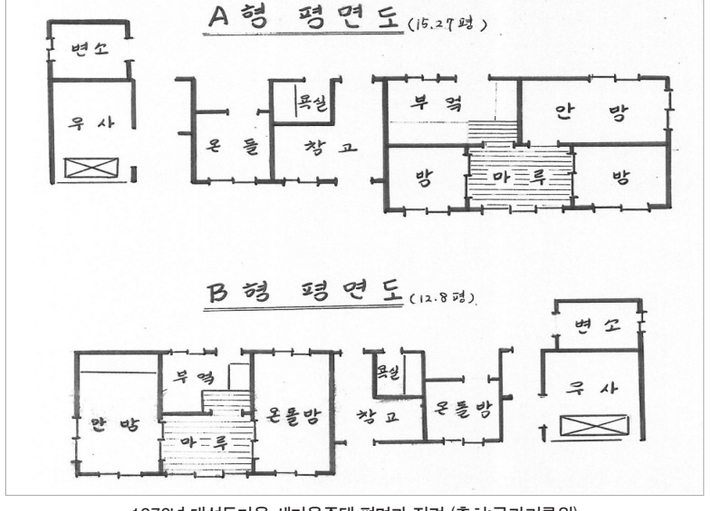
157) 표준주택설계도면이란 농어촌주택설계를 위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계도서를 미리 작성하여 두고 건축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취향에 따라 이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고한 설계도서를 말한다(법적근거 : 건축법 제1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그 목적은 설계비의 절감 및 건축허가(신고)절차 간소화와 자재 규격화 및 부품화를 유도하여 시공의 표준화를 기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표준설계도서는 농어촌지역에서 주택건축을 희망하는 주민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표준설계도를 활용하면 별도의 설계과정을 거치지 않고 건축신고만으로 집을 지을 수 있어 비용이나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사용될 건축자재의 종류 및 수량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972년 농촌주택 표준설계 평면도 (출처:내무부자료)

로 'A형(15.27평, 50㎡)'과 'B형(12.8평, 42.3㎡)'의 두 가지 유형이 공급되었다. 안채평면은 '1972년 농촌주택 표준설계 평면도' 중 10평형, 15평형과 거의 동일한 구성인데, 다만 다른 점은 안채 측면으로 별도의 온돌방과 욕실, 창고, 우사, 변소로 구성된 부속건물이 일렬로 덧달렸다는 점이다. 이는 당시 마을 주민들의 요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1959년 문화주택의 경우 우선, 냉난방에 취약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농촌실정에 맞지 않는 부속채가 없는 건물이었기 때문에, 1972년 주택건설 당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다. 농촌생활에 필요한 부속채(창고, 변소)와 함께 일꾼[158]이 거주할 수 있는 별도의 온돌방을 요구했다. 이에 안채의 경우 '농촌주택 표준설계 평면도'의 구성을 따르면서도 부속채를 덧달아 구성한 평면도가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크기가 다른 두 가지 유형으로 계획한 이유는 가족 수에 따른 것이라 한다. 이러한 새마을 주택은 1980년 현대식주택이 들어서기 까지 약 8년 동안 사용하게 된다. 새마을주택은 시멘트블록조에 목조틀로 짠 맞배집(슬레이트)을 얹은 형태로 단열이 용이하지 않아 여름에는 매우 더웠고, 겨울에는 몹시 추웠다고 한다. 난방은 아궁이에 땔감을 구해서 때는 온돌난방이었다고 한다.[159] 이때를 기억하는 마을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새마을주택 역시 냉난방 문제를 비롯해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발생하여 주거용 건물로서는 매우 열악했다고 당시를 기억하고 있다. 이러한 새마을주택은 현재 대성동마을에 남아 있지 않고, 다만, 인근에 동시대에 조성된 '통일촌'에는 3~4채 정도 남아 있다.





1972년 대성동마을 새마을주택 평면과 전경 (출처:국가기록원)

158) 당시까지만 해도 집에 농사일과 잡일을 봐주는 하인 개념의 일꾼이 아래채에 함께 살았었다고 한다.

159) 대성동에 조성된 새마을주택은 이후 1972~1973년 조성된 '통일촌마을'에 80여동이 조성된다.

(2) 대성동마을의 주택현황



새마을주택과 창고



정면



내부사진

통일촌 97-9번지 새마을주택 전경 및 상세

① 1980년 현대식주택
(대성동 종합개발 1차)

지금 대성동마을에 남아 있는 주택의 대부분은 1980년에 지어진 주택이다. 1972년 대성동 종합개발 이후 1979년부터 1980년까지 대대적인 마을현대화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때 기존에 남아 있던 전통가옥(기와집, 초가집 등)과 새마을주택을 모두 헐어버리고 마을 전체에 현대식주택단지를 조성하게 된 것이다. 이때 총 6가지 유형의 현대식 주택을 38동 신축하게 되는데, 정부에서는 주택개량사업 추진요령에 주택의 형태와 층수, 크기에 대해 큰 틀에서의 방침을 설정해 놓고 있었다. 이에 따르면, '주택의 외형은 전시효과(북한에 대한)가 극대화할 수 있는 모형으로 하며, 특히 지붕색은 주변환경과 조화되고 원경가시결과가 극대화되도록 유의 배치하며, 지붕은 지붕형은 박공형으로 미려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주택의 크기는 단층주택은 25평 이상, 2층 주택은 35평 이상, 부속사는 12평 이상으로 건립하며, 2층 주택은 38가구 중 30%정도(11동 내외)로 하며, 택지는 가구당 200평 이상 확보'하라는 지침이 그것이다. 이렇게 조성된 현대식주택은 우선 가족 수에 따라 그 유형을 선택하고, 주택의 위치는 제비뽑기를 통해 결정했다고 한다. 6가지 유형은 아래의 표와 같다.[160]

160) 국가기록원 자료에 A, B, D, E, H형 주택은 있으나, C형, F형, G형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단순 기록상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마을에도 위의 유형 이외에 1980년에 준공된 주택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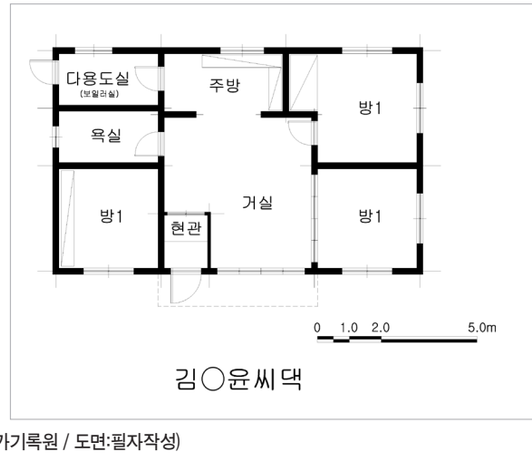
표10. 1980년 신축한 현대식주택

유형		층수	평수	지붕형태	비고
A형		1층	27평	맞배집(전면박공)	–
B형		1층	28평	모임지붕집(우진각집)	–
D형	D1	2층	34평	맞배집(전면박공)	출입구 전면 우측(D2와 동일)
	D2	2층	34평	맞배집(전면박공)	출입구 전면 우측(D1과 동일)
E형		2층	32평	맞배집(전면박공)	출입구 전면 우측
H형		2층	56평	맞배집(전면박공)	2가구 연립형

가. A형 주택(1층 전면박공맞배지붕집)

A형 주택은 1층 27평 규모이며, 전면박공맞배지붕집이다. 전면부는 붉은벽돌로 외장을 하였고, 측면과 배면은 시멘트모르타르 마감 위에 페인트로 마감하였으며, 지붕은 양식기와를 올렸다. 6유형 중 가장 작은 평수로 부모님과 부부, 자녀를 포함하여 4~5명 내외의 가족이 생활했다고 한다. 전면 중앙의 현관과 거실 창호 위에는 비가 들이치는 것을 막는 기능과 미관상의 이유로 현관캐노피가 덧달려 있다.[161] 평면을 살펴보면, 전면 한쪽에 있는 현관을 들어서면 거실이 자리잡고 있으며, 오른쪽으로 큰방과 욕실, 다용도실이, 왼편으로 방이 연이어 위치해 있다. 주방에는 예전에 연탄아궁이가 있는 신발을 신고 내려가는 부엌이 있었다고 한다. 굴뚝은 주택의 오른편에 남아 있다. 방 3개는 부모님과 부부, 자녀방으로 사용되다가 현재는 미닫이문이 달린 방을 개방하여 거실로 넓게 사용하기도 한다.





A형 주택 사례(사진출처:국가기록원 / 도면:필자작성)

161) 전면박공집으로 전면으로 처마가 깊지 않다.

나. B형 주택(1층 모임지붕집)

B형 주택은 1층 28평 규모로 모임지붕집이다. A형 주택과 마찬가지로 전면부는 붉은 벽돌로 외장을 하였고, 측면과 배면은 시멘트모르타르마감 위에 페인트로 마감하였다. 6유형 중 A형보다 조금 큰 평수로 부부와 자녀를 포함하여 5~6명 내외의 가족이 생활했다고 한다. 전면 중앙에는 거실이 배치되어 있고, 현관은 측면에 따로 설치되어 있다. 평면을 살펴보면, 현관은 왼쪽 중앙에 따로 설치되어 있고, 전면 중앙의 거실을 중심으로 좌우측면에 방 2개가, 뒤쪽으로 주방과 욕실, 안방 등이 배치되어 있다. 부엌은 지금은 입식주방으로 바뀌었지만, 예전에 연탄아궁이가 있는 부엌으로 굴뚝이 주택의 오른편에 남아 있다. 방 3개는 부모님과 부부, 자녀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족구성원의 변화로 방 하나는 개방하여 거실로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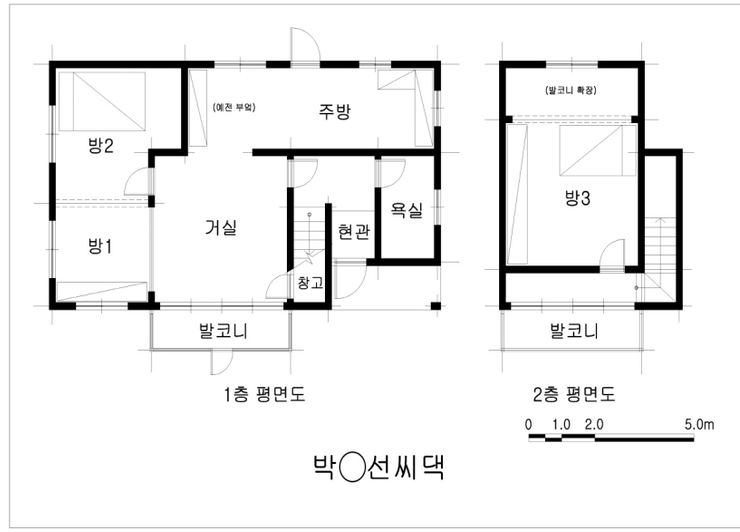




B형 주택 사례(사진출처:국가기록원 / 도면:필자작성)

다. D형 주택(D1, D2 / 2층 전면박공맞배지붕집)

국가기록원 자료에는 D형 주택 2집이 실려 있어 편의상 D1, D2로 구분하였다. D1과 D2는 평면이 대칭인 것만 제외하면 동일한 평면이다. 2층 전면박공맞배지붕집으로 규모는 32평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34평 규모로 판단된다.[162] 외장은 A형, B형과 동일하다. 6유형 중 그래도 규모가 있는 집으로 부모님과 부부, 자녀를 포함하여 6~7명 내외의 가족이 생



D형 주택 평면도(필자작성)





D형 주택 (출처:국가기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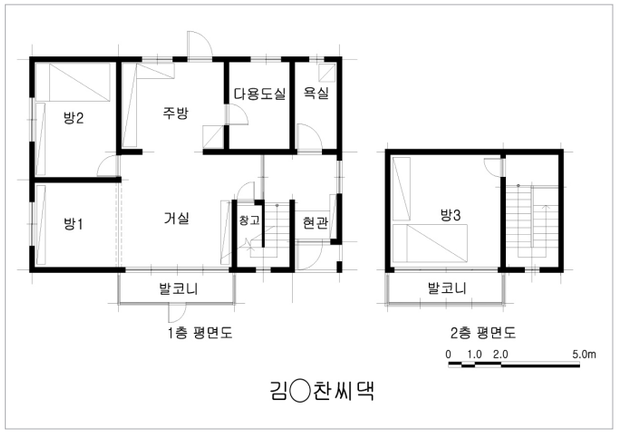
162) E형과 평수가 헛갈린 것으로 보인다. 오기로 판단된다.

활했다고 한다. 전면 중앙에 거실이 위치하고, 정면 좌우측 필로티 부분에 현관이 위치한다. 전면중앙 거실 위 2층에는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다. 평면은 1층 거실을 중심으로 방 2개와 주방[163], 현관 옆으로 욕실을 두고 있다. 현관 바로 옆으로 2층으로 가는 실내계단이 있고, 2층에 올라서면 발코니에 면한 작은 복도와 방, 방 뒤편으로 별도의 발코니가 위치해 있다.[164]

라. E형 주택(2층 전면박공맞배지붕집)

E형 주택은 D형 주택과 외관이 거의 유사하다. 다만 평수가 D형 주택에 비해 약간 작은 32평으로 판단된다. 외관은 A형, B형, D형과 거의 동일하다. 전면 중앙에 거실이 위치하고, 정면 좌우측 필로티 부분에 현관이 위치한다. 전면중앙 거실 위 2층에는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다. 평면은 1층 거실을 중심으로 방2개가 연달아 있고, 뒤쪽으로 주방과 다용도실, 욕실이 위치해 있다. 현관 옆으로 2층으로 가는 실내계단이 있는데, D형 주택과 달리 방의 뒤쪽에 문이 있고, 후면 발코니는 없으며, 전면으로는 거실과 같은 폭의 전면유리가 있다. 6~7명의 가족이 생활했다고 한다.





E형 주택 사례(자료:국가기록원자료 / 도면:필자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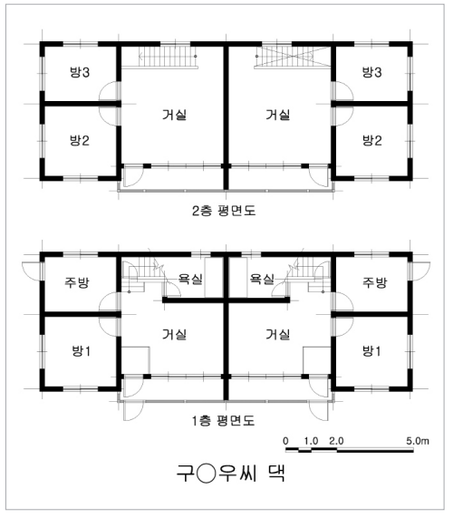
163) 다용도실이 별도로 있었다고 하나 후대에 개방하여 주방을 넓게 사용하고 있다.
164) 2층 후면 발코니 역시 방으로 확장해 사용하는 가구가 많다.

마. H형 주택(2층 연립 전면박공 맞배지붕집)

H형 주택은 2가구가 생활하는, 대성동마을에서 2개소 밖에 없는 연립주택이다. 평수가 56평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는 2가구를 합친 평수로, 1가구당 23평 내외이다. 2층 규모의 동일한 평면이 대칭되어 맞붙어 있는 형식으로 각 세대가 별도의 층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세대씩 1~2층을 사용한다. 2가옥을 전체를 덮는 전면박공지붕집으로 전면외장은 타일로 마감하였고, 측면은 시멘트모르타르미장 위에 페인트로 마감하였다.

전면 거실 한쪽으로 설치된 현관을 들어서면, 한쪽으로 방과 주방이, 다른 쪽으로 욕실이 위치하고, 주택의 뒤쪽으로 2층으로 가는 실내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2층은 규모 있는 거실과 방2개로 구성되어 있다. 1층 거실 현관과 동일한 크기로 2층 거실에 발코니를 두었다. 건물의 규모는 전체적으로 전면 폭에 비해 측면 폭이 매우 좁고, 건물의 전체 높이는 D형, E형보다 높다. 전시주택으로서 북한에서 보았을 때의 경관을 고려한 주택 전면부 중심의 형태와 높이를 고려한 건축계획임을 짐작할 수 있다. 마을 주민들 증언에 따르면, 젊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이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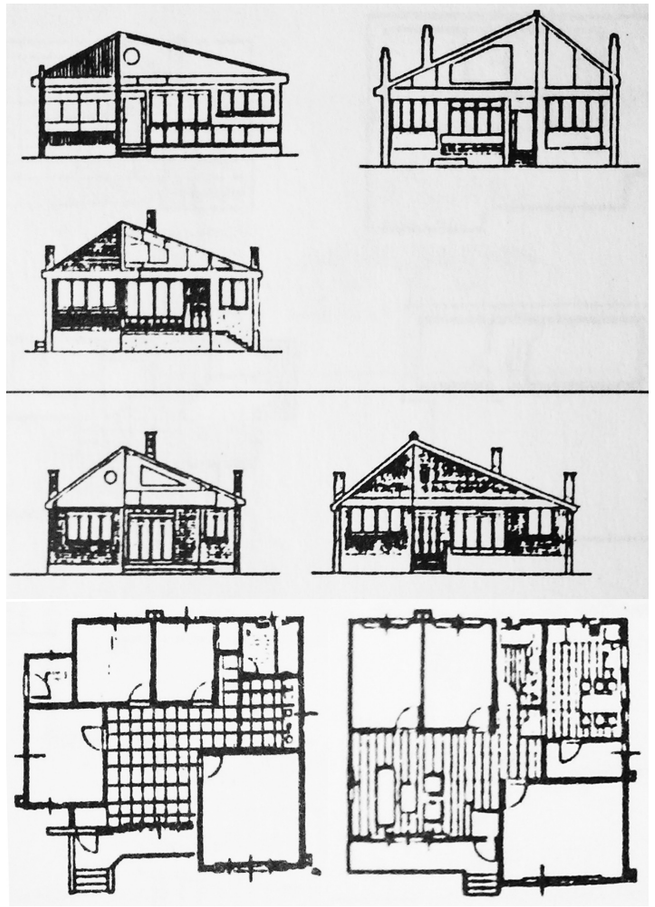




H형 주택 사례(사진:필자촬영 / 도면:필자작성)

② 1980년 이후 신축한 현대식주택

가. 전면박공집(경관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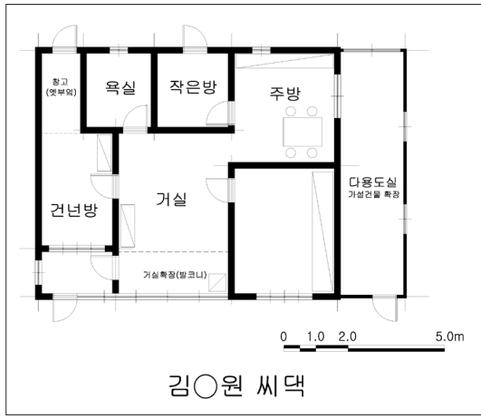


단층복열형 주택 사례
(출처:대한건축학회, 『주거론』, 기문당, 1997, p.193 재인용)

1980년 대성동 종합개발사업이 끝나고 지은 집으로 1983년경 지었다고 한다. 이 주택은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해주기는 하였으나, 일정 정도 자기분담금도 지불했다고 한다. 마을에서 총 9가옥이 있는데, 동일한 시기에 지은 것으로 판단된다. 마을 가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2가옥을 제외하면, 대성동 주택(북한을 향해 서향하고 있음)과 달리 모두 남향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전면박공집을 '경관주택'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경관주택은 외관상 1.5층집에 해당하고, 평슬라브에 박공이 전면으로 오도록 맞배지붕을 올린 외관으로 전체적인 형태가 미려할 뿐만 아니라 평면 구성에 있어서도 기존 새마을주택보다 현대화된 생활에 맞도록 계획된 집이다. 이러한 주택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는 '단층 복열형'으로 지칭하고 있는데, 기존의 평범한 형태의 주택에서 벗어나 주택 전면으로 박공이 보이는 소위 '불란서 지붕'을 갖춘 서구적인 주택으로 1970년대 중반 도시주택형식으로 분류하고 있다.[165] 대성동마을에서는 1980년 현대식 전시주택 조성이 완료된 이후 지어진 집으로 택지조성이 완료된 대성동마을에 조성되었지만, 기존의 전시주택과 달리 대부분 좌향을 남향으로 하여 자연환경에 좀 더 합리적으로 대응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주택은 인근의 통일촌마을에서 다수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1983년경 이 일대에 많이 지어진 주택형식이다. 평면구성은 전면 오른쪽에 현관이 위치하고, 중앙 거실을 중심으로 방3개와 주방, 욕실, 창고로 구성되어 있다. 6~7명 정도로 구성된 가족이 살았다고 하나, 현재는 김O원 씨 부부가 생활하고 있다.





경관주택 주택 사례







최근 지어진 주택들

165) '1970년대 중반에 주로 활용되었던 것으로서 우리나라 도시주택에서는 그 외형과 내용면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시도되었던 형식이었다. 이러한 유형의 집은 소위 '불란서 지붕'이라는 전면박공형식의 외관을 가지고 있는 주택이다. 대한건축학회, 주거론, 기문당, 1997. 2, pp.193~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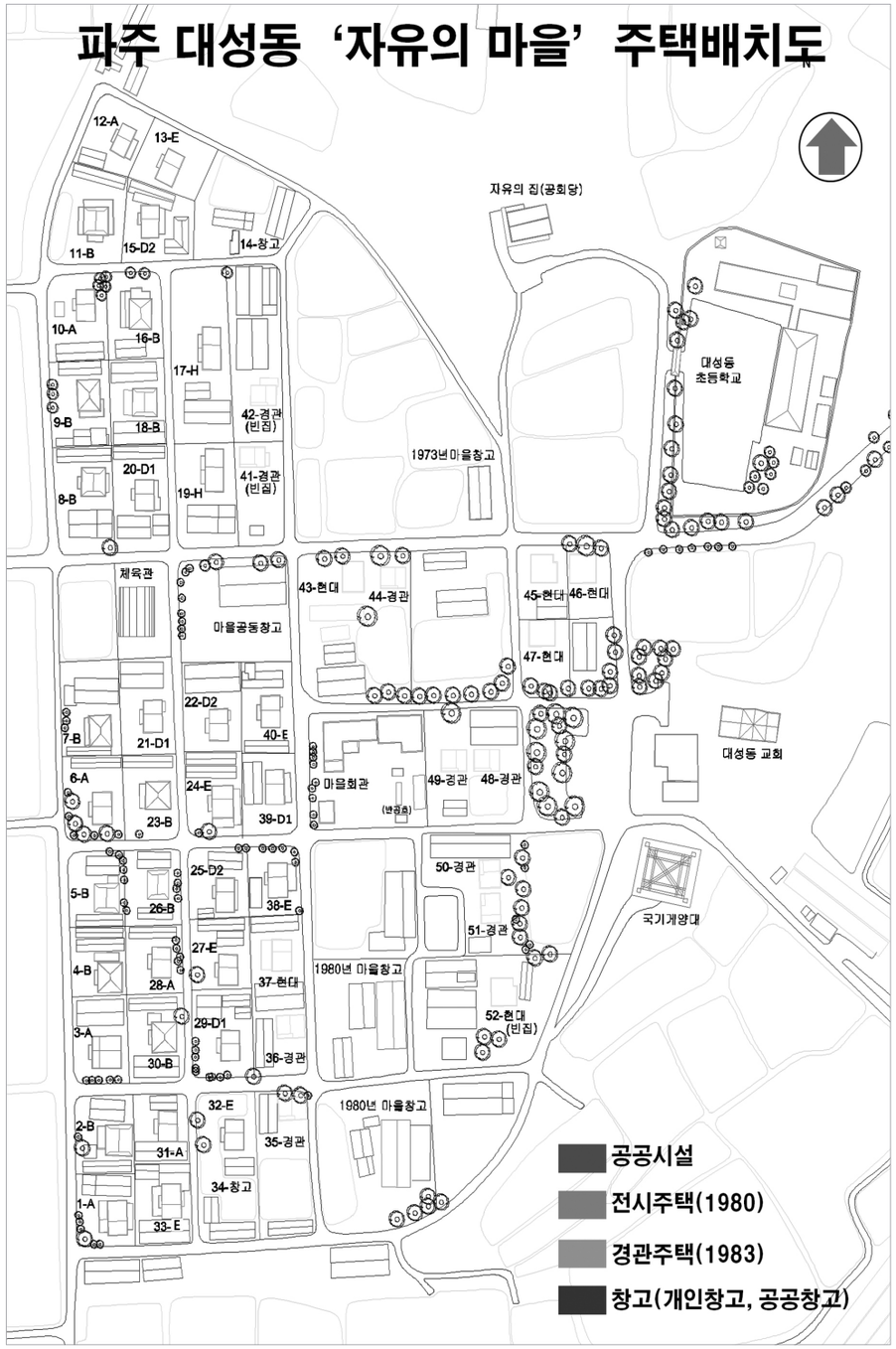
나. 평슬라브 집

최근에 지어진 현대식주택으로 대성동마을에는 6가옥이 있다. 시멘트벽돌로 벽체를 쌓고 붉은 벽돌로 외장을 마감한 주택으로, 벽체 위에 슬래브를 타설하여 옥상이 있는 집이다. 옥상에는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하거나 그 외에 다양한 용도로 옥상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들은 북한에서 보이지 않는 대성동마을의 안쪽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고, 선전마을 조성과 관련 없이 신축한 주택으로 건축주의 상황에 맞추어 건물의 규모나 평면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좌향도 북한을 향해 서향을 고집하지 않고 남향한 건물이 대부분이다. 단순한 형태와 미려한 외관은 아니지만 기존 주택에 비해 좀 더 합리적인 관점에서 조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11. 대성동 '자유의 마을' 주택현황도(2014년 기준)

번호	번지	소유주	유형	건립년대	층수	좌향	배치	지붕	부속건물	비고
1	203–55		A	1980	1	서향	ㄱ	맞배	창고(탈곡기), 주차장	전면증축 / 지붕수리
2	203–47		B	1980	1	서향	ㄱㄱ	팔작(우)	창고(탈곡), 부속사(80년)	지붕개조, 전면증축
3	203–39		A	1980	1	서향	ㄱ	맞배	창고(대형, 주차장겸용)	전면증축 / 지붕수리
4	203–33		B	1980	1	서향	ㄱ	모임(우)	창고(탈곡기, 농기계)	현관 개조
5	203–27		B	1980	1	서향	ㄱㄱ	팔작(우)	창고(농기계), 부속사(80년)	지붕개조, 현관개조
6	203–21		A	1980	1	서향	ㄱㄱ	맞배	부속사(80년)	원형유지
7	203–13		B	1980	1	서향	ㄱ	모임(우)	창고(함석창고2채)	전면증축
8	204–6		B	1980	1	서향	ㄱㄱ	팔작(우)	창고2(대형, 소형)	지붕개조
9	204–14		B	1980	1	서향	ㄱ	모임(우)	부속사(80년)	측면증축
10	204–22		A	1980	1	서향	ㄱ	맞배	대형창고 (대성인삼영농단 농기계창고)	원형유지 / 지붕수리
11	204–28		B	1980	1	서향	ㄱ	팔작(우)	창고, 비닐하우스, 태양열	지붕개조
12	204–36		A	1980	1	서향	ㄱ	맞배	창고	원형유지 / 지붕수리
13	204–40		E	1980	2	서향	—	맞배	–	원형유지 / 지붕수리
14	184–27	창고	–		–	–	–	–	창고(탈곡기, 농기계)	–
15	194–27		D(2)	1980	2	서향	ㄱ	맞배	창고2(대형, 소형)	현관개조 / 지붕수리
16	194–26		B	1980	1	서향	ㄱ	모임(우)	부속사(80년) / 태양열	전면증축
17	194–16		H	1980	2층 연립	서향	ㄱ	맞배	탈곡창고	전면 일부개조
18	194–11		B	1980	1	서향	ㄱㄱ	팔작(우)	창고, 부속사(80년) 부속사(80년)	전면, 후면 증축 지붕개조
19	190		H	1980	2층 연립	서향	ㄱ	맞배	대형 탈곡창고	원형 / 빈집
20	194–3		D(1)	1980	2	서향	ㄱㄱ	맞배	창고2	전면개조, 배면 증축
21	193–12		D(1)	1980	2	서향	ㄱ	맞배	창고1	지붕수리
22	193–13		D(2)	1980	2	서향	ㄱ	맞배	창고1	지붕수리
23	193–20		B	1980	1	서향	ㄱ	모임	부속사(80년)	전면증축(원형)
24	193–19		E	1980	2	서향	ㄱ	맞배	창고1	원형유지
25	193–27		D(2)	1980	2	서향	ㄱ	맞배	부속사(80년)	전면일부 개조
26	193–28		B	1980	1	서향	ㄱ	팔작(우)	창고1	지붕개조/후면증축
27	193–33		E	1980	2	서향	ㄱ	맞배	부속사(80년)	지붕수리
28	193–34		A	1980	1	서향	ㄱ	맞배	부속사(80년)	원형유지
29	193–39		D(1)	1980	2	서향	ㄱ	맞배	창고3, 부속사(80년)	전면개조
30	193–40		B	1980	1	서향	ㄱ	모임(우)	창고1	전면개조
31	193–48		A	1980	1	서향	ㄱㄱ	맞배	창고2(농기계창고)	전면증축
32	193–47		E	1980	2	서향	—	맞배	–	전면개조
33	193–54		E	1980	2	서향	ㄱㄱ	맞배	농기계창고, 가설건물	전면, 후면 증축
34	–	창고	–	–	–	–	–	–	창고(탈곡기, 농기계)	예전집터
35	181–46		경관	1983	1	남향	ㄴ	전면박공	창고(주차, 농기계)	전면증축(83년신축)
36	181–40		경관	1983	1	남향	ㄴ	전면박공	창고(대형)	전면증축(83년신축)
37	181–34		현대	최근	2	서향	ㄱ	맞배	창고(대형)	최근주택
38	181–28		E	1980	2	서향	ㄱ	맞배	부속사(80년), 블럭창고	배면증축, 전면개조
39	181–16		D(1)	1980	2	서향	=	맞배	창고(전면배치), 태양열	배면증축, 재조사
40	181–14		E	1980	2	서향	ㄱㄴ	맞배	창고(전면, 측면)	배면증축
41	184–7		경관	1983	1	남향	—	전면박공	–	전면증축(83년신축)
42	184–11	빈집	경관	1983	1	남향	—	전면박공	–	재조사
43	177		현대	최근	1	서향	ㄱ	평슬라브	비닐하우스	–
44	173		경관	1983	1	남향	—	전면박공	태양열	측면증축
45	161		현대	최근	1	남향	—	평슬라브	창고(농기계), 태양열	–
46	155		현대	최근	1	남향	—	평슬라브	창고	–
47	163–7		현대	최근	1	남향	—	평슬라브	창고(농기계)	–
48	163–18		경관	1983	1	남향	—	전면박공	대형창고	전면증축(83년신축)
49	163–20		경관	1983	1	남향	—	전면박공	–	전면증축(83년신축)
50	???	빈집	경관	1983	1	서향	—	전면박공	대형창고	전창복 옆집
51	???		경관	1983	1	서향	—	전면박공	–	전면증축(83년신축)
52	184–11	빈집	현대	최근	1	남향	—	평슬라브	–	–

◎ A형 : 1층, 27평, 맞배집(정면박공)
◎ B형 : 1층, 28평, 모임지붕집, 우진각집
◎ D1형 : 2층, 32평, 맞배집(전면박공), 출입구 전면 우측
◎ D2형 : 2층, 32평, 맞배집(전면박공), 출입구 전면 좌측
◎ E형 : 2층, 34평, 맞배집(전면박공), 출입구 전면 우측
◎ H형 : 2층, 56평, 맞배집(전면박공), 2가구 연립형
◎ 경관주택 : 30평 내외, 맞배집(전면박공집 (일명 블란서 지붕집)
◎ 현대주택 : 30~40평, 평슬라브지붕(옥상 있는 집)



대성동마을 주택유형 및 현황



A형 : 1층, 27평, 맞배집(전면박공)



B형 : 1층, 28평, 모임지붕집, 우진각집



D1형 : 2층, 32평, 맞배집(전면박공), 출입구 전면 우측



D2형 : 2층, 32평, 맞배집(전면박공), 출입구 전면 좌측



E형 : 2층, 34평, 맞배집(전면박공), 출입구 전면 우측



H형 : 2층, 56평, 맞배집(전면박공), 2가구 연립형



경관주택 : 30평 내외, 맞배집(일명 전면박공집)



현대주택 : 30~40평, 평슬라브지붕(옥상 있는 집)

3) 대성동마을 주생활 일례



김O찬 씨 주택 실의 변화

대성동마을 주민들의 삶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주생활의 일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조사는 이곳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 중 주택의 원형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고, 인터뷰조사 및 방문조사가 용이한 주택으로 선정하였다.

E형 주택의 김O찬 씨 댁(전 마을이장), D형 주택의 박O선 씨 댁, B형 주택의 김O구 씨 댁(현 마을이장), 그리고 경관주택 사례로 김O원 씨 댁 이렇게 4집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내용은 대체로 가족구성과 변화, 실의 쓰임새의 변화, 주택의 변용 및 증개축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1) 김O찬 씨 댁

김O찬 씨 댁은 E형 주택(34평)으로 대성동에서 가장 넓은 평수의 집에 해당한다. 김O찬 씨 가족은 1980년 지금의 주택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당시 조부(김O룡)와 부모님(김O례, 김O이), 김O찬 씨가 살았다고 한다. 김O찬 씨는 7남매 중 막내였는데, 손위 형과 누나들은 지금의 주택으로 이사를 올 당시 모두 금촌에서 중학교에 다니고 있어 지금의 집에서는 지내지 않았다고 한다. 금촌에도 집[166]이 따로 있어서 김O찬 씨 부모님은 금촌과 대성동으로 왕래를 하셨다고 한다. 이러한 가족구성으로 인해 당시에는 조부와 부모님, 김O찬 씨 이렇게 4식구가 살았다고 한다.

총 3개인 방은 조부와 부모님방, 2층에 김O찬 씨가 사용했다고 한다.

이후 1985년 김O찬 씨가 혼인을 하였으나, 여전히 2층에 살았다고 한다. 이후, 자녀가 생기고 1998년 부친이, 2001년 조부가 돌아가시면서, 2004년 모친이 돌아가시면서 사용하는 방의 변화가 생겼는데, 부모님이 사용하던 방은 김O찬 씨 부부가 사용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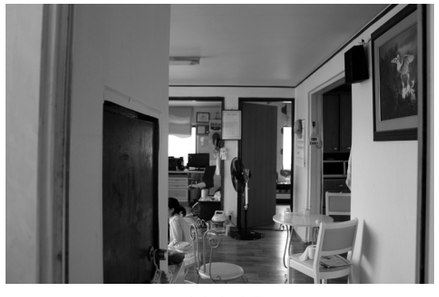
정면, 측면 전경



배면, 측면 전경



거실과 방(거실 확장)



계단실 옆 통로



주방



2층 자녀방

김O찬 씨 댁 실내·외 사진

166) 김O찬 씨의 부모님은 금촌 도립병원 인근에 방이 9칸이나 되는 주택을 따로 소유하고 계셨다고 한다.

조부가 사용하던 남쪽 방은 작고하신 이후 미닫이문을 제거해서 거실로 확장해서 사용하고 있다. 아들과 딸 2자녀는 중학교 때부터 밖에서 학교를 다녔고, 대학을 졸업한 이후 결혼하여 도시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2층 방은 가끔 자녀들이 오면 사용하는 방으로 용도가 바뀌었고, 평상시에는 비어 있는 방이 되었다. 지금은 김O찬 씨 부부 2분이 거주하고 있다.

1980년 당시 거실은 나무마루였는데, 후에 온돌을 깔아 지금의 거실이 되었다고 한다. 현재 입식 주방은 예전에 신발을 신고 내려가는 시멘트바닥 부엌이었는데, 1990년대 입식주방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다용도실은 예전에 장작 등을 쌓아 놓았다가 후에 연탄보일러와 연탄을 쌓아 놓는 곳이었다고 한다. 연탄방이라 불렀다고 한다. 지금은 기름보일러로 교체되었다. 조부 방 뒤편으로 아궁이가 있는 부엌이 있었는데, 1980년 이사 올 당시에는 장작을 지피는 아궁이와 솥을 걸어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재래식 부엌이었다고 한다. 현관은 서남쪽 모퉁이에 있으나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동쪽 지금의 주방 뒤편을 주로 이용한다고 한다. 본래 현관은 주민들의 동선이나 편의 보다는 북한을 향한 선전목적의 입면디자인을 위해 서남쪽에 둔 것으로 보인다. 겨울에 서풍이 불어 무척 추운 날씨의 영향도 현관을 동쪽으로 바꾼 원인으로 판단된다.

집의 난방방식은 1980년대 초 장작아궁이에서 연탄보일러, 기름보일러로 변화하였으며, 후에 심야전기보일러를 사용했다고 한다. 전기는 태양열발전을 이용하고 있다.

(2) 박O선 씨 댁

박O선 씨 댁은 D형 주택으로 32평이다. 이 주택으로 이사 오기 전에는 새마을주택에 부모님과 살았는데, 매우 춥고 열악한 주택이었다고 한다. 어머님이 작고하시고 1980년 이 주택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당시는 박O선 씨 부부와 아들2, 딸2 이렇게 6식구가 이사를 왔다고 한다. 아들 둘은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닐 때여서 외지로 나가 있어서 두 딸들과 함께 4식구가 생활했다고 한다. 1층에 방이 2개 중 아궁이와 인접한 뒤쪽 방은 부부가 사용하였는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2층 방은 두 딸들이 사용했는데, 지금은 모두 출가하여 빈방으로 남아 있다. 거실에 인접한 방도 빈방으로 자녀가 방문할 때 사용한다.

1980년 당시 나무마루였던 거실은 현재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다만 겨울에 너무 추워서 아들이 장작난로를 거실 중간에 설치해 주었는데, 난로를 설치한 이후 난방 여건이 한결 좋아졌다고 한다. 현재 입식 주방은 예전에 신발을 신고 내려가는 시멘트바닥 부엌이었는데, 후에 입식주방으로 개조했다고 한다. 주방 옆으로 연달아 있던 다용도실(기름보일러실)은 확장하여 주방으로 사용하고 있고, 부부 방 뒤편으로 아궁이가 있는 부엌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곳이 보일러실이라고 한다. 예전에는 김O찬 씨 댁과 마찬가지로 장작을 지피는 아궁이와 솥을 걸어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재래식 부엌이었다고 한다. 현관도 마찬가지로 서남쪽 모퉁이에 있으나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동쪽 지금의 주방 뒤편을 가설로 넓게 확장하여 이곳을 주로 현관으로 이용한다고 한다. 확장된 부엌 뒷공간에서는 농작물을 다듬거나, 농기구 등을 보관하는 등 다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거실 전면에 있는 발코니는 알루미늄새시로 막고, 중앙에 문을 달아 베란다나 현관처럼 사용하고 있다. 박O선 씨 댁은 현관과 주방을 개조한 것을 제외하면 실내 내장재나, 외장에 있어서 1980년 당시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주택 전경



현관



거실과 베란다



주택 배면 다용도 공단



주방(확장)



뒷마당 저장고 및 장독대

박O선 씨 댁 실내·외 사진

(3) 김O구 씨 댁(이장님 댁)



김O구 씨 주택 실의 변화

어린시절에는 기와집에서 살았다고 하나 김O구 씨가 태어나기 전의 일이고, 3살 때부터 새마을주택에서 살았으나, 이 또한 너무 어릴 적이라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한다. 현재 김O구 씨는 28평형 B형 주택에 살고 있는데, 1층 집으로 마을에서는 2번째로 작은 집이다. 이 집으로 이사올 당시 김O구 씨 댁의 가족구성은 조부모님 2분과 부모님 2분, 형과 누나 그리고 본인 이렇게 7명 이었으나, 형과 누나는 학교 때문에 외지에 나가있었다고 한다. 김O구 씨 역시 중학교 1학년 때 외지에 나가서 9년 만에 돌아왔다고 한다. 1980년대에는 조부모님과 부모님 중심으로 이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관에 인접한 큰방은 조부모님이 사용하였고, 거실 옆방에 부모님이, 거실과 미닫이문으로 연결된 방에는 형이 살았다고 한다. 김O구 씨는 어려서 조부모님이나 부모님과 함께 생활했다고 한다. 조부모님은 학생이던 고모들 밥해주러 자주 외지로 나가 사시곤 하셨다고 한다. 이후 조부모님은 돌아가시고, 형과 누나는 외지로 나가 살게 되었으며, 김O구 씨가 혼인을 하게 되면서 지금처럼 방을 사용하고 있다. 우선 부모님 방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미닫이문으로 연결된 방은 거실로 확



주택 전경



거실(확장)



주방(확장)

김O구 씨댁 주택 실내·외 사진

장하여 사용하고 있다. 예전 조부모님 방은 현재 김O구 씨 부부가 사용하고 있다.

이 집도 다른 집들과 마찬가지로 신발을 신고 내려가는 시멘트 바닥 부엌이었는데, 부엌에는 솥을 걸 수 있는 아궁이가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입식주방으로 개조하였고, 보일러실까지 주방으로 확장하여 넓게 사용하고 있다. 이 집의 정면은 서향을 하고 있으나, 현관은 예전부터 측면인 남쪽에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2중문으로 개조하여 난방효율을 높이고 있다. 대부분의 집과 마찬가지로 거실 전면에 있는 발코니는 알미늄창호로 막고, 중앙에 문을 달아 베란다나 현관처럼 사용하고 있다. 대성동마을 주택 중에서 내·외부 인테리어 등을 가장 현대식으로 개조하여 최근에 지은 집처럼 깨끗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 집 역시 예전에는 장작아궁이를 이용한 난방이었으나, 후대에 기름보일러와 심야전기 보일러로 차례로 바뀌었다고 한다.

(4) 김O원 씨 댁

김O원 씨는 1972년 새마을주택이 조성되기 전 초가집에서 살았었다고 한다. 이후 1972년 벽돌집(새마을주택)에서 살았고, 지금의 집으로 이사를 온 것은 1983년이다.

1980년 현대식주택 조성이 끝이 난 이후에 지은 집으로 당시 유행하던 일명 불란서지붕집(경관주택)이다.[167] 이러한 유형의 집은 도시근교나 인근의 통일촌에서 다수 확인할 수 있다. 이 집을 지을 당시 전액 정부에서 지원해준 전시주택과 달리 정부에서 1000만원을 지원해줬고, 자기부담으로 200만원이 들었다고 한다.

167) 대성동마을에 이러한 경관주택은 8채가 남아 있으나, 4채 정도는 현재 빈집이다.



1983년 이후 현관 개조 당시



현재

김O원 씨 주택 실의 변화

이 주택은 다른 집과 달리 남향을 하고 있는데, 북한의 시야에 노출되지 않는 마을의 가장 안쪽 블록에 자리 잡고 있고, 전시주택 조성이 끝난 시점이라서 이렇게 남향으로 지을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집에 살 당시 김O원 씨 부부와 자녀 두 명이 살았다고 한다. 안방은 여전히 김O원 씨 부부가 사용하고 있고, 건너방은 자녀들이 출가하면서 현재 비어 있다. 거실 전면에 있었던 현관을 측면으로 옮기면서 요즘 발코니 확장처럼 거실을 확장해 사용하고 있다. 건너방 뒤편의 창고는 방으로 확장해 사용하고 있다. 주방 옆으로는 가건물로 확장해 물을 쓸 수 있는 다용도실로 사용하고 있다.

이상 대성동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생활 일례를 살펴보았다. 이상을 통해 몇 가지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가족구성원의 변동에 따라 방의 사용이 유동적이라는 점과 현재 빈방이 많다는 것이다. 이곳이 특수한 지역이고,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없는 관계로 자녀가 있는 가정은 대부분 중학교를 기점으로 외지로 자녀를 보내야 했다. 중학교에 입학한 자녀들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게 되고, 혼인을 하면서 이곳에서의 생활이 단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기존의 조부모세대들이 작고하면서 이러한 변화는 더욱 빠르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출가한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명절이나 휴가철에 머무르기 위해 여분의 방이 사용되고 있어서 빈방에는 자녀들이나 손자들의 물품들이 있는 경우가 많다.

둘째, 주택의 외관의 변화이다. 대부분의 주택 현관이 북한을 향해 서쪽에 있는데, 조성 당시 현관을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 주택은 거의 없다. 아주 막아버리거나, 창고 개념으로 현관을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선 서쪽 현관을 통해 밖으로 나갈 일이 거의 없고, 겨울철 서풍이 강하여 난방에 취약한 점 등 때문으로 판단된다. 현관은 주택 뒤편 주방으로 난 문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거실 전면의 발코니는 새시 등으로 사방을 막아 실내공간처럼 사용하는 집이 대부분이다. 물품을 수납하거나 화분을 키우는 등 아파트 발코니처럼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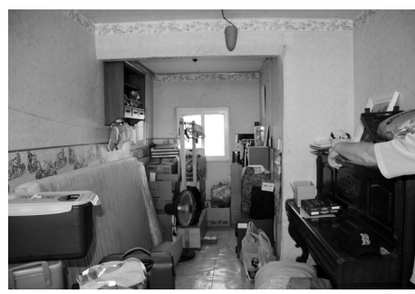
셋째,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와 난방방식의 변화로 인해 주방과 부엌 공간, 다용도실의 변화가 많이 있었다. 주택이 신축된 1980년만 해도 외부에 설치된 아궁이에 불을 때서 난방을 하는 방식이었고, 아궁이 위에 솥을 걸어 취사를 하는 방식이었다고 한다. 주택 내부에도 부엌이 있었는데, 신발을 신고 다니는 부엌이었다고 한다. 1980년 중반 연탄보일러가 도입되면서 다용도실에 연탄보일러를 설치하고, 연탄을 저장하여 '연탄방'이라 불렀다고 한다. 이후 1990년대 기름보일러를 거쳐 지금은 심야전기보일러를 사용한다고 한다. 이후 아궁이는 사라지고, 실내 부엌은 입식주방으로 개조하였고, 다양도실을 주방으로 확장하여 식탁을 들여놓거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등)을 들여놓은 집이 부쩍 늘었다. 전기는 최근 태양열발전기를 이용하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지붕에 집열판을 설치하는 집도 많아졌다.



주택 전경



거실(발코니 확장)



자녀방(부엌 확장)

김O원 씨 댁 실내·외 사진



4 생업과 생활용구

4. 생업과 생활용구

4-1 주요생업활동

대성동마을의 주요생업은 농업이다. 마을주민이 경작하고 있는 논은 160만평, 쌀 생산량은 대략 2,250톤 정도이고 밭의 면적은 633,230㎡ 이다. 밭작물은 콩, 팥, 깨, 고추, 배추, 무, 마늘, 파 등을 심는다. 판매용으로 많이 키우는 식물은 콩, 팥 정도이다.

6·25전쟁 전에는 지금보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토가 적었기 때문에 작물을 조금씩 키웠다. 논보다는 밭이 많았고 삼포밭(인삼밭)이 많았다. 지금 마을 앞에 있는 논도 다 밭이었다.

시대에 따라 기르는 작물도 변화되었다. 김O래 씨(남, 76)의 어린시절에는 조나 보리도 많이 심었었다. 일제 강점기부터 먹을 것을 가지고 고생한 기억은 없다. 밀농사도 많이 지었었는데 지금의 밀가루처럼 아주 하얗지 않았는데 당시 키우던 밀은 껍질이 빨간색이어서 그것이 섞이기 때문이다. 조나 보리나 밀은 심지 않은 지 수십년이 흐른 지금 껍질이 빨간 밀 종자는 주변에 이제 남아있지 않다.

대성동마을은 UN군의 관리하에 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고 경작권만 인정된다. 공식적인 매매는 불가하지만 동네 주민들에 한해서 일정한 금액을 주고 경작권을 팔기도 한다. 마을주민이 아니면 들어와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끼리 매매가 이루어진다.

6·25전쟁 직후에 농토는 다시 들어온 주민들이 개간해서 만들었는데 당시 토지에 대한 경작권은 그 토지를 개간한 사람이 갖게 되었다.

초기에는 마을 주민들이 경작하는 땅의 면적이 넓지 않았으나 주민들의 요청으로 군에서 경작지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범위를 늘려주어 현재와 같은 규모가 되었다. 1975년경 정부에서 토지개간을 해주었고 1980년도에 마을 개발사업을 하면서 지금과 같이 농지정리를 했다. 새롭게 경작지로 인정받은 토지가 생긴 경우 막대기를 꽂은 주민에게 그 일대 토지의 경작권이 인정되었다. 구입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1인당 경작지의 면적이 비슷하였으나 농사를 짓지 않고 마을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가족에게 땅을 양도받은 사람들이 더 많은 땅에 대한 경작권을 가지게 되면서 수입에 대한 격차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농사를 많이 짓는 만큼 드는 비용도 많고 본인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부의 격차가 큰 편은 아니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소득의 격차가 생긴 편이다.

현재는 형제가 함께 농사를 짓는 집은 많지 않다. 형제 중 한사람이 농사를 지으면 다른 한 사람은 나가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인 농촌보다 1인당 필지가 넓기 때문에 세밀하게 관리하기는 어렵고 농기계를 이용하여 농사일을 많이 한다. 또한 군인과 함께 일해야 하는 지역이 많아 농사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일꾼을 마을 안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데도 한정이 있기 때문에 농기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때문에 농기계는 전부 개인소유로 사용하고 있다. 공동소유로 하면 해당되는 농사일을 해야 하는 적절한 때를 놓치기 때문에 개인별로 필요한 기계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다. 해충을 막기 위한 약을 뿌릴 때 사용하는 광역방제기만 공동으로 사용한다.

대성동마을 주민들이 경작하는 농지가 군사분계선 근처에도 있기 때문이 이러한 지역으로 농사일을 하러 갈 때는 하루 전날 미리 일정을 알려 그 지역의 위험요소를 카메라 등으로 확인하고 군인들과 함께 일을 하러 간다. 주로 인원점검을 할 때 이러한 사항들을 함께 확인한다. 현재는 방축골지역이 군사분계선과 가장 가까운 농경지인데 이곳으로 농사일을 갈 때에는 1개 분대 정도의 병력과 함께 농사일을 간다.

마을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는 두 개가 있다. 김천말저수지는 1980년대 마을 개발과 함께 만든 것이고 어룡저수지는 흙을 쌓아 만든 이전부터 있던 저수지를 개보수하여 사용하고 있다.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연말에 개최되는 마을총회를 통해서 저수지마다 한 사람을 관리인으로 선출한다. 저수지관리는 농사력에 맞게 저수지를 관리하는 일로 저수지에 보유된 물의 양을 확인하고 마을의 농경지에 비슷한 양의 물을 댈 수 있도록 관리한다. 저수지는 해당 저수지의 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같은 조합원이 된다. 2014년에는 김천말(대성동)저수지는 김O웅 씨, 어룡저수지는 김O년



대성동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담을 봉투



문산에서 마을주민이 운영중인 식당

씨가 관리한다.

생산된 농산물은 주로 농협이나 정부수매로 판매하지만 조합을 만들어 판매하려고 준비 중이다. 청정지역 대성동마을에서 생산된 품질 좋은 농산물을 마을이름을 걸고 판매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이름으로 농산물들을 넣을 수 있는 포장봉투를 제작하였는데 개개인이 판매하고 있는 생산물들을 같은 봉투에 담아 판매함으로서 대성동에서 생산된 농산물임을 알리기 위해 만들었다. 아직까지는 마을 주민 개개인이 판매하는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통일된 봉투를 사용함으로써 대성동마을 브랜드도 알리고 믿을 수 있는 물건임을 보증하자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마을에서 제작하게 되었다.

젊은 부부 중에서는 남편은 농사를 짓고 부인은 회사를 다니는 경우도 있다.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주민은 문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가구가 2가구 있고 파주로 출퇴근을 하는 주민이 1명 있다.

1) 인삼

(1) 과거의 인삼재배

6·25전쟁 전에는 개성사람들 소유의 인삼밭이 주를 이루었다. 인삼을 많이 길러 다른 작물은 많이 키우지 못할 정도였으며 마을 주민이 직접 기르는 인삼밭도 많지 않았다. 과거에는 돈 마련을 품을 팔아서 했는데 주로 인삼일을 해서 품값을 받았다. 하루 품값은 보통 3원, 잘 받으면 5원을 받았다. 이렇게 품값을 받던 당시 쌀 한가마니가 3000원 정도였다.


박O학 씨 인삼밭 전경


인삼밭

지금처럼 인삼에 비료를 구해다 줄 수 없었던 때에는 '고벽토'라 불리는 10~20년 묵은 초가집 허물어진 곳에서 얻은 흙과 재를 비료 대신 주면서 키웠다. 그리고 요즘처럼 3~5년만 자란 인삼은 캐지 않았다. 무조건 6년을 키운 인삼만 수확했기 때문에 지금보다 믿고 먹을 수 있었다. 인삼은 씨로 심어서 일 년 키워서 밭에다 옮겨 심는다. 인삼은 반음지 식물이라 햇빛을 직접 보면 장성하지 못한다. 지금은 까만 천으로 된 지붕을 만들지만 이전에는 짚으로 이엉을 엮어서 지붕을 덮어주었다. 초가지붕처럼 일 년에 한번씩 갈아주어야 한다. 가을이 되면 지붕을 내려서 인삼 위에 덮어 놓으면 겨울에 보온이 된다.

6·25전쟁으로 개성으로 가는 길이 끊기면서 인삼조합도 없어졌고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동안 인삼농사를 하는 사람이 없었다.

(2) 현재의 인삼재배


대성 인삼 영농단 농기계 창고

현재 인삼농사는 마을에서 1가구만 하고 있다. 손이 많이 가고 다른 농사에 소홀해 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삼농사를 포기하고 논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다.

박O학 씨(남, 65)가 마을에 한 집 남은 인삼농가로 45년째 인삼농사를 지어오고 있으며 현재는 3000평 규모의 인삼밭을 가지고 있다. 재배규모를 30대 때만이어도 몇 만평 단위로 크게 하였으나 지금은 힘이 들어 3천평 정도 규모로 키운다. 가끔 일손을 빌리고 평소에는 부부가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이다.

전쟁 이후 단절되었던 인삼농사를 박O학 씨가 짓기 시작한 때부터 다시 짓기 시작했다. 초창기에는 4~5명이 같이 단지로 꾸며서 심었는데 실패하거나 그만두고 박O학 씨만 지금까지 농사를 짓고 있다. 인삼을 키우게 된 계기는 원래 대성동마을이 개성인삼으로 유명한 고장이었고 박O학 씨가 1950년 6월 25일, 6·25전쟁이 발발한 날 태어나서 가족들이 피란을 가지 못했다. 마을에서 토박이로 살면서 인삼을 심어야겠다고 생각해서 22살부터 인삼을 심기 시작했다.

3천평에는 2500칸의 인삼을 키울 수 있는데 1칸은 1평을 의미한다. 나머지 500평은 도랑이나 길이다. 1칸에는 48뿌리를 심는다. 1칸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10만원 정도로 지금 자라는 대로만 수확이 잘 되면 2억5천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7~8천만원정도 된다. 칸 당 10만원어치를 수확하기가 쉽지 않다.

> "지금은요 밭에다가 계 붙는거야 목돈 만지는데는 그만이에요 푼돈들여서 목돈 만지는 거 그거 벼농사는 일 년에 한번 7~8천 나오지만은 (인삼은) 6년 길러가꼬 몇 억은 나오는데 한꺼번에 몇 들어가는게 아니잖아 100만원 몇십만원 십만원 품값 오만원 막 품값 따지다 보면 다 적자나 6년 동안은 계산 풀이하면은 칸당 17,000원 고 정도가 들어가요 일 년 동안 하는 게 그러면 몇 프로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게 쪼금쪼금 들여가지고 목돈 만드는 거예요 목돈 내 밭에다가 계 붙는거야 계"[168]

인삼은 키울 때 일손도 많이 필요하고 잠깐이라도 관리를 잘 못하면 인삼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키우기 쉽지 않은 작물이다. 이전에는 인부를 많이 들여서 키워도 괜찮았지만 지금은 일꾼을 많이 쓰면 남는 것이 없을 정도로 품값이 많이 올라서 지금은 많은 일들을 혼자 한다. 규모도 크게 할 수가 없다. 초창기만 해도 인삼인부로 쓰는 할머니들 품삯이 2,000원이었다. 인삼인부로 데려오는 할머니들은 1년짜리 패스(출입증)을 끊어서 일을 시킨다. 젊은 사람들은 없다. 젊은 축이 75살일 정도로 고령자들이 많다. 인삼밭에 쓰는 인부는 정해져 있는데 인삼관리 할 때 주의할 점들이 많아 아무나 데려다 쓸 수가 없다. 인삼은 위 줄기가 부러지면 다시 자라지 않고 죽기 때문에 일을 재촉할 수도 없다. 지금 오는 인부도 초창기부터 같이 일해오던 사람들과 계속 함께 하고 있다.

인삼농사를 위한 교육도 하지만 책을 보고 인삼을 키우기보다는 경험으로 익힌 노하우대로 키우고 있다. 일 년에 3~4번 정도 교육을 실시한다. 김포나 금천의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교육한다.

1983년도 즈음에는 마을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사람들 7명이 모여 마을 내에 '대성 인삼영농단'을 결성했었다. 지금의 박O학 씨 댁 옆에 공동창고와 사무실을 만들어 농기계 등을 공동으로 구입하여 사용하고 일도 서로 도와주었으나 인삼농가가 줄어들면서 7년만에 해체하게 되었다.

현재 박O학 씨가 소속된 인삼조합은 파주시 단위로 결성되어 있다.

168) 박O학(남, 65) 제보



인삼씨



인삼씨를 따고 있는 박O학 씨

① 인삼파종 및 관리

인삼씨는 매년 올라오는데 4년 이전의 것은 따버린다. 씨를 그대로 두면 씨로 영양분이 가서 인삼이 잘 자라지 못하기 때문이다. 3년근의 씨는 너무 연하고 5년근의 씨는 너무 딱딱해서 발아가 되지 않는다. 4년근의 씨를 받아두었다가 발아시켜 사용한다. 가을에 씨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금산에서 구입해서 심는다. 금산이 인삼의 고장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인삼과 관련된 물품들을 이곳에서 많이 구입한다.

4년근 이전의 인삼씨는 따서 말린 후에 껍질을 까서 차로 끓여 먹는다. 씨에도 사포닌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인삼씨를 따서 배개로 만들면 아이 머리가 좋아진다고 해서 박O학 씨의 부인은 인삼씨를 모아서 손주 베개를 만들어주려고 준비 중이다.

인삼은 땅이 완전히 녹은 4월에 심는다. 가을에 씨를 따다가 자갈과 모래를 1:1로 섞은 물에 5개월 동안 담가서 아끼(아기)를 틔운다(발아시킨다). 씨앗의 상태를 매일 들여다보면서 하루에 한 번씩 물을 준다. 1달에 한 번씩 뒤집어 주는데 마지막 두 달간은 그대로 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씨를 발아시키지 않은 채로 심으면 껍질이 두꺼워 자라지 않는다. 다 익은 인삼씨는 트럭이 지나가도 깨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기 때문이다. 씨가 발아되면 밭에다 심는데 이전에는 눈이 밝은 학생과 아이들을 데려다가 구멍을 뚫어주고 한 구멍에 한 알씩 발아된 인삼씨를 넣게 했는데 요새는 기계를 이용해 심는다. 만약 인삼씨를 새가 먹게 되면 새의 뱃속에서 씨가 발아 된 후 새의 변을 통해 땅에 심어져 자라게 되면 산삼이 되는 것이다.

씨를 심고 4월 20일경이 되면 싹이 올라온다. 그 이후부터는 10일마다 약을 주기적으로 주어야 한다. 하루라도 늦어지면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한다.

인삼은 똑바로 심으면 자라지 않는다. 60도 각도로 심어야 잘 자라고 머리가 동쪽으로 가게끔 심어야 한다. 거꾸로 서쪽으로 가게 심으면 인삼이 잘 자라지 않는다.

② 인삼관리

인삼은 반음지 식물이기 때문에 직사광선을 받아도 안 되고 해가 완전히 가려져서도 안 된다. 그래서 차양을 설치하게 되는데 그 방향은 남쪽으로 설치한다. 이렇게 하면 아침에는 해가 들어오고 나머지 시간에는 해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게 광량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번 설치한 차양은 6년을 그대로 둔다. 지금은 질이 좋아져 6년을 버틸 수 있고 태풍이나 다른 조건에 의해 찢어지면 보상도 해준다. 초창기에는 인삼밭에 차양을 치기 위한 말장도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했다. 그것이 돈이 덜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품값이 더 들어서 사다 하는 것이 더 저렴한 편이다. 차양을 덮는 천은 두 장을 덮어주는데 칸당 8,000원이 든다. 봄, 여름에는 덮어 두었다가 가을에는 차양을 내려두는데 눈이 오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봄에 다시 올린다. 인삼위에 눈이 내리는 것은 괜찮다. 차양이 물을 막아주지는 않지만 물이 크게 방울로 떨어지지 않고 곱게 내릴 수 있게 도와준다. 물방울이 크게 떨어지면 이파리가 검은색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수확할 때는 차양을 걷고 기계를 이용해 인삼을 캔다.

밭에는 왕겨가 뿌려져 있는데 처음에 인삼을 심자마자 뿌려준다. 흙물이 인삼에 튀면 병에 걸리기 때문에 물이 튀지 않게 왕겨를 뿌려둔다. 거름은 가을에 갈잎(가랑잎)을 주워다가 뿌려준다. 질소 등의 거름을 사용하면 인삼이 죽는다. 옛날에는 불 때고 남은 구재가 아주 좋은 거름이었다. 오래된 집의 흙을 퍼다 뿌려도 좋다.

한번 심은 인삼은 6년 동안 키워야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 못하면 5년에서 6년이 되는 해에도 인삼이 죽거나 자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인삼은 어디에 심어도 4년까지는 잘 자라지만 5년째 되는 해부터는 토질이 맞지 않으면 썩거나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박O학 씨는 올해 5년차 인삼을 키우고 있는데 내년 봄이 되어야지만 성공여부를 알 수 있다. 봄이 되었는데 갑자기 자라지 않는 잠을 자는 인삼이 되어버리기도 한다. 자는 인삼은 기다리면 한해 뒤에 자라기도 하고 그대로 썩어버리기도 한다. 한해 뒤에 수확이 가능하다 해도 일 년을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상품성이 떨어지게 된다. 인삼이 썩거나 잘 되지 않으면 빨리 캐야 하는데 그 시기를 놓치고 미련을 두다가 큰 손해를 보는 사람들도 많다. 인삼을 한번 키웠던 밭에는 다시 인삼을 심을 수

없는데 30~40년이 지난 후에 심어도 4년근 인삼밖에 수확할 수가 없다. 그렇게 수확한 인삼은 조합에서 수매해가지 않고 일반 장사꾼들에게 팔아서 삼계탕용으로 만든다. 밭에는 30~40년이 지난 후에 심어도 인삼이 안 되지만 논에다 심으면 3~4년만 지나서 심으면 인삼농사가 된다. 인삼을 캐고 나서 논으로 쓰면 3~4년만 지나도 인삼을 다시 기를 수 있다.

이렇듯 인삼이 잘 자랄 수 있는 토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인삼을 심겠다고 신청을 하면 조합에서 사람들이 와서 밭 주변의 흙을 가져가 성분 검사를 해 적합한 토질인지 알려준다.

③ 수확

수확은 8월 20일부터 시작된다. 수확하는 순서는 미리 제비뽑기를 해서 정한다. 수확한 인삼을 처리해야 하는데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인삼의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 수확하는 날을 정하는 것이다. 제비를 뽑아 날을 정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인삼의 상태에 따라서 뽑은 순서를 바꾸기도 한다. 인삼이 썩거나 문제가 생긴 사람은 하루라도 빨리 인삼을 캐고 싶어하고 인삼이 덜 자란 사람은 하루라도 늦게 인삼을 캐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인삼수확은 이전엔 호미로 했으나 지금은 트랙터를 이용한다. 수확하는 기계는 본인 소유의 것을 사용하거나 빌려 사용할 수도 있는데 기계사용료는 평당 200원이다. 수확하는 시간은 아무리 늦어도 오후 3~4시에는 끝이 난다. 인삼을 캐서 흙을 털고 땅에 떨어뜨리는 것까지 기계를 이용하고 인삼밭에서 일하는 할머니들을 불러다 그 인삼을 주워 상자에 담게 한다.

한 상자에 35kg씩 담아서 정부에서 수매해간다. 수확하는 날에 맞춰 정부에서 사람이 오는데 중간에 인삼을 빼돌리거나 하는 것을 감시하고 잘 수확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옛날에는 인삼이 귀했기 때문에 빼돌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인삼이 흔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 수확한 인삼은 하루저녁을 보관했다가 수납하는데 하룻밤 사이에 수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무게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

계약재배를 하기 때문에 농약도 지정된 것만 사용하고 인삼을 재배하는 동안 담배인삼공사의 관리를 받는다. 수확 전에 토질검사를 해서 다른 약 성분이 검출되면 인삼을 가져가지 않는다. 재배하는 도중에 돈이 없으면 수확 후 받을 돈을 미리 받기도 하는데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유 있는 사람은 미리 받지 않는다. 미리 돈을 받아서 썼다가 수확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돈을 물어내는 사람도 있다. 요새는 인건비 등 인삼재배 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한 자본이 없는 사람은 인삼농사를 하다가 망하는 경우도 많다.

한국에서 생산되는 인삼의 상당수는 일본으로 수출된다.

(3) 파주개성인삼축제

파주개성인삼축제는 매년 10월에 개최된다. 파주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농민들이 자신이 키운 인삼을 가지고 축제에 참가하는데 대성동마을에서 참가하는 주민은 없다.



연도	테마	기간
2013	파주인삼이 개성인삼입니다.	2013년 10월 19일~ 10월 20일 (2일간)
2012	파주인삼이 개성인삼입니다.	2012년 10월 20일~ 10월 21일 (2일간)
2011	파주인삼이 개성인삼입니다.	2011년 10월 14일 ~ 10월 16일 (3일간)
2010	파주인삼이 개성인삼입니다.	2010년 10월 16일 ~ 10월 17일 (2일간)
2009	파주인삼이 개성인삼입니다.	2009년 10월 17일 ~ 10월 18일 (2일간)

파주개성인삼축제(출처:파주시청 홈페이지)

2) 논농사



논호미(왼쪽)와 밭호미(오른쪽)

현재 대성동마을의 생업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논농사이다. 마을 전체의 논 면적은 약 160만평이고 쌀 생산량은 연간 약 2,250톤이다. 가구당 평균농지면적은 3만평 정도로 많이 짓는 사람은 8만평까지도 짓는다. 1만평당 얻을 수 있는 소득은 약 2,000만원으로 이를 통해 마을의 평균소득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대성동마을은 외부에서 노동력을 빌려 쓰기도 힘들고 마을인구도 적어서 전국에서 기계화가 제일 잘 되어있는 마을이라고 말할 정도로 농기계가 필수적이고 가구마다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다. 기계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서로 품앗이 할 일이 많지는 않지만 요새도 모판과 못자리는 몇 집이 모여서 함께 만든다.

(1) 과거의 논농사

6·25전쟁 이전에는 품앗이를 많이 했는데 10~15명이 함께 모여서 '두레'를 만들어 순차적으로 모내기나 김매기처럼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일을 함께 하였다. 김매기는 8월 초에 이루어지는 논호미를 이용해서 잡초를 제거하는 과정으로 논이 잘 자라게 해주기 위해 하는 일이었다. 논호미를 이용해 잡초가 난 부분을 흙을 떠서 뒤집어주는 방식으로 잡초를 제거했다. 밭호미는 논호미보다 더 작다. 요새는 논호미를 잘 쓰지 않아 찾아보기가 힘들다. 김O래 씨는 18세부터 논을 매기 시작했다.

마을의 두레는 큰 마을은 20명, 작은 마을은 10명 정도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대성동마을은 15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 6·25전쟁 이전에는 마을에서 함께 모여 마을의 농토를 다니며 두레일을 할 때 농기를 만들어 가지고 다녔는데 농깃대를 만들어서 깃발을 꽂아 사용했다. 맨 앞사람이 농깃대를 들고 걸어가면 꽹과리나 북치는 사람이 따라가며 치기도 하고 농기를 마당에 걸어놓고 그늘에서 쉬어가기도 했다.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는 생각이 나지 않는다.

농기를 들고 품앗이를 다니다 보면 옆 마을의 농기와 마주치기도 했는데 농기를 누가 먼저 만든 것이냐를 가지고 형, 아우를 따져 아우가 형에게 인사를 하거나 예를 표하지 않으면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농기싸움을 따로 하는 것은 아니고 술이라도 한말을 내어 놓거나 절을 하는 등 형님인 농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키는 일을 하고 가야하는 등의 기(氣)싸움이었다.

6·25전쟁 이전에는 소를 가지고 농사도 짓고 소달구지도 많이 사용했다. 1985년도까지 소 쟁기를 이용했다. 소를 앞으로 가게 하려면 '이랴'라고 하고 멈추게 하려면 '워'라고 하면 되었다. 왼쪽, 오른쪽으로 가라고 소리를 하진 않았고 고삐를 이용해 방향을 바꾸었다. 박O선 씨의 기억에는 마을에서 쟁기소리를 하진 않았다고 한다.

일하는 소는 암소, 수소 중 형편에 맞게 사용했는데 일은 수소가 더 잘했다. 암소는 송아지를 낳거나 하면 일을 할 수 없었고 수소가 힘도 더 좋았기 때문이다. 소는 농사일과 관련이 깊었기 때문에 소와 관련된 물건이 길한 의미를 지니기도 했는데 이전에는 엄나무로 소의 코뚜레를 만들어 대문간에 걸어두고 집이 평안하기를 빌었다.

지금은 다양한 농기계를 이용하지만 전쟁 전에는 발동기를 가지고 방아를 찧는 것이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일이었다. 발동기는 경유를 동력으로 하는 모터로 한 자리에 두고 사용하는 것이다.

(2) 현재의 논농사

논농사와 관련된 일들은 거의 다 기계화가 되었다. 논두렁에 난 잡초제거 이외에는 사람 손이 필요한 일이 거의 없다. 주민들은 대성동마을이 대한민국에서 기계화가 가장 잘 된 곳일 것이라 말했다. 노동력을 사오기 힘든 지역적 특성 때문에 스스로 모든 일을 해야 하고 일을 하는 시기가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집집마다 필요한 농기계를 한 대씩은 소유해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다.

농기계는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세 가지는 있어야 논농사를 지을 수 있다. 트랙터는 1979년 정도에 마을에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1980년대에도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이 있었으나 크기도 작고 성능도 좋지 않았지만 점차 자동화되고 성능도 좋아지면서 완전한 기계화가 되었다. 이외에 승용관리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기계는 비료를 주거나 약을 줄 때 사용하는 것으로 사람이 타고 다니면서 비료나 농약을 준다. 넓은 범위에 농약 등을 뿌리기 위해 사용하는 광역방제기는 작목반 단위로 소유하고 사용한다.

작목반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작목반 소유의 광역방제기를 사용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북파주 농협에 신청을 하면 광역방제기 사용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대성동에서 들어온 신청자들은 김용성 씨가 맡아서 방제를 하고 있다. 다른 마을에는 광역방제기가 한 대 정도 있거나 없는 곳도 많은데 대성동은 워낙 대농들이 많아서 3대나 가지고 있다.

농기계도 내구연도가 있기 때문에 교체해 주어야 한다. 주인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교체시기는 다르며 새로운 농기계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개인의 형편과 필요에 따라 새로운 기계를 구입한다. 농기계 구입에 대한 지원금은 따로 없고 대부분의 농가에서 농기계 저리융자를 이용해서 구입한다. 기계가 점차 대형화 되고 고가의 농기계가 많아짐에 따라 농가의 부담도 높아지고 있다.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농약과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재배하는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주민들도 있다. 김O찬 씨는 친환경 농법으로 논 만5천평을 경작하고 있다. 처음에는 저농약 농법부터 시작해 2년 정도 재배하면 3년부터는 무농약으로 제초제, 살충제 등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우렁이를 이용하고 친환경 제재를 사다 뿌리는데 가격이 비싸 커피나 식초를 섞어서 만들어 쓰기도 한다.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생산물은 값을 더 받기는 하지만 그만큼 더 힘이 든다. 제초제 등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풀들을 사람 손으로 베거나 없애 주어야 한다. 힘이 드는 만큼 비용을 더 받는 셈이다. 국가의 지원도 부족한 편이다. 대성동마을의 경우 300평의 논에 친환경농법에 필요한 우렁이가 7~8kg이 필요한데 지원하는 우렁이는 일괄적으로 5kg이기 때문에 잡초를 다 먹지 못해 손으로 뽑아주거나 우렁이를 자비로 사다 넣어야 한다. 이렇듯 재배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초기보다 친환경 농법으로 논을 경작하고 있는 주민은 줄어들고 있다.

농번기 때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일꾼을 마을로 부른다. 외부 일꾼은 기간을 정해 놓고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루하루 단위로 일하는 사람도 있다. 일꾼은 일하는 동안에는 거의 매일 출입을 해야하기 때문에 대성동을 다니는 일꾼들이 정해져 있는 편이고 일 년 단위로 마을 출입증을 갱신하며 드나들게 된다. 기간을 정해 일꾼이 되면 마을에 머물 수 있지만 마을 안에 슈퍼도 없고 저녁에 즐길거리도 없기 때문에 마을에 머물고 싶어하지 않는 편이다. 일당은 농사일에 대한 숙련도에 따라 다르며 잘하는 사람은 10만원씩 주기도 하고 1년 단위로 일하는 일꾼은 보통 7~8만원의 일당을 준다. 김O찬 씨의 경우에는 3월 20일경부터 6월 10일정도까지 일이 바쁠 때만 일꾼을 사서 쓰고 다른 때에는 혼자서 일한다. 마을에 머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동거리나 출입의 불편함 때문에 마을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일꾼도 많지 않은데다가 날씨가 더우면 일의 능률도 떨어지기 때문에 마을 주민 대부분은 목돈이 들어도 많은 농기계를 보유할 수밖에 없다.

(3) 논농사력

농업기술의 발달로 쌀 생산량이 증대되고 농사일들이 기계화 되면서 논농사력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논농사를 지어온 주민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중요한 일들을 중심으로 정리한 대성동마을 한 해 동안의 논농사력은 다음과 같다.

① 거름내기



과거에 사용하던 써래

논농사는 거름을 내는 것이 첫 번째인데 소쟁기로 땅을 갈아 두고 지게로 거름을 져다가 논에 뿌렸다. 거름을 낸 후에 논갈이를 한 번 더 한 후에 모내기를 시작한다. 지금과 같은 화학비료는 없고 인분 등을 비료로 사용했다. 인분을 비료로 쓸 때는 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마당에다 쌓아두어 썩혀야 하는데 인분에 베어온 풀을 섞어 퇴비를 만들었다. 퇴비를 두는 자리를 정하여 흙으로 약간 높게 쌓아 두고 그 위에 인분과 풀을 쌓아두었다.

거름을 주는 횟수는 이전에는 처음에 논을 갈 때 넣어주는 밑거름만 주었었지만 지금은 이삭이 나올 때 이삭거름을 추가로 준다. 거름이 아닌 비료를 사용하면서부터 생산량이 많이 늘었다. 거름을 뿌리며 땅을 갈아 낸 후에는 쓰레질(써래질)을 해서 논을 평평하게 하는 작업을 해 준다. 지금은 트랙터를 이용해 로타리작업을 하는 것이 과거의 써래질과 같은 것이다.

② 못자리내기와 모판만들기

볍씨는 지금은 사오지만 이전에는 받아서 사용했다. 미리 종자할 볍씨를 받아두고 수확을 했다. 모내기를 위해 준비하는 볍씨 양은 1평에 1되 정도가 필요하다. 옛날에는 소

독약이 없어서 깨끗이 씻는 정도지만 지금은 소독약으로 꼭 소독을 한다. 깨끗이 씻거나 소독한 볍씨는 7~8일 정도 불렸다가 가마니에 넣어서 싹을 틔운다. 지금은 가마니 대신 포대자루를 사용한다. 모판이 없을 때는 논 한 귀퉁이에 벼를 심어서 손으로 뽑아 일정한 양씩 묶어서 논에다 옮겨 심었다. 못자리는 지금은 4월 정도에 내는데 예전에는 지금보다 더 일찍 심었다.

지금은 농사일이 기계화 된 것이 많아 거의 모든 일을 혼자 하지만 모판을 만들고 못자리를 낼 때는 2~3집이 모여서 함께 만들기도 한다.



모판만들기 (박세운 제공사진)



못자리내기 (박세운 제공사진)

③ 모내기

모내기는 일찍 내면 4월, 늦어도 5월에 하였다. 지금도 이 시기는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과거에는 저수지나 관개시설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아 가뭄이 들면 모내기 시기가 6월까지 늦어지기도 하였다.

모내기를 한 후에는 논을 말려주는 시기가 있다. 논에 물을 빼서 말려주면 벼가 물을 찾아 뿌리도 더 잘 퍼지고 이파리도 커지기 때문이다. 물을 뺄 때는 6월 말~7월 초에 빼고 7월 15~20일 사이에 물을 다시 넣어준다. 새로 도입된 농법으로 마을에 나이가 많은 분들은 논에서 물을 빼고 다시 넣으려면 물이 많이 들고 이전에 해오던 방식대로 하는 것이 편해 물을 빼지 않기도 한다.





모내기 (박세운 제공사진)

④ 김매기

모내기 후 15일에서 20일 정도가 지나면 논호미를 이용해 땅을 뒤집어서 풀이 나지 못하게 하고 또 15~20일이 지난 후부터는 손으로 잡초를 뽑아주었다. 모내기도 김매기도 손으로 직접 해야 했기 때문에 경작할 수 있는 논의 범위가 지금과는 차이가 많이 났다. 그리고 이렇게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일은 두레로 함께 일을 했다. 두레는 10집 정도가 모이는데 예전에는 인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2~3개의 두레정도가 마을에 있었다. 전쟁 이후에도 두레를 통한 공동노동은 계속 되었었다.

지금은 제초제나 소독약을 뿌려서 김매기를 대신한다. 경작지의 면적이 넓어 일일이 관리하기가 힘들고 벼가 어느 정도 자란 후에는 잡초도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따로 김매기를 하지 않고 둔다.

⑤ 수확 및 탈곡

수확 시기는 벼의 품종에 따라 달라진다. 일찍 베는 벼 품종은 음력 8월 말부터도 베기 시작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음력 9월 초부터 수확을 한다.

기계가 없던 시절에는 낫으로 벼를 베어다가 낱가리대를 세워둔다. 새가 먹지 못하도록 뿌리가 위로 가고 낱알이 아래로 가도록 두고 그 위에 이엉을 덮어 둔다. 건조기가 없기 때문에 3~4일을 말려야 하는데 비라도 오면 다시 말려야 하기 때문에 기를 쓰고 다시 가마니에 담았다. 잘 마른 벼는 발틀을 이용해 털어냈다.

요즘은 콤바인을 이용해 벼를 수확한 후 건조기를 사용하는데 40도 저온에서 12시간

정도 말린 후 출하한다. 농협이나 정부에 수매 할 때 필요한 수분도를 정해주기 때문에 그에 맞게 말리면 된다. 이전에는 고온에서 말렸기 때문에 자연 건조한 것에 비해 건조기에서 말린 벼의 밥맛이 좋지 않았으나 지금은 저온에서 말리기 때문에 자연 건조한 것과 구별하기 힘들다.

수확이 끝나면 추경이라고 가을갈이를 하는데 수확한 볏단을 썰어서 그것을 뿌리며 땅을 갈아두면 볏짚도 잘 썩고 땅에 남아있는 균이 죽어 잡초가 자라는 비율도 낮아진다. 또한 볏단에는 규산성분이 들어있어 볏대를 빳빳하게 자라도록 도와준다. 추경을 해주고 봄에 봄갈이를 한 번 더 해주면 경심(흙깊이)이 깊어진다. 이렇게 되면 벼의 뿌리가 땅 속 깊숙이 내려지기 때문에 깊은 땅 속에 있는 영양분을 벼가 흡수하기도 좋고 벼가 쓰러지는 비율이 낮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한번만 갈아준 논보다 농기계가 더 빠진다는 단점도 있어 하지 않는 집들도 있다. 김O찬 씨(남, 52)는 어린 시절부터 추경을 하는 식으로 농사를 배웠기 때문에 꼭 추경을 한다.

(4) 판매

과거에 수확한 벼는 집에서 먹을 것은 절구에 찧어서 식량으로 먹고 판매하는 것은 미군트럭에 싣고 가서 방앗간에 가서 팔았다. 방앗간에는 벼째로 가마니에 넣어서 가져가 일정부분을 탈곡 수수료로 떼어주고 그 나머지에 대한 값을 받을 수 있었다.

현재 마을에서 생산되는 쌀은 개인적으로 소비자를 구해 팔거나 농협과 정부수매로 판매한다. 수매량은 정부 수매보다 농협 수매가 더 많다. 정부에 수매하는 쌀의 양은 총 생산의 10% 내외이다. 판매금액은 개인적으로 파는 것이 가장 금액이 좋고 농협이 정부수매보다 조금 더 나은 편이다.

농협에서 수매하는 벼들은 벼째로 수매하는 직원들이 가져가거나 벼를 싣고 수매할 농협으로 가면 검사를 통해 등급이 매겨진다. 작년 기준으로 벼 40kg 1포대를 60,000~60,500원 정도 받았다. 쌀 1포대로 따지면 180,000원 정도의 금액이다.

정부 수매는 마을 내로 직원이 들어와 벼의 상태를 확인하고 값을 쳐 준 다음 마을 창고에 보관해 둔다. 이때 창고보관비와 운반비 등은 마을에 별도로 지급한다. 이렇게 저장된 벼들은 필요할 때마다 실어 가는데 이때에도 운반비는 별도로 지급된다.

그 외의 개인적으로 판매라는 벼들은 정미소를 이용하여 탈곡하는데 마을에는 2개의 정미소가 있다. 그중 하나는 판문점영농조합에서 경기도와 파주시의 지원으로 만든 것이다.

지금도 문산 등에 있는 정미소에다 벼를 판매하기도 하는데 이때의 판매방식은 수탁판매로 정미소에서 벼를 도정해서 판매한 후에 대금을 주거나 정미소를 이용하는 비용을 제한 후 나머지 벼에 대한 금액을 쳐 주는데 당일 시세를 계산해서 쌀값은 즉시 지급해 준다.

3) 밭농사

현재 마을에서 경작중인 밭의 면적은 633,230㎡ 이다. 김O웅 씨의 경우 밭농사는 약 5000평을 짓고 있는데 마을 주민들과 비교 했을때 중간정도의 규모이다. 마을에서 가장 많이 밭농사를 짓는 주민이 2만평 규모이다. 평균 3~4천평 정도 된다.

봄에 밭농사를 짓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것은 땅에 퇴비비료와 살충제를 뿌린 다음에 감자와 오이, 옥수수, 가지를 심는다. 주로 모종으로 심는데 옥수수는 씨로도 심는다. 7월 초에서 중순에 감자를 캐고 감자를 캔 밭에 비료를 뿌려서 밭을 준비한 다음에 배추와 무를 심는다. 8월 15일경에 배추는 모종을 사거나 미리 준비한 모종을 심고 무는 씨를 사와서 심는다. 수확은 가을에 김장을 담글 시기에 한다.

대부분의 밭작물을 키울 때 퇴비비료와 복합비료를 섞어서 파종할 때 뿌려주고 싹이 나오고 나서는 복합비료와 요소비료를 준다. 거름을 20일에서 30일정도 간격으로 꾸준히 주어야 잘 자란다. 요새는 잡초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닐을 덮어 키우기 때문에 비닐을 뚫고 거름을 넣어주는데 줄기 바로 밑에 주지 않고 한 뼘을 띄우고 주는데 너무 가까이 비료를 뿌리면 작물이 죽는다.

밭작물 중 판매를 위해 키우는 작물은 예전에는 참깨와 고추가 많았는데 장단콩축제와 더불어 콩이 유명해 지면서 콩과 고추를 많이 키우고 있다. 고추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을 위주로 판매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고추 등 마을에서 생산되는 작물들을 동일한 봉투에 담아서 판매할 예정이다. 다른 작물들도 재배하긴 하지만 판매보다는 가족들과 나누어 먹으려고 재배하는 경우가 많다. 고춧가루나 청국장, 메주 등의 가공식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가구들도 있다.

이전에는 겨울에 비닐하우스에 보일러를 때서 작물을 기르기도 하였지만 수지가 맞지 않아 지금까지 하고 있는 주민은 많지 않다. 시설재배의 경우 일반적으로 업자들이 밭에 와서 수확과 동시에 작물을 사가지고 가는데 대성동마을은 출입이 불편해서 업자들이 물

건을 사러 오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민들이 수확을 해가지고 가면 채소는 시간이 지나서 시들면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채소를 사지 않고 두었다가 값이 떨어지면 구입해 가기 때문에 제값을 받을 수 없어 재배를 포기했다.

(1) 콩



콩밭

콩의 원산지가 장단반도이다. 전세계 야생콩의 종류가 8천종이 있는데 그 중 5천종이 장단반도에서 자라고 있다. 파주시에서 재배되는 콩의 종류는 백태의 경우 200여 가지가 있고 유색콩 종류가 100여 가지 정도 된다.

대성동마을도 대부분의 농경지가 마사토로 된 곳이 많아 배수가 잘되어 인삼과 콩을 재배하기에 적합하다. 김O구 씨 부친께서 생전에 말씀하시길 일제강점기에 군내국민학교의 학교 마크가 콩잎이었다고 한다. 그만큼 대성동마을과 주변에서 오래전부터 콩농사를 해왔다.

콩농사는 기계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고 기계값도 비싸서 주민 중 기계를 이용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의 비율은 5:5정도이다. 파종과 수확 때 기계를 사용한다.

콩을 기르는 순서는 밑거름, 파종, 김매기, 수확 순이다.

파종은 모종으로 심거나 콩으로 심는데 99%정도가 콩으로 심는다. 모종을 사용하는 경우는 비가 오지 않아서 파종이 늦어졌다거나 심고 나서 예상한 것보다 싹이 나오지 않으면 모종으로 빈 곳을 메꿔주는 용도로 사용한다. 콩을 심는 기계는 트랙터에 부착하면 로타리작업을 하면서 콩을 심을 수 있게 된다.

> "콩 심는 거는 예전에는 사람의 발자국으로 심었어요. 새로 밭을 갈면 물렁하잖아요. 그때 발자국으로 심었어요. 뒤꿈치로. 오른발로 요렇게(뒤꿈치를 세워서) 구멍을 내잖아요. 그럼 그 구멍에 콩을 넣고 왼발로 덮어요. 재주가 있어야 해. 지금은 기계가 발달이 돼가지고 종자를 넣고 이렇게 밀구 가면은 콩이 심기잖아. 지금은 편안하죠."[169]

파종 직후에는 까치나 꿩이 콩밭에 큰 피해를 입히기도 하는데 심한 경우 밭에 한 톨의 콩도 남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조류들은 개인적으로 잡기도 하고 동물의 수가 많은 경우 파주시에 전문 포수들을 요청하여 잡는 경우도 있다. 파종한 후 싹이 적당히 자라기 전까지는 이러한 조류들을 조심해야 한다.

김매기는 여느 농사에서 그렇듯 가장 힘든 일이다. 일 년에 2번 정도 하는데 손으로 뽑거나 제초제를 사용한다.

콩 수확은 10월에 하며 손으로 수확을 하면 직접 콩을 낫으로 꺾어서 말린 후 콩을 터는 것이고, 콩 콤바인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다. 벼는 벤다고 하지만 콩은 꺾는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콩 콤바인은 마을에 1대가 있다. 콩단지에서 파주시에서 보조사업비를 받아 구입한 것으로 담당하는 사람을 정해 놓고 인건비를 조금씩 받아가며 수확을 도와주고 있다. 작년엔 최원식 씨가 담당했었는데 올해는 건강이 좋지 않아 다른 분이 담당을 하실 것이다. 콩 콤바인이 고가의 기계이고 여러 명이 사용하면 고장이 더 잦기 때문에 담당을 정해 놓고 관리 · 사용하고 있다. 마을 내 콩단지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비용은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탈곡은 탈곡기를 사용하는데 콩탈곡기는 개인이 소유한 것도 있고 단지별로 소유한 것을 순서대로 빌려서 쓴다. 대여하는데 비용은 따로 받지 않으며 고장이 난 경우 수리비는 고장을 낸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기계관리는 단지별 총무가 한다. 탈곡한 콩은 건조한 후 '정성기'를 사용해 선별한다.

콩농사의 주요한 변화 몇 가지는 예전에는 콩은 비료를 주지 않았었다. 그러나 콩도 비료를 주면 생산량이 더 늘기 때문에 지금은 비료를 준다. 옛날방식으로 키우면 120kg 정도를 수확할 수 있고 심기 전에 밑거름을 주면 200kg정도를 수확할 수 있다. 비료는 퇴비를 주거나 농협에서 판매하는 콩전용 비료를 사용한다.

파종적기도 달라졌다. 전에는 5월 25일에서 5월 말에 서리태(유색콩)를 심고 6월 초에

169) 김O래(남, 76) 제보

백태를 심었는데 지금은 기후가 달라져서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늦게 심는다. 서리태는 6월 초, 백태는 6월 20일 이후에 심는 것이 관리하기가 더 좋다.

> "콩이 심는 시기는 이 봄에 인제 나무이파리가 나오잖아요. 나무이파리가 나오면 밤나무가 있어. 밤나무에 나무이파리가 나오잖아. 그럼 비둘기가 그 밤나무에 앉았지. 그 (비둘기가) 뵐락 말락 할 때. 비둘기가 앉아도 약간 뵈고 뭐 또 (이파리에) 가려서 덜 뵐 수도 있구 그렇잖아요. 그 때 심으면 적기라 그랬어요. 콩 심는 적기. 비둘기가 앉았는 때 뵐락 말락 할. 그 정도 크기로 이파리가 자랐을 때 콩을 심으면 그 때가 적기다. 자연이 가르쳐 준거야.
> 지금은 더 늦게 심어야 돼. 일찍 심으면 콩이 잘 쓰러진다고 해서 요새는 늦게 심어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심어요. 예전에는 5월 중순쯤 심었어요. 20일에서 한 달이 늦어."[170]

콩은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식물이다. 그래서 '가뭄에 콩나듯 한다.'는 속담은 가뭄이 들면 콩이 잘 자라지 않는 콩의 특성을 보여주는 속담이라 할 수 있다. 파종 후 5일 안에 비가 와야 싹이 잘 올라오고 생육 중반기에 비가 와주어야 잎과 줄기가 크게 자란다. 올해의 경우 비가 많이 오지 않아 생육이 덜 되었다. 이러한 콩의 특성 때문에 다른 작물에 비해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다. 날이 많이 가물면 스프링클러를 이용해 물을 뿌려주기도 했다.

농사방식의 기계화로 품앗이를 하는 일은 별로 없다.

수확한 콩의 판매는 단지별로 거래처를 찾아 판매하거나 장단콩축제를 통해 판매한다. 이렇게 판매하고도 남은 것들은 농협에 수매한다. 농협이 매매하는 단가가 더 싸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맺은 거래처에 파는 것을 선호한다. 농협에 판매할 경우 북파주농협에서 백태라고 불리는 노란 콩을 수매하고 유색콩은 금촌농협에서 수매를 했는데 올해는 금촌농협에서 수매에 나서지 않아 남은 콩에 대한 판매가 어려운 상황이다.

※ 파주장단콩축제

장단콩축제를 처음에는 통일촌과 대성동마을 2개 마을이 모여 시작했다. 1~3회까지는 두 마을이 함께 주관을 했고 그 이후부터는 파주시로 이관이 되면서 '파주장단콩축제'가 되었다. 파주로 이관된 지 7~8년 정도가 되었다.

파주 임진각광장에서 열리며 11월 3째주나 4째주 금, 토, 일요일 3일에 걸쳐 진행된다. 2014년에는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된다.



연도	테마	기간
2013	웰빙명품! 파주장단콩	2013년 11월 22일 ~ 11월 24일 (3일간)
2012	웰빙명품! 파주장단콩	2012년 11월 16일 ~ 11월 18일 (3일간)
2011	웰빙명품! 파주장단콩	2011년 11월 18일 ~ 11월 20일 (3일간)
2010	웰빙명품! 파주장단콩	2010년 11월 26일 ~ 11월 28일 (3일간)
2009	웰빙명품! 파주장단콩	2009년 11월 20일 ~ 11월 22일 (3일간)
2008	웰빙명품! 파주장단콩	2008년 10월 18일 ~ 10월 19일 (2일간)
2007	웰빙명품! 파주장단콩	2007년 11월 16일 ~ 11월 18일 (3일간)

파주 장단콩축제(출처:파주시청 홈페이지)

(2) 가지

가지 씨는 가지 속에 노랗게 앉는데 가지에서 씨를 받아 쓰기보다는 사서 심는 경우가 많다. 가지를 모종으로 심을 때는 5월 5일 이후에 심는데 그 전에 심으면 서리를 맞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170) 김O래(남, 76) 제보



가지

가지는 자기 그늘을 싫어하는 작물로 잎을 그대로 두면 잘 자라지 않는다. 때문에 가지의 묵은 잎을 따서 길가에 뿌려서 사람들이 밟고 다니면 가지가 잘 열린다는 속신이 있다. 거름은 자라는 중간에 주어야 한다. 거름은 퇴비와 복합비료, 요소비료 등을 사용한다. 가지 수확은 6월부터 서리 올 때까지 계속 할 수 있다.

가지는 쇠뿔가지와 조선가지가 있는데 쇠뿔가지는 쇠뿔처럼 끝이 뾰족하고 살짝 꺾어진 가지이다.

맛은 일반적인 조선가지가 더 좋다. 가지 씨가 비싸기 때문에 농협에서 산 씨를 나누어서 심는다. 때문에 쇠뿔가지와 조선가지가 섞여 자라는 경우가 많다.

(3) 옥수수

옥수수는 씨로 심어도 되고 아끼(싹)를 틔워서 모종을 해도 된다. 옥수수 씨는 수확한 옥수수 알을 말려서 두었다가 사용한다. 모종보다는 씨를 심는 경우가 더 많다. 씨로 심을 때는 고추 2종 나갈 때 아끼(싹)를 틔워 고추를 심을 즈음에 같이 심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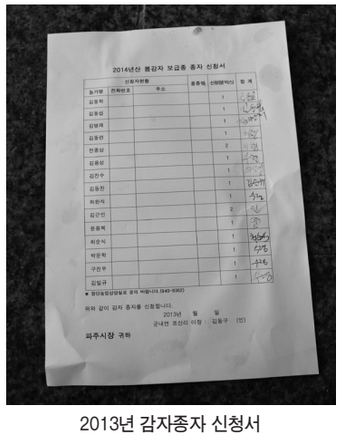
모종을 하려면 말린 옥수수 알을 저녁에 물에 담갔다가 아침에 건져서 아끼(싹)를 틔우는데 모종하는 퇴비가 따로 있어서 그 퇴비를 사용한다. 씨로 심는 것은 한식 때 심고 모종으로 심는 것은 서리를 대비해서 5월 5일 이후에 심는다. 비가 와서 땅이 촉촉할 때 심어야 좋다.

옥수수는 종자마다 수확시기가 다른데 하얀 옥수수는 7월초부터 수확하고 까만 옥수수는 9월 즈음인 가을에 수확한다. 옥수수는 수염이 나고 난 후에 수확한다. 옥수수 수염을 모아서 차로 마시면 좋다고 해서 따로 따서 보관하기도 한다.

(4) 감자

감자는 3월 20일경 한식 전에 심고 수확은 하지가 지나서 한다. 그래서 하지감자라는 말이 생긴 것이다. 가을감자도 키울 수 있지만 맛이 없어서 잘 심지 않고 하지 때 수확한 감자를 서늘한 곳에 보관해 일 년 동안 먹는다. 얼지 않을 정도로 서늘하게 두고 해를 보지 못하게 검은 차단막을 감자 위에 덮어두어 파랗게 되지 않도록 한다.

감자씨는 사서 심는데 가을에 농협에 신청해서 봄에 받아 심는다. 전 해에 수확한 감자를 이용해 심을 수도 있지만 감자가 크게 자라지 않아 주로 씨를 사서 심는다.



2014년산 봄감자 보급종 종자 신청서

농가명	전화번호	주소	품종명	신청량(박스)	합 계
김동석				1	
김동성				1	
김병래				1	
김동진				1	
전종상				2	
김동성				1	
김진수				1	
김동찬				1	
최한석				1	
김근인				2	
윤용복				1	
최순식				1	
박문복				1	
구진우				1	
김일규				1	

■ 참가농성명부발표 문의 박문식(010-3343-8302)

위와 같이 감자 종자를 신청합니다.

2013년 월 일

공내면 초리리 이장 김동구 (인)

파주시장 귀하

2013년 감자종자 신청서

(5) 배추



배추

배추는 말복 전인 8월 15일경 심고 입동 전에 수확한다. 이런 생육과정을 거친 배추는 90일 배추이고 이것보다 짧게 키우는 80일 배추와 40일 배추도 있다. 40일 배추는 김장을 담그면 물컹해 맛이 덜하다.

배추는 파종하기 전에 퇴비비료와 복합비료, 요소비료를 땅에 섞고 살충제도 뿌려둔다. 심을 때는 배추와 배추사이를 두 뼘정도 띄어서 심는데 그 가운데에 비료를 주기 위함이다. 배추가 조금 자라나오면 복합비료를 주고 더 자라서는 요소비료를 준다. 복합비료의 성분이 더 오래가기 때문에 먼저 주는 것이다.

배추수확은 입동 전에 김장할 시기를 생각해서 수확한다. 기계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수확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수확한다.

(6) 고추


고추

고추는 5월 5일이면 노지에 심는다. 모종을 위해 2월 15일 씨를 심고 하우스에서 한 달 정도 키웠다가 3월 10일경에 하우스 안에서 자리를 한번 옮겨 주고 5월 5일에 밭으로 옮겨 심는다. 하우스 안에서 다시 자리를 잡아주는 것을 '이종한다'고 하고 밭으로 모종을 옮겨 심는 것을 '삼종 나간다'고 한다. 5월 5일 즈음에 심는 이유는 그 전에 심으면 고추가 서리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 올해는 특이하게 5월 5일에 서리가 내려서 평소처럼 심은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 고추나무가 죽지는 않고 고목나무처럼 검게 변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는 잘 자라서 고추를 딸 수 있었다.


수확해 둔 고추

김O예 씨(여, 77)가 처음에 살림할 때는 고추도 씨로 심었는데 그때는 수확량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다. 씨로 고추를 심을 때는 해토가 된 뒤 3월에 밭에 씨를 뿌렸다. 한식과 청명이 지나야 해토가 되었다. 씨로 심을 때는 씨앗 값 이외에는 돈이 들지 않았지만 모종을 하면서부터는 모종을 위한 상토를 사야하기 때문에 돈이 더 든다. 상토는 1포대에 8000원이며 1포대로 고추모종 18판을 만들 수 있고 이는 고추 1000주를 심을 수 있는 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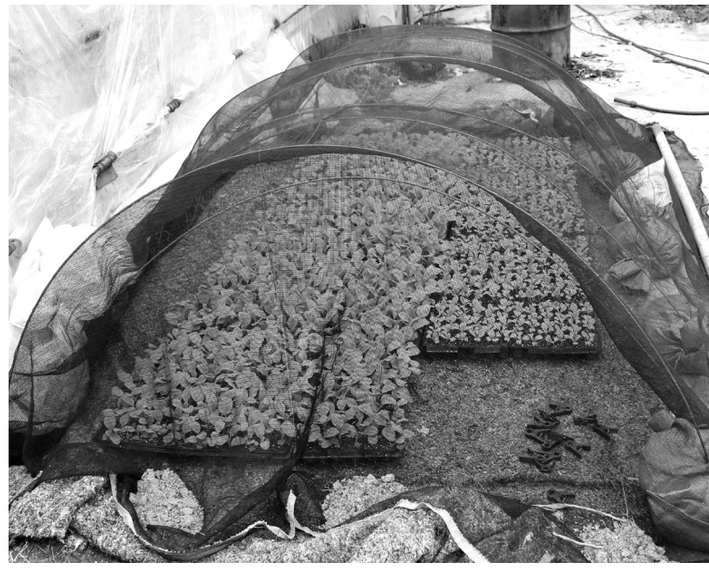
지금은 지지대를 세워 고추나무가 쓰러지기 전에 예전엔 고추나무 옆에 흙으로 북을 줘서 고추가 넘어가지 않게 했다. 지금은 지지대를 세워주는데 과거에는 고추나무를 많이 심지 않았기 때문에 일일이 북주기를 할 수 있었다.

6월 10일경에 두벌거름을 주고 7월 20일경부터 빨간고추를 따기 시작한다. 5월에 고추를 심기 전 밭을 갈고 퇴비비료를 주고 6월 10일에는 복합비료를 준다. 제초제 종류를 잘 줘야 하는데 고추가 잘 자라면 뿌리가 도랑까지 자랄 수 있는데 이럴 때 고추와 맞지 않는 제초제를 주면 고추가 단풍이 들어 말라죽는다. 비료나 제초제는 문산에 있는 씨앗가게에서 사온다.

고추는 일 년에 5번을 딴다. 1000주를 심으면 1번 딸 때 매상포대로 20포대 정도가 나온다. 고추를 5번째 따면 9월 중순경이 된다. 서리오기 전까지 수확을 계속하는데 그때까지 고추를 따면 대략 5번 정도를 딸 수 있는 것이다. 여름에는 보름 정도가 지나면 고추가 다시 익지만 9월에 들어서면 20일 정도가 되어야 고추가 익기 때문에 점점 따는 시기가 늦어진다. 후방에서는 8~10일 만에 고추가 익기도 하는데 대성동은 날씨가 더 춥기 때문에 수확이 더 늦다.

수확이 끝나면 고춧대를 뽑아 밭에 비료로 두는데 가을에 바로 뽑는 사람도 있고 겨우내 두었다가 봄에 뽑는 사람도 있다.

(7) 무


무와 배추 모종

무의 파종과 수확 시기는 배추와 비슷하게 음력 8월 15일경 심고 입동 전에 수확한다. 무 같은 경우 예전엔 입동추위가 매서워 땅 위로 올라온 부분이 얼기도 하였기 때문에 미리 뽑아 건초 속에 넣어 보관해 두기도 했다. 그러나 요새는 날씨가 일찍 추워지지 않기 때문에 미리 뽑지 않고 배추와 같이 뽑는 경우가 많다. 무는 김장 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집안의 김장일정에 맞게 수확한다.

알타리는 씨로 심는데 백로 때를 맞추어 심는다. 이전에는 백로 전에 심었는데 비료나 거름이 좋지 않아서 잘 자라지 않았기 때문이다. 알타리는 너무 크면 맛이 없기 때문에 크기를 보고 김장 전에 뽑는다.

(8) 마늘

마늘은 입동이 지나면 마늘쪽을 이용해 심는다. 아끼(싹)를 틔워서 심지는 않고 구멍이 뚫려 있는 비닐을 깔고 구멍에 맞게 심는다. 마늘은 겨울을 밭에서 보내기 때문에 이전에는 비닐하우스처럼 대를 세워서 비닐을 덮어 두는데 지금은 부직포천을 덮고 그 위에 비닐만 덮어 두는 집이 많다. 마늘 수확은 감자와 같이 하지 때에 한다.



양파모종

(9) 양파

양파는 8월 25일에 모종을 할 씨를 심었다가 마늘을 심을 때 밭으로 이종을 해준다.

양파수확은 마늘과 감자를 수확 할 때인 하지 때 한다. 따라서 양파, 마늘, 감자를 비슷한 시기에 수확하게 되는 것이다.



호박

(10) 호박

호박은 꽃이 피는 곳에서 나는 게 아니라 마디에서 열리기 때문에 마디호박이라고 한다. 마디호박은 5월에 심고 6월부터 따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딴다. 호박을 따지 않고 두면 늙은 호박이 되는데 노랗게 익는 호박은 약호박으로 맛은 없지만 약으로 사용하기 위해 키운다.



참깨 수확



참깨꼬투리

(11) 참깨

참깨는 5월 말경 모내기가 끝난 후 심는다. 밭에 까는 비닐은 뚫어야 하는 것도 있고 구멍이 뚫려 있는 것도 있고 비닐에 깨가 달려 있어 밭에 펼쳐두기만 하면 되는 것도 있다. 싹이 나오고 나서 2~3개의 씨앗만 두고 솎아주기를 한다. 비료는 비닐 씌우기 전에 주어야 한다.

참깨 수확은 8월 중순 경에 한다. 참깨나무를 베어서 말린 후 털어주는데 잘 마른 참깨는 꼬투리에서 터져 나오게 된다. 올해는 비가 오지 않아 참깨 꼬투리가 터져버려 수확이 어려웠다.

4) 목축업

목축업은 마을에서 김O래 씨(남, 62)만 하고 있다. 한우를 육우목적으로 기르고 있으며 소를 키운 지는 5~6년 정도 되셨다. 현재 22마리 정도를 키우고 있다. 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농사도 짓고 있다. 자주 소독을 해주어야 하고 사료값이 많이 들어 지금 키우고 있는 소만 키우고 우사를 정리할 예정이다. 때문에 앞으로 더 소를 키우지 않기 위해서 수소는 처분하였고 현재는 암소만 있다.

처음에 소는 의정부 근처에서 6마리를 가지고 시작했다. 이전에는 지금의 우사자리에 멧돼지를 키웠었다. 그러나 멧돼지가 사람을 공격하고 난폭해지고 산짐승을 죽이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해서 정리한 후 사슴을 잠깐 키우다가 지금은 소를 키우고 있다.



김O래 씨 우사 전경



사료를 먹는 소들

소는 우사에 가두어 키우는 것은 아니고 풀어서 키우는데 그 공간이 넓지는 않다. 소의 분뇨에 풀이 죽기도 하고 방목지가 좁아서 풀이 나있지는 않다. 겨울이 되면 소를 밭에다 풀어두면 분뇨가 거름이 되게 한다. 지금의 콩과 참깨를 심어둔 밭이 지난 겨울에 소들이 지냈던 자리이다. 잠을 자고 먹이를 주는 곳에만 지붕을 해 두었다. 가두어 키우는 소가 아니면 잠을 자고 먹이를 먹는 자리에는 변을 누지 않기 때문에 따로 변을 자주 치워주지 않아도 된다.

먹이는 아침, 저녁으로 사료를 주고 3~4일에 한 번씩 언덕 위쪽 짚단을 놓는 자리에 남아 있는 짚의 양을 확인한 후 짚을 준다.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번 사료를 준다. 수확하고 남은 볏단을 돈을 주면 저장하기 좋게 말아주는데 그것을 저장했다가 준다. 사료는 열흘에 한 번씩 들여온다. 사료값은 바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해 두었다가 소로 계산을 한다.

소를 팔정도로 키우려면 2~3년 정도 키워야 한다. 소는 전문적으로 키운 것보다 값이 덜 나가는데 50%정도 받는다. 숫송아지는 태어난 지 5~6개월 후에는 거세를 해주고 30개월 정도 자라면 판매하는데 가두어 키우는 방식이 아니고 방목하기 때문에 소에 기름이 덜 껴서 판매할 정도로 자라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편이다. 소 판매는 연천축협에서 이루어지는데 일 년에 한 번 정도 방문하여 다 자란 소를 팔거나 송아지를 사기도 한다. 운반은 전화로 소 운반을 전문으로 하는 차량을 불러서 한다.

5) 사냥

과거에는 마을 주변의 산에 사는 짐승 사냥을 자주 했었다. 외정 때는 목표물이 된 동물을 여러 마을이 함께 쫓아서 잡았다. 잡은 동물은 참여했던 마을이 모두 모여 나누었다. 이후에는 창과 개를 사용하다가 옥로(올무)를 사용하고 그 다음으로 총기를 사용하게 되었다.

휴전되고 나서 60년대 초반에 산돼지가 많을 때는 개들을 데리고 사냥을 했다. 당시 사냥법은 창을 이용해서 개 10~20마리와 함께 사냥하는 것이었다. 산돼지가 개들에 둘러싸여 움직이지 못하면 창을 이용해 산돼지를 찔러 잡는 방식이었다.

당시에는 JSA상황이 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으로 허가를 내주고 정해진 영역에 사냥하도록 했다. 대성동의 약자인 'TSD'라고 쓰인 노란 완장을 차고 'TSD Hunting' 팀으로 인가사냥을 하였다. 이렇게 사냥을 하던 도중 정해진 영역을 벗어나는 경우가 생기면 미군영창인 일명 '몽키하우스'에 가기도 했다. 지금은 한국의 위상이 높지만 당시에는 나라가 힘들 때라서 많은 멸시를 받을 때였다. 영창에 가면 철망을 빵 둘러쳐 만든 것이었는데 미군말로 '몽키하우스'라고 불렀다. 겨울에도 야전침대에서 두 명씩 자게하고 밥은 미군용 수통에 밥과 된장국물을 퍼서 주었다.

사냥을 하러 산을 돌아다니다 보면 발에 지뢰가 걸리기도 했다. 그러나 세월이 10년 정도 흐른 뒤였기 때문에 터지진 않았다. 사냥으로 잡는 동물은 산돼지가 많았고 고라니 등은 맛이 없었기 때문에 잘 잡지도 않았고 잡아도 버리고 오는 경우가 많았다. 산돼지가 큰 경우 300근이 넘었다. 산돼지는 무리 생활을 하는데 한 무리는 새끼들을 포함해서 20~30마리정도 된다. 산 중턱에서 산돼지 무리를 만나면 헬리콥터 뜨는 소리처럼 꿀꿀거리는 소리가 무척 컸다. 산돼지가 너무 많아 경비가 어려워지자 군에서 콜레라균을 산에 뿌려서 산돼지의 수를 줄였다. 산돼지가 줄어든 이후에는 겨울에 토끼를 잡았다. 눈 위에 표시된 토끼 길을 찾아서 그 길목에 옥로를 설치해서 잡았다. 학교주변 야산에 토끼가 많았으나 야생고양이 때문에 거의 사라졌다. 요즘은 밀렵을 금지하는 법 때문에 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사냥허가철에 사냥을 한다. 수렵면허는 5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한다. 사냥허가철은 11월부터 2월까지 4개월 동안인데 순환수렵제라고 해서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수렵이 허가된다. 전문적으로 사냥을 다니는 사냥꾼들은 그 일정을 보며 전국을 돌아다닌다. '유해조수구제'라고 자격이 되는 사람이나 개인적으로 조수피해가 심한 경우 시에 신청을 해서 그 기간은 해를 끼치는 동물을 잡을 수 있다.





김O래 씨가 보유중인 낚시대회 사진

6) 낚시

과거에는 봄이 되면 임진각으로 장마 때 고기가 많이 올라왔다. 참게도 수시로 잡혔고 봄이나 장마가 지면 잉어나 숭어를 많이 잡았다. 그러나 지금은 아랫물을 막아 물만 조금씩 드나들게 바꿔놓아서 고기들이 다 사라졌다. 이렇게 아래를 막아두어서 비가 많이 오면 농지에 물이 찬다. 이전에는 낚시대회도 마을에서 개최했는데 김O래 씨(남, 84)는 1970년대에 마을에서 열렸던 낚시대회사진을 가지고 있다. 저수지에서 고기를 잡아서 가장 큰 고기를 잡는 사람이 일등을 하는 대회였다. 지속적으로 개최되지는 못했다. 낚시대회에는 외부사람들도 참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문산의 낚시꾼들도 대회에 참가했다. 대회는 어룡저수지에서 했다. 저수지에 고기가 많기도 했지만 외부사람들이 마을에 들어와 볼 수 없기 때문에 낚시대회를 기회로 한번 구경오라는 의미에서 대회를 열었다.

먹을 것이 많지 않았던 시절에는 잡은 고기가 별미였기 때문에 말려서 찜을 해먹기도 했지만 지금은 재미로 잡아서 매운탕을 끓여 먹는 정도이다. 참게도 많이 잡혀서 매운탕에 넣어먹거나 참게장을 담가 먹는다. 8~9월에 잡히는 게가 살이 꽉 차 있어 맛있다.

낚시와 관련한 마을 풍속으로는 천렵이 있다. 동그랑산 뒤쪽으로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천연적으로 샘이 잘나는 우물이었다. 우물 옆에는 연못이 있었는데 연못으로 흘러드는 물이 많아 고기도 많이 있었다. 더운날이면 연못에서 목욕을 하기도 했다. 6·25전쟁 이전에는 이곳에서 천렵을 많이 해먹었는데 천렵날임을 알리면 주민들이 밀가루나 솥 등 천렵에 필요한 물건과 음식들을 가지고 모인다. 천렵 때 잡히는 고기는 붕어, 메기, 쏘가리 등 우리나라에서 잘 잡히는 고기들이 잡혔다. 쏘가리가 아주 맛있는 고기인데 쏘가리에 쏘이면 살이 찢겨나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어종이기도 했다. 천렵시기는 복중에 많이 했다. 중복 지나 말복 전쯤에 많이 했다. 밤나무 그늘 아래서 멍석을 깔고 앉아 마을사람들이 모여 가마솥에 끓인 매운탕을 떠다 먹었다. 참게나 가물치도 잡아넣었다. 김O래 씨는 더 배고픈 시절이었는지 그 때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졌다고 한다.

> "옛날에는 달구지 길이 있었어요. 쪼그맣게.
> 주민들이 동그랑산 맨 뒤쪽에 우물이 하나 있었어 천연적으로 샘이 잘나요 그리고 옛날에는 연못이 하나 있었어요. 요게 연못인데 고기가 많아요. 그전엔 여기 도랑이 요렇게 용수로지 용수로가 요렇게 흘러내려왔어 욜로 요렇게 그러니까 항상 고기가 많아요. 그러니 웅덩이에다 그물로 해다가 요 밤나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천렵을 많이 해 먹었어요. 그전에 오늘이 천렵날이다. 그러면 쌀 한 양재기 가져오는 사람 밀가루 한 양재기 가져오는 사람 해가지고 가마솥을 큰걸 두 개를 걸어요. 그래가지고 천렵을 해 먹었어요. 밀가루 반죽하는 거 있고 또 물고기 잡아다 하고. 밥 조금 짓고 아주 천렵잔치가 돼. 아주 그날은 하루 놀아야 주민들이 6·25 사변 전에 지금은 그 풍속도도 없어졌지만..."[171]

여름철 주민들의 휴식처였던 김O래 씨가 기억하는 마을연못은 흔적도 남아있지 않다. 개천의 범람을 막기 위해 제방을 쌓으면서 사라졌기 때문이다.

지금은 마을 옆 개울가와 저수지에서 고기를 잡는다. 마을가까이에 있는 개울을 조상개울이라고 부르며 붕어가 가장 많이 잡힌다. 잡은 고기로는 주로 매운탕을 끓여먹는데 저수지에서는 바다에서 쓰는 큰 그물을 쳐서 잡는다. 깊은 곳은 스티로폼으로 만든 간이배를 타고 들어가서 그물을 친다. 냇가에서도 낚시를 할 수 있는데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잘 가지 않는다.

171) 김O래(남, 76) 제보

4-2 마을 속 박물관 - 생활용구들

① 김O규 씨 댁



■ **서안 (작은책상)**
- 크기 : 가로 55㎝×세로 35㎝×높이 28㎝
- 과거 일꾼들에게 내어주던 방에 있는 서안이다. TV를 올려놓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 **TV**
- 크기 : 가로 40㎝×세로 17㎝×높이 33㎝
- 과거 일꾼들에게 내어주던 방에 있던 것으로 흑백TV이다.



■ **지게등받이**
- 크기 : 가로 150㎝×세로 63㎝
- 지게 위에 올려 두어 지게에 실은 짐이 앞으로 쏟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도구이다. 지금 지게는 사라지고 등받이만 남았다.



■ **호미 4개**
- 길이 : 30~40㎝
- 용도에 따라 날 크기와 날 모양이 다른 호미 4개이다. 논을 맬 때 쓰던 논호미가 있고 밭을 맬 때 쓰는 것과 밭을 고를 때 쓰는 호미 등 용도에 따라 날 모양이 다르다. 날이 크고 넓은 것이 논호미 이고 그것보다 크기가 작은 것이 밭호미이다.



■ **낫 2개**
- 길이 : ① 32㎝, ②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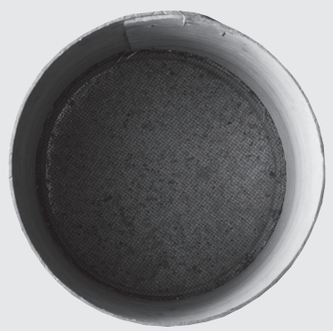
■ **꼬챙이**
- 길이 : 24㎝
- 용도 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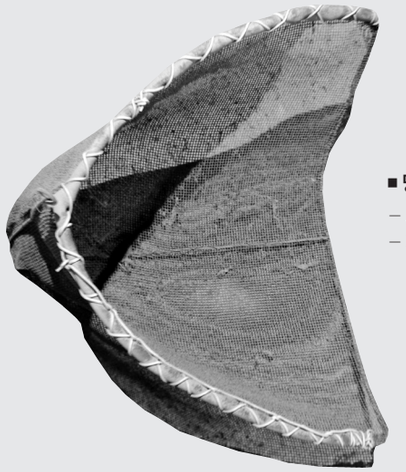
■ **정과 망치**
- 크기 : 정 길이-23.5㎝/망치-길이 55㎝, 망치머리 길이 17㎝
- 돌을 깰 때 사용하는 것이다. 용도에 따라 크기가 다르다.

■ **절구공이**
- 길이 : 72㎝
- 김O규 씨의 어머니께서 쓰시던 것을 물려받은 것이다. 돌절구와 함께 사용하며 주로 수확한 곡식 빻을 때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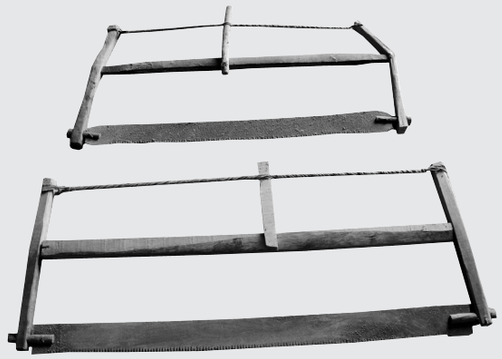


■ **체**
- 크기 : 지름 28㎝×높이 15㎝



■ **망태**

– 크기 : 가로 56㎝×세로 66㎝
– 저수지나 냇가에서 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물건이다.



■ **나무 톱 2개**

– 크기 : 위–가로 105㎝×세로 46㎝
아래–가로 129㎝×세로 46㎝
– 시집오기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적어도 40~50년 정도 된 것이다.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던 것이다.



■ **도끼**

– 크기 : 길이 88㎝×날길이 21㎝
– 나무를 때던 시절 장작을 팰 때 주로 사용하였다.



■ **고무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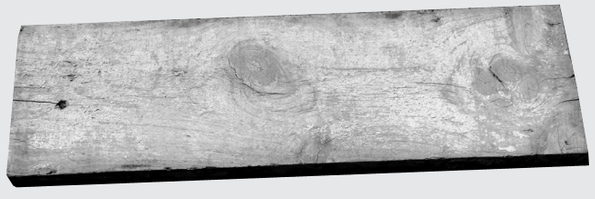
– 크기 : 길이 150㎝×폭 61.5㎝

② 김O래 씨 댁



■ **화로와 석쇠**

– 크기 : 화로–가로 46㎝×높이 19㎝
석쇠–가로 43㎝×세로 33㎝
– 화로에는 최근까지 사용한 듯 숯이 가득 들어있다. 석쇠와 화로가 함께 있는 것으로 보아 조리용도로 최근까지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 **빨래판**

– 크기 : 가로 89.5㎝/세로 20㎝/두께 4㎝
– 빨래를 할 때 사용하던 나무로 된 판이다.
하얗게 비누의 흔적이 남아있다.



■ **쇠죽거문대(쇠죽갈고리)**

– 크기 : 길이 54㎝/날길이 20㎝
– 쇠죽을 저을 때 쓰던 갈고리 모양의 막대기이다. 쇠죽갈고리라는 말로 많이 불리지만 대성동마을에서는 쇠죽거문대(거문대:고무래의 경기도사투리)로 부르고 있다.



■ **삽 2개**

– 크기 : 일반 삽(위)–길이 73㎝×넓이 22㎝
작은 삽(아래)–길이 89㎝×넓이 17㎝
–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삽이다.
위쪽의 일반 삽의 자루는 부러져 있다.



■ **쳇다리**

– 크기 : 날 길이 45㎝/대 길이 43.5㎝/대 폭 10㎝
– 체로 밭거나 거를 때에, 그릇 따위에 걸쳐 그 위에 체를 올려놓는 데 쓰는 기구로 'Y' 자 모양으로 된 나무로 만든다.



■ **절구공이**

– 크기 : 길이 88㎝/봉지름 7.5㎝



■ **숯돌**

– 크기 : 숯돌길이 29.5㎝/숯돌 폭 9㎝/받침대 높이 19㎝
– 무뎌진 칼날을 갈아 날이 잘 들게 하는 도구이다. 나무로 받침대를 만들어 날을 갈기 더 쉽게 사용하고 있다.



■ **대나무소쿠리**

– 크기 : 왼쪽부터 ① 지름 48㎝ ② 지름 53㎝ ③ 지름 47㎝



■ **말**

– 크기 : 지름 26㎝/높이 26㎝
– 곡식의 양을 재기 위한 측량기구이다. 나무에 금속재질의 틀을 씌워 만들었으며 측면에는 '곡용 10리터'라고 쓰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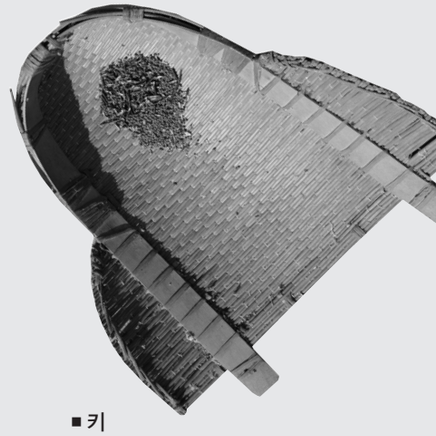
■ **뚜껑**

– 크기 : 지름 45㎝



■ **솥뚜껑**

– 크기 : 지름 49㎝
– 솥을 덮는 뚜껑이다. 솥은 없고 뚜껑만이 남아있다.



■ **키**

– 크기 : 길이 54㎝×폭 61㎝
– 곡식의 쭉정이나 껍데기를 제거하기 위해 수확기에 사용하는 도구이다.



■ **돌절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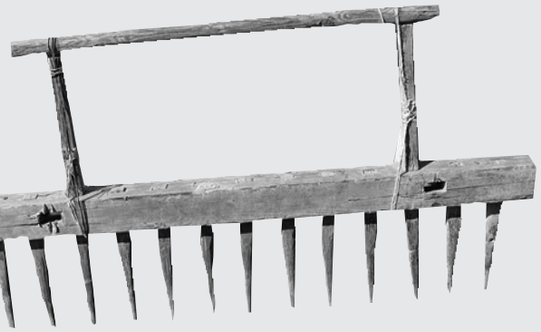
– 크기 : 지름 62㎝×높이 46㎝
– 돌로 만든 절구이다. 곡식을 찧는 용도로 사용한다. 어머니가 사용하던 것을 물려받아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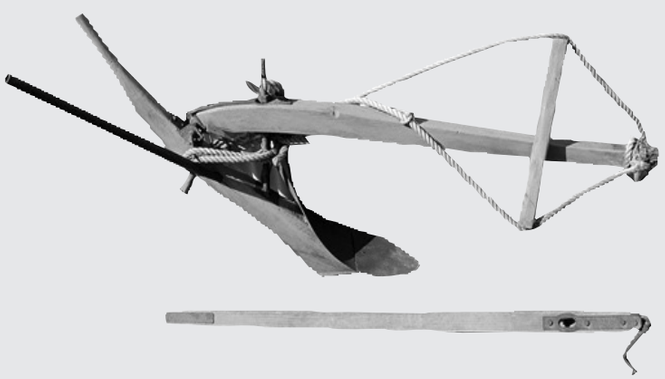
■ **맷돌**

– 크기 : 지름 37㎝×높이 16㎝
– 곡식의 껍질을 까거나 갈아서 가루로 만드는 데 사용하는 도구이다. 어머니 때부터 사용하던 것을 물려받아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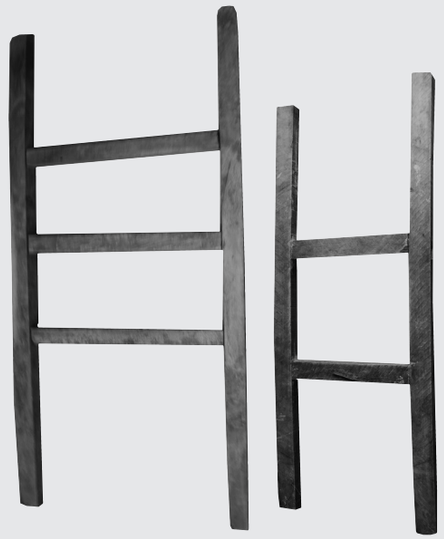
■ **써래(쓰레)**

– 크기 : 가로 148㎝×세로 77㎝
– 갈아놓은 밭이나 논의 흙덩이를 잘게 부수거나 바닥을 평평하게 다듬기 위해 사용하는 농기구이다.



■ **소쟁기**

– 크기 : 길이 162㎝/쟁기날 폭 24㎝
– 소를 이용해 사용하던 쟁기이다.



■ **쳇다리**

– 크기 : 위–가로 119㎝×세로 49㎝
아래–가로 113㎝×세로 39㎝
– 체로 밭거나 거를 때에, 그릇 따위에 걸쳐 그 위에 체를 올려놓는 데 쓰는 기구로 'Y'자형 쳇다리보다 나중에 나온 것이다. 각목을 이어 붙여 만들거나 구입하여 사용한다.



■ **주걱**

– 크기 : 길이 100㎝×넓이 15㎝



■ **다듬이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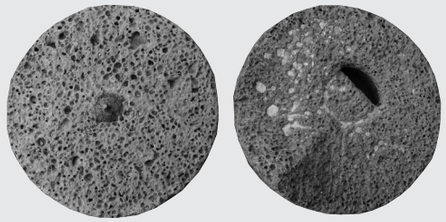
– 크기 : 가로 38.5㎝×세로 18.5㎝×높이 15㎝

④ 유O목 씨 댁



■ 쳇다리

– 크기 : 날길이 59㎝/대 길이 52㎝/대 폭 8㎝
– 유O목 씨는 빨래할 때 양잿물을 받치기 위해 시루를 올려놓거나, 콩을 갈 때 맷돌을 올려놓고 가는 등 무언가를 올려놓고 받치는 용도로 사용하는 쳇다리를 가지고 있다. 소나무로 만들며 적당한 모양으로 생긴 나뭇가지를 찾아서 만든다.



■ 맷돌

– 크기 : 지름 28.5㎝/높이 8㎝
– 곡식을 분쇄할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유O목 씨가 가지고 있는 맷돌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자루가 달려있지 않다.



■ 화로

– 크기 : 지름 34㎝/높이 22㎝



■ 주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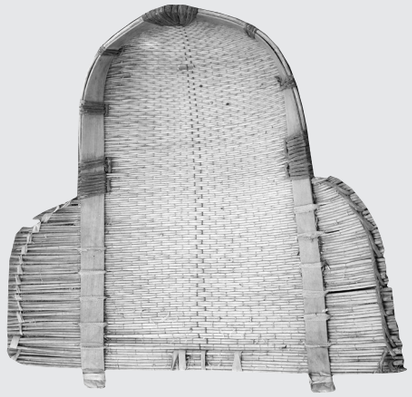
– 크기 : 길이 100㎝/가장 넓은 곳의 폭 14㎝



■ 미꾸라지 통발

– 크기 : 길이 44㎝/지름 24㎝
– 미꾸라지를 잡을 때 쓰는 통발로 일반적인 통발보다 크기와 입구가 작다. 측면에 지퍼가 달려있어 잡힌 미꾸라지는 그 지퍼를 통해서 꺼낸다.

⑤ 김O민 씨 댁



■ 키

– 크기 : 가로 71㎝/세로 71㎝



■ 저울

– 크기 : 가로 69㎝/세로 34㎝/높이 89㎝
– 추를 이용해 무게를 잴 수 있는 저울이다.



■ 단지

– 크기 : 지름 21㎝/높이 24㎝
– 용도 미상의 단지이다. 속은 비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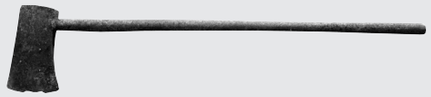


■ 체 3개

– 크기 : 지름 29㎝/높이 15㎝(세 개의 크기는 동일)
– 체의 크기는 같고 거름망만 다르다.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이 가장 고운 망이다.



■ **절구공이**
– 크기 : 길이 86㎝/가장 두꺼운 곳의 봉지름 8㎝



■ **쇠도끼**
– 크기 : 길이 84㎝/날길이 17㎝
– 자루까지 쇠로 만들어진 도끼이다. 자루가 나무인 도끼에 비해 무게가 더 나가기 때문에 적은 힘으로 장작을 팰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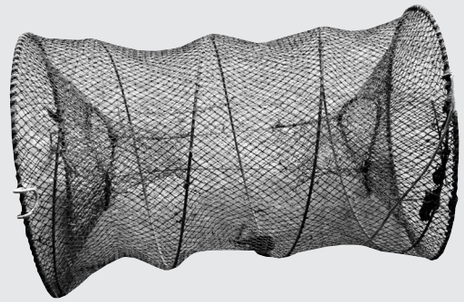


■ **리어카**
– 크기 : 길이 208㎝/넓이 106㎝
– 무거운 물건을 실어나를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 **돌절구**
– 크기 : 지름 66㎝/높이 47㎝
– 돌로 만든 절구이다.
지금은 원래의 용도가 아닌 화분으로 쓰이고 있다.

⑥ 김O원 씨 댁



■ **통발**
– 크기 : 길이 55.5㎝/지름 35㎝
– 강에 놓아두어 물고기나 참게를 잡는 용도로 사용하는 도구이다.

⑦ 권O순 씨 댁



■ **맷돌**
– 크기 : 지름 45㎝/높이 10㎝
– 곡식을 분쇄하는데 쓰는 도구이다.
지금은 윗부분만 남아있다.



■ **철솥**
– 크기 : 지름 38㎝/높이 30㎝



■ **방망이**
– 크기 : 길이 43㎝/지름 5.5㎝

■ **절구공이**
– 크기 : 길이 85㎝/지름 9㎝





■ **씨아**
– 크기 : 세로 58㎝/가로 42㎝/높이 45㎝



■ **밭호미**
– 크기 : 길이 35㎝/날길이 22㎝



■ **문 달린 TV**
– 크기 : 가로 104.5㎝/높이 74㎝/폭 39㎝
– 과거 일꾼들이 썼던 방에 있는 TV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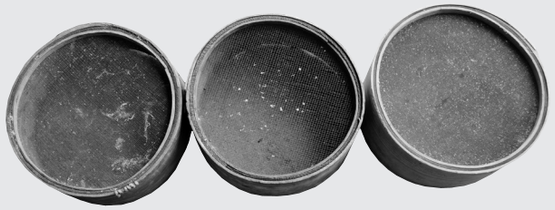
■ **바람개비**
– 크기 : 높이 103㎝/가로 80㎝
– 곡식에 섞인 쭉정이를 날려버릴 때 사용하던 것이다. 뒤에 있는 손잡이를 잡고 돌리면 앞의 바람개비 날개가 돌아가는 구조이다.

■ **못줄**
– 크기 : 길이 85㎝
– 여러 사람이 모여 모내기를 할 때 모의 간격과 줄을 맞추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이다.



■ **석작**
– 크기 : 미측정
– 혼례식 때 이바지음식 등을 담던 대나무로 만든 뚜껑이 있는 바구니이다.





■ **체 3개**

– 크기 : 지름–28.5㎝/높이 13㎝
(세 개의 크기는 동일)
– 곡물·모래 등의 알갱이를 거친 것과 미세한 것으로 선별하는 용구이다. 콩을 수확할 때 깍지나 덜 여문 콩들을 구별할 때도 쓴다. 가운데 있는 체의 거름망이 가장 거칠다. 거름망이 거친 것은 '어르미', 고운 것은 '도드미'라고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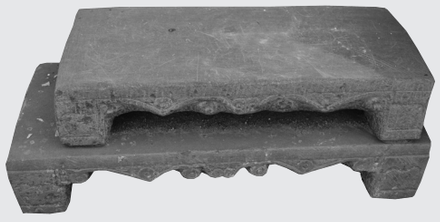
■ **맷돌**

– 크기 : 지름 36㎝/높이 24㎝
– 콩·녹두·팥 등을 분쇄할 때 쓰는 도구이다. 어머니가 사용하던 것을 물려받았다.



■ **구멍 뚫개**

– 크기 : 길이 79㎝
– 비닐을 씌워둔 밭에 곡식을 심을 때 비닐에 구멍을 뚫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다. 소나무로 직접 만든 것이다.



■ **다듬이돌 2개**

– 크기 : 큰 것–가로 64㎝/세로 27㎝/높이 17㎝
작은 것–가로 55㎝/세로 24.5㎝/높이 10㎝
– 다듬이질을 할 때 사용하는 돌이다. 크기가 다른 2개의 다듬이돌을 가지고 있으며 다듬이돌 측면에는 무늬가 새겨져 있다.

⑨ 김O구 씨 댁



■ **도리깨 2개**

– 크기 : 길이 201㎝
– 곡식을 수확할 때 낟알을 터는 용구이다. 나무로 된 자루에 철사를 연결하여 직접 만든 것이다.



■ **가래**

– 크기 : 길이 292㎝
– 흙을 뜨고 파는 데 쓰는 연장으로 논두렁을 다지는데 사용하였다. 세 사람이 한 조를 이루어 사용하는 것이다. 가래 날 양 쪽에 구멍을 뚫어 줄을 연결하는데 김O구 씨가 보관하고 있는 가래는 푸대자루를 잘라서 줄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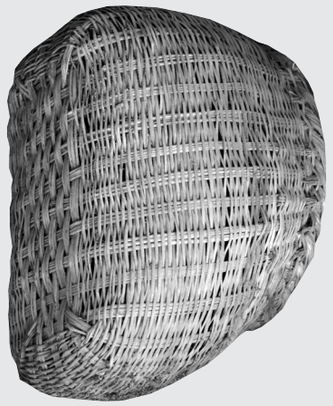


■ **바람개비**

– 크기 : 높이 108㎝/넓이 106㎝
– 손이나 발로 바람개비에 달린 날개를 돌려 바람을 일으키는 연장으로 곡물에 섞여 있는 검불과 같은 불순물을 날려 보내는데 사용한다. 김O구 씨의 어머니인 남O옥 씨가 시집 온 이후에 구입한 것이다.



■ 낫
– 크기 : 길이 106㎝/날 길이 20㎝
– 농작물 또는 풀·나무를 베는 데 쓰는 농기구이다. 김O구 씨가 보유한 낫은 일반적인 낫보다 자루가 더 긴 것이 특징이다.



■ 종대(종다라기)
– 크기 : 길이 45㎝
– 씨앗 등 종자를 보관하던 바구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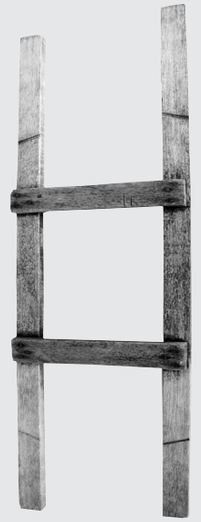


■ 시루
– 크기 : 지름 43㎝/높이 27㎝
– 떡이나 쌀 등을 찔 때 쓰는 찜기이다. 솥에 걸어두고 쓰기 때문에 솥의 지름과 시루 바닥의 크기가 비슷한 것이 많다.



■ 절구공이
– 크기 : 길이 72㎝/가장 넓은 곳의 지름 7㎝

■ 쳇다리
– 크기 : 가로 90㎝/세로 29.5㎝



■ 쇠죽거문대(쇠죽갈고리)
– 크기 : 길이 62㎝/날길이 19㎝
– 소 여물을 저을 때 쓰는 도구이다. 소나무로 만들어 쓴다.





■ 조리
– 크기 : 길이 32㎝
– 쌀에 남아있는 돌이나 이물질 등을 걸러내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이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창고 한 구석에 걸려있다.



■ **채반 2개**

– 크기 : 왼쪽부터 ① 지름 59㎝ ② 지름 5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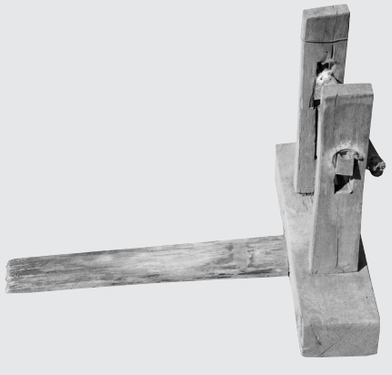
– 전, 빈대떡 등을 올려두거나 호박, 가지 등을 말릴 때 사용하는 그릇이다. 지금 가지고 있는 채반은 직접 만든 것은 아니고 사온 것이다.



■ **광주리 2개**

– 크기 : 지름 65㎝/높이 18㎝

– 들에 새참을 나르거나 농산물을 나를 때 사용하는 그릇이다.



■ **씨아**

– 크기 : 길이 67㎝/가로 48㎝/높이 48㎝

– 목화를 심어 얻을 수 있는 면화의 솜과 씨를 분리하는 연장이다. 한손으로 돌려 사용하게끔 만들어져 있다.



■ **거른대(거름대)**

– 크기 : 길이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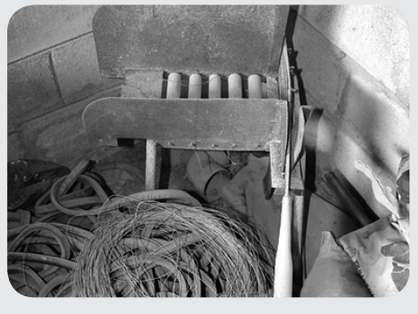
– 거름을 뒤집거나 퍼 담을 때, 외양간을 치울 때 사용하던 연장이다.



■ **제승기(새끼 꼬는 기계)**

– 크기 : 가로 103㎝/세로 65㎝/높이 76㎝

– 짚을 넣으면 새끼를 자동으로 꼬아주는 기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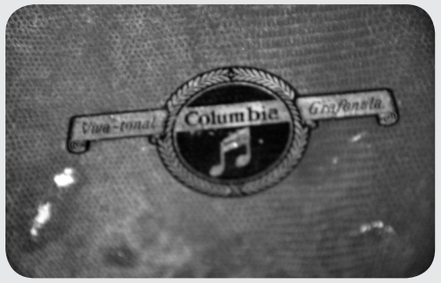


■ **작두**

– 크기 : 가로 47㎝/세로 100㎝/높이 60㎝

– 소여물에 들어가는 짚을 썰 때 사용하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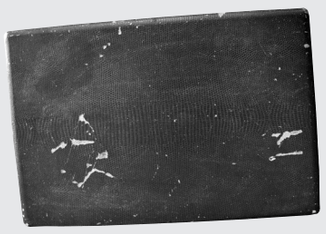


■ **축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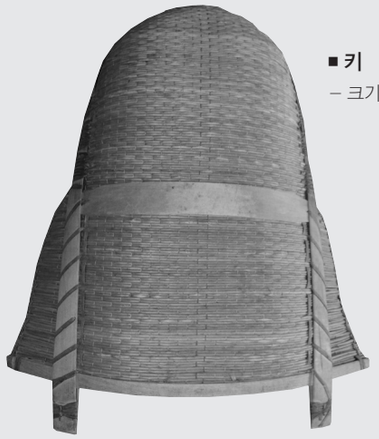
– 크기 : 가로 31㎝/세로 22.5㎝/높이 15.5㎝

– 판을 꽂으면 바늘을 이용해 소리를 재생시키는 장치이다. 김O구 씨 아버지가 친하게 지냈던 스위스 사람이 일본에서 구입해 선물한 것이다. 축음기를 돌리는 손잡이를 접어 넣으면 휴대용으로 들고 다닐 수 있었다. 뚜껑에 'Columbia'라고 상표가 표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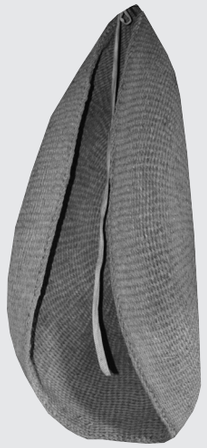


⑩ 전O권 씨 댁



■ **키**

– 크기 : 세로 67㎝/가로 70㎝



■ **맷방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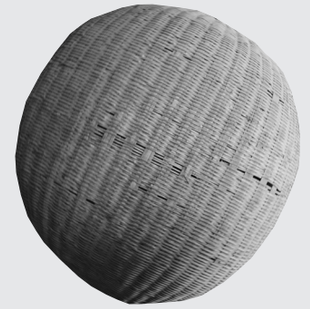
– 크기 : 지름 90㎝

– 맷돌을 사용할 때 맷돌 아래 깔아서 갈려 나오는 곡물을 받는데 쓰거나 콩, 팥과 같은 곡물을 널어 말릴 때 사용한다. 새끼를 꼬아 만든 것이다.

■ **소쿠리**

– 크기 : 지름 50㎝

– 대나무 껍질을 엮어 만든 그릇으로 식품을 담아 말리거나 음식의 재료 등을 담을 때 사용한다. 친정에서 가지고 온 것이다.





■ **쥐덫**

– 크기 : 길이 45㎝

– 쥐를 잡을 때 쓰는 사냥도구이다. 멸치 같이 쥐가 좋아할 만 한 것을 미끼로 두어 쥐를 잡는다. 사용하지 않아 녹이 많이 슬어있다.

⑪ 김O석 씨 댁



■ **제승기(새끼 꼬는 기계)**
– 크기 : 가로 103㎝/세로 65㎝/높이 75㎝
– 새끼를 자동으로 꼬아주는 기계이다.
당시 꼬아두었던 새끼가 기계에 매여 있다.



■ **바람개비**
– 크기 : 높이 120㎝/폭 95㎝
– 손이나 발로 바람개비에 달린 날개를 돌려 바람을 일으키는 연장으로 곡물에 섞여 있는 검불과 같은 불순물을 날려 보내는데 사용한다.
창고에 옆으로 놓여 있다.

⑫ 김O찬 씨 댁





■ **쳇다리 2개**
– 크기 : 왼쪽–길이 95㎝/폭 36.5㎝, 오른쪽–길이 92㎝/폭 31.5㎝



■ **저울**
– 크기 : 길이 152㎝
– 추를 이용해 물건의 무게를 재는 기구이다. 갈고리 부분에 무게를 측정할 물건을 달고 다른 한 쪽에 추를 달아 무게를 잰다. 나무로 된 자루 부분에 눈금이 표기되어 있다. 추는 분실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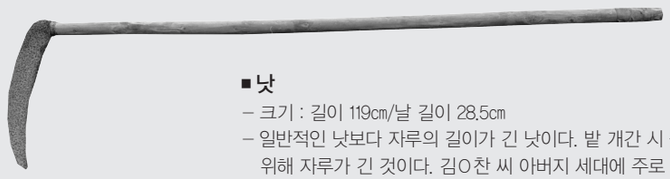


■ **제승기 (새끼 꼬는 기계)**
– 크기 : 가로 104㎝/세로 65.5㎝/높이 72.5㎝

■ **멍석**
– 크기 : 미측정



■ **도끼**
– 크기 : 길이 53㎝/날 가로 16㎝/날 세로 12㎝



■ **낫**
– 크기 : 길이 119㎝/날 길이 28.5㎝
– 일반적인 낫보다 자루의 길이가 긴 낫이다. 밭 개간 시 높이 자란 줄풀을 넘어뜨리기 위해 자루가 긴 것이다. 김O찬 씨 아버지 세대에 주로 사용하던 것이다.



■ **절구공이**
– 크기 : 길이 99.5㎝/가장 두꺼운 곳의 봉지름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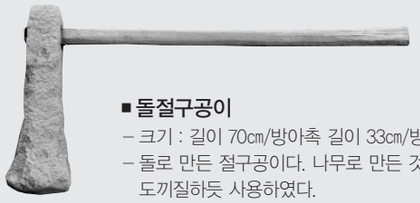
■ **다듬이방망이**
– 크기 : 길이 41㎝
– 다듬이질을 할 때 사용하는 방망이이다.



■ **코뚜레**
– 크기 : 가로 17㎝/세로 23㎝
– 소를 순조롭게 잘 다루기 위해 소의 코를 뚫어 끼우는 둥근 나무 테이다. 미리 만들어 두었다가 사용하였기 때문에 만들어 둔 것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 **톱**
– 크기 : 길이 82㎝/세로 35㎝
– 이 톱은 김O찬 씨의 아버지가 직접 만든 것으로 나무결 방향대로 켜는 톱이다.



■ **돌절구공이**
– 크기 : 길이 70㎝/방아촉 길이 33㎝/방아촉 지름 12㎝
– 돌로 만든 절구공이다. 나무로 만든 것보다 방아 찧기가 더 좋다. 도끼질하듯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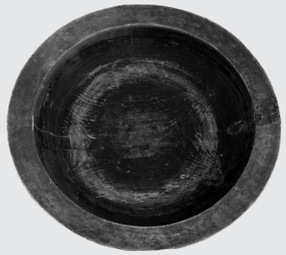
■ **함지박 1**
– 크기 : 지름 53㎝/높이 15㎝



■ **함지박 2**
– 크기 : 지름 45㎝/높이 11㎝



■ **함지박 3**
– 크기 : 지름 51㎝/높이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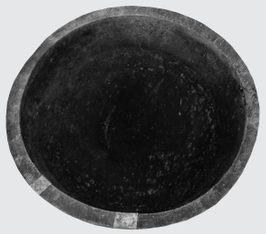
■ **함지박 4**
– 크기 : 지름 58.5㎝/높이 15㎝



■ **함지박 5**
– 크기 : 지름 42.7㎝/높이 10㎝



■ **함지박 6**
– 크기 : 지름 32.5㎝/높이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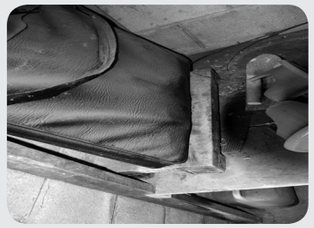
■ **함지박 7**
– 크기 : 지름 73.5㎝/높이 17.5㎝



■ **말**
– 크기 : 지름 26㎝/높이 26㎝
– 곡식의 양을 재기 위한 측량기구이다. 나무에 금속재질의 틀을 씌워 만들었으며 측면에는 '곡용 10리터'라고 쓰여 있다.



■ **돌절구**
– 크기 : 지름 60㎝/높이 40㎝



■ **다듬이돌**
– 크기 : 가로 59㎝/세로 24㎝/높이 7.5㎝



■ **항아리**
– 크기 : 지름 58㎝/높이 112㎝



■ **쇠스랑**
– 크기 : 길이 126㎝/날 길이 30㎝
– 쇠스랑의 일종으로 잡초를 긁어 제거하는데 쓰는 도구이다.



■ **반닫이**
– 크기 : 가로 104㎝/세로 36㎝/높이 100㎝



■ **숯돌**
– 크기 : 가로 30㎝/세로 9㎝/높이 3㎝

⑭ 김O인 씨 댁



■ 돌절구
– 크기 : 지름 42㎝/높이 45㎝
– 곡식을 빻거나 찧는데 사용하는 도구이다.
지금은 꽃을 심어 화분으로 사용하고 있다.

⑮ 김O수 씨 댁



■ 돌절구
– 크기 : 지름 48㎝/높이 60㎝

⑯ 김O래 씨 댁



■ 함지박 4개
– 크기 : 미측정



■ 써래
– 크기 : 가로 147㎝/세로 120㎝
– 김O래 씨는 아직도 써래를 가지고 있다. 써래는 논을 갈 때 사용하는 것으로 논을 처음 가는 것을 애벌간다고 하고 두 번째 가는 것을 두벌간다고 하는데 두 번을 갈아야 물렁해져서 논을 쓰기가 좋다. 써래의 보존 상태가 좋은 편이다. 30년 된 써래이다. 소를 이용해 땅을 가는 것이다.



■ 맷돌
– 크기 : 지름 36㎝/높이 14㎝
– 지금은 사용하지 않아 맷돌자루가 없는 상태이다.



■ 돌절구 2개
– 크기 : 왼쪽–지름 59㎝/높이 43㎝
오른쪽–지름 70㎝/높이 55㎝



■ **가래**

– 크기 : 길이 294㎝

– 김O래 씨 댁에는 30년 된 가래가 남아있다. 가래는 논둑을 쌓을 때 사용하는 농기구로 두 사람이 양쪽에 줄을 하나씩 잡고 한사람은 장구를 잡아서 최소한 세 사람이 모여야 사용할 수 있다. 도구를 사용하는데 있어 세 사람의 균형이 중요하다. 가래질을 잘해서 논두렁을 잘 다져 두어야 논에 물을 잡아둘 수 있었다.

양쪽 줄을 한사람씩 잡고 한사람은 장구를 잡고 최소한도 그거는 세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게 가래질이라고. 그전에 아주 많이 썼죠. 논두랑을 만들 때. 겨울에 (땅이) 얼었다 녹으면은 논두랑이 다 헐어져요. 얼었다 녹으면서.. 그러면은 논둑을 다시 만져야, 물을 잡아야 농사를 하니까. 흙을 다시 논두랑을 만드는 거야. 가래질을 잘해놓으면 아주 기름이 다 도는 것 같애. 아주 빤지르르하게 모냥이 참 좋아요. 가래질을 잘해 놓으면.. 그래야 물을 잡거덩.[172]



■ **정**

– 크기 : 길이 117㎝

172) 김O래(남, 76) 제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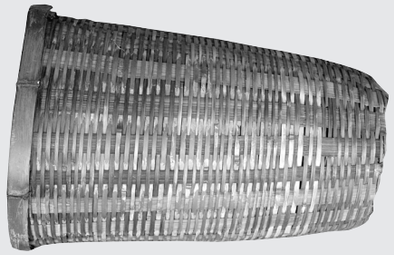
⑰ 박O민 씨 댁



■ **도리깨 3개**

– 크기 : 길이 200㎝

⑱ 김O수 씨 댁



■ **바구니**

– 크기 : 길이 33㎝/지름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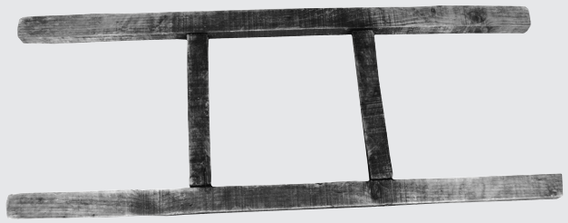


■ **시루**

– 크기 : 지름 37㎝/높이 21㎝



■ **절구공이**
– 크기 : 길이 103㎝/지름 9㎝



■ **쳇다리**
– 크기 : 가로 108㎝/세로 40㎝



■ **'Y'형 쳇다리**
– 크기 : 날길이 50㎝/대길이 50㎝



■ **펌프**
– 크기 : 높이 47㎝/지름 12.5㎝

⑲ 김O균 씨 댁



■ **저울**
– 크기 : 가로 46㎝/높이 84.5㎝



■ **텔레비전**
– 크기 : 가로 49㎝/세로 38㎝/폭 37㎝

⑳ 성O숙 씨 댁



■ **도리깨 2개**
– 크기 : 길이 212㎝
– 공구들 속에 놓여있는 도리깨이다.



■ **쳇다리**
– 크기 : 가로 106㎝/세로 37㎝
– Y자형 쳇다리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쳇다리이다.

㉑ 김O수 씨 댁



■ 씨아
– 크기 : 가로 59㎝/세로 42㎝/높이 49㎝



■ 대바구니
– 크기 : 지름 48㎝/높이 20㎝
– 대나무로 엮어 만든 바구니이다.
곡식이나 수확물을 담을 때 사용하였다.



■ 공기총
– 크기 : 길이 116㎝
– 사냥용으로 쓰인 것으로 보이는 공기총이다. 총신에는 '칼빈 55, Made in Korea Shin Sung ind. co.'라고 쓰여있다.

㉒ 박O선 씨 댁



■ 맷방석
– 크기 : 지름 86㎝
– 맷돌을 올려놓고 사용하는 짚으로 만든 방석이다.



■ 절구공이
– 크기 : 길이 110㎝/지름 10㎝



■ 도리깨 2개
– 크기 : 두 개 모두 길이 180㎝

㉓ 신O철 씨 댁



■ 그물

– 크기 : 길이 128㎝

– 저수지나 냇가에서 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그물이다.
요새는 재미로 고기를 잡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지는 않는다.



■ 맷방석

– 크기 : 지름 102㎝

㉔ 김O유 씨 댁

■ 나무 함지박 2개

– 크기 : 위–지름 30㎝/높이 9㎝ 아래–지름 50㎝/높이 12㎝



■ 체 2개

– 크기 : 왼쪽–지름 23㎝ 오른쪽–지름 28㎝

– 왼쪽의 체가 더 촘촘하며 오른쪽 체는 성기다.

㉕ 윤O복 씨 댁



■ 통발 4개

– 크기 : 가로 60㎝/지름 33㎝(4개의 크기 같음)



5 세시풍속과 놀이

5. 세시풍속과 놀이

세시풍속이란 일 년을 주기로 하여, 음력 정월부터 섣달까지의 사이에 해마다 같은 시기에 반복해서 전승해 왔던 의례나 풍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시의례(歲時儀禮)라고도 한다. 전통사회에 있어 우리 민족은 농경을 주 생업으로 하고 있었기에, 우리의 세시풍속은 대부분 농경문화를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많다. 각종 세시풍속에는 의례뿐만 아니라 놀이 같은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주로 풍흉을 미리 점치거나 아니면 풍농을 기원하기 위해서, 혹은 마을의 안전이나 개인의 건강 및 장수 등을 기원하고자 행해지는 특징이 있다. 세시풍속은 이상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어서 한 민족, 또는 일정 지역의 문화 현상을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긴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대성동의 문화를 올바로 이해하고자 함에 있어 이 마을의 세시풍속과 놀이를 빼놓을 수 없는 것이기에, 여기에서는 이들을 묶어 소개해 보기로 한다.

5-1 마을의 한 해, 세시풍속

대성동은 6·25전쟁 이전까지는 태성으로 불렸다. 태성에는 대장말, 간덴말(양짓말), 건넌말 등 3개 마을이 있었고 호수는 60~80여호가 있었다. 제법 큰 마을이었던 것이다. 이 마을은 강릉 김씨 동원군파 후손들로 이루어진 집성촌으로, '태성 강김'이라고 하면 주변 마을에서도 알아 줄정도였다고 하니, 마을 주민들은 아마도 강한 자긍심과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대성동 사람들은 현재는 대부분 논농사를 크게 짓고 있다. 그러나 6·25전쟁 이전까지는 일부 주민을 빼고는 대개 어렵게 살고 있었던 듯하다. 일부는 자작농을 해서 부유하게 살았으나 일부는 소작농으로, 그리고 일부는 개성 사람들이 주인으로 있는 이곳의 인삼밭에서 품을 팔면서 힘들게 살았다. 그러나 단일 성씨의 집성촌이었기에 공동체적 유대감 및 결속력이 강했다고 볼 수 있으며, 마을의 역사가 긴 만큼 세시풍속도 다양하게, 그리고 풍부하게 전승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6·25전쟁이 끝나고 휴전(1953. 7. 27)이 되고 나서부터는 마을도 대성동 1개 마을로 줄고, 주민수도 40여호에 약 200여명 정도에 불과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마을은 이십여 년간 거의 외부와의 교통이 단절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외부로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었다. 이 기간 동안 주민들은 전쟁 때문에 피폐해진 삶을 영위하며 농사와 같은 생업에 충실하면서 먹고 사는데 급급했다. 결과적으로 이 기간 동안 이 마을에서는 그간 전승되어 왔던 수많은 세시풍속들이 거의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다.

후일 더 많은 시간이 흐르며 주민들은 6·25전쟁 때문에 주인을 잃은 농지와 산림을 개간하여 농사를 크게 지을 수 있었다.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주민들은 논농사를 크게 지어 살림이 넉넉한 편이다. 그러나 넓은 땅에 농사를 짓다보니 이제는 손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어 모든 것을 트랙터, 콤바인 등과 같은 농기계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의 전통적인 세시풍속은 손으로 하는 농경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많다. 두레와 모심기, 세벌 김매기와 관련된 칠월의 호미씻이 같은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기계를 사용하여 개인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기에 이와 같은 세시풍속은 설 자리를 잃고 말았다. 1969년 아폴로호의 달착륙은 달에 대한 신성성이나 신비감을 잃게 했다. 까닭에 정월 대보름에 행했던 중요 행사인 '달님에게 절하기'도 시들해졌다. 인지가 발달함에 따라 호두나 땅콩을 깨물어도 부스럼을 예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대보름 아침에 행했던 '부스럼 깨물기'와 같은 세시풍속도 사라졌다. 결과적으로 현재 대성동에서 전승되고 있는 세시풍속은 별로 없는 편이다. 겨우 설날이나 복날, 추석 정도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한다. "그건 옛날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해요."

이상과 같이 보면, 대성동의 세시풍속은 6·25전쟁 이전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으로 크게 대별될 수 있을 듯하다. 대성동 세시풍속의 이와 같이 변화된 모습은 김O래 씨(남, 76)의 다음과 같은 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내용은 요약해서 소개하기로 한다.

6·25전쟁 전에는 일 년에 한번 씩 이웃끼리 모여서 노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경품'이라 했다. 경품을 하면 근방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모두 다 모여 활쏘기와 씨름대회 같은 것을 했는데, 장소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냇가였다. 이곳은 장파구니에서 내려오는 냇물이 흘렀는데, 장마나 지면 물이 내려가도 보통 때는 바짝 말라 있어 놀이하기에 좋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에 모여 씨름도 하고 활도 쏘고 하면서 재미있게 놀았는데, 엿도 팔고 먹을거리도 갖다 놓고 팔기도 했다. 사람들이 활을 쏘면 기생들이 지화자~~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일등 한 사람은 송아지도 탔다. 우리 형님은 활을 잘 쏘아서 상으로 송아지를 한 마리 탄 적이 있었는데, 그걸 타가지고 외려 송아지 한 마리 값이 더 들어갔다. 사람들이 한 턱 내라 해서 대접을 하느라고 그런 것이다. 경품을 했던 것이 봄 같기도 하고 가을 같기도 해서 그것이 언제였는지는 확실하게 기억할 수 없지만, 경품을 한 것은 눈으로 직접 본 것이니까 확실하다. 그런데 그 때가 오히려 아주 재미났었고, 근래는 그런 것을 하지 않아 사람 사는 것이 삭막하다.

김O래 씨의 말을 통해보면 대성동이 태성이었을 때, 즉 6·25전쟁 이전에는 단오, 아니면 추석을 즈음하여 풍성한 마을잔치 같은 것이 있었던 듯하다. 이것은 인근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 함께 놀았던 큰 잔치였다. 이러한 세시풍속은 같은 생활을 공유했던 사람들의 정서를 풍부하게 일깨우고, 공동체적 일체감, 혹은 유대감을 키워준다. 그래서 어린시절의 기억이지만, 김O래 씨는 '그 때가 아주 재미났던 때로, 사는 재미가 있었던 때로' 기억하고 있다. 이러한 기억은 우리들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동기나 계기를 제공한다. 그래서 그는 계속 말한다.

>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노는 게 단순해요. 아주 아무 것두 없어. 컴퓨터나 하구 아주 이러구. 옛날에 더 재미났어요. 내 기억으로는 더 재미났어. 사는 거두 더 재밌구…."

대성동마을의 세시풍속 내용은 2014년 6월부터 10월 사이에 마을을 방문하여 주민들에게 질문하여 조사한 내용을 적고 부족한 부분은 후에 전화로 면담을 하여 적었다. 전통적인 세시풍속들에 대해 여러 제보자들은 한결같이 이건 6·25전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한다고 하는 것이 많았다. 그런 만큼 다음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예전에는 했던 것인데, 현재는 하지 않는 것이 많다.

1. 정월

1) 설날

음력으로 정월 초하루는 '설날'이라 하여 깨끗하게 빤 새옷이나 아니면 새로 마련한 한복을 입고 차례를 지낸다. 후에는 선산에 성묘를 다녀와서 동네 어르신이 계시는 집을 다니며 세배를 한다.

(1) 차례상의 내용은 가가례(家家禮)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집집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대체로는 다음과 같다. 떡국, 북어포, 조기, 빈자떡, 탕, 두부, 다시마 튀각, 식혜, 김치, 삼색과일, 삼색나물, 옥춘 등을 놓는다.

* 떡국은 어떤 집에서는 떡만두국을, 어떤 집에서는 떡만 하고 만두는 넣지 않는다는 집이 있었다.
* 떡국이 있으므로 별도의 다른 떡은 하지 않는다. 다른 떡은 기제사일 때만 한다.
* 빈자떡은 밀가루에 파나 다른 것을 넣고 지진 전이다. 다른 곳에서는 전이라 하는데 대성동에서는 빈자떡이라 한다.
* 후방에서는 탕을 탕국이라 하지만 대성동에서는 그냥 '탕'이라고 한다.
* 삼색과일은 대추·밤·배·곶감·사과 중에서 적당히 놓는다.
* 삼색나물 : 고사리, 도라지, 녹두나물, 시금치 중 아무거나 3가지를 놓는다.
* 옥춘은 오색사탕을 말하는데, 예전에는 옥춘이 들어가야 제사를 지낸다고 했으나 지금은 아무도 먹지 않아 놓지 않는 집이 많다.

(2) 성묘 다니기 : 차례 후에는 성묘를 다녀오는데, 조상의 묘소가 가까이 있는 집에서만 한다. 성묘를 갈 때는 술, 포, 과일 등을 가지고 간다.

(3) 세배 다니기 : 세배는 주로 남자들이 다녔다. 옛날에는 마을에 어르신이 많아 세배를 많이 다녔는데, 요즈음은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 별로 없어 다니지 않는 편이다. 현재 마을에서 80세가 넘은 어르신은 박O선 씨와 권O순 씨 두 분밖에 없는데, 이 분들도 세배를 잘 받으려 하지 않기에 요즈음은 주로 식구들끼리만 세배를 하는 편이다.

새배를 하러 오면 덕담(德談)을 주고 받고, 술이나 음식을 대접한다. 아이들이 오면 세배돈을 조금 주기도 한다. 홍O순 씨(여, 78)의 경우는 어린 시절 새배를 하고 오라고 부모님이 새 한복을 해주셨는데, 그 말대로 세배를 다니면 어른들이 엿을 고아 만든 강정을 많이 주었다고 한다.

2) 설날과 정월 대보름 사이

(1) 정초에는 귀신이나 잡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시가 많은 '분지나무'나 '엄나무'를 잘라 대문턱 위에 걸어 놓는다.

(2) 복조리를 팔았다. 조리장수가 조리를 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며 조리를 팔면 사람들은 복이 온다고 해서 그것을 사서 대문이나 대청에 걸어놓았다. 6·25전쟁 이전에는 해마다 이런 것을 했는데, 휴전 후에는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어 복조리 장수가 오지 못했기에 이런 풍속이 없어졌다.

(3) 마을에서는 연날리기, 윷놀이 등을 했다. 여자들은 대보름까지 널뛰기도 했다. 연날리기는 설날부터 시작하여 보름까지 했는데, 보름날 연싸움을 하여 연줄을 끊어버린 후에는 하지 않았다. 윷놀이는 옛날에도 많이 했지만, 지금은 더 번화하게 많이 한다.

3) 정월 보름날의 풍속

(1) 정월 열나흘날

① 열나흘 날에는 머슴들이 밥을 아홉 그릇을 먹고 낭구[나무]를 아홉 짐을 해온다는 말이 있지만, 실제로 머슴들이 낭구 아홉 짐을 해오는 것은 보지 못했다.

② 대보름 전날인 14일 저녁에는 오곡밥을 해 먹고, 말린 나물을 물에 불렸다가 볶아서 나물을 해 먹는다. 오곡은 어떤 곡식이라도 5가지를 넣으면 된다.

③ 옛날에는 아이들이 늦은 저녁에 오곡밥을 훔쳐 먹으러 다니기도 했다. 오곡밥과 나물은 지금도 해먹지만, 지금은 먹을 것이 넉넉하니까 훔쳐 먹으러 다니지는 않는다.

(2) 정월 대보름

① 아침에 일어나서 호두나 땅콩을 하나 깨물어 "뽀드락지 나간다."고 하며 밖으로 던진다. 그러면 일 년간 뽀드락지가 생기지 않는다. 요즈음은 하지 않는다.

② 아침에 일어나 다른 사람의 이름은 불러 대답을 하면 "내 더위 사가라."고 한다. 그러면 일 년간 더위를 먹지 않는다. 요즈음은 별로 하지 않는다.

③ 어른들은 아침 밥 먹기 전에 먼저 큰 만두를 빗어서 삶아 먹고, 이웃끼리 나누어 먹기도 했다. 만두는 벳섬[벼섬]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두를 해먹으면 풍년이 든다고 했다.

④ 아침에는 미역국을 끓이고 밥을 해서 먹는다. 나물도 많이 해서 먹는다. 예전에는 콩나물, 녹두나물도 직접 길러서 먹었기에 나물을 많이 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⑤ 아침밥을 먹을 때 귀 밝으라고 술을 먹기도 했다.

⑥ 아침에 김치를 먹으면 쐐기 쐰다고 하여 먹지 않았다. 혹은 두드러기가 생긴다 하기도 했다.

⑦ 아침에 밥을 먹을 때 젓갈[젓가락]로 먹으면 밭 매는 이랑을 자잘한 걸 맡게 되고, 수저로 먹으면 넓고 큰 이랑만 맡게 된다는 말이 있어 젓갈로 먹는다.

* 자잘한 이랑은 좁고 긴 밭을 뜻하고, 넓은 이랑은 넓고 큰 밭을 의미한다. 품 팔러 일을 나가면 이왕이면 가늘고 긴 밭을 만나야 좋다. 이런 밭에서 일하면 빨리 빨리 앞으로 나갈 수 있어 일을 한 표시도 나고 하여 일이 재미있고 쉽게 느껴진다. 반면에 넓은 밭에서 일하면 밭이 옆으로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일을 해도 빨리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이럴 때는 일을 한 표시도 별로 없고 해서 지루하고 재미없어 일하기가 힘들다. 사람들이 밭에서 함께 일을 할 때 앞으로 쭉쭉 나가는 것이 좋지 혼자 맨 꼴지에 남아 일하는 것은 기분이 나쁜 것이어서 사람들은 가능하면 이처럼 자잘한 이랑의 밭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한다.

⑧ 저녁에는 동산에 올라 달을 보고 절 하면서 일 년간 무병장수하고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빌었는데, 액막이로 했다. 달을 보고 절 할 때는 말린 쑥대·짚·갈대 같은 것을 잘라 두툼하고 길게 만든 후 여기에 짚으로 나이 수대로 감아 위로부터 불을 붙여 태우면서 한다. 요즈음은 하지 않는다.

* 김O래 씨(남, 76)의 경우 : 어린 시절 어머니가 자신을 끌어안고 아이가 건강하게 잘 지내도록 해달라고 달님에게 빌었다.
* 홍O순 씨(여, 78)의 경우 : 어머니가 볏짚으로 나이수대로 묶어서 횃대를 만들어 동산에 올라 딸에게 "달님에게 절 합니다."라고 말하게 하면서 서너번 절하게 했다. 후에는 횃대를 태우면서 그것을 몇 번이나 건너뛰게 하면서 "물 무섭지 않고 불 무섭지 않게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하게 했다. 나중에 아이를 낳아 키우게 되었을 때 자신도 어머니에게 배운 그대로 했다.

[오늘날 새롭게 만들어진 대보름날의 풍속]

① 옛날에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 있는 집에서 밥을 해서 주면 먹고, 안 주면 그냥 안 먹고 지냈는데, 요즈음은 모두 넉넉하니까 오곡밥을 해서 몇 집끼리 나누어 먹는다. 그리고 보름날 점심 때는 마을회관에 모여 전날 만든 오곡밥을 나누어 먹으며 고스톱을 치고 논다.

② 정월 대보름에 파주시 군내면에 있는 3개 마을, 즉 자유의 마을인 대성동, 통일촌, 해마루촌 등 3개 마을이 모여 척사대회를 한다. 이것은 3개 마을 주민들이 서로 만나 즐기고 놀면서 친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장소는 주최하는 마을의 마을회관 앞에서 하는데, 옛날에는 널뛰기, 제기차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단순하게 윷놀이, 노래자랑, 장끼자랑 등만 한다. 척사대회는 그 역사가 약 이십 년 되었는데,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되었다. 2014년인 올해는 대성동에서 맡아서 주관했고, 내년에는 해마루촌에서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3개 마을 주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규모가 커서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이 된다. 여러 가지 음식은 마을의 부녀회에서 준비를 한다.

4) 정월 16일

정월 16일은 귀신날이라고 했다. 보름 다음날이 귀신날이다. 아이들의 신발 같은 것을 뒤집어놓는 것은 보지 못했다.

* 홍O순 씨(여, 78)는 잠시 서울에 나가 살았던 적이 있는데, 서울에 가서 보니 전라도에서 온 사람들이 귀신날 장을 담그면 더 맛있다, 장이 더 달다고 하면서 이날 장을 많이 담그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했다. 대성동에서는 닭날이나 말날, 소날 장을 담그는 것이 좋다고 하여 이런 날만 장을 담근다.

2. 2월

2월 초하루에는 콩을 볶아 먹었다. 송편을 해먹었다고 하는 분도 있었다. 지금은 해먹지 않는다.

* 홍O순 씨(여, 78)의 경우 : 이날 어머니가 솥에다 콩을 볶아서 가루를 내어 김치국물에 풀어 익인 후 사람들과 나누어 먹었다.

3. 3월

1) 3월 3일 삼짓날에는 제비가 온다는 말이 있다.

2) 한식날에는 무덤을 손보는 일을 한다. 떼가 부족하면 떼를 입히고, 비석을 세우거나 상석을 해 놓기도 한다. 그런데 어떤 한식에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한식도 있다. 요즈음은 한식날 나무를 심기도 한다.

* 한식은 동지(冬至) 후 105일째 되는 날로, 양력으로는 4월 5일 무렵이다. 한식은 음력을 기준으로 한 명절이 아니기에 음력 2월에 있을 수도 있고, 음력 3월에 있을 수도 있다.

[대동굿 하기]

마을에서는 봄이 되면 3년에 한 번 대동굿을 했다. 대동굿은 농사일이 바빠지기 전, 좋은 날을 잡아 했는데, 6·25전쟁 후에도 대여섯 번 했다. 마지막으로 한 것은 15~20년 전이다. 대동굿은 처음에는 나리굴에 사는 안순에 만신이 와서 해주었는데, 나중에는 한귀임 이라는 만신이 와서 했다. 만신이 올 때는 여러 명의 무당과 악사들이 함께 와서 굿을 했는데, 작두도 타고 하면서 크게 했다. 장소는 현재 농기계 창고로 쓰고 있는 곳에서 했는데, 예전에는 이곳이 마을의 놀이터로 공터였다. 여기에 임시로 천막을 치고 굿당을 만들어 놓고 굿을 했었는데, 천막을 칠 때는 여러 집에서 약간의 재목을 가지고 나와 기둥을 만들곤 했다. 굿을 하면 각 집에서는 각기 제물상을 가져다 놓았고, 상 위에는 돌아

간 분들의 위패를 모셨다.

태성은 대장말, 양짓말(간덴말), 건넌말 등 3개 동네가 있었기에 마을에는 삼본향이 있었다. 삼본향은 각 마을의 근본을 뜻하는 세 그루의 참나무를 말하는데, 이들 참나무는 공회당 앞, 현재 교회가 있는 곳, 그리고 국기 게양대가 있던 곳에 있었다. 만신은 먼저 도가집에서 굿을 시작하고, 후에는 밖으로 나와 맨 처음엔 공회당 앞에 있는 참나무 앞에 가서 조라를 바치고 굿을 했다. 후에는 다른 두 본향을 돌며 굿을 하고 나중에는 놀이터에 마련해 놓은 제청으로 와서 굿을 했다. 삼본향 중 현재는 공회당 앞에 있는 참나무만 살아남아 있는데, 오래된 고목이라 윗부분은 부러지고 밑부분만 남아 있다. 이 참나무는 예전에는 살찐나무로 불리며 마을주민들의 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다. 교회가 있던 곳에 있던 참나무는 교회를 지을 때 없애버렸다고 하며, 국기게양대 옆에 있던 참나무도 역시 같은 운명을 겪었다. 이 마을의 대동굿은 통돼지도 올리고 작두도 탔던 큰굿이었는데, 안순예 만신에서 한귀임 만신으로 바뀌면서 나중에는 돈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해 계속되지 못했다고 한다. 마을의 나이 드신 여성분들은 모두 굿을 하면 동네가 편안했고, 마을이 무탈했다고 말하고 있다.

4. 4월

1) 4월 8일 초파일은 절에 가는 날이다.

2) 초파일 이후에 마을에 있는 큰 나무에 근너[그네]를 맨다. 근너는 주로 남자들이 줄을 매주곤 했다.

5. 5월

1) 옛날에는 5월 5일 단오날 근너[그네]를 뛰었다. 그네는 남녀 모두 탔는데, 그네는 힘으로 밀어야 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오히려 더 잘 탔다.

* 마을에는 4월 초파일 지나 근너를 매고 5월 단오에 끊는다는 말이 있다.

2) 단오날에는 쑥이나 육모초[익모초]를 비어 말린다. 익모초는 나중에 다려먹거나 환으로 만들어 먹는데, 애기를 못 낳는 사람이 이것을 다려먹으면 애기를 낳을 수 있다.

[두레]

5월에는 모내기가 시작된다. 남자들은 그 이전에 논과 밭을 갈아놓고, 5월부터는 모내기를 하느라 바쁘다. 여자들은 모여서 모를 찌러 다녔다. 내일 모를 심는다 하면 여자들은 오늘까지 모를 쪄냈다. 그러면 이튿날 남자들이 이것을 가져다 모내기를 했다. 5월에는 콩이나 깨 같은 것도 심어야 해서 아주 바빴다. 예전에는 인근에 있는 마을마다 두레패가 있었다. 두레패는 마을마다 약 20~30여명이 되었는데, 모내기를 할 때나 김매기를 할 때 꽹맥이, 북, 장구 등을 치면서 놀았다. 두레패는 농기를 매고 다녔는데, 서로 그걸 뺏으려고 두레패끼리 패싸움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마을과 마을끼리 싸우면 아무래도 사람이 많은 곳이 이기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태성과 옆에 있는 조산 동네가 싸울 수도 있는데, 태성은 60여호, 조산은 100여호가 넘었기에 태성이 조산마을에 밀리기 일쑤였다. 기싸움을 해서 진 팀은 술과 안주를 내야 한다. 대성동의 경우 두레는 현재도 있다. 그래서 모내기철에는 서로 돌아가며 농사일을 돕는다. 그러나 농악 같은 것은 하지 않는다.

6. 6월과 7월 사이

1) 말복날의 행사

6월에 특별한 행사를 한 것은 없다. 그러나 음력으로 6월과 7월 사이에 삼복, 즉 초복·중복·말복이 있어[173] 이러한 복날에는 특별한 일을 했다.

(1) 김O래(남, 76) 씨는 어린 시절 집에 닭이 많았는데, 복날이 되면 어머니가 꼭 닭칼국수를 해주셨다.

173) 하지로부터 셋째 경일(庚日)을 초복, 넷째 경일을 중복, 입추 후 첫째 경일을 말복이라 하는데, 복날은 10일 간격으로 들기에 때문에 초복에서 말복까지는 20일이 걸린다. 이처럼 20일만에 삼복이 들면 매복이라 한다. 하지만 말복은 입추 뒤에 오기 때문에 만일 중복과 말복 사이가 20일이 되면 달을 건너 들었다 하여 월복이라 한다. 삼복은 음력의 개념이 아닌 양력의 개념을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소서(양력 7월 8일 무렵)에서 처서(양력 8월 23일 무렵) 사이에 들게 된다. 복날은 장차 일어나고자 하는 음기가 양기에 눌려 엎드려 있는 날이란 뜻이다. 삼복은 일년 중 무더위가 가장 기승을 부리는 시기여서 삼복더위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다.[국립민속박물관, 『한국세시풍속사전』, 여름편, 2005, 304쪽 삼복 조항 참조]

(2) 농사일이 하도 힘드니까 복날은 챙겼는데, 복 중에서는 특히 말복놀이를 많이 했다.

"옛날에 노인들이 말하기를 "그날은 물고기라도 먹어야 머리가 온전히 차 있다. 골이 안 빈다."고 해서 말복놀이는 꼭 했다. 이 날은 백사일을 전폐하고 놀았는데, 매일 일만해서 몸이 지쳐있다가 하루를 노니, 사람들이 술을 먹고 잠이 들면 일어나지를 못했다." .[174]

(3) 대성동에서는 예전에 삼복 중에서도 말복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여 이날 특별히 하루 농사를 쉬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 개와 닭을 잡아 개고기와 닭고기를 먹으면서 놀았다.

2) 세 벌 김매기를 끝내고 난 후의 놀이

"옛날에는 모를 다 낸 후, 그리고 논김을 다 매고 나서 노인네들끼리 장구치고 북치고 한바탕 놀았다. 그 전에는 동네마다 두레패가 있었는데, 두레패는 논김매는패라고도 했다. 여기에는 농악대도 있어 꽹가리, 북, 장구도 쳤다. 태성에도 두레패가 있어 농깃대도 있었고, 꽹가리, 장구, 북 등이 몇 개씩이나 되었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었다. 지금은 농악대 같은 것은 없다."[175]

7. 7월

1) 칠월 칠석

(1) 견우와 직녀가 일 년만에 만나는 날이어서 비가 온다.

(2) 옛날에는 밀빈자떡을 부쳐 고사를 지내고 돌려 먹었다. 빈자떡이란 밀가루에다 호박을 채 썰어 넣고 지진 것이다. 지금은 하지 않는다.

174) 김O래(남, 76) 제보
175) 김O래(남, 76) 제보

(3)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절에 가기도 한다.

(4) 만신집에 다니는 사람들은 만신집에 간다.

2) 칠월 백중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절에 가서 돌아가신 분을 위해 제사를 지낸다. 특별히 백중놀이는 하지 않았다.

* 이날 조상님을 써올렸다가 10월 보름에 내보낸다는 말도 있다.

3) 벌초

음력으로 7월 20일 이후 30일 전까지 벌초를 하는데, 양력으로 하면 대개 8월 말경이 된다. 벌초 때에는 외부에 사는 강릉 김씨 동원군파 후손들도 마을에 와서 함께 벌초를 한다. 2014년에는 8월 31일 벌초를 했다.




강릉 김씨 동원군파 후손들의 벌초(김현래 제공사진)

8. 8월

8월 15일 추석에는 송편을 만들어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한다. 차례상에 송편만 올리는 집도 있고, 송편과 메[밥]를 함께 올리는 집도 있다. 아이들을 위해 따로 깨로 속을 넣어 송편을 만들기도 하지만, 차례상에 올릴 송편에는 팥으로 속을 넣는다.

* 요즈음은 이른 벼도 있지만, 옛날에는 이런 것이 없어서 추석에는 햅쌀이 나오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말은 햅쌀로 송편을 만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묵은쌀로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 추석 송편을 햅쌀로 만든다는 것은 다 지어낸 말이다.

9. 9월

1) 진동항아리 모시기

9월이나 되어야 햅쌀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수확철이 되면, 첫 번 마당질을 한 후 이때 나온 베[벼]를 따로 남겼다가 '진동항아리'에 넣고 모신다. 옛날에는 집집마다 거의 '진동항아리'를 모셨는데, 이것은 자그마한 항아리로 집집마다 약간씩 크기가 달랐다. 진동항아리 속의 벼는 다음해 다시 햇벼를 갈아넣을 때 꺼내서 밥을 해 먹는다. 6·25전쟁 전까지는 집집마다 이런 것을 거의 다 모셨는데, 요즈음은 하는 집이 없다.

2) 터주까리 모시기

모시는 집에서는 터주까리를 해 놓고, 안에 있는 항아리에 햇벼를 담아 모신다. 김O예씨(여, 77)는 예전에 이런 것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는데, 실제로 본 적은 없다고 했다.

10. 10월

1) 10월 고사

10월은 상달이라 해서 집집마다 팥시루떡을 해놓고 고사를 지낸다. 고사를 지내지 않는 집에서도 수확한 벼를 가지고 떡을 해서 먹기도 한다. 고사는 말날인 오일(午日)에 하는 경우가 많다. 오일은 한 달에 두세 번 있을 수 있는데, 고사를 지내는 날은 이 중에서 각자 알아서 정한다. 고사는 안주인이 지내는데, 시루째 그냥 통째로 놓고 하는 집도 있고, 여기 저기 조금씩 나누어 놓고 하는 집도 있다. 시루는 대개 마루에 놓는데, 대들보의 성주신을 모신 곳 밑에 놓고 한다. 마을에는 현재도 고사를 지내는 집이 다수 있다.

2) 시제

강릉 김씨 동원군파 후손들 중 현재 대성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외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시제를 지낸다. 시제는 원래 10월 보름에 선산에 가서 지냈는데, 현재는 10월 보름이 평일인 경우 젊은 사람들이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참석하기 어려워 10월 보름 직전 일요일에 마을회관에 모여 시제를 지낸다. 2014년에는 11월 30일(일)에 대성동 마을회관에서 지냈다. 시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시제 조항에 담겨있다.

3) 메주 쑤기

동지가 애동지면 메주를 시월달에 쑨다. 메주는 짝수로 한다.

11. 11월

1) 동짓날의 행사

(1) 11월에는 동지가 있어 이날 특별한 일을 했다. 예전에는 동지날 팥죽을 끓여 먹었지만, 요즈음은 별로 하지 않는다. 팥죽에는 옹심이를 넣었는데, 대성동에서는 옹심이를 '동그래미'라 했다.

(2) 동지날 절에 간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절에 가면 팥죽을 주니까 거기서 먹고 얻어오는 사람들도 있다.

(3) 애동지면 젊은이들이 많이 죽고, 노동지면 노인들이 많이 죽는다는 말이 있다. 동지는 양력으로 12월 22일 경이 되는데, 이때가 음력으로 11월 초면 애동지라 한다.

(4) 애동지 때 팥죽을 끓여 먹으면 애기들이 많이 죽는다하여 애동지 때는 팥죽을 끓여 먹지 않는다. 2014년은 애동지라 팥죽을 끓이지 않았다.

2) 메주 쑤기

동지가 노동지면 동짓달 초에 메주를 쑨다. 메주는 짝수로 한다. 김장은 입동 안에만 하면 된다.

12. 12월

1) 섣달에는 다음해의 시작인 정월을 준비하느라 많이 바쁘다. 먼저 설날 차례상에 올릴 먹을 것을 준비하고, 설날에 입을 설빔을 준비하느라 바쁘다. 설날에는 바지와 저고리를 새 것으로 갈아입기 때문에 틈틈이 우물에 가서 빨래를 하고 말린 후에는 밤을 새워 바지와 저고리를 짓느라 고생을 많이 했다. 옛날에는 재봉틀이 없어 전부 손으로 해야 했기에 밤새고 옷을 만드는 일이 참으로 고되었다. 요즈음은 이런 것도 하지 않는다.

2) 섣달 그믐날에는 집안 곳곳에 촛불을 켜놓아 환하게 하고, 밤에 자면 눈썹이 센다고 하여 잠을 자지 않았다.

[오늘날 새롭게 만들어진 세시풍속]

마을에서는 양력으로 12월말경 경로잔치를 한다. 2014년에는 12월 29일(월)에 할 예정이다. 각 집에서는 2만원씩을 낸다. 예전에는 주로 만두를 해 먹었으나 모두 만두가 싫다고 하여 지금은 밥으로 하고 있다. 부녀회에서 수고를 한다.

13. 윤달

1) 예전에는 윤달에 수의를 해놓으면 좋다고 해서 만들어 놓기도 했으나 요즈음은 필요시 그냥 농협 같은 곳에 가서 사면 되기 때문에 만들어 놓지 않는다.

2) 묘소를 파서 돌아가신 분을 화장시켜 납골당에 모실 일이 있으면 윤달에 한다.

5-2 대성동마을 사람들의 놀이

대성동에서 놀아졌던 놀이 중 특히 세시풍속과 관련이 있는 것은 정초의 연날리기, 윷놀이, 널뛰기 등이 있고, 단오날의 그네뛰기, 추석의 씨름 등이 있다. 여자아이들이 놀았던 놀이에는 사방치기, 비석치기, 공기놀이, 팽이돌리기, 자치기, 가위생, 소꿉질, 줄넘기, 고무줄놀이, 풀각시놀이, 오재미 등이 있다. 이 중 소꿉질, 풀각시놀이, 고무줄놀이 등은 여자아이들만 놀았겠지만, 다른 놀이들은 남자 아이들과 공유했던 것이다. 다음에는 주로 남자아이들이 놀았던 놀이를 중심으로 대성동에서 놀아졌던 놀이를 적어보기로 한다. 이어서는 현재 어른들이 하고 있는 국궁을 소개해 보기로 하겠다.

1) 연날리기

연날리기는 연초부터 정월 대보름까지 많이 했는데, 보름이 되면 연줄을 끊어 날리고 이후에는 별로 하지 않았다. 연은 돈을 주고 사기도 했지만 옛날에는 문창호지와 대까치를 꺾어서 만들기도 하고, 신문지와 싸리나무, 대갈퀴를 잘라서 만들기도 했다. 인삼밭에 쓰는 대나무로 연대를 만들기도 했다. 실은 반지고리에 있는 것을 훔쳐서 썼고 얼레는 나무로 만드는데 미닫이문을 가지고 만들었다. 가오리연이나 방패연을 주로 만들어 날렸고 꼬리를 달기도 하였으나 연에 특별히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지는 않았다. 사각 방패연 모양에 보리줄을 달아서 만든다. 보리줄은 세가닥의 줄을 하나로 모아 묶어 놓은 줄을 말한다. 줄을 감으면 높이 올라가고 줄을 풀어주면 내려간다.

연날리기는 보름까지만 많이 했던 놀이다. 연날리기를 하다가 정월 보름날이 되면 연싸움을 하고, 줄이 끊어져 연이 날아가버리면 연날리기를 끝냈다. 깨진 사기그릇 조각을 곱게 갈아서 풀과 섞어 연줄에 먹이면, 줄이 날카로워져서 상대방의 연줄을 끊을 수 있다. 줄이 끊어져 연이 날아 가버리면 지는데, 연싸움에서 이겨야 좋다고 생각했다.

2) 쥐불놀이

쥐불놀이는 겨울에 많이 했는데 일상적인 놀이로도 하고 8월 보름날 달맞이(추석) 때나 정월대보름 같은 명절에 많이 했다. 쥐불놀이는 산에 불이 옮겨 붙으면 안 되기 때문

에 주로 수확이 끝난 논에 가서 했다. 논두렁에 난 잡초와 벌레를 없애기 위해서도 했었는데, 예전에는 깡통이 없어서 말린 쑥대를 짚으로 감아서 둑방 같은 곳에 가서 불을 놓았다. 말린 쑥에 짚을 감아서 놓으면 불이 하루 종일 천천히 타기 때문에 성냥을 구하기 어려운 시절에는 불씨를 옮기거나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많이 사용했다. 6·25전쟁 전 어린 시절에는 쥐불놀이를 많이 했었으나 전쟁 후에는 지역 특성상 이런 놀이를 할 수 없게 되었다.

3) 제기차기

제기차기도 많이 했는데 제기는 동그란 동전을 가지고 만든다. 상평통보 등 가운데 구멍이 난 동전을 신문지로 감싸서 만든다. 차는 개수가 많은 사람이 이긴다.

4) 팽이돌리기

소나무를 깎아 팽이를 만들고 채로 치면서 방안, 땅위, 얼음 위에서 논다. 팽이를 오래 돌리는 사람이 이긴다.

5) 전쟁놀이

마을 아이들끼리 모여 편을 갈라 싸우는 놀이이다. 과거에 가마터가 있었다는 광무성재 근방에는 진흙이 많고 야트막한 언덕이 있어서 언덕을 기준으로 편을 나누어 진흙을 뭉쳐 던지며 '전쟁놀이'를 많이 했다.

6) 자치기

나무막대 2개를 이용해 짧은 막대기를 더 멀리 던진 사람이 이기는 놀이다. 나뭇가지를 적당한 길이로 잘라 놀이 도구를 만드는 데 긴 것은 아범, 작은 것은 아들이라고 불렀다. 아범과 아들 막대기는 참가자 모두가 가지고 있었다.

놀이방법은 구멍을 파서 아들을 걸쳐 놓고 아범으로 아들을 치기도 하고 아들 막대의 양쪽 끝을 뾰족하게 깎아서 땅에 두고 아범 막대로 한 쪽 끝을 쳐서 아들 막대가 공중으로 떴을 때 야구방망이처럼 아범 막대로 휘둘러 치기도 했다. 한 게임에서 참가자들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아들자를 띄워야 했다. 두 방법 모두 아들 막대기가 시작점 보다 더 멀리 간 사람이 이긴다.

7) 못치기

마을 주민 박O선 씨(남, 82) 기억에 못치기는 땅에다 상대방 못을 꽂아두고 내 못으로 그 못을 쓰러뜨리면 이기는 놀이로 딱지치기와 비슷한 식이었다. 가마니바늘로 많이 했다.

8) 딱지치기

'빠짱치기'라고도 불렀다 했다. 빠짱(딱지)을 뒤집으면 따는 놀이이다. 박O선 씨(남, 82)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신문지나 달력 등 종이가 귀해 주로 문창호지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딱지는 주로 사각딱지를 접어서 놀았다. 박O운 씨(남, 52)의 어린 시절에는 '각딱지'라고 부르는 두툼한 딱지가 좋은 딱지였는데, 딱지는 공책겉표지나 박스 같은 두꺼운 종이로 만들었다.

9) 구슬치기

유리로 동그랗게 만든 것을 구슬, 혹은 다마라 해서 서로 맞혀서 따먹는 놀이다. 구슬치기, 혹은 다마치기라 했다. 땅에 구멍을 만들어 놓고 구멍 속에 구슬을 굴리거나 던져서 넣는 놀이를 하기도 하는데, 구멍 속에 잘 넣으면 이긴다. 또는 멀리에 구슬을 놓아두고 그것을 맞추는 놀이도 한다.

10) 줄넘기

긴 줄을 두 사람이 양쪽 끝에서 잡고 돌리면 그 가운데로 누군가 뛰어들어가 줄을 넘는 놀이다. 오래도록 줄을 잘 넘는 사람이 이기고, 줄넘기를 하다가 줄에 걸리거나 하면 진다.

11) 꼴딴치기

김O래 씨(남, 76)는 어린시절 꼴을 베러가서 놀았던 특별한 놀이를 기억하고 있다. 꼴이란 소에게 먹일 풀인데, 꼴을 베러 갈 때는 작은 지게를 만든 후 여기에 '바수구리'로 만든 '바삼태'를 올려놓고 이 속에 꼴을 베어 넣고 다녔다. 개나리의 여러 해 묵은 곳을 깎으면 그곳에서 새움이 나와 곧고 길게 자라는데, 이것을 잘라 말린 것을 바수구리라 하고, 이것을 삼태기 모양으로 엮은 것을 '바삼태'라 한다.

꼴을 베러가서는 '꼴딴치기'를 했다. 꼴딴치기는 낫치기의 일종으로, 꼴을 베러간 아이들이 한 움큼씩 꼴을 모아 쌓으면 금방 꼴이 많이 쌓이는데, 거기에 낫을 던져서 낫이 가장 똑바로 꽂힌 사람이 꼴단을 전부 가져가는 놀이다. 낫이 옆으로 고꾸라지거나 나동그라진 사람은 진다. 몇 번 꼴딴치기를 해서 이기면 금방 지게를 가득 채울 수 있었다. 주로 열댓살의 아이들이 많이 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놀이를 하지 않는다.

12) 벼뭇내기

가을에 벼를 벨 때는 '벼뭇내기'라는 놀이도 했다. 10뭇 또는 20뭇을 가장 빨리 베어 묶는 사람이 이기는 놀이이다. 벼를 빨리 베기 위해서 하는 놀이였다. 이것은 젊은이들이 많이 했던 놀이다.

13) 술래잡기

술래잡기는 편을 갈라서 술래 편이 다른 편 아이들을 잡는 놀이이다. 대성동마을에서 하는 술래잡기는 숨바꼭질과 비슷하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지는 사람이 술래를 한다. 술래가 숫자를 세는 동안 술래가 아닌 사람들은 숨는다. 술래 편이 숫자를 다 새고 '다 숨었냐'를 외친 후 대답이 없으면 아이들을 찾으러 다닌다. 제일먼저 술래가 찾는 사람이 다음번 술래가 된다. 술래가 사람들을 찾기 전에 숫자는 10이나 20까지 세는데 놀이하는 사람들끼리 정했다. 어디까지 숨는가 하는 범위도 놀이하는 사람들끼리 정했다. 짚가리가 있는 곳 근처에서 많이 했다. 술래잡기는 수확이 끝난 겨울철에 자주 했던 놀이였다.





김O래 씨 밭에 설치된 과녁

14) 국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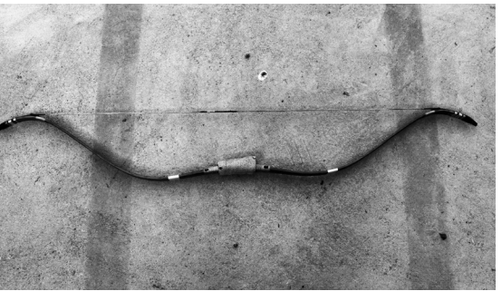
앞의 놀이가 주로 남자 어린이들이 노는 놀이인데 반해, 국궁은 어른들이 하는 놀이다. 김O래 씨(남, 69)는 국궁을 배워서 자신의 밭에 과녁을 설치해 놓고 활을 쏘고 있다. 주변지역에서 개최하는 국궁대회에 나가서 수상한 경력도 있을 만큼 실력이 있다.

활을 쏘는 김O래 씨

국궁은 문산의 '임월정'에서 배웠다. 국궁을 배우고 쏠 수 있는 곳을 사정이라고 하는데 금촌엔 '금오정'이라는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지역마다 존재한다. 국궁을 할 수 있도록 과녁을 설치한지는 3년 정도 되었는데 국궁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연습을 위해 과녁을 설치하였다.

활과 화살 등 필요한 도구들은 판매하는 가게도 있고 대회가 열릴 때 상인들이 와서 판매를 하기도 한다. 김O래 씨는 대회에 자주 출전하기 때문에 주로 대회 때 도구들을 구매한다. 활은 23만원이고 각궁이라고 불리는 대나무 활은 가격도 비싸지만 4단이 되어야 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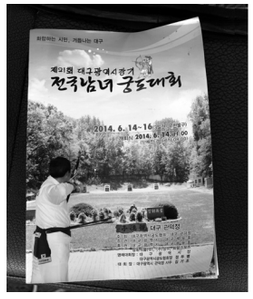
단은 승급심사를 통해 올릴 수 있는데 45발 중 27발을 명중시켜야 4단을 딸 수 있다. 김O래 씨는 현재 2단이다. 승급시험을 보러는 강원도 쪽으로 가는데 지역마다 시험을 볼 수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편한 곳으로 가면 된다. 대한궁도협회에서 단을



김O래 씨가 사용하는 활



김O래 씨의 단증



궁도대회 팸플릿

주며 1단부터 6단까지 있고, 단이 표시된 띠를 이용해 화살을 고정시킨다.

승급시험 외에도 전국적으로 대회들이 많이 열리는데, 대회 참가비는 보통 3,000원정도이다. 노년부, 장년부, 여자부 등으로 나뉘어져 대회를 치르며 우승하기 위해서는 주어지는 화살 15발을 모두 맞춰야 한다. 대회 때 쓰는 과녁의 크기와 쏘는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김O래 씨가 마을에 마련한 과녁은 대회 규격에 맞게 설치해 놓았다.

국궁은 겉보기에는 쉽고 간단해 보이지만 많은 힘과 기술을 필요로 한다. 국궁은 전신운동으로 건강관리를 위해서도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현재 대성동의 주민 중에서는 4명 정도가 국궁을 배우고 있다.

6 일생의례

6. 일생의례

일생의례(一生儀禮)란 사람이 태어나 죽기까지 한 평생을 살 때 특히 삶의 중요한 고비라 생각하는 시기에 행하는 여러 가지 의례를 말하는데, 그러기에 일종의 통과의례(通過儀禮)라 할 수 있다. 전통사회에서 우리 민족은 삶에 있어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시기를 출산, 백일, 돌, 혼인, 환갑, 죽음과 같은 것으로 인식하여 이러한 때에는 특별히 다양한 의례를 행했다. 매년 한 번씩 돌아오는 생일도 특별한 것으로 인식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생일날 차려지는 상에는 의례 미역국이 빠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생일 중에서도 첫 번째와 육십 번째 맞는 생일은 보통 때의 그것보다 더욱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다양한 의례를 베풀었는데 바로 돌과 환갑이다. 이러한 첫돌과 회갑 외 출산과 백일, 혼인, 그리고 죽음을 인생사에서 가장 의미 있는 고비라 생각하고 이 때 많은 의례를 행해 왔다. 일생의례의 의식이나 절차 속에는 대개 건강과 장수, 부, 행복, 자손번성, 집안의 평안 등을 기원하는 내용들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의례 내용을 통해서는 각 개인이나 집단이 가졌던 공동체적 가치 및 인식의 기저가 무엇이었나를 엿볼 수 있다.

대성동마을은 400여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마을로 볼 수 있지만, 휴전과 더불어 군사협정에 의해 만들어진 '자유의 마을'로서 더 의미를 가진다. 주민들은 대개 혹독한 전쟁 속에서도 마을을 떠나지 않고 이곳을 지켰거나, 아니면 잠시 떠났다 하더라도 다시 되돌아와 고향을 지킨 사람들이나 혹은 그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다. 휴전 후 일정기간 후방으로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었는데, 주민들은 민사처에서 내주는 트럭을 타고 일주일에 한 번만 후방으로 나갈 수 있었고, 이 때 만일 당일로 돌아오지 못하면 외부에서 일주일을 더 기다려야만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불편 상황은 그들이 겪었던 의례, 그 중에서도 특히 결혼식에 반영되어 있다.

최근에는 일생의례의 방법이나 내용이 많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대개 집에서 행하던 출산, 돌잔치, 혼인식, 환갑잔치, 상장례 등을 이제는 가까이에 있는 문산이나 금촌에 나가 행하고 있다. 출산은 문산에 있는 병원에서 돌잔치는 문산에 있는 회관이나 식당을 얻어 한다. 혼인은 거의 대부분 문산이나 금촌에 있는 예식장에서 한다. 환갑잔치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집에서 많이 했는데, 나중에는 외부로 나가서 하다가 이제는 그마나도 거의 하지 않고, 외부에서 칠순잔치를 하고 있다. 장례도 예전에는 집에서 임종을 맞고, 마을에 있는 상여로 행상이 나갔지만 지금은 문산에 있는 병원의 장례식장을 이용한다. 그리고 시신도 매장보다는 거의 대부분 화장을 하여 납골당에 모시고 있다.

대성동마을의 일생의례는 마을 사람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을 기록했다. 가가례(家家禮)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의례 내용은 집집마다 다소 다르다.

6-1 혼자서 삼 가르고 - 출산

여성은 결혼을 한 후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아 가계를 이어간다. 대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지만, 만약 그렇지 못할 때에는 동네의 단골 만신과 의논을 하거나 절에 가서 아이 낳기를 기원한다. 대성동 여성들도 이와 같았다. 대체적으로는 자연스럽게 임신을 하고, 아이를 잘 낳았다.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어찌 예조가 없으랴? 그래서 엄마가 될 사람, 혹은 주변의 친인척들은 태어날 아이를 위해 꿈을 꿔 주었다. 바로 태몽이다. 사람들은 이 태몽을 통해 아이의 앞날을 예견했다. 출산이란 여성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창조적 행위이며, 유한한 인간에게 무한한 연속성을 갖게 하는 위대한 사건이다. 그러나 막상 이와 같은 위대한 창조적 행위에는 많은 위험이 수반되기에 여러 가지 의례가 행해졌다.

1) 태몽꿈 꾸기

태몽은 예전부터 태어날 아이의 앞날을 예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기에, 사람들은 이런 꿈을 통해 태어날 아이의 성별이나 사회에서의 출세 등을 점쳐왔다. 꿈을 꾼 사람들

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는데 태몽만은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아들과 딸을 낳을 때는 꿈 내용이 다른데, 그것이 맞는다고 하며 참으로 이상한 일이라고 했다.

(1) 김O예 씨의 경우

"첫 아이는 그냥 구랭이를 뀌구, 아들 낳았어요. 두 번째는 어딜 산속에 갔는데 풀속에 무슨 놋대접 같은 거가 있어서 그걸 캐가지구 치마폭에다 꾸려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딸이야. 그리고 셋째는 여기 왔던 아인데, 호박을 땄어요. 호박을 남의 울타리에 둘이 열렸는데 하나만 따갖고 왔는데, 아들이야. 넷째 날 때는 뱀이 두 마린데 그냥 한 마리가 딴 데로 가고 하나는 우리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마자 끌어 들이니까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만 들어오는 거만 봤거든요. 그리구 그 다음에 또 아이 날 땐데 달 둘을 봤어. 달을 둘을 봤어. 달 둘을 봤는데 그런데 집 끝에서 이렇게 앉아서 보니깐 앞에 하나 있고, 저 뒤로 하나 있고 이렇게 두 개, 나란히 있지 않고 하난 앞에 있고 뒤로 이렇게 있고 근데 인제 그게 쌍둥이야. 아들 쌍둥이."

(2) 홍O순 씨의 경우

첫 아이 낳을 때는 꿈에 구랭이(구렁이)를 보았는데, 아주 무서웠다. 아들이었다. 둘째를 배었을 때는 산에서 돼지 3마리를 주웠다. 아들이었다. 딸을 가졌을 때는 머리핀, 밤 등을 주웠는데, 그게 아주 희한한 일인 것 같다.

(3) 조O순 씨의 경우

딸을 낳을 때는 꿈에 친정에 가서 새까만, 아주 새파란 호박을 누가 볼까봐 몰래 따왔다. 아들을 낳을 때는 꿈에 용을 타고 날으는 꿈을 꾸었다.

2) 출산

출산을 할 때 대체로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가 산일을 도왔다. 6·25전쟁 기간이나 휴전 초기에는 외부인의 출입이 어려워 친정어머니가 오기 어려웠기 때문에 대개 시어머니가 산일을 도왔다. 시어머니가 없을 때는 남편이 돕기도 했다. 김O예 씨의 경우는 아이를 6명 낳았는데, 첫 아이만 파주병원에 가서 낳고 아래로 5명은 집에서 혼자 낳아 삼을 갈랐다. 어떤 때는 밭에서 일하다 들어와서 낳은 적도 있었는데, 끝에는 아들 쌍둥이를 낳았다. 특별한 의례를 치룬 후 아이를 낳은 사람은 홍O순 씨의 경우다. 홍O순 씨는 3남 2녀를 두었는데, 두 딸은 어려서 죽었다. 홍O순 씨는 첫 아이를 낳을 때 경험했던 특별한 일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1) 안전한 출산을 위해 했던 의례들

① 아이를 빨리 낳기 위해 많은 문을 들어갔다 나왔다 해

첫 아이를 낳을 때는 이슬이 보인지 3일만에 아이를 낳았다. 이를 아이를 3일이나 '비슬렀다'고 말했다. 그런데 첫 아이를 낳을 때는 아이를 처음 낳는 것이라 언제 낳을지, 얼만큼 아퍼야 낳는 것인지 몰라 이 문으로 나갔다 저 문으로 들어오고, 이 문으로 들어갔다 저 문으로 나오길 수백 번이나 하며 많은 고생을 했다. 그 동안 외숙모도 오고 우야 할머니도 왔는데, 산일은 친정어머니와 이분들이 도왔다.

② 아이를 빨리 낳게 하려고 피마자 나무를 꺾어다 방의 네 구퉁이에 세워 놓아

방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나오지 않아 하도 힘들어 하니까 후딱 낳으라고 바깥에서 피마주나무를 꺾어다 방의 네 구퉁이에 세워 놓았다.

* 마을회관에 함께 있던 다른 분들이 홍O순 씨의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이구동성으로 그게 예방이라 했는데, 조O순 씨만은 이런 얘기는 처음 들었다고 했다. 이O순 씨는 태 못 낳으면 피마주나무를 꺾어다 네 구퉁이에다 세우는데, 낳으면 후딱 걷어치워버려야지 그냥 놔두면 큰일 난다고 했다. 김O순 씨는 OO어머니가 애기 낳을 때 피마자나무를 세워 놓았어야 했는데, 밑에다 놓고 그 위에 깔구 앉아서 애기를 나으라고 해서, 애기가 눌려서 죽었다고 했다.

(2) 태의 처리

홍O순 씨는 애기를 낳을 때 밑에 양회푸대 종이 같은 것을 놓고 낳았다. 후에는 볏짚

으로 그걸 싸서 바깥에서 불에 태워버렸다. 태울 때는 먼저 모태불을 만들고 주변에 돌을 두서너 개 놓은 후 거기에서 태운다. 김O예 씨도 탯줄을 불에 태웠다.

(3) 미역국 먹기

출산 후에는 모두 미역국을 먹었다.

(4) 삼신상 차리기

아이를 낳으면 당일에 상에다 밥과 미역국을 올려 아이가 있는 방 아랫목에 놓았다. 홍O순 씨의 경우는 어머니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을 삼신상이라 말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했다.

3) 인줄치기

대부분 아들을 낳으면 새끼줄에 고추를, 딸을 낳으면 새끼줄에 숯을 끼워 걸었는데, 이것을 '인줄'이라 했다. 김O연 씨의 경우는 전에 초가집일 때는 대문이 있어 이것을 달았는데, 지금처럼 양옥일 때는 달 곳이 없어 달지 않았다고 한다. 인줄은 집에 애기를 낳았으니 외부 사람들은 들어오지 말라는 표시인데, 대개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걸었다.

4) 이름 짓기

아이의 이름은 대개 할아버지가 지어주었다. 할아버지가 안 계시면 동네에서 한학을 하는 어른한테 지어 받는다. 옛날에는 동네의 단골만신과 의논하기도 했다.

대성동은 강릉 김씨 동원군파 집성촌이기에 대개는 항렬을 중시해서 지었다. 현존하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보면, 김남0 → 김0래 → 김동0 → 김0유 → 김용0 → 김0현 등으로 내려간다. 항렬에 따른 이름은 동족집단 내에서 위계질서를 확립시켜 주는 동시에 같은 동족 및 혈족임을 상기시켜 상호 상부상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준다. 사회적으로 보면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5) 애기를 처음 보러 갈 때

옛날에는 애기를 처음 보러 갈 때면, 실 같은 것을 사다가 아이한테 걸어 주기도 했다.

6-2 100사람이 나눠먹은 백설기 - 백일과 돌

아이가 태어난 지 백 일째 되는 날을 백일이라 하여 특별한 의례를 했다. 또 태어난 지 일년이 되는 날을 돌이라 하여 특별한 의례를 행하기도 했다. 이야기를 해 주신 많은 분들은 그 때는 전쟁이 난 뒤라 먹고 살기 힘들 때여서 무슨 잔치를 해줄 수 있었겠느냐고 하면서 그냥 백설기나 수수팥단지 정도를 해서 동네 사람들과 나누어 먹었다고 했다.

1) 백일

(1) 김O예 씨의 경우

백설기를 한다. 백설기는 백 사람이 나누어 먹어야 좋다고 하여 이웃끼리 나눠 먹는다. 백설기 떡은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하여, 예전에는 떡을 담아간 그릇에 쌀이나 팥 등을 담아주었다. 요즈음은 그냥 돈을 담아 준다. 백일에는 아이에게 오래 살라고 실을 걸어 주기도 했다.

(2) 홍O순 씨의 경우

백설기를 하고, 시장에서 반찬거리를 사다가 반찬을 해서 동네 어른들을 모셨다.

2) 돌

(1) 김O예 씨의 경우 애기의 돌이 되면 집에서 송편, 백설기, 수수팥단지 같은 것을 해서 나누어 먹었다. 대성동마을에서는 예전에는 돌이나 환갑 등 큰일이 있다 하면 어른 아

이가 다 그 집에 와서 먹는 전통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외부로 나가 먹느라고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

(2) 홍O순 씨의 경우에는 친정어머니가 '칠칠하셔서' 아이 셋을 다 백일과 돌을 차려 주었다.

(3) 돌상에는 실, 연필, 돈 같은 것을 놓고, 아기가 제일 먼저 무엇을 잡는가를 보는데, 실을 잡으면 명이 길 것으로, 연필을 잡으면 공부를 잘할 것으로, 돈을 잡으면 부자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홍O순 씨는 이건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나 그 때나 똑같이 한다고 했다.

6-3 트럭타고 온 시집 - 혼례

대성동에서는 197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그 이전까지는 거의 전통혼례 방식으로 혼인식을 하고, 그 이후에는 대개 외부로 나가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했다. 휴전이 되기 직전 마을 주민 중 김O래 씨가 전통혼례로 혼인을 했다. 휴전 후에는 김O예 씨 및 김O래 씨가 혼인을 하였는데, 모두 이 방법으로 하였다. 대성동에는 원래 방축골에 행상막이 있었는데, 여기에 신랑이 입을 사모관대와 신부가 입을 활옷을 두었다. 이 옷은 마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필요시 이용할 수 있었다.

1) 6·25전쟁을 전후한 시기까지 행해졌던 전통혼례

김O래(남, 76) 씨가 들려 준 대성동의 혼례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혼례방법은 대개 6·25전쟁 이전까지 많이 행해졌던 것이고, 그 이후에는 잘 보지 못했다고 한다.

(1) 장가들러 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마을에서는 혼인식 때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대례를 치루고 당일 신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장가 갈 때, 있는 집 사람은 말을 타고 가고, 없는 사람은 그냥 걸어갔다. 김O래 씨의 형님들은 당시 자동차를 타고 갔다고 한다.

(2) 신랑이 대례를 치루고 다시 마을로 돌아올 때 신부는 가마나 사인교를 타고 시집으로 온다.

(3) 신방 엿보기

신랑이 여자네 집에 가서 장가를 들고 당일 신부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면 첫날밤을 보내게 되는데, 신랑이 신부 옷 벗긴다 하여 사람들은 이를 구경하려고 문틈으로 신방을 엿보았다.

(4) 신랑 달아먹기

장가를 든 후 며칠 후에 신랑이 신부와 함께 처가에 가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신랑을 매달고 "너 뭐 먹었어? 너 신부집에 와서 뭐 먹었냐? 하나씩 대라."며 신랑의 발바닥을 때린다. 그러면 신부집에서는 그 음식을 하나씩 하나씩 그대로 내다 놓아야 한다. 신랑을 때릴 때는 별로 아프지 않게 때리지만, 말을 정 안 들으면 아프게 때려야 한다. 그래야 신랑이 말을 하고 음식이 많아진다. 김O래 씨는 "나도 신랑 발바닥을 때려본 적이 있는데, 결국은 술 뺏어 먹는 거야. 별 거 아냐." 라고 했다.

*** 잔치국수 먹기**

혼인식을 할 때 신랑집에서는 국수를 삶아서 동네잔치를 했다. 국수를 삶은 후 그 위에 괴명[고명 : 계란을 부쳐서 가늘게 썰고 붉은 실고추를 가늘게 썰어 올리는 것]을 얹어주는 데, 맛이 아주 좋았다. 국수는 지금처럼 그냥 일반국수이지만, 옛날에는 봉다리가 아주 커서 한 봉다리를 삶아도 양이 아주 많이 나왔다. 국수를 만들 때 소금을 많이 넣는지 너무나도 짜서 삶으면 물에 헹구어야 했다. 당시에는 혼인식 때 국수를 대표적으로 먹었는데, 여기에서 '잔치국수'라는 말이 생겼다.

*** 재꾸러미 쇠기**

- 신랑이 이 동네 처녀에게 장가들러 왔을 때는 '재꾸러미 쇠기'를 했다.
- 혼인식을 하려고 신부집에서는 음식을 준비해 놓고 기다린다.
- 마을에 온 신랑은 우선 옆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시간이 되면 대례를 치루려고 여자네 집 대례상 앞으로 다가온다. 이 때 사람들은 재를 봉투에 담아 두었다가 신랑에게 던진다. 이를 '재꾸러미 쇠기'라 한다. 예전에는 짚을 땠기 때문에 집집마다 재

가 많아서 재 걱정은 없었다. 신랑은 재꾸러미를 안 맞을려고 재빨리 신속하게 가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신랑에게 재를 뒤집어 씌운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장난이 심해 심지어 삼태기에 재를 가득 담아 들고 있다가 들어붓는 사람도 있었다. 재꾸러미 씌기를 할 때 사람들은 모두 재미있어 하면서 웃고 장난한다. 신랑이 재를 뒤집어쓰면 사람들은 모두 웃으며 달려들어 다시 깨끗하게 닦아준다. 그 후에 신랑이 대례상 앞으로 나아가 신부와 맞절을 하고 나면 의식이 끝난다. 후에는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간다.

– 이런 '재꾸러미 씌기' 때문에 옛날에 장가오는 사람은 아주 고역이 심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의식을 볼 수 없다.

– 또는 다음과 같은 장난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신랑과 신부가 맞절을 하려고 할 때 동네사람들이 손에다 구재를 발라 신랑에게 달려들어 신랑의 얼굴에 그것을 발라 주기도 했다. 구재란 굴뚝에 끼어있는 끄럼을 말하는데, 옛날에는 짚불을 많이 땠기에 굴뚝에 항상 까맣게 그을린 끄럼, 즉 구재가 많았다.

2) 휴전을 전후하여 행해졌던 결혼식

휴전을 전후하여 마을에서는 여러 집안에서 혼인이 이루어졌다. 김O래 씨는 외부에서 들어온 권O순 씨와 결혼한 예이고, 김O예 씨의 경우는 남편 최O득 씨가 데릴사위로 들어온 경우이며, 남O옥 씨는 외부에서 살다가 이 마을 사람인 김O래 씨와 결혼해 들어온 경우이다. 현재 이들 남편이 되는 분들은 모두 고인이 되었다. 김O래 씨는 마을마다 있던 혼례복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마을에서 전통혼례를 치르기는 어려울 듯 하다고 했다.

(1) 김O래 씨와 권O순 씨의 결혼

두 사람은 휴전되기 한 달 전에 결혼을 했다. 권O순(여, 81) 씨는 친정이 원래 진선면 선적마을이었는데, 전쟁이 발발하여 가족이 모두 작은 아버지가 살고 있는 감바위로 옮겨 살고 있었다. 이곳은 태성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친할아버지는 늘 태성으로 놀러 다녔다. 그러다가 사위감을 보고 손녀딸을 중매하여 혼인이 이루어졌다. 혼인 전에 시어머니와 작은 시어머니가 될 분들이 권O순 씨 집에 와서 선을 보고 갔고, 마음에 들어 혼인이 이루어졌다.

혼인식 전날 권O순 씨는 할아버지를 따라 태성에 있는 김O래 씨 집으로 걸어왔다. 아직 전쟁이 한창이라 길에는 인민군들이 쌩쌩 총소리를 내며 거리를 오가고 있을 때였다. 권O순 씨는 신랑집으로 와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신랑집에서 혼례를 치루었는데, 치마저고리를 입고 머리에는 족두리를 썼다. 신랑은 자기집을 두고 옆집에 있다가 사모관대로 갈아입고 와서 식을 치렀다. 결혼식 절차를 물었더니 "아유, 텔레비에 나오는 거와 똑같아"라고 했다. 혼례를 치룬 이튿날부터 시할머니의 똥오줌 오강을 받아냈고, 전쟁 중이라 아무 혼수도 준비할 수 없었던 그녀는 이 일로 시누이한테 혹독하게 시집살이를 당하기도 했다.

(2) 최O득 씨와 김O예 씨의 결혼

강릉 김씨인 김O예 씨(여, 77)는 이 마을 토박이인데, 18살 때인 1955년 26살이던 최O득 씨와 결혼하였다. 당시 최O득 씨는 태성 근처 마을인 어룡개에서 살다가 6·25전쟁이 나자 잠시 외부로 피란을 나갔다 들어왔는데, 후에 마을에서 보초를 서다가 총상을 입어 크게 다쳤다. 후에 인천 월미도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돌아와 몸이 아직 불편한 상태였다. 이 때 김O예 씨는 불고였던 아버지가 6·25전쟁 때 이북으로 끌려가 형편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동네분들의 주선으로 남편과 혼인을 하게 되었다. 어떤 식으로 결혼식을 했는가를 물으니 "요즈음도 테레비 보면 결혼식 하는 거 많이 나오대. 왜 쪽두리 쓰고 하는 거 말야. 그거와 똑같이 했어. 활옷두 입구"라고 했다.

(3) 김O래 씨와 남O옥 씨의 결혼

남O옥 씨(여, 80)는 남편이 김O래 씨다. 남편은 강릉 김씨로 대성동 토박이인데, 두 사람은 1954년에 결혼을 하였다. 이 때 남편은 21살, O옥 씨는 20살이었다.

남O옥 씨는 고향이 개성 근처 장단역이었는데, 막내딸로 위로 오빠가 다섯이 있었다. 장단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명덕중학교에 입학했는데, 입학한 지 한 달 만에 6·25전쟁이 나서 중학교를 다니지 못했다. 그 때가 16살이었다. 열두 명의 식구가 서울 마포로 피란을 나갔는데, 서울에 가서 보니 인민군들이 거리에 가득하고, 포로 한강다리를 끊는다 하여 다시 오빠가 살고 있는 금촌으로 돌아왔다. 먹고 살기 위해 잠시 서울로 나갔다가

다시 오빠가 살고 있는 금촌으로 돌아와 보니 외사촌 아주머니가 중매를 해 놓은 터여서, 선을 보고 다섯 달 만에 김O래 씨와 결혼을 했다.

그 때는 친정아버지가 놀메(현재의 통일촌 근처)에 살고 있을 때여서 혼인식은 여기에서 했다. 전통혼례로 하기 싫어 신식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만 전통혼례로 혼인식을 하게 되었다. 너무나도 싫어 족두리도 안 쓰고 그냥 치마저고리만 입고 했다. 그리고 식도 그냥 절만 하고 말았다. 혼인식은 아주 우습게 했는데, 휴전 때라, 그리고 전쟁 후에 하는 것이라 사람도 많지 않았고, 마을 사람이라 해도 집안네 식구들만 조금 있었다.

혼인식 전날, 신랑이 사주단자하고 함을 직접 가지고 왔다. 함에는 사주단자, 혼서지, 옷감 몇 가지, 패물로 금가락지 다섯 돈과 시계가 있었다. 시계는 아주 예뻤는데, 미제였다. 시계는 나중에 시누이가 학교를 다녀 그냥 주었다.

잔치날을 잡아 대례를 치렀는데, 대례는 대례상청을 차려 놓고, 상 위에는 과일 몇 가지와 떡을 좀 놓고 맞절을 했다. 이 날 '재꾸러미 던지기' 같은 것도 했는지를 물으니, 신랑이 차 타고 오는 것이라 급해서 그런 것은 안 했다고 하였다.

대례를 치루고 나서 대성동으로 갔는데, 마을에 들어 올 때는 미군 제무시 트럭을 타고 들어왔다. 시집에 처음 왔을 때 시집에서는 상에 음식을 차리고 조상님들의 지방을 써 붙인 뒤 절을 하게 하였는데, 이를 '사당차례'라 하였다. 생전 절을 해본 적이 없어, 절도 할 줄 몰라 집안의 손위 동서가 되는 분이 치맛자락을 잡아 일으켜 주었는데, O옥 씨는 "절은 많은데 헐 줄은 모르고, 아주 혼났어. 그 때." 라고 지금도 말한다.

이날 저녁에 시집에서 자지 못하고 다시 마을 밖으로 나와야 했는데, O옥 씨의 패스가 없었기 때문이다. 친정으로 가 첫날밤을 보내고 패스를 만들어 일주일 후에 다시 트럭을 타고 대성동으로 들어왔다. 마을에 와서 보니 시집은 먹고 살만은 한 것 같았다.

남편은 외아들이었는데, 시집을 오니 시부모와 시누이가 셋 있었다. 그 때 막내 시누가 아홉 살이었다. 시집살이는 별로 하지 않았지만, 밥도 할 줄 몰라서, 그리고 농사를 지을 줄 몰라 고생을 아주 많이 했다. 친정은 전부 교육자로 농사를 많이 안 지었기에 O옥 씨도 별로 농사를 지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농사일을 많이 거들다보니 힘이 들었다. 자녀는 2남 2녀를 두었는데, 현재는 막내아들과 살고 있다. 장남 김O현 씨는 예전에 6년간 마을 이장을 한 적이 있고, 둘째 아들 김O구 씨는 현재 이장을 하고 있다. 두 아들은 모두 마을에 거주하면서 크게 농사를 짓고 있다.

(4) 트럭 타고 시집온 마을의 며느리들

휴전 이후 약 10여년 이상 대성동은 거의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기간 동안 주민들은 일주일에 하루만 마을 밖으로 오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도 흙먼지를 덮어쓰며 미군들이 운행하는 트럭을 타고 다녀야만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당시 다수의 주민들이 이 트럭을 타고 다니며 혼인을 했다.

① 박O선 씨(남, 82)는 처가가 파주 주내면이다. 27살에 파주 주내에 살고 있던 김O연 씨(여, 76)에게 장가들어 그곳에 가서 대례를 치루었는데, 대례를 치루고 마을로 돌아오는 날 신랑 신부가 함께 마을로 들어올 수 없게 되자 성질이 나서 그냥 신부를 팽개치고 오려고 했다. 시집살이를 심하게 한 것으로 소문이 나 있는 김O연 씨는 마을회관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차라리 그 때 내팽개쳤으면 내가 시집살이는 안 했을 것이라 하여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두 한바탕 크게 웃었다.

② 마을에 살고 있는 이O순 씨(여, 80)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한다.

> "옛날에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요, 거기서 또 일주일씩 있어야 들어와요. 그 전엔 흙먼지가 돼서 담요 쓰구 다니구. 문산 가면 뭐 사람 같지두 않지. 시집 오는 색시들두 트럭 타구 왔는데요 뭘. 저 O정 아주머닌 트럭타구 왔어.[중략] 아, O수 엄마두 그 때 여기 테러들 있든 게 다 와서 그냥 요렇게 한쪽 구텡이에 앉히구 담요를 푹 씌워가지구. [중략] 그런데 그냥 아유, O수 엄마 시집올 땐 그냥, 그래서 내리니깐 그래두 담요가 되니깐 다 털어서, 쪽두리 그런 건 다 벗어지구 퍼런 저고린가 노란 저고린가 그걸 입구 왔어. 그리구 O수 엄만 동짓달 열 사흗날이야. 열흘 나두고 왔어."

3) 1970년대 이후부터 행해진 예식장에서의 결혼식

1970년대에 이르면 사람들이 대개 문산이나 금촌, 파주, 서울 등에 있는 결혼식장에서 식을 올렸다. 이후부터 현재까지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다.

김O래 씨는 1974년 36살에 중매로 당시 33살이었던 홍O표 씨를 만나 서울 돈화문 앞에 있는 00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아마도 대성동 주민 중에서는 제일 먼저 예식

장에서 결혼식을 한 경우일 것이라 했다. 그 때 찍은 흑백으로 된 결혼식 사진이 남아 있다. 부인의 고향은 강원도 삼척인데 학교도 그곳에서 다녔다. 후에 서울로 올라와 살 때 O래 씨를 만나 결혼을 했다. 부인은 처음에 농촌을 잘 몰랐는데, 대성동에 와 살면서 농사를 짓느라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한다.

6-4 안하고 죽으면 원혼이 된다고 - 환갑

옛날에 마을에는 '예순이 넘어 환갑잔치를 안 하고 있다가 죽으면 원혼이 된다.'는 말이 있었다. 그래서인지 죽기 전에 한다고 60세가 되면 대개의 사람들이 환갑잔치를 했다. 환갑잔치는 주로 집에서 했는데, 자식들이 부모를 위해 차려 드렸다. 집에서 떡, 과일, 과자 등을 넉넉히 준비해서 상에 높이 차린 후 동네 어르신들을 모셔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이 때 왠만한 집에서는 후방에서 기생을 불러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기도 하면서 재미있게 놀았는데, 그 때는 별로 돈을 많이 안 줘도 이런 것을 할 수 있었다. 김O에 씨는 마을 사람들이 환갑잔치 때 기생을 많이 불렀던 편인데, 자신의 친정어머니도 이렇게 했다고 했다.

대성동마을에는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에 걸쳐 약 15년간 30회에 걸친 마을의 부조상황이 기록된 『'婚喪甲契(혼상갑계)』 자료가 있다. 표지에 '甲'자가 들어있는 것을 보면, 이 당시에는 비교적 환갑잔치를 많이 한 편이고 서로 부조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언제 누가 얼마를 냈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무슨 목적으로 냈는지는 적혀 있지 않아, 이들 부조가 혼·상·갑 중 어디에 사용된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예전에는 환갑잔치를 많이 했지만 요즈음은 환갑잔치는 별로 하지 않고, 대신 칠순잔치를 한다. 그리고 칠순잔치라 하더라도 집에서 하지 않고, 문산이나 금촌 같은 곳에 나가 식당이나 회관을 빌려서 한다.

6-5 남은 자들의 의례 - 상장례(喪葬禮)

상장례란 사람이 죽었을 때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루는 과정까지의 절차, 혹은 의례를 말한다.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거의 대부분 매장을 했는데, 집에서 장지까지 상여를 이용하여 시신을 옮겼다. 예전에는 마을 주변 지역인 방축골에 마을의 상여를 놓아두는 행상막이 있었다. 이곳은 6·25전쟁 때 불타서 없어졌다. 이 지역은 현재 군인들이 에스코트를 해야 갈 수 있는 지역이 되었다. 지금은 마을 공회당 뒤편인 공수골(논이름)에 콘테이너를 놓고 이 안에 상여를 넣어두고 있다.

상여는 예전에 사용하던 것이 낡아서 약 20여 년 전에 동대문에서 새 것을 사왔다. 전 이장이었던 김O찬 씨의 조부인 김O용 씨가 제일 먼저 이것을 탔는데, 이 분은 99세에 돌아가셨다. 마을에서 마지막으로 이 상여를 사용한 것은 약 10년 전인데, 김O구 씨의 부친인 김O래 씨가 돌아가셨을 때였다.

지금은 초당굴이나 김천말, 허릉굴 같은 곳에 묘지를 많이 쓰는 편인데, 휴전 후부터는 주변에 있는 산에 자유롭게 매장하고 있다. 장지는 가까운 곳은 한 시간 이내인 경우도 있지만, 멀면 그 이상 걸리는 곳도 있다. 현재는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장지를 쓰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어려울 지도 모른다. 이쪽에도 원 등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 땅이라고 해서 회복등기를 내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써 놓은 묘소는 어쩌지 못하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땅에 묘소 쓰는 것을 제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죽으면 망자는 집안의 안방에 모시고, 바깥쪽에서 손님들을 맞았다. 대성동은 출입에 제약이 많기 때문에 초상이 나도 문상을 오는 사람들이 적었다. 옛날에는 동네에 초상이 나면, 3일간 '동네 개까지 그 집에 가서 먹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 집에 가서 먹으며 일을 분담하여 도왔다. 전 이장이었던 김O찬 씨의 부인인 황O의 씨(여, 48)는 10년 전인 2004년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손님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일이 엄청 많았는데,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두 도와서 초상을 잘 치룰 수 있었다고 하며 참으로 고마운 일이라고 했다. 김O찬 씨의 할아버지였던 김O용 씨는 아들 셋과 딸 넷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여기서 농사를 짓지 않고 나가서 제이씨와 같은 곳에서 사회활동을 했고 잘 살았다. 그런데 이들 세 아들과 네 딸이 모두 인맥이 좋아서인지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손님이 너무나도 많이 와서 마을회관

사무실 마당을 빵 둘러 차를 댈 곳이 없을 정도였다. 결과로 3일간 장사를 치르는데 음식비만 2,000만원을 썼고, 두부를 만드는 데만 해도 콩이 두 가마나 들어갔다. 이런 엄청난 일을 모두 마을 사람들이 도와서 잘 치러낸 것이다.

전O권 씨(남, 70)는 고(故) 김O래 씨에 이어 마을에서 유일하게 상여소리를 할 수 있다. 그가 들려준 대성동의 전통적인 상장례법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적인 상장례

(1) 사잿밥을 지어 사제공양을 드린다.

사람이 운명하면 먼저 밥을 지어서 접시에 조금 놓는데, 이런 접시를 8개 만들어 상에 놓고 집의 대문 같은 곳에 놓아둔다. 이 밥을 사잿밥이라 하는데, 사잿밥을 대문 같은 곳에 놓아두는 것을 사재공양이라 한다.

(2) 후에는 돌아간 사람의 윗옷을 가지고 흔들며 이름을 부르는데 "장단군 군내면 조산리 망자 (망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를 들면 홍길동이면) 홍길동 옷 가져가시오, 가져가시오, 가져가시오"라고 3번을 외치고 그 옷을 지붕에다 올린다. 그러면서 장례절차가 시작된다.

(3) 마을에 초상이 난 것을 알게 되면 온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 집으로 집결을 한다. 예전에는 초상일을 마을의 어르신인 김O희 씨와 김O래 씨 등이 주관했는데, 이 분들이 젊은이에게도 가르치기 위해 전O권 씨 등을 데리고 문산으로 나가 상점을 다니며 상포를 흥정하여 삼베, 광목 등을 사 가지고 왔다. 그러면 여자들은 이것으로 상복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삼베로는 상주 상복을, 광목으로는 여자들의 상복을 만들기 시작한다. 3일장을 해야 하므로 수의도 이 때 재빨리 만들어 놓는다. 마을의 젊은이들은, 마을의 젊은이들 이래봤자 이 동네 젊은이들뿐이었으므로 몇 명 안 되는데, 나가서 장지를 알아보고 준비를 한다.

(4) 돌아가신 날 저녁에 상식을 올린다. 그 이튿날 아침에도 아침상식을 드린다.

(5) 만일 오늘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그 이튿날 오후가 되었을 때 염습을 한다.

전O권 씨의 경우에는 다른 때는 엄두가 안 나서 염습하는 것을 보지 못하다가 부친이 돌아가셨을 때는 상주가 되어 어쩔 수 없이 염습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 사람이 죽으면 처음에 칠성판에 모시는데 염을 할 때는 잠시 내려놓고 한다. 먼저 알콜 같은 것으로 시신을 씻긴 후, 숟갈로 약간의 쌀을 떠서 망자의 입에 넣어준다. 후에 수의를 입히고 삼베를 이용하여 열두 매로 묶는데, 뼈가 우두둑 소리가 날 정도로 꽉 조여매야 한다.

열두 매를 묶는다는 것은 베를 적당한 길이로 여섯 조각으로 잘라 시신의 밑에 적당한 간격을 두고 놓은 후, 6조각의 양쪽을 갈라 시신을 가운데로 하여 양쪽으로 묶으면 열두 매디(마디)가 되는 것이다. 염습 후에는 입관을 하고 조문객을 받는데, 저녁에는 상식을 올린다.

(6) 다음날 아침, 즉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젊은 사람들은 아침 일찍 묘지에 가서 지관이 전날 표시를 해 놓은 네 귀퉁이의 표시를 보고 땅을 파기 시작한다. 묘지는 결코 전날부터 미리 파서는 안 되는데, 만일 미리 파는 일이 생긴다면 밤에도 그곳을 지켜야 한다.

묘지는 먼저 광정을 파고, 후에는 모토를 뽑는다. 모토를 뽑는다는 것은 광정 아래 가운데에 시신만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네모난 땅을 파는 것이다. 모토를 뽑을 때는 바닥은 조금 넓게 하고 위는 조금 좁게 하는데,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없고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

(7) 상여꾼들은 아침에 상여를 가지고 상가집에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방안에서 관을 메고 나와 이를 상여에 모신다. 방안에서 관을 끈으로 매어 메고 나오는 사람들[양쪽에 3명씩 모두 6명]은 관을 들어 네 귀퉁이에 대고 "중기료, 중기료, 중기료" 하고 세 번을 외치고 나오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는 전창권 씨도 모르겠다 했다. 관을 방에서 들고 나와 상여에 모실 때는 방문 앞에 바가지를 두었다가 맨 앞 사람이 이것을 밟아 깬 후 나와서 관을 상여에 모신다.

(8) 상여가 떠나기 전에 발인제를 한다. 발인제란 상여 앞에 제물을 차려 놓고 상주들이 술을 올리고 절을 하는 것이다. 상여를 맬 때는 10명이 맬 수도 있고, 12명이 맬 수도 있는데, 한 줄에 5명, 혹은 6명이 서야 하기에 이 정도 인원이 필요한 것이다. 짝수로 해야 발이 맞아서 상여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상여꾼들은 짝수로 한다. 상여가 떠날 때부터 상여소리를 시작하는데, 상여꾼들은 상여소리에 맞추어 발을 뗀다.

(9) 묘지에 갈 때 상여꾼들은 간혹 조그만 개울이나 다리 같은 곳에 멈추어 서서 가지 않고, 상여가 안 움직인다 하면서 상주들에게 노자돈을 놓고 절하라고 한다. 그러면 상주들은 돈을 놓고 절을 하는데, 이렇게 하여 모은 돈은 나중에 상여 같은 것을 새로 사거나 하는데 쓴다. 묘지에 거의 다 가서도 이런 장난을 하지만 일단 묘지에 올라가면 이와 같은 장난은 하지 않는다. 이런 장난을 할 때는 절대로 상여를 땅에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

장지까지의 거리가 멀어 상여꾼들이 힘이 들면 중간에 상여를 내려놓고 쉴 수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쉬는 횟수는 홀수가 되어야지 짝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 상여꾼들은 중간에 세 번, 다섯 번, 혹은 거리가 워낙 멀면 일곱 번까지도 쉴 수 있다.

(10) 하관을 할 때는 지관이 몇 살 몇 살 먹은 사람, 혹은 무슨 무슨 성씨는 하관을 볼 수 없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빠져야 한다. 잘못하면 살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관은 대성동마을에는 없었고, 문산이나 금촌에서 모시고 왔는데, 금촌에는 이O기라는 분이 유명했다.

(11) 하관 후에는 퇴관을 하여 시신만 모토에 모시는데, 퇴관이란 관에서 시신만을 꺼내는 것이다. 남은 관은 나중에 다른 부산물과 함께 불에 태운다. 산일에는 아무리 여름이라 하더라고 한 쪽 편에 반드시 불을 피워놓고 일을 하는데, 여기에다 남은 관을 태우는 것이다.

(12) 모토에 시신을 모신 후에는 위에다 횡대(橫帶)를 덮는다. 횡대(橫帶)는 개죽나무나 소나무로 만든 널판지로 모두 11개를 세로로 덮는다. 횡대(橫帶)는 원래 개죽나무가 가장 좋다고 하는 말이 있지만, 대성동에서는 주변에 소나무가 많아 이것으로 횡대(橫帶)를 만들어 쓰기도 한다. 횡대(橫帶)는 통나무를 반으로 켜서 11개를 쓰는데, 통나무를 반을 켜면 12개 짝수로 나오지만 하나는 버리고 11개만 쓴다. 횡대(橫帶)는 12개를 쓰지 않는다는 말이 있기 때문이다.

(13) 횡대(橫帶)를 덮는 일이 끝나면 위에다 백회를 뿌린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백회와 흙을 3:1로 섞어 물로 개운 것을 광중의 1/3이 되도록 채우고 다지기를 한다. 이와 같은 일을 똑같이 세 번 반복하면서 다지기를 하는데, 다지기를 할 때는 달고소리(회다지기 노래)를 하면서 한다. 나중에는 흙만 넣어 다지고 후에는 봉분을 한다. 이렇게 하면 회가 아주 단단하게 다져져서 나중에 혹시라도 시신을 이장하기 위해 묘소를 파게 되면 사람의 힘으로는 팔 수 없다. 이때는 포크레인으로 파야 한다.

(14) 봉분을 올릴 때는 다지기를 하거나 상여소리를 하지 않는다. 가래로 그냥 동그랗게 봉분을 모으고 떼를 입히면 묘가 완성되는 것이다. 봉분이 다 되면 잔디 같은 것을 입히고 후에 제사를 올린다. 이것으로 의식이 모두 끝난다.

* 상석 같은 것은 이 때 하면 안 되고, 다음해 청명이나 한식 같은 때에 하는데, 이것도 되는 해가 있고 안 되는 해가 있다.

(15) 제사를 지낸 후 상주들은 위패를 모시고 갔던 길을 그대로 다시 따라서 돌아와야 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혼령이 제사 같은 것을 드시러 올 때 길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16) 집에 오면 가지고 온 위패를 모시고 상청을 차린다. 상청은 3년을 모셨다가 탈상하는데, 탈상하기까지는 매일 조석으로 상식을 드리고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는 삭망을 지낸다. 삭망에는 반드시 곡(哭)을 한다.

* 옛날에는 원래 3년 탈상을 했었다. 나중에는 백일 탈상을 하다가 지금은 49일만 하는 집이 많다. 요즈음은 49재를 지내고 바로 절에다 모시는 일이 많다.

2) 자리걷이[176]

옛날에는 장례를 치루고 돌아오는 날 저녁에 만신을 불러 '자리걷이'를 하는 집이 많았다. 자리걷이는 만신이 죽은 사람의 혼이 들어왔다고 하면서 망인의 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한 내용인데, 주로 망인이 상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한다. 그러면 상주들은 그 말을 듣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한다. 자리걷이란 만신이 죽은 사람의 입내를 내면서 망인의 흉내를 내는 것인데, 말하자면 배뱅이굿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176) 김O래(남, 76) 제보

요즈음도 자리걷이 하는 집이 간혹 있지만, 주로 여자들이 모여서 하니까 남자들은 잘 가지 않는다. 요즈음은 자리걷이를 하는데 돈이 천만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비싸서 잘 하지 못한다. 대성동이 태성으로 불렸을 때는 '나리굴 무당'이라고 해서 감바위에 살았던 안순예라는 만신이 와서 자리걷이를 해 주었는데, 그녀는 이 동네의 단골만신이었다. 6·25전쟁 후 이 만신은 마포에서 살았었는데, 나중에 간혹 마을에 오기도 했지만 지금은 고인이 되었다.

3) 상계의 내용 분석

요즈음은 장례식을 외부로 나가 장례식장에서 하니까 각자 알아서 그냥 돈으로 부의금을 내면 된다. 그러나 예전에는 마을에 상계가 조직되어 있어, 마을 사람이 상을 당하면 일정액을 부조하고 운력을 했다. 운력은 계주나 소임이 총괄하여 진행하는데, 계주나 소임은 문산에 나가 상포를 다니며 삼베, 광목 등을 흥정하여 사오고, 젊은 청년들은 장지와 관련된 일을 맡고, 여성들은 주로 상복을 만들거나 아니면 제물 및 마을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일을 맡았다.

부조 상황은 마을에 남아 있는 혼상갑계부『婚喪甲契簿』및 상계부『喪契簿』를 통해서 알 수 있다.『혼상갑계부』는 1967년 1월 22일부터 시작하여 1982년 4월 12일까지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데, 안에는 총 30회의 내용이 있다.『상계부』는 1991년 2월 13일부터 시작하여 2014년 3월 17일까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총 29건의 행사내용이 들어 있다. 1982년 4월 13일 이후부터 1991년 2월 12일 이전까지, 약 9년간의 자료는 없는데, 원래 없었는지 아니면 중간에 분실 되었는지 알 수 없다. 또한『상계부』는 분명히 상을 당했을 때만을 위해 부조를 하고 있는데 반해,『혼상갑계부』는 자료의 이름처럼 혼·상·갑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안에는 혼상갑 중 어떤 상황에서 부조를 한 것인지 적혀 있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그렇다 치더라도 앞서의 자료들을 참고하면 대성동마을에서는 적어도 1967년 1월부터는 상계가 조직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처음 계주는 金O熙(김O희) 씨였고, 소임은 김O래 씨가 맡았다. 상계를 처음 조직할 때 돌린 통문에는 계를 신설한다는 뜻을 적고, 계원들의 이름을 죽 나열한 후 그 밑에 지문이나 도장을 찍게 하여 동참의 뜻을 묻고 있다.

婚喪甲契 新設 通文 서기 1967년 양 1월 23일 계장 김O희(金O熙) 소임 김O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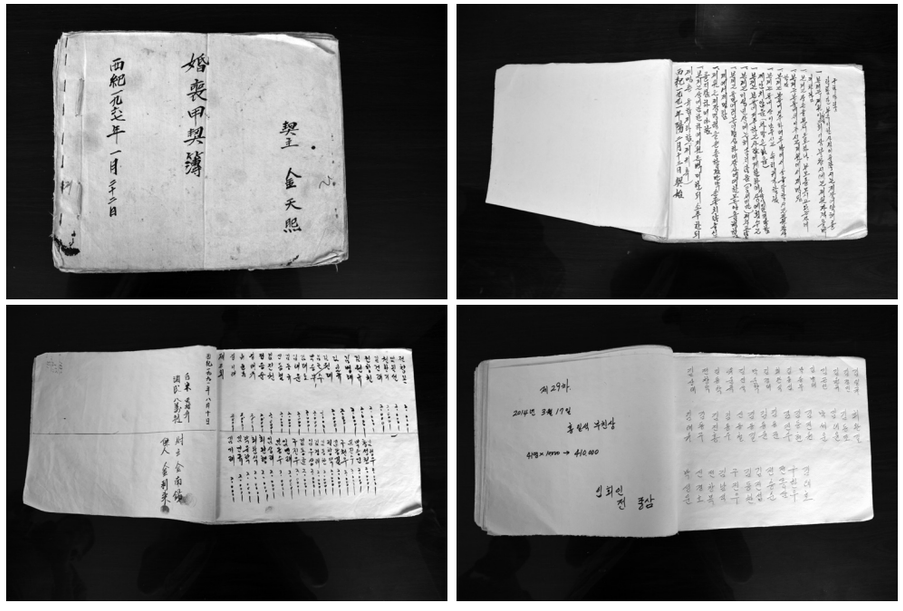
서기 1967년 1월 20일부터 본 계를 신설하옵기 이에 통고하나이다 전 계원은 백미 2되 대전 백 원씩을 지참하시고 유O목 씨 자택으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계원 이름이 죽 나열되어 있는데, 계장 및 소임을 포함하여 전체 이름이 37명임)

이날 아마도 많은 계원들은 백미나 돈을 들고 유O목 씨 집에 모여 마을에서 혼상갑계를 조직하는 일, 회칙 내용, 부조금을 내는 것과 부조금의 액수 등을 정하는데 동의를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혼상갑계부』가 만들어져 있었다.『혼상갑계부』의 표지에는 날짜가 모임 하루 전인 1월 22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까닭에 계주 등은 마을에 부조할 일이 생기자 계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고, 회칙 등을 미리 만들어 놓은 후 계원들을 모이라고 통문을 보내 계를 조직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때 계의 규칙은 다음과 같다. 규칙 내용은 토씨만 한글이고 나머지는 전부 한자인데, 편의상 한글로 바꾸고, 받침도 맞춤법대로 표기하였다.

1. 계원은 계장 명령을 순종할 것. 만약 계장에 명령을 순종치 안을 시는 계에서 제명시킬 것
2. 계원 중 후방에서 상을 당할 시는 하시를 막론하고 전 계원은 참석할 것
3. 계원중지사(契員中之事)가 유할 시 전원 집합할 것
4. 동내지사(洞內之事)를 알고 출타시에는 계주에 승낙 없이 출타치 못할 것
5. 동내지사가 유할 시는 하사를 막론하고 귀가할 것
6. 본동에서 이주 시에는 계원에서 제명됨
7. 본동 거주하며 후방에서 지사를 당할 시는 계원 전원이 행사할 것
8. 契米二升과 代錢 백원은 당일 지참할 것. 만약 불지참 시에는 배상(培賞)할 것
9. 財主가 財差할 시는 保人契員 중 2명을 立證할 것
10. 惜名은 財差치 안음
11. 각 계미2승과 소주 大3斗式 財差함

이러한 규칙을 보면, 혼·상·갑 등의 일이 있을 때 부조금은 계원들 일인당 쌀 두 되씩과 25도짜리 소주로 대두 3말 값을 계원수대로 나누어 그 값을 돈으로 냈던 것 같다. 까



혼상갑계 기록자료(김용성 보유)

닭에 처음에는 계원 1인당 쌀 두되와 100원씩이 배당되었다. 마을에 상이 났을 경우, 이러한 부조금은 상주의 재산에 어떤 보탬을 준다기 보다는 내가 비록 그 집일을 돕더라도 '내 밥 먹는 것은 내가 가지고 간다.'는 의미가 강했다고 한다. 계금을 낼 때는 재주는 제외하고 나머지 계원들만 내고, 계금을 재주에게 전할 때는 보증인을 두 명 세워 그것이 분명하게 전달되었음을 확인하게 하였다. 혼상갑계가 조직된 후 처음 계금을 받은 재주는 신O근이란 사람이었는데(1967. 1. 22) 무슨 일 때문에 받은 것인지는 알 수 없고, 이 때 보증인은 박O대와 김O옥이었다. 그리고 이때 계금은 백미 60되와 술값 2,700원이었다. 계 규칙에 본동, 후방 등등이 들어가게 된 것은 주지하다시피 대성동이란 마을이 출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마을사람들이 자식교육을 위해 후방에도 집을 두고 살고 있어, 본동과 후방 등 이중으로 거주처가 있었던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동에서 완전히 후방으로 이주했을 때는 계원에서 제명처리 하도록 했다. 1973년이 되면, 술값이 완전히 배로 뛰어 부조가 백미 2되에 술값이 200원이 되었다. 1974년에는 또 2배로 되어 술값으로 내는 돈이 각자 400원이 되었다. 1981년에는 술값이 1,200원이다.

1991년 초에 『혼상갑계부』가 『상계부』로 바뀌었다. 김O희 배상으로 되어 있는 2월 16일의 통문을 보면 계명칭은 '유합계'라 하고, 구계는 끝났으므로 신계를 신설한다고 되어 있고, 나열된 기명 밑에 지문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있다. 상계부 표지에는 『喪契簿』서기 1991년 2월 계장 - 소임 전O권으로 되어 있다. 1면에는 계가 양 2월 13일에 시작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계명칭 및 규칙이 나와 있다.

앞의 혼상갑계부와 계의 규칙이 달라진 것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계명칭을 새롭게 '유합계'로 정했고, 상에만 한하며, 백미 한 되 소주 한 되를 지참하는 것으로, 20세 미만을 미성년으로 보고 미성년자에게는 해당치 않는 것으로, 본동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하는 것으로, 그리고 장손을 원칙으로 하나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에 재차하고, 계속하여 2회 이상 불참 시는 계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 하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계장의 양해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부조금은 백미 1되 값도 따로 적어 놓은 것으로 보아 쌀로 낼 수도 있고, 돈으로 환산하여 술값과 합쳐서 낼 수도 있었던 것 같다.

자료를 보면, 1991년, 1992년, 1993년, 1995년, 1996년 등에 마을 어른이 1명씩 사망했고, 1997년과 2000년에 2명씩 사망하다가 2006년에는 마을에서 다섯 분이나 사망했다. 이때는 부조금이 쌀값과 술값을 합하여 7,000원이었다. 그러다가 2008년에 부조금이 10,000원으로 올라 지금까지 이 금액을 유지하고 있다.

1967년도 기록에는 날짜를 양력으로 표기한 것도 있고, 음력으로 표기한 것도 있어 당시에는 아직 양력이 정착하지 못하고, 양력과 음력이 혼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날짜에 양력이라 표시된 것이 1981년 1월까지 나타나고 그 이후에는 없는 것으로 보아, 그 이후에는 완전히 양력이 자리잡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을에 남아 있는 『혼상갑계부』와 『상계부』 내용을 보면, 당시 주민들의 생몰 상황, 쌀값과 술값 등을 통한 물가 상승폭 등을 알 수 있다. 이들 상계부 내용을 더 자세하게 기록해둔다면, 후일 대성동의 중요한 역사자료, 나아가서는 국가의 중요한 사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세밀하게 그 내용을 기록해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4) 현재의 상장례

현재는 사람들이 대개 문산이나 금촌에 있는 병원에서 사망하기 때문에 병원 영안실이나 아니면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룬다. 따라서 이곳에서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별로 할 일이 없다. 요즈음은 상이 나면 영구차를 쓰니까, 그리고 대개는 화장을 하기 때문에 상여를 쓰는 일도, 상여소리를 하는 일도 없다. 전통적인 상장례는 거의 중단된 셈이다.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거의 매장을 했지만 이제는 대부분 화장을 한다. 그리고 한동안은 수목장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대부분 납골당에 모신다. 사람이 죽었다는 부고가 나면, 사람들은 외부에 있는 병원의 영안실을 찾아간다. 그리고 각자 형편에 맞게 부의금을 내고 있다.

6-6 조상님께 드리는 정성 - 제례

1) 기제사

(1) 각 가정에서는 조상들이 돌아가신 날 제사를 지낸다. 이를 기제사라 하는데, 기제사는 장손으로 이어진다.

(2) 김O예 씨(여, 77)의 경우는 친정부모가 아들이 없고 딸만 둘이 있었는데, O예 씨가 맏딸이었다. 친정 부모를 집에서 모셨지만 외손봉사는 하지 않는다 하여 친정부모 두 분은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대신 여동생이 절에다 따로 모셨다. 현재는 남편 제사만 지내는데, 제삿날 음식을 마련하여 제사상을 차려 놓으면 자식들이 와서 함께 제사를 지내고 있다. 김O예 씨는 3월장(醬)은 제사에 쓰지 않는다 하였고, 우환이 있을 때 제사 지내면 우환이 떠나지 않는다 하여,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 남편 제사를 지내지 않고 있다.

2) 시절제

(1) 각 가정에서는 설날과 추석에 차례상을 차리고 조상님께 차례를 지낸다.

(2) 대성동에는 강릉 김씨 외에 해풍 김씨 광곡파도 5가구 정도 살고 있다. 해풍 김씨는 김O규 씨(남, 74)의 할아버지가 이 마을에 사는 강릉 김씨 여성과 결혼하여 여기서 살게 되면서 그 뿌리를 내리게 되었는데, 할아버지의 고향은 원래 탄현 맞은편에 있는 풍덕이었다. 이곳은 지금 이북이 되었다. 할아버지는 슬하에 다섯 아들을 두었는데, 김O규 씨는 넷째 아들이었던 김O택 씨의 아들이고, 현재 마을의 노인회장인 김O규 씨는 막내인 다섯째의 아들이다. 김O규 씨는 6·25전쟁 때 아버지 및 누나와 함께 송포[일산]로 피난을 나갔는데, 그곳에도 폭격이 심해 다시 대성동으로 돌아왔다. 이제는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모두 고인이 되었다. 마을에 있는 해풍 김씨들은 할아버지 기제사는 안 지내지만, 설날과 추석에 차례는 지내고 있다.

3) 시제

(1) 대성동은 원래 강릉 김씨 동원군파 집성촌이어서 마을에는 현재 강릉 김씨가 14~15호 정도 있다. 그리고 마을 주변에 선산도 있다.

(2) 강릉 김씨 동원군파 후손들은 매년 음력 10월 보름에 모여 시제를 지내오고 있는데, 현재도 계속하고 있다. 시제는 원래 음력 10월 보름에 행해왔지만, 요즈음은 사람들이 바빠 평일에 모이는 것이 어려워 10월 보름 전 일요일에 하고 있다. 2014년도에는 음력 10월 15일이 양력으로 12월 6일(토)이기 때문에, 그 전 일요일인 11월 30일 10시 30분경에 모여 시제를 지냈다. 시제에 참여한 후손들은 대략 50여명 전후였는데, 마을에 거주하는 강릉 김씨 후손들과 외부에 살고 있는 후손들이 함께 모였다.

11월 30일 시제를 지내는 날에는 아침부터 많은 비가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약 20여명이 참가했다. 강릉 김씨 동원군파 대성동 종친회장은 외부에서 살고 있는 김O래 씨인데 현재까지 20여 년간 종친회장을 맡고 있다. 1·4후퇴 때 폭격이 심해 가족 전체가 마을을 떠나 현재는 서울에서 살고 있지만, 고향과 뿌리를 생각하여 종친회장을 맡고 있으며, 해마다 시제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한국일보사에 30여 년간 근무한 적이 있다.

회장의 동생 김O래 씨도 이날 시제에 참석했다. 그는 전에 방송PD로서 30년 동안 유머1번지를 비롯한 수많은 KBS 코미디 프로그램을 제작한 바 있는데, 현재는 인덕대학교 방송연예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공채 개그맨을 배출해냈다. 또한 경북 청도에서 진행 중인 한국코미디창작촌 촌장으로 내정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도 한데, 창작촌은 내년 가을에 완공 예정이다. 코미디창작촌은 코미디박물관, 코미디체험관, 코미디극장으로 건평 600평의 150억 프로젝트인데, 완공되면 우리나라 코미디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김O래 씨는 서울에 살면서도 고향 대성동을 잊은 적이 없고, 늘 대성동 출신이라는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왔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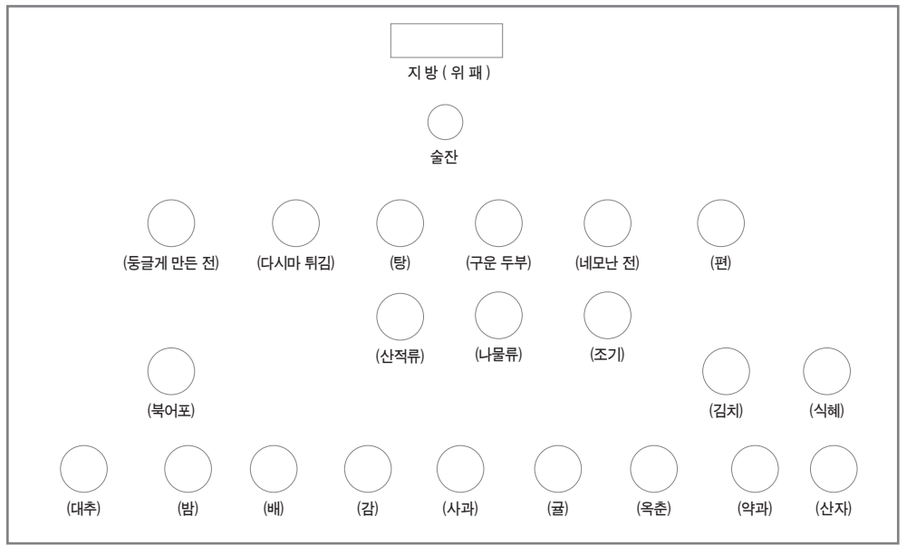
(3) 시제는 처음에는 선산에서 산소마다 찾아다니며 제물을 차려놓고 지냈지만 지금은 마을회관에 모여서 지낸다. 마을에는 O균이라는 강릉 김씨 종손이 있긴 하지만, 종손 집에서만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모두 마을회관에 모여 행사를 하는데, 처음에는 각 집에서 돌아가며 제물을 차렸다. 그러나 이것도 어려움이 있어 지금은 시제 전날 마을에 살고 있는 강릉 김씨 며느리들이 모여 함께 제물을 준비하고 있다. 시제를 마을회관에 모여서 하는 까닭은 날도 춥고 한데 여자들이 제물을 준비하려면 힘들기 때문에 여자들을 배려해서 이렇게 정한 것이다.

(4) 시제의 경비

경비는 종친회에서 부담하고 있다. 1인당 1만원정도 내어 이를 모아서 경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현재 참여하는 회원은 약 40여명 내외이다.



2014년 시제 제물상 차림(김웅래 제공)



(5) 시제의 제물

2014년 11월 30일 시제의 제상은 다음과 같다.

*** 제물의 내용**

– 술 : 예전에는 만들어 사용했으나 요즈음은 사서 쓴다.
– 북어포, – 편(시루떡 종류) , – 탕(무+두부+말린 북어를 불려서 넣음)
– 산적류(한 접시에 밑에는 돼지고기 산적을 놓고, 위에는 소고기 산적을 올림)
– 생선(익힌 조기 5마리 위에 고명 얹기 : 전통적으로는 숭어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현재는 형편에 따라 숭어나 조기를 사용)
– 전류(둥글게 만든 전, 네모나게 만든 전 등 두 가지 전류를 만들어 각기 올림)
– 두부(크고 네모난 두부), –다시마 튀김(네모난 굵은 다시마를 튀겨서 올림)
– 식혜(국물 없이 건더기만 놓음)
– 나물류(고사리·숙주나물·도라지 등을 익혀 같은 접시에 담고 위에 고명 얹기)
– 과일류(대추·밤·배·감·사과 등 : 높이를 약 20㎝정도 괴어서 놓기)
– 과자류(옥춘, 약과, 한과(산자))

* 옥춘은 오색의 사탕이다.

* 과일 중 귤은 원래 놓지 않는 것이지만, 이날 조사자가 선물로 가져갔기에 성의를

생각하여 올린 듯하다.

* 이 외에 전통적으로 '물쌈'이라는 것을 올렸다 하는데, 이 날은 바빠서 미처 만들지 못했다 한다. 물쌈이란 만두와 비슷한 모양의 음식이다.

(6) 시제의 방법 및 순서

11월 30일의 시제는 마을회관 1층에서 오전 10시 30분경에 시작하여 오후 12시 10분경에 끝나 전체적으로는 1시간 40분정도 걸렸다. 의식의 방법이나 순서는 전통적인 유교식이었는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산신제를 지낸다. 원래는 산에서 지냈던 것이지만, 이제는 시제를 마을회관에서 지내고 있기에 이 날의 산신제는 마을회관 옥상에서 지냈다. 제물은 간단히 주?과?포 정도만 마련하고, 의례는 일을 맡은 1~2인이 진행한다.

② 시제를 받는 신위는 강릉 김씨 시조 김주원으로부터 계산하여 27세손인 수종부터 시작하여 37세손까지다. 모두 합하여 182신위다.[177] 이들 조상들에게 한꺼번에 제사를 드릴 수 없기에 전부 6개의 액자를 만들어, 각각의 액자 안에 조상들을 세대별로 분류하여 ~신위라 적고 지방을 대신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시제를 지낼 때는 6개의 액자를 순서대로 바꾸어 놓고 지방을 대신하면서 제를 지낸다.

1번째 액자 : 27세 조상부터 31세까지 조상의 지방으로, 부인까지 합하여 10신위
2번째 액자 : 32세 조상부터 33세까지 조상의 지방으로, 부인까지 합하여 11신위
3번째 액자 : 34세 조상의 지방으로 부인까지 합하여 20신위
4번째 액자 : 35세 조상의 지방으로 부인까지 합하여 36신위
5번째 액자 : 36세 조상의 지방으로 부인까지 합하여 53신위
6번째 액자 : 37세 조상의 지방으로 부인까지 합하여 52신위

현재 대성동에 살고 있는 강릉 김씨 후손들은 효자 정려문을 받은 김정주를 중시조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의 아들 4명으로부터 후손이 퍼져 오늘날의 대성동 강릉 김씨가 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김정주와 그의 아들 4명 및 그들의 부인이 되는 분들의 신위는 바로 2번째 액자 속에 모셔져 있다.

③ 시제는 액자를 바꿀 때마다 다시 신위 숫자대로 술잔을 바꾸어 놓고 술을 올리며 축을 읽은 후 절을 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보면 동일한 제의가 6번 행해진다고 볼 수 있다. 6번의 제의 때마다 초헌과 종헌은 종손인 O균 씨가 맡고, 축은 김O래 씨가 읽고 있는데 일일이 액자 속의 모든 신위들을 다 호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린다. 아헌은 위계가 높은 후손으로부터 시작하여 낮은 후손 순으로 골고루 돌아가며 술잔을 올린다. 그러므로 제의가 끝날 때쯤 되면 시제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아헌을 통해 전부 한 번씩은 조상님께 골고루 술잔을 올리게 된다.

④ 액자가 바뀔 때마다 액자 속의 신위 수만큼 술잔을 올리므로 어떤 경우는 제상에 많은 수의 술잔이 놓이게 되는데, 이는 다른 지역의 여타의 시제와 비교하면 매우 이채로운 모습이라 할 수 있다.

⑤ 액자에 신위를 적어 지방으로 사용하고 있기에, 제의가 끝난 후 지방을 불사르는 의식은 하지 않는다.

⑥ 모든 액자는 그대로 김O래 씨 댁에 보관했다가 다음 시제에 다시 사용한다. 신위명, 축문, 홀기 등을 적은 작은 책자도 동일하다. 제기·제상 등은 마을회관에 보관한다.

(7) 제물의 처리 방법

시제가 끝나면, 제물을 마을회관 식당으로 옮겨 점심 때 나누어 먹는다. 이날 식당에서는 50여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함께 점심을 먹었다.

177) 27세 조상은 수종, 28세 조상은 만성, 29세 조상은 일범, 30세 조상은 극경, 31세 조상은 성선, 32세 조상은 효자 정려문을 받은 정주이고, 33세 조상은 정주의 4아들인 영우, 영두, 영기, 영정이다. 현재 대성동에 사는 강릉 김씨 후손들은 정주의 네 아들의 후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8) 시제 지내는 모습



2014년 시제 지내는 모습(김웅래 제공)



7 민속신앙과 민간의료

7. 민속신앙과 민간의료

7-1 마을사람들의 신앙생활

1) 개관

대성동 마을은 6·25사변이 나기 전부터 강릉 김씨가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던 오래된 마을이다. 마을에서는 해를 걸러 큰 규모의 마을 대동굿을 열었으며 마을 입구 언덕에는 서낭나무가 있는 서낭댕이가 있었다. 대동굿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으며 서낭고사도 역시 6·25 이후에 지내는 이가 없어졌지만 10월 가정고사를 지내는 집은 지금도 남아 있다.

대부분의 가정은 농사를 짓고 있어서 추수가 끝나면 집안 곳곳에 떡을 올리는 10월 상달 가정고사를 지냈다. 지금도 신체는 남아있지 않지만 10월 말날이면 가정고사를 지내는 집이 5-6가구가 남아 있다. 이 역시 시어머니가 위하던 것이라 며느리가 이어받아 지내기는 하지만 그 내력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다니는 절에서 고사 날을 받아오는데 주로 추수 후 10월 상달에 오는 말날을 고사 날로 잡는다. 마을 안에 교회가 있기는 하지만 군인들이 중심이며 마을 부인들은 인근에 있는 절에 다니는 사람이 더 많다.

이 글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마을에서 살아 온 김0례씨, 박0선 씨로 부터 대동굿에 대한 내용을 구술조사 하였으며, 김0애 씨 댁의 가정고사 사례를 구술 조사하여 가감 없이 기술하였다. 2014년에는 9월 윤달이 든 해로 음력 10월이 양력 11월말 12월로 늦어졌고, 대성동 일대의 중요 행사인 장단콩 축제 행사가 늦어도 이 일들을 모두 끝내고 나서야 고사를 지냈다.

2) 마을 대동굿

덕물산 무당촌과 최영장군 굿

대성동에서 가깝게 보이는 곳에 덕물산이 있다. 이 산은 예전부터 최영장군을 모신 무당들의 굿으로 이름난 곳이다.[178] 김0례 씨의 이야기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거기가 전부 다 무당촌이에요. 전부 다 기와집인데 만신집이라 해가지고 전부 기와집이에요. 그전에 나무도 큰 게 보였어, 근데 그 나무 6·25 전쟁 때 비행기 폭격을 하더라고. 그러더니 그때 파괴된 거 같애. 그리고 나서 영 못가더라니깨! 그러더니 나무도 없어지고 다 없어진 거 같애. 그때 당시 전부 다 기와집이야. 그때 당시 최영장군 상을 모셨더라고. 최영장군. 왜 티비 드라마 정도전에 나오는, 정도전에서 나오는 최영장군 흉상이 거기 있어. 근데 스님도 아닌 거 같은데 알 수가 없어. 최영장군 상을 모셔다놨더라고. '저분이 최영장군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최영장군 상을 봤어. 들어갈 때 본관 문에는 문지기가 아주 큰 칼을 들고 서 있는데 아주 무서워 보여요. 근데 무서워하면 죽는다고. 문지키는 뭐지? 수문장인가? 아주 험하게 생겨가지고 눈을 딱 부릅뜨고 칼을 들고 서있어서 아주 무서워요.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 때 봤는데, 한 세 번을 갔어. 안에 들어가면 최영장군 상이라고 하더라고. 그땐 뭐 최영장군이 누군지 알았어요? 동상으로요 상체만 한 거 같애, 기분으로. 하체는 없고 상체만. 그땐 한 반이 전체 다가 선생님하고 같이 갔는데 카메라가 없이…"

> "여기 앞에 동산 앞에 쭉… 그 가운데 넘어서, 동산 하나 더 넘어서 갔어. 이 앞산 하나 걸쳐서 갔어. 아유~ 거기 올라가는데, 거기가 높아요. 계곡물이 콸콸 내려오고 나무가 많았어. 다른 건 없고, 다 절로 봤어. 거기서 구경하는데. 그리고 그 꼭대기에 마당

178) 최영장군은 고려 말의 장수로서 수차례의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을 막고 원나라 원병과 내란 평정 등 혁혁한 공을 세워 고려를 수호한 인물. 그는 억울한 죽음 이후 무속신으로 좌정되었다. 이중환(李重煥, 1690~1752)의 『택리지(擇里誌)』에 덕물산과 최영장군사에 대한 언급이 있다. 몇몇 자료에서 당시 덕물산도당굿이 매우 웅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꽤 넓어요. 산 정상에 마당이 있고 거기에 고목나무가 3대째 있었는데. 고목나무가 한 쪽이 썩어들어 갔더라고, 사람이 이렇게 들어갈 정도야. 고목이 컸어. 그래서 거기서 좌우간 소풍, 가져간 도시락 먹고. 최영장군 상은 절 안에 그렇게 모셔놨더라고. 신당처럼 꾸민 데야. 굿도 하고, 꽹과리 치는 소리도 나고 그러더라고, 그 아래서.
옛날에 말이 있어. '동모산 강아지 북어다리 찾는 듯 한다.'고… 왜냐면 북어다리라고 우리나라에서 잡는 명태를 말리잖아. 말리면 딱딱하잖아. 그 명태를 불공에 드리면 누가 가져가나봐? 그니까 동모산 강아지가 그걸 제일 많이 먹었나봐. 하는 사람마다 가져가니까. 그저 그런 말이 있어요. 그냥 농담 삼아. 마을에서 북어를 많이 사가니까 동모산 강아지가 북어를 자주 찾는다, 그만큼 동모산 강아지는 북어대가리를 많이 먹었겠지. 그 꼭대기 올라가면 서해바다 내려다 뵈요, 서해바다. 우리 학교는 저기 있었거든. 여기서 한 1킬로? 광명리라고, 여기서 한참 가다보면 학교가 있더랬어요."

"방울 굿이 달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면, 굿을 크게, 소문이 크고 먹을 게 많을 것처럼 갔는데 거긴 먹을 게 없다. 근데 방울굿이라고 하는 건 조그맣게 하는 거란 말야. 그런데서 짭짤하게 먹을 게 많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야. 방울을 키에 다 긁는다는 거는 키에 다 긁으면서 만신들이 하는데 우린 뜻을 모르지. '방울굿'이다 하는 건 조그만 굿을 방울굿이라고 하는거야. 방울을 달고 이렇게 하면 짤랑짤랑 소리가 나잖아요. 방울굿을 하도 본지가 오래되어가지고… 굿판을 보러 다니는데 하도 신기해가지고요."

마을 동네굿, 대동굿

대성동에서도 예전에는 마을 공터에서 대동굿을 크게 했던 마을이다. 6·25전이었다는 의견과 그 이후에도 몇 년마다 한 번씩 굿을 했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70대 할머니들의 기억 속에는 굿판에서 00가 무당을 따라 뛰다가 팔이 부러졌다는 등의 추억이 남아있다. 또한 마을에서 오랫동안 굿을 맡아했던 한0임 만신이 지금도 살아있다. 금촌에 살면서 인근 굿을 맡아 왔는데 지금은 아들에게 물려주고 울산에서 무업을 하고 있다.[179]

179) 한0임 만신은 대성동 대동굿과 당시 굿에 참여했던 마을 할머니들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 면담조사를 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아 있으며 재현이 가능한 상태임을 확인 하였다.

"마을에서도 굿을 했어요. 마을 집에서. 가정집에서. 개인적으로 굿을 하는 집이 있고 동네굿이라고 해서 일 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동네굿을 한 적이 있어요. 임시적으로 신당을 짓고. 지금처럼 하우스에다 하면 좀 좋아? 그때 하우스가 어디 있어요? 비닐이 있어요? 아무 것도 없어. 포장만 이렇게 둘러막고 했지. 그러니까 비가 오면…
굿은 연말이 아니면 봄이지 않나? 연말 같기도 하고 봄 같기도 하고. 연말이면 정초였을 거고. 일 년을 편안하게 해달라고 했으면 정초 같애. 정월대보름에는, 그때는 안하더라고. 그때는 안하고 그때 일 년을 편안하게… 그때는 홍역마마 같은 걸로 아이들이 많이 죽었어. 나는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걸 많이 목격했어."

"여기서 굿할 때에는 너릿굴 무당[180]이라고, 너릿굴이라고 있어요. 그 분이 아주 우리 동네 단골무당이야. 너릿굴이라고 하는 만신이 전부 굿을 책임지고 하는 거야. 뭘 갈아입으면서 의식을 하더라고. 다른 무당들도 같이 쫓아와서, 무슨 보조무당이 두 세 사람, 장구도 치고 징도 치고 그랬지. 부는 건 못 봤는데, 장구하고, 양쪽에 이렇게 동그랗게 달린 건데 그거 두 개 치면 소리가 아주 잘 나잖아. 지금 굿 안한지가 몇 십 년 됐으니까.

"굿은 대동굿이라고 해서 동네를 위해서 지내고. 우환이 있다고 하면 만신의 힘을 빌어 굿을 하면 낫는다 해서 굿을 많이 했지."

3) 대성동마을에 전하는 가정고사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대성동에서는 지금도 10월 상달이면 집 고사를 지내는 가구가 여러 집이 있다. 이 마을의 경우 농사일은 쌀농사 추수가 끝나고 파주 임진각에서 매년 열리는 '장단콩 축제'가 끝나야 한 해의 바쁜 일이 마무리 되는 터라 집 고사를 지내는 날짜도 이 상황에 맞게 조정을 한다. 시어머니 때부터 음력 10월 보름경 말날을 기준으로 하기는 하지만 지금은 상황에 맞게 제의날짜를 정하고 있다. 절에 다니는 부인들의 경우 스님에게서 혹은 간혹이라도 다니는 만신에게서 택일을 받아오기

180) 한0임 만신으로 당시에는 금촌에서 살고 있었으나 지금은 아들에게 일을 넘기고 본인은 울산에서 지금도 무업을 하고 있으며 대성동 대동굿을 잘 기억하고 있다.

도 한다. 2014년에는 윤달이 끼어 음력 10월이 늦어진 터라 추수 후 음력 10월이 되기 전에 먼저 지낼 수도 있었지만 11월 '장단콩 축제' 행사가 끝난 후에 주부 혼자 간단히 지내고 말았다.[181]

집 고사를 지내는 부인들이 동일하게 말하는 제의 절차는 "시루떡을 금촌 방앗간에서 해다가 시루 채 상에 올리고 혼자 절 세 번하고 여기저기 덕 띠다 놓고 끝나는 거지 머! 이웃에 떡 좀 나눠 주고…"라는 것으로 간단하다.

"농사하고 하면 시월 달에 떡을 해놓고 '고사 지낸다'고 하죠. 각자 조그맣게.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집안 편안하게 해달라고 하고, 비시고… 지금은 하는 사람 없어요. 고사떡을 만드는 사람은 내가 봤어. 동네에서. 어머니가 하실 때는 혼자서 하지, 개인 가정에서 고사지내는 건 혼자 해요. 남자는 그런 거 안 하고 여자가 하지. 여기 동네는 여기, 박0구씨네라고, 거기 보면 매년 고사떡이라고 가져오는 거 보면은 거긴 하는 거 같애. 가서 하는 건 난 못 봤어. 거긴 일 년에 한 번씩 고사떡을 가져오니까 거긴 지내는 거 같애. 잘 되라고 편안하게 잘 나라고 잘 돌려요. 거기 풍습이 있어. 작년에도 우리 집에 가져온 걸 기억해."[182]

김0애 씨댁 10월 고사

제보자 김0애씨는 24살 때 일산에서 중매결혼을 하고 마을에 들어와 지금까지 살고 있다. 시어머니 때부터 지내오던 고사를 지금도 이어서 하고 있다. 시어머니는 굿하는 것을 즐기셨고 단골로 다니던 만신집이 있었다.

내 살아온 내력

"나는 24살에 시집 왔어. 일산에서 대성동으로. 금촌 사는 외사촌 형부가 중매해서 왔는데, 그때 남편은 금촌 산다고 했어. 우리 오빠 동기야, 학교를 통학 했어 같이. 우리 친정오빠하고 잘 안다 그랬어. 그래서 그냥 하루 만에 왔어. 나는 결혼식은 파주서 했어. 금촌예식장에서. (결혼식 날 시댁에 와 있는데) 아랫집 아가씨가 와서 '이 동네 시집오는 사람들은 친정들이 다 가난하다'고 그러더라고, 나 듣는데… 먹지 못해서 일로(이리로) 시집온다고. 나 시집와서 우리 엄마가 매일 울었어. 나 중매해준 사람이 우리 외사촌 형부야, 우리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형부하고는 말을 안했어. 나 여기로 시집온 거 때문에. 집에도 못 오게 하고. 여기는 엄마가 맘대로 들어오시지도 못했으니…"

"내가 처녀 때 직장 다녔어요. 그때도 매주 산에 들에 등산하고 놀러 다녔는데 이 구석진 데로 시집와서 좋았겠나. 시어머니도 둘이고, 시동생도 줄 줄이고. (시어머니는) 우리 제일 큰 시어머니, 25살에 혼자 되서 애기도 못 낳고 같이 계셨고, 시동생들 줄줄이… (친정도) 농사짓긴 했어요. 대화리, 대화동. 지금은 완전히 번화가가 됐지. 요즘 아파트들 막 짓고 보상도 막 받고 그러는데… 그때는 집밖으로 막 나가지도 못했어. 시어머니도 둘이고 뭐, 목욕도 못 다녔어요. 지금이야 막 차 끌고 가지. 그때는 목욕을 집에서 그냥 물 데워서 하는 거지. 함지박에 물 데워놓고."

제물 준비와 고사 상차림

"차리는 거는 과일 세 가지 사과, 배, 감. 떡하고 물, 아니 막걸리하고. 떡은 시루떡으로 하고… (시루떡)분량은 한말 정도? 옛날엔 떡을 많이 먹어서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잘 안 먹으니까 한 말 해서 나눠먹죠. 지내는 거는 저녁 때, 한 네다섯 시 정도? 지내는 거는 혼자도 하고 우리 형님도 같이 오시고… 형님은 (같이 와서 지내는 건 아니고) 그냥 보기만 하고… 시루떡은 한 시루만, 방앗간에서 했죠. 옛날에는 집에서 다 쪘지만…그게 한 10년 됐죠? 시어머니 여기 사시다가 십년쯤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시어머니 계실 때는 시어머니가 하시고 돌아가시고 나서는 내가 하고 (집에서 떡을 직접 할 때는) 가루 빻아다가 팥 해놓고… 시루에 안치고, 내가 할 때부터 방앗간에서 했지 싶어요."

지내는 날

"지내는 날은 말날, 말날들만 지내더라구요, 시월 보름 때쯤 말날에… 농사짓고 쌀 나오고, 그럼 그냥 지내더라고. 일찍 하면 일찍 하고 늦게 하는 사람은 늦게 하고. 그때 가서 정해요.

181) 현장조사를 미리 약속을 한 상태였으나 막상 지내는 날에는 주부들이 연락 없이 지내버려 현장은 기록으로 남기지 못하였다.
182) 김0례, 대성동 마을 주민

신체와 지내는 절차

"절은 혼자 해요. 절 세 번 하고, 그냥 아무 말도 안해. 속으로는 뭐, 집안 편안하게 해 달라고 하지. 상은 여기 마루에 차리고, 떡만 그냥 장독대에 하나 놓고, 마당에도 놓고… 상은 따로 두 곳에 차려요. 시루는 마루에만 하고 그걸 잘라서 안방 상차림에 올려놓고, 안방에는 상을 차리는 곳이 있는데 왜 거기 두는 건지는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그런 거 하는 사람한테 들었더랬어."

"(고사를 지내는 방식은) 여기서도 절 세 번하고 안방에서도 절 세 번하고, 그리고 시루에 있는 떡을 방 있는 데마다 떼어다 놔. 조금씩 띠어다가 종이에다가 놔. 장독대에는 돼지고기, 과일하고 물하고 막걸리하고 떠다놔. 안방하고 장독대에만, 그리고 마당에다가 떡 접시 놓고. 돼지고기는 덩어리로 삶아서 방엔 안가고, 마루하고 장독대에만 (돼지고기) 올려 놔. 마당에는 문 앞에 놓고, 안방에는 칠성인가? 그래서 고기를 안 놓고, 깨끗한 물… 장독대에는 막걸리 놓고. 왜 그러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 성주는 마루에, (성주는) 이집 주인. (집터는) 밖에 나가서 하는 게, 터에… 문 앞에서 하는 게, 여기는 뒷곁이 없어서 문 앞에서 하는 게, 그게 터에 하는 거지. (터줏가리 같은 거는)옛날 할머니들 계실 적에 해놓을지 몰라도 지금은 없어. 우리도 30년 전에 이 집으로 내려왔어. 저기 위 헌집에서. 이 집이 한 80년도에 지어놔서 내려온 집이야. 우리 집에, 옛날에 지금 군인부대 탑 씌워놓은 거기 앞 밭, 거기가 우리 집 터였어. 거기를 다 허물고 이쪽으로 내려 온 거지.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시어머니가 다 하시고 나는 옆에서 거들고 그랬지. 시어머니가 빌고 덕담하시고 다 하시고 나는 심부름만하고… 그때도 (성주, 터주)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놓고 지내신 건가봐. 내가 이쪽으로 올 때 하나도 가져오지 않았어. 시어머니 같이 오셨는데도. 그때는 다 우리가 손으로 직접 지은 집이었지.

"그때, 옷 해서 선반위에 올려놓은 게 박스채로 놔뒀어요, 그걸 뭐라고 했나 모르겠어…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없어. 만신 못지않게 잘 하시는 할머니들 몇 분이 계셨는데 우리 큰어머니도 빌고 하는 거, 말도 잘 하셨는데 돌아가셨고… 요새도 정성스럽게 지내는 집은 박씨네, 박0부씨네. 요즘 좋은 세상이야, 어떻게 여자들 그렇게 하고 살았나싶어. 나 시집올 적만 해도 시어머니한테 꼼짝 못하고 이렇게 사는가보다 했는데…"

'49제는 안 해도 자리걷이는 해 달라'고 하신 시어머니"

김0애씨 댁에서는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종종 굿을 했다.

"이 마을에는 강릉 김씨가 많은데 우린 할머니가 강릉 김씨구요, 우리 시어머니의 시어머니도 강릉 김서방네 딸하고 하고, 시아버지가 해풍김씨, 해풍 김씨도 여기 여섯 가구야. 우리 친형님이 위시고 4촌이 있어요, 여기 동네. 친형님도 살아계시고, 김0순이. 큰아주버님은 김0규, 일찍 돌아가셨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그랬어. '난 49제는 안 해도 자리걷이 굿은 해라!' 하고." (그때 불렀던 사람은) 지금 김포에 있어요. 김포 청원사라고, 아시나 몰라. 그 분 문화재로 있다던데, 뭐 김간난이라고 청와대도 갔다 왔다던데… 아 맞아요, 그 황해도 굿하시는… 그이가, 여기가 덕물산이잖아요? 여기 덕물산 최영장군이잖아, 여기서 만신 내린 사람이잖아, 그이가. 여기서 아홉 살에 만신 내려갔대. 근데 거기 굿할 때 가 보면은, 가을에 한 번 굿하거든. 자기 집에서. 그러면 대학교 교수들, 그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 카메라 들고 사진 찍으러. (지금도 이 분한테) 간혹 가지, 일 년에 한, 두세 번. 혼자. 저 부적도 거기서 가져 온거고…"

"(마을에 대동굿은) 김간난씨는 아니고, 그 분은 우리 집만 왔어. 우리 집 많이 왔어.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무슨 굿이지? 자리굿인가? 자리걷이? 그거, 지금들은 많이 안하는데 그때는 많이 했잖아…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그이들 불러서 굿을 해드렸지. 굿할 때 준비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다 해가지고 왔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했으니까 십년 넘었죠. (어머니) 묘소는 여기 돌아가면 조산, 여기 돌아가면 그 옆에 묘가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집 밭 앞에."

김0애씨 댁에서는 지금도 시어머니, 시아버지 제사를 지내고 있다. 제사는 밤 열시쯤에 지낸다.

"우리 시아버지는 음력으로 2월 초하루, 시어머니는 8월 초이틀. 그런데 올해는 좀 다를 수도 있는 게 친척 결혼식이 있어. 결혼식이 있으면, 그 무렵에 결혼식이 있으면 제사를 안 지내긴 한데, 그 무렵에만 안 지내요."

이 마을의 경우 어르신들은 오래전에 중단된 마을 대동굿에 대한 기억이 예사롭지 않아 다시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남아 있다. 10월 가정고사를 지내고 있는 부인들은 며느리에게 물려줄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을 지낼 것이라고 하였다. 대성동 마을의 중요한 전통문화 자원이 아닐 수가 없다.

7-2 병원이 없던 시절의 의료생활

대성동 사람들은 아프면 어떻게 했을까? 최근에는 대부분의 가정이 자가용을 갖고 있어 가족 중 누가 아프면 문산이나 금촌 등에 있는 큰 병원을 가거나 아니면 약국을 이용하여 치료를 한다. 그러나 예전에는 왕래가 자유롭지 못하여 가정에서 치료를 해야 했다. 여기에서는 이와 같은 치료방법을 소개해 보기로 한다. 이들은 대개 전통적으로 내려온 민간요법에 기초하고 있다.

1) 김O예 씨(여, 77)의 민간요법

김O예 씨는 6남매를 낳고 길렀다. 18세에 결혼을 했는데, 휴전이 되고나서 바로였다. 첫 아이를 낳았을 때는 아이가 아프면 문산 같은 곳에 있는 병원에 가기도 했었는데, 이 때는 대성동 주민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만 외부로의 출입이 가능할 때라 한번 외지로 나가면 일주일 후에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어 여러 가지 불편이 많아 그냥 집에서 아이들을 치료해보려고 했다.

(1) 경끼

아이마다 경끼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경끼라도 병원에 갈 줄 모르고 노인들이 가르쳐주는 예방을 따랐다.

"아이가 경끼가 나면 아이의 멱살을 붙들구 다리를 붙들구 거꾸로 들구서는 방문 문지방에다 조금씩 이렇게 툭툭 갈기면서 "또글련(또그럴련), 또글련(또그럴련), 또글련(또그럴련)" 그렇게 세 번을 그러드라구. 그게 예방이래요. 노인네들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뉘어놓으면 또 그렇게 살아나요. 그렇게 하드라구요. 그런데 나중에는 또 그게 저거하지 않으니까 병원에 가고 그랬지."

또글련이 무슨 뜻인가를 물으니, 그건 "또 그럴거냐?" 이거겠지 라고 설명했다.

(2) 감기

감기 걸려서 열이 나고 하면 콩나물에 파를 넣고 끓여서 먹고 땀을 내곤 했다. 당시는 콩나물을 집에서 길러서 먹었기 때문에 집에 없으면 이웃에서라도 얻어다 먹었다.

(3) 배탈

배탈이 나면 옛날에는 양귀비를 길렀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끓여서 먹으면 나았다. 양귀비 중에서도 특히 대를 삶아 먹었는데, 지금은 양귀비를 키우면 걸리기 때문에 집에서 키울 수 없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도 장염 같은 것에는 양귀비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다.

(4) 홍역

옛날에는 애기들이 홍역을 많이 앓았는데, 그러다 죽기도 많이 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프락(지푸라기)을 삶아서 그걸 조금 먹이면 명을 넘기는 것 같았다. 나중에는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오면 나았는데, 한 때는 일주일에 한번 밖에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병원에 한번 가면 일주일 있다가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

"옛날에 우리네 자랄 때는 여동생이 죽었어. 여동생이 6살에 홍역을 했는데, 다 나았거든요. 다 나았는데, 아주 많이 얽었어. 그랬는데, 나아서 놀았는데 개병이 났어요. 개병이 났는데 죽었어."

개병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재발했다는 뜻이다.

(5) 눈다락지

눈다락지가 나면 속눈썹을 뽑아서 저고리 섶에 넣고 실로 총총 묶어 놓으면 낫는다.

(6) 학질

학질을 앓으면 예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 어떤 사람들은 산속에 가서 3번 재주넘는 사람도 있었다. 그녀의 경험담은 다음과 같다.

"내가 그 전에 학질을 앓았는데, 아부지가 '너 학질인가 보다. 너 자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러시더라구. 그래서 다니면서 오디를 따주는 거야. 오디를 따주는데, 따 주는 거를 기껏 먹은 거를, 우물에 데려가서 그냥 찬물을 낀지는 거야 나를. 그러니까 오디 먹은 거를 찬물을 낀지니깐 금방 설사가 나드라구. 그러니까 설사를 자꾸 허며는 열이 빠져 나가는 거야. 그런 이치지."

(7) 손아리기

손이 이제 새끼손가락을 앓으면 그전에 우리 아버지가 그걸 했어요. 바시가 있어 바시. 침 말고 침보다 큰 거. 바시루다 째고 짜구.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그런 걸 잘 했어요.

(8) 이가 아플 때

이가 아프면 우리 아버지가 이도 잘 빼고. 이가 아프면 방울찝게라구 요만한 거 있어요. 그러면 고걸 이빨 속에다 넣고 확 잡아당기면 뽑아지는 거야.

김O예 씨의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의 이를 빼주기도 했다. 옛날에는 치과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를 직접 뽑기도 했다. 방울집게는 대장간에 가서 만들어 왔다. 방울집게는 동그랗게 생겼는데, 손톱깎이 모양으로 생겨서 누르면 집을 수 있게 생겼다. 피가 나면 피를 그냥 입에 물고 있다가 뱉게 하였다. 뽑은 이는 지붕에다 던졌는데, 윗니를 빼면 안 지붕에다 버리고, 아랫니를 빼면 아랫지붕이나 바깥지붕에 버렸다.

(9) 머리 아플 때

머리가 아프면 천마술을 먹었다.

"내가 옛날에 머리가 무척 아팠어요. 아유, 내가 쌩골이 무척 아팠는데, 우리 아버이가 만날 저거했는데, 아이 그냥 일 갔다와서 그냥 쌩골이 아프면 그냥 속이 미식미식해. 그러면 마루에 가서 드러눴다가 가라 앉으면 일어나고 일어나고 했는데, 영 그게 안 났어요. 근데 천마술 있지? 천마술이 약이야. 천마술을 저녁에 잘 때 요런 잔으루 하나씩 그냥 먹고 자면, 그게 한 두 번 먹어서는 안 돼. 오래 먹어야 돼. 근데 어떻게 하다 났어요. 그거 먹고."

(10) 개한테 물렸을 때

개한테 물렸을 때는 물은 개의 털을 베어다 태워서 재를 상처에 바른다. 또는 재를 기름에 개어서 바르면 나았다.

(11) 치병 굿하기

김O예 씨는 남편이 당뇨로 아팠을 때 만신에게서 두 번 굿을 한 적이 있다. 처음에 굿을 했을 때는 효과가 있었으나 1년 후 병이 재발이 되었다. 그래서 다시 굿을 했는데 이때는 효과를 보지 못해 병원을 다녔다.

2) 마을회관에서 들은 민간요법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에게 들은 민간요법들이다. 지금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어릴 적에는 병원에 가기가 힘들었지만 자신의 아이를 키울 적에는 병원에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직접 해본 민간요법에 대한 구술도 하였지만 어머니나 시어머니께 전해들은 이야기들도 있었다.

괄호 안의 내용은 조사자의 말이며 각각의 주민들의 이야기를 구술체로 수록하였다.[183]

(1) 홍역 : 홍역은 아이들이 많이 걸리는 전염병이었으나 병원에 가는 것 이외에 치료를 위한 비방이 따로 없는 무서운 병이었다. 쉽게 전염되는 병이었기 때문에 밖에서 전염되어 온 홍역은 '뜬 홍역'이라는 말로 불렀다.

(아이가 홍역에 걸리면 어떻게 했어요?)
김O순 : 홍역 걸려두 그냥 놔두면 죽다 살아나던데? 누가 어디 데리고 갈 데가 어딨어요. 그러구 보니 OO이가 홍역이 속을 기어들어가서...
김O연 : 우리 정호 정숙이도 그랬잖아.
(속으로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김O순: 빨갛게 나왔던 게 속으로 다 들어가면 아이가 숨이 차서 (숨을)못 쉬어요. 쪼그마니깐 논구탱이 다니면서 막 찬물에다 (씻기고) 서너살 먹어서..아이구 그 땐 병원두 없구 여기엔 차로 나갈 수도... 이렇게 버스도 없었어요.
(그럼 방액, 비방이 뭐 였어요?)
김O순 : 아니 비방이 어딧어요. 그때는. 그냥 죽다 살아나는 거예요. 지덜 명이 기니까 사는 거죠.
김O연 :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 지금은 아주 해방된 거예요.
김O순 : 그래서 그 때 한 아이가 죽었지. 왜 그랬냐면은 그게 뜬 홍역이라고 해갔고 들어왔었어요. 그 때 다들 죽다 살아났는데..
(뜬 홍역이 뭐예요?)
김O순 : 묻혀 들여 온 홍역. 남에게서 옮아 온 거.
김O연 : 남의 동네에 갔다 오면 옮아오는 거. 홍역하면 가지 않아야 돼.

(2) 뱀 물린 이야기

"뱀 물렸을 적에 일산 고모가 데리고 병원에를 쫓아갔는데 멸공관 가서 비행기 타고 가는데 계속 4시 반에 물렸다고 그랫데. 일산고모도. 생각이 안나가지고 낮에 물렸는데. 4시반에 물렸다고. 멸공관에서 헬리곱터 타고 저기 용산으로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도 4시반에 물렸다고 했데. 그때는 병원에도 안 가 버릇해서..."[184]

(3) 이 아플 때

이가 아플 때는 볶은 파씨를 담갔던 물을 입에 물고 있으면 아픈 게 좀 나았다. 직접 해본 것은 아니고 어른들이 그렇게 하면 아픈 게 덜하다고 하신 말씀을 들은 것이다.

(4) 광견병 걸린 개에게 소가 물려 죽은 사건

이전에는 광견병에 걸린 개에게 물려 사람에게 병이 옮기도 했다. 대성동의 경우에는 마을에 주둔해 있는 부대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한달동안이나 치료를 받아야 했다. 어느 날은 광견병에 걸린 개가 소를 물어 그 소에도 병이 옮아 전염을 막기위해 도축한 일도 있었다.

김O연 : 옛날에 그 미친개가 물어가지고 죄 저 병원에 저 미군병원에 댕겨서 고쳤어요. 아주 한 달은 댕겼나봐. 개가 미쳤는데 물면은 사람도 미친데.
홍O순 : 그 때 누가 물렸드랫지?
김O연 : 그 때 정수네 개가 여럿사람 물어서.. 소도 물어서 미쳐서 죽었자나. 사람도 우리 할아버지랑 여러 사람 물어서 맨날 미군병원에 가서 그거 한 달이나 맞았자나. 그래가지고 괜찮았지. 미친개가 물면 사람도 미쳐서..
김O순 : 정수네 개가 물어가지고 소가 미쳐가지고 펄펄 뛰고 날 뛰고 네 다리 다 묶어 놓고. 끓여 먹으면 괜찮다고 해서 그 소덜 잡아먹었자나 미친소. 그래서 요새는 봄 되면 개들 예방접종 해요.

(5) 아이가 학질에 걸리면

어린아이들은 학질에도 잘 걸렸는데 학질에 걸린 아이에게는 깅게락을 먹여서 치료했다. 깅게락은 매우 쓴 맛이 나기 때문에 먹이기가 쉽지 않았지만 대부분 깅게락을 먹으면

183) 마을회관에서 홍O순(여, 80), 김O순(여, 79), 김O연(여, 76) 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184) 김O순(여, 79) 제보

학질이 금방 나았다. 깅게락을 먹어도 아이가 낫지 않는 경우에는 우물에 가서 우물독을 뒤집어 놓고 오거나 쥐구멍을 짚으로 틀어 막기도 했다. 쥐구멍을 막아 병을 옮기는 쥐들이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예방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학질에 걸리지 않게 하는 예방으로는 서당뚜껑을 쓰고 우물을 돌거나 망부석에 아이를 묶어두고 겁을 주어서 학질이 오지 않게 하였다. 변소에 가서 발을 딛는 부분에 콩잎을 두고 그 콩잎을 핥게 하기도 했다.

김O연 : 깅게락 먹여. 그리고 옛날에 망주한테 가서 저기 저 서당뚜껑을 쓰고 가서 우물을 돌고 오라고 하던가? 그전에 예방

김O순 : 망주석(망부석)에다 붙잡아 매고 우리 아버진 그전에 도망오고.

홍O순 : 그래 우리아버지도 그러셨어.

(어디에 붙들어 맨다고요?)

김O순 : 망주석있잖아요. 동산에 산소에 망주석. 거기에 붙잡아 매놓고 저기 뭐이가 온다 하고 도망오더라고.

김O연 : 그래야 학질이 안 온데. 하루 걸러서 아주 손도 떨리고 이렇게 아주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 설설설설 떠는 거야. 그러면 깅게락 먹이고 깅게락. 먹고 그래도 안 나으면 우물에 가서 우물독을 뒤집어 놓고 오라고 어머니가 시켰다고.

홍O순 : 별란 거 다했어요. 쥐구녕도 틀어막고 짚으로다.

김O순 : 쥐구녕을 불구서는 짚으로 틀어막았어.

김O연 : 옛날엔 먹지를 못해서 학질을 무척 많이 앓았어. 아주 이불을 뒤집어 쓰고 설설설설 떠는 거야. 그러면 또 깅게락.

김O순: 그걸 먹기를 해. 여기서 도로 나오는 걸.

홍O순 : 그걸 맥이면 금방 나을 것 같애서 맥이면 세상 안 넘어 가는거야. 얼마나 쓴지.

김O연 : 배추잎에 싸서 넘길려고 해도 세상 안 넘어가 써서. 얼마나 지독하게 쓴지.

홍O순 : 써서 안 넘어 가는 게 아니라 그때는 약을 안 먹어 버릇해서.

김O연 : 지금은 캡슐이 돼서 그렇지 옛날에는 가루야. 깅게락이 가루야. 엄청 써.

홍O순 : 그걸 못 먹어갖고 문 바깥에다 내쫓구 있잖아요. 문을 걸어닫으면 밤에 얼마나 무서와. 그렇게 어른들이 그러셨어요. 내쫓았다고. 안 먹으니까.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망부석 있는데 가서..)

김O순 : 그럼 무섬주는거야. 화장실도 가서 뭐 어떻게 했는데 생각이 안나.

홍O순 : 화장실에도 가면 이렇게 옛날에는 이런 게 두 개 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콩잎을 뜯어다 놓고 이걸 핥으래.

김O순 : 나도 화장실 가서 뭘 했는지 생각이 안나.

홍O순 : 이렇게 두 개 놓잖아. 그러면 변소는 여기 떨어지잖아. 여기는 발만 딛이는 데잖아. 여기다 콩잎파리 뜯어다가 그거를 핥으래 세 번. 그렇게도 했어요. 그래도 안 떨어져. 학질이.

김O순 : 지금 말라리아랑 똑같은거야.

홍O순 : 하루걸러 떨어 하루는 괜찮고.

김O순 : 나중에는 계속 떨어.

(6) 경끼

아이들이 경끼를 하면 소변을 잘못 누었을 때처럼 키를 씌웠는데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서 다시 경끼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예방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애들이 경끼하면 체를 씌웠데. 이전에 쉬싸면 키 쓰고 소금 얻으러 갔잖아. 그 식으로."[185]

(7) 젖을 땔 때

예전엔 형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형제 중 막내가 젖을 먹을 때까지는 같이 얻어먹었다. 때문에 3~4살 까지도 젖을 먹곤 했다. 아이가 너무 클 때까지도 젖을 찾으면 쓴 맛이 나는 깅게락을 젖꼭지에 바르거나 루즈(립스틱)를 발라 피가 난 것처럼 보이게 해서 젖을 땠다.

김O연 : 루즈 빨간 걸 여기다 발랐더니 금방 깜짝 놀라서 안 먹더라고. 피났다고 여기 피났다고 젖꼭지에 뻘겋게 묻혀놓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금방 안 먹더라고. 피 같잖아 씨뻘건게. 그거 발라서 띠었어.

185) 홍O순(여, 80) 제보

홍O순 : 쓴 거 발라도 안 먹잖아.
김O순 : 깅게락 같은 거 쓴 약 같은 거 발르면 안 먹는다잖아요.

(8) 눈다래끼

눈다래끼가 나면 저고리 또는 옷 안섭을 묶어두면 낳는다. 또는 눈다래끼가 난 자리의 눈썹을 뽑아버리면 낳는다. 눈다래끼를 그냥 두면 곪는데 곪은 것이 터지면 눈꺼풀에 찌글찌글한 흉터가 남아 '곁두대기'가 된다.

김O연 : 눈다래끼 나면 뭐 근질근질 가렵고 그러면 마이시린 먹으니까 나더만.
홍O순 : 고자리 눈썹을 뽑아서 저고리 안섭에다.
김O순 : 저고리를 입었으니까 이 안에 있는 거를 잡아매면 나았어. 지금도 단추 끼는 있잖아요. 그러면 안자락 안의 자락을 이렇게 조그맣게 잡아 매.
(눈썹은 뽑아서 어떻게 했어요?)
홍O순 : 버리지 뭐 어떻게.
김O연 : 눈썹 뽑으면 괜찮다 그래서 눈썹도 뽑고 그랬지.
홍O순 : (다래끼)난 자리에 있는 눈썹을 뽑는거야.
김O연 : 옛날엔 왜 그렇게 다래끼가 나는지 몰라. 노상 나. 어떻게 된 게. 지금들은 안 나.
홍O순 : 그래갖고 그게 또 곪았잖아.
김O순 : 곪은 거 째면은 곁두대기 된다고 했잖아. 이게 이렇게 찌글찌글 하게 상처가 난다고.

(9) 두드러기

"두드러기 돋을 적에는 두드러기 난 사람을 부뚜막에 엎어 놓고 저 잔댕이에다가 요렇게 소금을 문지르면서 '중도 고길 먹냐, 중도 고길 먹냐' 그게 예방이야. 중은 고기를 안 먹잖아. 그러니까 '중도 고기를 먹냐, 중도 고기를 먹냐' 하면은 낫다 그래. 옛날에는 두드러기도 많이 났는데 지금은 두드러기도 안 나."[186]

186) 김O연(여, 76) 제보

(10) 머리가 아프면

지금은 진통제 한 알이면 두통을 치료할 수 있지만 마땅한 약이 없었던 시절에는 헝겊으로 머리를 단단하게 묶거나 비교적 차가운 샘물로 수건을 차갑게 만들어서 머리에 올려두어 두통을 견뎌냈다. 그래도 못 견디게 아픈 경우도 많았다.

홍O순 : (머리 아프면) 동여매죠. 질끈 냅다. 헝겊으로다.
김O연 : 머리 아프면 뭐 아주 그냥 찬물을 대서 이렇게 할 적엔 하고 또 금방 아프고 아주 못 견디지. 펄펄 뛰고.
김O순 : 얼음.. 저기 뭐야 찬물 이렇게.. 그전엔 샘물이잖아요. 그물을 퍼서 차다라게 수건 해가지고 그거 대주고. 옛날에 얼음이 어딧어. 얼음물이 없으니까 샘물로 차게 해서.

3) 침놓는 '의원'

마을 주변에서 침을 놓는 '의원'은 어룡리에 살았다. 말라리아(학질) 같은 질병에 걸리면 침을 맞으러 갔었다. 지금 어룡저수지 자리에 있던 마을이다. 어린시절에는 침을 맞는다고 하면 무서워서 도망을 갔었다. 침놓는 사람은 '의원'이라고 불렀다. 중환자가 아닌 이상 의원에게 찾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침을 맞고 사례는 골동담배를 사다주는 것으로 했다. 다들 사정이 넉넉지 못했기 때문에 물건으로 사례를 했다.

침의 효과를 믿어서 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따로 치료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질병의 경우 조금이라도 나아지라는 의미에서 침을 맞으러 갔다.

4) 현재의 의료생활

마을 내 보건소는 따로 없고 백연리보건소가 마을의 관할 보건소이다.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경비대대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후송하거나 경비대대 내 의료진의 진료를 받기도 하고 응급상황 시에는 출입허가를 받고 구급대가 들어올 수 있다.

지금은 이렇게 군의 협조를 받을 수 있지만 전쟁 중에는 군에서도 물자 등이 부족하여 마을 내에서 환자가 발생해도 급하게 후송할 수 없어 후송이 가능할 때 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런 와중에 산에서 밤을 따던 아주머니가 떨어져 다쳤는데 후송을 하지 못해서 마을에서 죽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병원은 문산으로 주로 가지만 산부인과는 문산에 없어 금촌으로 가야 한다. 몸이 많이 아픈 경우 일산에 있는 큰 병원에 가기도 한다.



8 마을주민 생애사

8. 마을주민 생애사

8-1 마을 할아버지의 살아오신 내력

1)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거라고는 일밖에 없어!!



박0선 어르신

4살 때 가족들이 다 같이 대성동 마을로 들어온 후 지금까지 터를 잡고 살고 계신 박0선 씨를 생애사 기록의 주인공으로 삼은 것은 마을의 최고령자이자 두 아들이 장성하여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마을 일을 보는 직책을 맡고 있다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마을 일을 맡아 한 적도 없고, 오로지 농사 일만 했다고 하는 박0선 씨에게서는 오랜 세월, 대성동이라는 특수한 지역에서 살아오면서 겪었던 남다른 삶의 내용을 살필 수 있었다. 1·4 후퇴를 보고 청년시절에 6·25를 직접 겪으면서 남의 인삼밭 품팔이에서 벗어나고자 열심히 자신의 농토를 개간하는 등 경제적



거실 풍경

인 기반을 갖추었고, 지금은 아들들에게 땅을 유산으로 물려준 이 땅의 모범적인 부모의 사례를 보인 삶을 살아오셨다. 그에게 대성동은 어린 시절 밥을 먹고살기 위해 들어왔던 어머니의 고향, 외갓집 그 이상이 되었다.

(1) 내 태어난 곳과 부모 형제

"나는 저기, 진서면 금릉리 안말에서 태어났어. 산골이야. 거기서 살다 4살 때 여기(대성동)로 왔지. 여기는 고려인삼, 유명하잖아요. 그 인삼밭이 많아서 품 팔을려고 들왔어. 어머니가 여기 분이시라…"

박0선 씨의 부친은 무안 박 씨로 본인 나이 49세, 박0선 씨 나이 9살에 대성동에서 돌아가셨다. 돌아가신 이유도 잘 모르고 있다. 모친은 강릉 김 씨로 대성동이 고향이었다. 본인이 83세가 되던 해에 돌아가셨다. 당시로는 장수하셨다고 할 만큼 사신 것이었다.



박0선 어르신 부부와 가족 사진

형제는 누나 한 분, 형님 2분이신데 5살 이상 나이 차이가 나는 사이다. 지금은 모두 돌아가셨다.

박0선 씨는 첫 아이를 29세에 낳았는데 아들이었다. 슬하에 모두 아들 둘, 딸 둘을 두었다. 자제들은 모두 마을에 있는 초등학교와 금촌에 있는 금촌중학교를 졸업하였다. 그때는 마을에 있는 대성동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대부분 금촌으로 중학교를 다녔다. 아들 둘이 금촌에서 학교를 다닐 때는 할머니가 함께 살면서 밥을 해주고 바라지를 해주었다. 딸들이 다닐 때는 금촌에서 둘이 자취를 하면서 학교를 마쳤다. 큰아들은 파주공고를 마치고 마을에 들어와 농사를 짓고 있으며 네 명 모두 중매로 출가를 시켰다.

큰며느리는 서울에서, 작은며느리는 성남에서 시집을 왔다. 지금 큰 아들은 서울 불광동에 살면서 농사를 짓기 위해 마을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 작은 아들 역시 문산에서 살면서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큰딸은 서울로 출가하여 회사원인 남편과 잘살고 있고 둘째딸은 강화도로 시집가서 잘 살고 있다. 모두 신식 결혼식을 올렸다.

큰며느리, 작은며느리는 모두 결혼 후 3년간 마을에서 시부모와 같이 살다가 분가를

시켰다. 분가시킬 때 집을 사주었다. 그리고 박0선 씨는 몇 해 전에 작은 텃밭 정도만 본인 앞으로 남겨두고 농사지을 땅을 모두 두 아들에게 똑같이 반씩 나누어 물려주었다. 딸들은 본인들이 벌어서 시집을 갔는데도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았다.

8·15 해방 후 부친이 돌아가신 후 부터는 큰형이 어머니를 모시고 농사지을 땅을 개간하면서 다 같이 살고 있다. 6·25 휴전 당시 여기서 살면서 사람들이 버리고 가 주인이 없는 땅은 물론 새로운 땅을 개간하여 농사를 짓고 있다. 당시에는 본인하기에 따라서 농사를 많이 지을 수 있었다. 처음에는 소로 쟁기질을 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당시 소가 귀해 남의 소를 빌려 농사를 짓다가 돈을 벌자 소를 사서 농사를 지을 정도가 되었다. 당시 소 한 마리는 농토 30마지기 정도로 비싼 값이었다. 박0선 씨도 결혼 후에는 자신의 농토에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그 전에는 남의 삼밭일이나 농사를 지어주는 날품을 팔았던 것이다.

(2) 학교 다니던 어린 시절

당시 여기는 학교가 없어서 형님, 누님은 학교를 안다녔는데 박0선 어르신은 장단국민학교를 다녔다. 진동면 동파리 가는 길에 학교가 있어서 학생들끼리 모여 거의 15리길을 걸어 다녔다. 6·25전쟁이 나기 전에 학교에는 일본인 선생이 있었다. 음악, 체육시간 같은 과목이 당시에도 다 있었다.

"한국말 하면 매 맞고 꿇어 앉았더랬어요. 새벽밥 먹고 가서 뒤에서 자고, 책가방 없이 보자기 어깨에 메고 뛰어다녔지."

그가 초등학교 6년 때 해방이 되고 중학교에는 진학을 하지 못했다. 집안 사정이 품팔이를 해서 먹고 사는 형편이라 어려웠던 것이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일을 했는데 어렸을 때라 삼포에서 심부름 하는 정도였다. 당시에는 가족들이 모두 삼밭(인삼밭)에서 날품을 팔 때였다.

"내 어렸을 때는 17살 때까지 개성에 다녔지. 한 5키로 반, 10리 조금 넘어. 한나절이면 걸어서 왔다 갔다 해. 심부름 시키면 갔다 오는 거지. 개성사람들이 나와서 인삼밭을 하니까 개성에 인제, 언제 인삼 캔다는 이런 거, 전달 심부름 다녔어. 그때는 개성이

큰 도시였어, 서울 다음으로. 주인이 점심 주면 먹고 오기도 하고, 개성은 전부 한옥이랬지. 개성 송악산도 경기도였고 그 너머는 황해도 개풍군, 개성 군사분계선 너머는 개풍군이고 이남은 장단군. 개성사람들을 다 바꿨다 그래, 함경도 말 쓰는 사람들로."

"개성 장을 많이 봤지, 장날만 아니고 계속 있는 장이 있었어. 생활필수품 다 있던 큰 장이야."

(3) 해방과 6.25전쟁에 대한 기억

이 마을은 8·15 해방 전에만 해도, 당시 60호가 넘을 정도로 큰 마을이었다. 당시 박0선 씨는 6살 정도였던 걸로 기억한다. 해방 전에도 이 마을에는 일본인이 없었으나 징병에 끌려간 사람은 있었다. 해방이 될 때 여기서도 만세를 부르고 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리고 18세 때 6·25전쟁이 일어났다. 그는 당시 이 마을에서 살고 있었다.

박0선 씨가 이 마을에 살면서 안 좋았던 기억은 전쟁 때 고생했던 거라고 한다. 6 · 25 전쟁이 났는데 마을에서 피난을 가지 못했던 것이다. 마을에는 미군들, 한국군 정보기관이 들어와 있었고 그들은 마을사람들에게 밤에 보초를 서게 했다.

"쟤네들, 동그랑산에 중공군 나가서 죽은 사람도 있고 고생 참 많이 했지. 6 · 25 전쟁 통에 산 사람은 나하고 김0란? 둘 밖에 없어. 그때는 먹지를 못했어. 보초도 직접 서기도 하고… 피난을 못 갔는데 6·25나는 것도 몰랐어. 송악산에서 새벽에 탕탕대는 소리 조금 나는데 나중에야 전쟁인지 알게 됐지, 다음날에. 1·4후퇴 때는 다 피난 갔는데 나는 안 나갔어. 가지고 갈게 없어서 굶어 죽을까봐 안 나갔지."

"18살 때 6·25나서 인민군들 들어와서 밥해주고, 한참 모내기하고 할 땐데, 전쟁 때는 젊은 사람들은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 나와서 일하고… 쟤네들이 이쪽군인 복장으로 변장하고 청년단, 한국군이라고 모집해서 거짓으로 데려갔어. 나는 휴전되기 전에 여기 정보기관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 같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 모시고 여기 있었지. 한 5집 정도가 미처 피난을 못 갔어. 6·25때는 전쟁난지도 몰랐어, 이곳은. 도로에 인민군들이 깃발 들고 가는 거 보고 전쟁난지 알았지… 휴전되고 피난시켰을 때 여기 휴전 당시 그 시간에 여기 있었던 사람들은 다시 들어오게 했지. 휴전 때 한 1개월 정도 나가있다가 금방 사람들 도로 다시 들어왔지. 초가집 같은 움막이 그대로 있었어. 한 20 여 호 정도 마을이 그대로 있었어. 노인들이 조금 농사짓고 연명했지. 정보기관에는 밤에 보초 선다고 마을 젊은 사람들이 당시 13~4명 정도 되는데… 지금은 다 죽고 산 사람들은 김0래 박0선… 나중에 미군 이 마을에 있었어, 정보기관. 그 사람들이 망을, 전체 보초 서는 것을 해. 마을 안에 정보기관 건물에 총 들고 보초 섰지. 하루에 보초 1곳에 2명씩 나가서 밤새 1명이 12시까지 교대해서 밝을 때까지. 마을 7~8곳 정도 보초서는 곳이 있었어. 휴전 전에 한 2년 정도 보초를 서기도 했지. 총은 정보기관에서 받아 보초서고 다시 갖다 주고…"



2013년에서야 받은 호국영웅기장증

"그전에 보초 설 때 내 비번 날 기관 사람들하고 자는데 중공군이 들왔어. 중공군이 우리들 자는 방으로 들어 온 거야. 어두우니까 전깃불 비춰져 중공군이 따발총을 쐈어. 다른 아이가 손을 맞았어. 내 옆에 자는 사람은 목을 누르고, 나는 가만있는 데 다른 놈이 나한테 오더라고, 내 팔을 잡고 문 있는 데로 끄는데 내가 먼저 벌떡 일어나서 문 쪽으로 나가면서 그 놈을 방안으로 처넣고 도망갔어. 그 틈에 옆에 목 눌렸던 사람도 튀쳐 나와 살았어. 안 붙들려 갈려고 나오면서 양문 잡고 방안으로 차 넣고 도망 간 거지. 그 후에 2달 만에 휴전이 됐어. 그 와중에, 할머니 한분이 걔네들이 버린 수류탄에 돌아가셨어."

박0선 씨의 기억 속 전쟁에 대한 부분은 여러 번을 들어도 매번 같은 내용이었다.

(4) 구식으로 한 혼례

박0선 씨는 27세에 부인 김0연 씨와 결혼했다. 혼례식은 족두리 쓰고 구식으로 남자네 집으로 와서 올렸다. 부인은 파주 월롱면 능산리에서 22살에 이 마을로 시집을 왔다. 남편인 박0선 씨와는 5살 차이가 났다. 결혼은 중매로 이루어졌는데 여자 쪽, 남자 쪽 중매쟁이가 따로 있었다. 남자 쪽 중매쟁이는 최0정이라고 여기 마을에 살았던 여자였다.

"여기는 결혼하기 전에 패스 만드느라 신원조회 수속 밟느라 결혼 전에 금촌 가서 (여자를) 만났어. 처 할머니와 부인될 사람이 같이 나왔더라고. 장인이 금촌서 살았는데 그때 경찰이었어. 장인 집에서 만났는데, 괜찮게 살더라고… 처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살고…

혼수는 머 이부자리 혼수지. 본인 옷, 시어머니 치마저고리 옷…, 그때는 '신방지킴이'라고, 신혼부부 방에 앉아있고 밖에서 사람들이 구경하고 그런 거가 있었지. 처음 처가에 가면 '3일 푸들이'라고 결혼하고 3일 있다가 처가에 가면 색시 훔쳐갔다고 달아놓고, '달아 먹는다고' 발목을 천으로 묶어서 매달고 마른 북어로 발바닥을 때린다고. 물어보는 대로 대답을 다하면 안 때리는데… 왜 색시를 훔쳐갔냐~ 머, 그런 거 등등… 장모가 술상 내주고 때리지 말라고 말리고, 신부는 방에 있지, 같이 안 어울리고."

'3일 푸들이'이라고 처음 3일 후에 친정 갈 때 찰떡 해가지고 가. 그때는 3일 만에 친정 가서 (마을에는) 1주일에 한 번씩 드나들 수밖에 없었던 때라 자연히 1주일을 있다가 들왔어. 나가면 일주일 있다가 들와야해. (처가가) 농사짓는 집이라 일 거들고 있다가 돌아올 때 찰떡 해 가지고 와서 노놔 먹지… 혼례식하고는 바로 같이 살았지. 당시에 아버지는 안계시고 어머니만 계셨지."

(5) 부인 김0연 씨의 시집살이

부인 김0연 씨는 파주 주내 월롱면에서 이 마을로 시집 온지 54년이 된다. 동네 부인들이 이구동성으로 김0연 씨가 마을에서 시집살이를 제일 심하게 했다고 말한다.

"내가 시집온 게 54년인데, 스물 둘에 왔는데, 그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바깥으로 다녔어요. 스물 둘에 와서 한 십년은 거진 그렇게 다녔을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다가 일주일에 두 번, 저 월요일허구 수요일에 또 댕기다가 그러다가 매일 또 댕기게 됐어요. 여기 시어머니, 시집오니깐 뭐 시어머니가 하난데… 친정에서 인제 그릇을 그냥 이런 통 뭐야, 대박, 저기다가 부시잖아, 옛날에. 그런데 여긴 다르더라구. 그런데 인제 거기다 그릇을, 친정에서 허든 버릇으로 왈가닥 왈가닥 막 부셨지 뭐야. 그랬더니 그냥 그릇 죄 깨트리구 버릇없이 그렇게 막 부신다구 막 야단을 해서 살살 부셨어, 아주. 옛날에는 다 그 사발룻이 돼서. 그래서 그 댐서부터는 가만히 들구 하나씩 부시구 하나씩 부시구 그랬지 뭐. 무서왔어. 막 그러다가 한번 혼났잖아. 아유, 막 그냥 말이 이년저년이야. 그냥 저, 얼마나 사나운지 말도 못했어. 아유, 옛날에는 뭐 아들허구 둘이만 해 드리구 난 땅에서 먹었지 뭐. 시집살이 정말 되게 했지 뭐."

"우리 엄마가 저기 주내, 저기 뭐야, 거기서 바구니 겉은 거 이것저것 팔러 대니다가 여기 딸 보낸 엄마가 거기 있어, 주내. 그래 가지구 이렇게 둘이 연결, 연결해서 헌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좋다구 그래 가지구 정말 좋은 줄 알고 왔더니 아주 기가 맥히지 뭐야."

"옛날에는 새벽에 인제 한 시에 일어나서 밥 먹구 저기 마당질을 해요. 밤중에 인제, 타작을 하면 또 새벽에 밥해서 먹구, 아침 먹구, 새참 먹구, 점심 먹구 저녁 곁들에 먹구, 저녁 먹구 여섯 번을 해야 돼. 한 시에 먹어. 그러구 인제 또 탈곡기에 털며는 아침 훤하면 아침덜 잡숫구, 그리구 또 새참들 잡숫구, 또 점심 잡숫구, 저녁 참 잡숫구 저녁 먹구 그렇게 끝나는 거야. 집집마다 다. 밤중에 일어나. 밤중에 잠도 못 자. 그리구 한 시믄, 그 때 한 시에 일어나서 밥 하며는 좀 아마 열 두시에 일어나며는 밥 하믄, 한 시에 일어나 깨러(깨우러) 댕겨 인제, 그 품앗이 하는 사람덜을. 그렇게 해가지구선 밤중에 터는 거야. 그냥 탈곡기에다가. 그러며는 그냥 하루에 한 이삼백 가마 터는지 [이0순 : 불두 없어서 그냥 철사에다가 솜방맹이 달아서 석유에다가 담궈서 불 밝히고…] 낟가리를 이렇게 똥그랗게 해 놓구서, 이제 품앗이를 낼은 누구네, 누구네 그렇게 해며는 밤에 또 일어나서 [이0순 : 그러면 또 떡 해먹느라고 집 모주리 댕기면서 절구루다 빻아서, 오늘은 시루떡, 낼은 저 집이서 또 쪄먹구 아휴, 밤낮 없이 그렇게 했어] 그 전에는 떡두 집집마다 했는데, 지금은 떡두 하는 집이 읎어. 고사떡 그 때 한번 하면 그만이야.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물지게루다 또 물 길어다가, 쇠죽물을 해구 그러구 밥 물 허구, 점심 먹군 물 길어다 붜야 한 독허구. 그러구 나면 세시 네시 돼, 겨울이믄. 물 길어다 노면 또 저녁할 때 돼. 해가 짧아서. [이0순 : 녹두 나물, 콩나물 다 길러야 먹잖아요. 물이 없는데, 밭 매구 점심 먹으로 들어와선 그거 다 물 줘 놓군 또 부지런히 매러 가구 참 …]

두부 해야지 또. 두부 헐라면 맷돌에다 갈아서 그 놈의 걸 죽기만 생각허구 또 해야지.



2008년에 금촌에서 치룬 고희잔치

아유, 또 콩나물 기르구 두부 허구, 그런 게 반찬이야. 김치허구. 시장두 보러 갈 새두 없구.[이0순 : 두부 허구, 빵 찌구 저녁에 못 찌러 가서 모 찌구 와서 그냥 낼 먹을 두부 그냥… 아유, 어디 가서 사올 데두 읎구 그냥…] 맷돌에 갈아서 다 그냥 허는 거야. 일만 했다허믄 그냥 다, 아휴. 그래두 또 밭 매러 가야지 밥 해야지, 아일 길러야지. 밤새두룩 일해두 끝이 안나. 농사 치다꺼리 하는 게 그렇게 힘들구. 밭할 때는 또 콩 심으러 가야지. 별거 다 해야지. 밥 해야지. 요즈음 일이 심하다 해두 아무 것도 아니야. 지금처럼 이렇게 앉아 있을 새가 어딨어. 농사지을 때 얼마나 바쁘고 뛰어다녀야 하는데. 지금은 기계로 하니까. [이0순 : 지금은 농사꾼들 색시 와도 하나두 안 해요. 아이만 낳으면 학교 가르키느라고 문산으로 나가기 때문에. 중학교 되믄 나가잖아요 중학교 없으니까. 그러니깐 엄마들은 다 편한 거야.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다 가르키고. 신랑들은 아침이믄 들어와서 일하고 저녁이믄 나가고… 그래도 이제는 고희라고 잔치도 하고…"

(6) 세시명절과 한 해 살이

박0선 씨는 위로 형님이 문산에 거주하고 있어 형님 댁에서 부모님 제사를 모시고 있다. 명절 차례도 큰집에서 지내기 때문에 세시명절이나 제사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가 없다.

연중 정월이면 세 개 마을에서 돌아가면서 윷놀이를 하고 봄이면 노인회에서 여행을 간다. 5월 단오나 6월 유두에는 예전에는 하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지나간다. 7월 칠석에는 절에 가고, 복날이면 마을 부녀회에서 삼계탕을 해주기도 하고, 8월 추석이면 큰 형님 댁으로 가서 차례를 지낸다. 송편은 지난해까지도 아이들이 집에서 만들었는데 금년에는 하지 않았다. 9월 중구는 그대로 지나가고 10월 상달에는 집 고사를 지낸다. 11월, 12월에는 겨울준비로 난로에 땔 나무를 해 놓는 게 일이다.

박0선 씨도 어렸을 때는 자치기. 딱지치기를 하고 놀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자치기도 두 가지 놀이 방법이 있다. 땅을 파놓고 새끼를 넣고 아범으로 떠올려서 쳐가지고 멀리 나가는 게 이기는 것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새끼를 손으로 띄워서 멀리 치는 방법이 있다. 나무는 참나무로 만들어서 각자 자기 것을 가지고 여나무 명씩 가위 바위 보로 편을 갈라서 논다. 놀이 도구는 다 같이 모여서 장만하는 것이며 한판에 4~5명씩 한다. 특별한 내기는 없었다. 제기차기. 자치기도 겨울에 농한기에 많이 하던 놀이였다.

(7) "매일 먹고 일하는 게 단데 머~"

박0선 씨는 매일 먹고 일하는 게 전부였던 터라 마을일은 맡아하지 않았다. 날 밝으면 일하러 나가는지 알고 해지면 자는지 알고… 그게 전부였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평생 농사를 지은 기억 밖에 없다.

6·25전쟁 후 처음에는 마을에 주민들이 못 들어왔다가 휴전 당시에는 주민들이 들어와 주인 없는 땅을 개간했던 것이다. 이 마을의 경우 전쟁 전에는 인삼밭이 많이 있었다. 그전에는 밭이었는데 80년도에 주택을 지으면서 마을 앞을 개간하여 지금의 논이 되었다.

인삼농사는 당시에도 돈 많은 사람들이나 했던 농사였다. 개성사람들이 많이 와서 하고 마을 사람들은 품값을 받는 정도였다. 당시 품값은 3원~5원. 보통 3원을 받았다. 그게 하루 일당이었던 것이다. 당시 쌀 한가마니에 3천원이 안 되던 때였다. 지금 20만 원

가량이 당시 3천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했다.

박0선 씨도 논농사가 주였으며 3월에 논가는 일을 시작으로 모를 길러서 못 판을 내기 시작하면 일 년 한 해가 훌쩍 지나가 버린다. 당시만 해도 손으로 직접 짓는 농사였다. 모내기는 농사 절기에 맞춰 날짜를 정해 돌아가면서 품앗이를 하였는데 하루 7~8집을 할 때도 있었다. 마을 전체로 조직된 것을 없었고 몇몇 집들끼리 서로 날짜를 정해서 했다. 4월에 모심기를 하고 한 달 정도 농사일에 여유가 있다가 6월이면 김매기를 해야 한다. 김 맬 때도 품앗이로 한다. 품앗이를 할 때 20~30명이 모여 김매다가도 꽹과리 치고 놀고 하는 것을 왜정 때까지 구경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6월에는 '여김'이라고 하여 논 호미로 땅을 파서 엎어두고 7월에는 손으로 풀을 뽑고 본격적인 김매는 일을 한다. 8월에는 형님 댁으로 가 추석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한다.

9월에는 벼 베기를 시작한다. 벼를 베어 단으로 묶어서 논두렁에 말려서 집 마당에 쌓아놓고 탈곡하는 것도 품앗이로 진행한다. 벼는 태질을 먼저하고 그다음에 발틀로 털면 탈곡이 쉽다. 볏단을 묶어서 메통을 갖다놓고 그 위에 볏단을 치면 쌀알이 떨어진다. 이걸 바람개비로 불어서 낱알을 가려 가마니에 담아 보관하는 것이다. 바람개비는 지금 선풍기식으로 함석 날개 4개를 달고 손으로 돌려서 짚풀과 쭉쟁이를 가려내는 것이다. 이것을 가마니에 담아서 정미소에서 쌀로 도정한다. 농사를 많이 할 때는 100~200가마 정도가 된다. 손으로 할 때라 많이 하지 못했다. 농사는 안팎이 같이 하는 일이라 부부가 고생을 많이 했다.

"한 대여섯 명이 모여서 품앗이로 해. 모찌기도. 모 뽑아서 짚으로 묶어서 져다가 논에 옮겨서 모내는 거야. 7월에는 조금 한가한데, 여기서는 7월에도 놀 틈이 없어. 소 기르니까. 마초풀 깎아 말려야지, 놀 새 없었어. 겨울에는 섣달까지 눈 오면 쓸고 거기서 타작하고 그랬어. 농사 진 것은 금촌 후방으로 수송하고. 미군 트럭으로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에 미군트럭으로, 나머지 싣고 가서 쌀 팔고. 쌀 1가마 겨울에 가지면 여관에서 먹고 잤어. 그런데, 일주일 만에 다시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1주일이 좀 쉬는 때지. 요때 좀 놀고… 술이나 먹고 놀았지 머. 겨울 2~3달은 편하지, 마을에서 술이나 먹고. 각자 저 집에 술 만들어 놓고 돌아가면서 이집 저집 다니면서 먹고 그러지. 솔잎 넣고 술 담으면 맛있었어. 동동주, 처음에는 약으로 먹었는데…"

"나 농사질 때는 11월까지 타작 했어요. 농사는 많고 다 손으로 해야 하니까. 지금은 벌써 다 털어치우고 건들건들하지만… 2003년도에 다 털어치웠지. 옛날에는 벼낼 때 낫 가지고 손으로 꼰지르면 손톱이 닳아서 손톱을 안 깎아. 한 보름 앞두고 일부러 손톱을 길렀지. 손으로 해야니까, 닳아서 피가 나니까 손톱이 있어야지."

"요즘이야 머, 10월 추수 끝나면 그 후부터는 먹고 놀아. 경로당 와서 술이나 먹고 놀지. 고스톱만 치고 술이나 한잔씩 먹고 놀아."

(8) "내가 소달구지로 벌어 논 거 까먹는데, 기계 때문에…"

두 아들이 본격적으로 농사를 맡아서 짓고 있고 본인은 농사일 뒷바라지를 해주는 정도이다. 요즘 농사는 대부분 기계로 하기 때문에 예전에 비하면 훨씬 수월하다. 기계 종류는 봄에 이양기, 트랙터, 콤바위, 붐누기 그리고 풀 깍는 예초기, 물푸는 딸딸이 등이 필요하다. 추수 할 때 쓰는 콤바인은 몇 천 만원씩 농협 융자를 받아서 사야할 정도로 농기계 값이 너무 비싸다.

"지금 여기 남아있는 사람은 그때 전쟁 당시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만 살았어요. 우리도 다들 피난 나갔다가 여기 양쪽에서 마을 하나씩. 기정동, 여기 대성동 이렇게. 그때 피난 나간 사람만, 민사철에 기록된 사람만 여기 복구된 것이지. (다시 들어와서) 괭이로 다 파면서 땅을 만들어 농사지었지. 자기가 그때 개간한 땅은 지금까지 개인이 소유하고 있지. 75년도에 정부에서 개간해준 게 있고, 80년도에서부터 농지정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해줬지. (마을 한 사람당 농토 배분은) 적은 사람은 적고 많은 사람은 많고. 난 현재 아들에게 물려줬어. 1,800 가마 정도 돼, 한 해에. 아들 둘이서. 많은 사람은 2,500, 3,000가마 하는 사람도 있지. 그래도 그거 가지고는 너무 힘들어, 애 낳아서 초등학교만 여기 다니면 그 담에는 문산 금촌 거쳐서 올라가니 두 집 살림을 할 수밖에 없지. 지금은 어느 정도 괜찮아. 50년 전엔 민사철이라고 해서 미군들이 트럭에 실어다 놓으면 일주일 동안 금촌서 살아야 여길 들어올 수 있었지."

(9) 박0선씨가 기억하는 마을 대동굿과 집 고사

이 마을에도 서낭당은 있었다. 마을 대동굿을 지낼 때면 집집마다 비용을 추렴해서 무당을 불러와 2~3일씩 굿을 하곤 했다. 2~3년에 한 번씩 지내던 것인데 6 · 25사변 후에 사라졌다. 서낭당에는 그 사람(무당)이 떡 해놓고 절을 하였다. 서낭당은 마을 길목에 있어서 늘 상 지나다니는 곳이다. 박0선 씨는 정월 보름이면 쌀을 추렴해서 마을사람이 제를 지냈다고 기억하고 있다. 모친이 도가를 맡아한 적이 있어서 기억이 뚜렷하다. 서낭당 고사를 지낼 때면 도가에서 쌀을 추렴하여 시루떡을 찌고 마을에서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제물로 올렸다. 떡도 여러 가지 만들어놓고 과일도 올리고 제사를 지냈다. 대동굿은 2~3일간 지냈으며 서낭에는 그 해 수가 나쁘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가서 밥을 해놓고 기원을 한다. 서낭댕이 에는 무당이 개인에게 시키면 개인적으로 가서 기원하는 곳이었다. 산 위에 있었는데 길을 내면서 없어졌다. 마을 넘어오기 직전 삼거리 콩밭 위에 있었다고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당집은 없었고 벚나무만 있었는데 여기를 서낭댕이라고 불렀다.

"서낭댕이에 옷 같은 거 걸고 이름쓰기도 하고 그랬어, 개인이 지내는 거지…"

대동굿은 5년에 1번 지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 역시 오래전에 사라지고 지금은 대동굿을 했던 마을 공터 자리만 남아있다. 당시 도가집은 구진우네가 도맡아서 하고 있었는데 굿을 하기 전에 도가에서 한 거리를 하고 나갔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도갓집은 바뀌는 게 아니라 한 집이 맡아서 했다.

"집 고사? 지내지. 음력 10월에 마누라 혼자 하는데 시루떡, 삼색과일 차리고 나는 구경은 하지. 우리 마누라는 그냥 빌면서 절하면서 그럽디다. 낮 1시 이후에 하는 건데… (떡은) 지금은 방앗간에서 해 와요. 시루떡 한 시루, 하얀 시루떡 3개. 절에 다니기 때문에 절에서 날짜 잡아. 우리 고사 며칠이 좋겠냐고 물어보면 스님이 가르쳐줘."

박0선 씨의 모친은 광탄에 살 때부터 고령사라는 절에 다녔던 터라 부인도 지금까지 그 절에 다니고 있다. 며느리들은 아직 다니지 않고 있지만 시어머니가 다니자고 하면 대를 받아야 하는데 아직은 시어머니가 다니자고 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며느리들한테 넘겨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10) 요즘 사는 재미

박0선 씨는 술을 좋아해서 집에는 늘 막걸리가 있었다. 부인이 막걸리를 잘 담갔다. 당시에는 누룩이 없어서 약으로만 만들어 먹었다. 약은 '이시도' 라는 것이었는데 빨리 숙성하는 성분이 있었다. 이 약으로 막걸리를 내렸기 때문에 도수가 독했다. 지금처럼 누룩을 넣고 하면 덜 독하다. 그러나 언젠가 부터 소주를 마시기 때문에 막걸리는 담지 않는다.

박0선 씨는 요즘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있다. 마을에서 아플 때는 금촌 도립병원에 연락하면 앰블런스가 오기 때문에 불편한 점은 없다. 박0선 씨는 28살에 맹장수술을 했던 기억이 있다. 당시 7월 낫으로 논두렁을 깎던 중에 배가 아파 민사처에 연락을 했더니 금촌도립병원에서 차가 들어와 입원하고 수술을 했던 기억이 있다.

70대에 농사일 아들들에게 물려주고 지금은 논에 물 봐주고 뒷바라지나 한다고 하면서도 하루가 바쁘다고 말한다. 농사는 두 아들이 기계를 가지고 모두 하기 때문에 큰 일이 없다. 농사일이 바쁜 때면 아들들은 부모님 댁에 머물면서 일을 한다. 추수 후에는 부모님댁 창고에 벼 몇 가마씩을 주는 게 전부라고 하면서 흐뭇해하신다. 부인은 지금도 고추, 깨, 콩 등 밭일을 해서 둘이 팔아먹고 산다고 하면서 웃으신다. 그런데, 마을에 박0선 씨 또래가 없다. 대부분 70대라 "그 아이들하고 술을 먹는다."고 하면서 또 웃으신다. 마을에서 누가 집에 맛있는 안주 해놓고 부르면 또 모여서 먹고 하는 데 꼭 소주만 마신다. 막걸리는 젊어서 너무 먹어서라는 말을 남긴다.

"요즘 하루 일과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마을 돌아다니다가 아침밥 먹고 6시 반 정도에 마누라하고 둘이 같이 앉아서 먹고, 배추밭, 고추 따고, 점심 12시에 꼭 먹어. 마누래가 꼭 챙겨줘. 고추 따고 말리고 저녁에 티비 보고…"

박0선 씨는 젊었을 때도 외부 마을활동은 잘 하지 않았다. 허리가 아프고 혈압이 높아 문산 병원에 약을 타러 가는 정도다. 장은 주로 장은 문산장을 보러가는 데 버스가 하루 3번 다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하면 크게 불편한 건 없다.

박0선 씨가 이 마을에 살아서 나쁜 것은 교통이 안 좋은 것이고, 항상 전쟁에 마음을 졸이면서 사는 것이며 좋았던 것은 별로 없었다고 말한다. 하루하루 시달리고 고생바가지로 하고, 땅 일궈서 자식들 기른 것 밖에 없다는 얘기다. 만약 전쟁이 나면 민정반에서

대피를 시켜준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전쟁이 날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여기 사람들은 서로 그런 전쟁 얘기는 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예전부터 '흉년이 들면 산에 포도가 많이 열린다.'고 했다. '벼농사가 제대로 안되면 산에 열매가 잘 열리고 벼농사가 잘 되면 산에 열매가 잘 안 열린다.'는 말과 같다. 금년 농사는 평작이다. 그런데 금년 가을에 유난히 도토리가 많이 열려 할머니는 도토리 줍기에 바쁘다.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주워놓은 도토리를 옮겨주러 가셔야한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해가 있어야 길도 간다고, 젊었으면 여러 가지 했겠지만 지금 내가 뭘 하겠냐!"

8-2 마을 할머니의 살아오신 내력

1) 대성동마을의 토박이, 걸어다니는 옥편 김O예 씨

[여, 1938년생, 77세, 호랑이띠, 강릉 김씨(남편 故 최O득 씨/1932년생)]

김O예 씨는 강릉 김씨였던 김O수 씨를 아버지로, 그리고 박O순 씨를 어머니로 하여 태성[대성동]에서 태어난 토박이이다. 밑으로는 남동생과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남동생은 어렸을 때 홍역으로 죽었고, 10살 아래인 여동생은 가정을 이루어 현재 신월동에서 살고 있다. 불구였지만 여러 가지 재주가 있었던 아버지는 이 기술로 가족을 먹여 살렸는데, 6·25전쟁 때 이북으로 끌려가 돌아오지 못했다. 휴전 직후, 6·25전쟁 때 보초를 서다 부상을 당했던 경주 최씨 최O득 씨와 결혼하여 4남 2녀를 두었는데, 남편은 80년대 초 당뇨로 세상을 떠났다. 큰 아들은 현재 일산에서 살고 있는데 몸이 많이 아프고, 둘째 아들은 금천에서 대성동매운탕집을 운영하고 있다. 큰딸은 미국에서, 둘째 딸은 금천에서 잘 살고 있다. 막내는 아들 쌍둥이였는데 그 중 한 명은 사망했다. 김O예 씨는 현재 집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지만, 막내 아들이 자식 교육 때문에 문산에 나가 살면서 매일 대성동으로 와 어머니와 함께 농사를 짓고 있다. 동네의 친인척들은 O식이 어머니인 김O예 씨가 이곳 토박이여서 마을에 대해 많이 알고 있고, 기억력도 좋으며 이야기도 잘 하니까 꼭 만나보라고 추천을 해주었다. 또한 마을에서는 김O예 씨가 '걸어다니는 옥편'이라고 소개하는 분도 있었다. 그만큼 마을 사람들의 생일이나 제삿날 등을 정확하게 잘 기억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능력은 그녀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살아온 이야기라면 고생을 많이 하며 살아와 할 이야기가 아주 많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몸은 좀 작은 편이지만, 매우 총기가 있고, 강단이 있으며, 부지런한 편이다. 김O예 씨의 구술생애담을 통해서는 대성동마을 사람들이 겪었던 6·25전쟁의 참상 및 그 후의 다양한 삶의 양상을 알 수 있다. ( ) 속은 조사자들의 말이다.

(1) 아버지를 닮아 재주가 많았던 딸, 학교 문턱에도 못 가봤지만 웬만한 것은 다 할 수 있어

"내가 우리 아버질 닮았어요. (그럼 재주가 많으시겠어요?) 난 재주 있어요. 그런데 여자가 재주 있어봐야 뭐해? 그냥 뭐 내가 좀 있어서, 조금만 배운 사람 같으면 양장 같은 거 했어. 왜 그러냐면, 그런 걸 안 뱄는데도 해요. 바지 같은 거도 하고. 쓰봉 같은 거도 하고. 윗도리도 잠바도 다 해. 근데 안 뱄어도 다하는데, 우리 부모 내가 잘 만났으면, 그래도 쪼금 뱄으면….

그런데 내 나이에 그전에 삼학년 사학년 때 6·25(전쟁)났잖아. 38년생이니까. 근데 나는 어려워서 학교를 못 갔어요. 문턱에도 못 가봤어. 그래 지금두 사실은 내가 딴 사람 같으면 저기한데, 내가 아무리 못 배웠어도 그냥 다 애를 낳구, 첫아이를 낳구 자습을 해가꾸 구구단 같은 거 배고. (그러면 6남매를 다 옷을 만들어 입혔어요?) 그러니까 머리 깎는 것이구 뭐구 다 내가 배서 깎아서 키우구.

그냥 그 때는 후방에를 못 갔잖아요. 일주일에 한번 댕겼거든. 일주일에 인제 한번 댕겼는데, 여기서 나가면 일주일 있어야 들어와. 그래니까 힘들었어 좀. 그래니까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머리 깎자구 학교 댕기는 걸 데리구 댕길 수는 없잖아. 그래니깐 기계를 사다가 내가 다 깎아주고, 우리 아버이[남편]도 내가 다 깍아주고 그랬지.

하여튼 그랬는데, 재주 많은 놈이 저녁 멕이가 없대잖아. 지금은 재주가 있어야 좋은데, 옛날에는 그런 거 있어. 미장이허믄 잘 산다구 그랬어. 미장이. 흙 바르는 거. (옛날에 흙집 짓고 살아서 그런가요?)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그걸 배 가지구 돈두 벌구 우리집두 고치구 그랬어요."

(2) 아버지에 대한 기억 : 불구였지만 재주가 좋았던 아버지, 6·25때 잡혀가 생사를 몰라

① 강릉 김씨 나의 아버지

"(아버님은 먼 조상님부터 여기에 사신 거죠?) 예. 여 강릉 김서방네. 우린 원래가 그 전에 저기야. 옛날서부터 손이 놀아가지구[귀해가지구] 우리 할아버지두 양자 왔대요. 그런데 양자 왔는데, 두 집이서 다 손이 없어요. 박O선이네 어머니가 우리 할아버지 하구 동기야. 박O선 씨네 어머니가 강릉 김씨야. 그래니까 우리 할아버지하고 동기간인데, 거기도 손이 놀구 우리도 손이 놀구—. 우리 아버지두 아들이 일찍 죽어서 없었는데, 양자를 드릴래두 드릴 사람이 없어 못헌 거야."

② 불구였지만 재주가 좋았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불고예요. 불곤데, 우리 엄마가 좀 모자라요. 불고니까 좀 모자란 사람 얻었지 뭐야. 근데 아버지가 불고라두 재주가 좋아요. 재주가 좋아서 물레, 수레 뭐 이런 거를 잘 만들어요. 쟁기 뭐 이런 거를 잘 만드셔. 재주가 좋으셔. 그랬는데 그렇허믄 또 쌀을 좀 벌어오시구. 그렇게 해서 살았어요. 근데 그 쟁기 같은 것도 논 가는 쟁기, 목화 뜨는 쇠, 물레 실 뽑는 물레, 하여튼 이 방두 그전에는 왜 구들장 놔서 불땠잖아요? 딴 사람들이 놓으면 그것두 잘 안 들어가구, 불두 잘 안 들어가구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놓으면 잘 들어가요. 하여튼 재주는 좋았어요. 재주는 좋았는데, 손이 그래가지구 왼손으로 다 하세요."

③ 아버지와 함께 갔던 장단역 시장

"여기서 옛날에 장을 보면 장단역으로 갔댔지. 장단역에 가서 옛날에 아부지가 가자 그래서 가믄, 그 전엔 겨란을 나서 이게 열 개씩 짚으로 만든 꾸룽지에 꾸리잖아. 그래가지구 그걸 가지구 가서 팔아서 음식두 사 먹구 그랬어요. (집에서 그러면 닭도 키웠네요?) 닭은 키웠어요. 많이는 못 키우구. 그냥 쪼금씩 키우죠. (그럼, 계란도 많이 드셨어요?) 아유, 그 전에는 계란이 먹구파서 열 개만 먹으면 소원이 없갔어. 근데 그걸 못 먹었잖아요. 아유.

(그럼, 그걸 팔면 뭘 사먹을 수 있어요?) 그걸 팔면 아버지하고 나 하고 설렁탕, 그런 거 사먹을 수 있드라구. (그럼, 그 계란꾸러미를 아버지가 직접 만드셨겠네요?) 그럼요. 시양[지금] 우리네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시양은 그렇게 안 하고 판에다 하잖아요."

④ 6·25전쟁 때 북한에 끌려간 아버지, 생사도 몰라

"그런데 6·25(전쟁) 땐데 불곤데도 이북놈이 잡아갔어. 그냥 너무 멕이가 없어 가지구, 요기 똥그란 산 있는데 거기다가 베를 심어놨는데, 그 베를 비러 갔어. 너무 멕이가 없으니까. 근데 나하고 동생하고 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비러 간다고 비러 갔는데, 그 놈들이 그걸 또 잡아 갔어 또. 손도 좀 이렇게 뒤비고 한 쪽이 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발도 이만큼 없고 손도 이렇게 꼬부라져서 없어. 근데도 그렇게 지팽일 짚고 베 비러 간 거야. 그랬는데 글쎄 그 놈들이 잡아갔잖아.

그런데 여길 돌려보냈어. 그런데 또 보낸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는 거기 가서 있는지 이 눔들이 정탐을 허느라고 죽였는지 몰르지. 우리는 몰르구 있어 시양. 가 있어두 돌아갔을 거구. 나이가 많으니까. 나이가 백 살이 넘었어 시양. 우리 아버지가 개띠거든. 우리 엄만 토끼띠구.

근데 9월 4일인가 붙들려 가가지구 9월 11일인가 왔어. 도루. 근데 9월 15일날 저기, 여기 누군가 잔치였는데, 잔치 보구 16일인가 아침에 새벽같이 보낸 거야. 여기 군인들이. 여기 군인들이 그랬어. (왜 보내신 거예요?) 정탐허라고 그런 거지. 그런데 안 가군 또 못배기게 하니깐—. 우리 아버지가 불고야. 다리 하나 손 하나가. 그러니깐 불고니까는 그 지랄들 한 거야. 그런데 가다가 죽여서 즈이들이 정탐을 했는지, 그걸 보냈는지 모르지. 그 눔덜두 다 죽었어 시양. 나이가 많아서. 우리는 항시 그게 불만이지.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는.

그리구 나이 어려서, 그냥 아부지가 그 때가 내가 열다섯 살이거든. 우리 아버지 간 때가. 열세 살 6·25(전쟁) 나구선, 그러니까 열 다섯이 못 됐지. 가을에 갔으니까. 열 네 살 먹구 가을에 갔으니까 인제 열다섯은 안 됐을 땐데. 그래가지구선 한 삼사일만에 왔어요. 도루. 그런데 여기 사람덜이 도루 보냈지. 날짜도 안 잊어버려져. 9월 16일날 갔어.

그래가꾸 못 돌아온 거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말은 평화가 곧 될 줄 알구, 내가 평화 돼서 와야지, 오면 뭘 하냐? 저놈덜이 자꾸 이렇게 허는 걸. 평화 되면 온다 그랬는데, 평화가 언제 돼? 그리구 나이가 있잖아 인제는. 그러니까 정탐을 해서 보냈는데, 저놈들이 갈 때 죽였는지 아님 갔는데 못 오는지 몰라. 그랬는데 그렇허다가 그럭저럭 그냥 휴전이 됐잖아."

(3) 어머니에 대한 기억: 셈이 부족했던 나의 어머니

① 배운 것이 없어 셈이 부족했던 어머니

"어려서 그냥 아버지도 그렇게 되구, 엄마도 좀, 아부지가 불고니까는 뭐라 그럴까, 엄마는 생긴 건 안 모자라는데 셈을 잘 못하는 거 그런 거 같아요. 열두 살에 시집오셨대. 우리 아버진 열일곱 살에 가구. 그래가지구선, 옛날이니까, 그렇게 열두 살에 시집와 가지구 그냥깐 시집살이라구 뭐 알아? 아무 것두 모르지. 그러다보니까 아무 것두 뵈지두 못허구 그러다 보니까 이 셈을 못 허는 거야.

(외갓집은 어디셨어요?) 우리 외갓집은 저 너머 송골이라 그랬어. (지금은 북한이에요?) 응. 요너머 개성 가는 데. 여기서 개성 우리가 한번 놀러갈 때, 거길 한번 디려다 볼려구 했는데 집이 없어요. 세 집밖이 없거든. 우리 외가집이는. 그런데 집이 읎드라구.

(그 때 마을 분들 모두 개성 놀러갔다 오실 때 같이 갔다 오셨어요?) 예. 갔다 왔어요. 가서 볼 거 아무 것두 없어요. 나는 그 전에 개성을, 우리 이모가 살아요. 그래서 그냥 한번 가본다 가본다 했는데 영 못 갔어. 그래서 그 날 개성이 어떻게 생겼나 갔더니 세상에 개성, 개성 하더니 그까짓게 무슨 개성이라 그러냐구. 아주 집두 볼 것두 없드구만 그냥. (어린시절에도 개성에 가보셨어요?) 못 가봤대니까. 못 가보구. (그런데 여기서 개성장도 보러 다니셨다는데…) 장보러 댕기는데, 우리 이모두 거기 살구 그랬는데, 우리 이모가 노상 여길 오는 데두 거길 못 쫓아간 거야. 그래가지구선 그 때 마지막에 쫓아간다구 쫓아간다구 그랬는데, 아버지가 못 가게 한 거야. 그랬는데, 갔으면 못 왔어. 갔으믄 못 왔어요, 그 때."

② 옷을 잘 만들어주시던 어머니

"(아버님이 옷도 많이 사 주시고 그랬어요?) 아유, 옷두 잘 못 읃어 입구 그랬어요. 근데 그냥 광목 같은 거, 저런데 나가서 옷 사입을 데가 어딨어요? 광목 같은 거 끊어다가 물들여서 해 입었지요. (그럼 물감을 직접 물들였어요? 무슨 물을 들여요?) 그냥 노랑물 들여서 하구, 분홍치마 이렇게. 광목에다 들여서 이렇게 해 입었지. 깜장치마에는 하얀 저고리. 그런 거 입었지, 어디 가서 옷 사 입어요? 못 사 입었지. (그럼 노랑물 그런 거는 어떻게 들였어요?) 인제 사오지. 노랑물감이 있어. 사오지 인제. 물감, 한 봉지에 얼마씩인 거 사와. 사다가 인제 물들여서, 우리 엄마가 인제 돈심[돈 셈]을 못해서 그렇지, 그런 거는 잘 해. (옷도 그러면 어머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네. 바느질은 이렇게 잘 하는데, 마름질은 잘 못 뜨셔요."

③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어머니

김O예 씨의 아버지는 6·25전쟁 중 44살 때 이북에 잡혀가서 돌아오지 못했다. 이 때 39살이었던 어머니는 이후 40여 년간 딸 가족과 함께 살다가 83세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어머니가 교통사고루 갔어. 그래서 내가 만든 잠바를 입구 갔다가 어머니가 춥다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씌워 놓구 있다가 그냥 거기서 그렇게 없어진 거야.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이 동네서 그랬어요. 세상에, 방앗간이 저 뭐냐? 우리 어머이가 저기 볏종자를 이렇게 치는 구경을 허는데, 방앗간에서 쌀을 싣구서 빠쿠를 하다가 우리 어머닐 못 본거야. 그래서 쌀 실은 차가 그냥 빠쿠를 해가지구. 그래가꾸 그 날루 돌아가셨어요. 그 때 팔십 셋인데. 마을에 그 방앗간 여태두 있어. 그런데 지금은 딴 사람이 저 너머에 갖다 크게 했어요. 인제는 그 사람두 죽었어."

(4) 결혼에 대한 기억 : 6·25전쟁 때 보초를 서다 다친 남편과 18살에 결혼하다

"근데다 또 우리 영감두 불만이 많구. 정부에두. 그렇게 해서 진짜 안 좋게 죽었는데, 딴 사람덜은 뭐야 군인해가지구—. 그런데 어떻게 수술을 했냐면 이 총알을 이 속에서 세 개를 끄냈대요. 세 개를 끄냈는데, 요 불두덩 요기가, 요렇게 요만한 못대가리 모냥으로 딴딴한게 불두덩에 있드라구. 근데 그게 실탄 맞은 자리래. 근데 일루 들어가 가지구 그렇게 되구. 또 이것[오른쪽 다리]두 다 맞은 자리야. 그냥 그 방공구뎅이에 있는 거를 그냥 내두른 거야 그냥. 그러는데 한 사람은 보초 스구, 보초 슨 사람은 도망가구. 우리 애아버이는 도망을 못가구 그렇게 한 거야. 사실 정부에서 돈 주는 건 떠나서 그래두 그건 알아줘야 된다구. 아유, 난 그게 분해 죽겄어. 우리는 6·25(전쟁)때 진짜 너무 불만이 많아요."

① 보초서다가 총을 맞아 거의 죽게 된 남편

"휴전되구는, 아니 그러니까 여기 휴전되기 전에, 여기서 인제 절루두 쏘구 저놈들이

저기 똥그란 산에 와 있드랬잖아요. 게서 여기서 마주 쐈어. 인제 마주 쌈지랄을 했는데…. 제네 아버이[남편을 지칭]가 나 휴전되고 만났거든. 열여덟 살에 만났어.

그랬는데 그 만나기 전에, 6·25(전쟁)때 군인덜 하고, 여기에서 자랐는데두 군인덜하고 마주 싸왔어요. 마주 보초 서구. 그랬는데 인제 죙일 일 허구 저녁에 보초서다가, 두 사람씩 섰어. 보초가 열 몇갠가 될 꺼예요 아마. 저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근데 우리는 저 끝트머리에서 두 번짼데, 둘이 서는 거야 한 막에. 둘이 서는데, 인제 하나는 고단하니까 자고, 하난 서구 인제 강굴러[서로 교대해서]. 인제 서는데, 우리 아버이가 들어가 잤대. 자는데 저눔들이 여길 다 들어왔대지 뭐야. 그러니까 그 스는 사람이 들어가서 깨놓고, 나오라고. 저눔들이 여길 와 있다고 인제 깨놓고, 저는 빨리 도망가고 우리 아부지는 인제 이렇게 총을 집는 순간에 벌써 드르륵 쏘드래잖아. 그래서는 그냥 총을 드르륵 쏘는 것을 다 맞은 거야.

그러니깐 그 놈들이 그거를 인제 끌구 가다가, 여기서 그냥 난리친 거지 인제 총으루. 그러니깐 그눔들이 우리 아버이가 너무 늘어졌으니까 가다가 인제 냄새를, 자기가 알잖아? 숨 쉬나 안 쉬나 하는 순간, 게서 숨을 안 쉬었대 아주. 안 쉬니까 그 눔들이 그냥 발길루다 차구선 그냥 갔대. 갔는데 그 뭐야, 눈을 떠보니까 읎드래지. 그래서 그냥 우리 동네에다 대고 막 소릴 질렀대. 다 가고 아무도 없다구 빨리 데릴러 오라구. 그래다 조금만 참아라 그러니까 참고 있는데, 나중에 데리러 나와서 저기 뭐야 군인들이 같이, 근깐 텔러라 그래두 되구 기관이라고 그래두 되는데, 그 본부에서 제시에이로 내보낸 거야. 인제 부상당했으니까."

② 병원이 하도 좋아 저승인 줄 알았던 남편

"내보냈는데 제이씨에서 뱅기를 타고 갔대. 뱅기를 타고 갔는데 얼루 얼루 갔는지 그냥 그 뱅기 안에서 그냥 미군은 그냥 막 때리고 그랬나봐 아마. 그래가지구선 얼루 갔는지 글쎄, 갔는데 얼루 갔는지 모른대. 근까 전신마취 시켰으니까 모르지 뭐야. 그랬는데 거기서 나중에 깨서 물어봤대요. 여기가 어디냐? 그러니깐 여긴 월미도, 인천 바깥이라 그러드래요. 그래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아주 진짜 병원이 그냥 너무너무 좋드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저승인줄 알았대. 지가. 저승인 줄 알았대. 그래서 나중에 깨보니깐 병원은 병원이드래. 미군들이 자꾸 그냥 와서 호각을 불구 하니깐 저기 나중엔 아, 여기가 병원이구나 이래구 살았어요."

③ 다친 후유증으로 당뇨를 앓게 된 남편

"그래다가, 유월 달에 그랬거든요. 유월 달에 그랬는데 음력 4월 달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음력 시월 달에 금천에 와 있다고 그러면서 소문이 났어. 아, 그래서 살았구나 그랬는데. 그 때는 우리는 나 하구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예요. 그냥 남남끼리인데, 아, 노인네들이 그 때 내가 열여덟 살인데 노인네들이 자꾸 결혼을 허래. 그 사람 허구. 그래서 우리 어머니두 반대허구 나도 싫다구 그랬는데, 그 이두 남의 집 살았어. 어머이도 일찍 잃구. 그래서 인제 그런 사람이니까 여자를 인제 자기 식구를 하며는 귀염을 받을 것이다 이래서 그거를, 그냥 자꾸 그러다 넘어갔지 뭐야. 할아버이들이 그러니깐. (아이고, 잘 하신 거죠.)

근데 처음엔 잘 했다구 그랬는데 허구 보니깐 이 사람이 그렇게 몹시 다친 거라. 결혼핸 연에 보니까 배꼽 위섬부터, 명치 있는 데서부터 불두덩까지, 그리구 또 여기[넓적다리 부분]도 아주 만창이야 아주. 여기가. 그랬는데 그렇게 된 순간인데, 결혼한 지 10년도 안 됐어. 그런데 그냥 그 후유증이지. 후유증을 그렇게 앓다보니깐 거기서 당뇨가 온 거야. 게 당뇨가 와서 한 십년 그렇게 살다가, 한 십년 더 앓다가 죽었어. 그래서 고상 많이 했어요."

④ 남편 살려보려고 온갖 수단을 다 써봤지만

"아이들 아파서 그렇게 해본 건 없구, 우리 제네 아부이 아파서는 병원에 가구 그냥 그래두 안 나니까, 할머니들이 또 뭘 해라 그래서, 아는 사람 안 데려다 허구 몰르는 만신 데려다 했지요. 두 번이나 했는데, 근깐 처음에는 만신도 몰르구 살다가, 지푸라기락두 붙들면 인제 저거 한다구 그래서 했지. 그래서 두 번이나 했는데, 한번은 효험을 봤어요. 그래가지구선 얼마, 한 일 년이나 됐을까 또 아파가지구 처음에는 고려병원에, 고 다음에 성모병원에, 고 다음엔 메디칼센터 거기, 또 대학병원에 네 군델 댕겼어요.

네 군델 댕겼는데, 가서 입원을 하믄 최소한도 이 주 있구 뭐 그렇게 있다 오잖아요. 또 해다 놓으면 쫌 뺀한데 또 올리구. 근데 그 전에는 음식 조절을 못 허구 약 조절을 못 해서 더해. 옛날에는. 지금은 약 조절을 해기 때문에 괜찮은데. 지금은 심허믄 인슐린을 맞구 그러잖아. 근데 그 전에는 그게 어딨어요 기냥. 그래 나중에 심하니깐 불알루다가 이렇게 물주머니가 생기는 거야. 그래가지구서는 병원에 가서 고치구서는 나중에 왔는데, 나중에는 또 여기 가서 무릎이 이상하더니 여[발가락]가 터져가지구 그

냥 고름이 나오구 그런 거야.
그래 나중에는 헐 수 없이 병원에 가니까 아유, 이렇게 까지 했는데, 며칠 안 남았으니까 잡숫구 싶은 거나 드리라구 그러드라구요. 그래서 그 때는 아주 오래 앓을 줄 알구 그냥 준비를 다 해왔어요. 요두 인제 비니루까는 요두 다 해가구, 요두 겸요 따루 사오구 그랬는데, 하룻저녁, 그거 깔구 한 이틀저녁이나 드러누었드랬나, 그냥 금방 가드라구요."

⑤ 나라로부터 아무 보상도 못 받아 너무나도 안타까워

"그러구 거기 기관들 말이야. 같이 군대생활이나 똑같은 거 아니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라에서두 암만 6·25(전쟁)때락두, 그런 거를 우리가 나설 사람이 없어 가지구, 딴 사람덜은 같이 군대생활해가지구 저기 뭐냐? 뭐라 그러지? 받았어 돈을. 근데 우리는 그것두 못해가지구 못 받았어요. 차라리 우리는 그런 걸 받아야 되는 건데 사실. 그런 걸 못했어. 난 접 때, 그 때[2014. 5. 9. 조사단이 처음 방문했을 때] 오셨을 때 그걸 그렇게 허구 싶더라구 말이. 그렇게 고상을 많이 했다구.
그리구 죽구 나니깐 6남매야 내가. 아휴, 6남맨데 사실 내가 살기 심들었어요. (아저씨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최O득이요. (고향이 어디시래요?) 고향이 없어요. 엄마가 요기 개풍군 개울에 가서 같이 있다가 죽었대요. 그래가지군 그 개풍군 사람들이 묻었대요. 개성 들어가는데 그 공동묘지에다. 그래가지구 거기서 무슨 여기 어영개[어룡개 저수지] 있는 데다가 자식 없는 사람한데 줬나봐. 근데 자식 없는 사람한테 줬는데, 자식 없는 사람한데 살다가 그 사람이 또 싫어가지구 여기 우리 동네 있는 사람한테 줬어. 그런데 우리 동네 사람한테 잘 키워가지구 스물여섯에 나 하구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데릴사위로 여기서 했겠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냥 너무 그런 사람을, 그렇게까지 아픈 사람인 줄 알았으면…. 그러니까 우리 집안네 올케가 저기, 누이 결혼했는데 그것 그냥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게 뭐야, 감자가 그냥 있냐고 그러드래니깐. 그것두 없는 줄 알았나 봐 사람들이. 다 그냥, 너무 몹시 다쳤으니깐. 그 정도로 다친 사람하고 내가 결혼했으니 뭐 얼마 살아? 그래가지구 십 년 동안만 같이 생활이 좋았지, 그냥 뭐 13년을 앓다가 갔어요. 쉰 한 살에 갔어요."

(5) 6·25전쟁 때 마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① 6·25전쟁 때 온 가족이 염병을 앓아

"(6·25전쟁 때 고생들 정말 많이 하셨네요.) 여긴 6·25(전쟁)때 사람들 많이 죽었어요. 6·25(전쟁)때 휘발유통도 그냥 막 던지구. 그냥 기관총으루다 막 허며는 그냥. 방공 구덩이 속에서 살았잖아요. (방공구덩이가 어디에 있었어요?) 산으루 있지요. 산으루. 6·25(전쟁)난다고 하니까 방공구뎅일 팠는데, 6·25(전쟁)폭격할 때 다 가기가 바쁘게 다 죽는 거야. 아유.
그 때 염병도 했잖아. 염병두 많이 해서 죽구. 열병. 근데 그게 어떻게 돼서 왔어요. 인민군들이 어떻게 해서 묻어 왔는지, 모르갔어요. (그럼 어떻게 고쳐요?) 못 고쳤지요. 다 죽었지요 왠만해서는. 나도 앓았는데, 나도 앓고, 우리 아버지도 앓고, 우리 엄마도 앓고 다 앓았어. 그런데 다 살았는데 아버지는 저기 끌려 가구. 많이 죽었어요. 여기서 많이 죽었어요. 염병으루. 그런데 걸린 사람은 아는 사람네루 가질 못했잖아. 옮는다구.
근데 이렇게 앓고 드러눠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를 웃방에서 들어와 가지고 저눔들이 우리 아버지 저기 있는 걸 그냥 막 때려주고 그냥 데려가고, 또 데려갔는데 또 동일인이 들어와서 때려주고 데려가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난 이상허다 왜 우리 아버지를 누가 저렇게 때리나 하고 방공구뎅일 찾아갔어. 그랬더니 글쎄 우리 아버지가 거기서 방공구뎅일 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방공구뎅일 파네 그러니까, 왜? 그러니깐, 난 아버지를 어떤 사람들이 와서 막 때려주니깐, 그냥 저기 뭐야, 그 사람한테 붙들려 간 줄 알았다고 허니깐, 너 헛 봤구나 그러면서 가서 드러눠라 그러드라구. 그런데 머리가 하나도 없이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몹시 앓으니까. 아휴, 그 때 뭐 약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다 죽는 거지.
근데 그건 한 사람씩 빼주고 앓는대. 그거는. 근데 내가 젤 나중에 앓았어. 우리 엄마가 제일 먼저 앓구 아부지 앓구 나 앓구. 그런데 6·25(전쟁)때 염병을 앓는데 먹을 건 없지, 그래서 기력이 없어 더 죽는 거야. 사람들이.
불에 탔잖아요. 식량들이 다. 불에 타서 그냥 탄 쌀 건져다 먹고 그랬지요. 아휴…."

② 방공구덩이에서도 많은 사람이 죽어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놓고 6·25(전쟁)가 났잖아. 그러니깐 인제 그 베[벼]들을 다 버리고 나갔지. 버리고 나가서 몰래몰래 나가서 그냥 베 이삭들을 막 잘라다가 푸대에다

담아서 그냥 갖다가 찧어서, 밤에 찧구 그냥, 그렇게 해서 먹구. 그 앞에 논들을 다 버리고 갔잖아.

(6·25전쟁 때 피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신 거죠?) 나는 안 나갔어요. 우리 식구들은 다 안 나갔어요. 아버진 불고니까 누가 잡아가랴구 안 가구, 엄만 하나니깐, 나하구 동생허구 네 식군데 아무도 안 나갔죠. (그럼 1·4후퇴 때도 그냥 여기에 계셨어요?) 예. 그래서 고생 많이 했어요. 방공구뎅이 파구. (방공구덩이에 보통 몇 사람이나 있어요?) 파기에 달린 거죠. 어떤 구뎅인 많이 파가지고 여러 식구가 다 들어가고. (방공구덩이에 있다가 몰살하고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데 방공구덩이에서, 옛날에 그 6·25(전쟁) 때 피양서 피란 나왔잖아. 그런데 피양서 저기 방공구덩이에 있다가 죽은 사람덜두 있어. 방공구뎅일 쳐 가지구. 그러구 그 방공구뎅이에 있다가 추우니까 이렇게 남포불 키는데 불이 나서 연기가 나서 질식해서 죽은 사람도 있구. 많아.

그리구 소두 이 동네에 집집마다 다 있었드랬잖아요. 다 그냥 폭격할 때 죽구 세 마린가 남았어. 다 죽구. 그래서 세 마리 가지구 동네에서 다 빌려다 쓰구 그냥. 그렇게 해서 그 때는 뭐 농사나 많아? 비행기 지랄을 하구 그러니깐, 아, 그 비행기가 저 마산[대성동 근처의 산 이름]가지구 싸우구, 서루 그거 가질려구 싸우구 서로 싸웠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저눔들이 뺏었지. 그래서 인제 거기서 구뎅일 파고 들어가서 도라산에 구뎅이[땅굴] 있잖아요? 거기[마산]서부터 파 들어간 거지."

③ 6·25전쟁 때는 이런 저런 일로 죽은 사람이 엄청 많아

"그리구 내가 6·25(전쟁)때 몇 월 몇 일 불난 건 내가 알아. 11월 달에 무조건 동네에 다 불났어. 그리구 2월 달에. 2월 17일날, 음력으로. 17일에 와서 또 막 불을 놔 가지고 그냥. 불 놓나마나 그 땐 뭐 탈거나 있어? 11월달에 다 타고. 그냥 휘발유통을 막 던져가지구, 길에 가다가 우리 집안네 언니는 그 때 스무 살, 그 때 어떻허다가 피란을 안 나가가지고, 그냥 그 휘발유통에 디어 타죽었어. 그러니까 저렇게 저렇게 죽은 사람이 엄청 많아. 그리구 그 집 식구들은 다 옘병에 갔어 다. 읎어. 피란 나간 사람들만 남구. 피란간 사람들두 옘병 해서 고상들 많이 했드라구요.

그리구 6·25(전쟁)때 다 불놔서 집이 하나도 없었잖아. 80호 됐거든 여기가. 80호 됐는데, 불을 6·25(전쟁)가 음력으루 5월 10일날인가 났는데, 그날 또 내 사촌동생을 낳지 뭐야. 그래가지고 우리 고모부네가 피란을 못나가다가 1·4후퇴 때 나갔어. 나갔다가 또 그만 식구만 버리고 갔으니까, 또 금방 어떻게 수소문해서 들어와 가지구 저놈들에게 붙들려 갔다니깐. 우리 고모부도.

우리 아버이[남편]두 그 피란 나가서 고상 많이 하고 들어왔는데, 안 들어왔으면 차라리 그런 모욕을 안 당했는데, 그런 모욕을 당해 가지구 그 병을 연관을 해가지구 당뇨가 합병증이 돼버렸어. 시방은 당뇨병을 유지해 나가잖아 지금은. 그런데 고려병원을 갔는데 이상준박사가 저기 당뇨병이래. 그래니깐 당뇨병이 난 뭔가 그랬어요. 그래서 당뇨병이 옛날로 말하자면 조갈병이래. 그래가지구선 어떡허냐구 고칠 수 있냐니깐 고칠 수 있대. 아, 그래가지구선 그 느무걸 고칠랴고, 그 때 돈이 어딨어? 그 때 30만원이면요, 엄청 큰 돈이예요. 왜 그러냐하면 그 때 300만원 가지면 집 샀잖아. 아휴, 그래서 남의 빚 얻어다가 그냥 아버이 병 고칠려고 애먹다가 못 고치고 죽었어."

④ 한겨울 눈 속에서 양회종이로 발을 초매구 도망간 닭을 찾아 다녀

"어렸을 때 짚신 신다가 겨다, 겨다 깎아서 여길 끄나풀을 이렇게 해서 매서 신구 다녔는데. 짚세기는 눈이 안 묻어나는데, 겨다는 눈 올 때는 눈에 자꾸 쐬이어 못 신어. 그전에 6·25(전쟁)땐 짚세기 신었죠. 신발이 어딨어? 신발 읎지.

6·25(전쟁)때, 아유 맨 몸둥이루 저기 했다가, 눈이요 얼마나 많이 왔는지 닭이, 집에 불이 났으니까 닭이 다 이렇게 뿔뿔이 헤지지 않았어요? 그래가꾸 인제 닭을 이제 아침에 일찍, 그냥 저 넘어서, 이 넘언데, 그 너머서 뭐 있어야지 신발이 있어? 뭐 있어? 양회종이루다가 이 발을 초매구 그럭허구선 가서 닭을 붙들어다 먹는다고 갔는데, 아침 일찍 갔그든. 인제 나무에나 뭐 어디에 올라가 있으리니 허군. 그런데 닭이 산으루 뛰었는지 없어요. 산으루 가서 낭구에. 근데 낮에 가면 있거든. 근데 아침에 일찍 가니까 없더라구. 그니까 나무 같은데 어디 가서 얹어서 살았어요.

아유, 그 전에 6·25(전쟁)때 뭐 불에 탄 쌀 먹질 않았나, 밥쌀이 없어가지구 그냥."

⑤ 개성 사람은 비누를 만들어 팔러 와

"그 때 막 폭격하구 그러는데두, 개성 사람이 막 장사하러 나와. 저들도 먹기 힘드니까. 막 비누 같은 거, 옛날에 어딨어? 읎지. 그니깐 양잿물루다가, 겨루다가 비눌 만들어다가 한 장에, 그 큰 거 한 장에 버리쌀 한식 되 (6·25전쟁 때도 그렇게 장살 했어요?) 응, 저희들두 먹구 살아야 하니까. 기냥 막 폭격허는 데두 그냥 장살하러 오드라구요. 자봉틀두 갖다 팔구 그냥, 먹기 심드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갖구 와가지구 막 바꿔가구 그랬어. 이모두 그 때 장살 많이 나왔지요.

6·25(전쟁)때 막 폭격허구 그래두 검정고무신 같은 것두 막 지구 나왔어. 그러니깐 어쩔 수 없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뭐 가다가 죽구 오다가 죽구 그랬갔지 뭐 다 살았겠어요?"

⑥ 똥그란 산은 동네의 화근덩어리

"6·25(전쟁)때 저 똥그란 산 허구 여기 시양 사무실 있지요? 군인덜. 거기 허구 마주 쏴. 근데 그 전에는 문이 문창호지잖아. 유리가 어딨어? 유리가 없지. 또 총알이 여기서 쏘면 저리루 날라 가구 저기서 쏘면 이리루 날라 오구 서루 그렇게 싸우는 거야 그냥.

그 놈들이 거기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래 처음에는 몰르구 어떤 사람이 조 잘르러 갔다가 그 눔들한테 총 맞아 죽었어. 스무 살 먹은 총각이. (언제요?) 6·25(전쟁)때. 그러니깐 그 때는 저 똥그란 산이 화간이었드랬어. 그 때는. 불만이 많지 그게. 여기서 여기루 쐈는데, 저놈들이 벽 속에 있으면 암만 쏴두 안 맞지. 그래서 비행기가 저기, 그러니까 군인들이 폭격을 인제 탱크루다가 쏘잖아. 쏴두 가보니까 밭 가운데만 떨어졌지 그리룬 하나도 안 떨어졌어. 나중에 가보니깐. 그래 이놈들이 방공구뎅일 파고 있는 거야 그 속에. 그러니까 여서 암만 쏴두 소용이 없지. (지금 팔각정 있는 곳이 똥그란 산이었어요?) 예. 그렇게 구뎅일 파고 있으니 여기서 쏘면 죽냐구? 안 죽지.

그러니깐 처음에는 그걸 우리는, 6·25(전쟁) 났으니까 그놈들이 여 와서 몰래 있다가 잡아가는 줄은 생각두 못했지. 근데 두 사람 거기서 잡아갔어요. 두 사람, 게서. 그 아이가 세 살에, 그 때 6·25(전쟁)때 난 아인데, 두 살 먹어서 붙들려 갔지. 돌 지난 년에. 아이구, 여기서 그냥, 증말 아유, 죽은 사람들두 많구. 피양서 피란 나와가지구 거기 나가서 일 하다 죽구. 나가서 죽은 사람들두 많아. 내가 휴전되구 나서 저기 그 때두 한창 저기라니깐. 죽은 사람들두 엄청 많아.

(죽으면 여기서 다 어떻게 했어요?) 그냥 버리는 거지 뭘 어떻게 해요. (묻어 주지 않아요?) 묻어줄 수도 없어. 어떻게 묻어요? 여기서 옘병에 죽었잖아요? 우리 집안네는, 우리 아부지가 그 때 붙들려 가기 전에 그냥 검편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묻어요? 그걸 못 묻죠. (검편이 뭔데요?) 이런 데 내다 놓구 그냥 염으로다가 싸매거나 그런 거지. 어쩔 수 없는 거야 뭐. 사람덜 죽어도 못 묻어줬어요."

⑦ 땅에 묻은 곡식과 옷도 군인들이 다 찾아 써버려

"6·25(전쟁)때 인삼밭덜, 개성사람덜이 심은 인삼을 우리 동네는 우리 동네 사람들이 캤지만, 저런 데는 뭐 군인들이.

아유, 군인들이 말이야. 휴전되구 나서 저런 데를 돌아다녀보니깐, 냇물 뚝에다가 곡식두 묻구 저기 옷두 그냥 갖다 묻구 그랬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알구 군인덜이 다 그렇게 캤어. 캐서 빈 항아리야 다. 그런데 그냥 곡식두 떨어져 있구 옷두 안 맞으니까 즈네들이 안 해서 그냥 거기서 다 썩구. 냇물뚝에다 다 묻구 그랬는데, 그런 것두 다 쑤셔갔어. 군인덜이.

그리구 인민군들이 여기 많이 왔지. 내무서원들. 중국사람덜 뭐 엄청. 그러니까 여길 폭격허는 거야. 자꾸."

(6) 가난했던 어린 시절, 먹는 고생은 정말 많이 해

"(아버님이 강릉 김씨셨는데 물려받은 땅은 없었어요?) 농토가, 원래 그 전서부터 어렵게 사니까, 저 소작으루다가 땅 서 말지기 하고 밭 서 말지기 하고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때 왜 더 먹을 게 없냐면, 땅두 서 말지기 있는 게, 저 짝[사천강쪽]인데 물이 자꾸 가요. 근데 물이 자꾸 가니까 쌀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구 밭곡 가지구 살래니까 그냥 뭐 조 심어서 조 먹구. 떨어지면 또 식량 똑 떨어지구. 또 버리 심어서 버리 먹구 떨어지면 또 식량 떨어지구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가꾸 아부지 잡혀가구 그러구나서 고상 엄청 많이 했어요. 진짜 그냥 나물만 뜯어다 먹구. 그 때 멕이가 없으니까. 여기 사람덜은 뭐, 좌우간 시집온 사람덜은 모르지. 여기선 나 허구 홍O순 씨라고 있는데, 아마 홍O순 씨는 우리네보다 고생을 안 했어요. 어머니 아부지가 떳떳하니깐. 그니깐 저기 나만, 그래서 우리 또래끼리 놀면 나는 나가서 나물이락도 해 와야 끼니길 허는 거야. 하루에 쑥 한 대리끼, 나물 한 대리끼, 이렇게, 휴전되구 나서.

(들나물은 뭐뭐 있어요? 여기에) 들나물은 많죠. 저기 미나리도 있구, 질경이, 또 저기 뭐야, 들쑥두 있구 여기에 많아요. 소스랑깨비도 있구. 소스랑깨비는 이렇게 똥그란 건데 가달가달 난 건데 맛있어요. (그걸 어떻해 해서 먹었어요?) 그걸 삶아서 무치지. 그래서 그 전에는 간장을 많이 담가도 간장이 쩔벗어. 그냥 나물은 무쳐 먹구. 쑥은 해다가 쌀 한 웅큼 섞어서 개떡 쪄 먹구. 하여튼 먹는 고상은 정말 많이 했어요.

(여기에 취나물 같은 것은 없어요?) 취나물은 저짝에 있었지요. 산에 있으니까 못 갔죠. 원래 취나물은 많은데, 산이 원체 불이 안 나고 이렇게 쌔였으니까 나물이 안 나는 거야. 게서 저번에 내가 천마를 캐러 갔는데, 밀나물이라구 있어요. 그런데 그게 6·25(전쟁) 나군 여태 못봤는데, 거길 가니까 글쎄 밀나물이 이렇게 났드라구. 그래서 시상에 밀나물이 있네, 그리구선 꺾어다가 고사리마냥 삶아서 무쳐 먹었어."

(7) 6남매 낳아 키웠지만 지금은 혼자 살아

① 옛날에는 생기는 대로 아이를 낳아 6남매나 낳아 키웠어.

"(자녀가 6남매라 그러셨지요?) 옛날에는 아이들을 있는 대루 낳잖아. 그냥 한 사람당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 뭐 이렇게 낳잖아요. 그런데 우리네가 열여덟에 결혼을 했는데, 스물한 살 때만 갔어두 인제 애를 많이 안 났어. 그런데 우리네는 열여덟 살에 결혼을 해가지구 열아홉 살에 낳지, 한 해 걸러 낳는 거야. 수물 한 살에 낳지. 수물 세 살에 낳지. 그런데 수물 한 살에 간 사람은 아이 둘밖에 안 났어요. 나 하구 동갑네가. 그런데 나는 일찍 시집가가지구 여섯이나 났지. 그런데 지금들은 아유, 아이 하나만 낳구, 둘만 낳구 그러니 얼마나 좋아? 아이들 많이 낳구 고생들 얼마나 많이 했어요? (아이들 아래로 내려 갈수록 예쁘잖아요?) 아이를 날수룩에 그렇긴 해요. 그냥. 미운덴 읎어."

② 첫아이만 빼고 나머지 아이들은 직접 삼을 갈라

"(옛날에 애기 낳으면 어떻게 했어요?) 우린 애기 나두 내가 다 했어요. 인제 애기 나면 첫 아이는 저 파주병원에 가서 났는데, 지금 그 양반이, 그 애기 받은 양반이 어디 있어. 김00이라구 도립병원에 있든 사람인데, 그 땐 총각이야. 그 땐 장가 안 갔을 때 애를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구십 몇 살이야. 여태 의사해. 근데 거기서 하나 받군 내가 집이서 낳어 다.

(애기 낳으면 상 차리거나 그런 거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 걸 잘 못해. 미역국 끓여다 주면 그냥 먹구. 내가 삼 갈르구 내가 혼자 있을 때두 많이 낳어. 둘째두 혼자 낳구. 엄만 일 가구 나 혼자 낳구. 그냥 삼 갈르구 다 했지. (그럼 삼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담아 놨다가 내다가 태우잖아요. (애기 처음 입는 옷은 어떻게 했어요?) 준비는 다 해놓지. 내가 애를 놓겠다 그러면 준비를 해 놓는 거야. (애기 옷감은 어디서 나요?) 사와야지요. 저 문산 가서. 그 때는 문산이 아니구, 그 때는 문산두 없었어요. 근데 저 금촌 가서 했지.

(아이들은 다 여기 대성초등학교를 다녔어요?) 네. 대성초등학교 댕기구. 딸네민 저 금촌 파주학교. 아들네미들은 금천에 문릉학교. 거기 댕기구선, 또 저기 큰아들은 공부가 짧아가지구 인천공고로 갔어요. 인천고등학교까지 마치구 와서 농살 진거지. 결혼은 여기서 허구."

③ 아이들 옷도 다 만들어 입히고, 지금도 내 옷이 안 맞으면 고쳐서 입어

"우리네는 우리 아버지를 닮아서 그냥 두루매기 같은 거 뭐 이런 거두 내가 마름질을 해서 했거든. 쓰봉 겉은 것두 내가 다 만들어서. 애들 옷두 다 맨들어 입히구.

(지금 입고 계신 옷도 다 만드신 거예요?) 이거는 사 왔는데, 너무 짧은 거야. 이게 이렇게. 그래서 뜯어서 딴 단 대고 해 입었지. 자봉틀두 있잖아요. (저 재봉틀은 언제 사셨어요?) 저거 산지 오래지 않았어요. 내가 아마 저게 세 개짼 거야. 발자봉틀 있다가 발자봉틀 집어치구, 손자봉틀 하나 또 옛날에 개성에서 사온 건데, 이런 거 아니구 이렇게 저건데, 그건 또 안 돼가지구 딸이 또 하나 사줬어요. (전에 쓰시던 거는 다 어떻게 하셨어요?) 버렸지."

④ 큰 아들만 생각하면 지금도 항상 걱정

"그 때는 며느리 하난 봤어요. 애들 아버지 죽기 전에. 큰 아들이 너무 일찍 장개를 갔어. 그런데 내가 그걸 안 해려 했어. 그 때 수물 두 살인데, 근데 너무 어른스럽게 잘하니까 어른인 줄 알았대. 그래가지구선 아이, 그걸 데리구가서는 알롱거려서 선을 봤어. 근데 또 수물 두 살에 왜 그걸 했냐구. 아유, 그래가지구 애를, 즈이 아버이는 그래서 일찍 잘 봤지. 손주를 보구 죽었으니깐. 큰 아인 그냥 그렇게 일찍 쟁갤 가가지구선 또 일찍 손줄 봤잖아. 그래가지구선 손주는 남맬 나서 시양 일곱 살 됐는데, 큰 아이는 지금 딴 여자 얻어서 일산 가있는데, 안 좋아요 간이. 간을 짤랐거든요. 짤른 지가 한 오년 됐는데, 재발이 돼가지구 지금 일산 병원에 가 있어요. 내가 큰앨 생각허믄 지금두 항상 걱정이예요.

하나는 나가서 장사하구. 둘째가. 저기 금촌에서 매운탕집 허구 있어요. (매운탕집 이름이 뭔데요?) 대성동매운탕집이라구. 그리구 딸 둘인데, 하나는 미국 가 있어요. 미국 사람하구 결혼해서 간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민 간 건데 남매 낳구 잘 살구. 그리구 하

나는 여기 금촌에 있구. 막내가 쌍둥이야. 쌍둥인데, 하난 죽구 하난 여기 있어요. 마흔 니 살인데, 당뇨루. 회사에 댕기다가 그냥 술 있는 대루 그냥 막 먹구 그러다가 그냥 당뇨 있는 거를 모르다가 나중에 술증져가지구 병원에 가니깐 당뇨라 그래가지구. 회살 댕기니까 병원엘 제대루 못가는 거예요. 일요일날엔 또 병원이 안 허구. 그렇게 해선 그냥 지내구 있다가 죽었어요.
그래 여기 있는 거 허구 큰 아들허구 농살 지었거든요. 그런데 큰 아들이 그런 병이 걸려가지구 막내가 다 농사를 맡구, 큰 애는 지금 병원에 가 있어요."

⑤ 한때는 열 한 식구가 살던 집안, 그러나 지금은 혼자 살아

"(그럼 지금 막내랑 같이 사세요?) 아니, 나 혼자 살아요. 막내는 저 건너 문산 저의 집에서 사는데, 아이들 교육 때문에 나가 살아요. 마누라는 그냥 거기서 밥해 주구, 아들은 거기서 자면서 여기를 댕기면서 농사를 지어요. 막내 아들 손주 녀석이 올해 대학 갔거든요. (어느 대학 갔는데요?) 뭐, 명지대학이라든가 난 잘 모르겠어.
(그럼, 이 집에서 혼자 사시는 거예요?) 혼자 살아요. 그래두 그 전에는 열 한 식구 살았드랬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는 다 세간 나구, 아부이 죽구, 어무이 죽구, 동생 시집 가구 그러니깐 이제는."

(8) 나, 지금도 춤은 잘 춰요 노래는 못하지만

동네에서 들어보니, 예전에 마을에서 대동굿을 크게 할 때 김O예 씨가 춤을 추다 팔이 빠진 적이 있다고 하여 그 내용을 물었더니 들려준 것이다. 듣던 사람들이 모두 함께 웃었다.

"그거는 내가 까불어서 그렇지. 저기 그 무당들이 집이 들어가 저녁이면 자. 거길 비워 놓구. 근데 굿당을 비지 말래요. 그래니까 우리덜이 거시서 샌다구요. 샜는데, 심심허니까 그냥 돼지두 시워[세워] 보구, 그냥 말두 타 보구 그냥 별지랄 다했어. 그 옛날에 그 저, 말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말(좌), 그거를 쌀을 이렇게 부꾸구, 거길 올라가구 그런 거야.
거길 올라가서 넘어지는 바람에 팔이 빠졌어요. (아, 춤추다가 빠지신 게 아니고요?) 거길 올라가다가, 올라가서 이제 춤 춘다구 올라가다가 이게 넘어져서 춤두 못 춰보구 이게 빠졌어요. (오른쪽 팔꿈치가요?) 이게 뿌러진 만큼 시간이 가대요. 늘어난 건 아닌데, 이걸 맞춰가꾸, 이것 맞춰 났잖아요. 근데 기브스를 했는데, 그걸 필래니까 그렇게 심이 든 거야. 필려니까.
(대동굿은 몇 년에 한 번씩 했어요?) 그 전에 5년에 한번 했어요. 그런데 시양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벌써 대동굿한 지 한 십오 년 됐을 걸요. 십오 년 넘었을꺼야 아마. 인제 이 동네에서 이 대동굿을 하려면 화합이 되거든. 화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젊은 사람덜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화합이 안 되기 때문에 없어진 거야.
나, 지금도 춤은 잘 춰. 놀러가면 춤 추는 건 잘 해. 노래는 못 해두. 노랜 못해. (팔 빠지고 그러니까 무당 아줌마들이 뭐라 그러지 않았어요? 벌 받았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하하. 그랬갔지 뭐."

(9) 이제 아이들하고 살 만하니까 왜 이렇게 몸이 아픈지 몰라

김O예 씨는 2014년 6월 8일 다쳐서 금촌도립병원에 약 한 달간 입원했다가 2014년 7월 10일 퇴원하여 마을로 돌아왔다. 우리가 김O예 씨를 처음 만난 건 퇴원 후 약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다.

"자랄 때두 사실은 일본 정치 때 나서, 우리가 부모가 불고니까 우리가 고상 많이 했어요. 먹을 것두 없구 진짜 많이 고상하고 자랐는데, 지금 진짜 아이들하고 살만 하니까, 내가 지금 일흔일곱인데, 내가 왜 이렇게 몸을 자꾸 다치냐 이 말이야 응? 아유, 고상을 하도 많이 해서. 이거를 예순일곱에 다리를 한꺼번에 수술했어요. 그래가지구선 이거만 그랬으면 괜찮은데 너무 자꾸만 다쳐가꾸 그냥. (칼슘 같은 거 들어간 것도 많이 좀 잡수세요.) 먹기도 잘 먹어요. 원체 생긴 게 이렇게 대살이구. 그래서 이렇게 뼈가 너무 강한가. 그래 이번에 병원에 갔을 때 그것두 검사를 해봤어요. 골다공증. 이만한 기계에 들어가서 했는데, 내 나이 치구 그만큼 골다공증이 없는 사람이 있느냐 이런 거지. (아, 그러면 다행이시네요.)
근데 이게 수술을 뒤에 뼈있는 데서부터 여까지 갈랐대. 이짝은 또 옛날인데 한 6~7년 됐어요. 이짝에는 또 요기 나가다가 눈이 엄청 많이 왔는데, 군인덜 저기 회관에서 부녀회장이 군인덜 떡을 끓여 먹인대. 그래서 떡국 먹으라구 할머니들도 오래잖아. 그래서 또 나가는데, 요기서 넘어져 가지구선 이게 고관절이 깨진 거야. 그래서 나는 엄

청 수술을 많이 했어요. 이것 좀 봐요. 무릎팎도 다 수술한 거야. 수술한 데다가 요기 또 부러졌지. 여기 또 그렇게 됐지. 여기 또 그렇게 됐지. 손목 또 그렇게 됐지. 다섯 번이나 그렇게 됐어. 아휴, 그래가꾸 몸이 성한 데가 없어. 그런데 살이 없어서 그런가, 왜 이렇게 자꾸 부러져요?

나는 이번에도 저기 할머니들 다 나갔어. 한증막에서. 근데 나만 남았으니까, 토방이 이렇게 우묵하잖아요? 그런데 손이 부러졌으니깐 이걸루다가 이렇게 짚고 일어날려고 손을 짚었는데, 못 일어 나겠드라구. 다리가 성하질 않아서. 그래가지구 다시 일어날려고 앉았는 과정이었는데 그렇게 깨졌어. 아유.

(제사는 누구누구 지내세요?) 우리 애들 아버지만 하나. 어머니는 친정에서 안 드린대니까, 절에서. 절에 가서 인제, 우리 동생이 절에 댕겨요. 그래 동생이 절에다 위하구. 외손봉사는 못 헌대잖아. 그런데 요즈음은 딸이구 아들이구 하나만 낳는 세상이잖아. 그러니깐 막 허나봐. 제사는 내가 허믄 아이들이 와서 다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 일이 많은 거예요. 근데 지나간 동지달이 지산데, 아범이 저렇게 아프니까 못 지냈지.

그리구 내가 옛날에는 고사두 잘 해먹구 그랬는데, 지금은 안 해요. 내가 그런 거 잘 했어요. 잘 했는데, 지금 우리 아이덜이 자꾸만 저렇게 아프고 그러니까 안 해 먹어요. 해두 소용이 없는 거 같구."

(10) 돈 되는 일이라면 지금도 쉬지 않고 억척스럽게 일 해



장애인전동차를 탄 김O예 씨

우리가 김O예 씨를 처음 만난 건 금촌도립병원에서 퇴원한 지 약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는데, 이 때도 그녀는 아픈 몸을 이끌고 힘들어 하면서도 개인용 장애인 전동차를 끌고 멀리에 있는 고추밭을 막 갔다왔다고 했다. 이날 그녀가 얼마나 강인한 여성인가를 알 수 있었다. 김O예 씨는 다치기 전에는 110cc 오토바이를 타고 농사를 지으러 다니곤 했는데, 장애인 전동차는 스톱하는 방법이 오토바이와 반대라 불편이 아주 크다고 했다.

① 고추 심어 팔고, 콩을 심어 메주를 쒀서 팔아



고추장, 된장 항아리로 가득한 김O예 씨 댁 장독대

"아이구, 난 아주 고생될려니까 내가 이제 농사를 엄청 벌겨놨어요. 콩두 심어 놓고, 저 고추도 한 삼천 주 심궈 놓고, 깨도 심어 놓구 다했는데, 내가 거기 가 있으니 어떻게? 금촌에서 매운탕 하던 아이가 와서 다했어. 그거를. 여태까지. 농사를 4월부터 여태까지 다했어.

(그럼, 지금 농사를 어느 정도 지세요?) 우리가 지금 많이 짓지요. 많이 짓는데, 지금 아들이 저렇게 돼 가지구 막내가 다 맡았어요. 맡았는데 쟤가 인제 맡아가지구 다하면 한 2000가마 돼요. (고추도 3000주 심으셨고요?) 심긴 심었는데, 아유, 모내 놓구, 가지 따구 줄 띄구 그랬는데, 또 다쳐가지구 오늘 처음 가본 거야. 그랬더니 고추가 열리긴 엄청 열렸는데, 날이 가물어가지군 그냥 쏘득쏘득해. (쏘득쏘득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말랐다구. 여기 말 다른 게 많아요. 저기 개성말이 돼서. 여기 말 후방 가서 하면 못 알아들어요.

(돈 되는 농사는 뭐가 있어요?) 농사 지어서 돈은 못 벌어요. 왜 그러냐 하믄 내가 돈 벌랴구 여 넘어다 배출 심었어. 저기 추석 때. 그랬더니 그것두 복이라구 안 팔리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럭저럭 다 없애고 안 심어. 다시는. 그러구 돈 버는 거는 고추 심구, 고추 심어서 팔아. 그러구 내가 콩을 심어 메주를 쒀서 팔구. 또 고추장은 우리 아이가 매운탕을 해요. 그래서 여기 거 다 게가 갖다 쓰는 거예요."

② 십 년째 안 열려 도토리가 없어

"(전에 보니까 여기서 도토리도 많이 딴다고 하시던데요?) 도토리가 옛날에는 많이 열었어요. 근데 이즈막에는 여기 한 분이 이북에 붇들려 갔드랬잖아. 근데 그 때 많이 땄어요. 그 때. 그건 진짜 그 때 도토리가루 그야말루 한 삼십 말 더 했어. 엄청 많이 땄어. 근데 그 때 열리군 안 열리는 거야. 왜 그러는지 모르갔어. 안 열리는 거야. 작년에 내가 요기 밭에서 헹갈낭구가 열었어. 그래서 거기서 자꾸 따 모으구 저기서 행갈낭구 세 낭구에서 따 모아 가지구 도토리 녹말을 두 말을 했어. 두 말을 했는데, 어떻게 팔래는지 그래서 삼십 만원씩 팔았어. 그랬는데 팔았는데 올해는 고만 팔지 말아야지. 아휴, 도토리가 안 열어가지구.

(그런데 도토리나무는 여기에 아주 큰 게 많던데요.) 근데 안 열어요. 꽃은 아주 무척 많이 피는데두 안 열어요. 근데 올해는 저기가 불이 났었거든요. 제이시에서 오면서 불 났드랬어. 그러는데 그걸 안 꺼야 되는데, 제이시에서 다들 끄잖아. 그래서 만약에 그 불난 자리는 열 지두 몰라 올해. 왜 그러냐 하믄요. 벌레가 이게 너무 나무가 새여 있으니까 벌레가 생겨가꾸 벌레가 다 그냥 저기 열매를 다 쏠바 내려. 그래가꾸 없어요. 인제 타면 충이 죽어 버리지.

(도토리는 그냥 파세요? 아니면 가루로 해서 파세요?) 가루로 해서 파는데, 우린 못 팔아요. 집 수요가 아덜 딸이 육남매야. 미국에두 있구, 뭐 또 여기두. 그러면 그 눔덜 한두 되씩만 줘두 뭐, 동생두 있구 뭐, 팔 것두 읎어."

③ 기계값이 비싸 이제 벼농사 지어서는 돈 벌기 어려워

"그 전에는요. 옛날에는 다 손모 냈잖아요. 그 때는 우리가 다 몰려 댕기면서 다 모내고 그랬는데, 지금은 기계루다 내니까 편하지. 근데 편한 대신 지금은 돈은 못 봐. 왜냐하면 기계가 너무 비싸니까. 기계가 1억정도 가니 뭐, 그거 사가지고 또 망가질만 허면, 갚지도 못했는데 망가져 죄 또. 그래서 농사 지어서 기계 값도 안 나와요. 그리구 인제는 기계 땜에 사람을 사서 모내는 게 아니구 제각끔 내는 거야 모를."

2) 이북에 끌려갔다 온 경험이 있는 홍O순 씨

[여, 1935년, 78세, 돼지띠, 남양 홍씨, (남편 故 김O수 씨/1932년생)]



홍O순 씨

홍O순 씨는 대성동 토박이다. 호적에는 1931년생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1935년생으로 현재 78살이다. 호적에 31년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남편이 홍O순 씨의 나이를 4살 올려서 말했기 때문이다. 남편 김O수씨는 고향이 개풍군 봉덕면인데, 6·25전쟁 때 대성동으로 피란을 나와 텔러로 있다가 홍O순 씨를 만나 결혼했다. 18살에 첫 아이를 가지면서 결혼식을 하였는데, 현재 맏아들이 61세다. 3남 2녀를 두었는데 두 딸은 어려서 잃었고, 둘째 아들은 성인이 되어 술로 사망했다. 남편은 3년 전 해수로 사망하였는데,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묻혀 있다. 현재는 맏아들 가족과 함께 농사를 짓고 살고 있으며, 막내아들은 부평에서 개인택시를 하고 있다. 평생 농사일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자식들이 말려서 일을 쉬려고 해도 애들이 일을 벌여 놓으니까 거들지 않을 수 없어 계속 일을 하게 된다고 했다. 성격이 쾌활하고 잘 웃는 편인데, 다리가 많이 아프다고 한다.

홍O순 씨는 1997년 가을, 아들과 함께 마을 인근에서 도토리를 줍다가 이북에 끌려갔다 돌아온 적이 있는데, 이 일은 신문에도 보도된 적이 있다. 대성동은 군사분계선과 접하고 있는 마을인 만큼, 이와 같은 사건은 이곳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 특별히 홍O순 씨의 생애사를 조사하여 기록하기로 한다. 홍O순 씨의 생애담은 약술하고, 이북에 끌려갔다 온 내용에 대한 구술은 자세히 싣기로 한다. ( ) 속은 조사자들의 말이다.

(1) 초등학교 3학년 때 6·25전쟁이 나서 학교도 졸업 못 해

"뭐, 살아온 이야기 하자면, 심들었지요 뭐. 여기서 사는 게. 왜 그러냐믄 어려서는 이제 태어나서, 동생이 하나 있어요. 게서 그거 봐주라고 학교도 안 보내주셨어. 안 보내가지구 친구덜은 학교를 가는데, 가고파서 못살겠는 거야. 그래서 그냥 엄마보구 학교 가갔다구 그러니까 아일 봐야 되는데 어떻게 가느냐는 거야. 그러니까 옆집에 아줌니가 있다가 인전 애두 다 크구 그랬으니까 그래두 뜨는 눈자락도 보여야 살지 그렇게 안 보내면 어떻허냐구 아주머니 보내요 그러드라구. 그러니깐 그러면 낼서부터 가라 그러시드라구.

그래 내가 아주 내발로 걸어서 갔어요. 아이들 학교 가는 길을 따라서. 그래 가가꾸서는 왜 왔냐 그래 선생이. 그래서 학교 대니러 왔습니다. 그러니깐 저 가서 마당에 가서 스라구 그러드라구. 그래가꾸 마당에 가서 스구선, 그래서 체조허구 그러구선 들어와서 이제 들와라 그러구선 이제 학생이 한 명 왔다 그러니깐 같이 잘 놀구 해라구. 공부두 잘 아르켜주구 그러라구 그러드라구 선생이. 그러구선부턴 그때서부턴 다닌 거예요. 학교를.

그러자 인제 열 살에 갔는데, 겨우 3학년쯤 다니니깐 6·25(전쟁)가 났잖아. 그래가꾸 못 배운 거죠. 그래가꾸 겨우 국문 글자만 아는 거지 뭐. 못 배웠어요 그래서. 그래가꾸 책을 인제, 방공구뎅일 파고 살았잖아요. 그 속에서 그래 책을 가지구, 그 비행기가

뜨면 막 폭격하니까 몰래 몰래 인제 들어가구 책가방도 그 곳에 갖다 넣는데, 저 이북 사람들이 막 와서 저 방공구뎅일 들어가가꾸 책이 있으니까 가져가버렸어. 그 사람들이 잔뜩 와가지구. 그렇게 살았어요.

고생 무척했어요. 그 때 산 사람덜은. 우리 다 같이 여기서 살았는데, 방공구뎅이 속에서 살았대니까요. 그러면 그냥 비행기가 와서 폭격을 하믄, 방공구뎅일, 우리네 들어간 자리가 아니구 딴 사람덜이 들어간 자리에 그냥 폭격을 해서 가까스로 쑤시구 나오구 죽은 사람두 있구 비행기가 폭격해서 타죽은 사람두 많구요 여긴 그랬어요. (그럼 여기 방공구덩이가 어디에 있었어요?) 이렇게 산처럼 비슷한데 있으믄 거길 파는 거야. 파가지구 그 속에들 들어가 있었어. 원래 저 넘어가 살았는데, 지금 여길 넘어온 거야. 집을 여기다 지어줘서. 아유, 고생헌 생각허믄 말두 못허지 진짜."

(2) 오빠는 6·25전쟁 때 보초 서다 이북 사람에게 끌려가 안 돌아와

"우리 아버지가 원래 여기에 사신 건 아니구, 엄마가 여기에 살았어요. 강릉 김씬데. 아버지가 연천이 고향이신데, 엄마가 연천으로 시집을 가셨대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꾸만 죽어서 이곳으로 오셨대요.

동생 하나구. 오빠두 있었는데, 그 전에 보초 섰어요. 저기 방공호 파구선 그 산에 가서. 근데 방공구뎅이엘 가서 보초 스다가, 사복 입구 바지 저고리 입구 그러시다가 저기 사람들이 붙잡아 간 거야. 이북 사람들이 밤에. 그래가꾸서는 밤에 붙잡아 가서는 영 못 오는 거야. 영 못 와서 고만이지 뭐. 여기서 오빠한테서 조카 하나 낳았어요. 그러니깐 오빠 하나, 남동생 하나, 조카 하나 우리 그렇게 식구가 없어요. 간단해요. 엄니 아버지 하구. 그런데 올해 3월에 동생이 암으로 죽었어요. 그래 인제는 나 혼자 남았어요."

(3) 여기선 모두 아주 어렵게 살았어요.

"여기서 막 절구질 해 먹구 살았어요. 그 전에 어머니가, 맨날 쌀을 찧어 잡숴야 되잖아요. 어디 나갈 수두 읎구 그러니깐. 베를 그냥 털어가지구 그냥 막 찧는거야 집에서. 그러면 그냥 우리 어무니하고 맞절구질해서 그냥 절굉이질을 했어. 어머니 찧구 나믄, 나 또 절굉이질 해서 찧구. 또 그러구 밀 같은 거 갈아서 갈아 먹구 그랬어요. 우린 고생 무척 허구 살았어요.

그 전에 논밭에 있는 거 다 심거서 먹구 그랬죠. 그래가꾸 그걸 어딜 가서 찧어올 수두 읎잖아 여긴. 꽉 맥혀 있으니까. 그래가꾸 다 찧어서 먹구 살았다구. 보리는 능거서 또 밥해 먹구. 보리는 또 능거서 밥해 먹어야 되잖아. (능근다는 게 뭐예요?) 절구에다가 찧어야 해요. 절구에다가 찧어가지구, 그거를 그냥 무네미라구 해가꾸 좀 널었다가 다시 또 물쳐가지구 찧구 그래가지구 살았어요. 그래구 밀두 심거가꾸 찧어서 맷돌에다가 갈아서, 갈루는 치구 또 막 거친 거는 그냥 막잽이라구 그거는 그냥 반죽을 개서 그것두 해서 먹구 그랬어요. 그 전엔. 그 전에는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았다니까요. 여기선. 그래서 맷돌질이구 절구질이구 다 할 줄 알지.

그래가꾸 안 해본 게 없어. 베두 엄니 아부지가 비니까 같이 비구. 그래가꾸 베두 비구, 베두 여서 집이 마당까지 여 내리구. 또 민사처라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서 저 비료두 줬어. 그냥 준 건지 어떻게 준 건지 몰라. 줘서 그걸 이었는데, 한 푸대 이었는데, 목에서 삐걱 삐걱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이고 다니구 그랬다니까. 이구 집에까지, 여기서 집은 또 저 넘어 있었어요 그 전엔. 그래가꾸 그걸 머리에 이구 집에까지 갔다니까요. 그렇게 살았어 그 전엔. 고생들 무척했어요.

그리구 그 전엔 일주일만큼씩 민사처라는 데서 차를 대주는 거야. 대줘가지구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길 오면, 문상 갈려면 타구 나가구 사람덜이. 들어 올려면 또 그거 타구 들어 오구. 그러면 이 길이 그냥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그냥 먼지가 머리까지 눈썹까지 그냥 뽀얗게 끼는 거야. 안 지는 거야. 낭중에는 그냥 하두 그러니깐, 담요루다 쓰구 댕기구 그랬어. 그러면 애기를 가졌잖아. 그러면 그 차를 타면 미시꺼워요. 그러면 그냥 내려서 다 토허구 그래야 돼. 막 토허구. 노냥 그러구 다녔어. 휘발유 냄새나 가지구."

(4) 남편과는 연애로 결혼해

"남편이 군인으로 있었어요. 근데 남자들은 여자들을 보면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냥 이 사람도 찍접, 저 사람도 찍접 할랴구 그러니까, 우리 제네 아부지가 날 아주 꼭 자기가 찝어갈랴구 안 놨어. 그렇게 해가꾸서는 [권O순 : 집에 가서 아주 살았어.] 응, 그렇게 해가꾸서는 날 꼬셨어. 아유, 결혼이 뭔지두 몰랐으니까. 허긴 말해 뭘 해? 인물이 잘 생기구 그랬으니까 뵈기 싫지는 않드라구. [권O순 : 남편은 잘 생기셨어.]

응, 그래가꾸 애기 가졌는데 첫 애가 아들이야. (자녀분은 어떻게 되세요?) 셋인데 벌

써 갔어요. 하난 벌써 저 세상으로 갔다구. 둘째가 저 세상으루 갔다니까.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구. 셋째두 아들이구. 아이는 전부 다섯을 낳았는데, 딸 둘은 갔어요. 하난 부천서 살구 개인 택시허구. 하난 여기서 농사 짓구. 셋째가 개인택시 허는 거야.
결혼해서 잠시 후방에 가서 살았지. 그런데 다시 들어와 농사 짓구 그냥 여기서 살은 거지. 논농사 허구 그저 깨두 심구구. 그 전엔 소루 갈았죠. 지금은 기계루 갈지만. 그 전엔 소루 갈았는데 묵은 논을 갈려면 소가 못 골어. 그러면 한번 가면 소를 또 때려야 해. 때리면 또 가구. 그렇게 해서 논을 맨들었어요. 그렇게 해가꾸 논이라구 쪼금씩 해가지구 농사두 쪼금 짓구 그랬드랬지. 근데 지금은 많이 기계루다 갈구 기계루다 허니까."

(5) 잠시 후방에서 살다가 다시 들어와

"여기는 잠시 나갔다 다시 여길 들어온 거예요. 나가서 장살 했는데, 여기 같이 있던 놈이 또 와서 그냥 웅웅 대가지구 돈을 2,000만원을 우리 할아배가 준 거야. 그러니깐 장사돈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깐 돈이 읎으니까 장사두 물건을 제대루 자꾸 해다놔야 되는데, 덜 대구 그러니까 차츰차츰 안 되는 거야. 장사가. (무슨 장사를 하셨어요?) 그냥 잡화 장사. 쌀가게두 허구 연탄두 팔구.
그래가지구 우리 애들두 고생 많이 했어요. 사람두 안 두구 개네들이 그냥 학교 갔다 오믄 인제 주문, 누가 멫 장 갖다 달라 그러믄 그걸 주문, 멫 장 멫장 맡아놨다가 개네들이 오면 그걸 날르는 거야. 학교 갔다 와가꾸. 그러니까 공부시키러 나가가꾸 공부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깐 그렇게 애들을 부려먹으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연탄 날르는 사람을 두면 또 제대로 하지 않구, 돈두 지가 받아서 다 이렇게 쓰구 그러니깐 자꾸 돈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가꾸서는 가게가 자꾸 줄드라구. 그래가꾸 가게를 다 팔아 족쳐가지구서는 도루 일루 들어오자구 그래가꾸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기 들어오기두 무척 힘들었어요. 여기서 살다 나간 사람인데두 그렇게 안 들여보내주구 애를 먹였다구. (어디로 나가신 건데요?) 영등포. 서울 한국 타이어 있잖아요? 거기 새루 나는 거가 있어가지구 땅을 사가지구 집을 지어서 나간 거예요. (언제 나간 건데요?) 그걸 꼽아놓지를 않아서 모르겠네요. 애들 막내는 초등학교 있었을 땐데, 잘 몰르겠어요. 여기 집 헐리구 송파옥네 할아버지네 집에 이사 갔다가 거기서 바루 나갔잖아. 몇 년돈지 생각을 안해 놔가지구 아이들을 알텐데, 나는 몰르겠네요. 나가서 7년 있다가 다시 도루 여기루 7년 살다가. 72년돈가 92년돈가에 여기 다시 왔어요."

(6) 내가 고사를 안 해 먹는 이유

"아들 삼형제 쭉 낳구 밑으로 딸 둘을 낳았는데, 딸 둘은 어렸을 때 죽었어. (왜요?) 몰라. 그래서 내가 고사를 안 드려 먹는 거야. 고사를 디리구선, 불을 켜놓았는데 그 불이 남포불이 되가꾸, 그게 벌불이 되가꾸 집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애가 연기를 먹어서 그래서 죽구, 첫째 딸은. 그리구 하나는 돌 지났는데 백일기침이 걸렸어. 그래가꾸 그 백일기침에 그냥 돈을, 약을 써두 안 들어. 그래가꾸 금반지까지 다 팔어가지구 병원에 다니구 그래도 안 듣드라구. 그래가지구 죽었어요. 그렇게 해가꾸. (많이 우셨겠어요.) 돈이 없어가지구. 그 때 후방에서 돈을 다 까먹구 들어왔는데, 그렇게 기침하구 그러니까 반지까지 팔어서 했는데두 틀리는 거야."

(7) 남편은 명절만 되면 고향생각에 울어

"남편은 맨날 고향 얘기만 허다가 돌아갔는데 뭐. 자기 고향 못간대는 얘기지 뭐. 얼마나 애닯는 거지, 정월이나 팔월 추석이 되면 그럴 때 우는 거야. 더 생각나니까. 근데 난 안 봤으니까 하나도 생각 안 나드라구. 나는 시집살이는 안 허구 친정살이만 했어.
(아저씨는 언제 돌아가신 거예요?) 한 삼년 됐어. 해수가, 별나게 해수가 생기드라구. 벼베는데 갑자기 기냥 숨이 차서, 숨이 넘어갈 거 모냥 그래서 병원에 모시구 갔는데, 그게 해수래요. 그래가꾸 기냥 그 때는 나갔다 다 망해서 들어와가지구서는, 기냥 돈두 읎잖아. 그래가꾸 약을 제대로 못 써가지구, 그러니까 그걸 길른 셈이지뭐 그러니깐. 약을 제대로 그 때 바로 약을 질렀으면 살았을텐데. 나갔다 여길 다시 들어온 거예요."

(8) 도토리를 줍다가 이북에 끌려갔다 와

우리는 고생하며 산거밖에 없다고 해서, 신문에 도토리 주우러 갔다가 이북에 갔다온 이야기가 실린 것을 보았다며, 그 이야기 좀 해달라 했더니 들려준 것이다. 마을회관에서 몇몇 아주머니들과 함께 있을 때 들려준 것이라, 이 분들도 이야기판에 참여했다. "이런 얘기는 허면 안 된다는데…" 하면서 시작했다.

"그 사람덜두 우리 사람덜 허구 똑같에요. 그런데 인제, 군인만 좀 악척스럽게 그러는 거지. 우리가 거길 넘어가지두 않았는데 넘어갔다구 그러구 그냥 그래가꾸서는, 그 사람덜이 반시간 있다 보내준대 그러면서 가재는 거야. 그래서 난 못간다. 우리 애들이, 손주들이 할머니가 나갔다 들어오면 밭에 갔다 인제 오셨냐 그러구 맨날 깍듯이 인사허구 응, 나갈 때는 안녕히 다녀오시라구 그러구 그러는데 내가 이거 가서 며칠을 어떻게 있냐? 못 간다구 그러니깐 반 시간만 있다 보내준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더니 보내주지 않으면서도 괜히 반 시간 있다 보내준다 그런 거야. 그래가꾸 우리나라 하구 이북사람하고 회의를 해야 된대. 그래야 보내준대요. 그래가꾸 사흘밤을 잤어 거기서.

그런데, 가서 그 이튿날 하룻밤 잤어. 낼은 갈꺼냐 그러믄, 아이 어머니 쪼끔더 기달려야 돼. 그러믄 왜 반시간만 있다 보내준다구 그짓말한 거잖냐? 왜 그짓말을 해가꾸 사람을 끌구 오냐 말야. 애들은 그냥 집에서 기다리구 막 그러는데…. 그랬더니, 아이 그래도 여기에 오셨으니 할 수 읎대. 거기서 회의를 해야만 보내주니깐 가만히 기달리구 있으래. 가만히 계시래. 그래서 그냥 하룻밤 자구 또 하루잠 자구. 게 밥을 해다 주믄 밥을 도저히 못 먹갔어. 안 멕혀요 그냥. 그래가꾸서는 왜 그렇게 밥을 안 잡숫예, 밥을 잡숴야 살지 밥을 안 잡수면 돌아가면 어떻게 허느냐는 거야. 그래서 멕히지 않는 걸 어떻게 먹냐구. 안 멕히는데. 근데 풀때기밥 같으구, 죽 같으구, 못 먹겄어 아주. 배가 고프지두 않구. 분해서 그런지 배두 안 고파. 밥두 안 멕히구. 그래가꾸 맨날 굶었어요. 그러구서는 콩나물은 먹겄드라구 그래두. 콩나물 갖다 주니까 콩나물은 먹겄드라구. 그래서 콩나물만 먹으니까 낭중에는 한 그릇, 공기로 이렇게 하나씩 갖다 주드라구. 밥은 안 먹구 콩나물만 먹는다구. 그럼서 아유, 어머님 저기 단 걸 좋아하시나봐. 그럼서 밥 허는 사람이 갖구와가꾸 아유 어머님, 그래도 진지 좀 잡숴야 돼. 그럼서 안 잡수면 어떻게 해? 그냥 병 나실까봐 걱정이지. 그래가꾸서는 그냥 먹구.

또 안 먹으니깐 야, 그럼 어머님 감 좀 갖다 드려라 그러니깐, 감, 그 때 감이예요. 가을이래서 감 딸 때야. 그래 감이 아주 한 낭굴 그냥 아주 노란 걸 놔 돟드라구. 한 낭굴. 보기 좋으라구. 그래 갖다 새긴 걸 좀 드려왔는데 떫드라구. 떫어. 그러구 그 배두 좀 갖다 드려. 그러니깐 배를 좀 가져왔는데, 난 그런 배는 생전 처음 봤어. 저렇게 저거마냥 길어요. 저렇게 긴데다가 가운데는 짤룩하게 들어갔어. 양짝은 이렇게 쪼금 뚱뚱허구. 그런데 아무 맛대가리두 읎어. 그런데 개네들은 그냥 씨채 막 먹어요. 배가 고프니까. 씨채 막 먹어. 아유, 속으루 배가 무척 고픈가보다. 그래 개네들이 나 땜에 그런 거 갖다 주니까, 우린 안 먹으니까 그냥. 아유, 불쌍해. 오죽 배가 고프면 그걸 씨채 막 먹느냐구. 속으루 떫구 막 그렇잖아요 그게.

그래가꾸 또 왜 반시간 있다 보내준다 그러구 안 보내 주냐 그러믄 아이 글쎄,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시래니까요. 보내드리는 건 보내드리니깐 걱정하시지 말래. 그래가꾸 내가 인제 아이들이 그렇게 맨날 나가믄 인사허구 들어오믄 인사허구 그러는데,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걱정을 허겠냐구 내가 그러면서 그랬더니, 즈네들이 썼어. 편지를. 즈네들이 써가지구 여길 가져왔어. 집에를. 집에를 갖다가 줬어. 그래니까 우리 할아버이가 혈압약을 보냈드라구. 혈압약을. 혈압약을 보냈는데 그걸 바루 갖다 날 줬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깐 게를 막 야단치는 거야. 그러면서 어머니 그 약 도루 내노래. 먹구 죽을까봐 그러는지, 그렇게 도루 내노라 그래서 도루 내놔줬다니까. 그래가꾸 올 때 줘 또. 올 때는 기냥 주드라구 그걸. 그래가꾸 올 때 줬는데, 내가 갖구 오다 떨어뜨린 거야 그 약을. 그랬드니 그걸 또 줏어 가지구 왔어. 저 판문점으루 해서 집에까지 보냈어 또. 그래 군인들이 갖구왔어. 그런 식으루다 허드라구. 정직하긴 무척 정직해요. 그 사람들두. 근데 그 군인에 대해서만 그냥 그게 저거 한 거야. 그냥. 거기에는 그냥 항시 감시하구 그러니깐 좀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드라구요.

그래가꾸 텔레비를 좀 봐두, 뭘 봐야 되잖아. 근데 여긴 왜 텔레비두 안 틀어주냐구 내가 그러니깐, 텔레비를 잠깐 틀어. 근데 그 뭐 빨간 글씨만 나오잖아요 거기는. 빨간 글씨루 써가지구. 보기 싫어서 그냥 아유, 알았다구 됐다구 꼬라 그래서 껐어. 근데 전기 때문에 못 키드라구. 전기를 후라시 따라 요런 거 두 개를 요기서 인저, 유리창에다 갖다 요렇게 해가지구선 켜놔. 고렇게. 유리창에다. 근까 빤짝빤짝 쪼금 비치는 거지. 얼굴이 뵐뚱말뚱 허게. 그렇게 살드라구. 불두 못 키구. 아이구.

그리구 그냥 세수수건두 왜 그 이발소에서 쓰는 수건 있잖아요. 그것두 그냥 때가 꼬질꼬질한 거를 하나 주는 거여. 그래서 우리 아범이 아, 이 수건 좀 하나 딴 거 달라구. 오는 날. 그러니까는 하나 갖다 줘. 그건 새 걸 가져오드라구. 글구, 세수비누두 그냥 다 닳아빠지구 그냥 이런 거 변한 거를 갖다놓구 쓰라구 그러드라구. 아유, 뭐 사는 건 말이 아니야. 심들드라구요.

(도토리는 많이 따셨다가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럼. 많아서 많이 줏었지요. 줍기는. 한 푸대 줏어 놨는데 아이들이 버리라 그랬대. 사람은 갔는데, 그까짓 거는 갖다가 뭘 하느냐구. 그래가꾸서는 그래두 안 된다구 군인들이 실어서, 차에다 실어서 집에 마당에다 갖다놔서, 마당에다 널어 논 거, 서울 시어머니가 한 분 계셔. 시어머니가 작은

어머니. 제네 아버지 작은 어머니. 아직두 살으셨어. 작은 어머닌. 아흔이 다 되셨을꺼야. 그런데 여태 살으셨는데 그 양반이 울면서 까셨대요 또 그걸. 울면서, 사람은 없는데 이걸 가져왔으니 이걸 어뜩허냐구 그러면서 당신이 다 까진 못했지 뭐. 한 푸대를. 그 때 오셨댔지. 그래가꾸 그 때 난리두 아니었었대요. 나 가니까 또 우리 메느린 까무러치구 막 난리가 나구. (그러겠지요. 그게 어디 보통 일이냐고요?) 그럼. 보통일이 아니잖아. 그래가꾸 또 왔는데두, 여길 왔는데 사람들 보기두 부끄럽드라구. 왜 그러냐믄, 너무 극성부리다가 거까지 가가꾸 잡혀갔다 오니까.

그래 오니깐 뭐 사람들이, 그래 올 때두 인제 낼 아침이면 가시니까 기다리라구 그러드라구. 그래서 인제 기다리구 있는 거야 인제. 올 때만 되구. 그러드니 와서 가자 그러드라구. 그래서 나오는데, 우리 아범허구 나하구 인제 둘이 갔잖아요. 아들허구. 그랬더니 둘은 침대가 있어. 거기. 거기 서서 사진이나 하나 찍구 가재. 그 사람들이. 그래서 사진두 찍은 거 여태 있어요. 여 갖구 왔어. 줘서. 그래가꾸선 갖다가. 사진 찍어가지구. 참, 웃기지두 않아. 별난 경험두 다했어.

그래가꾸 인제, 데불구 나를 오는 거야. 차를 타구. 근데 올 때는, 갈 때두 업구 가자구 그래서 건너 갔거든. 이렇게 빠지는 데가 많으니까. 그 빠져서, 막 논틀 밭틀 막 지나가니까 빠져서 갈 때는 가면 어딜 가서 이걸 다빨구 그래야 되잖아. 운동화 신었는데. 그래니깐 내가 업구 건느자구 그랬어. 그랬드니 날보구 사람들이 수단이 좋대는 거야. 업자 그랬다구. (권O순: 어떻게 업제? 글쎄) 그럼 업어야지 글쎄. 어떻게 가서 빠져? 어떻게 건너가냐구? 이걸 건너가며는 거 가선 어떻허냐구. 그러니까는 그런 거지. 그런데 저렇게 쪼그만 사람을 드리대는 거야. 군인을. 그러니깐 저 사람은 나 못 업는다구. 그 때 나 70키로 거반 나갔었어요. 그래서 나 못업으니깐 저기 저 사람이 오라구 인제 그랬어. 좀 키 큰 사람. 그랬드니 그 사람이 좀 높은 사람이드라구. 그래서 그 사람을 드려다 대는 거야. 그래서 업혀 건너갔대니깐. 그리구 또 업혀 건너가구. 또 업혀. 세 번을 업혀 건너갔어. 올 때는 또 글루 오는데, 또 업혀 건너가재는 거야. 업히래는 거야. 그래서 아유, 그냥 걸어가두 된다구 그 때는. 안 업혀두 되잖아? 빠져 와두. 오니까. 그런데 그냥 자꾸만 업으래, 업히래가지구 업혀 왔어. 올 때두.

그래가지구 이렇게 기냥 아카시나무 있으니깐 이걸 기냥 젖혀주구, 막 가시나무 이렇게 젖혀주구. 그렇게 데리구 와. 올 땐. 조금이라두 다칠까봐 그러나봐. 걸키매구 그럴까봐. 아주 그냥 고렇게 깍듯이 기냥 길을 맨들어 주는 거야. (총으로 위협하고 막 끌고가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네. 그렇게 안 하드라구요.

그리구 그 사람들 보초막두 이렇게 열어서 기냥 들어가. 들어 갔어. 그래가꾸 개성으루 간대. 얼루 가녜니깐, 개성으루 간다 그러더니 그 땐 눈을 꽉 처매는 거야. 근데 그 때는, 그때부터는 그냥 울어지는 거야. 눈물이 나구 울어. 그냥. 그래서 거까지, 개성 다가도록 울었대니깐. 갖다 내려노니깐 눈물이 그래두 그쳐지드라구. 아유, 무서웠어요. 무척 무서웠어요. 그래 여기가 어디냐니깐 개성이래요. 그렇게 갔다니까요. 그렇게 갔다왔어요. 거기서 두부두 해주구 비지찌개두 해주구 다 해주드라구. 먹을 건, 잘 해주드라구. 사람들은 다 착해요. 거기두. 군인들만 쪼금 이렇게 악독한 기가 쪼끔 있지. 그냥 왜 그걸 악독한 기를 아냐면 갈 때 내가 못간다 그러면 어머니 갔다오면 되요. 그러면 되는데 막 끌구 갈려구 그러구 그러잖아. 그러니까 내가 나무를 꽉 잡으니깐 옷이 그냥 탁 튿어지는 거야. 여기가 찢어, 튿어져. 이 옷이 오래 입어서 낡아서 잡아댕기니까 튿어지드라구. 이거 보라구. 내가 이렇게 옷 튿어졌다구 그럼서, 걱정하지 마세요. 거 가서 내가 다 꼬매드린대. 그런데 진짜 꼬매줘요 가서. 즈네들이. 그 옷 기냥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된, 그냥 기념으로 나두는 거야. (그럼 나중에 사진 찍어야겠네요.) 근데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몰라. 어디다 뒀는지,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을 수가 없어.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요. 여기선. 아유.

그 도토리두 뭐 많으니깐 주워다가 해서 그전엔 팔면 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깐 엄청 했어요. 그것두. 저 양반[권O순]하고 나하고 있잖아, 저 양반은 가진 손이 있었구, 나는 혼자 손이야. 저 양반은 30가말 줏었구 나는 열 가말 줏었다구. (아니 30가마를 주으셨어요? 박수 한번 쳐드려야겠네요.) 저 양반이 그렇게 많이 줏구 나는 열 가마 줏었대니까요. 아유, 참. [권O순 : 그 땐 밥해 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앉아서 30가말 주은 거야.] (여기 가까이에 그렇게 많은 데가 있어요?) 아니, 멀리 가야지. 들어오는 데두 다 참나무잖아요. 그런 데두 다 댕긴 거죠. (여기 마을에 계시니까 아무데나 막 다니셔도 괜찮아요?) 그럼, 우리는 가두 괜찮구 해 주는 것도 없는 거야 거기는. 그러니깐 그 땐 또 도토리가 많이 열었어요. 도토리가. [권O순: 도토리가 별나게 많이 열었어요. 아주 쪼끄만 낭구라도 조랑조랑해서 빨갛게 떨어지구 빨갛게 떨어지구. 낭구 밑구녁에 가면 줍는 거야 그냥. 참나무라믄. 좀 많아야지 참나무가 또.] 그 땐 아주 30가마 주은게 기록이야 기록. 돈은 뭐 어딜 갔던지 [권O순 : 돈은 어딜 갔던지 도토리는 재미있게 팔아보지는 못해. 뭐 재미있게 팔기나 했어? 지금 같으면 그 얼마나 많아? 돈이. 앙금을 했어야지. 겉도토리루 파니깐 돈이 안 되죠. 싸지.] 3,000원인데 뭘. 한 말에. 그런데 그 삼천원두 안 주구 또 기냥 가져가는 사람두 있어. 못 받구. (아유, 나쁜

사람들이네요.) 나쁜 사람들, 아유.
(그럼 돈 되는 게 도토리 줍는 것 말고 또 뭐가 있어요? 깨농사, 콩농사, 벼농사, 또 뭐 있어요?) 그 전엔 나무를 많이 베어버리면 버섯두 많이 났어요. 버섯. [권O순: 지금두 목이버섯이라구 잡채에 넣는 거, 그거 많이 땄어요. 참낭굴 비어서.] 그것두 팔아서 30만원을 다 했드라구. 그 30만원을 팔아가지구 장롱두 하나 사구, 또 요만한 단스두 그냥 두 개싸리 하나 사구, 화장대두 하나 사구. 그걸 팔아가지구 에이, 공돈 삼아 쓰자 그러구 그런 거 다 샀다니까요. 그건 낭굴 비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난 거야.
그래가꾸 이북에서 잘 얻어먹구 왔지요 오기는. 올 때. [김O순: 과일 나무 하나 가져왔잖아. 근데 죽었어요?] 진짜, 죽었어. 그거. 감나무. 감나무 하나 허구, 감 허구 배 허구, 병배허구 한 박스 담아서 줬어요. 저기 그 군인들은 뵐 때까지 전달해 주구 갔어. 그 사람덜이 시상에 흙을 이렇게 달아서 그냥 그 무거운 걸 거까지 져다 줬다니깐, 아유. 고맙지 뭐. 그게 높은 사람덜 말에 무서와서 들고 왔갔지, 그게 어떻게 들구 오냐구. 걸어오구 막 그러는데. 차 타구 무척 많이 걸었어요. 차 타구 내려서.
(그 감나무가 살았으면 진짜 기념비적인 나무가 됐을텐데 아깝네요.) 기념인데, 그게 고염이 되드라구. 안 열어. (맞아요. 그게 접을 안 붙이면 고염이 되긴 하지요.) 고염이 되드라구. (그래도 어쨌거나 고염나무가 돼도 대성동에 기념비적인 게 됐을텐데 아깝네요. 살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김O순 : 가져온 게 기념이 됐을텐데] (그럼요. 대성동의 상징이 되는데 아깝네요.] 무척 많이 커졌을꺼야. 지금 살았으면.
근데 여기 오니깐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래 검사를 더 많이 해. 우리가 붙잡혀 갔다 왔는데, 무슨 정부나 따라갔다온 거 마냥 디려캐구 그냥 난리쳤어요. 그래가꾸 내한테는 늙었으니까 괜찮은데, 우리 아들한테는 아주 심하게 했드라구. (그래도 살아서 잘 돌아오셨으니까 정말 다행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보구 복 받았다구 그래요. 복 받았다구. 그 사람들이 보내줬다구."

3) 강릉 김씨 집안의 며느리로 살아온 육십 년, 권O순 씨

[1934년, 81세, 개띠, 안동 권씨, (남편 故 김O래 씨/1933년생)]

권O순 씨는 1934년 생으로 현재 대성동에 살고 있는 여성 중에서는 최고령자다. 휴전이 되기 직전인 1953년 6월에 당시 태성[대성동]에 살고 있던 남편 강릉 김씨 김O래 씨와 결혼하였다. 고향은 대성동에서 매우 가까운 나리굴이었는데, 할아버지가 감바위에 살 때 태성으로 놀러 다니시면서 손녀 사윗감을 눈여겨보았다가 중매를 하였다. 처음 시집왔을 때부터 시작하여 한평생 시집살이를 했지만, 묵묵히 견디며 2남 4녀를 잘 키워냈다. 현재는 분가한 두 아들에게 농사일을 넘겨주고 쉬고 있는데, 다리가 많이 아프다고 했다. 권O순 씨의 생애사를 통해서는 어려운 시집살이 속에서도 역경을 이겨내고 한 집안을 지켜낸 강인한 한국여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 )속은 조사자들의 말이다.

(1) 난리 중에 가마도 없어 걸어서 시집으로 와 혼인식을 하고


권O순 씨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내가 음력 칠월 열엿새 날에 온 거지 여기에. 중매로 결혼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 전엔 여기가 마을이 쪼끄맸어요. 여기 볼 거 없었어. 지금 여기 집 지어놔서 이렇죠. 우리 할아버지가 여길 내리 댕기셨어. 그런데 내리댕기시면서, 우리 손주딸이 있으니까 중매 좀 해 달라구 그래가꾸서는 지[제]가 이리로 시집을 오게 된 거야. 내가 열아홉 살인데, 그 전에는, 옛날에는 나이가 많으면 펄쩍 뛰시구 야단덜 나잖아요. 노처녀라 그러구. 어서 시집보내라 그러구 그냥. 그래 우리 친할아버진데, 친구 양반이 여기 계셔서 여길 내리 댕기시다가. 그런데 어느 날 시집보내라 그러시면서, 여길 내리댕기시다가 저기 허시는 거야. 아, 그래선 우리 아버지가 그러면 마땅한 데가 있으면 아버님 말씀 듣구 그렇게 허지요 그러구 허락을 허신 거야. 그래가꾸서는 내가 여기루 왔는데, 내가 그러니깐 6·25나구 일사후퇴 지나구 휴전협정 헐 때, 허기 전에, 미처 허지 못허구 났는데, 그냥 막 총 쏘구 붙들어 가구 그럴 제야. 인민군들이 막 올라오구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냥 어서 시집 보내라구 시집 보내라구 그래가지구선 이리 오게 된 거예요 이제.
나 열아홉 살이야 그 때가. 열아홉 살이구 우리 영감님은 스무 살이구. 나보다 한 살 더 잡숴어. 그래가꾸서는 진짜 결혼식이라구 여름에 결혼식을 했어. [김O순: 족두리 쓰구 했어.] 뭐 말할 것두 없죠 뭐. 부끄럽수다요 진짜. 지금 그런 시대가 어딨어 그냥.

선을 봤갔어뭐? 선 한번 그냥 와서, 우리 시어머니가 오셔서 시작은어머니허구 시어머니허구 오셔서 보셔 가지군 그냥 혼사를 허신 거야. 허자구 그래서. 그래선 그냥 사주라구 뭐 그냥 보재기에 싸서 가지구 오셨더라구 우리 양반이. 아유, 그래가꾸서는 뭐 남자 선을 봤갔어요뭐, 시어머니만 와서 보구, 우리는 신랑은 우리 할아버지만 보셨갔지. 여길 내려댕기시니깐.

그래가꾸서는 정말 혼사를 허게 됐는데, 무슨 가마가 있어? 뭐가 있어? 아무 것두 읎지. 그래가꾸는 그냥 여기를 걸어 왔어. 시집을 걸어 왔어 그냥. 우리 할아버지가 말씀허셔가지구 그냥 걸어 왔어. 그래서 부끄러워서 말두 못해. 그런 혼사가 어딨냐구. 그래서 와서, 시집이서 와서 자구, 결혼식을 시집에서 와서 자구 헌 거야. 그래두 쪽두리는 쓰구 결혼을 했어.

신랑은 잘 생겼어요. 우리 영감님은 잘 생겼습니다 아주. 남에게 빠지지 않구. 그런데 일찍 가셔서 그렇지. 어쩔 수 없어 그건. (신랑이 처음에 딱 마음에 드셨어요?) 마음에 들었지 마음에 들긴. 나야 뭐 해가지구 오는 게 있어뭐, 맨 몸으로 오는 건데. 전쟁 때, 안에서 뭐 강 건너 가기를 해 뭐 옴짝, 통 다 맥힌 건데 뭐. 개인은 아주 움쩍두 못허구 군인덜이나 댕기는 건데, 그 때 결혼식을 했으니. 아주 아무 것두 못 해가지구 왔지. (그러면 결혼식을 어떻게 하셨어요?) 구식으루. 구식으루 인제, 그냥 치마 저고리 입구 쪽도리 쓰구, 그렇게 허시드라구덜. 집이 남자네, 남자는 딴 집이서 옷 입구 오구. 집이서 인제 그렇게, 내집이락두 내집에서 나오지 않구 다른 데서 옷입구 와서 올리더라구. 예식을. (남자가 사모관대도 쓰고, 말도 타고 와요?) 그럼. 그거 쓰고. 말은 안 탔지. 옆에서 옷 입구 나온 거지. 난리 시절인데 말이 어딨어? 어유, 내가 다 감바위에서 걸어왔는데, 말은 해 뭘 해? 부끄럽지 진짜.

(그럼, 결혼하실 때 남편은 군대 안 갔어요?) 군대는 안 갔어도 여기서 군대생활을 했어. 여기서. 아, 저눔덜 총 쏘구 그래서 저녁이믄 보초 서구 그냥 그렇허구 살았어요. 무섭게 살았지요 뭐 산거는. 그러니까 지금은 평화스럽죠. 그 때에다 대믄. 평화죠. 이거 박정희 대통령 그 냥반이 집 지어 준 거야. 사는 거. 이거[마을회관]는 아니고. 우리네 사는 집덜. 그 냥반이 지어 주신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냥반이 지어주신 거예요."

(2) 시집 오자마자 시할머니의 오줌똥을 받아내기 시작해

"오니깐요, 그냥 시할머니가 이만해[팔을 양쪽으로 벌림]. 이 양반이 방안에서 꼼짝을 못허구 오줌똥을 다 받아내는 거야. 내가 오니까 나한테만 다 그걸 맽겨서 야, 아가야 불르면 그냥 오강내가라 나 오줌 눴다, 똥 눴다, 그냥 그런 걸 다 말씀을 허시는 거야 그냥. 그러면 또 내가 그걸 가지러 가서 부셔다가 드리구. 으례 오줌똥 누는 건 나만 불르는 거야 그냥. 시할머니가. 이만헌 마누라가 앉아서. 시어머니는 아니구, 시할머니가 그렇게 뚱뚱헌거야. 이만한 얼굴이 둥글넓적헌 마나님이 그렇게 생기셨어요. 아, 그러니뭐 나야 뭐 허래는 대로 할 뿐이지. 옛날에야 뭐, 지금은 그런 사람 없어요. [김O순 : 지금은 그러면 안 살아.] 아이구, 세상을 그렇게 보냈수다 진짜. 막 하라는 대로.

(시집 오셨을 때 식구는요?) 식구는 많지 않아. 시누 하나. 외아들이야.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꼼짝두 못허구 그냥 돌아가기 전에 손주며느리 보구, 손주 보구 진손주 본다구 어서 장개 보내라 장개 보내라 졸랐대. 그래서 보낸 거래. 아유, 스무 살짜리를 보낸 거지 뭐. 나도 열 아홉이구. 그 때만 해도 스무 살이래두 다 가는 걸루 알았어요. 그 때 시대에는. 지금은 애기루 알잖아 그냥. 지금은 애기루 알지. 지금은 가는 사람두 읎구. 저희끼리나 진짜 연앨 걸면 스무 살 아니라 열아홉이라두 갈까? 지금은 어디 있어 그런게. 다 서른 넘구 그냥 (지금은 진짜 너무 늦어요.) 너무 늦어. 자식이 너무 늦어 진짜. 갈 땐 가야지. 안 갈거 아니구 갈 땐 가야 돼.

그래가지군 진짜 시집이라구 오니깐 아유, 진짜 그 치다꺼리는 다 해야 하는 거야. 빨래, 뚱뚱하셔 가지구, 저고리 품이 이만해. 이게 한 자야. 그러면 말두 못해 넓어서. 치마두 치마허리를 달믄 이만허게 말두 못허게 넓어. 넓은 거야. 기장은 앉아서, 앉아서만 뭉기작거려 그냥. 앉아서. (시할머님 나이가 어떻게 되셨는데요?) 한 육십여 살 되셨갔지요 뭐. 난 그런 건 기억안 해. 나 와서 첫아이 낳으니까, 첫 아이가 돌 되니까 돌해 잡숫구 돌아가셨어. 아이구. [김O순 : 그런데 서울 가서 돌아가셨잖아?] 그래요. 서울 가서 돌아가셨어."

(3) 텔러가 내쫓아 밖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와 지금까지 살아

"그래가지구선요, 여기서 텔러라는 기관이 있었어. 기관이. 그 때는 여기 집두 진짜 허술허구 그런데, 옛날 초가집이지 뭘. 그런데 기관이 있어가지구선, 텔러라구 그 기관이 들어왔드랬어. 그 기관들이 또 들어와서 있다가선 내쫓는 거야. 내쫓아서 여기서 안 나간다구 안 나간다구 그랬는데도 내쫓으니깐 나갔다. 나갔으면 뭘 해? 다시 들어오래니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지. 도루 들어왔지. [김O순 : 노인네들 13집만 남았어요.

그 때 그래서…] 그리구 여기 저기 총알이 그냥 땅 땅 치구, 저 똥그란 산 거기서 인민군들이 살아가꾸서는요, 거길 바깥에를 못 나갔어요. 무서워서. 지금은 평화야. 평화야. 지금은 그 때 시대에다 대믄. 그 때는 또 후방도 출입못 했잖아요. 후방 출입을 못 해가지구 그냥 집안에서만 감금당하구 살았는데요 뭘."

(4) 피눈물 나게 겪었던 시집살이들

① 아이 낳은 지 열흘만에 절구질을 시작해

"시집 와서 아이 낳은 지 열흘 만에 절구질을 이틀을 했어. 쌀을 찧어 먹는 거. [김O순: 여기선 방앗간도 못가구 집에서 찧어 먹었어요.] 물두 길어다 먹구. 지금 허면은 아마 죽는다 그럴 거야. (물은 어디서 길어다 드셨어요?) 우물에서. 동이루. 그렇게 시집을 살았을까 진짜. [김O순: 아침을 해 먹구 나면은요 가마로 하나 가득 실어다 놓으면 또 점심 해 먹어.] 그렇게 세상을 살았어요. 지금은 정말 평화스럽게 사는 거죠. (자녀분은 몇 분 두셨어요?) 저요. 많지요 뭐. 그 때만 해도 뭐, 어떻게 못 날 수 없고 낳게 되고 낳게 되고. 아이는 가지게 되니까 여섯이예요. 육남매예요. 아들 둘에 딸 넷."

② 시누와 시어머니가 시킨 시집살이

"시누 노릇은 좀 허는 줄 알아? 그 효창 공원에서 물 길어 오믄, 그거 맨날 내가 지구 대녔어. 그러니까 식구가 몇 식구야. 그러니까 그 이웃에 사람덜이 효창공원에 있는 사람덜이 아유, 새애긴, 나더러 새 색시니까, 스무 살짜리니까 새 색시지 뭐. 스물두 살이니까. 아유, 식구 멫 식구나 되는데 이렇게 혼자만 물지갤 맨날 혼자만 지구 다니슈–. 그냥 딴 사람은 안 지구 당신만 만날, 나 더러 인제 나더러 댕긴다구 인제 그러는 거야. 누가 한번이라두 들어다 줘? 그걸 내가 만날 같이 지구 댕기는 거지. [홍O순: 그걸 오빠가 들어다 줘야 하는데 안 하니까 그러는 거지.] 아, 그건 신문사엘 댕긴다구 거기 가는데 시간이 어딨어? 아유, 말두 못해. 그 생각허믄 이러저러.

또 그 소리 내가 안했지 내가. 아유, 읍성 해주면 저의 집에서 뭘 해가지구 왔다구 치마 저고릴 해주냐 그러구 못해주게 해. 자꾸. 한번은 그 민나이롱, 그걸 아부이가 한 벌 끊어서 해서 가져왔는데, 그걸 왜 해다 줬네. 그래구 울구 야단했어. 아유, 말두 못해. 내 그런 생활했어. 그런 소릴 들을 때는 아주 진짜 그냥.

그리구 신랑 있을 때 싸우구 저 그거하군 그냥 나한테다 분풀이를 허구 별짓을 다 했어. 날 글쎄 아일 안구 있는 거를 그냥 머리챌 잡아가꾸 엎어놔. 그랬드랬어. 아유 내가 그런 소리를 누구한테 안 했지. 지나간 소리 그까짓 걸 해서 뭘해? 아유 말두 못해. 그래서 내가 우리 엄니집엘 좀 내려왔지. 내려와서 안 올라갔어. 안 올라가구 있다가 한 댓새 있다가 올라가니까 아이 동섭이지 뭐, 젤 큰 아일 델구 올라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러는 거야. 너, 이년 올라오믄 머릴 망망 튿어놀라구 그랬다구 이러셔. 아유–, 우리 어머니. 경란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그러시드래니깐요. 그래 그렇게 야단을 허셔. 망망 튿어놀라구 그랬대. 올라오니까. [홍O순: 친정에 갔다오니깐?] 그러게 휘딱 안 올라오구 저희집 가서 그렇게 오래 있었다구. 일주일 한 이주 있었으니–. 이년 오믄 그냥 머릴 망망 튿어놀라구 그랬다구. 그러셔요. 아유 말두 못해. [홍O순: 시어머니 노릇을 다 하는 거야 그냥.] 아유, 그럼.

시어머닌 백 살 살으셨지. 약두 안 쓰셨어. 기운도 좋으셔. 생김이 얼마나 튼튼허게 생기셨어. 약 하나 안 잡숫구 백 살 살으셨어. (당신으로서는 큰 복이시네요.) 백 살 사는 사람은 약을 안 먹어야 백살 살아 진짜. 우리 어머니는 약을 하나도 안 잡숴어. 무슨 뭐 혈압약을 잡숴어? 당뇨약을 잡숴어? 무슨 뭐 보약을 잡숴어? 그 전에 삼은 많이 잡숴다는 얘긴 들었어. 그 전에 여기 삼포했을 때. 옛날에. 개성서 인제 여기 들어와서 했을 때. 삼은 여기 삼이 최고라 그랬단 말이예요. 그래가꾸서는 그 삼덜은 많이 잡숴대나 봐. 그래 그런지 다른 건 잡순 게 없어 아주. 약두 한 번두 안 드시구 가셨어요. 백 살에 진짜.

백 살까지락두 꼭 기면서라두 댕겼어. 손주네가 저기 있잖아. 근까 손주지? 손주라면 이렇게 생각하구 맨날 그냥. 손주라면 그냥 기어서락두 가서 손주네 가 일 해 주시느라구 그냥 가시는 거야. 도투리 따오면, 손주 며느리가 도투리 따오면 도토리 까서 주구. 그걸 까서 팔아서 돈 맨들라구 팔아서 그냥 일을 도와주시는 거야. 체대가 아주 많이, 선을 보러 왔는데, 우리 작은어머니하고 나를 선을 보러 왔는데, 아유, 키가 구척 같은 마누라가 둘이서 그냥 아우, 무섭구 그냥, 우리 작은 어머니도 좀 커? 그냥 이런 마누라가 둘이서 와서 들어서더래니까. 난 뭐 고개도 하나 못들구 난 요렇커구 그냥. 아유 세상에 체격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러드니 그렇게 오래 살으셨어요. (그럼 아저씨도 그렇게 크셨어요?) 키 커요. 건장해요. 인물도 좋구. 남한테 빠지지 않아요. 체대가 좋아요. 우리 시아부니도 체대가 좋으시구. [김O순: 그 냥반은 한량이었잖아, 한량.] 그 양반은 뭐 말두 못해. 근데 인제는 다 돌아가셨어."

③ 시아버지가 시킨 시집살이

"(한량인 시아버지 모시기도 힘들잖아요.) 힘들죠. 내가 휘딱 술상을 안 차려 내온다구, 휘딱 술 안 가져온다구 술 항아릴 막 배깥으루 막 팽개쳐. 내 챙피지만 이런 소릴 허믄. 아, 그렇게 무섭게 굴었어. [홍O순: 챙피하긴 뭐, 그 양반이 잘못한 거지 무슨 챙피야 그게.] 그렇게 사납게 굴어. (그럼 집에 누룩 만들어 두셨다가 매일 술 담그셨겠어요?) 그렇죠. 그럼. 약술. 튀겨가지구서두 허구. 누룩 술 허구 약술허구.

(약술은 어떻게 담그는 거예요?) 약술은 쪄가지구 그걸 버무려요. 밥을 식혀가지구. 약을 거기다 쏟아가지구 그냥 골고루 섞어지라구 비벼가지구서는, 튀겨가지구서는 하얗게 인제 튀겨지면 인제 그걸 [홍O순: 그래가꾸 자루에다 집어너서 뜨듯한 곳에 놔둬. 그러면 그것이 하얗게 튀겨져요. 그런 다음에 인제 물에다 쏟아붓고 인제 항아리에다 붓구서는 인제, 또 이시도[이스트]두 있어. 그것두 좀 넣구 그렇게 허구서는 물을 좀 붓구 그렇게 해 놔야지 물 많이 허면 싱겁구] 너무 물 많이 잡으면 술이 독허지가 않아. 그래서 어느 정도 잡는 양이 있잖아요. 그렇게 허지. 약은 술 허는 약이 따루 있어. 그 전엔 민간에서 따루 팔았어요. 그래두 술은 누룩술이 더 좋잖아요?

어른들 다 돌아가니깐 편안합디다. 만산에 헐일 없수다. 지금덜은 시집만 오믄 저희들끼리 나가 살잖아요. 우리 며느리들두 오자마자 나가살아서 부자됐잖아. 큰며느리 나갔다구 작은메느리두 나가갔다구 허니까 또 내보냈잖아. 그래 우리두 영감님허구 어머님허구 나허구 셋이서 살다가 돌아가니까 또 어머니허구 나허구 둘이 살았지 뭐야. 둘이 살다 어머니 돌아가니까 나 혼자 살지 뭐. 마음은 제일 편안해. 있으믄 먹구 읎으믄 자구."

(5) 한량인 시아버지, 외아들인데도 빚만 물려주고 돌아가셔

"(시집 오시니까 시아버지도 계셨어요?) 우리 시아버지는 한량이예요 아주. 한량이 돼서 뭐 그래서 여기서 농사를, 피난들 다 나가구 남자들만 농사질꺼 아니예요? 그러면 우리 시아버지가 관리를 다 하시니까 농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미군차가 들어와서 후방출입을 한 거야. 그렇게 하믄 쌀을 저 후방에 가서 베를 가지구 나가서 찧어서 금촌에서 팔으시구, 거기서 당신이 다 저거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당신이 다 쥐구 허니깐 우리네는 그냥 일만 헐 뿐이야. 뭐 쓸 줄이나 알어 뭘. 뭐를 써? 어디 나갈 줄을 알아, 갈 줄을 알아? 여기서만 있구, 어르신네들만 출입을 허니깐, 돈 맨지는 거는 어르신네가 다 허시는 거지. 그러니깐 바보지 뭐. (옛날에는 다 그랬지요 뭐.) 지금으로 생각허믄 아주 바보루 생각한다니깐. 그렇게해가꾸 우리 시아버지가 살림을 죄 휘둘러서 하셔서 꼼짝두 못허구, 이 영감이 한량이 돼서 그냥 후방에다가 집 사놓구 그냥 첩 얻어가지구 살구, 첩네 살리구, 아유, 말두 못해. 우리 시아버지 말씀하면 뭐 첩마누라 허면 아주 뭐 살세드야. 나두 왜 밉지두 않은지 몰라. 그러니까 얼마 있다가 인제 금촌에 가는 거야. 첩네 집이를. 그 집이를 가믄 아유, 어멈 나왔냐 그러구 아주…. 근데 왜 밉지두 않냐 왜? 나는 또, 거길 댕기구 그랬수다. 그러니까 어떤 이 동네 마나님이 날더러 이러는 거야. 자네는 그 속 안 상한가? 뱃속에 똥만 들었나봐, 나 같으면 못살아 이러는 거야. 그래는데 어르신이 무서운데 어떻게? 어른이 허래는 대로 해야지 뭘 어떻게 하냐구. 그래도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환갑 다 해 잡숴어. 후방에서. 후방에서 집을 사 놓구. 후방에서 그냥 차리구서 다 해 잡숴어. 여기서는 아무 것두 못허구 거기서 나가서. 거기 가서. 금촌에서. 첩마나님이 있어서 그냥 거기서 차려가지구 다 해가지구.

그렇허다가 저기 신림동, 그 때 신림동 개발이 안 됐어요. 근데 개발되니깐 거긴 인제 땅이 저거 하니깐, 거기다 땅을 사셔가지구 집을 지신대. 그러니깐 첩네 다 살린 거야. 그렇게 해가꾸 외아들인데도 돈도 못 물리구 돌아갔어. 다 그쪽으로 갔어요. 당신이 다 팔아가지구 한량 노릇했어요. 외려 외아들인데도 빚 물려주고 돌아갔어. 그래 돌아가실 때 금상 복구된다, 꼭 복구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냥 돌아가싰어. 일흔 셋에 돌아가셨는데 뭐. 우리 시어머니는 백 살에 돌아가셨구. 돌아간 지 오래지 않아. 우리 어머니는. 아이구 난 그렇게 세상을 다 살았어요. (시어머니 모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겠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먼저 앞세셨어 또. 우리 영감님이 예순 하나에 돌아갔어. 나 육십이구. 우리 영감님은 예순 하나구. 세상 싫다구 먼저 갔어요. (시어머님은 그러면 백 살 잔치도 하셨어요?) 아유, 그 해에 돌아가셨어.

(시집 오니까 부자셨어요?) 그렇지. 어렵지는 않았지 그 때는. 다 피란 나가서, 그 때 삼백 가마면 부자지요. 그 때 삼백 가마면 부자지. 왜냐하면 다 나가고 몇 집 안 남았으니깐. 피란들 나가구. 그래서 그 땅 가지구 그냥 우리 아버니가 하셨으니깐. 그래서 집두 사구 별거 다했는데, 당신이 다 날리구 돌아갔어. 외아들 뭐 돈 하나 못 물려주구."

(6) 세상에 힘든 것은 장사일

"우리 아부니 돌아가셨을 때 내가 고상을 해서, 장사가 제일 심들다는 거야. 시상에 삼일장을 드리는데 이틀밤 사흘밤을 잠을 못자니까요. 세상에 뭐 아주 젊었으니까 그렇지 지금은 못해요. 세상에 사흘밤을 못자구 일을 허니까, 그리구 또 병구완을 했잖아요. 그렇허다 돌아가셨는데 글쎄, 세상에 그냥 일을 허다 말고 동네 여편네들은 버섯 딴다구 다 동산으루 빼구. 그거 부셔서 저녁밥 해대구 그러느라구, 그리구 저녁에 쓰려져서 자구, 또 그 이튿날은 뭐 하느라구 또 일찍 일어나지, 아무튼 장사 드리구서는 그 이튿날은 하루 죙일 잤어요. 내가. 삼오제도 그냥. 아유, 못 배기겠어요. 그래서 내가 장사가 제일 심든지 알아요.

근데 인저는 심들 것두 없어. 다 저 장례예식장으로 가니깐. 지금덜은. 벌써 죽었다허믄 그리가니 뭐. 뭐 집이서나 죽어요? 다 저 요양원들 다 가서 병원에 덜 있다가 돌아갔다 그러믄 그리로 가야해. 누구네든지 다 인젠. 돈이면 그만이야 인젠. (지금 말씀하신 게 시아버지 때예요? 아니면 시어머니 때예요?) 지금 시아버지 때. 우리 시어머니 때에는 지금 큰며느리가 있잖아. 큰며느리 작은며느리 다 있어서 나는 안에서만 있었어. 심들지 않았어.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가 대충 언제쯤이에요?) 그 때가 우리 시아버지가 73에 돌아가셨거든. 73이구. 지금 내가 여든 하난데. 심을 따져보면 아는데 휘딱 이런 사람은 되질 않아서 그래. 그 때는 다 행상쳤지요. 우리 어머니도 행상하구요. 멀리 안 가셨어."

(7) 농사 지어 자식들 여섯 명 다 교육시켜

"(그럼 농사 지어가지고 자식들 여섯 명 다 교육을 시키신 거예요?) 네. 시집 보내구 장가 보내구 이젠 다 했습니다. (그럼, 이 마을에서 사신 지가 육십 년이 넘으셨네요.) 그렇지요. 내가 지금 여든 하나니까. 휴전선 안에 내가 여길 왔구 시집 오면서 휴전선이 됐지. 그 해에 휴전선이 된 거야. 그 해에 내가 오면서 휴전선이 됐어요.

(농사는 뭐뭐 지으셨어요?) 논농사도 하구 밭농사도 하구 했는데, 이제는 다 물려주고 난 일 안 해요. 옛날에는 내가 많이 했지요. 깨도 심구, 콩도 심구 뭐 안 심은 게 어딨어? 다 숨었지. 깨 아홉 가마까지 해봤는데. 그걸 매려면, 지금은 비닐이나 씌지요. 그 때는 그냥 발로 숨어 가지구, 허미루다 맨거야. 그렇게 해서 아이들 다 공부시키고 다 그렇게 헌거예요. 6남매. 그 때는 그냥 소루 갈구 그렇게 했지요. 허미루 심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럭 그냥 맨 거야.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깨를 털어서 가마니 했어. 몇 가마 몇 가마 지독, 그렇게 했으니까 아이들 공부두 가르치구 그랬지. 저희들이 대학은 안 간거야. 저희들이. 우리 딸 하나만 대학가구. 내가 뒤를 댈 수 없으니까, 아래 아이들은 너희들이 고등학교만 나오너라. 내가 어떻게 뒤를 댈 수가 없다. 그러다 막내만 대학 2년제 나오구 또 둘째딸이 공부를 잘하는지 어떻게 지가 가서 대학을, 내가 가서 대학을 시험이나 보갔다 그런단 말이야. 그러드니 시험보고 와서 집에 그냥 있으니까, 들어갔냐 그러니까 아이 몰라요 엄마. 그냥 시험은 봤어요. 그러더니 아니, 전화가 온 거야. 김영희 학교 붙었다구. 전화가 온 거야 핵교에서. 그러니까 게 하나 대학 나오구, 아들놈들은 대학은 저희가 싫으니까 어쩔 수 없어. 안 배. 아들 둘인데, 그놈들 다 대학두 못 나오구 고등학교만 나온 거야. 2년제 대학 하나 나오구, 4년제 대학 하나, 성신여대 나왔구. 둘은 다 저희둘이 싫어서 공부도 안 했어.

(보니까 고추농사가 돈 많이 벌던데요.) 그 때는 고추농살 못했어. 그 때는 질지두 모르구, 땅에다가만 씨 뿌리고 숨어서 먹을 거만 했어. 그 때는. 근데 지금덜은 개화가 돼서 들 저렇게 허죠. 그 때는 그거 없었어. 우리 농사짓고 살 때는. 그냥 벼 하구, 콩 하구 깨 심구 그러구 살았어. 그렇게 해가지구 살았어."

(8) 조산 냇물에서 외손주가 돌미륵을 캐

"(그 때 왜 돌미륵 캐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우리 딸이, 우리 딸이 좀 혼자 됐어요. 우리 딸두. 그래가지구선 우울증이래는 병이 있어가꾸, 그러니까 동생덜이 우리 언니 죽으면 어떻허냐구 데려온 거야. 여기다 문산에다. 데려다 노니깐 자꾸 들락거렸지. 내가 들어오게 맨들어서. 패스를 내가지구.

그래가지구 들어와가지구선 또 손주눔이, 게 손주눔이 있는데, 할머니, 할머니 물가에 가서 괴기 잡아, 괴기 잡아 그래니깐, 그거를 말을 듣구 불쌍허니깐 저두 그걸 데리구 그 땐 그냥 조산이래는 냇물에 가서 괴기 잡는다구, 쪼끔 올마냥 그 해두 물이 없으니까 가물었어. 그 해두. 벌써 몇 년 됐지. 가서 그냥 개울에 가서 그걸 팠어. 팠대요. 그러니깐 떨그럭 떨그럭 소리가 나는데, 무서운 생각이 나는 데두 에이, 뭐 있갔냐 이렇허니깐 그게 나온 거야. 둘이. 그래 거기 또 하나가 거기 있다구. 또 있을 거라구덜 그러는 거야. 그러는걸 아이, 그까짓게 뭐냐 그만 둬 그랬지. 올해 가서 캐보면 알꺼야.

근데 올핸 안 가지. 누가 가. 거길.

그래가지구 갖다 노니깐 이장이 알구선 저 시에다 말한 거야. 그래가지구 거기서 와서 가져갔더랬어. 가져 갔다가 그냥 있다가 내가 가져오라 그랬지. 왜 안 가져오냐구. 가져오라구 그랬더니 얼마만에 가져왔더라구. 갖다가선 딸한테 아이 너희 집에 갖다둬라. 니가 얻은 건데 뭐, 산 것도 아니고 얻은 건데 뭐. 거기서 도루 보내줬으니까 가지구 있어 그냥. 나중에 어떻게 되든가 되갔지 그래구선. 그래 가지구 문산에서 살아요. 병이 나았어요. 병이 나아서 인저 식당에 다녀요. 홈프라스 직원이 뭐 백 명인가 얼마 되는데 거기 밥해. 약 먹고 그냥. 근데 이제 괜찮아요. 인제 약 안 먹어도 된다고 병원에서 그래서, 아주 인제 약 끊고 일 댕겨. 아유, 그냥 죽을까봐 걱정이 되고, 외손주딸년 하난데, 아들 하나 하고.

외손주딸년은 거냥 나는 또 왜 애를 그런 학교에 넣냐? 그런 학교에 왜 넣냐? 엄마 지가 그리 간대는데 어떻해요? 예술학교. 저거 나가는 거. 그 아이들 춤추고 뭐 그러는데 거기루 댕기는데 아, 입성 하나만 백만원이 들어간 대는 거야. 게가 서울에 있구 내가 이따금씩 올라가면 백만 원짜리를 해야 한다고 그런 데를 들어갔어. 백만 원이야. 엄마, 백만원이야 그래. 니가 그걸 어떻게 가르킬려고 거길 들어갔냐? 다른 델 학교에 갈 일이지. 거기만 가갔대요. 거기만 가갔대는 걸 그럼 어떻해요? 그냥 지가 밴대니까 가르켜야지 어떻해요. 그냥 아주 억척스럽게 가르켰더니 인저는 아주 그냥 딸의 덕을 봤어요. 딸의 덕을 봐가지구 집두 사구. 딸이 지금 크게 됐어요. 학교 선상, 교사 선상으로, 아주 대학원까지 나왔으니까. 대학원 나와가지구 예술학교 그 학교에 저기 교감인가 뭔가 되고, 아주 춤추는 학원인가 뭔가도 내고 아주 잘 됐어요. 강남에 하나 내고, 인천에 하나 내고, 시집이가 인천이거든. 게서 인천에도 하나 내고. 그래서 딸의 덕을 보구 잘 풀렸어요 아주. 외손주 딸이. 어멈이 고상을 했어두 딸의 덕을 보구 아주 잘 됐어요. 그래서 걱정이 없어요. (외할머니 용돈도 좀 드리겠죠?) 그럼요. 진짜 오면 주지요. 한 달에도 두 번은 내려오나 봐. 오면 엄마 돈 주고 가구. 엄마 돈 주고 가구. 즈이 조카놈 그냥 입성 다 갖다 주구. 아이, 그걸 다 대는 거야. 돈을 물쓰듯 써. 아주 잘됐어요. 잘 됐어."

(9) 어머니 때문에 공부 못한 것이 한이 돼

"(어렸을 때 친정이 어디세요?) 친정이 요 가까운 곳인데, 선적이래는데 살았어요. 선적. 진선면 선적. 거기서 사는데, 그래가꾸서는 6·25(전쟁) 나구 자꾸 총질이 오구 저기 되니깐, 우리가 요기 감바위라는데 우리 작은어머니가 살으셨어요. 요기 군인 회의장소고 너머가 우리 작은 어머니가 사는 동네야. 그래서 내가 거기서 있다가 여길 온 거지.

나는 공부 못했어요. 내가 못헌 거는 우리 친정어머니 땜에 못했어. 우리 친정어머니가 내가 맏딸이 돼서 아일 보지 니가 학굘 어떻게 대니느냐는 거야. 저기 진선학교 큰 핵굔데, 이학년으로 내가 가서, 쪼끄만 학굘 댕기다가 펄펄 뛰시고 그냥 못 가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는 엄마가 책가방을 그냥 아궁이엘 쳐넣겠다구 우리 어머니가 그냥 못 가게 야단허시구 그러시니깐, 동상이 셋인데 그걸 아일 업어주구 그러라구. 그래선 공불 못했어요. 아이구, 내가 그래서 그게 얼마나 한이 됐는 줄 몰라. 공불 못해서. 우리 아부지는 안 그랬는데, 우리 엄마가 그렇게 그래서.

그러시구 우리 친정어머닌 그래두 같이 계시다가 우리 친정 어머닌 또 후방으루 피란을 나가셨잖아. 가족이 다. 그 땐 아주 동네가 다 피란을 저 놀뫼라구. 저기지. 그러니깐 통일촌 지나서 왼손편 짝으로 가면 거기 놀뫼라구 있어요. 거기 가서 사시다가 어머니는. (그럼 친정분들은 전부 거기서 사세요?) 예. 올케는. 밑에 동생의 색시가.

내가 남동생만 셋인데, 지금 하나만 살아 있어. 하난 수류탄, 소 꼴비러 갔다가 수류탄을 가지구 장난해서 즉살을 해서 금방 갔어. 그냥 말두 못하구. 한 이십 살 돼서. 그냥 죽었어. 그렇허구 둘 살아 있었는데, 아파서. 하난 나이 먹어서 장개 가서 암으로 해서 죽었구. 그리구 하난 저기 사는데 지금 예순 아홉이야. 내년에 칠십이야. 내년에 칠십 한대니까 지금 아홉이지. 친정은 동상 하나 살구.

어머이가 그래가지구 공불 못했대니까요. 내가 그러잖아. 항상 나는 어머이 때문에 공불 못했어. 그게 그냥 나오는 거야. 지금 시대는 공부 못허면 바보 아니예요? 몰르니까. (공부했으면 뭐가 되고 싶으신데요?) 아유, 되구 말구가 뭐, 그냥 갑갑헌 거나 면하잖아요. 언문이나 다 알믄. 떠듬떠듬 아니까 뭐 확확 읽질 못허잖아. 구구법도 내가 그냥 배워가지구 내가 허구 다닌 거야. 핵교에서 배지도 못허구, 우리 어머니가 공불 못허게 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온 거예요. (그래도 잘 사셨어요. 자식도 많이 낳으시구. 또 잘 되었고.)

근데 언젠가 놀러갔는데, 그 때 간 데가 어딘지 몰르갔는데, 거길 가니까 이렇게 진열을 해놨드라구 진짜. 그렇게 진열해 놓은 델 도는데, 진선면이래는데 늘목이 거기가 있어. 거길 내 이렇게 들여다보니깐. 아유, 그래서 내가 반갑드라구. 우리 고향 저기가면 저기니깐 반갑드라구. 아유, 우리 동네 그전 늘문리라구 늘목이는 저기구, 늘문리는

여기거든. 그런데 여기 우리 동네 여깄네. 진선면 여기 늘목이가 여기 와 있네. 아유, 왠 일이야. 여기 있네. 여기 글씨봐. 여긴네. 여기다 적혀 있네. 아유, 있드라구요. (그래도 글자도 다 읽으시고 학교 다닌 거나 똑 같네요.) 아유, 그까짓거두 못 읽으면 아주 바보지. 지금 시대에. 거길, 글씨를 그걸 보니까 우리 고향땅이라 그렇게 좋드라구요. 그 지도에 다 있대이. 거기에 있드래니까. 지금은 이북이 됐잖아. 거기 지금은 이북일꺼야. 진선면 이북이 됐을꺼야. 지금 선적두 이북인데 뭐. 이북 됐는데. 우린 쬤겨 나왔으니까 그렇지. 우리 작은 어머니가 여기 감바위에 살아서, 감바위 작은 어머니네로 우리가 온 거지. 와서 살았지. 6.25(전쟁)겪구 나서 와서 한데 있었지. 고기 있다가 이리로 시집을 온 거지."

(10) 자식들 다 분가시키고 지금은 혼자 살아

"아들들은 고등학교만 어떻게 나와 가지고 농사지어요 다. 다 여기서 있는데, 나는, 저희들이 따로 살겄대. 결혼시켜 노니까. 그럼, 그래라. 너희끼리 살아라. 그러구서 다 시간냈어. 집 사가지구서. 시간내서 여기서 살구. 나는 저기 큰집이서 살구 혼자. 혼자 사는 거야 나 혼자.

그리구 작은 아들도 큰 아들 저렇게 시간나니깐 아이, 메누리가 사내를 볶는 거야. 저녁이믄. 따루 나가게 해달라구 그러라구. 아, 그러니까는 엄마, 맘이나 편안하게 살게 따루 나가 살게 해달라구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그러니까 또 영감더러 내가 얘기를 했지. 어떻허냐구 맘이나 편안하게 살게시리 엄마 따루 내달래니 어떻허냐구 따루 냅시다. 그리구 또 집을 샀어. 또 사서, 그것두 그리 냈어. 그래 저기 살구 여기 살구 지금 그래요.

지금 부녀회장이 우리 메느리야. 그런데 말두 못해. 우리 메느리. (신O식 씨요?) 일두 말두 못해 우리 메느리. 이 동네서 따라갈 사람 하나두 없어. 그러니까 셈두 잘 하구 일두 잘하구 말도 못해요. [김O순: 아들 둘인데 벌써 아파트 다 사놨어.] 시간 나서 진짜 뭐…. (여기 집값이 비싸요?) 집값 없죠 뭐. 여기 빈 집 많아. 다 나가서들 살잖아. 애들 공부 가르키느라구. 그놈의 아이들 때문에. 그래서 빈 집이 많아요. 근데 우리 아들들은 위에는 농사가 많구, 작은 아들은 여기서 농사 짓다가 걷어부치구 저가서 매운탕 장사해요. 문산에 가서. 매운탕 장사가 괜찮대. 메느리는 메느리대로 벌러 댕기구 아들이 해요. 맛있다구 소문 났어. 찌개나라라구. 이름이 찌개나라야."

(11) 손녀딸 덕분에 꽃다발도 다 받아 봐

"우리 아들은 순진해요. 손주딸이 요즈음 미국, 어떻게 진짜 부끄러운 소리지만 또 이 소리두 또 해야지. 손주딸이 둘인데, 아들 손주는 하나구. 둘째 아들 몸에서는. 근데 이것두 다 고등학교만 나와가지구, 돈이 적으니까 난 대학 못간다구 저희들이 돈 벌더니, 어떻게 허드니 다 사낼 저희들이 생겼어. 그래가지구 미군을 사궜어. 어떻게 재주두 좋아. 그러드니 글 쎄 몇달 여기서 살드니 미국으로 갔어. 미국 가서 살드니 5년 만에 올해 여길 왔어. 올해 와 가지지구선, 집은 안 사구 여기 와 있는 거야 지금. 친정에 와서 2층에서 지가 자구. 엄마 아빠는 아래층에 있구. 그러믄서 이듬해 미국으로 도루 갈 때나 간다구 엄마한테 여기서 몇 년 있게 될러는지, 미군은 지금 회의장소 거길 들랑거리드구만. 노란기를 달구. 둘째 아들의 큰 손주딸이. 그 음식허는 거두 다 배왔어. 거기 가서 아주. 그렇게 해가지구서는 지난번엔 괴기두 이만큼 사가지구와서는 할머니네두 다 대접을 한 대. 그 미군 손주 사위가 그냥 다 와서 그냥 허구.

난 꽃다발두 다 받아봤어. 왔다 그래서 나두 인제 보러 나갔거든. 문산에를. 손주딸두 그렇구 손주사위두 다 왔다 그래서. 아이 보러 가야겄어. 난 생전 못 보는 줄 알았더니 보는구나. 니가 미국으루 갔으니까 난 못 볼 줄 알았다, 못 볼 줄 알았어요. 미국으로 갔으니까 정말. 그러드니 글쎄 5년 만에 와 가지구선, 왔다 그래서 보러 나가니깐 글쎄 꽃다발을 해다 놓구 줘. 그리구 내가 가니까 꽃다발을 주는 거야. 아이 이게 뭐냐? 생전 꽃다발을 다 받아봤구나. 내가 꽃다발을 다 받아봤다니깐. 아유 그래가지군 글쎄 지가 그냥 괴기를 많이 사가지구 와서는 파티를 여는 거야. 고모덜 다 오라 이렇게 해가꾸 파티를 여는데, 그렇게 잘 허는 거야. 괴기를 사러 갔는데, 그 괴기는 맛있드구만 정말. 괴기가 맛있어서 많이 멕히드라구. 아유, 그러더니 오더니, 할머니, 그 저 차 타구 댕기는 거 난 돈을 내고 댕겼거든. 그 사위가, 손주사위가 표, 카드도 주구, 나를 그것두 다 주구. 기름 사라구 돈을 주구. 아, 글쎄 그러드라니깐. 그렇게 잘 하드래니깐. 밉지를 않아. 미군이라두 뵈기 싫지가 않아. 어떻게 보면 한국사람 비슷허게 생긴 것 같기두 허믄서두 하얗지두 않아. 아주 옥설 같지두 않아. 키가 크지두 않구. 근데 괜찮아. 이렇게 보기에두. 밉지를 않아. 근데 요즈음 나가요. 여기서 자구 사흘 일 한대. 사흘 일 하믄 인제 여길 와 있어. 여 와서 있다가 또 일하러 가서 JSA에 가서 사흘 또 살구, 또 이리루 오구 그래.

또 작은 손주딸은 또 그건 뭐야, 지금도 요만 허게 놓구서, 콤퓨타 그걸 치구 어떻게

만난 거래. 근데 그것두 그렇게 미국말을 잘 허구, 난 어떻게 우서운지. 공분 많이 안 했어두 다 그래도 어떻게 남자들은 잘 만났냐구. (예쁘게 생겼나 봐요.) 딸 괜찮아요. 훤출한 기집애가 늘씬해 아주. 아이구 그렇게 미국말을, 가진 말을 잘 하네. 사위두. 손주사위가 그것두. 우스워서 죽갔어 그거. 어떻게 사귔는지 모르겠어. 그건 아이 둘을 났어. 연년상으루. 근데 이건 아이두 안 낳구 있어 지금. 우리가 아이 하나 나라, 나라. 그러니까 엄마, 할머니 아이 나 뭘 해? 우리는 이렇게 재미있게 살꺼야 그냥 이래. 그래두 야, 하난 낳아야 돼. 못써. 아이가 없이 어떻게 사냐? 그래두 처음엔 그래두 이 댐에 어떡해? 이 댐에 뭐, 이 댐엔 이 댐에 대루 또 살게 되는 거지. 거기는 미국은 저거래면서요. 늙은이 사는데 따루 있구 뭐 저거 있어서 괜찮대네. (노후에 복지가 잘 되어 있으니까요.) 네. 그러나봐요 아마. 안 가져. 아이두 안 가졌어요 여태. 안 생기는지, 안 가지는지 아이가 없어."

(12) 지금은 자식들이 주는 용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혼자 사신다는데, 생계는 어떻게 유지하세요?) 나는 이렇게 내가 농사를 못지니까 큰 아들한테 그랬지. 너희가 다 맡아라. 맡구, 할머니 살아서 주든 돈을 줄여서 주고, 나 식량만 주구, 암만 가마만 다오. 백 가마 주든 거 반만 주구 그렇게 해라 그랬어. 그렇게 허는 거야. 식량 대주구 용돈 주구. (용돈 얼마나 받으세요?) 용돈 300만원. 일 년에 300만원. 먹을 건 대주구 그렇허지. 그리구 다른 아이들도 주구 해서 그렇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난 돈은 못 뫄났어. 자식덜 가리키다 보니까 그렇게 되드라구요. 살다 보니까. 자식덜이 잘 되나가니까 괜찮아요.

(그럼 벼농사는 몇 마지기나 하신 거예요?) 아유, 그건 누가 머리썼나? 나는 땅에 대해서 평수는 안 봤지. 많았지 많기는. 자식덜 다 노나주구두 내가 500가마 농사턱을 가지구 있다가 내가 못 짓게 되구 영감님 돌아가니까 아덜을 줬지. 큰 아덜을 줬지. 그리구 나 백가마만 다오. 그리구 할머니가 돌아갔으니까 반만 다오. 그렇게 했어요 그냥. 그래서 그냥 살아나온거죠 뭐.

(관광은 어디어디 가보셨어요?) 간데는 뭐, 미국은 못갔어요 나는. 저 제주도 갔다오구 중국 갔다 오구. (아저씨 살아계실 때 같이 가셨어요?) 돌아간 연에 갔어. 그 때 저기 동남아 6개국 나라에 가자 그랬는데, 못 갔어요 돈 댐에. 진짜. 6개국 나라에 사람들 다덜 갔는데, 난 못 갔어. 나는 남이 빚 은어가지구는 안 간다, 남의 빚 은어가지구 무슨 구경을 댕기냐 허구 안 갔어 나는. 이 동네 사람덜 다들 갔는데 난 안 갔어. 그래서 그런데 안 갔어도 뭐 정말, 별거예요? 여기서는 빚이락두 얻어 가야 구경하지.

우리 큰 아들네도 농사가 많구 그러니까 괜찮게 살구, 손주 며느리도 보구, 진손주도 보구 다 했어요. 우리 손주는 대학원두 나오구, 다리두 놓구 뭐 그런 거 하는데, 토목과 나와가꾸 회사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지 자본으로 지가 해요. 그런데 잘 헌대요. 즈이 어멈이 그러드라구. 잘 돼요 어머니 걱정마세요."

(13) 죽으면 화장하지 말고, 산에 묻어 주기를

다른 이야기를 하던 중에 나온 말이지만, 권O순 씨가 간절하게 원하는 내용이어서 여기에 기록하기로 한다.

"시아버지 때 행상쳤지요. 우리 어머니도 행상하구요. 멀리 안 가셨어. 나두 죽으면 난 여기, 아부이 산에 쓰라 그럴텐데. 난 화장 싫여. 난 아주 지금 까놓구 얘기해. 난 화장 안 한다고 그러는 거야. 아, 죽어서 예미 불구덩이 속에 왜 들어가? 내 산이 있는데, 난 영감 옆으루 간다 내 그랬어요. 아들들 더러 그랬어요. 내 지금 쌈 날까봐 미리 아주 짖어. 내가. 사위덜 한테두 그러구 인제 내가 아주 그러구 죽을꺼야.

장례사에서 거기서 해가꾸, 행상은 관둬. 행상은 관두구 차루 와라 내 그럴 꺼예요. 아주. 행상두 관두구 차루 해서 아부지 앞으로 갖다다우. 나 그럴꺼야. 왜 내가 화장 속으루 들어가냐? 불 구덩 속으루 들어가냐? 영감 산소가 여 있는데. 불구덩이 속으루 안 들어갈꺼야. 지금두 난 그래요 아주. [홍O순: 안 들어간다 그래두…] 안 들어간다 그래두? 자식이 여럿인데 뭐 한 아이가 화장하자 그러면 화장하나? 다같이 원하는 거를 해야지. 어머이가 그러구 돌아갔으니까 우리 아버이한테 모시자 그러면 되는 일인데.

그리구 구뎅이 파는 것도 돈 주구 파. 난 동네 사람들 쓰지 말아라 그럴꺼야. 내가 그 돈 해놓구 죽을테니까 사람 사서 해라 내 그럴 꺼예요. 난 아주 까구 해 있어 지금 내 속에. (돈 안 해 놓으셔도 돼요. 자식들이 여럿인데요 뭐.) 글쎄 어찌 됐든. 돈 많이 들으면 메느리가 좋대요? 아이구, 난 그러구, 무슨 굿을 해라 절에 가라 그런 소린 안 해. 그 소린 안 하구. 난 화장은 싫다, 아버이한테 가겠다 그건 그렇게 얘기해요."



9 마을에 전해오는 이야기

9. 마을에 전해오는 이야기

9-1 마을주민들의 기억 속 주요사건들

1) 6·25전쟁

6·25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 공산군이 남북군사분계선이던 38선 전역에 걸쳐 불법 남침함으로써 일어난 전쟁이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을 맺기 전까지 6·25전쟁은 그 시대를 살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주었다. 전선에 가까이 위치한 대성동주민들은 6·25전쟁에 대한 기억들이 특히나 더 생생하다.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통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것도 모르고 한동안을 지냈었다.

김O래 씨(남, 76)는 피란을 가지 않고 마을에서 전쟁을 겪었다. 피란을 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는 이미 마흔을 넘긴 나이셨고 김O래 씨는 나이가 어려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다. 징집대상이었던 형님들만 서울로 피란을 갔었는데 전기나 수도가 끊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먹을 물과 식량을 구하기가 힘들어 살기가 더 힘들었다고 한다. 오히려 마을에 남아 있었던 김O래 씨는 봄이 되어 다시 농사를 지어서 먹을 것을 구해 살 수 있었다. 당시 김O래 씨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의 농토가 지금의 팔각정이 있는 '동그랑산' 근처에 많았는데 그러던 중 추석 즈음에 동그랑산에 인민군이 와서 주둔하게 되었다. 먹을 것이 떨어져 추수를 해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논과 밭으로 추수를 하러 다녔고 그 와중에 총에 맞아 죽거나 군인에게 잡혀가는 주민들도 있었다. 김O에 씨는 손가락도 성하지 못하고 몸이 좋지 않았던 아버지가 전쟁 중에 동그랑산 근처에 심어놓은 벼를 베러 갔다가 군인에게 붙잡혀 가는 바람에 고생을 많이 하며 자랐다. 김O래 씨도 추수를 하러 갔다가 북한 군인의 총격에 도망쳐온 기억을 가지고 있다.

> "(전쟁 중에도) 농사는 농사대로 지었어요. 아 농사짓는데 8월 추석날 또 인민군이 여기 요 앞에 똥그랑산 있잖아요 거기를 중공군이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52년도에요. 52년도. 점령을 해서 중공군이 거기 있으니 여기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지. 아 그런데 세상 8월 추석에 들어와 가지고 이놈들이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벼는 베어야 되는데 그 뒤에 농장이 다 있는데. 아 그러니까 어차피 식량도 떨어져 가고 야단났죠 그때는. 이 추수를 하나도 못했는데 그래가지고는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농민들을 뭘 총을 쏘겠냐.' 가서 저 개논이 이쪽이 있는데 이쪽으로 돌아나가면은 저 산(동그랑산)하고 조금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 이렇게 갔지. 거기 가는데 인민군이 요 똥그랑산에서 남실남실 내려다 우리를 보고 있어요. 어디가나 이놈들이 감시하겠지. 아 그래서 논에 가서 벼를 11뭇 한 20뭇 볐어. 그리고 나는 언릉 날라서 한 뭇이라도 비면 지게에다 져서 이짝에다 갔다놨어요. 그런데 인민군이 저짝 제방을 통해서 또 우리를 붙들러 오는 거야. 그러니까 도망갈 밖에요. 볏단도 놔두고 그냥 도망을 왔지. 아 붙들러 오지, 그냥 도망을 왔는데 벼를 한 11뭇 가지고 와서 그걸 또 갖다가 떨었어. 떨어가지고 또 이렇게 좀 해서 식량도 놓고. 그러다가 한 20일 지나니까는 인민군이 아주 나갔어요. 중공군이 아주 나갔어. 그래서 거기 있는 추수를 다 했어. 그러니까 또 몇 달 먹을 거는 생겼죠. 그래가지고 그때는 정미소가 없어졌잖아요. 메에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통메 그래요 그거를. 절구에다 찌어서 먹었지. 식량은 가까스로 먹었어요."[187]

6월에 전쟁이 시작되어 겨울부터 마을에 폭격이 시작되었다. 미군에서 전선 근처에 있는 민간인 마을들에 폭격을 해서 중공군의 진로를 막기 위해 폭격을 한 것이다. 폭격을 하면 보이지도 않을 만큼 높이 떠있는 비행기에서 포탄이 떨어지면 큰 굉음이 나고 폭격이 끝난 자리에는 큰 웅덩이가 생기고 산자락이 없어지기도 했다. 이 폭격으로 마을의 가

187) 김O래(남, 76) 제보

옥 대부분이 불타 없어졌다. 한겨울이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살집을 잃은 주민들은 매우 힘들어 했다. 방공호를 파고 겨울을 났는데 집에서 건져온 이불을 덮으면 그나마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다. 당시 김O래 씨 댁은 사랑채 일부가 타지 않고 남아있었지만 하루아침에 한 평생을 살아온 집과 큰 재산이었던 소까지 폭격으로 잃어버린 상실감에 김O래 씨의 할아버지는 병이 나서 이듬해에 세상을 뜨고 말았다. 전쟁통이었기 때문에 낮에는 폭격으로 돌아다닐 수 없어 저녁에 마을 뒷산에 모여 할아버지의 장례를 치렀다. 염을 할 베나 도구들을 구할 수 없었지만 할아버지의 병환이 깊어지자 개성에 살던 고모님이 미리 장사에 필요한 물건들을 구해 와서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

유엔군과 미군,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선이 엎치락 뒤치락하며 혼란하던 때에는 후퇴하던 인민군이 한국군을 가장해서 마을 사람들을 잡아가는 일도 있었다.

> "근데 언젠가는 인민군에 쬐껴갈 낌새야. 한국군이 들어왔다고 소문이 났어. 그래가지고 소문이 났는데 한국군이 왔다 그래서 나도 좋아서 또 가봤죠.
> 가봤는데 군복이 일정치가 않아. 한국군 복장을 가장을 했는데 한국군인이 아닌 한국군인 행세를 한거지.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자면 이쪽에 충성파라 그럴까 남한의 경찰이나 뭐 청년단체, 청년단장 이런 사람들이 반가우니까 나갔는데 다 붙들어 갔어요. 한국군을 가장해가지고 붙들어다가 다 처형해 버렸어요. 그 때 간 사람들은 그날로 끝이예요. 그 후에 못 봤어요. 생사도 몰라요. 그날 저녁으로 어룡개라고 여기서 얼마 안 돼요. 그 저수지 있는 옆인데 거기 어느 방공호로 들어가서 전부 몰살 시켰대요. 그니까 어느 방공혼지도 몰라. 그 알면 시신이라도 뼈라고 찾을 수 있을 텐데 어느 방공호를 몰라. 그 당신데도. 그 사람들은 그 째가 마지막이예요."[188]

이 때 환영하러 나갔던 동네 주민 3~4명과 조산리 사람들도 3~4명 정도가 붙잡혀 가서 죽었다. 주변 마을 사람들을 합쳐 20여명 정도가 이 때 붙잡혀 죽임을 당했다.

6·25전쟁은 한민족이었던 우리사이에 적대감과 보복감을 갖게 했다. 남한군은 북한과 관련된 자들을 '빨갱이'로 몰아 죽였고, 북한군은 남한과 관련된 자들을 '반동 분자'로 몰아 죽였다. 전선이 바뀔 때마다 서로에 대한 보복이 계속되었다. 대성동마을 인근에서도 '빨갱이'로 불리는 북한과 관련된 자들이 몰살당한 사건이 있었다.

> "빨갱이 노릇하던 놈들이 있어. 여기는 없었어. 이웃동네 있는 놈들이 빨갱이 노릇을 하면 또 주민들을 괴롭히는 거야. 그 어디서 잡았는지 경찰들이 붙들어다가 다 죽였어. 또. 서로 죽이는거야. 이짝 정치가 되면은 저짝 정치가 죽이고. 저짝 정치가 되면 이짝 정치가 죽이고. 민간인만 자꾸 희생당하는 거야. 여기도 무데기로 내가 죽은 자리를 알아요. 시신이 무데기로 그 뼈다귀가 한군데에 모여 있어. 여기 얼마 안 되는 산에 가면 지금 그 뼈가 그냥 다 있어. 그 빨갱이 노릇하던 사람들이야."[189]

김O래 씨가 15살 되던 해에 휴전이 되었는데 그 때 즈음 마을에 TLO라는 기관이 주둔해 있었다. 이들은 비무장 군인으로 북한에 들어가 정보를 빼오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었다. 그래서 북한에 친척이 있는 집들의 경우 괴롭힘을 당했었다. 군복도 입지 않고 민간인과 같은 옷을 입고 다녔는데 저녁에는 정보를 수집하러 북한에 넘어가기도 했다. 북한에 넘어가도 정보를 얻어오기 힘들었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고 마을에 숨어 있다가 넘어갔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자기 몸에 스스로 총을 쏘아서 부상자로 후방으로 후송되어가기도 했다. 비슷한 시기에 김O래 씨는 '늘무니다리'라고 지금은 '돌아오지 않는 다리'라고 불리는 곳에 매일 놀러갔는데 그 쪽에 논이 있기도 했고 그 곳에서 매일 같이 휴전을 위한 회담을 했기 때문에 낮에도 총탄이 날아오지 않는 안전한 지역이었다. 또 미군식당이 있어 근처에 가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놀러갔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되고나서 철망이 생기기 전까지는 인민군도 휴전선을 넘어왔지만 주민들이 많이 넘어왔다. 어떤 때는 집 문을 두드리며 북한에서 왔다고 하는 경우도 많았다. 인민군도 넘어왔는데 자신이 동그랑산 건너 '전릉깨비'에서 근무하던 군인이라고 말해서 주민들이 미군에게 넘겨주기도 했다. 철조망을 만들면서부터 주민들이 많이 넘어오지 않게 되었다. 철조망은 '김신조사건' 이후로 생겼던 것으로 기억한다.

2)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미루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감독

188) 김O래(남, 76) 제보

189) 김O래(남, 76) 제보

하던 미군 장교 2명이 북한군에게 도끼로 살해당한 사건이다.

8월 18일 오전 10시경 미군 장교 2명과 사병 4명, 한국군 장교 1명과 사병 4명 등 11명이 '돌아오지 않는 다리' 남쪽 국제연합군 측 제3초소 부근에서 시야를 가리는 미루나무의 가지를 치는 한국인 노무자 5명의 작업을 지휘·경호하고 있었다. 이때 북한군 장교 2명과 수십 명의 사병이 나타나 작업중지를 요구하였으나 한국 측 경비병이 이를 무시하고 작업을 계속하자 갑자기 수십 명의 북한군 사병들이 트럭을 타고 달려와서 도끼와 몽둥이 등을 휘두르며 폭행, 미군 장교 2명을 도끼로 살해하고 나머지 9명에게는 중·경상을 입힌 뒤 사라졌다.

사건 직후 주한미군과 한국군은 '데프콘 3호'(경계상태 돌입)를 발령하고 전투태세를 갖추었다. 미군은 F-4 전폭기 1개 대대와 F-111 전폭기 1개 대대를 한국에 증파하고, 항공모함 미드웨이호를 한국해역으로 항진시켰으며, B-52 폭격기를 출동시키는 등 전쟁위기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김일성이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사과문을 국제연합군 측에 전달함으로써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그리고 9월부터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경비체제가 남과 북의 분할경비로 되었다.[190]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은 대성동과 가까운 판문점 인근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기억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았다. 아래에는 당시 마을에 거주하고 있었던 김O래 씨(남, 76)의 기억 속 도끼만행사건이다.

"그 때 전쟁일보 직전이었어. 아주 삼엄했어 여기 그날. 그 사건나고 그 미루나무를 잘르러 들어갔거든. 그라는데 이 이북 사람들하고 잘못하면 교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 그 당시에. 근데 교전까지는 안 갔고 그 미루나무를 잘르러 들어갔어요. 그것 땜에 경비스는 사람들이 시야가 가려가지고 관측이 안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장기(나뭇가지)를 따러 갔드래요. 처음에는 그런다가 싸움이 된거죠. 인민군이. 너희 가장기도 따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도끼만행사건이 거기서..

(어떤 것 때문에 마을이 삼엄했다고 느끼셨어요?)

아 그째가 헬기가 우리 동네 왠만하면 안 오는데 우리 동네 상공으로 헬기가 회전을 하더라고. 무장을 한 군인이 타고서 내려다보는 게 다 뵈요(보여요). 총을 이렇게 헬기에도 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 아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있구나. 즉시는 몰랐지. 미루나무 사건이 일어난 지도 우리는 몰랐어요. 처음엔. 나중에 알았지.(주민들 통제하지는 않았어요?)

주민들을 대피하지는 않았어요. 동네 바깥에 나가지 말라고만 했어요. 농지에 나가지 마라. 그때는 농사일을 할 수가 없었지. 나가질 못하게 하니까.

(며칠이나 못 나가셨어요?)

그날 하루 지나가니까. 뭐 그날 하루만 그러고 고 이튿날 까정 좀 저거 했지 고 다음에 금방 회복하더라고. 원상으로."[191]

3) 1984년 북한이 보내준 수해물자

1984년 7월 초순부터 중순까지 집중호우로 인하여 경기 중부지방 일원에 수재(사상자 70여 명, 재산피해 670여 억 원)가 발생하였다. 집중호우가 물러가자 각지로부터 연일 수재민을 돕기 위한 손길들이 밀려드는 등 수해복구가 한창이던 그로부터 1개월 뒤, 수해의 상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금 집중호우(1984.8.31~9.4)가 덮쳤다. 이로 인해 온 나라가 엄청난 물난리를 겪게 되었다. 이때 북한은 북한적십자회 명의로 대한적십자사 앞으로 보낸 방송통지문을 통해 북한적십자회가 서울·경기 일원에 내린 폭우로 발생한 수재민에게 쌀 5만 석, 직물 50만 미터, 시멘트 10만 톤, 기타 의약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가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그리고 인수절차 협의를 위해 쌍방 적십자 실무접촉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되기를 희망한다는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남북적십자 간 실무접촉이 성립되었다.

실무접촉을 통해 육로와 해상을 통한 물자 수송계획이 타결되었고 남북적십자 간에 수재물자 인도·인수 작업이 1984년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이루어졌다. 판문점을 통한 인수는 29~30일 양일간 이루어졌다.[192]

마을 주민 김O유 씨의 기억을 토대로 살펴보면 판문점을 통한 인수작업은 대성동마을 공터에 남한 적십자임시본부를 설치하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아래는 김O유 씨의 구술내용이다.

190) 두산백과, '8.18판문점도끼만행사건' 항목 참조.

191) 김O래(남, 76) 제보

192) 국가기록원, '북한적십자회 수해구호물자 인수' 항목 참조.

"수해물자 왔을 때도 그 때 우리마을에서 받았는데. 우리 이 앞으로도 쭉 차가 마당에서 좀 컷었는데. 거기서 인제 포스트가 입구에 하나 여기에 하나 입구에 하나 한 4~5군데 입구를 정했어요. 밭 같은 것도 모래, 자갈 한강 모래 자갈은 다 갖다 넣었데요. 북쪽 수해물자 올 때.

(그게 몇 년도예요?)

그게 한 70년도 될까? 아 우리 여기 이사와서야 80년도 넘었구나. 그 여기다가 한 포스트에 10대씩 인제 들어오거든 경찰이 저기 '돌아오지 않는 다리'에서부터 에스코트 해가지고 인제 이쪽에 몇 대 이쪽 몇 대 인제 포스트마다 내려놓면은. 북한에서 물건 싣고 온 거 하역하는거지.

(북한이 우리를 도와준 거예요?)

그럼 쌀이고 원단 이런 거 왔거든. 우리가 80년대 수해를 많이 당했을 때 북한에서 인제 도와주겠다고 그랬어요. 차마 받을까 인제 그랬는데 우리가 받는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그냥 갑자기.. 쌀도 그냥 다 못 먹는 쌀이었지. 80년대 초에 큰 태풍이 왔었지. 이 앞으로 먼저 내린 것은 죽 서있어. 근데 운전수가 선임탑승자가 한 대에 두 명씩 탓거든. 이북 차 5톤 트럭이야 그게. 군인 찬데 그냥 붓으로 갑자기 뺑기(페인트)칠 하느라고 붓으로 다 칠해가지고. 우리는 그런 차가 없지. 붓으로 칠한 차가 어딨어. 다 광내고 군인차들도 그런데 그냥 붓으로. 그리고 내가 올라가서 봤어 그랬더니 바닥은 아주 철판 깔았는데 죄다 돌을 싣고 다녔는지 우묵우묵 다 들어가 가지고 차라고 할 수도 없어. 여기서는 옛날에 폐차 돼서 굴러다니지도 않을..

우리가 그 오면은 가는 차에다가, 한진콘테이너 막힌 차에다가 물건을 엄청 싣고 들어와. 그거를 거기다가 다 실어. 그 포장하나에 뭐가 어마어마하게 (물건이)들어간거야. 그러니까 여기 가져온 거 보다 몇 곱절 더 받아 가는거야. 그리고 우리가 마루에 텔레비전을 켜놓는거야. 보라고. 걔네들은 기다리고 있으니까. 열대가 들어왔으면 첫 번째가 첫 차가 내리면은 여기와서 쭉 시어(세워) 놓거든. 그 아주 시계는 누가 줬는지 차에다가 보라고, 그래가지고 시계 찬 손을 이렇게 창문을 내리고...테레비를 켜 놨더니 쳐다도 안 봐. 걔네들은 적십자사 메인 포스트가 요기 우리 창고 마당에다 다 지어놨었거든. 고위급 오고 하면 우리 여기 경찰서장 같은 사람들은 뭐 쫄병들 죄 중앙부처에서 죄다 안기부에서 뭐 사복경찰관들이 다 내려오고.. 뭐 그 때 얘기해보면 걔네들은 다 알아. 그래서 내가 그래. 얘기를 걔네들한테 걸었어. 그랫더니 걔네들은 대답할 여지가 없으니까 그래. 선생님 다 아시면서 왜 선생님이 다 알면서 왜 물어보냐고 구찮아 하는거야. 그리고 적십자 요원들이 아주머니들이 와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차마다 오면 더우니까 줬다고. 그럼 여기서 안 먹어. 제가 그 판문점 앞에 농토가 좀 그쪽에 많아요. 도끼사건 나고 그쪽으로 비상도로를 뚫었거든. 나오는 길을. 그 갈 때는 글로 얘네들이 들어가는데 뭐 이렇게 아이스크림 껍질 있잖아. 프라스틱 껍질. 그건 가다가 다 거기다 버리고. 여기서는 안 먹어 녹아도. 가다가 사람들 없는데서 다 먹고서.

그리고 음식도 다 먹었어요. 다 호텔서 싣고 왔어요. 지금 말하면 출장부페처럼 최고급으로 해서 걔네들도 먹고 주민들도 먹고 그랬어요. 그 점심 때가 거치잖아 수송하고 그러면은. 그 때 무슨 호텔차더라. 우리도 처음 먹어보는 거 많았어. 라면도 많이 끓여주고. 우리 군인들 라면 많이 끓여 줬지. 경찰서 애들도 후배들도 있으니까 걔네들 미리 들어와야 되잖아. 중앙부처에서 높은 사람덜이 오니까. 먼저 와가지고 '어휴 우리 배고파 라면이락도 하나 끓여줘' 하면 후다닥 끓여서 후루룩 마시고 가서 죄다 보초서고 그래야 되잖아. 경찰서 과장 같은 거 뭐 정부부처에서 오는데 맥이나 춰. 그런 시절도 있었어. 그게 아마 전두환대통령 때 일 거야."[193]

9-2 마을 주민들의 옛이야기

대성동은 원래 강릉 김씨 동원군파 후손들이 자리잡고 살던 마을이었다. 까닭에 현재도 여기에는 많은 강릉 김씨가 살고 있다. 여러 설화를 제공해 준 김O래 씨(남, 76), 김O예 씨(여, 77)도 강릉 김씨도 이곳에서 태어난 토박이다. 두 편을 들려준 김O래 씨(남, 79)도 마찬가지다. 김O규 씨(남, 74)는 해풍 김씨인데, 해풍 김씨는 대성동에 5가구 정도 있다. 이 외에 이O순(여, 80), 구O우(남), 김O웅(남, 48) 씨도 각기 1편씩을 해 주었다. 한 편을 들려준 강릉 김씨 증래 씨(남, 85)는 서울 서교동에서 살고 있는데, 11월 30일 시제를 지내러왔다가 이야기를 해주었다.

김O래 씨가 들려준 설화 중 조상에 관한 이야기들은 2014년 7월 30일 오후에 김O유 씨의 집에서 주민 김O유 씨와 조사자 이수자·이헌재·이은솔 등이 있는 가운데 해준 것이다. 이 날은 조사자 중 한 명인 이헌재의 요청으로 강릉 김씨 족보를 5명이 함께 보게 되

193) 김O유(남, 71) 제보

었는데, 족보를 보다가 생각난 듯 김O래 씨가 조상에 관한 이야기를 해 주었다. 이때는 옆에 있던 김O유 씨도 이야기를 거들었다. 김O래 씨는 조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세조와 사육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육신의 시신을 거둔 김시습도 강릉 김씨였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육신 이야기는 널리 알려진 것이라 채록하지 않았다. 대성동이 강릉 김씨 집성촌이기에 조상에 관한 이야기를 앞에 적었다. 나머지 이야기들은 7월 17일 마을회관 2층에서 해 준 것인데, 어린 시절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로부터 들은 것이라 한다. 김O예 씨도 7월 16일 4편을 해주었는데, 주로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화들이다. 김O래 씨가 들려준 두 편의 이야기는 8월 29일 활터 앞에서 해주었다.

김O규 씨는 이야기를 잘 모른다 하면서, 예전에 O섭이 할머니, 자신의 큰어머니였던 김O기, 구O우 씨의 아버지인 구O팔 씨 등이 이야기를 아주 잘 했었다고 했다. 그 분들은 이미 십여 년 전에 작고했는데, 이런 분들이 살아 있었을 때 이야기 조사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몹시 안타까워했다. ( ) 속의 말은 조사자의 말이다.

1) 이성계를 비야냥거린 김자남(金自南) 할아버지[194]

"이 분은 내 20대 조부이신데, 이 분은 인제 고려 말기 때예요 얘길 들어보면. 근데 인제 이성계가 이씨 조선을 집권을 했잖아요. 역사로 보면.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말하자면 인제 들은 이야기인데,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몇 백 년 전 얘기를 듣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죠. 20세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길 허셨냐 허믄, 고려가 망하면서 이성계가 집권을 허니까, 이성계허구 뭐 동서간이 된다고 하드라구. 아니 이성계 아들인가 뭐 그 사람허구 동서가 됐대요. "아, 그 사람이 뭐 어떻게 임금이냐?"구. 그렇게 비꼬셨대 동서헌테. "고려 왕이 따로 있는데, 이성계가 무슨 왕이냐?"구 만나주지두 않았다구 그래요. 동서간에도 막 그렇게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구 이 분의 묘소가 여기 대덕산이예요. 또 공교롭게. 여기서 얼마 안 돼. 한 이십 리 삼십 리 안에 있어. 그런데 지금 확인할 수가 없죠. 북한이야. 그런데 여기에 13대조 할아버지 묘소가 이 근방에 있어 또. 그러니까 20대조 할아버지와 무슨 연관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걸 모르지 우리는. 13대조 할아버지허구 한군데 계시다시피 해요 이게. 여기서 얼마 멀지 않아. 그런데 20대조 허믄 상당히 멀잖아요?

194) 김O래(남, 76) 제보

근데 이분의 형제분이란 말야. 양남 할아버지가. 근데 이분의 묘소가 저기에 있어요. 근데 여길 가면은, 이 형제분이죠 우리 할아버지하고. 형제분인데, 아유 아주 그 산소가 아주 잘 해놨드라구. 그 당시에 산꼭대긴데, 그게 몇 백 년이 가도 아주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이 할아버지가. 양남할아버지가.

[김O유 : 우리가 자남 할아버지, 5남 할아버지 중에 막내 손이예요. 자남 할아버지 손으로 쭉 내려온 거지요.] 아이,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그 동서가 저기 이성계 아들하고 동서래요. 얘길 들으니까. "그게 무슨 임금이냐?"구. "고려 임금이 있는데…." 아, 이러구 비아냥거렸다는 거예요. 이성계를.

[김O유 : 둘째 아들이었던 윤남 할아버지는 연천에 묘가 있는데, 그 할아버지 산소는 높은 산 꼭대기에 있어요. 묘가 직사각형으로 돌로 쌓았는데 그 고려를, 송악산 고려 쪽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높은 산에다 모셨다구 그래요. 그 저 고려시대에 그 아마 큰 일을 하셨나봐. 그 묘도, 난 그런 묠 처음 봤어요. 석축으로 쌓았는데, 무척 아주 직사각형으로 길게 쌓아가지구. 묘 밑에두 아주, 지금은 이렇게 동그랗게 하잖아요? 근데 직사각형으로 크게 그렇게…. 아주 높은 산꼭대기에 있어요.] 계단으로 이렇게 한참 올라가야 올라갈 수 있어. 산이 높아서.

[김O유 : 그래서 자남 할아버지 묘를, 지금은 북한에 있어 못 가니까, 우리가 가묘를 저 남양주 거기다가, 태능 바로 너머거든요. 거기다가 임시로 해놨어요 아주. 가묘를 해 놓고.] 가묘야 거긴. 근데 족보에는 대덕산이라고 해놨거든. 대덕산이 여기서 얼마 안 돼요. 산소도 찾을 수 있는 건데 지금 맘대로 못가서 그런 거지요. 북한이니까."

2) 임진왜란 때 부자(父子)가 함께 순국한 광열·철명 할아버지[195]

"우리 조상님 중에 14대조 15대조 할아버지가 당진 사시는데, 그 제[때]가 임진왜란 때거든요. 임진왜란 땐데 아, 그 제가 선조 임금 땐데, 선조 임금 아니예요? 그 시절이. 선조임금인데, 이분이 인제 피난을 가시지 않아요? 왜군이 들어왔으니까. 그래가지구 임금을 구할려고 부자가 나갔어요. 그래 일본군하고 싸워가지구 부자분이 하루 아침에 목이 잘려 죽었어. 그 분이 14대조 15대조 할아버지야. 당진에 묻히셨어. 그런 참담한 일을 당한 거야 우리 조상님들두.

195) 김O래(남, 76) 제보



25세 판서공 휘 광열묘



충효열각 : 충남 천안시 병천면 도원리 도원동 소재

(성함은 누구신데요?) 그 분은 저 족보에도 나와 있지마는 동원군 할아버지라구 아마 철자, 명자일꺼야. 그 분이 일본 칼에 목이 잘려 돌아갔어요. 부자가 하루 아침에 다 돌아가셨어. 철명. (철(哲)자 명(命)자 할아버지가 26세구요. 그 담에 광(光)자 열(烈)자 할아버지가 25세시네요.) 그렇지. 광열 할아버지하구 그 부자가 하루 아침에 돌아가셨어. 한 날이예요 아주. 제삿날이. [김O유 : 문헌에도 나와 있지. 여기.]

그 분의 묘가 당진이예요. 나 한테 14대조 15대조 할아버지가 돼. [김O유 : 우리 시조로 쳐야 돼. 그렇게. 25세가 광자 열자 할아부지….] (그러니까 여기가 강릉 김씨 중에서도 동원군파 후손이시잖아요? 그럼 동원군이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란 말이죠? 철자 명자인 분이 동원군이신거네요.) 그렇죠. (그 분이 26세) 두 부자분이 하루 아침에 돌아갔다니깐. 그 때가 임진왜란 때야. (그러니깐 25세라고 하는 것은 강릉 김씨 시조인 신라 때의 김주원이라는 분으로부터 따지는 거네요.) 응, 그렇게 따져온 거구. 우리한테 직계로 따지면 14대 15대 조상님 되시는 거구.

(그러니까 이렇게 되네요. 광자 열자 할아버지가 25세고, 그 아드님이 철자 명자 26세, 그 아드님 27세가 기자 종자 할아버지구요. 그 기자 종자 할아버지 아드님이 만자 성잔데, 묘소가 여기에 있어요. 28세. 그 아들이 일자 범자, 그 다음에 아들이 30센데 극자 경자고, 그 아들이 성자 선자예요. 31세.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정자 주자 할아버지가 32세예요. 그래서 요, 정자 주자 할아버지 32세부터 이 마을에 내려와서 계속 사시는 거예요.)

[김O유 : 그 분 아드님 네 형제분이 여기에 다 사셨어요.] (그런데 그 네 형제분이 어떻게 돼냐 이거예요.) [김O유 : 족보에 다 있어요. 그 밑에 있는 분이 막내아들인데 고 옆에다가 묘를 썼고, 큰 아드님은 저 학교 넘어 있고, 둘째 양반은 그 산소 옆에 있는데 공회당 옆쪽에 있고, 우리 할아버지는 저 회관 거기가 우리 산이었었는데, 거기다 모셨는데 종합개발 할 때 화장해 모셨어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만 화장해 모시고, 다 묘소는 여기에 있지요.]"

3) 효자 정려문을 받은 김정주 할아버지[196]

예전에 마을에 효자문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동네에서 들은바 있어 효자문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더니 들려준 것이다.

"(여기에 무슨 효자문 같은 게 있었다던데요…) [김O유 : 전에는 김O성 씨 네 라구요. 그 친구네 아버님이시거든요. 거기에 효자문이 있었다구 그래요. 그런데 전쟁 때 다 타 버리구 그래가지구 분실된 거지 말하자믄.] (근데 어떻게 돼서 효자라 그래요?) (여기 정자 주자 할아버지도 정려문을 받지 않았어요? 거기 비석에 보니까 그렇게 써 있던데요.) 아, 정자 주자 할아버지가 효자문을 받은 거면 기록에 의해서 저걸 꺼예요. 우리는 직접 못 듣죠. 정자 주자 할아버지는 나한테 8대조 할아버지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8대조면 적어도 거의 한 300년 전인데, 그걸 똑바로 전해줄 사람이 없지. 그러니까 족보에 난 기록에 의해서 내가 알아요.

그 할아버지가 효성이 지극해가지구, 그 족보에 있는 걸 보면, 부모님이 물고기를 그리 좋아 하셨다네요. 근데 물고기가 아주 겨울철에 그걸 잡숫구 싶고 그랬는데, 겨울철에 그걸 어디 가서 구해올 수 있나요? 땅두 얼었지. 물두 얼었지. 그랬는데 비가 막 쏟아져와가지구, 겨울인데도 비가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구 고기가 어디서 다 나올 정도루. 그래서 고기를 구해다가 부모님헌테다 그걸 끓여드렸다 족보에 그 기록이 나와 있어요.

정자 주자 할아버지가 그렇게 효성이 지극했다고 적혀 있어요. 족보에. 그래가지고 물고기를 겨울에 구할 수가 없는데, 그냥 해톳비가 그렇게 오더래. 어찌 비가 많이 왔는지, 도대체 비가 많이 올 시기가 아닌데, 물고기가 다 겉으로 올라왔다 이런 기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을 대접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후에 이야기를 더 계속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6) 김O래(남, 76) 제보

김정주 할아버지에게 네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영우(永禹), 둘째는 영두(永斗), 셋째는 영기(永器), 넷째는 영정(永鼎)이다. 이들은 모두 이 마을에 함께 살았기에 지금 마을에 살고 있는 강릉 김씨들은 이들의 후손이다. 김O석, 김O래, 김O견은 제일 큰 댁 후손이고, 둘째의 후손은 O래, O래, O래, O래 등이 있고, 김O유는 셋째의 후손이며, 김O래는 넷째의 후손이다. 김정주 할아버지 묘소가 근방에 있는데, 이 묘소 옆에는 막내아들이 묻혀있고, 큰 아들은 대성학교 너머에, 둘째 아들은 공회당 옆쪽에 묻혀 있다. 셋째 아들 묘소는 원래 회관이 있는 산에 있었는데, 종합개발을 할 때 화장해 모시어 지금은 없다.

4) 옛날에는 상당히 존경받았던 마을이었던 대성동마을[197]

"우리 래자의 8대조 할아버지가, 우리 전체 우리 대성동 강릉 김씨의 그 중시조요. 정자 주자라구 그 할아버지가 시존데, 연세가 32살에 돌아가셨어. 일찍이 작고하셨는데, 그 분이 부모에 대한 효자가 지극한 분이셨어. 그래서 효자비까지 정문을 받으셨거든요. 그 어떻게 된 정문이냐?

아부지가 돌아가시게끔 몹시 아프신데, 추운 겨울에 여기 사천 냇개울에 가서, 여기 개울이 물고기 맛이 참 좋습니다. 여기 유난히, 이 앞에 이 개울에 물고기 맛이 좋아요. 옛날에두 그렇게 맛이 좋았든 모양인가봐. 게 돌아가시게 된 노인네가 내가 물고기가 먹고 싶다 이렇게 소원을 허시니까, 아드님이, 겨울에 어떻게? 그 때 나가서 얼음을 끄구 허니까는 거기서 얼음 밑구녕에서 잉어가 벌떡 솟아 올라왔어. 그래서 잉어를 갖다가 대접했대는 거두 있구.

또 물고기가 먹구 싶은데두, 그 소원을 허시니깐 하늘에서 시커먼 구름장이 오더니 강한 비가 내리믄서 아, 물고기가 떨어진 거야.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 얘기가 나오는데 (하늘에서 물고기가 다 떨어졌대요?) 그 붕어나 메기나 이런 물고기들이 비가 오면 따라 올라오게 돼있어. 그런데 그게 마당에 떨어지며는, 마당에 올라오며는 그냥 하늘에서 떨어졌다 흔히들 얘기하지요. 게 그러한, 옛날 족보상에 그러한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영조 때에, 그 적에 효자정문을 받으셔가지구 효자문까지, 우리 강릉이예요. 효자문까지 받으신 마을이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런게 다 없어졌지만, 옛날엔 이 근동에, 이 대성동 이 근동에 사방을 해가지구는 사실 우러러보던 동넵니다. 이 근동에 이렇게 자자일촌으로 되어 있는 동네가 없었고, 또 따라서 그렇게 효자를 받고 그러한 동네가 없었어요. 여기 몇 개 동네가 주위에 있었지만은. 그래서 대성동 강김이라 할 것 같으면 상당히 우러러보고 존경받았던 마을이예요. 이 마을이. 이제는 그게 다 없고, 이젠 자유의 마을이 돼서 그냥 자유스럽게 막 하고 그러지만은. 예의 법도도 다 없어졌어. 솔직히 말해서. 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은 마을이다. 옛날에는 상당히 존경받았던 마을이다 허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5) 통일될 날이 기록된 '옥판'이 판문점에 묻혀 있어[198]

조부한테서 들은 이야기라 한다. 제보자의 조부 김O희 씨는 한학에 매우 조예가 깊으셔서 장단읍내에 있던 향교에서 축문을 읽기도 했다. 개성에는 당시 황해도 연백평야의 갑부였던 김정호 씨가 살고 있었는데, 조부는 자주 이 집 사랑방에 놀러가 사람들과 함께 한시를 쓰거나 지으며 놀기도 했다.

"그 분[조부]이 얘기허시는 것을 내가 가만히 들으면, 옥판이 있다구 그래요. 옥판. 판문점에. 옥으로 만든 판이 있다. 옥으루다 맨들어진. (어디예요?) 아니, 어디 묻혀 있다는 거예요. 어디 묻혀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언제 통일이 될 수 있다 하는 것두 적혀 있다. 이런 얘기를 허시는 분이예요. 그런데 그거는 언제 나오느냐 그것두 모른다는 거지. 언제 그 돌이 나올른지 모른다. 그걸 상상으로만 얘기허시는 건지, 무슨 근거루 얘기허시는 건지, 그거는 내가 알 수 없어요. 옥판이 있다. 옥판이 묻혀있다 그랬어요.

참, 나 그거는 증말 잘 해두 내가 육십 년 전에, 내가 열두 살 적에 들은 기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옥판이 있대요. 옥판. "야, 이 판문점 근처 어디엔가는 옥판이 묻혀 있는데, 그 지점은 나두 모르구, 거기에는 우리나라가 통일이", 그 제만 해도 우리 남북이 갈려 있었잖아요. 6·25사변 전에. "통일이 된대는 거까정 기록돼 있댄다." 허는 걸 그걸 얘기하셨어요.

(빨리 옥판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옥판이 있다 그래요. 거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게 있다–. (그런데 누가 이걸 만들었대요?) 아, 그건 모르겠어요. 그 때 내가 관심이 좀

197) 김O래(남, 76) 제보

198) 김O래(남, 76) 제보

많으면은, 나이가 좀 그러고허며는 그걸 중점적으로 물어봤을 건데, 그게 아쉬워요 지금. 옥판이 묻혀 있으믄 이걸 근거를 할아버지는 어떻게 아셨느냐? 나 이거를 물어봐야 하는데, 그래가지구 그거를 내가 참 못 물어본 게 아쉬워요. (저도 못 들어서 너무 아쉽네요.) 옥판에, 통일이 되는 연도꺼정 다 기록이 돼 있다 그런 말씀을. (그럼 내일부터 땅 파러 다녀볼까요. 판문점 근처에.) 그러게 말이예요. 그런데 우연찮게 뭐 공사하다가 나올 수도 있구 그러겠지요. 통일이 되는 걸 미리 알면 좋겠어요. 우리 할아버지한테 내가 그 소릴 들었구…."

6) 장사 할머니가 흙으로 쌓은 똥그란 산[199]

똥그란 산은 대성동마을 앞쪽에 있는 조그마한 동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기에는 현재 팔각정이 세워져 있다. 이 동산은 편편한 평야지대에 야트막하게, 그리고 오똑하게 솟아 있는데, 원래는 흙으로 쌓은 큰 토성이 있었다고 전한다. 까닭에 마을이름이 원래는 태성이었는데, 사람들은 이곳을 똥그란 산, 혹은 성재라 부르기도 한다. 똥그란 산에 대해 김O규 씨는 예전에 구O팔이란 분한테 들었는데, 이런 산이 하나가 아니라 셋, 혹은 네 개나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성동이란 이름은 태성에서 유래된 것으로, 미군들이 태성 발음이 어려워 대성동으로 말했기 때문에 마을 이름이 대성동으로 변했다. 똥그란 산과 관련된 이 이야기는 김O래 씨가 어린 시절 할머니나 어머니로부터 여러 번 들었다고 한다.

"우리 어머니는 또 말씀하시기를, 요 우리 동네 앞에 쪼끄만 똥그란 산이 하나 있잖아요? 아주 벌판 가운데 그렇게 유일하게 똥그래. 가운데는 밭이 하루갈이라구 그랬어요. 그 전에. 결이 하루갈이예요. 보통 밭이 아주 커요. 지금은 팔각정 짓구 뭐 그랬는데.

"옛날에 저 장사 할머니가 행주초마에다가 흙을 담아 가지구 뺑그르르 돌려서 쌓은 거다." 우리 어머니가 그런 소릴 하시드라구. 우리 어머니가.

"행주초마 있잖아요. 행주초마에다가 이렇게 흙을 담아서, 이렇게 돌면서 부었는데 그게 그렇게 되었다."

199) 김O래(남, 76) 제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나는 그걸 들었죠. 우리 할머니하고 우리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허셔. 우리 할머니가 사셨으면 지금 백 살도 넘으셨지.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얘기하시는 소리를 들었죠. 그래서 그것도 기억에 남는 거니까 지금 말씀 드리는 거죠."

7) 빈 독 속에 숨었다가 왜경에게 잡혀 죽은 도둑놈[200]

"그 때는 일정 때 아니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어머니 생활하시던 그 때는 일정 때예요. 일본이 한국을 강점해가지구 조선을, 그 당시는 조선이라 그랬으니까, 조선을 강점해가지구 36년간을 통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그 일본 통치하에선데, 그 당시는 법이 없었나 봐요. 그냥 강도두 많이 다니구 그래가지구 언젠가는 강도가 여기 우리 동네에 들어왔는데, 막 물건도 뺏어가구, 뭐 안 주믄 뭐 사람을 죽여도 그만이래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냥 일본경찰이, 말하자면 왜경이지. 왜경이 인제 그 도둑이 와서 여길 괴롭힌다 하니깐 여길 왔나보지. 도망을 갔대요. 저기 판문점 쪽으루. 판문점 쪽으로 도망을 갔는데 아무리, 집으루 들어가는 걸 봤는데, 아무리 봐도 없다는 거야. 그 강도가.

그래가지구 여기서 판장뚝이라구 해가지구 이 앞으로 해가지구, 저기 지금 휴전협정 조인된 그 지점꺼정 갈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렸단 말이야. 적어도 한 시간 걸렸을 꺼야. 근데 왜경이 거 가서 붙들었는데, 아무리 뒤져도 읎드래. 그런데 옛날에는 김장을 해 넣으면 겨울에 얼까봐 독을 파고 묻잖아요? 땅에. 그 독에, 비워 논 독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서 광우릴 탁 덮어놨는데, 거길 쓰구 있드래. 그래 잽혔대. 그래서 목을 쳐 죽였다, 그 자리에서 목을 쳐 죽였다. 그런 그 일화가 있는데, 난 그걸 듣기만 했지 뭐."

8) 도적떼에게 슬기롭게 대처해서 화를 모면한 할아버지[201]

앞의 이야기가 끝난 후 "앞의 이야기 같은 것을 재미있다고 하시니 또 한 가지 하겠다."며 들려준 것이다.

200) 김O래(남, 76) 제보
201) 김O래(남, 76) 제보

"우리가 그 전에는 좀 먹구 살만했나 봐요. 우리 집이. 그래가지구 저녁이 이제 어스름하게 저녁이 돌아오는데, 그 강도야. 말하자면. 그런 강도가 와 가지구선 '아, 너희 그 닭 한 마리 잡구, 나 술 한 잔 하구 아주 잘 먹구 가구 싶다. 어서 빨리 준비허라.'

그 인제 여름인데 날두 인제 덥잖아요. 그러니깐 인제 그 때쯤인가 봐요. 그래가지구 멍석을 펴 놓구 인제 '쉬라구. 우리가 음식을 만들갔다구.' 우리 할머니가 인제 얘길 허신 거죠. 그러니깐 인제 아주 극진히 대접 안 하믄 큰일나요. 아, 뭐 무법천지거든. 그래가지구 인제 아, 대접을 하는데, 또 닭을 한 마리 잡구 집에서 길르든. 우리 할머니 얘기가 그거예요. 닭을 한 마리 잡구 밥을 새루 짓구 인제 그렇게 해가지구 그 사람들에게 대접을 할려구. 잘 해서 먹여서 보내야 탈이 없나보죠? 아 그런데 닭고길 먹구 밥을 먹으면서, 막걸리두 먹구 그러면서 무슨 얘길 허냐 허믄, 아무 날 몇 시경에 이 앞에, 지금은 뭐 북한이라 못가지만 견디거리라구 하는 데가 있어. 견디거리. 견디거리라고 하는 데는 뭐냐 하면 이름이 견디거리야.

그 전엔 어딜가나, 여기에두 어딜 가나 지명이 다 있어요. 여기는 돌다리, 여기는 상수문, 여기는 뭐 어름산, 이렇게 다 지명이 있어요. 지금두. 그래서 일을 하러 오라구 하믄 "낼은 저 어름산으루 와." 이런다구. 그래야 알잖아요. 그렇지 않으믄 모르잖아요. 그전에는 인제 품앗이를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오늘은 이 사람네 일해 주구, 내일은 또 우리 일 허구 그러믄, "내일은 어름산에서 일 할테니까 어름산으루 와." 그러믄 어딘지 알아요 벌써. 그러니까 땅이름을 그래서 지어 놓은 거 같애. 그래 뭐 사람 이름두 지어 놓아야 아무개 하면 알듯이 그런가 보죠? 그래 지금은 기계를 이용하니까 참 저건데, 옛날에는 소쟁기루다 논 갈구 다 했잖아요. 그러니깐, 품앗이가 많으니까 그런 거 같애.

아, 그런데 참 음식을 장만해서 이 사람들을 먹이는데, 뭐라 그래냐 하믄 '아무 날 몇 시경에 견디거리라구 허는데 돈 암냥허구 닭 한 마리허구 준비해가지구 오너라.' 그러드래요. 그러니까 아주 날짜를 적어 놔둬야 돼. 그래서 아무 날 며칠 날 몇 시경에 그리루 음식 허구 돈 얼마허구 가져와라 그러니깐, 우리 할아버지가 인제 음식을, 닭을 한 마리 잡아서 삶아서 토종닭이죠, 그 때는 맛있었어요. 그래가지구 술 한 병하구 돈 암냥허구 가지구가야지 어떻해요? 가지구 갔어. 가셨대요.

아, 그런데 시간 약속을 해서 한 시간, 두 시간을 기달려두 안 나타나더래는 거야. 그래니깐 우리 할아버지가 세 시간을 기달려두 안 나타나니깐 헐 수 없이 되돌려 올 수 밖에.

아, 왔는데 그리구나서 며칠 있다가 도적떼들이 또 왔어. 또 와가지구 '왜 약속을 안 지켰냐 응?' '아이, 약속 안 지킨게 뭐냐구. 여기 이거 아무날 돈 암냥허구 가서 세 시간을 기달리다 왔다. 우리 그런 사람 아니다.' 그러믄서 그 음식을 아예 놔뒀대요. 썩어두. 보여 주기 위해서. 닭을. 닭이 인제 며칠이 지나믄 썩죠 이게. '보라구 이거. 돈허구.' 그러니까 인제 믿드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믄 그냥 행패허구 가두 그만이구 뭐. 게 그런 일화를 우리 할머니가 얘기해 주시드라구요. 그 때 당시에는 그런 세상이었었다. 그러니까 그런 음식을 아무날 몇 시꺼정 가져오너라 이런 얘길 허면서.


논둑을 다질 때 쓰던 가래(김O구 보유)

어떤 사람이 우리집이루다 인제 가래를 빌리러 왔대요. 우리 한 동네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인제 체격이 좋아요. 그 냥반은 인제 돌아가서 없지만. 아, O기 아버지라구 그 형제들이 다 체격이 커. 근데 가래를 빌리러 왔는데 이렇게 보니깐, 그 도적떼들이 보니깐 아, 근력께나 쓸 것 같거던. 이 사람이. 아 이거 대봇허믄 질 수도 있어요. 그전에는 힘 많은 게 저거니깐.

아 그러니깐, 아 일어나더니 가래를 인제 우리집이서 빌려가지구 갈려 그러는 거를, 딱 일어나드니 가래를 뺏드래요. 가래를 뺏드니, 가래라구 허는 거는 뭐냐 허믄 양쪽에 끈이 달렸는데 이거를 또 바깥에서 두 사람이 잡아드리구 한 사람은 자루를 쥐구 이렇게 하는 게 가래질이야. 가래를 잘 모르실거야. (밭 가는 거 말이죠?) 아니, 밭 가는게 아니죠. 논둑을 쌓을 때 필요한 건데, 셋이만 모여야 할 수 있는 거야. 그 기구를. 나도 가래질을 해봤어요. 그 힘든 일인데, 그렇게 해야 논둑을 쌓아. 근데 그럴 빌리러 왔어. 인제 어떤 사람이. 한 동네 사람이. 아, 그 가래를 뺏어가지구, 그 가래가 크거든요. 그걸루다 이 궁둥이를 몇 대 갈기더라는 거야. '너, 이놈. 근력 많지?' 그러구. 이 강도들이 이게 체격두 좋대요. 아주 그냥. 아, 그러니까 '아니라구. 그러지 마시라구. 난 이 가래를 빌리러 온 사람이다.' 달랬대요 외래. 달래구 그래구 허니깐 그냥 물러나드래.

가랠 빌려가지구 갔지요 이 사람은. 그렇게 인제 모면을 허구 그랬다구 우리 할머니가 전해주니까 내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역시 사람은 슬기가 있어야 되네요. 닭고기 안 먹네 그러고 다 없애버렸으면….) 닭고기 없애 버렸으면 증거가 없잖아요. 닭고

길 아예 먹지 않구 내 그날 가져갔드랬다 그거. 그래 닭고기를 놔뒀다는 거예요. 그래 인제 썩는 냄새가 날밖에. 냉장고가 있습니까? 뭐있어? 그니깐 아, 인제 그제야 돈꺼정 다 보여주니깐 믿드래는 거지.
그래 아무날 또 가져오라 또 그러드래. 그래 결국은 아마 뺏겼나봐요. 돈두 뺏기시구. 아무날 또 날짜를 또 주니까. 그러니깐 이렇게 봐가지구 집두 좀 크구 돈푼이나 있어 보이는 집으루 와서 그렇허는 거야. 아무 집이나 안 그런다구.
그래 우리 할아버지가 그걸 당했대요. 계속 당했는데, 그래두 극진히 대접해서 보냈대요. 대접해서 보내니깐 아마 편안하신가 봐 그게. 닭 한마리가 뭐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치는 것보담 낫겠지 뭐. 그 땐 법이 읎으니까."

견디거리 : 견디거리라고 하는 데는 여기서 얼마가량 떨어졌나하면 여기서 십리정도 떨어졌어요. 그 고 아래가 개성 선죽교에서 내려오는 물허고 우리 동네 앞에, 앞내물이라고 그랬어요. 그전에. 분지내개울이라고도 했는데 앞냇물하고 이렇게 내려가는 물하고 합치는 데야. 그래서 세물이 합쳐지니까 삼도품이라고도 했어. 여기에서 만나자 그러니까 저녁에 거길 나가자면 사실 겁나잖아요? 아무리 저거하지만. 이 도적떼를 만나러 가는 거니깐 더더군다나.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냇물 합치는 삼도, 여기서 만나자 했으니까 거기가 견디거리거든요. (견디거리는 무슨 뜻이에요? 견디…) 견디거리라고 이름 붙인 거는 나도 그 내막을 모르겠어요. 견디거리라고 그랬는데, 왜 견디거리라고 이름 붙였나 하는 건 내가 물어보지를 않아서 대답을 못하겠네. 이름이 지명이 견디거리라구 그랬어. 또 하나는 북쪽 동강에서 흘러오는거야. 삼도품에서 동강으로 가자면 전추다리라 있는데 지금은 북한이 됐지.

9) 허능굴의 비밀[202)]

"허릉골에는 산소가 한 대여섯 개가 쭉 있어요. 허씨네 묜데. 그 중에 산소는 다 가짜고 하나만 진짜 시신이 들어가 있는 산소래요. 그래서 허능굴이라 이렇게 지었다고… . 산소가 인제 대여섯 개가 쭉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실지는 하나밖에 읎는데 다른 것은 다 빈 산소다, 그래서 허능굴, 허능….

202) 김O래(남, 76) 제보

(그럼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글쎄, 그 내용은 난 모르겠어요. 그래서 허능굴이다. 허렁굴, 허렁굴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허능굴이예요."

10) 쿵쿵바위가 없어진 이유[203)]

"쿵쿵바위라고 하는 데는 여기서 한 십리 반 정도 떨어져 있는 덴데, 내가 고 가까운 데꺼정 가서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그 바위가 이상허게, 바위는 왠만하면 울려두 발로 울려두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 이상허게 그 바위는 위에 올라가서, 우리가 인제 도라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남쪽에 가면 도라산 전망대라는 데 아시죠? 도라전망대루 그 전에는 소풍을 갔어. 초등학교 다닐 땐데.
그런데 글루, 도라전망대 있는 데루 갈려면 그 쿵쿵바위를 지나가요. 그런데 이상허게 바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퉁퉁 울리면 쿵쿵 소리가 나요. 그 바위가. 그래서 쿵쿵바위예요. 그런데 미군덜이 돌을 깎아서 뭐 자다랗게 해가지고 길에 피느라고 그 남포질을 해가지구 터뜨려 버렸어 다. 그래가지구 흔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 쿵쿵바위가 그래서 쿵쿵바위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돌 자체가 아주 형체가 없어져버렸어요. 그 울리던 바위가 없어져 버렸어요."

11) 6·25전쟁 때 그릇을 묻어놨던 김천말 우물[204)]

구O우 씨의 어머니 고향은 개풍군 봉동면 고두산리이다. 대성동에는 저수지가 2곳 있는데, 어룡저수지와 김천말저수지다. 어룡저수지는 먼저 만들어져 구설저수지, 김천말저수지는 나중(1980년)에 만들었다고 하여 신설저수지로 불린다.

"남천말, 김천말은 지금 신설저수지루 다 들어가 있어요. 김천말에는 옛날에 6·25전에 우물이 있었대. 우물이. 근데 피난 나가면서 거기다 그릇을 많이 묻어놓고 나갔대. 그래 나중에 그게 저수지루 다 되었어. 그게 누구냐 하면 승부네, 그 외할아버지 그분이 피난 나갈 때, 6·25전쟁 터졌을 때 고걸 묻어놨어. 지금 저수지루다 매몰 되었어요.

203) 김O래(남, 76) 제보
204) 김O규(남, 74) 제보

지금 신설 저수지. 그래서 80년도에 대성동 종합개발하면서 그거를 대성동마을이 수원이 작으니까 신설저수지루 해서 그걸 건설부에서 제방을 막아줘서 했어요. 근데 그 때 동네가 다 매몰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물이 다 말랐기 땜에 고 형태는 지금 있어요.[2014년 7월, 가뭄이 심해 저수지 바닥이 다 보였음]
근데 그 전에 고 사람덜이, 우리 어렸을 때 보니까 달구지에다 싣고 갔어요. 그릇을 캐가지고. 근데 그 쪽으로는 고고학적으로 그쪽으로는 그 전에 길이 그 옆에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고 때는. 근데 그릇도 비싼 그릇이드라구. 근데 그 분이 꽤 잘 살았나 봐. 개성 쪽에서. 그러다보니까 피란 나가다가 가져갈 수 없으니까 우물에다 다 감춰 놓고 나간 거야. 그러다가 그 분이 욜루 노무자, 근로자 생활을 하려고 들어왔어요. 그래 나중에 그게 생각나서 캐가지구 가시드라구. 그래 얼마 안 남았지, 있긴 있을 꺼야 아마."

12) 대성동은 피란곳[205]

"근데 한 가지 또 들은 얘긴데, 피란곳이래 여기가. 대성동이. 마을이. 피란하는 곳이래 이렇게. 장단 땅이 아니면 여기밖에 없드랬거든. 사람이. (좋은 곳이네요.) 좋은 곳이지요 그럼. 그리구 저 위에 요새 한 십 년 이십 년 된 동네 두 마을이 생겼어. (어디에요?) 통일촌허구 저기 해마루촌이라는 동네. 거긴 나중에 생겼어요.
장단엔 유일허게 여기밖에 없었어요. 동네가. 거, 저 판문점 생기구, 피란을 다 시켰는데 여기만 안 시켰어. (좋은 곳이죠 그러니까.) 그렇지요. (길지예요 그럼.) 농사두 3개리 마을 짓구 그래요. (옛날부터 그렇게 불렀단 말이죠? 피란곳이라구.) 그건 젊은 사람들이 들었어. 노인네들한데 들은 소리예요. (옛날부터 여기를 피란곳이라구 그랬다구요?) 응. 6·25나구선 그런 소릴 들었어."

205) 김O웅(남, 48) 제보

13) 여자가 누워 있는 모습의 송악산[206]

대성동마을회관 2층에서 보면 창문 너머 멀리 송악산이 보인다. 이 송악산을 보며 들려준 이야기다. 당시 마을회관에는 마을 주민인 김O웅 씨와 조사원 6인이 함께 있었는데, 조사원 중의 한 사람인 남창근이 바로 전에 김O웅 씨로부터 송악산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이것을 다시 조사자인 이수자에게 전해 주었다.

"(아, 저기가 송악산이예요? 그런데 뭐 저 산이 여자 모습이라구요? 왼쪽이 얼굴이고, 임신한 것 같은 여성….) 저기 코가 보이고, 그 다음에 턱이 보이고, 그 다음에 가슴이 살짝 나오고, 그 다음에 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무릎, 다리가 쭉 펴고 있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머리를 풀어 헤쳐가지구, 코가 이렇게 나와 가지구, 턱이 이렇게 있구, 가슴이 이렇게 나왔다가 다시 배가 이렇게 나오구, 다시 다리가 이렇게 뻗은 아이, 이거 잘못 그렸다. 머리를 뒤로 풀어헤친… (지금 바로 앞에 보이는 저 산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옆으로 누워 있는 모습이죠."



송악산의 모습

206) 김O웅(남, 48) 제보

14) 도깨비불[207]

"그 전에는 뭐 도깨비가 그렇게 많이 불이 움직였다구 할머니들이 그래요. 그런데 비가 오는 날이나 이런 날에는 특히 더 그런 게 잘 보였다 그래요. 저녁에요. 여서 불이 그냥 갑자기 갔다 또 없어졌다 이런 대요. 실제로 본 사람들두 있다구 옛날 할머니들이 그런 얘기를 허니깐 그런가보다 허지 난 뭐….

15) 도깨비를 만난 사람[208]

"(도깨비 만난 분은 없구요?) 도깨비를 만나가지구 뭐 그냥 밤새도록 어딜 또 헤매다 돌아왔다 그런 소리는 들었죠. 우리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허는데, 어떤 사람이 도깨비를 만나가지고 뭐 밤새도록 어딜 돌아다니다왔다 그런 얘기는 들었죠. 동네사람이. 실진지 난 모르겠어요."

16) 토깨비불[209]

"시양은 후레쉬가 있고 그랬지만, 옛날엔 이 동네에서 저 벌판아래 바라다 보믄 불이 번쩍번쩍 허는 게 댕겨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기 또 토깨비 댕긴다 그런 소릴 허시드라구.

17) 토깨비에게 홀린 고모부[210]

"근데 우리 고모부가 저기 개성 갔다가 오다 늦게 왔나 봐요. 늦게 와서 토깨비에 홀려가지구 그냥 저기 그냥 혼났대요. 저기 아주. 가믄 덤불 속이구, 또 가믄 또 어디구, 또 가믄 물속이구, 그냥 길인 줄 알구 가면 자꾸 그런 데만 끌구 다니드래요 그냥. 게 밝을 녘에 가니깐 그게 없어지드래.

207) 김O래(남, 76) 제보
208) 김O예(여, 77) 제보
209) 김O예(여, 77) 제보
210) 김O규(남, 74) 제보

(그게 어떻게 생겼대요?) 그냥 그렇게 길만 그렇게 뵌대. 기냥. 덤불 위에두 길루 뵈구, 또 물에두 길루 뵈구, 또 뭐 어디 가믄 또 길루 뵈구. 그냥 그렇게 물에두 빠지구 자꾸만 그렇게. 근까 토깨비에게 홀리는 거래 그게.
근데 그 고모부가 6·25(전쟁)때 저눔덜에게 붙들려 갔다니깐. 전에 우리 고모부가 그 눔덜한데 끌려갔다고 그랬잖아. 바로 그 고모부야."

18) 아버지도 도깨비에 홀린 적이 있어[211]

"우리 아버님이 저 개성 갔다 오다가 초당굴이라는 데가 있어. 여기, 건너 가믄 공수굴 건너 가믄 초당굴이라는 산이 있어. 걸루 와야 되거든. 여길 올래믄. 근데 도깨비한테 한번 홀리셨대. 거기서. 근데 그거 소리뿐이지 뭐. (도깨비한테 어떻게 홀리셨대요?) 그전에 많이 나타났드래요. 여기. (도깨비가 어떻게 생겼어요?) 그 불 있잖아 불. 파란 불. 그거 한데 홀린 모냥이야. 몰르죠 뭐 그 소리만 허니까. "야 나두 도깨비한테 한번 홀렸드랬다." 그 소리만 했지. (홀려서 어떻게 끌려다니셨대요?) 거기서 드러눈거지 뭐. 놀래가지구선. 잤다가 아침에 일어난 거지.
(초당굴이라는 데가 도깨비 많이 나와요?) 거기두 그렇구 요기 작은어미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두 노인네들이 잘못 됐드랬드래. 옛날에. 그 때 그 소리만 했지뭐, 그 길이 뭐냐믄 저 장단역 있죠? 거기서 오는 길이 큰길이야. 그기. 작은어미산 오는 길이, 거 장단 갔다가 오다가 놀다오다가 거기서 만난 모양이야. (근데 도깨비가 어떻게 생겼대요?) 그건 나두 모르지요. 그 뭐 노인네들 말들어보니까 뭐 파란불이 왔다갔다 한대요. (그게 사람 죽이거나 뭐 그런 건 안 해요?) 뭐, 죽이지는 않은가 봐. 홀리기만 했다가 인제, 근데 그게 옛날 얘기지 뭘 알우?"

19) 도깨비 장난[212]

"(도깨비 이야기 이 동네두 있어요?) 도깨비 이야기들, 그 전에 듣기는 들었는데, 그게 진짠진 몰라두 듣긴 들었어요. (그거 들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거는 뭐 비짜루가 돌

211) 김O규(남, 74) 제보
212) 김O예(여, 77) 제보

아댕긴다느니, 뭐 소당뚜껑이 열리는 그런 것두 있어요. 그런데 내가 듣기만 했지 내가 알아요? 그래서 뭐 도깨비 장난들 한다구…. 몰라요 나는. 옛날에는 그런 것두 있었나봐. 불빛두 뵈구 막 그랬다구. 근데 어렸으니깐 노인네들이 겁 줄라구 그런거 같기두 해. 가만히 보믄. 지금 생각하믄 그거지요 뭐."

20) 도깨비 이야기[213]

이O순 씨는 친정이 고양군 송포면인데, 김천희 씨와 결혼하여 대성동에서 살아왔다. 남편은 20년 전에 작고하였다.

"도깨비가, 그전에 우리 친정할머니가 바느질아치가 돼서 바느질허러 다니셨는데, 밤이믄 큰 산소 겉은데 허연 사람이 섰드래. 그래서 올라가보니깐 아무 것두 읎드래.
근데 거기 또 한 고갠, 이렇게 비탈을 또 하나 내려가야 그 부잣집 뒷문이, 뒷문에다 남들 물 길어다 먹으라구 이렇게 뒷문에, 문에다 이렇게 울타릴 허구서 저쪽 사람들은 그 우물이 있는 사람이 주니까 물을 길어다 먹구. 자기네는 안에서 먹구. 근데 거기를 거반 들어가니까 대문 곁에 또 있드래. 허연 게. 그래서 그냥 막 소리소리 질르구 그냥 문 열라 그래서 들어가셨다 그러드라구. 그래두 홀려서 돌아다니지는 않으셨대. [권O순 : 옛날에는 그런 게 왜 그렇게 있었을까?]"

21) 말로 마숭니를 물리친 고모할머니[214]

귀신이야기 같은 걸 들려달라고 하니까, 이 동네에선 귀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하며 귀신은 무당이 하는 소리라 했다.

"우리 고모할머니가 이 넘어서 마을을 왔다가 당신네 집에 가는데, 마숭니, 마숭니, 마숭니가 있드래. 그래가지구선 마숭니가 있는데, 그 누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자꾸 길을 막고 못 가게 해가지구 우리 고모할머니가 소리를 질렀대.

213) 김O예(여, 77) 제보
214) 김O예(여, 77) 제보

"얘들아, 여기 손님 왔으니깐 빨리 밥상 차려오라."구 그랬대. 그랬드니 슬며시 비켜주드래요.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귀신 이야기는 못 들었어.
(그런데 마숭니가 뭐예요?) 마숭니라구, 왜 있잖아? 동물관에 가면 마숭니, 개처럼 생긴 거. (아, 늑대요? 승냥이…. 근데 이런 거는 정말 신기한 얘기네요.) (그것두 그러면 원래 막 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는 몰르겠어. 그런데 동네 개가 그만한 게 없거든. 근까 당신이 약아서…. 얼마나 무서웠어? 근데 막 소릴 질렀대. 얘들아, 빨리 밥상 차려오라고, 여기 손님이 왔다구 그랬더니 비켜 주드래."

22) 창으로 개를 찔러 잡아간 일본놈들[215]

"6·25(전쟁) 전에 옛날에, 그냥 일본정치 때에, 개를 그냥 창으로 찔러 가구 그랬어. 일본정치 때. 창 있잖아. 개를 막 창으루다, 영주아범이 그래서, 창으로 찔러 가는 바람에 젖을 먹이다가 개를 창으루 찔러 가니깐, 저기 아이를 이렇게 내려놓는다는 걸, 화로가 밑에 있는데, 마루에 앉았다가 창으루 찔러가니깐, 아이를 여다 내려놓는다는 게, 아이가 울다가 화로에 빠져버렸잖아. 영주아범이. 그래서 머리에 이렇게 흠집이 있는 거야. (지금 살아계셔요? 그 분은?) 동갑이예요. 저 이[김O래 씨] 하구. 그러니까 나 여덟 살 때가 일본정치 땐데, 나 하구 칠년 차이거든. 아니야. 5년 차이구나. 일흔 두 살이야. 지금. 그런데 그 땐 일본 정치 땐, 개 차가는 건 있었어. 개를 글쎄 창으루 찔러서 끌구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 마나님이 젖을 멕이다가 아이를 말루에 이렇게 놓구, 화로가 밑에 있는 거를 생각을 안 하구, 그냥 그걸 쫏아가느라구, 그냥 개를 잡아가니까 쫏아가느라구 아이 떨어진 것두 몰랐는데, 나중에 아이가 화로에 빠졌잖아. 그래서 그냥 온통 난리가 났드랬어. 시어머니가 그냥 막 울구 난리가 나구. 이 머리가 다 디었드랬는데 뭐 아주. 아유, 개가 창으루다 찔러 가니까 못 가져가게 그냥 이 아이를 여기다 나뒀는데, 이 눔의 아이가 그냥 여가 빠졌잖아. 아유.
(그거 창으로 찔러 가져가서 자기네가 잡아먹는 거예요?) 잡아먹갔지 뭐. (일본놈들이 그런 거예요?) 그렇지 일본놈덜이.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 여태, 저 아저씨 하구 동갑이야. 그래 여기 흠집이 이렇게 있어 사방. 그 디었드랬어. 아유.

215) 김O예(여, 77) 제보

나도 그 때 갔드랬는데, 창으루다가 이렇게 끌구가는데 말야. 난 잡을 땐 못보고 저기까지 끌구 가는 거를 봤어. 그런데 할머니가 개 가져가는 건 둘째치구, 아이두 그 때 또 딸 그거 낳구, 태임이 낳구선 난 거잖아? 근데 그 아들을 글쎄 그 불에 빠트렸으니, 뭐 그전에는 시어머니가 며느릴 좀 가지구 그랬어?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릴 가지구 그냥 대상통곡을 하구 난리가 났드랬지 아주 그냥. "아유, 개가 중하냐?"구 그냥. 근데 뭐 그 앨 여기다 빠뜨릴려구 개를 따라 갔겄어? 여기다 내려놨는데 이 눔의 아이가 이렇게 허다가 빠진 거지 여길.
근데 여름이야. 근까 화롯불을 여다 왜 놨냐 허믄 모깃불을 놨는데, 그렇게 해가지구 여름에 개를 채간 거야. 그 때 내가 한 일곱 여덟 살인데 나두 그건 안 잊어버려."

23) 살찐나무에 개를 매달아 잡다가 병을 얻은 사람[216)]

공회당 입구 앞쪽에는 윗둥이 부러진 참나무 고목이 한그루 있다. 이 나무는 지금은 썩어서 윗등이 부러져 있지만, 예전에는 아주 크고 우람한 나무로 마을에서 매우 신성시하였다. 예전에 마을에서 대동굿을 할 때 삼본향 중의 하나로 신성시되던 나무로, 만신은 먼저 도가집에서 굿을 한 후 밖으로 나와 맨 처음 이곳으로 와 조라술을 놓고 굿을 했다. 이 나무는 살찐나무라 불렸는데, 옛날에는 여기에 사람들이 밥도 갖다놓고 동정 같은 것도 걸고 하면서 위했다.

"그전에 거기에서 개 잡았대나 뭐 그래서 아픈 적은 있어. 한 사람이. (공회당 앞에요?) 공회당 앞에서 개를 잡아가지구 그 양반이 메칠 아팠던 기억은 있어. (언제쯤이에요?) 그건 옛날이야. 글루 이사 가서, 저 너머[현재 사는 곳]로 다 이사 가서. 그래서 옛날에 할머니들이 그런데서 그런거 잡구 그러면, 거기다 개를 매달아 가지구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두 뭐가, 없지 않은 것두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양반이 김0옥이라구 돌아갔지만, 아팠던 사람이 김0옥이야. 그 양반이 여기서 개를 잡아가지구 아펐드랬어. 아니 개를 잡으려면 나무에다 매달아야지 개를 잡는 거 아냐? (그래가지구 막 때려야 되지요?) 때리긴 뭐, 목 매달았는데 뭐 죽지. 그래서 아팠대는 말은 한번 들었어.
옛날에는 살찐나무라 그러잖아요, 그걸. 살찐나무라 그러죠. 그걸 살찐나무라 그래요. 그걸 동네에서들은 위하는 나무니까. 그전에는 거기다 밥두 갖다놓구 그랬어요. 그러구 뭐야. 동정 같은 것두 걸어놓구. 옛날 노인네들은 뭐 아주 위했으니까."

216) 김0래(남, 69) 제보

9-3 마을주민들의 노랫소리

대성동마을 사람들은 현재 대부분 문산이나 금촌에 있는 병원에서 사망하고, 그곳에서 그대로 장례를 치르고 화장을 한다. 때문에 현재는 거의 매장을 하지 않아 상여소리를 부를 일이 거의 없어졌다. 예전에 사람이 죽어 매장을 했을 때는 강릉 김씨 손인 김0래 씨가 상여소리를 맡아서 했다. 현재 이분은 고인이 되었고, 전0권 씨가 상여소리를 알고 있어 그로부터 상여소리 및 회다지기 노래를 채록하였다. 전0권 씨는 김0래 씨로부터 상여소리를 배웠는데 전문적으로 배운 것은 아니라 했다.

대성동마을은 강릉 김씨 집성촌인데, 전0권 씨는 외손으로 모친이 강릉 김씨였다. 어느 날 김0래 씨가 전0권 씨를 보고 우리들이 죽으면 누가 하겠느냐고 하며, 상여노래를 배우라 했다. 전0권 씨는 "아니, 여긴 강릉 김씨네 집성촌인데 그런 사람들이 계승을 해서 해야지, 저는 성이 전가니까, 외갓동네에 와서 한다는 것도 그렇고 하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하니까 "아, 지금은 뭐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한번 해보라 그래서 배우긴 했다. 그래서 그는 "저는 뭐 두서도 없고, 어디 매 잇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것저것 주워서 했던 거지 그런 거를 체계적으로 배운 것도 아니라."고 하며, 그래서 내세울 것도 없다고 했다. 그 때는 어른이 한번 말씀을 하시면 지상명령과 같아서 거절할 수 없어 배운 것이 바로 이 상여소리다. 그는 또 외부에서 학교를 다녔고, 상여소리는 후에 마을로 들어와서 배웠기 때문에 아직 제대로 잘하지 못한다고 했다.

원래는 9월 말경, 상여를 놓아두는 행상막 앞에서 마을 청년들이 상여를 조립한 후, 전0권 씨가 그 앞에서 상여소리를 하고 청년들이 소리를 받아주는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상여소리 및 회다지기 노래를 채록하기로 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여기에서는 그냥 전0권 씨가 적어주는 상여소리 사설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 회다지기 노래 역시 마을회관에서 전0권 씨가 불러주는 가사를 그대로 옮겨 적었다. 상여소리는 집에서 상여를 모시고 나갈 때부터 부르기 시작한다. 회다지기 노래는 달고소리라고도 하는데, 광중에서 회를 다질 때 달고질을 하면서 부른다.

1) 상여소리

어허허 어거리 능실어헤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정든 집 두고서 나는 가요
한번가면 못 올길인줄 알면서도
이제가면 언제 오나
어허허 어거리 능실어헤
인간세상 태어날 때 누구덕으로 태어났나
아버님전 뼈를 빌고 어머님전 살을 빌어
인간세상에 태어나니
어려서는 철을 몰라 부모은공 못 갚고
나이 들어 병이 들면
부모은공 언제나 갚을소냐
우리부모 나를 기를 적에
추우면 추울세라 더우면 더울 세라
금지옥엽 기른 몸에 태산 같은 병이 드니
부르나니 어머니요 찾느니 냉수로다
무녀불러 굿을하니 굿덕인들 있을소며
맹이불러 경을 읽으며 경덕인들 있을소냐
옛노인 하신말씀 저승길이 멀다드니
대문밖이 저승이라
정신차려 살펴보니 약탕관은 버려져 있고
없던 곡성 낭자하다~

2) 회다지기 노래(달고소리)

에헤라 달고 ~ 에헤라 달고 ~
에헤라 달고 ~ 에헤라 달고 ~
이 세상에 태어난 분들 누구 덕에 태어났나
어머님전 살을 빌고 아버님전 뼈를 빌어
인간세상엘 태어나니 어려서는 철을 몰라
부모은 공을 언제나 갚나
에헤라 달고 ~ 에헤라 달고 ~
에헤라 달고 ~ 에헤라 달고 ~

* 같은 가락에 회심곡 가사를 붙여가며 계속해서 부르면 된다.
  일하면서 부르는 노래이므로 가락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9-4 마을주민들의 속담

마을에서 생애사 및 설화 등을 조사할 때, 이야기를 하는 도중 우연히 들었던 속담들을 뽑아 보았다. 그 내용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1) 재주 많은 놈이 저녁 멕이가 없다.[217]

재주가 많은 사람이 먹을 것이 많을 것 같지만, 오히려 먹을 것이 없다는 뜻이다. 많은 재주를 가지기보다는 한 가지라도 깊이 있게, 능숙하게 잘할 것을 권하는 말이다.

217) 김O예(여, 77) 제보

2) 발이 맏아들이다.[218]

마을회관에서 이O순 씨가 과자를 먹으며 "그래도 돌아다녀야 뭐든지 얻어먹는다."고 하면서 "그러게 발이 맏아들이야"라고 했다. 옆에 있던 김O연 씨가 "여기 오시면 매일 많이 잡숫는데 뭐 그러시냐?"고 했더니, "그러게 여기라도 오니까 먹지. 발이 맏아들이래니까." 라고 했다.

3) 덕물산 강아지 북어대가리 찾는 듯하다.[219]

대성동마을에서 앞으로 멀리 보이는 덕물산을 보며, 덕물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말이다. 제보자는 어린 시절 국민[초등]학교를 다닐 때 덕물산에 세번이나 소풍을 간 적이 있는데, 덕물산 등어리에 올라가 보면 서해바다가 다 보였다고 한다. 그리고 산꼭대기에는 꽤 큰 절 같은 것이 있었는데, 절 안에서는 늘 굿 같은 것을 하고 있었으며, 마당에는 최영장군님 상이 있었는데 가슴까지만 있는 흉상으로 기억된다고 했다. 그러는 가운데 나온 속담이다.

> "덕물산 강아지 북어대가리 찾는 듯하다.'는 말이 있었는데, 왜 북어대가리라 하면요, 그 쩨[때]는 우리나라에서 명태를 잡으면 북어를 만드는데, 아마 만신들 찾아가려면 북어를 가지고 갔나봐. 그래서 덕물산 강아지가 맨날 북어를 먹었나봐. 가는 사람마다 북어를 가져가니까. 그래서 농담으로 하는 말에 무엇인가를 막 열심히 찾으면 '덕물산 강아지 북어대가리 찾는 듯하다."고 했어요.

무속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홍태한 씨의 말을 참조하면, 한강 이북 개성 근방의 만신들은 굿을 하면 마지막 의식인 '뒷전'을 끝낸 후에는 항상 북어 대가리와 몸통을 잇는 부분을 발로 눌러 북어 대가리를 끊어 내버려야 굿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는데, 속담 내용과 맞아 떨어진다. 그러니까 덕물산의 굿을 많이 했던 곳에는 굿이 끝난 후 만신들이 내버렸던 북어대가리가 널려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기에 이런 속담이 생긴 것이다.

218) 이O순(여, 80) 제보
219) 김O래(남, 76) 제보

4) 방울 굿이 달다.[220]

'방울 굿이 달다'는 말은 큰 굿보다는 작은 굿에 오히려 먹을 게 더 많다는 뜻으로, 허울만 좋은 큰 것보다는 작은 것이 더 알차고 실속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할 때 쓰는 말이다. 예전에 마을에서는 일 년에 한 번씩 동네굿도 하고 집집마다 개인굿을 많이 하기도 했는데, 동네굿은 규모는 크지만 여러 날을 하다 보니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었다. 반면에 개인굿인 작은 굿을 할 때는 만신들이 방울만 가져와서 키를 긁으며 했는데, 굿이 금방 끝나니 먹을 것도 풍성했다.

'방울 굿'이란 말은 여기에서 나온 말로 작은 굿을 뜻하며, '방울 굿이 달다'는 말은 작은 규모의 굿이 달다, 먹을 것이 더 많다, 이름만 요란한 굿에는 먹을 게 없다는 뜻이다. 예전에는 큰 굿을 할 때는 굿을 한다는 소문이 크게 나서 먹을 게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구경을 가지만 실상은 먹을 게 없고, 오히려 작은 굿에 먹을 게 더 많았기에 여기에서 유래된 말이다.



마을에서 바라본 덕물산(뒤쪽으로 보이는 산)

220) 김O래(남, 76) 제보



10 문화콘텐츠 활용프로그램

10. 문화콘텐츠 활용프로그램

10-1 개요

본 장에서는 앞서 진행한 마을의 역사와 민속생활 중심의 문화자원 조사 내용을 토대로 마을의 활용방안에 대해 기초적인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선, 대성동 자유의 마을 전체를 박물관 개념으로 보존, 관리, 전승해야 할 필요성을 제안하기 위하여 에코뮤지엄의 개념과 사례를 살피고 이를 대성동에 적용하는 방안을 수록하였다. 본문 중에서 에코뮤지엄을 이해하고 대성동에 적용 가능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에코뮤지엄과 대성동

"에코뮤지엄은 '환경 · 생태(ecology)'와 '박물관(museum)'을 합성한 용어로 'eco'라는 접두어 때문에 친환경적인 박물관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eco'는 지역에 존재하는 역사문화, 자연유산, 무형유산, 산업자원 등을 모두 포괄하는 지역공동체의 유산과 공동체 성원들 사이에 형성된 적응체계의 '환경 · 생태'를 의미한다. "에코뮤지엄은 자연과 사회, 인간을 유기적으로 보는 일원성과 연속성을 주장하는 사회생태학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학문의 연계성을 지향하며,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하는 통사적 입장에서 박물관의 조건과 공간을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그 지역의 삶의 과정을 보여주고자 하는 새로운 박물관이다." "지역공동체의 유 · 무형유산을 기반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설립 · 운영되고 있는 에코뮤지엄은 환경 친화나 환경 보존에 목적을 둔 환경 박물관이라는 개념보다 특정한 지역의 주민들에 의한, 주민들을 위한, 주민들의 삶의 역사, 생업환경, 지역문화를 상호 관계성 속에 민관산학연단이 봉사와 지원, 협력, 기록, 보존, 관리, 활용, 연구, 학교 등을 통해 유산을 총체적으로 해석하는 박물관이다."

이렇듯 광범위한 에코 뮤지엄에 대해 알랭 쥬베르는 1992년 프랑스의 에코뮤지엄 31곳을 조사한 결과, 에코뮤지엄의 설립, 운영 목적에 따라 6가지 유형으로 분석하고 있다.

① 연구베이스형은 학술사업이 주제가 되는 에코뮤지엄으로서 영역 내에 중심이 되는 연구시설은 있지만, 안테나를 갖지 않는 경우로 산칸탄 안 이브리누 등이 해당된다고 보았다.

② 보전베이스형은 주로 자연환경의 보호, 지역보전을 중심으로 한 자연 공원형 에코뮤지엄으로 종 로제르 등이 이에 속한다.

③ 커뮤니티형은 커뮤니티 사업을 우선시하여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라르작, 크뢰조 몽소 레민 등의 사례가 여기에 속한다고 보았다.

④ 문화사업형은 문화사업을 중시하며 지역의 유형·무형 문화를 보전하는 것이 중심과제인 에코뮤지엄으로 마르제라도 에코뮤지엄 등이 속한다고 보았다.

⑤ 영역활동형은 일정한 영역에 있는 자연환경이나 문화유산 등을 정비하고, 보전해가는 분산형 박물관 유형으로 바스 세누 등이 속한다.

⑥ 지역경제형은 지역 경제 사업이 기초가 되는 에코뮤지엄으로 그 지방의 고유의 산업,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 도시들의 활동이 이에 해당하며 푸르미 트렐롱이 해당한다고 보았다."[221]

이러한 개념으로 볼 때 세계에서 유일한 성격을 가진 대성동마을은 현재 상태에서도 충분히 에코뮤지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미완성의 에코뮤지엄은 앞서 정리된 모든 유형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장기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세계 유일의 DMZ 에코뮤지엄을 완성시켜갈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고 하겠다.

221) 최종호, '에코뮤지엄의 개념과 사례, 대성동 적용 방안' 본문 중 재인용

2) 대성동 자유의 마을 전시 계획 및 체험프로그램 제안

다음으로는 대성동 자유의 마을에 대한 종합 전시계획을 수록하였다. 이 작업은 대성동에 대한 민속조사를 선행하면서 그 결과를 전시 내용에 담고자 하는 계획안이다. 현재 대성동 마을을 들어서면서 우측 언덕위에 1959년 유엔사가 마을 주민의 회합장소로 공회당을 짓고 자유의 집이라 명명한 건물이 있다. 이 공회당 건물은 근 · 현대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고 있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이 건물은 60년대 건축된 건물치고는 수준 높은 파사드 디자인과 축조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정치적 문제를 넘어 대성리 주민들에게는 소중한 기억이 되는 장소가 분명하다. 면적과 규모는 크지 않으나 섬세한 축조방식과 감성적 기억은 의미 있게 평가 될 만하다. 근대 건축으로서의 심도 있는 학술적 검토를 거쳐 문화재로 지정 신청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 등재 이후에는 소소한 변경까지도 협의, 승인 후에야 공사가 가능하므로, 학술적으로 검토하여 보존형식 및 레이아웃을 확정하고 리모델링을 한 후 문화재로 등재 신청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리모델링 시 외부 파사드 부분은 최대한 보존하고 노후화된 부분만을 개보수 하며, 약간의 조정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감하는 정도가 적당할 것이다. 1960년 준공이라는 조건으로 보았을 때 2014년 현재 준공 후 54년이 경과한 시점이며, 일반적인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내구연한이 100년이지만 6.25 전쟁 직후 시공기술을 감안한 일부 시공하자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을 때 구조안전진단이 필요하며, 구조 보강이 수반될 수도 있을 것이다. 동 시대 일반건축물의 경우 안전성이 보장되는 내구연한은 80년 내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222)]

이 공회당을 리모델링하여 가변형 공간구조로 조성하고 마을의 오랜 역사와 주민들의 이야기, DMZ에 대한 평화와 공존 등을 주제로 한 전시와 교육, 행사가 이루어지는 마을 기록관으로 조성한다. 특히, 에코뮤지엄의 관점에서 이 공회당을 에코뮤지엄의 중심 센타로 두고 4곳의 거점 공간으로 스토리라인을 설정하였다.

검문소(진입로)→ 대성동마을 기록관 (공회당 자유의 집/센타)→ 평화의 길(팔각정~국기게양대)→ 특산품 판매장(마을 빈 창고 혹은 빈집) 으로 설정하고 각기 다른 네 가지의 주제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현재 본문에서 제안한 전시 주제는 거점 공간의 확보 여부에 따라 수정될 수 있으며 추후 마을 가운데 있는 빈집을 활용하여 중심 센타로 설정할 수 도 있다. 또한, 공회당 뿐 아니라 1972년에 지은 마을창고, 1950년에 지은 전시 주택, 마을의 지명유래가 된 삼국시대 토성인 '태성'과 팔각정, 마을 회관 옥상 망원경으로 보는 마을 전경과 북측 기정동, 송악산 등의 전경, 대형 태극기와 민정반 등은 여느 마을에서는 볼 수 없는 관람, 체험거리가 될 수 있다. 각 주제에 맞게 체험할 수 있는 효율적인 동선과 볼거리를 제안하였다.

3) 문화자원 활용방안 수립을 위한 사례

이상과 같은 대성동 마을의 활용 방안 수립에 참고하고자 몇 지역을 벤치마킹하고 그 내용을 수록하였다. 강원도 동부전선 DMZ에 위치한 철원두루미 마을과 인제군에 있는 한국DMZ평화생명교육마을을 1차 답사하고 2차로 영월 박물관 특구를 현지 조사하였다. 특히, 영월 박물관 특구는 2005년부터 행정단위로 구분된 영월군 전체를 박물관 고을로 조성한 에코뮤지엄의 한 형태로 중앙정부의 신활력 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다.[223)]

4) 관광과 활용

특히, 현재 관광 시점에서 볼 때 파주 대성동마을은 민통선내 거주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매우 매력적인 관광콘텐츠이기는 하나 UN 관리지역에 위치하여 일반인의 방문이 관문점 못지않게 어려운 곳이다. 대성동마을 이장을 통해 출입신청을 하면 이장이 직접 관할부대와 연락하여 출입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출입인원도 제한이 있으며, 농번기에는 이조차도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몇 년 전까지는 단체 방문객을 대상으로 부녀회에서 마을회관을 이용하여 식당을 운영하기도 하였으나 생업인 농업을 하며 관광객을 맞이하는 일이 여의치 않아 중단되었다. 대성동마을은 민통선 내 주민의 생활모습을 볼 수 있는 역사

222) 공사범위조건을 건물내부 마감재 철거 및 개보수, 외부바닥 및 일부 조경, 주차 공간 개보수를 위해 실측설계비용, 개보수 공사 설계비용 등을 포함하여 약 4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전시인테리어 공사 별도) – 양원준 도시·건축 건축사 사무소 양영철 소장 의견

223) 2008년 12월에 박물관고을 특구로 지정되었다. 영월박물관 고을은 2012년 지식경제부에서 지방자치단체 147개 특구 대상으로 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성과 평가에서 우수 특구가 되었다.

적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마을과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인근 관광콘텐츠와 연계하여 개발 한다면 그 가능성이 매우 클 것이다.

현재, 경기북부 민간인 통제구역 내 일반인이 사전에 출입신청 없이 당일에도 관광이 가능한 곳은 안보(제3땅굴, 도라전망대, 도라산역, 도라산평화공원), 역사문화유적(허준선생묘), 마을운영 시설(통일촌마을박물관/직판장, 해마루촌) 등이다. 파주 민북사업소에서는 관할 부대와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두 개 코스로 테마를 구성하여 임진각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중단되었다가 2014년 재개한 "DMZ-train"이 당일투어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역에서 출발하여 도라산역에서 하차, 제3땅굴 등 연계관광을 실시하는 코스로 코레일에서 1일 1~2회 운영하고 있다.

민북투어 관광코스

- A코스 : 임진각 출발→제3땅굴(DMZ영상관)→도라전망대→도라산역→
  통일촌직판장→통일촌마을박물관→임진각 도착 (약 3시간 소요)
- B코스 : 임진각 출발→허준선생묘→해마루촌→제3땅굴(DMZ영상관)→
  도라전망대→ 임진각 도착 (약 3시간 30분 소요)

통일촌에는 통일촌 조성 초기 거주 주민들을 중심으로 조합을 구성하여 마을단위의 식당 3곳과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는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통일촌 내 과수농원에서 수확체험 등 일반인 대상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외에 2013년 12월 개관한 캠프그리브스 유스호스텔은 민통선 내 최초의 숙박시설로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로 등록하여 경기관광공사가 직영시설로 운영하고 있다. DMZ 남방한계선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캠프그리브스는 한국전쟁 이후 60여 년간 미군이 주둔하던 공간으로 한국전쟁 정전협정 후 60여 년간 미 2사단이 주둔해오다가 2004년 미군의 철수 이후 2007년 8월 한국정부에 반환된 곳이다. 미군 철수 이후 철거위기에 놓였지만 60년의 문화 역사적 가치가 있다는 판단으로?정부에 의해 민간인들의 민통선 내 평화안보 체험의 공간으로 새롭게 탄생하게 되었다. 민북 투어를 단순 관광에서 워크북과 함께 교육적인 즐거운 체험활동으로 새롭게 접근한 "DMZ 1129" 프로그램 및 미군 막사에서의 1박 체험 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민통선 내 특별한 체류형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관광콘텐츠들은 경기북부 민간인 통제구역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관광콘텐츠로 대한민국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파주 민북 투어는 수도권에서 1시간이면 올 수 있는 편리한 접근성과 인지도로 매년 8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국내 대표적 안보관광 코스이며, 외국인 비율도 50%를 넘어서고 있다. 다만, 민통선 내 대표적 관광콘텐츠인 제3땅굴을 중심으로 한 민북투어 코스도 그 명성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고민해봐야 할 부분으로, 대성동과 캠프그리브스와 같이 그 가치와 가능성이 높은 관광콘텐츠를 지속 발굴하여 제3땅굴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전쟁을 경험한 분단국가로서 이와 관련한 콘텐츠들은 그 어떤 나라도 가지지 못한 소중한 자원일 것이다. 이러한 관광콘텐츠를 좀 더 자유롭게 체험하며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개발되기를 기대한다.[224]

현재 추진하고 있는 캠프그리브스의 안보체험관광이 통일촌브랜드마을과 대성동 에코뮤지엄으로 연계 된다면 세계 유일의 DMZ관광코스로 그 시너지 효과를 더할 것이 분명하다.

특히, 대성동은 DMZ 내 군사분계선 남쪽에 위치하는 마을로 북측의 기정동마을과 같이 만들어져 남북의 마을이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대성동마을은 남북 교류와 협력 공간으로 만들기에 용이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1953년 7월, 6?25전쟁 휴전협정 1조 10항 '비무장지대 내의 군사분계선 이남의 민사행정 및 구제 사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책임진다.'는 협정에 따라 대성동마을 주민은 유엔군 통제 하에 있다. 유엔군 JSA와 협약 하에 일찍부터 마을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이장을 중심으로 주민자치제가 시행되고 있다. 1959년부터 미군과 정부의 지원을 시작으로 주택과 공동건물 건립, 구마을에서 신마을로 집을 옮기면서 주택을 신, 개축하여 현재의 마을 형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남측 대성동과 북측 기정동 마을의 교류 및 개방은 DMZ관광뿐 아니라 남북이 소통하기에 가장 유리한 지정학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먼저, 대성동 마을의 유휴 공간을 활용한 남북 예술인 공동 창작촌 운영이 가능하다. 남북 예술인이 대성동 마을에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상주하면서 창작 작업을 하고 그 결과물을 마을에서 발표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그 결과의 누적으로 해외 유사 경험 국 작가들을 초청하여 평화를 상징하는 창작촌으로 조성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마을 주민들의 교류와 개방을 통해 대성동과 기정동을 공동 생활권으로 한다면 남북 교류와 협력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통일의 초석이 될 것이다.[225] 이미 오래전부터 대성동과 기정동은 자연지리적으로 개성인삼으로

224) 이선형, 경기관광공사 DMZ안보체험관 TF팀장, 파주대성동마을 문화자원 관련 콘텐츠개발 자문, 2014.12.13.
225) 강진갑, 경기대학교 교수, 파주대성동마을 문화자원 관련 콘텐츠개발 자문, 2014.12.13.

유명한 개성 생활문화권에 속한다. 따라서 농사 절기와 농산물 경작의 내용이 다르지 않다. 김동구 이장의 바램처럼 기정동 주민들이 대성동에 와서 농사일을 품앗이 할 수 있다면 생업과 관련된 가장 현실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

우선 이렇게만 보아도 대성동은 DMZ라는 통제된 공간에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 전쟁과 인류평화의 문화유산, DMZ 청정 자연 생태환경 등 여러 가지 이유에서 세계유산으로 지정될 가치가 충분하다. 이제 이를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가에 달려있다. 이 보고서로 그 원천자료를 확보하였음에 의의를 찾는다.

10-2 에코뮤지엄의 개념과 사례, 대성동 적용 방안*

1) 에코뮤지엄의 개념과 특성

(1) 에코뮤지엄의 개념과 특성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부터 지방자치제 사회[226]로 전환되면서 각 지방과 지역, 향토박물관을 중심으로 물질과 정신, 자연과 물산, 환경과 생태, 역사와 전통, 문화와 예술, 미풍양속, 생업기술, 산업자원 등에 대한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삶의 질 향상, 생태환경의 보전에 대한 박물관 설립 · 운영자들의 희망과 박물관 이용자들의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박물관은 한사회의 얼굴이자 곧 지표일 수 있고, 박물관이 보여 주는 문화적 함의는 한 사회의 특수한 차원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문화의 상황에 대한 거울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227] 이러한 측면에서 "박물관(博物館)은 삼라만상(森羅萬象)의 요지경(瑤池鏡)이자 만휘군상(萬彙群象)의 타임캡슐(time capsule)"[228] 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박물관 및 전문직 윤리요강』〔채택 1986.11.4.〕 제1조에 정의된 박물관은 포괄적 개념으로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산업관 등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박물관이다. 국제박물관협의회에서 박물관으로 인정한 자연과 고고, 역사, 민족지의 기념물과 유적지, 과학관, 천문관, 자연보전지역 등은 박물관에 포함될 수 있다.[229] '박물관 같은', '박물관과 관련된 기관이나 장소 가운데 기록보존소, 영상자료실, 디지털 스튜디오, 공예전승관, 무형문화재전수회관, 공원, 농원 등이 박물관에 포함될 수 있다.[230]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박물관 윤리강령』〔개정 2004.10.8.〕에 "1. 박물관은 인류의 자연과 문화 유산을 보전, 해석하고 장려한다. 2. 소장품을 관리하는 박물관은 사회의 공익과 발전을 위해 이를 보관한다. 3. 박물관은 지식을 확립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주요한 증거들을 보유한다. 4. 박물관은 자연과 문화 유산에 대한 올바른 인식, 이해, 관리를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5. 박물관은 공공 서비스와 공익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자원을 보유한다. 6. 박물관은 그들이 봉사하는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박물관의 소장품이 유래한 지역사회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활동한다. 7. 박물관은 합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8. 박물관은 전문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231]고 규정했다.

우리나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정의)에 "1.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박물관자료"란 박물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무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말한다."[232] [개정 2007.7.27, 2009.3.5] [[시행일 2009.6.6]]

동법 제4조에 박물관은 "1. 박물관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 2. 박물관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3. 박물관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4. 박물관자료에 관한 강연회·강습회·영사회·연구회·전람회·전시회·발표회·감상회·탐사회, 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5. 박물관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

226)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1952년 최초의 지방의회가 구성되었으나 5.16 군사정변으로 실질적 시행이 유보되었고, 1987년 제9차 헌법개정으로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되었다. 1991년 각급 지방의회가 구성되었고, 1995년 지방자치 단체장의 장이 선출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 제도가 시행되었다.
227) 전경수, 『한국박물관의 어제와 내일』, 서울: 일지사, 2005, 18-19쪽
228) 최종호, 「영월 박물관고을 조성과 지역공동체 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 『박물관학보』 9, 서울:한국박물관학회, 2005, 117쪽
*최종호: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229)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박물관 및 전문직 윤리요강』 (1986년 11월 4일 채택,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제15차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총회), 파리: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1986, 2쪽
230)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정관 및 박물관 윤리강령』 (1995년 7월 5일 개정, 노르웨이 스타방거, 제18차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총회), 파리:국제박물관협의회(ICOM), 1995, 2-3쪽
231)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박물관 윤리강령』, 서울:ICOM한국위원회, 국립민속박물관, 2007, 1~13쪽
232) 제1조의2 (박물관자료의 기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의 설립목적 달성과 법 제4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보존 또는 활용이 가능한 증거물일 것
2. 무형적 증거물의 경우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나 정보일 것

과 배포 6.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간행물·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7.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한다. [개정 2007. 7. 27]

동법 제5조에 "이 법은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전시관, 향토관, 교육관, 문서관, 기념관, 보존소, 민속관, 민속촌, 문화관, 예술관, 문화의 집, 야외 전시 공원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을 갖는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8. 2. 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 3. 5] [시행일 2009. 6. 6.]

국내외적으로 박물관이라는 용례를 살펴보면, ○○박물관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는 박물관이 있고, 박물관 활동을 펼치지만 박물관이라고 호칭하지 않는 박물관이 있다. 박물관이라고 호칭하지 않는 '박물관'(museum)과 박물관 활동을 펼치지만 박물관이라고 호칭하지 않는 '준박물관'(quasi-museum), 박물관과 비슷하거나 관련된 활동을 펼치는 '유사박물관' (para-museum)이 있다. 고고학적 유적지, 역사적 기념물, 민족지 현장,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동식물사육장, 과학관, 천문관, 보존과학기관, 미술관, 기록보존소, 자연보전지역 등은 준박물관에 속한다. 박물관 같은(museum-like), 박물관 관련(museum-related) 기관들인 과학관, 유산관, 문화관 등은 유사박물관에 속하고 준박물관 범주에 중첩된다. 우리나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요건(제10조 관련) 에 의하면,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유형에 따라 종합박물관, 전문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으로 등록할 수 있고,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유형에 따라 자료관·사료관·유물관·전시장·전시관·향토관·교육관·문서관·기념관·보존소·민속관·민속촌·문화관 및 예술관, 문화의 집으로 등록 할 수 있다. 〔대통령령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4. 12. 09.〕

"박물관은 박물관 고유의 특성을 갖추었을 때, '박물관'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고, 박물관 고유의 사업에 충실할 때 그 기능과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233] 2004년 10월 2일부터 8일까지 서울 코엑스(Coex)에서 "박물관과 무형유산"(Museums and Intangible Heritage)을 주제로 제20차 국제박물관협의회 대회(2004서울세계박물관대회)가 개최되었고, 대회의 폐막일에 개최된 제21차 국제박물관협의회 총회에서 박물관 정의가 일부 개정되었다. 2007년 8월 27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22차 국제박물관협의회 총회에서 승인된 국제박물관협의회 정관 제3조 1항에 "박물관은 사회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비영리의 항구적 기관으로서 공중에게 개방하고, 교육과 학습, 위락을 위해서, 인류와 인류의 환경에 관한 유형·무형의 유산을 수집, 보존, 연구, 교류, 전시한다."고 개정되었다.[234]

박물관의 영역이 확장함에 따라 오늘날 박물관은 문화유산 보존과 자연환경 보호의 선구자로서 삶의 질을 개선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비영리의 교육정보위락(*eduinfotainment*)[235] 기관으로서 공동체 연계망(community network)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비정규의 평생학습과 비영리의 사회교육을 수행하는데 이바지하는 평생교육의 핵심(lifelong education core)이자 문화교류의 중심(cultural communication center)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외 박물관 세계의 동향을 분석해 보면, 박물관은 비영리의 항구적 기관으로서 인간사회의 발전과 자연환경의 보호에 이바지하면서 공익을 위하여 개방하고, 교육정보위락(*eduinfotainment*)을 목적으로 자연과 인류에 관한 자료와 정보, 유무형의 유산을 수집, 보존, 연구, 교류, 전시, 교육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박물관은 비영리기관, 상설, 공익, 개방을 전제로, 자연과 인류에 관한 유형 · 무형 유산을 기반으로 사회와 공동체의 녹색성장에 이바지한다.

"과거의 박물관은 굳이 사회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기관으로서 인간 환경의 문제와도 별개의 방식으로 존재하였다. 그러나 유럽의 박물관을 중심으로 박물관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그 필요성에 대한 의식이 제고되는 가운데 지역사회의 문제를 박물관에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에코뮤지엄(ecomuseum)이다."[236] 1960년대 중반 프랑스 사회 안에서 일어났던 사회적 논쟁과 불만들은 강한 혼란을 야기하였다. 동시에 핵실험·전쟁·산업화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으로 자연유산과 산업유산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1960-1970년대의 프랑스는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동시에 농촌사회가 쇠퇴하는 시기였다.

233) 최종호, 「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박물관학연구』 창간호, 대전: 대전보건전문대학 박물관학연구소, 1996, 17쪽

234) http://icom.museum/statutes.html ICOM Statutes Approved in Vienna (Austria) – August 24, 2007. Article 3 – Definition of Terms / Section 1. Museum. A museum is a non-profit, permanent institution in the service of society and its development, open to the public, which acquires, conserves, researches, communicates and exhibits the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and its environment for the purposes of education, study and enjoy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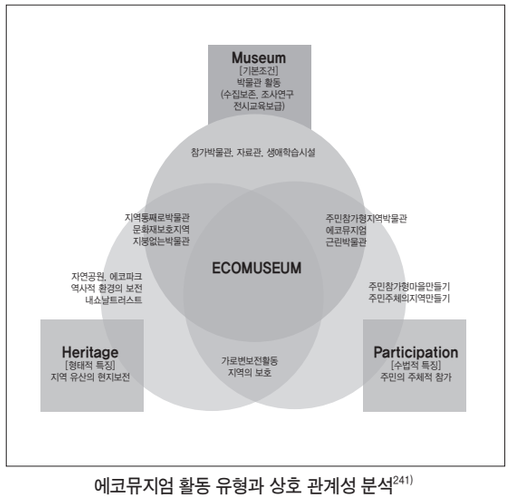
235) *eduinfotainment* 는 교육+정보+위락을 아우르는 용어이다. 최종호, 「한국도시역사박물관의 현황과 과제」, 『도시역사박물관의 현황과 과제』 (제2회 서울역사박물관 국제심포지엄),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2003, 80쪽

236) 배은석, 『에코뮤지엄; 지속가능한 농촌 희망 프로젝트』, 서울: 북코리아, 2013, 8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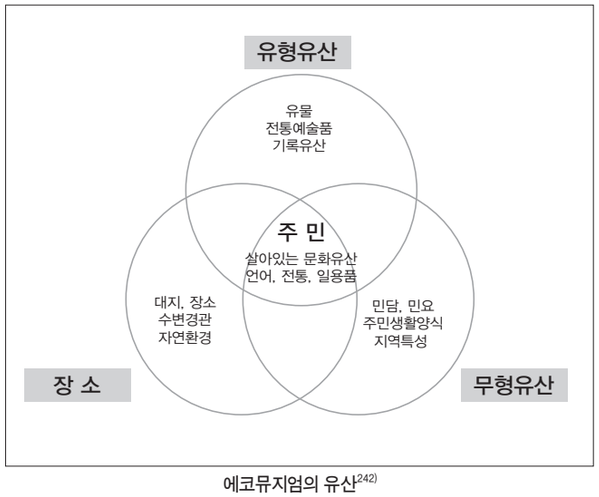
에코뮤지엄(ecomuseum)은 1960년대 후반 프랑스에서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박물관협의회 초대회장(재임 1948-1965)을 역임한 조르주 앙리 리비에르(Georges Henri Rivière)가 프랑스 국립공원을 재조직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는데, 자연공원과 야외박물관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제안으로 탄생한 프랑스어 에코뮈제(ecomusee)를 번역한 것이다.[237] 에코뮤지엄(ecomuseum; 생태박물관)과 에코뮤지올러지(ecomuseology; 생태박물관학) 개념은 국제박물관협의회 초대회장(재임 1948-1965) 조르주 앙리 리비에르(Georges Henri Rivière)와 국제박물관협의회 회장(재임 1965-1974) 위그 드 바린(Hugues de Varine)에 의해 창시되었다.[238] 1971년 9월 국제박물관협의회 회장 위그 드 바린(Hugues de Varine)은 프랑스 그르노블에서 개최되는 제9회 국제박물관협의회 대회의 주제를 《박물관과 환경》으로 채택하였고, 9월 3일 위그 드 바린이 디종(Dijon) 시장이며 환경부 장관인 로베르 푸자드(Robert Poujade)와 그르노블(Grenoble) 국제박물관협의회 대회장으로 이동하는 중에 로베르 푸자드가 환경 운동에서 박물관의 위치를 강조하는 연설문에 전통적인 '박물관'이란 용어를 피하고자 위그 드 바린이 제안한 에코뮤지엄(ecomuseum)을 약 500명의 박물관학자들 앞에서 처음으로 사용하게 되었다.[239]

에코뮤지엄은 조르주 앙리 리비에르(Georges Henri Rivière)가 스웨덴의 야외박물관 스칸센 민속원[240]을 염두에 두고 자연공원과 야외박물관의 현장성을 살린 공동체의 지역 유산을 기반으로 주민들의 참여에 의한 박물관 설립 운영을 위해 창안한 개념이다. 이에 앞서 국제적으로 1968년 독일 뮌헨에서 개최된 제8회 국제박물관협의회 총회에서 박물관이 문화적 · 사회적 · 경제적 생활에 이바지하는 서비스 분야에서 주요 기관으로 인식되어야 함을 논의하였다. 1971년 9월 프랑스 그르노블에서 개최된 제9회 국제박물관협의회 총회에서 박물관이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과 기능을 지속적으로 완벽하게 수행해야 함

237) Bedekar, V.H. New Museology for India, New Delhi: National Museum Institute of History of Art, Conservation and Museology, 1995, p. 23
238) 주12 앞의 책, 23쪽
239) 이재영, 「프랑스 에코뮤지엄 사례 연구 – 부르고뉴 지방을 중심으로 –」, 『글로벌문화콘텐츠』 제8호, 서울: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12, 194쪽 참조
240) 에코뮤지엄의 전신은 스웨덴의 민속전문가이자 스웨덴어 교사였던 아르투르 하셀리우스(Artur Hazelius, 1833~1901)가 1873년 스톡홀름에 세운 스칸디나비아 민족지 수장품관(the Scandinavian Ethnographic Collection)에서 찾을 수 있다. 1880년 북방민족박물관(Nordiska Museet)으로 개명하였고, 1888년 착공한 르네상스 양식의 박물관 건물을 1907년 완공하였다. 1891년 북방민족박물관 부속 야외박물관으로 스톡홀름 중심부 유르고르덴(Djurgården) 섬에 세운 스칸센(Skansen) 민속원은 1963년부터 분리·운영되고 있다. 1520년부터 현재에 이르는 스웨덴 및 스칸디나비아의 다큐멘터리·사진·자서전·일기·도서·전통예술품 등 130만여 점을 소장하고 있다.



에코뮤지엄 활동 유형과 상호 관계성 분석[2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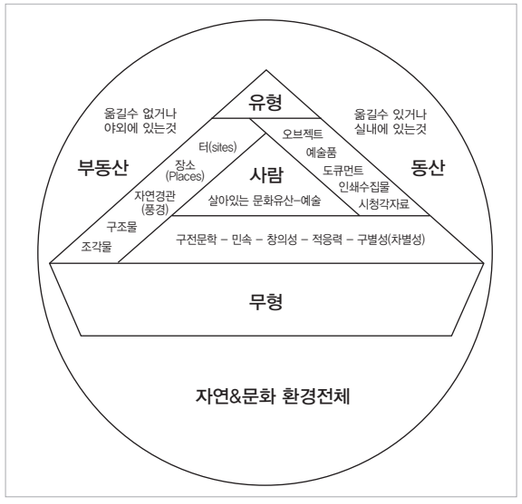
에코뮤지엄의 유산[242]

을 촉구하였다. 1972년 산티아고 선언(Santiago Declaration)은 유네스코와 국제박물관협의회가 공동주최한 국제박물관 산티아고 원탁회의(Santiago Round Table)에서 '장소의 가치'가 에코뮤지엄의 유산으로 정립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새로운 박물관학의 등장과 함께 주민, 장소, 유산들을 종합적으로 사고하는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국제박물관협의회 세미나에서 에코뮤지엄 개념과 용어가 공인되었다.

우리는 유형·무형 유산의 통합적 보전과 활용[243]에 관하여 아마레스와르 갈라(Amareswar Galla) 교수가 인용한 다음의 글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인도 노벨상 수상자 고(故) 라빈드라나드 타고르(Rabindranath Tagore)는 위스와-바라티 대학교(Visva-Bharati University)를 설립하였다. "총체적 학습의 장소인 위스와-바라티 대학교에서, 타고르는 자연과 문화의 식민지적 이분법을 극복하려는 토착민들의 환경 철학 틀 내에서 유형·무형 유산 양자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출신의 수많은 철학자들처럼 타고르는 유산의 식민지적 건설의 영향을 없애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후기 식민지의 유산 업무의 개발은 협력과 동시에 고난을 통해서 상호

241) 김현정 역, 오하라 가즈오키(大原一興) 저, 1996, 『마을은 보물로 가득차 있다』, 서울:아르케, 2008 참조, 윤혜림, 「아리랑 문학마을의 활성화를 위한 에코뮤지엄 적용에 관한 연구」, 전주:전북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11쪽
242) 신현요, 「에코뮤지엄의 발전과정과 개념적 특징에 대한 연구」, 청주: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11쪽
243) 최종호 역, Galla, Amareswar, 「아시아 태평양 관점에서 유산 전문가를 위한 포괄적 역량 배양」(Inclusive Capacity Building for Heritage Professionals Perspectives from the Pacific Asia), 『사멸위기의 문화유산』, 서울:민속원, 2009, 494~505쪽



출처:생태박물관의 구성요소(A. Galla & P. Yu,
『하룽베이생태박물관』 2005. 12. 07, 국립민속박물관 강연

하룽베이 생태박물관의 유산

연관되고, 상호작용하는 그리고 필연적으로 성취되는 총체적 패러다임을 개발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고, 이런 개발의 과정은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다. 상황론적 위치에서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 관점에서 문화의 권리를 주장하는 유산을 이해하는 것이 다음 패러다임에서 표시된 것과 같이 유형 · 무형 자원 양자에 통합된 접근을 요구한다."[244]

에코뮤지엄의 전형은 프랑스의 크뢰조-몽소 에코뮤지엄과 랑 드 가스콘노 에코뮤지엄으로서, "1972년 사람과 산업의 박물관이라는 이름의 예시(豫示)로 출발하여" 1973년부터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유산, 산업유산, 기억의 수집 등을 현지보존"하였고, "주민 스스로 정체성을 발견하면서 능동적으로 참여"하였고, "발굴, 전시, 보존, 조사, 연구 등의 일련의 활동"을 통해서 에코뮤지엄 사업을 처음 실행하였다.[245]

프랑소아 위베르(Francois Hubert)는 에코뮤지엄의 진화를 3 단계로 보고, 브르

표 12. 에코뮤지엄의 발달 단계별 특징[246]

단계	과정	특 징
1단계	태동기	지역공동체의 가치 발견과 사람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으로 능동적 지역 공동체의 자각이 이루어지면서 지역주민이 지역의 자원을 조사, 발굴하면서 지역의 정체성을 찾고 지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는 단계
2단계	형성기	발굴된 자원의 가치 부여를 통하여 자원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사람과 자원이 연합하는 과정으로 지역 공동체와 지역 자원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단계
3단계	성숙기	에코뮤지엄이 외부와 관계 맺기를 하는 과정으로, 지역을 찾은 방문객 또는 각국에 존재하는 에코뮤지엄협회에 회원 가입하거나 같은 취지를 갖는 단체들과 연합하면서 활동을 하는 등 외부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단계

244) 아마레스와르 갈라, 「진정성:다원적 틀에서 유산 다양성을 다시 생각하기」, 『세계유산협약과 관련된 진정성에 관한 나라(Nara) 의정서』, 파리: ,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1995, 315~322쪽
245) 주11, 앞의 책, 43~53쪽
246) 주11, 앞의 책, 42쪽

타뉴 아르모리크 지방자연공원에 조르주 앙리 리비에르 지도에 따라 몽 다레 에코 뮤지엄(Ecomusee des Monts d'Arre)과 일 두에상 에코뮤지엄(Ecomusee de I'lle d'Ouessant)이 승인되고, 가스코뉴 지방자연공원에 그랑드 랑드 에코뮤지엄(Ecomusee de Grande Lande)이 승인되는 1970년까지 시기를 제1단계로 간주하였고, 1971년부터 1980년까지 다른 접근방법을 제공하는 카마르그자연공원(PNR de Camargue)과 세벤느국립공원(Parc National de Cevennes)의 몽-로제르(Mont-Loze're)와 르 크뢰조(Le Creusot)에 설립된 에코뮤지엄을 제2단계로 간주하였고, 1980년이후 에코뮤지엄 정의를 재정립하면서 지역공동체 주민들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는 시기를 제3단계로 간주하였다.[247] 또한 프랑소아 위베르는 자연공원 에코뮤지엄을 제1세대, 르크뢰조 에코뮤지엄을 제2세대, 1988년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인 에코뮤지엄과 사회박물관 연맹(Federation des Ecomusee et des musees de societe)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에코뮤지엄을 제3세대로 구분하였다.[248]

에코뮤지엄의 정의와 내용은 명확하게 규정지을 수 없을 만큼 다양한데 지역의 특성과 상황을 배려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발견이 추가되어 정리되고 있다. 조르주 앙리 리비에르는 1973년, 1976년, 1980년 세 번에 걸쳐서 에코뮤지엄 정의를 수정하여 '에코뮤지엄의 발전적 정의'를 발표하였다. 이 정의들의 변천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249]

① 리비에르의 에코뮤지엄에 대한 정의(1973년)

에코뮤지엄이란 현재의 개념에서는 본질적으로 인간과 자연의 박물관이자 생태학적인 박물관으로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주민 내에서 일어난 발생과 진화에 관련된다. 에코뮤지엄은 지역에 대한 영구적인 연구소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이 스스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매개자의 역할을 한다. 에코뮤지엄은 시간의 박물관이다. 그 지역의 역사가 시대별로 내재된 박물관의 개념으로 전시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재 주민들과 그들의 미래에 대한 조망으로 이어진다. 에코뮤지엄은 공간의 박물관이다. 그 지역과 지역 주민들에 대한 박물관의 개념 아래서 겸허하게 행해지는 공간적인 차원의 표현이다.

247) Davis, Peter, *Ecomuseums – A Sense of Place*, Continuum, 2011, p.p. 68–72
248) Hubert, Francois, Les e'comuse'es en France : contradictions et de'viations, in *Museum*, 148, 1985, p.p.186–190 참조, 주14 앞의 책, 197 참조
249) 배은석,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한 에코뮤지엄 모델 연구 – 이천 율면 부래미마을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40~46쪽

명확하게 열린 또는 가려진 : 사이트와 자연에서 채취한 샘플 혹은 고고학적인 사이트와 역사적인 기념물, 박물관 그리고 주민들의 건물들과 같은 요소들은 특별하게 여겨지는데, 그러한 요소들은 총체적이며 전문적인 관찰의 진보로 연계되며, 에코뮤지엄은 국립공원, 지방공원, 법인체 중 어디에 속하는 지에 따라서 요소들이 달리 운영된다.

② 리비에르의 에코뮤지엄에 대한 정의(1976년)

에코뮤지엄은 기존의 박물관들 과는 다르다.

에코뮤지엄은 주민들이 그들 스스로의 정체성을 인식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비추어 보는 거울이며, 그것을 통해서 주민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세대의 연속성이나 불연속성을 통해서 이전 세대 주민들의 설명에 이어서 연구하려고 한다. 에코뮤지엄은 이처럼 주민이 자신들을 더 알리기 위해서 그들의 일과 행동 그리고 내면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방문자들에게 내미는 거울이다.

에코뮤지엄은 사람과 자연의 박물관이다. 인류는 그들이 둘러싸인 자연환경 속에서 해석된다. 자연은 전통적인 사회와 산업적인 사회가 그들의 관습에 자연을 맞추려는 것처럼 그 야만성으로 존재한다.

에코뮤지엄은 시간의 박물관이다. 그 시작은 인류가 나타난 때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며 인간이 살았던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통해서 시간이 나뉘고 사람이 살고 있는 현대에까지 이른다. 미래를 이해하는 수단으로 에코뮈제는 결정기관의 역할이 아닌 비평적 분석과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에코뮤지엄은 공간의 박물관이다. 그 공간은 사람들로 하여금 걸음을 멈추게 하거나 산책하고 싶게 만드는 특권적 공간이다. 에코뮤지엄은 주민들의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지원하는 보존기관이다.

에코뮤지엄은 연구소이다. 주민과 그 환경에 대한 이론과 실용적인 연구를 한다. 에코뮤지엄은 학교이다. 에코뮤지엄은 주민들과 그들의 환경에 대한 전문가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며 주민 스스로 미래에 관한 여러 문제를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

이러한 연구소, 보존기관, 학교는 공통 원리에서 착상되었다. 그 기관들이 증거로 내세우는 문화는 가장 넓은 의미로 이해되어야 하며, 그 기관들은 어떠한 주민 층으로부터 나온 의견이든 간에 예술적 표현이나 문화를 존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관들은 그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수용하고 의미를 부여해 가야 한다.

에코뮤지엄의 발전에 있어서 분명 모든 것이 유쾌하지는 않다. 그 책임자의 입장에서는 동물원의 동물들을 우리에 가두는 것과 같은 상황에 주민들을 처하게 하는 위험과 그들을 다뤄야하는 위험이 있다. 노동자 자주관리와 감독간의 지위에 대한 동요를 일으킬 불명확함도 있으며, 점점 좋아지는 평판을 남용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그것들은 예기치 못한 일들과 어려움이지만, 인내와 긴장이 공간과 시간의 광장이자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뤄진 기관의 성숙을 통해 그것들을 극복하게 도와준다.[250]

③ 리비에르의 에코뮤지엄에 대한 정의(1980년)

에코뮤지엄은 행정당국과 주민이 같이 구상하고 만들어 활동하는 수단이다. 행정당국은 전문가와 함께 편의를 도모하고, 재원을 제공한다. 주민은 각자의 흥미에 따라서 자신들의 지식과 대처능력을 제공한다.

에코뮤지엄은 이러한 주민이 스스로를 인식하기 위해서 서로를 바라보는 거울. 거기에서 주민은 자신들이 살아왔고, 살고 있고, 또 살아갈 지역을 세대의 연속성이나 비연속성을 통해서 이전 세대 주민의 설명에 이어서 설명을 하려고 노력한다. 에코뮈제는 이처럼 주민이 자신들을 좀 더 알리기 위해서 자신의 일과 행동 그리고 내면성에 자부심을 갖고 방문자에게 내미는 거울이다.

에코뮤지엄은 사람과 자연의 표현이다. 그래서 사람은 자연적 생태의 일부로 해석된다. 그리고 자연은 전통적 사회와 산업사회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자연을 맞추도록 하는 그 원초상태로 해석된다.

에코뮤지엄은 시간의 표현이다. 사람이 출현한 시대 바로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사람이 살았던 선사시대·역사시대를 통해서 확대되고, 사람이 살고 있는 현대에 이른다. 미래에도 에코뮤지엄은 결정기관의 역할을 맡으려 하지 않고, 지금과 같이 정보전달과 비평적 분석의 역할을 맡는다.

에코뮤지엄은 공간의 해석이다. 그곳은 걸음을 멈추게 하거나, 산책하고 싶게 만드는 특권적 공간이다.

에코뮤지엄은 보존기관이다. 그 주민의 자연유산·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지원한다.

에코뮤지엄은 연구소이다. 외부 연구기관과도 협력하여 주민과 그 환경계의 역사적·동시대적 연구에 공헌하고, 이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장려한다.

250) http://www.ecomusee-creusot-montceau.fr/fla/communaute.html(검색일 2011. 9. 20)

에코뮤지엄은 학교이다. 주민을 연구·보존 활동에 참가시키거나, 주민 스스로 미래에 관한 여러 문제를 좀 더 파악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

이러한 연구소, 보존기관, 학교는 공통 원리에서 착상되었다. 그 기관들이 증거로 내세우는 문화는 가장 넓은 의미로 이해되어야 하며, 그 기관들은 어떠한 주민층에서 나온 표명이든 간에 예술적 표현이나 문화를 존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양성에는 한계가 없다. 하지만 그렇게 다양화되기까지 자료는 표본마다 달라진다. 기관들은 그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수용하고 의미를 부여해 가야 한다.[251]

결론적으로 리비에르의 발전적 정의를 분석하여 보면 정의가 점점 더 확장되면서 그 비중이 지역의 주민과 주민의 활동으로 옮겨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전통적 박물관과의 차별성을 언급하면서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유산을 보존하고, 연구하고, 배우는 보존기관이자 연구소이며, 학교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주민의 예술적 표현이나 문화를 존중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 다양성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서술하고 있다. 여기에 한마디로 정의 되지 않는 에코뮤지엄의 모호성이 있으며, 또한 끝없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조르주 앙리 리비에르의 '에코뮤지엄의 발전적 정의'에 대해서 알랭 쥬베르(Alain Joubert)는 아래와 같이 에코뮤지엄의 특성을 해설한다.

"행정과 주인이 함께 구상하고 만들어 운영해 가는 도구라는 것의 의미는 행정은 전문가와 함께 수단과 자본을 제공하고, 주민은 정열을 갖고 지식과 대처 능력을 제공하여, 결국 지식과 대처 능력을 행정과 주민이 공유하는 것"이다.

주민이 자기 자신을 인식하기 위해 투영하는 거울이라는 것은, 단절된 시간을 세대 간의 연결을 통해서 지역을 설명하려는 것이다. 즉 주민에게 정확한 지식을 환원한다는 이념이다.

보다 잘 이해하도록 주민이 방문자에게 제공하는 거울은 호응한다는 것과 상호 존중한다는 이념이다.

인간과 자연의 표현은 강조하는 기본이념 중 하나로, 즉 생태학자들은 '인류가 접하지 않은' 자연의 반대편에 인간이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지만, 프랑스에서는 농경지를 포함한 모든 자연이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그것은 문화적 구축물이다.

251) 김현정 역, 오하라 가즈오키(大原一興) 저, 1996, 『마을은 보물로 가득차 있다』, 서울:아르케, 2008, 24–25쪽 참조.

시간의 표현에서 리비에르에 의해서 완성된 또 하나의 기본적 이념은 미래로 열려 있다는 이념이다. 에코뮤제는 스스로를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객관적인 분석자, 정보제공자가 되는 것이다.

특권적 공간의 해석·이해에서 시간의 해석은 에코뮤지엄의 중심이 되는 장소로 그리고 공간의 해석·이해는 안테나라는 형태로 표현된다.

연구소라는 것은 전문가 육성과 테리터리(영역), 주민, 환경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보존기관이라는 것은 자연 환경과 문화 환경의 보호와 활용을 보장한다.

학교라는 것은 미래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이 지역을 스스로 연구하고 보고하게 만드는 계기를 만든다.

공통원리라는 것은 문화를 최대한 넓은 의미로 파악하는데, 유산 속에 있는 문화, 고고, 건축, 기념비, 자연, 민족, 가구, 물질 등 문화로 바꿀 수 있는 모든 유산, 영역에 관계하는 끝없는 다양성으로 외부로 개방하는 것이지, 내부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252]

에코뮤지엄 활동의 특징은 지역 환경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매우 통합적, 학제적이며, 거기에 추가하여 지역주민이 에코 시스템의 일원으로서 박물관 활동 속에 편입된다는 점에 있다.[253] 특히 1988년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인 "'에코뮤지엄과 사회박물관 연맹'(Federation des Ecomusee et des musees de societe)은 많은 편의기술 등을 박물관들에게 제공하고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과 박물관들의 결과물로 다양한 유산(En avant la memoire)들을 발굴해 내었다. 4개의 다른 작업 그룹은 공공분야의 유산을 정리하고 농경도구의 어원학과 관계,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프랑스 대학들과 공동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17개의 학과들과 협력하고 있다."[254]

신현요에 의하면, 에코뮤지엄의 개념변화의 특징은 다음의 여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에코뮤지엄의 특징은 그 설립된 목적에 있다. 현재 대부분의 나라들은 법률로써 많은 고고학적 유물들의 외부로의 반출을 막고 있으며, 유동이 불가능한 유산들은 장소에 보존하거나 박물관과 연계된 중요한 야외박물관으로 만들고 있다.

둘째, 에코뮤지엄을 미완성의 박물관이라 지칭하는 것은 사회적인 변화와 요구에 능동

252) 주28 앞의 책, 22–23쪽.
253) 민주희, 「제주도 에코 뮤지엄 테마별 특징 사례와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국민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7쪽
254) 주19 앞의 논문, 23쪽

적이기 때문이다. 에코뮤지엄의 개념이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진화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된다.

셋째, 복합적인 학문영역은 사회학 박물관(Social Museum)이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유산을 포함하며 전시물의 상황을 설명하고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적용한 새롭고 독특한 해석법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법은 에코뮤지엄이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관광자원 발굴에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커뮤니티의 보존과 에코뮤지엄의 운영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에코뮤지엄의 유산 개념변화로 지역주민의 삶의 문화가 주요한 유산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것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에코뮤지엄이 성립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섯째, 관람객의 직접 참여는 에코뮤지엄이 전시물의 단순전시에 그치지 않고 직접 사용하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전시 방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에코뮤지엄 내의 체험프로그램은 관람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발전하고 있다

여섯째, 에코뮤지엄은 장소를 보존하기 위한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유산으로서 장소는 건축, 생활풍습, 언어, 다양한 직업 등의 전통적, 물질적, 비물질적 유산 등이 주변의 환경적인 요소와 함께 정의된다. 이러한 점이 에코뮤지엄이 자연친화적인 장소에 바탕을 둔 해석도구로 역할을 한다는 것이며 유산의 중요한 정의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255]

알랭 쥬베르에 의하면, 1992년 프랑스의 에코뮤지엄 31곳을 조사한 결과, 에코뮤지엄의 설립 · 운영 목적에 따라 6가지 유형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1. 연구베이스형은 학술사업이 주제가 되는 에코뮤지엄으로서 영역 내에 중심이 되는 연구시설은 있지만, 안테나를 갖지 않는 경우로 산칸탄 안 이브리누 등이 해당된다고 보았다.

2. 보전베이스형은 주로 자연환경의 보호, 지역보전을 중심으로 한 자연공원형 에코뮤지엄으로 종 로제르 등이다.

3. 커뮤니티형은 커뮤니티 사업을 우선시 하여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라르작, 크뢰조 몽소 레민 등의 사례가 여기에 속한다고 보았다.

255) 주19 앞의 논문, 27쪽

4. 문화사업형은 문화사업을 중시하며 지역의 유형·무형 문화를 보전하는 것이 중심과제인 에코뮤지엄으로 마르제라도 에코뮤지엄 등이 속한다고 보았다.

5. 영역활동형은 일정한 영역에 있는 자연환경이나 문화유산 등을 정비하고, 보전해가는 분산형 박물관 유형으로 바스 세누 등이 속한다.

6. 지역경제형은 지역 경제 사업이 기초가 되는 에코뮤지엄으로 그 지방의 고유의 산업,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도시들의 활동이 이에 해당하며 푸르미 트렐롱이 해당한다고 보았다."[256]

(2) 유럽과 동아시아의 에코뮤지엄 활동 사례

① 유럽의 에코뮤지엄

18세기 중엽부터 19세기까지에 일어난 산업혁명은 사회·경제 등의 유럽 사회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초래했다. 봉건체제의 귀족사회가 해체되면서 기존의 수직적 계층구조가 근대화를 통해 시민사회가 형성되면서 수평적 구조로 변모하였고, 이로 인해 계급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산업화를 통해서 중산층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생산성의 향상은 근대산업의 발전과 도시화를 촉진하여 농촌사회가 쇠락하는 사회적 변혁이 일어났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박물관 분야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산업화, 전쟁, 핵개발 등 유럽이 겪은 사회적 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간접 폐해는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정체성과 경제 활성화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지역공동체의 자연생태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인해 지역의 역사문화, 산업유산, 자연환경 등의 보존과 활용, 자연과 함께하는 생활사와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이를 위한 기록, 연구, 해석 등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 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다양성 보장, 인권 존중, 문화향유권 신장 등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적인 박물관이 한정된 건물에 유물을 수집, 전시한 것과는 다르게 오픈 에어 뮤지엄과 에코뮤지엄은 일정한 장소 및 지역 안에 그 지역과 관련된 문화유산을 수집, 보존한다. 이들 박물관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맥락을 토대로 현장성을 살려 주변의 환경을 재구성함으로써 가능한 한 사실 그대로 모습을 보존하면서 상호 관계성을 해석함으로써

256) 주28 앞의 논문, 68쪽

유산을 재창조한다.

에코뮤지엄 가운데 가칭 대성동 에코뮤지엄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박물관 활동을 중심으로 유럽과 동아시아 에코뮤지엄의 벤치마킹 대상을 서술하고자 한다. 유럽에서 에코뮤지엄은 산촌이나 농촌의 영역 안에 국한된 발전방법이 아니며 유럽통합계획에 발맞추어 유럽 에코뮤지엄 네트워크 계획은 유럽전역을 협력과 상호문화교류의 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유럽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은 각 지역의 유산을 토대로 하는 에코뮤지엄이 사회 자본발달의 촉매제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진흥을 위한 거점 기관으로 당면한 지역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탈리아의 에코뮤지엄들은 지역의 고고학적 유산을 기반으로 관광사업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에코뮤지엄의 전문가들은 지역의 유산의 발굴을 위해 연구하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와 워크숍을 개최하고, 또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이탈리아가 지역공동체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프랑스의 에코뮤지엄은 '에코뮤지엄과 사회박물관 연맹'(Federation des Ecomusee et des musees de societe)을 중심으로 지역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계획되었으며 이것은 사회적으로 여가생활이 증가하고 다양한 관광시설과 여가공간의 필요성과 맞물려 지역의 활성화 계획과 함께 에코뮤지엄 계획이 시도되었다는 점이다. 지역마다 관광과 오락의 핵심기능을 하고 있는 테마센터를 중심으로 다른 지역유산들과 관광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들은 풍부한 산림자원과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많은 역사문화유산들을 간직하고 있다. 에코뮤지엄은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과 민족주의를 고취하는 역할을 하면서, 오늘날에는 지역사회의 교육기관으로 지역의 문화 보존과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고 있다.

포르투갈은 1980년대 이후로 에코뮤지엄 계획이 시작되었으며 1990년대 이후로 에코뮤지엄 프로젝트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포르투갈 에코뮤지엄의 특징은 지역학교와 에코뮤지엄이 밀접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기능의 일부를 에코뮤지엄에

257) 한재희, 「에코뮤지엄 개념에 기초한 지역유산의 보존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18쪽

표13. 에코뮤지엄의 개념 발전과 특징[257]

구분	박물관의 변천	시기	주요국가의 명칭	유산적 구분			기타
				자연유산	산업유산	문화유산	
야외박물관	초기 에코뮤지엄 (Proto–eco–museums)	1873	스웨덴–노르디스카 Nordiska	●			
		1891	스웨덴–스칸센 야외박물관 Skansen, Freilichtmuseum	●			헤즐리우스에 의해 설립
		1894	이탈리아–피에뜨레 Museo Pitre			●	
		1895	노르웨이–노르스크 NorskFolkemuseums	●			국가적 독립 정체성 강화
에코뮤지엄의 태동기	대중교육	1914	독일–하이메트 박물관			●	propaganda
	박물관 Open Museum	1918	Heimat museum				
		1935	프랑스–대중문화예술 박물관 Musee d'Artset Traditions populaire			●	
	국제박물관 협의회 창설 ICOM	1946	프랑스–국제박물관 협의회 (ICOM)창설	유네스코 제1차 총회에서 앙리 리비에르가 초대회장으로 선임			
	새로운 박물관학 Towards the New Museology	1950	미국–민속박물관 Folklife museums, 재미–노르웨이 민속박물관 Norwegian American Folklife Museum			●	
		1960	덴마크–체험박물관 Atelier museum, 엥플린 museeenpleineair, 덴마크 박물관 Denmark Museums	아뜰리에 박물관의 개념으로 단순히 전시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등장. 오늘날 체험박물관의 시초			
		1967	미국–애너크스티아 박물관 Anacostia Neighborhood Museum			●	
		1970	미국–영국 지역사 박물관 small museums, industrial & rural history		●		대중문화 기술전시
		1970 년대	영국–새로운 박물관학 Nouvelle Museologie	전문가와 방문객들이 직접 박물관의 연구와 경영에 참여, 유산개념 인식과 재해석을 추구			
	에코뮤지엄 용어의 제안	1971	프랑스 ICOM 회의 ICOM Conference in France	프랑스에서 열린 ICOM 국제회의에서 박물관의 정의가 변화됨을 인정			
	에코뮤지엄 용어의 공인	1972	스웨덴 프랑스 ICOM 세미나 International Seminar of ICOM	스톡홀롬에서 열린 UN 국제회의에서 환경문제 해결과 자연과 인간환경이 관련된 박물관 설립을 위해 에코뮤지엄이란 단어가 등장. 장소, 인간, 지역사회가 연계된 개념으로 에코뮤지엄 정의			
	유산의 개념 정립	1972	칠레–산티아고 선언 Santiago Declaration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박물관의 새로운 역할을 선포하고 새로운 유산을 설명			

구분	박물관의 변천	시기	주요국가의 명칭	유산적 구분			기타
				자연유산	산업유산	문화유산	
에코뮤지엄의 태동기	통합된 개념의 박물관	1973	프랑스–르 크뢰조 Le Creusot		●		주민참여 에코뮤지엄
		1975	프랑스–그란데 란데 Grande Lande	●			스칸디나비아 미국모델융합
	시대변화를 반영한 에코뮤지엄	1980	환경예술모임 COMMON GROUND	사람과 장소로 연계된 환경예술을 소재로 하고 있으며 지역문화 보존을 위한 소재로 사용			
		1980년대	프랑스–우송 농촌박물관 Ussonen Forez Rural Museum			●	
			르네 에코뮤지엄 Ecomuseeen Paysde Rennes			●	
			이탈리아–프레일 에코뮤지엄 Museodi Prali		●		
			스웨덴–베르그슬라겐 에코뮤지엄 Bergslagen Ecomuseum			●	
			컴토이즈 Musees des Techniques et Cultures Comp–toises				
			프랑스–알사스 에코뮤지엄 Ecomusee d'Alsace	●	●	●	테마공원모델
			네덜란드–조이데르 뮤지엄 Zuiderzee Museum	●			
			프랑스–벤데 에코뮤지엄 Ecomusee Departmental de Vendee	●	●	●	성곽중심 관광경영
		1984	새로운 박물관학을 위한 국제운동(MINOM) International Movement for a New Museology	새로운 박물관을 위한 국제운동, 에코뮤지엄과 주민참여를 중요한 주로 지역사회에서 박물관의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			
	지역활성화의 개념 발전	1988	프랑스 에코뮤지엄 협회 Federation des Ecomusees et des musees de societe	프랑스 에코뮤지엄 협회 창설			
	글로벌 시대의 에코뮤지엄	1990	이탈리아–지역경제연구소(IRES) Instituto Ricerche Economico Sociali	이탈리아 지역경제연구소를 설립. 지역문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1995	일본 에코뮤지엄 협회 Japan Ecomuseum Society	일본 에코뮤지엄 협회 창설			
		1997	스칸디나비아 네트워크 Scandinavia network	박물관들의 협력과 교육활동이 증가하고 에코뮤지엄의 전문화 경향이 나타남			
			프랑스 에코뮤지엄 협회 (FrenchFederation) 발전	에코뮤지엄이 전문화 되고 프랑스 에코뮤지엄 협회에 가입하는 에코뮤지엄의 수가 증가			
	유럽 네트워크	2004 ~	유럽 에코뮤지엄 네트워크 Long network	유럽 각 지역별로 설립된 에코뮤지엄들이 협력하여 에코뮤지엄의 유럽 네트워크화를 위한 협력계획을 실행			

서 담당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과 교안들이 마련되어 있다. 에코뮤지엄은 현장학습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지역협력을 위한 지역공동체 센터로서도 역할을 하고 있다.

가. 프루미-트렐롱 에코뮤지엄(Ecomusee de la Region de Fourmies-Trelon)[258]

프루미-트렐롱 에코뮤지엄(Ecomusee de la Region de Fourmies-Trelon)은 지역정부에서 적극 지원하고, 지역 주민은 간접적으로 운영에 참여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프루미-트렐롱(Fourmies-Trelon)지역은 프랑스 북동부의 벨기에와의 국경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 에코뮤지엄은 푸루미 마을과 그 북동쪽 약 7㎞에 있는 트렐롱을 중심으로 한 프루미-트렐롱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 그 지역은 약 20여개의 코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는 약 4만여 명으로 남북으로 30㎞, 동서로 약 20㎞에 걸쳐 있다.

프루미-트렐롱 에코뮤지엄 설립을 위한 지역 협회가 1978년 형성되었고, 에코뮤지엄은 1980년 6월에 처음 개관하였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뮤지엄이지만 프랑스 박물관국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문화부와 지역, 해당 코뮌 내의 다양한 부서로부터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프루미 -트렐롱 에코뮤지엄은 1990년에는 유럽 뮤지엄 대상(The European Museum of the Year Award/EMYA)을 수상하기도 하였는데, 상을 수여받을 당시 프랑스의 뮤지엄으로는 세 번째로 수상하였고, 에코뮤지엄으로는 처음 대상을 수상하였다. 뮤지엄으로서 완성도 및 정비도는 매우 높으며 이는 위베르(Hubert)가 말하는 두 가지 에코뮤지엄의 분류 중 '시설형 에코뮤지엄(Institutional ecomuseum)'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관과 유럽으로부터 전체 800만 프랑의 전체 운영기금 중 70퍼센트를 지원받았으며, 25명의 정직원과 11명의 주정부로부터 85퍼센트의 지원을 받는 5년 계약직 직원으로 구성되어있다. 또한 150여명의 협회의 회원이 자원봉사자의 역할로 행정적인 업무·연구·보존 업무·관람객의 가이드투어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977년 마크 구자드(Marc Goujard)가 지역을 에코뮤지엄으로 정비하는 것을 제안하면서 프루미-트렐롱 에코뮤지엄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였다. 활동의 단기 목표는 계속 파괴되고 있는 방적기계와 유산, 귀중한 장소를 기록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전시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지역에서 스코시오-문화 위원회(Scocio-cultural

258) 박정연, 「영국 오픈 에어 뮤지엄(Open–Air Museum)과 프랑스 에코뮤지엄(Ecomuseum)의 특징 비교연구」, 서울:경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37–39쪽

committee)의 회의가 열리면서, 지역의 직물 산업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 영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주요한 영향을 주고 있는 산업문화유산의 보존뿐 아니라 지역의 자부심·지역 정체성의 강화·미래에 대한 희망 등을 위한 것이었다. 보존·연구·지역적 접근에 대한 필요성과 이러한 목적과 관련된 에코뮤지엄의 모형에 적합한 사회적·경제적 목표들을 고무시킨다.

② 일본과 중국의 에코뮤지엄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일본의 역사마을과 중국의 생태마을 조성과 운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지역공동체의 유형 · 무형유산을 기반으로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에코뮤지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구성은 살아있는 전통을 보존관리하면서 전통 의상을 입은 직원들이 당시의 전통적인 행위들을 시연함으로써 지역유산을 총체적으로 그 의미를 해석함으로써 역사문화유산과 자연생태환경을 보존하면서 활용하는 주민참여 중심의 박물관 활동을 수행한다.

가. 아사히마치 에코뮤지엄(Aashi-machi Ecomuseum)[259]

아사히마을은 사과산지로 유명한 야마가타현(Yamakata)에 위치해 있다. 지역정부는 1989년부터 에코뮤지엄 개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으며, 1991년에 공식적으로 마을의 장기 발전계획에 에코뮤지엄 개념을 도입하였다. 초기에는 주변의 아름다운 환경과 겨울 스포츠를 테마로 진행되어 왔으나 대중적 유행이 사라짐에 따라 지금은 지역의 자긍심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후 2000년 에코뮤지엄의 중심축인 에코뮤지엄 위원회와 아사히마을 에코뮤지엄이 공식출범하게 되었다. 에코뮤지엄 전문가들은 지역 내에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돕는 촉매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역문화, 자연환경, 삶의 문화에 대해 주민들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삶을 즐길 수 있는 생활방식이 만들어졌다. 지역전체가 박물관, 지역주민 모두가 학예사인 아사히마을은 자연, 문화 그리고 장소적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

주요 테마관인 사과박물관은 세계 각국의 사과나무를 직접 재배하고 전시하고 있으며, 사과를 이용한 다양한 상품들도 소개되고 있다. 물레방아를 이용한 방앗간에서는 직접 제분한 밀을 가지고 국수를 만들어 먹을 수도 있다. 산업시설로는 옛 숯가마가 남아 있으며, 지역특산품인 사과를 활용한 사과온천 테마관이 있다. 또한 아사히는 와인 생산지로 유명하며 포도 농사법과 와인의 제조공정 등이 에코뮤지엄 영역으로 흡수되어 에코뮤지엄의 테마로서 활용되고 있다.

259) 주19 앞의 책, 66–67쪽

나. 롱리 에코뮤지엄(Longli Ecomuseum)[260]

진핑(Jinping)군의 롱리마을은 한족마을이고 1386년 이래로 변화되지 않고 옛 마을 구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롱리마을은 군대가 주둔하면서 만들어졌다. 주변환경으로 인해 교통이 어려웠던 마을은 외부와 단절되어 있었다. 진핑현에 거주하는 주민 20만 명중 약 70%는 각기 다른 소수민족들이다. 실제로 롱리 마을 안에서 한족이 소수민족으로 그들 스스로 전통문화를 어떻게 보존해야할지를 걱정해야 하는 실정이다. 롱리 마을의 인구는 약 6,000명이고 그중 마을 안에 658가구 약 3,580명이 살고 있다. 주민들은 지방의 반역을 진압하기 위해 보내졌던 군인들의 후손들이다. 한족의 전통 문화를 고수하고 있으며 조상이 남긴 고서를 읽고 학습한다. 중요한 문화유산인 용(龍)춤은 정착생활이 시작된 후 성안에서 놀이로 만들어진 것이다. 옛 성과 관련된 전설은 마을 안 찻집에서 들을 수 있다. 이 마을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각각의 모서리에는 망루가 서있으며 롱리는 건축 역사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마을로서 명왕조 시대의 전형적인 마을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마을 성벽, 절, 묘지 그리고 옛 교각 등 7가지 중요한 유물들이 남아있으며 마을 유물들의 대부분은 마을 주민들을 위해 보존작업이 필요하다. 에코뮤지엄은 이러한 모든 일들을 관리하고 이해하도록 만드는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③ 한국의 에코뮤지엄

우리나라에서 마을박물관 운영 프로그램은 배영동(2007)의 '사촌마을자료전시관'(경상북도 의성군 점곡면 사촌 마을)을 통해서 학계에 공식적으로 처음 소개되었다.[261] 또한 배영동(2011)에 의해 '학선리마을박물관'(전라북도 진안군 동향면 학선리)의 운영 프로그램이 소개되었다.[262] 경기도와 파주시는 2012년 7월부터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통일

260) 주19 앞의 책, 83–84쪽
261) 배영동, 「마을문화전시관으로 본 마을문화의 자원화 과정」, 『마을 민속자원화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민속원, 2007, 7~33쪽
262) 배영동, 「주민 주도형 마을문화자료관 만들기의 가능성과 의의」, 『실천민속학 연구』, 17, 안동: 실천민속학회, 2011, 123~155쪽



의성 사촌마을자료전시관

촌에 주민생활사 박물관을 조성하고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브랜드마을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2013년 8월 14일 '통일촌 마을박물관'을 개관하였고, 통일촌 에코뮤지엄은 김지욱(2013)에 의해 통일촌 마실가기 운영 프로그램이 소개되었다.[263]

의성 사촌마을자료전시관은 문화재청과 경상북도가 주도하고, 의성군이 추진하는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1999년 9월부터 2000년 2월에 걸친 학술연구용역『경북북부 유교문화 관광자원 조사연구』에서 배영동(2000)이 마을별로 '마을역사문화전시관' 설립을 제안한 것에서 시작되었고, 2002년 의성군이 발주하고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에서 수행한『유교문화권 관광개발에 따른 의성 사촌마을 정비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서울에 있는 한 전시업체가 전시관 용역을 수행하여 2006년에 사촌마을전시관이 개관되었다.[264] 사촌마을자료전시관의 도입부에 "이 전시관은 사촌마을의 민속문화를 조사·연구·보전·전시함으로써 사회교육의 장과 주민 휴식의 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올바른 지방문화의 이해를 돕고자 건립된 공고시설이다. 또한 전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의 장'과 '사회교육의장'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고 설립취지를 밝히고 있다.

사촌마을자료전시관은 다음과 같은 전시물과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265]

263) http://cafe.daum.net/ggvcnews/E9E4/260?q=%C5%EB%C0%CF%C3%CC%B8%B6%C0%BB%B9%DA%B9%B0%B0%FC&re=1 검색일 2014.10.01
264) 주38 앞의 글, 12~14쪽
265) 주38 앞의 글, 16쪽 참조

1. 도입부
   - 1.1 상징물
   - 1.2. 자료전시관 안내도
2. 역사의 변천
   - 2.1. 의성군 소개
   - 2.2. 점곡면 지명유래
   - 2.3. 사촌마을의 연혁
   - 2.4. 사촌마을 정비 추진배경
3. 전통문화재
   - 3.1. 유생의 일과
   - 3.2. 문방사우
   - 3.3. 사촌마을 전적
   - 3.4. 문집 및 저서
   - 3.5. 민간신앙
4. 생활과 민속
   - 4.1. 의병활동
   - 4.2. 선비 인물 모형
   - 4.3. 관혼상제
   - 4.4. 의식주문화
   - 4.5. 지역특산물
   - 4.6. 민속놀이
   - 4.7. 지역문화재소개
   - 4.8. 사초주변 관광루트 소개
   - 4.9. 전통건조물 소개
   - 4.10 인물과 위인
5. 자연과 환경
   - 5.1. 사촌마을 디오라마
   - 5.2. 풍수지리적 해석
   - 5.3. 환경 · 생태 · 식생

이와 관련해서 배영동(2011)은 사촌마을자료전시관을 설립할 때 네 부류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자문하는 가운데 진행되어야 바람직한데, "하나는 마을 주민들 가운데서 이 방면에 식견이 있는 사람들, 둘은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학문적으로 객관화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 셋은 전시의 원리와 흐름을 알고 자문해줄 수 있는 사람들, 넷은 전시관 건축의 활용도를 높이고 전시관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제안하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전문가가 전시관 건립·전시·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만들고, 이 계획에 따라 전시관이 설립되어야만 오류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266] 고 하였다. 2014년 10월 현재 사촌마을자

266) 주38 앞의 글, 33쪽

료전시관은 예약에 의해 전시물을 안내 해설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사촌마을 관광안내 해설사가 운영하고 있다. 전시연계교육 또는 전시연계이벤트 등의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진안 학선리마을박물관은 주민에 의한, 주민에 관한, 주민을 위한 마을박물관으로서 에코뮤지엄 특성을 잘 갖추고 있다. 학선리는 봉곡마을, 을곡마을, 새울마을로 이루어져 있는 데, 학선리마을박물관의 설립은 제천 출신의 이재철씨가 서울에서 17년간 '민중목회', '빈민교회', '종교간대화' 활동을 하다가 2005년 학선리 봉곡마을로 귀농·귀촌을 하게 되었고, 마을 어른들로부터 영농법을 배우고 마을 사람들과 친밀하게 사귀게 되면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2006년부터 학선리에 있는 폐교를 활용하여 '행복한 노인학교'를 농한기에 주 1회씩 운영하게 되면서 시작되었다.[267] 행복한 노인학교 교장은 봉곡교회 목사가 맡아서 하고 있는 데, 그 사연은 봉곡초등학교(초등학교) 개교 때 땅을 기증한 분의 자녀가 서울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어 봉곡교회가 중심이 되어 폐교를 활용한 '행복한 노인학교', 마을 노인을 대상으로 '한글교실', '컴퓨터교실', '도예교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이재철 관장 부부는 주민들과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노인들이 사용하던 물건을 수집하여 폐교에 손수 수장전시실을 꾸몄고, 또한 수집된 자료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거나 녹음하여 전시와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진안군 귀농·귀촌인 지역사회 기여사업' 일환으로 진안군으로부터 350만원을 지원받아서 이재철 관장 부부가 앞장서고 봉곡교회가 밀어주고, 학선리 주민들이 참여하여 2009년 12월 8일 학선리마을박물관을 개관하였다. 2009년 '진안군 귀농 · 귀촌인 지역사회 기여사업' 1차 지원금 350만원을 가지고 농한기에 '짚풀공예반', '짚신공예반', '연극반' 등을 운영하였다. 2010년에는 '진안군 귀농·귀촌인 지역사회 기여사업' 2차 지원금 500만원으로 마을박물관 리플릿, 입간판, 현판 등을 만들었고, 8월의 진안군 마을 축제 기간 하루 동안에 '엄니, 손주랑 마을박물관 가게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야외에 생태건축으로 도예실(7평)을 건립하였다.

이재철 관장 부부는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수집한 자료에 대한 목록화와 정보화, 전시자료에 대한 스토리텔링 작업을 하고 있다. 신뢰가 확보된 주민들에게 결혼

267)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구자인 박사의 소개로 안동대 배영동 교수 일행과 함께 2010년 6월 11일 학선리마을박물관을 현지방문하여 이재철 관장 부부를 면담하였고, 그 후 수차례 전화로 보충조사를 하였다.

이나 환갑 사진, 기록물, 쓸모없는 옛 생활용품 등을 마을박물관에 기증할 것을 권유함으로써 학선리 100여 가구 중에 50~60 가구의 기록사진, 농기구, 가구, 복식 등을 기증받았고, 기증에 담긴 이야기를 녹음하거나 기록으로 남겼다.


진안 학선리마을박물관 전시실

학선리마을박물관은 봉곡초등학교 폐교 교실 3칸을 활용하여 제1교실: '행복한 방', 제2교실: '꿈꾸는 방'. 제3교실: '마을박물관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다. '행복한 방'과 '꿈꾸는 방'은 참여와 전시, 체험과 향유를 위한 전시연계교육이벤트를 위한 복합공간으로 운영되고 있고, '학선리 마을박물관 전시실'은 학선리 마을 사람들의 삶의 자취가 담긴 유형유산과 무형유산, 기록유산 등을 진열하여 수장전시연계체험교육을 위한 복합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배영동(2011)에 의하면, 학선리마을박물관은 "첫째, 이재철 관장이 주도하기는 해도 주민들의 노력이 동반되어 설립된 마을문화자료관이다. 둘째, 개별주민으로부터 출발하여 마을 전체를 볼 수 있는 마을문화자료관이다. 셋째, 작은 것을 활용하여 큰 것을 만들어가는 생산적 문화운동의 과정이다. 넷째, 주민들의 삶에 긍정적 활력을 부여하는 마을 복지 공간이다."[268] 발표자의 관점에서 보면, 학선리마을박물관은 복합문화공간이자 문화예술센터로서 마을 주민들의 기억보관소이자 마을 노인들의 행복만들기센터로서 역할과 기능을 점진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통일촌[269]은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DMZ 서부전선 민간인 통제구역 안에 자리 잡은 마을로 군사분계선 남방 4.5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전쟁 전에는 이 마을을 중심으로 민씨, 최씨, 박씨, 이씨 등 집성촌이 있었던 지역이지만 6.25 전쟁 이후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못하다가 1972년 제 1사단 사병과 부사관들이 인근 수냇벌에 '전진농장'을

268) 주39, 앞의 글, 147~148쪽
269) http://cafe.daum.net/ggvcnews/E9E4/260?q=%C5%EB%C0%CF%C3%CC%B8%B6%C0%BB%B9%DA%B9%B0%B0%FC&re=1 검색일 2014.10.01



통일촌 마을박물관 통일촌 마실가기
(출처:http://blog.daum.net/wkdalthf00/343?srchid=BR1)

개간하였는 데, 1972년 5월 박정희 대통령 전방 순찰시 "재건촌의 미비점을 보완한 전략적 시범 농촌을 건설하라"는 특별지시로 1973년 8월에 육군 1사단 제대 장병 40세대와 실향민 40세대 총 80세대가 통일촌에 입주하였다. 통일촌은 건립 당시 이스라엘의 '키부츠 촌'을 본따 낮에는 일을 하고, 유사시에는 전투에 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후 통일촌은 정보화 마을, 장단콩 슬로푸드 체험마을, DMZ 세계화브랜드 마을로 발전을 거듭하면서 평화 통일의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2013년 8월 14일 오전 11시 통일촌에서 브랜드마을 개장식과 함께 마을 입주 4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경기문화재단이 주관한 통일촌 브랜드마을 육성사업 통일촌 에코뮤지엄 '통일촌 마실가기'를 주제로 마을박물관 개관식과 마을 탐방로 개장, 주민들과 함께하는 마을잔치를 개최하였다. 통일촌 브랜드마을은 2012년 안전행정부에서 시행한 지방브랜드 세계화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고, 경기도와 파주시가 마을의 역사와 주민의 삶을 한눈에 알 수 있는 마을박물관을 조성하고 구 방공호를 정비하여 관광 상품화하였고, 마을길에는 통일촌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위험한 놀이터', '둥지 전망대', '된장공장 벽화' 등의 조형작품을 설치하였다. 참석자들은 이날 통일촌박물관 현판 제막식을 시작으로 탐방로를 관람하면서 벽화그리기, 새 단장한 구 방공호 관람, 통일촌 전통 떡인 조망생이 시식, 평화통일 손수건 만들기, DMZ 생태체험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통일촌 주민들이 참여한 장단난타, 파주군내 초등학생 리코더 연주회 등을 감상하였다. 또한 통일촌 40주년을 맞아 '내가 통일촌에 꼭 가야하는 이유' 라는 주제로 사연을 공모해서 선정된 40명을 초청하여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도 가졌다.

통일촌마을박물관은 경기도와 파주시가 경기문화재단의 주관으로 통일촌 주민들이 참여하여 통일촌과 통일촌 주민들에 관한, 통일촌 주민들과 방문객들을 위한 에코뮤지엄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통일촌마을박물관 개관 운영 프로그램의 주제를 마실가기로 정하여 주민들이 방문객들에게 마을박물관과 마을 탐방로 등을 안내해설해 주는 운영 프로그램이 매력적이다. 또한 DMZ와 통일교육, 자연생태환경 보전 등에 관한 상호 유기적 관계성을 체험학습할 수 있도록 기획된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판단한다.

2) 대성동의 에코뮤지엄 적용방안

(1) 대성동의 에코뮤지엄 적용 가능성

박물관 설립에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박물관 유산(자료와 공간을 포함)이 지닌 학술적 중요성(역사·지리·사회·문화·예술·자연·생태·환경 등)과 박물관 위치와 환경, 접근성, 교통편, 연계·편의시설, 지역공동체 성원들의 여망, 지역경제·교통·환경·사회·문화·예술에 미치는 영향평가 등이다. 일반적으로 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는 크게 3가지 분야 6가지 구성요소; 자료/정보, 공간/장소, 설립·운영자/이용자를 갖추어야 한다.[270] 이러한 구성요건이 박물관의 정체성과 역할 및 기능 수행에 대한 특성을 드러낸다. 앞서가는 박물관은 사회의 발전과 환경 보호에 이바지하는 비영리의 항구적 기관으로서, 공중에게 개방되고, 유·무형 유산의 수장관리와 연구교육, 교류협력, 위락제공을 위한 구심체로서 역할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고, 학습과 연구, 위락을 위해서 인류와 인류의 환경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조사·발굴·관찰·기록·정리·보존·연구·교류·전시·교육하는 기능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수행한다.

박물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박물관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문제와 수집한 자료를 운영관리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박물관을 움직이는 박물관 종사자를 위한 교육, 박물관 이미지 홍보와 박물관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박물관 운영관리와 재정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물관의 차별화와 특성화는 박물관 설립·운영자의 창의력과 경영수완에 달려 있지만 박물관을 구성하는 3가지(인력, 매체, 공간) 분야 6가지 요소(설립·운영자/이용자, 자료/정보, 공간/장소)를 합리적으로 조합해서 박물관의 4가지 역할(수장관리, 연구교육, 교류협력, 위락향유)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박물관의 6가지 기능(수집, 보존, 연구, 교류, 전시, 교육)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성공의 기반이자 실패의 관건이 될 수 있다.

270) 최종호, 『박물관의 이론과 실제: 박물관 실무 지침 (2)』, 서울: 한국박물관협회, 2004, 18쪽

박물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문제는 설립 · 운영자의 설립취지와 경영철학, 박물관 정책과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오늘날 앞서가는 박물관에서는 유형의 물질자료뿐만 아니라 무형의 비물질 정보에 관한 것과 물질문명뿐만아니라 정신문화에 관한 것 그리고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자유유산에 관한 것을 박물관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다양성 속에 통합을 강조하는 다종다양한 박물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박물관 설립 · 운영자와 이용자 사이에 양방향 교류를 통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고 있다. 지역 공동체 성원들과 함께하는 박물관이 앞서가는 박물관의 역할과 기능 증대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 문화정보산업화 시대에 부합하는 앞서가는 박물관의 역할과 기능은 교육정보위락의 관점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역공동체 발전과 자연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박물관 고유의 목적사업에 맞춰 나날이 증대하고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물관은 사회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공중에게 개방되는 것을 전제로 적절하고 합법적인 영리추구를 통해서 자립 · 자영할 수 있어야 한다. 박물관이 자생·자립·교류할 수 있어야 박물관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 강화할 수 있다.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온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박물관을 설립하여 운영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박물관경영자는 박물관의 유지·운영관리를 위해서 장단기적인 경영전략과 계획을 짜고, 준비된 경영전략과 계획을 집행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조직을 결성하거나 조직을 재정비하여 정해진 경영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박물관 전문직 종사자 등을 투입 또는 충원하여 지휘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수행한다. 박물관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박물관 전문직 종사자를 채용하여 조직을 결성하고 업무를 분장하여 박물관인과 박물관 전문가, 박물관학자, 박물관자료, 박물관정보 등을 수집하고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성해야 한다. 박물관 자료는 유형의 물질, 정보는 무형의 비물질을 의미하고, 유산은 유형 · 무형을 포괄한다. 자료는 오감을 통해서 느낄 수 있고, 정보는 매체를 통해서 상호 교류가 가능하다. 과거에 박물관 유산의 표출과 교류는 옥내공간 또는 야외공간이 전부였지만, 오늘날 on-line과 off-line을 넘나드는 유비쿼터스 시스템[271]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유·무형 유산과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하고 양방향 교류를 통해서 박물관 사업과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다. 오늘날 앞서가는 박물관은 스마트(SMART) 체제의 박물관 경영을 하고 있지만 오프라인에서 박물관 이용자들은 박물관의 존재양상에 대해 건축과 조경 분야가 으뜸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미지역의 앞서가는 박물관에서는 건축과 조경 분야의 외관뿐만 아니라 박물관 내부의 자료와 정보를 기반으로 멀티미디어 콘텐츠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활성화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박물관의 유산은 유기적인 관계성을 기반으로 해석을 통해서 박물관 자료와 정보의 이미지와 메시지를 교류한다. 박물관의 유산은 공간과 장소를 포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박물관을 구성하는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은 기업으로 말하면 감가상각 없이 가장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

1970년대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박물관은 옥내공간에서 소장품을 기반으로 상설전시 중심의 박물관 활동을 펼쳤고, 1970년대 이후로 상설전시공간을 야외공간으로 확장해서 박물관 전시활동을 강화하였다. 박물관의 공간구성과 장소선정은 박물관의 경영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로 박물관은 콘텐츠를 중심으로 교육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중반이후로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이후로 박물관은 해석 프로그램 운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최근 앞서가는 박물관에서 스마트 경영 체제의 박물관을 경영함으로써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물관 군락 또는 단지 내에 권역별로 테마박물관을 운영함으로써 이용자 중심의 세분화된 마케팅 전략을 적용하여 지역공동체와 함께 하는 연계망 마케팅을 통해서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공동체를 위한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연계망을 통한 관계마케팅을 펼쳐 지역공동체가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다. 지역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전방위 마케팅을 펼침으로써 지역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고, 공동브랜드의 가치를 높일 수 있고, 지역공동체를 위한 연계망 마케팅에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박물관경영의 새로운 전략에 대한 벤치마킹 대상이 될 만한 좋은 사례가 구겐하임 재단이라고 할 수 있다. 1988년 토머스 크렌스(Thomas Krens) 관장이 취임한 이후 구겐하임 재단은 기업 및 해외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재원을 조성하면서 세계를 대상으로 250여개의 대규모 전시를 개최하고 있다. "솔로몬 R. 구겐하임 미술관(Solomon R. Guggenheim, N.Y.)은 '상호 연계성'(interconnected), '상호 의존성'(interdependent), '규모의 경제'(economics of scale)를 표방하며 공격적 그리고 고객지향적 마케팅 전략 구사를 통해 미술관의 글로벌 브랜드 구축에 성공을 거둔 대표적

271) 유비쿼터스 시스템(ubiquitous system): 언제 어니서나 누구에게나 접근이 가능한 체제

인 미술관"으로 "현재 소호 구겐하임(맨해튼), 구겐하임 에르미타쉬(라스베거스), 도이치 구겐하임(베를린), 페기 구겐하임(베니스), 빌바오 구겐하임(빌바오) 등의 분관을 갖고 있으며, 현재 타이중, 싱가포르, 베이징, 홍콩, 리우데자네이루 등의 건설을 통해 지속적으로 구겐하임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에 주력하며 이를 통해 연간 총 2천5백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하였고, "최근에는 에르미타쉬 미술관 및 루브르박물관과 함께 이라크, 이란, 사우디아라비아가 교차되는 지점에 위치한 사이야(Saadiyat Island)에 대규모 문화특구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272] 구겐하임 미술관의 세계화는 전시 횟수의 증대와 수장품[273]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미술관의 세력을 확장하고, 미술에 대한 발언권을 강화하는 것으로 소장품을 수장고에 방치하지 않고 월드 투어를 통해 수익도 얻고 소장품의 활용을 극대화하려는 국제적인 경영전략과 브랜드 네트워크 마케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박물관 사업의 성패는 자료와 정보의 축적과 효율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을 애용자로 끌어들이고, 박물관 사업을 후원하고, 박물관 활동을 이용하는 회원들을 지속적으로 모집해서 유지·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박물관에 기업경영기법이 도입되기 전까지 관객/관람객(audience), 방문객(visitor)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1980년대 이후 경영기법이 확산되면서 고객(client), 단골(customer)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1990년대 중반이후 인터넷과 사이버 박물관이 확산되면서 이용자(user), 애용자(mania)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오늘날 박물관 이용자들은 off-line의 박물관뿐만 아니라 on-line의 사이버 박물관 네트워크를 통해서 설립 · 운영자와 이용자 사이에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ystem)를 기반으로 커뮤니티,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형성하여 양방향 교류를 하고 있다. 유비쿼터스 체제의 에스엔에스를 기반으로 스마트 폰 등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쉽게 다종다양한 박물관을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 신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이용하기 풍부한 박물관 콘텐츠와 전시와 교육, 문화행사가 연계된 박물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박물관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와 분석작업을 통해서 사회간접자본 등을 재평가하여 지역사회의 위상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또한 박물관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이 갖는 독창성을 유지하고, 이용자들에게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관심 속에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용자들이 지속적으로 재방문하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박물관 이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쉽게 자료와 정보, 문화와 자연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비쿼터스 체제의 박물관을 경영하는 것이 중·소규모 박물관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경쟁력 강화 방안이 될 수 있다.

박물관의 역할과 기능을 증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인적, 물적, 기술적, 조직적 자원에 대한 연구·개발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전경수(1996)에 의하면, "박물관에서 미래의 세계가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방안이 바로 박물관에서 지역연구를 세계화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274] 박물관의 전시·표출도 중요하지만 교류 ·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지역의 다양한 문화, 산업, 환경을 기반으로 에코뮤지엄은 관광과 지역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각 유산의 네트워크화는 관광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산촌과 농어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에코뮤지엄의 관광활성화의 전략과 연계되면서 농촌지역의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민관산학연단의 봉사, 지원, 협력, 조정 등을 통해서 박물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행해야 한다.

(2) 대성동의 에코뮤지엄 사업 추진 방안

21세기의 문화정보산업화 시대에 문화다양성을 기반으로 문화다원주의와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고 지체장애인, 소외계층,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새터민, 외국인 등의 인권을 존중하는 박물관 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화합을 다지고, 갈등을 해소하고, 문화융성을 추구하고, 문화복지를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업무계획[275]의 문화융성 4대 추진전략 속에 박물관 활동 프로그램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화융성 4대 추진 전략의 첫 번째, 국민 문화체감 확대 전략은 1) 생활 속 문화 확산을 위하여 (1) 국민이 직접 체험할

272) 이보아, 「꿈과 현실의 경계선에 놓인 박물관 마케팅」, 『민속소식』 Vol. 138,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Feb. 2007, 8~9쪽
273) 수장품(蒐藏品;collections) = 수집(품)+소장품을 아우르는 용어로 사용함.
274) 전경수, 「박물관의 세계화와 지역연구」, 『박물관과 지역문화의 발전방향』, 용인: 경기도박물관, 1996, 44쪽
275) http://www.mcst.go.kr/web/s_policy/plan/vision.jsp 검색일 2014.10.01

수 있는 문화·체육 프로그램 보급을 위해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문화가 있는 날을 시행하며 연중 캠페인을 진행하고, (2) 전국 어디서든 주민들이 편리하게 문화·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동호인 지역별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10월에는 전국동호인 축제를 개최하여 평가하고, 생활문화센터 등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3) 저소득층, 장애인 등을 위한 문화향유 지원정책을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누리카드 발급하여 운영하고, 2) 지역문화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1)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문화도시 및 문화마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3) 예술 창작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1) 공연연습장 장소 선정과 (2) 설계 및 리모델링, (3) 운영을 지원한다.

두 번째,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략은 1)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1) 국가유물정보온라인서비스를 지원하고, (2) 도서관·박물관 확충을 지원하고, (3) '길 위의 인문학' 확대를 지원하고, 2) 전통문화의 생활화를 위하여 (1) 한옥 숙박체험 및 템플스테이 운영을 지원한다.

세 번째, 문화기반 핵심 서비스 산업 육성 전략은 1) 문화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1) 국가직무능력표준(NSC) 및 학예사 자격인증제 개편을 추진하고, 2) 관광산업의 체질개선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하여 (1) 올해의 관광도시 지정 컨설팅과 상품개발을 지원하고, 3) 시장별 맞춤형 마케팅 추진과 4대 전략 분야를 집중 지원하기 위하여 (1) 마이스(MICE), 복합리조트, 의료관광, 한류관광 육성을 지원한다.

네 번째, 문화가치 확산 전략은 1) 공공정책 문화영향 평가 및 협업 강화를 위하여 (1) 문화영향평가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2) 문화예술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2)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민·관 통합 네트워크 구축·운영을 위하여 (1) 콘텐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3) K-Culture로 신한류 창출을 위하여 (1) 한글·아리랑·태권도 특별 홍보를 추진하고, (2) 국제 문화교류 네트워크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3) 콘텐츠산업 해외 진출을 지원 확대한다.

정부의 문화융성을 위한 4대 전략에 부응하는 박물관 활동 프로그램을 기획, 개발, 시행하기 위해서 박물관의 외부 환경과 내부 역량을 분석하고,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전평가하고, 프로그램의 실행을 형성평가하고, 실행한 프로그램을 총괄평가하여 환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2014년 1월부터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정하여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 도서관 등의 무료입장과 영화관, 공연장 등의 할인, 문화기반시설의 야간개장 등을 권고하여 시행하고 있고, 문화예술을 생활 속에 누리기 힘든 분들에게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와 문화카드소지자, 교사와 교직원(초중고교), 사회복지사, 나눔티켓 참여단체 관계자, 통합이용권 담당자 등을 위한 문화나눔 나눔티켓 등을 시행하고 있다.[276]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부처간 협력사업과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박물관에서도 문화융성 4대 추진전략인 1. 국민 문화체감 확대, 2. 인문·전통의 재발견, 3. 문화기반 서비스 산업 육성, 4. 문화 가치의 확산을 위하여 박물관 이용자들을 위한 다종다양한 프로그램 특히, 문화예술 분야의 취약계층, 사회적 소외계층, 경제적 차상위계층, 지체장애인, 다문화가족, 새터민, 외국인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유니버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 박물관들은 실물(originals)과 운영자 중심의 직관교육에 관심을 기울였으나 오늘날 박물관들은 자원(resources)과 이용자 중심의 체험학습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1970년대 이전까지 박물관은 물품/작품중심(object-oriented)의 전시가 주된 활동이었으나 1980년대 신박물관학이 발달한 이후로 내용중심(content-oriented)의 교육이 주된 활동으로 확대되었다. 1990년대 중반이후로 구미 선진 박물관에서는 프로그램 중심(program- oriented)으로 교류활동이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277]

프로그램 중심의 박물관 활동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박물관 자료와 정보를 충실하게 조사 연구하여 정리 · 보존하고, 환경과 유산을 다양하게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해석[278]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박물관에서 해석이라고 함은 조사연구를 통해서 전시와 표출을 하고, 전시와 표출을 통해서 교육과 교류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포괄한다. 앞서가는 박물관에서는 해석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박물관 활동을 펼치고 있고, 조사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전시·표출을 하고,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과 공동체연계 이벤트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오늘날 앞서가는 박물관에서는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과 공동체연계 이벤트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적 통합을 위한 다문화교육과 유산보호를 위한 문화다양성,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생물다양성, 창의적 활동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평생학습과 사회교육의 핵심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박물관은 지역 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박물관의 역할과 기능 수행에 있어서 핵심요소 가운데 하

276) http://www.nanumticket.or.kr/Home/GiveTicketInfo/GiveTicket.aspx 검색일 2014.10.01
277) 최종호, 「우리시대의 여가문화로서 박물관 관람과 프로그램 참여」, 『실천민속학 연구』 13, 안동: 실천민속학회, 2009a, 146쪽
278) 박물관학에서 해석(解釋: interpretation)은 조사 · 연구를 통해 전시 · 표출하고, 전시 · 표출을 통해 교육 · 교류하는 일련의 과정을 포괄하는 의미로 용어를 사용함.

나인 “박물관 교육은 유물과 수집품 전시에서 탈피하여 이들 유물과 수집품으로부터 가치있는 가르침을 이끌어내고 배우는데 관심의 초점을 두고”[279] 있다. 박물관 교육은 평생학습과 사회교육을 통해서 지식과 정보, 경험, 인식을 공유하고, 학습과 체험을 통해서 즐거움을 향유하는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갈 것이다.

오늘날 앞서가는 박물관에서의 교육활동은 참여와 체험을 통해 인문사회계박물관에서는 역사인식과 문화이해, 예체능계박물관에서는 예술감상과 창작활동, 과학기술계박물관에서는 현상발견과 원리탐구에 주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화는 박물관 수장품을 중심으로 전시연계 교육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박물관 교육은 공동체 성원들의 지·덕·체·영성을 함양하고, 다양한 해석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인교육을 수행하는 것이 으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04년 7월 1일부터 주40시간 근무제와 주5일 수업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우리나라 성인 남성들의 경우에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활동이 증가하였고, 직장여성들의 경우에 가족 및 친구들과 하는 사적영역의 여가활동이 증가하였고, 특히 가정주부들은 가족들과 함께하는 여가활동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자아실현 보다 가족들을 위한 생활시간이 증가하였다.[280] 가족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박물관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대별, 성별, 계층별, 관심분야별,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가족동반 박물관 이용자들을 위한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과 공동체연계 이벤트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함으로써 체험학습을 즐기게 하고, 이벤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즐거움과 기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박물관 사업과 활동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추진력을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박물관의 전시와 교육, 문화행사는 프로그램이 다채로워야 하고, 교육정보위락(eduinfotainment) 측면에서 박물관 이용자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흥밋거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앞서가는 박물관의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은 특히 교육정보위락 측면에서 박물관 이용자들의 기대와 요구, 희망을 충족시켜줄 수 있고, 만족시켜 줄 수 있고, 또한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프로그램 운영이 지속가능하고, 환류(feedback)를 통해서 심화 발전할 수 있다.

발표자는 대성동 마을 박물관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박물관의 역할과 기능 증대를 위해서는 주민들과 공동체 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유·무형 유산을 수집하여 전시연계교육, 전시연계이벤트,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대성동 마을 가꾸기와 대성동 마을박물관의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고 제고할 것을 제안한다.

279) Hooper-Greenhill, Eilean, *Museums and Their Visitors*, London: Routledge, 1994, p. 230
280) 최종호, 2009a, 앞의 글, 145쪽

10-3 대성동 자유의 마을 전시계획 및 체험프로그램 제안

1) 현황분석

(1) 위치 및 행정구역

본 사업 지역인 대성동 자유의 마을은 행정구역상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에 소속되어 있는 마을로 대한민국의 최북단 비무장지대인 공동경비구역 JSA내에 위치하고 있다.



대성동 지리적 위치(출처:e-영상역사관)

대성동마을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자유의 다리에서 북쪽으로 약 12.5km 떨어진 지점이며 개성에서 남쪽으로 불과 11.5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또한 이 마을은 군사분계선과는 약 400m, 북한 기정동과는 약 800m정도 밖에 떨어져있지 않다.

이와 같은 지정학적 위치에 형성된 대성동마을은 그에 따라 남한 내 6·25전쟁의 비극과 분단의 아픔을 가장 가까이에서 극대치로 느낄 수 있는 최적의 공간으로 본 사업의 목표가 구현되기에 제일 적합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오늘날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에 위치한 대성동마을의 행정구역상 변화를 통시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헌종(憲宗)15년(1849)에 간행된 『장단지(長湍志)』「방리조(坊里條)」에 따르면 대성동마을은 진북면 조산리에 속해졌다. 장단군은 20

개면 63개리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한 개의 면이 진북면인 것이다.[281] 고종(高宗) 32년(1895)에 기존의 군현제(郡縣制)에 입각한 8도제(道制)가 폐지되고 전국을 23부(府) 336군(郡)으로 개편하였다. 이에 파주목이 한성부 파주군이 되었고, 적성현과 장단현은 군으로 승격되었으며 교하군은 파주군에 속하였다가 복구되었다. 이듬해인 1896년에는 23부제를 폐지하고 13도(道)가 설치되었는데 파주는 경기도 관할에 속하게 되었다. 일제 강점 직후에 파주 지역은 파주군·교하군·장단군·적성군의 4개의 군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1911년에 장단군은 20개면 68개리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장단군은 전체 10면 67리의 체제가 되었고 장단면 지역이 진남면에 편입되었다. 이때 조사지역인 대성동은 진북면 조산리, 송산리일부와 개성군 동면 백동음리 일부지역을 병합하여 군내면 조산리가 되었다.[282] 1934년에 장단군이 10개면 66개리로 구성된 이후에도 대성동마을은 군내면 조산리에 소속되었다.[283]

해방 직후인 1945년에는 적성현과 장단현이 군으로 승격되었고 국토분단과 함께 5개면이 북한에 편입되고 5개면 41개리만 남게 되었다. 1962년 11월 21일자 법령(法令) 1178호에 의해 연천군과 파주군이 폐합(廢合)된 후[284] 군내면은 1963년 1월1일 법률 제1178호에 의하여 파주군 임진면(현 문산읍)에 편입되었다. 1972년에는 장단군 장단면, 군내면, 진동면, 진서면을 편입하여 15면으로 조정되었으며 이듬해에는 아동면이 금촌읍으로, 임진면이 문산읍으로 승격되면서 2읍 13면의 행정구역을 갖추게 되었다. 1977년 11월에 장단, 군내, 진동, 진서 4개면이 파주군으로 편입되었다.[285] 1979년 5월1일 군조례 제610호에 의하여 출장소가 설치되어 백연리와 조산리를 포함한 4개 면을 관할하고 있다.[286]

(2) 역사 및 연혁

대성동마을의 형성은 한반도 현대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후방으로 피란을 떠나게 되자 마을에는 16세대 60명의 노인과 아이들만 남게 되었다. 1951년 10월 판문점에서 정전회담이 개최되자 피란을 떠났던 사람들 중 일부가 마을로 돌아왔다. 정전회담은 1950년 6월 25일을 기점으로 한반도 전역에서 약 1년 간의 치열한 교전을 벌이던 남북의 전투를 중단하기 위해 열린 회담으로 이 회담에서 판문점 인근에 위치한 남한의 대성동마을과 북한의 기정동마을만이 예외적으로 전투 지역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정전회담 결과 대성동마을은 유엔사가 관할하게 되었다. 이후 1953년 북한의 기정동과 대성동마을은 민간인이 거주할 수 있는 마을로 인정되게 되었다. 당시 대성동마을은 다행스럽게도 전쟁으로 인한 큰 피해를 입지 않아 마을 주민들은 과거 선조들로부터 대대로 전해진 삶의 방식과 마을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다.


【3】 朝鮮日報 金曜日 一九五九年十一月十三日

마지막 자유의 마을

……강대만이 넘실대는 休戰線上의 臺城洞……

『X마스』前에 이룩

自治組織의 小獨立國 구실하도록

近代化의 理想村으로

【臺城洞에서本社 權五기記者發】

대성동문화주택 조성 관련 기사(출처:동아일보, 1960.3.17.)

이렇듯 전쟁통에서도 그들의 삶과 문화를 끈질기게 이어온 대성동마을에 변화의 바람이 분 것은 1959년부터이다. 1959년 유엔사와 남한 정부는 크리스마스 전까지 낙후된 자유의 마을을 근대화시킨다는 계획을 설립하고 그 작업을 추진해나가기 시작했다. 예컨대 마을에는 미군이 기증한 발전기가 도입되었고 유엔사와 정부의 지원하에 블록주택(근대식 벽돌 문화주택) 3동이 지어졌으며, 공회당(자유의 집)과 동사무실, 의무실, 목욕탕 등의 공공시설이 세워졌다.

이처럼 자유의 마을은 국가의 차원에서 남한 내 여느 지역보다 빠르고 급속한 근대적

281) 『장단군지』, 장단군지편찬위원회, 1980, 25-26쪽.
282) 파주군·파주문화원, 『파주의 역사와 문화유적』, 경기출판사, 1995, 243쪽.
283) 장단군지편찬위원회, 앞의책, 28쪽.
284) 장단군지편찬위원회, 앞의책, 30쪽.
285) 파주군사편찬위원회, 『파주군사』 상권, 1984, 116쪽.
286) 파주군·파주문화원, 앞의책, 241쪽.

개발이 이루어졌다. 이 당시 보건사회복지부와 미국 USOM[287]에서 마을에 무상으로 문화주택을 건립하였다. 그런데 건립 과정에서 부실 공사와 농가에 맞지 않는 설계가 이루어지자 마을 주민들이 입주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검찰이 내사에 착수하여 공사 담당 회사의 보충 공사가 이루어지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하였다.[288]

1965년에는 정부의 지원 아래 기와집이, 1968년 5월에는 대성동국민학교도 신축되었다. 1969년에는 대성동마을주민들에게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었다.

이후, 1972년 완료된 제1차 대성동 종합개발에 의해 주택과 도로, 공동 시설, 전기 가설, 경지 정리 등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주택 개량과 시설 현대화, 학교 개축, 하천 정비, 상수도 설치, 경지 정리 등의 23개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후 1980년 제2차 대성동 종합개발 사업을 통해 저수지 신설, 농경지 정리, 주택현대화 등 현재 대성동마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결국 대성동마을은 두 차례의 대규모 종합개발에 의해 현대화된 농촌마을로 거듭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대규모 종합개발의 배경에는 1970년대 경제성장과 함께 남북한이 체제경쟁에 열을 올리던 시대적 상황이 전제되어 있다. 북한의 기정동마을(평화의 마을)이 그러하듯 남한의 대성동마을(자유의 마을)도 남한을 선전하기 위한 마을이다. 즉 남북한은 비무장 지대 내 유일한 마을이며 거리적으로도 가까운 대성동마을과 기정동마을을 자신의 체제를 경쟁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선전의 지역으로 활용해 온 것이다. 이후 대성동마을은 민간인이 거주하는 최북단 지역으로 정부의 각종 혜택과 꾸준한 지원과 관심으로 현재의 마을에 이르게 되었다.

2) 전시 기본 방향

(1) 전시 개념

본 전시는 대성동마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지정학적 위치를 통해 '분단과 대치'라는 상징에서 출발하여 '인류평화의 문화유산'으로 귀결하는 것을 전시를 관통하는 콘셉트로 삼는다. 대성동마을은 DMZ 내의 유일한 민간인 거주지로서 불과 200m 앞에 군사분계선이 형성되어 있고 마을에서는 육안으로 북한군 초소와 마을이 보인다. 이처럼 전시는 먼저 대성동마을의 특수한 역사와 문화를 형성하는 기반이 되는 분단과 대치, 즉 아직 끝나지 않는 전쟁과 팽팽하게 흐르는 긴장감 등을 전시의 콘셉트으로 삼는다.

그러나 이에 머무르지 않고 나아가 대성동 자유 마을을 인류평화의 문화유산으로 승화시킨다. 대성동 자유 마을이 UN의 정전협정으로 만들어졌으며 60년간 UN이 지켜온 평화의 상징적 공간이라는 점을 설명한다. 또한 마을에서 선사시대부터 최근까지에 이르는 방대한 유물의 발견과 마을의 청정 자연환경 등, 대성동마을은 한반도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미래 세대를 위해 함께 보존해야 할 인류의 세계문화유산이라는 것을 전시 콘셉트로 한다.

(2) 기본 방향

본 전시는 대성동 사람들의 삶을 기본 콘텐츠로 하여 그들의 삶을 통해 전쟁과 평화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도록 한다. 그를 통해 피부에 와 닿는 전쟁의 위험성과 현재 분단 대치의 현실을 전시하고 민통선 안에서 살아가는 대성동마을 주민들의 통제된 생활문화를 전시한다. 이를 통해 대성동마을의 인류문화사적 가치와 의의를 재조명해본다.

본 전시는 다양한 이벤트와 업데이트가 용이한 가변의 공간을 전시 공간으로 한다. 이를 위해 대성동마을 내 현재 방치되고 있는 자유의 집을 원형 복원하고 전시관으로 활용하기 위한 리모델링을 실시한다. 이때 전시교체와 이벤트 개최가 용이한 가변형 공간구조로 건축한다. 유니버설한 공간디자인으로 방문하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본 전시의 연출은 다큐멘터리적 연출을 활용하여 전시에 대한 몰입과 교육효과를 극대화 시킨다. 이를 위해 인터뷰와 기록영상을 활용한 내러티브의 전시를 연출하고 생생한 현장감을 극대화하는 영화적 기법을 복합 연출한다. 또한 마을주민과 관람객이 함께 만들어가는 아카이브형 연출을 전시에 활용한다.

본 전시는 민통선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주도형의 운영시스템을 구축, 주민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게 한다. 이를 위해 주민주도형의 시설운영 및 마을민의 소득구조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성립한다. 판문점, 도라전망대 등 인근시설과 연계한 안보투어의 거점으로 활용한다. 또한 DMZ영화제, 마을체험 등을 연계한 프리덤타운축제를 운영한다.

287) United States Operations Mission(미국 대외 원조 기관)
288) "보충공사키로 말썽난 대성동주택", 《동아일보》, 1960년 3월 17일 작성

3) 전시 주제 및 동선

본 전시는 검문소(진입로), 방공호(영상관), 대성동마을 기록관(자유의 집), 평화의 길(팔각정/국기게양대), 특산품판매장(마을창고) 등의 각기 다른 다섯 개의 공간을 통해 총 네 가지의 주제를 전달한다. 각 전시 공간은 각 주제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공간인 동시에 마을 혹은 국가와 전 세계적 차원에서 의미를 갖는 곳으로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각 전시 공간을 통해 주제가 점진적으로 확장되므로 관람객은 순차적인 관람을 통해 자연스럽게 각 주제를 유기적으로 연관시키고 이해하게 된다.

우선 관람객은 검문소를 통해 철조망 속 자유마을로 들어가게 된다. 관람객은 휴전선 안으로 진입하게 되고 철책을 지나 지뢰밭 사이를 거치게 된다. 이렇게 대성동 자유의 마을을 진입하면서 겪는 공간의 이동과 그 과정에서 감각적으로 인지하게 되는 풍경을 통해 관람객은 현재의 분단과 대치의 현실을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삼엄한 경비 및 통제의 광경을 통해 본격적인 전시 및 마을 방문에 앞서 관람객의 심리적 긴장감을 야기하여 전시에 대해 준비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관람객들은 이내 방공호(영상관)에 도착하게 된다. 방공호에서는 '6·25전쟁과 대성동 사람들'이라는 스토리로 대성동마을의 형성배경을 영상을 통해 전달한다. '#1포화 속의 새벽', '#2휴전협정과 마을민의 귀향', '#3평온과 불안한 삶과 수난', '#4인류 평화와 자유의 상징' 등 대성동마을의 통시적인 역사를 잘 보여주는 영상물을 통해 대성동마을이 전쟁과 평화의 공존지대라는 점을 인식하게 한다. 이 또한 차후 전시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앞서 대성동마을의 형성배경을 요약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더욱이 생생한 영상물을 통해 관람객의 다양한 감각을 일깨움으로써 전시에 대한 긴장감과 집중도를 고조시킨다.

방공호를 지나 관람객은 대성동마을 기록관과 평화의 길을 거치면서 비무장지대 속 주민들의 삶을 이해하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을 인식한다. 대성동마을 기록관, 일명 자유의 집에서는 대성동이 세계 유일의 비무장지대 마을로서 공동경비구역 내 마을이며 자유와 평화의 마을이라는 것을 알린다. 또한 마을 주민들의 민통선 안에서의 삶의 이야기를 전하여 그들이 어떻게 타지역과는 다른 생활과 문화를 형성하였는지 이해한다. 이러한 전시를 통해 대성동마을이 평화와 통일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한편 평화의 길에서는 군사분계선을 200m 눈앞에 두고 있는 공간으로 100m 높이의 국기게양대와 방탄유리로 덮인 팔각정을 통해 전쟁의 지속을 보여준다. 관람객은 북쪽을 가깝게 마주하면서 거대한 조형물과 그것들의 형성된 배경 및 의미를 이해하게 됨으로써 아직도 끝나지 않은 남북한 분단의 상황을 깨닫는다.

마지막으로 특산물 판매장에서는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유산으로 확장되는 대성동마을의 의미를 인식하게 하면서 동시에 평화와 안보의 중요성을 전달한다. 대성동마을은 분단 과정에서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형성하게 된 마을로 분단의 상징이나 또한 동시에 통일을 준비하는 현시점에서 평화적인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또한 대성동마을의 청정 환경자원 및 발견된 유수의 유적·유물을 통해 대성동마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가치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인류평화의 세계유산으로서 대성동마을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전시한다. 이를 위해 'Discovery of DMZ'와 같은 기획전시를 한다. 또한 마을의 특산물 판매장인 만큼 마을 주민들과 관람객에게 상호 이익이 되는 마을 특산품을 판매한다.


휴전선 속 60년
비무장지대 안의 대성동사람들

01 검문소 (진입로)
- 철조망 속의 자유의 마을로
- ▫ 휴전선 속으로
- ▫ 철책을 지나 지뢰밭 사이로

02 방공호 (영상관)
- 전쟁과 평화의 공존지대
- 6·25전쟁과 대성동사람들
- #1 포화 속의 새벽
- #2 휴전협정과 마을민의 귀향
- #3 평온과 불안한 삶과 수난
- #4 인류 평화와 자유의 상징

03 대성동 마을기록관
- 세계 유일의 비무장지대 마을
- ▫ 공동경비구역 대성동마을
- ▫ 자유의 마을과 평화의 마을
- ▫ 민통선 안의 삶이야기
- ▫ 평화와 통일이 시작되는 곳

04 평화의길
- 200m 눈앞의 군사분계선
- ▫ 100m 높이의 국기게양대
- ▫ 방탄유리로 덮인 팔각정

05 특산물 판매장
- 인류평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 ▫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유산으로
- ▫ Discovery of DMZ(기획전시)
- ▫ 특산품 판매장



4) 전시프로그램(안)

검문소에서는 '철조망 속의 자유의 마을로'라는 전시주제로 전시의 서막을 연다. 전시에 활용되는 코너 및 아이템은 '철책을 지나 지뢰밭 사이로'이고 연출 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다. 안내데스크를 설치하고 관람객의 신원을 확인하며 물품보관실도 구비한다. UN의 협조와 민정반의 경호를 받아 5~10명 단위로 모둠 관람을 시행한다.

방공호는 영상관으로 '전쟁과 평화의 공존지대'라는 주제로 '6·25전쟁과 대성동 사람들'을 전시 아이템으로 삼는다. 먼저 마을투어 오리엔테이션 및 주의사항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대성동마을의 형성배경부터 변천과정을 프로젝터의 영상으로 상영한다.

자유의 집은 '세계 유일의 비무장지대 마을'을 홍보하는 마을기록관으로서 네 가지의 코너 및 아이템을 바탕으로 한다. '공동경비구역의 대성동마을'에서는 주민권, 출입증, 방문자명단 등의 전시를 통해 비무장지대 내의 유일한 민간인 거주지이자 대한민국 땅이면서도 UN의 통제를 받는 마을의 특수한 환경을 소개한다. '자유의 마을과 평화의 마을'에서는 1959년 벽돌문화주택, 발전기 도입 등에서 엿볼 수 있는 UN의 근대화마을 계획으로 마을의 변화양상을 기록사진과 패널을 통해 연출한다. '민통선 안의 삶의 이야기'에서는 민정반(국군)과 동행하는 군사분계선 인근의 생업활동과 혼인에 따른 남녀의 거주권 등 대성동마을의 독특한 생활문화를 소개한다. 또한 북한주민과의 만남과 북한의 대성동 주민 납치와 억류 등 북한과 관련된 일화와 주요사건을 보도자료와 함께 인터뷰 영상으로 설명한다. '평화와 통일이 시작되는 곳'에서는 6·25전쟁 이후 최초의 평화지역이자 대한민국 최북단 마을 등 대성동이 갖는 역사지리적 의미와 가치 그리고 미래비전을 영상으로 설명한다.

마을길에서는 안보체험 길로서 '200m 눈앞의 군사분계선'이라는 주제로 전시한다. '같은 하늘아래 2개의 깃발'에서는 국내 최대 높이의 국기게양대와 세계 최대 높이의 북한 인공기를 조망할 수 있게 한다. '방탄유리의 팔각정'에서는 망원경으로 북한군의 초소와 기정동마을을 조망할 수 있어 끝나지 않은 전쟁에 대한 경각심과 안보의 중요성을 모바일 증강현실로 전달한다.

마을창고에서는 '세계평화의 문화유산으로'라는 주제로 전시의 대미를 장식하고 '청정자연의 DMZ 특산물'이라는 주제로 DMZ를 소개, 특산물을 판매한다. '분단의 상징에서 세계의 유산으로'라는 코너에서는 세계 평화의 상징성으로서 대성동마을이 가지는 상징적 가치와 의미를 조명한다. DMZ를 세계의 자연, 문화, 기록 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홍보한다. 또한 평화통일의 염원과 바람, 관람후기와 감상평을 메시지로 남기는 코너를 구성한다.

기획전시 'Discovery of DMZ'를 통해 자연 그대로 보존된 DMZ의 생태환경을 UHD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전시한다. 또한 '특산물 판매장' 코너에서는 청정자연에서 생산된 대성동의 특산품을 전시하는 한편 전시를 테마로 한 다양한 아트상품을 판매하고 지역농가와 연계한 체류형 농촌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존		코너 및 아이템	연출 내용
검문소	철조망 속의 자유의 마을로 (프롤로그)	휴전선 속으로	• 안내데스크, 관람객 신원확인, 물품보관실 계획
		철책을 지나 지뢰밭 사이로	• 5~10명 단위의 모둠 관람(UN협조, 민정반 경호)
방공호	전쟁과 평화의 공존지대(영상관)	6.25전쟁과 대성동 사람들	• 마을투어의 오리엔테이션, 주의사항 및 안전교육
			• 대성동마을의 형성배경부터 변천과정을 프로젝터 영상으로 상영
자유의 집	세계 유일의 비무장지대 마을 (마을기록관)	공동경비구역의 대성동마을	• 비무장지대의 유일한 민간인 거주지이자 대한민국 땅이면서도 UN의 통제를 받는 특수한 마을 환경소개(주민권, 출입증, 방문자명단 등 전시)
		자유의 마을과 평화의 마을	• 1959년 벽돌문화주택, 발전기 도입 등 UN의 근대화마을 계획으로 변화되는 대성동을 기록사진과 패널로 연출 • 군사·경제적 선전마을로서 남북이 경쟁적으로 개발한 남한의 대성동과 북한의 기정동을 미니어처로 연출
		민통선 안의 삶 이야기	• 민정반(국군)과 동행하는 군사분계선 인근의 생업활동, 혼인에 따른 남녀의 거주권 등 대성동마을의 독특한 생활문화 소개 • 북한주민과의 만남, 북한의 대성동 주민 납치와 억류 등 북한과 관련된 일화와 주요사건을 보도자료와 인터뷰 영상으로 설명
		평화와 통일이 시작되는 곳	• 6.25전쟁 이후 최초의 평화지역, 대한민국 최북단 마을 등 대성동의 역사지리적 의미와 가치, 미래비전을 영상으로 설명
마을길	200m 눈앞의 군사분계선 (안보체험길)	같은 하늘아래 2개의 깃발	• 국내 최대 높이의 국기게양대와 세계 최대 높이의 북한 인공기 조망
		방탄유리의 팔각정	• 망원경으로 북한군 초소와 기정동마을을 조망하며 끝나지 않은 전쟁에 대한 경각심과 안보의 중요성을 모바일 증강현실로 전달
마을 창고 마을	세계평화의 문화유산 (에필로그)	분단의 상징에서 세계의 유산으로	• 세계 평화의 상징으로서 대성동마을이 지닌 상징적 가치와 의미 조망 • DMZ를 세계의 자연, 문화, 기록 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홍보 • 평화통일의 염원과 바람, 관람후기와 감상평을 메시지로 남기는 코너 구성
	청정자연의 DMZ 특산물	Discovery of DMZ (기획전시)	• 자연 그대로 보존된 DMZ의 생태환경을 UHD 다큐멘터리영상으로 전시
		특산품 판매장	• 청정자연에서 생산된 대성동의 특산품 판매/전시를 테마로 한 다양한 아트 상품 판매/지역농가와 연계한 체류형의 농촌체험 프로그램

5) 세부연출계획

(1) 철조망 속 자유의 마을로

본 전시 공간으로 활용되는 자유의 마을로 진입하는 과정의 공간, 예컨대 공동경비구역 JSA와 같은 공간은 지구상 마지막 남은 냉전의 현장이다. 방문객은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공간을 통과할 때 마치 전쟁에 대한 환영을 경험한다.

관람객은 신원 확인을 받은 후 방문서약서를 쓴다. 출입 절차를 마치면 5~10명을 모둠 단위로 구성하여 UN협조하에 대성동마을로 이동한다. 본격적인 대성동마을 투어에 앞서 방문객에게 주의사항을 알리고 안전교육을 시행하며 사전 교육을 한다. 유엔사 규정과 협조하에 발급된 출입증을 배부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비무장지대 안의 통제와 검열시스템을 경험하게 하고 투어의 기대감과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한편 마을 출입을 위한 민통선의 출입증(리플릿)과 파란 수건은 모든 일정을 마친 후에도 관람객이 소지할 수 있게 하여 마을 방문의 기념품으로 제공한다.

① 전시 프로그램(안)

가. 휴전선 속으로

1953년 정전협정 체결 후 주한미군이 맡았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임무는 반세기만인 2004년 11월 한국군에게 완전히 이양되었다. 그에 따라 관람객들은 한국군 1사단이 관할하는 통일대교에 신분증을 맡기고 유엔사 소속 군인의 보호 아래 이동한다.

통일대교를 지나 검문소 앞에 도착한 방문객은 JSA 민정소대에 들어가 신원을 확인 받은 후 방문서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방문서약서를 작성한 관람객은 대성동마을 안보투어 관람안내 및 출입증과 민간인 식별 표시를 제공받는다. 또한 민간인 차량을 표시하는 파란 천을 배부한다. 파란색 천은 유엔사의 정식 허가를 받았다는 증표이자 평화를 상징하며 관람객을 보호하는 표식이 된다.

통행에 필요한 행정적 작업이 끝나면 UN사 협조 하에 안전교육 및 유의사항 교육을 실시한다. 사진 촬영 가능 지역과 제한 지역을 설명하여 보안이 필요한 지역은 촬영을 엄격히 제한함을 알린다. 북한 쪽으로는 사진을 찍어도 되지만 대성동 내부를 찍는 것은 철저히 금지된다는 사실 등을 주지시킨다.

나. 철책을 지나 지뢰밭 사이로

관람객 5~10명을 한 모둠으로 하여 마을로 이동하는데 이때 대성동 주민을 도슨트로 동행한다. 또한 일련의 안보투어는 민정반의 경호하에 진행되며 민정반은 관람객의 주의가 필요한 순간마다 주의 사항을 관람객에게 주지시킨다.



민통선 출입증(출처:google)

민정반은 민정경찰(DMZ police)을 칭하는 것으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Armistice Agreement)으로 설치되었다. 민정반은 비무장지대(DMZ)의 출입을 허가받고 비무장지대 내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의 집행을 위해 예정된 인원을 지칭한다. 1963년부터 미군 제1기갑사단 민사처에 소속된 민정반이 마을에 상주하기 시작했고 사무실은 대성동마을 중심에 위치한다.



대성동 자유의 마을을 방문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들(출처:google)

외부인이 마을에 출입하거나 주민 영농 작업 시에 에스코트 하는 등 마을주민의 안전을 위한 업무와 대성동마을에 대한 제반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민사행정 뿐만 아니라 휴전협정을 수행하며, 마을내부 경비, 마을 주민의 복지, 그리고 구호업무 등에 대한 제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관람객은 민정반의 경호하에 철책과 지뢰밭을 지나 대성동마을에 이르게 된다. 이 과정에서 관람객은 민정반의 경호하에 이동한다는 사실과 차창 밖의 적막한 환경을 통해 분단의 상황을 감각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긴장감을 형성하게 된다. 또한 도슨트의 이야기를 통해 대성동마을에 이르기 전 마을에 대한 사전 지식을 학습한다.

(2) 전쟁과 평화의 공존지대(방공호 영상관)

② 전시 개요

오리엔테이션 영상관으로 전쟁과 분단으로 인해 만들어진 대성동 방공호를 전시 공간으로 활용한다. 방공호는 남북한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 될 때마다 마을 주민들이 대피하던 곳으로 휴전 상황의 팽팽한 긴장감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방공호

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활용하여 영상으로 생생히 전해지는 긴장감을 강화한다. 즉, 실제 주민들의 대피처인 방공호에서 6·25전쟁과 분단 대치의 60년간의 주민들의 삶을 생생히 담은 영상을 시청하는 것은 관람객에게 영상의 현실적 재현을 강화시켜준다.

또한 방공호에서 관람객에게 대성동 자유의 마을의 역사와 안보투어의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전쟁과 평화가 공존하고 있는 비무장지대의 유일한 민간인 거주지인 대성동마을이 담고 있는 인류평화의 상징적 의미를 전달한다. 이는 본격적인 대성동 자유의 마을 투어에 앞서 대성동마을의 역사를 함축적으로 설명하여 보다 후의 전시를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안보투어의 주의사항을 재언급하여 강조함으로써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한다.

#1 포화 속의 새벽



#2 휴전협정과 피난민의 귀향



#3 평온 속의 긴장된 삶과 수난



#4 인류 평화와 자유의 상징



디오라마 영상관에서는 역사의 한 장면을 재현하는 디오라마 연출과 방공호 벽면을 활용한 대형 멀티영상을 상영함으로써 생생한 현장감을 극적으로 전달하는 영화적 기법을 실행한다. 디오라마 연출은 파노라마와 유사하지만 주위 환경이나 배경을 그림으로 묘사하고 모형 역시 축소 모형으로 배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파노라마는 실제 환경에 가깝도록 실물이나 모형을 배치하여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기법이다.

디오라마 기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장면들을 생동감 있게 연출한다.

#1 포화속의 새벽, #2 휴전협정과 피난민의 귀향, #3 평온 속 긴장된 삶과 수난, #4 인류 평화와 자유의 상징.



세계 1차 대전을 디오라마로 연출한 장면(출처:전쟁기념관)

(3) 세계 유일의 비무장지대마을(자유의 집)

① 전시 개요

정전협정부터 현재까지 약 60년간 대성동마을의 역사를 통해 평화와 안보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공간이다. 대한민국 최북단 비무장지대 내의 유일한 민간인 거주지인 대성동 '자유의 마을'과 북한의 선전 마을인 기정동 '평화의 마을'을 비교·전시한다.

또한 본 전시에는 주로 3차원 다큐멘터리 연출을 구현한다. 6·25전쟁을 상기시키는 오브제형의 연출세트와 국가기록영상을 활용한 3차원의 다큐멘터리 연출을 통해 역사적 교훈과 전시의 감성, 메시지의 공감을 극대화시킨다.

전시 공간인 공회당 '자유의 집'은 통일촌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 중 하나로 마을의 동쪽 낮은 산자락 정상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새로운 마을회관이 들어서기 전까지 이곳은 마을주민의 집회·회합의 장소로 사용되었다. 대성국민학교 학생들의 졸업식이나, 정부의 위문품지급(추석선물, 연말 위문품 전달) 등 거의 모든 마을행사를 치른 장소이자 대성동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 유서 깊은 장소이며,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건물이라고 하겠다.



3차원의 다큐멘터리 연출1(출처:해병대박물관)

공회당(자유의 집)이 지어지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1959년 유엔사가 그 해 크리스마스 전까지 낙후된 자유의 마을을 근대화시킨다는 계획을 세웠고 이때 마을주민의 유일한 회합장소로서의 공회당도 건립되었다고 한다. 이때는 공회당 뿐만 아니라 우리정부의 알선으로 미군이 기증한 발전기를 도입하였고, 근대식 문화 주택과 동사무실, 의무실, 목욕탕 등의 공공시설도 세워졌다고 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공회당은 대성동마을 내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몇 남지 않은 건물이다. 따라서 공회당을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시킴으로써 공회당이 가지고 있는 이점과 의의를 전시에 활용하면서 동시에 관심을 갖고 보존할 수 있다.

② 전시 프로그램(안)

가. 공동경비구역의 대성동마을

비무장지대의 유일한 민간인 거주지이자 대한민국 땅이면서도 UN의 통제를 받는 등 대성동마을의 특수한 환경과 그에 관련된 역사를 소개한다. 앞서 간략히 제시한 대성동마을의 역사를 전시 주제적인 측면에 집중하여 설명한다. 대성동마을은 한반도의 현대사, 특히 한국 전쟁 이후의 시대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전쟁을 기점으로 한 마을의 재구성 과정을 중점으로 제시한다.

대성동마을은 1951년 10월 판문점에서 개최된 정전회담에서 북한의 기정동마을과 함께 한반도 내 유일한 비전투 지역으로 선정되어 UN사의 관할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1953년 한국전쟁이 휴전으로 일단락되자 마을에는 주민이 다시 모여들었고 오늘과 같은 마을이 형성되었다.

표14. 대성동 '자유의 마을' 주요 변천과정

시 기	내 용	주 택
6.25 전쟁	마을 파괴	–
1953년 8월~1968년	1953년 8월 휴전협정 및 주민 귀환 1959년 문화주택, 공회당, 동사무실, 의무실, 목욕탕 등	기와집, 초가집 일부 문화주택(시멘트블록집)
1971년~1972년	대성동 종합개발	새마을주택(시멘트블록집)
1978년~1980년	대성동 종합개발(1단계)	양옥집(1층집, 2층집, 연립 등)
1982년~1983년	대성동 종합개발(2단계)	–

전쟁 후 불모지에 가까웠던 대성동마을은 1950년대 말에 이루어진 공공시설 건립과 1970년 대 두 차례의 대규모 종합개발에 의해 현대화된 농촌마을로 변모한다. 이러한 대규모 개발의 배경에는 남북이 서로 체제경쟁에 열을 올리던 시대적 상황이 전제되어 있다. 북한의 기정동마을(평화의 마을)이 그러하듯 남한의 대성동마을(자유의 마을)도 남한의 체제를 선전하기 위한 선전 도구로 활용되었다.

1958~1959년 유엔과 남한 정부는 문화주택 및 공회당 등의 공공시설 건설을 통해 마을을 재건하고자 했다. 그 후 약 10년 뒤인 1971~1972년에는 대성동종합개발이 시행되

표15. 대성동마을 주요 발전현황

연 도	내 용	대성동
1950년 6월	6·25 전쟁 발발	전통적인 농촌 자연마을
1951년 1월	1.4후퇴시 대부분의 마을 주민 피난	마을 비움
1953년 8월	휴전협정에 의해 북한의 기정동과 함께 비무장지대 내에 민간인이 거주할 수 있는 마을로 인정	DMZ내 유일한 민간인 마을 (자유의 마을 설치, 1953.8.3)
1959년 12월	문화주택(블록건물)을 건설하였으며, 공회당(자유의 집)과 동사무실, 의무실, 목욕탕	공공시설 설치 (문화주택)
1962년 11월	장단군에서 파주군 군내면 조산리로 행정구역 개편	
1963년	장단군 임진면으로 편입 미 제1기갑사단 민사처 소속 민정반 파견	
1965년	정부지원하에 블록건물 철거하고 기와집 신축	
1968년 5월	대성동국민학교 건축	
1969년	주민등록증 발급	
1971년~72년	대성동 종합개발사업 착수 (주택, 저수지 신축 및 농지 정리)	구마을과 신마을로 나뉨 (새마을주택)
1974년	대성동정미소 신축	
1976년	JSA경비대대로 민정반 업무 이양 대성동 교회 신축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발생	8월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서 북한군이 미군장교 2명을 도끼로 살해한 사건
1978년	영농한계선 표지판 80개 설치	
1979년~80년	대성동 종합개발사업(1단계) 주택개량, 민정반사무실, 팔각정, 국기게양대 신축 초등학교 2층으로 확장	구마을 사라지고, 마을전체 종합개발 완료 (현대식 주택)
1982년~83년	대성동 종합개발사업(2단계) (저수지신설, 경지정리사업)	
1994년 6월	자유의 마을 대성동 현판 설치	
1998년 10월	마을 복지회관 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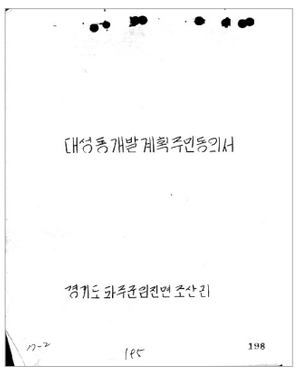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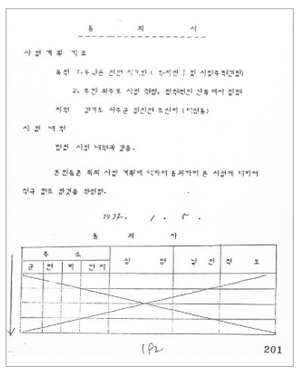
대성동 건너편 기정동 '평화의 마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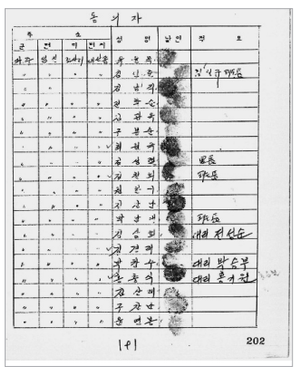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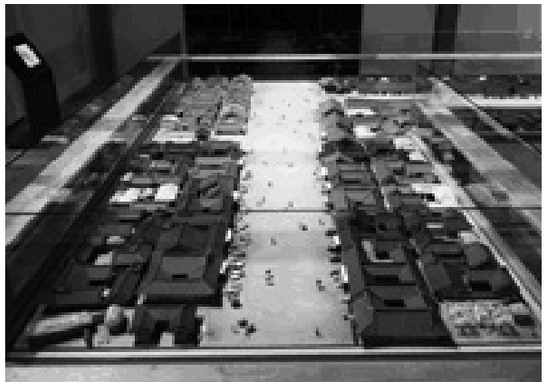
공회당 '자유의 집'의 전경과 그 실내(출처:국가기원, 대성동국민학교, 3회 대성초등학교 졸업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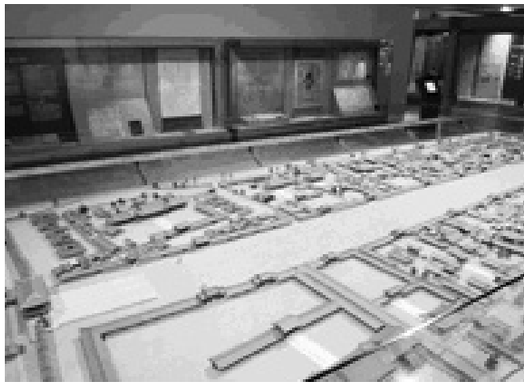






대성동개발계획주민동의서





서울역사박물관 상설 전시에 활용된 미니어처(출처:서울역사박물관)

어 마을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가 형성되었고 1978~1980년 한 차례 더 이루어진 대성동 종합개발 사업을 통해 마을은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도로가 깔리고 현대식 주택이 들어서는 등 마을 주민들의 삶이 현대화 되었고 동시에 팔각정 등의 국가적 상징물이 축조되었다. 이는 대성동 개발의 목적이 DMZ 인근의 유휴농경지 개발뿐 아니라 선전마을개발에 주된 목적이 있었음을 시사하며 이는 국가기록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대성동마을은 민간인이 거주하는 최북단 지역으로 정부의 각종 혜택과 꾸준한 지원과 관심으로 현재의 마을에 이르게 되었다.

나. 자유의 마을과 평화의 마을

군사·경제적 선전마을로서 남과 북이 경쟁적으로 개발한 대성동 자유의 마을과 북한의 기정동 평화의 마을을 미니어처로 비교하여 연출한다. 미니어처는 실제 사물을 일정한 비율로 축소시킨 모형으로 한 눈에 볼 수 없는 사물의 원형을 입체적으로 구현함으로써 마치 멀리서 조망하듯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관람객은 대성동마을과 기정동마을을 전시공간 안에서 조망할 수 있고 또한 쉽게 비교·대조할 수 있다.

본 전시는 이와 같이 대성동마을과 기정동마을을 비교 전시하여 각 마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나아가 남북한 마을과 그 속에서의 생활을 비교하게 한다.

기정동마을은 대성동마을과 함께 대한민국 분단 현실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마을이다. 기정동마을 역시 대성동마을과 마찬가지로 1953년 7월 정전협정을 체결할 당시, '남북 비무장지대에 각각 1곳씩 마을은 둔다.'는 규정에 따라 조성된 마을이다. 또한 이 마

을은 대성동과 같이 북한에서 유일하게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민간인 거주지이다. 기정동 마을은 개성시 판문군 평화리 남쪽에 위치하는 마을로서 본래 '틀늪이' 또는 '트느피' 마을로 불렸다. 그 후 마을에 기계로 우물 물을 퍼올리는 관개시설이 설치되자 마을 이름을 기정동으로 개칭했다.

기정동마을은 판문점과 도라산 전망대에 오르면 볼 수 있을 정도로 이웃마을인 대성동마을과 인접해 있다. 이 두 마을은 마을 사이에 넓은 곡창지대가 펼쳐져 있다. 현재는 사천(沙川)을 따라 형성된 자연적 경계로 분리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마을간 교류가 많았다. 두 마을은 불과 1.8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분단이라는 현실 상황하에 지난 60년간 왕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

대성동마을과 기정동마을은 정전협정의 내용 중 '남북 비무장지대에 각각 1곳씩 마을은 둔다.'는 규정에 따라 그 해 8월 3일 남한의 대성동마을과 함께 조성되었다. 비록 두 마을 모두가 각 체제의 선전을 위한 보여주기 식의 마을로 활용되었을지라도 서로 다른 체제하에서 두 마을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다. 이렇게 이웃하던 두 마을이 정전협정 이후 갈라져 다른 운명을 겪었고 그 결과 오늘 날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과 문화를 형성했다.

(4)대성동 사람들의 삶(자유의 집)

① 전시 개요



인터렉티브 영상을 활용한 전시(출처:전쟁기념관)

JSA부대원의 경호하에 관람객들이 북한과 가장 가까이 살면서 겪어야 했던 대성동마을 주민들의 특수한 삶을 체험하는 공간이다. 대성동 사람들의 주거와 생활, 생업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다. 특히 민통선 밖의 사람들과의 생활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이들의 삶이 지닌 특징과 분단의 아픔을 알도록 한다.

인터렉티브 체험관에서는 대성동사람들과 JSA부대원의 인터뷰 영상과 관람객 몸에 투사(조준)되는 인터렉티브 영상을 통해 북한군 사정거리 안에서의 평온과 긴장된 삶과 수난을 체험하도록 한다. 또한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간직해온 대성동마을을 통해 평화와 통일의 중요성을 되새겨보게 한다.

② 전시 프로그램(안)

가. 민통선 안의 삶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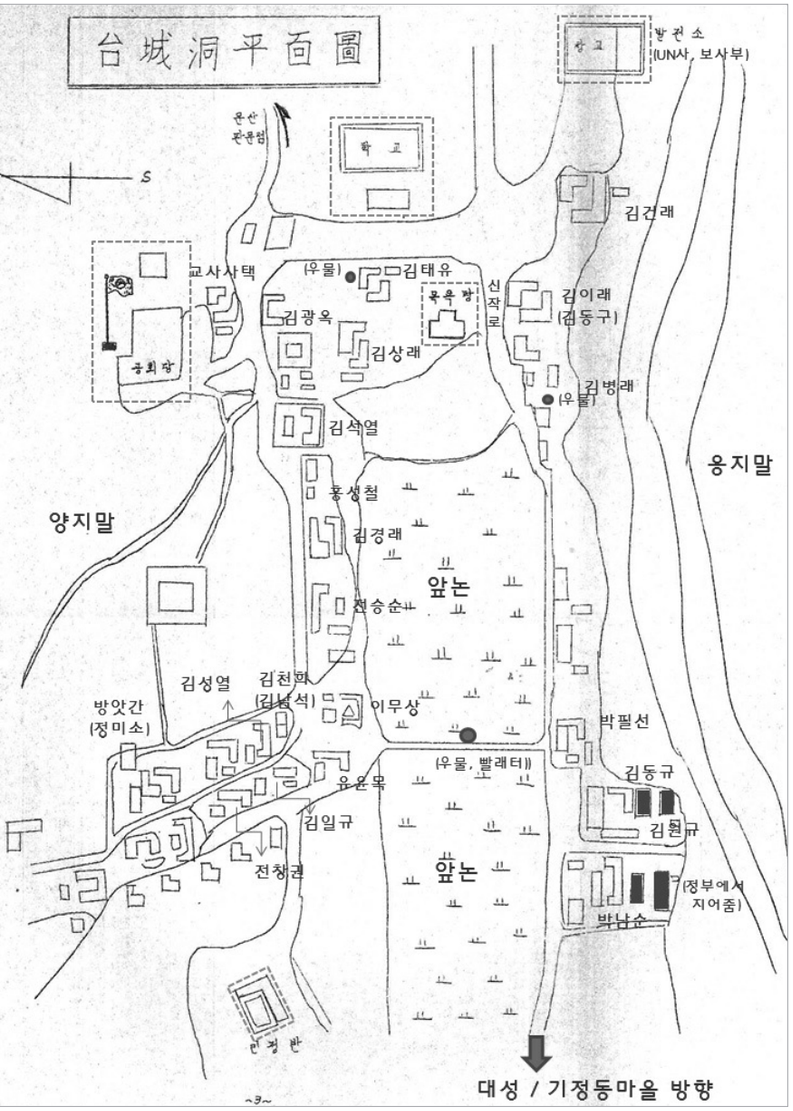
관람객은 민정반(JSA)과 동행하여 군사분계선 인근의 생업활동, 혼인에 따른 남녀의 거주권 등 대성동마을의 특수한 생활문화를 체험한다. 이를 통해 대성동마을 주민들이 영위한 독특한 생활문화가 형성된 배경과 환경을 이해한다. 또한 마을 주민들이 전하는 삶의 이야기와 인터렉티브 영상을 통해 관람객은 주민들의 입장 및 시선에 몰입됨으로써 주민들이 겪어온 삶의 애환과 그의 근본적인 원인인 분단의 아픔을 느낀다.

가) 대성동마을의 지형과 역사

대성동마을은 1918년 제작된 지형도를 통해 과거 마을의 모습과 역사를 파악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마을이 고려시대 수도인 개성과 인접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 전까지도 소급될 수 있다. 1918년 제작된 수치지형도를 살펴보면 대성동마을 동쪽으로 구릉지(산)가 마을을 감싸고 있으며, 그 너머로 의주길이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서쪽으로는 넓은 농경와 분지천이 북에서 남으로 흘러가고 있다. 또한 당시 대성동마을이 소속되어 있던 조산리에는 설립된 몇 채의 건물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당시 대성동마을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파악해 볼 수 있다.



1918년 수치지형도



1972 대성동 개발사업 이전 마을배치도(출처:국가기록원, 1972 대성동종합개발, 재편집)

예로부터 대성동마을이 소속되어 있는 조산리는 분지천을 경계로 개성부와 접해있는 지역이다. 6·25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대성동에서 가장 근접한 대도시는 개성(송도)으로서 대성동과는 동일생활권이자 문화권을 형성해왔다. 대성동마을은 장단에서 개성으로 가는 의주길상에 위치해 있어 주요한 교통거점(초현참, 초현주막)으로 대성동마을과 개성 사이에는 잦은 왕래가 있었다. 개성은 마을 서쪽으로 직선거리 11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마을 사람들은 분단 이전까지만 자전거를 타고 개성까지 장을 보러 다녀오기도 하였으며, 개성에 장이 들어서면 농산물 등을 내다 팔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분단 이후 더 이상 남한에서는 개성으로 왕래할 수 없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대성동마을 주민들의 생활권은 개성에서 파주시나, 문산읍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마을 주민들은 파주시 버스터미널에서 대성동마을까지 버스를 타고 오고 간다.

대성동마을 주민들은 한국전쟁이 끝난 후 1953년부터 마을에 모여살기 시작했는데, 6



1960년대 마을모습1



1960년대 마을모습2

년이 지난 후에도 제대로 된 집 대신 초가집이나 움집과 같은 형태의 임시주거 시설을 짓고 살았다. 이에 미군과 정부는 1959년 문화주택과 동사무소, 공회당 등을 건립하여 대성동마을은 농촌마을로서의 기반을 갖추기 시작했다.

대성동마을의 개발 이전 모습은 1972년 대성동개발사업 이전 마을의 현황을 기록하기 위해 제작된 마을배치도와 사진자료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당시 사진자료를 통해 마을의 풍경 및 주민들의 삶을 파악할 수 있다.

대성동마을은 강릉 김씨 집성촌으로 마을에 강릉 김씨는 14가구가 거주하고 있고 12대조와 13대조를 선산에 모시고 있다. 현재(2014년 7월 기준) 마을에는 48가구 51세대 208명이 거주하고 있다. 거주민 중 남자가 100명, 여성이 108명이다.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은 농업을 통해 생업을 이어가고 있다. 오직 2가구가 문산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파주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1명 있다.

나) 대성동마을의 인문과 사회 환경

대성동마을 주민들은 남한 내 여느 지역과는 다른 삶을 살아간다. 현재 마을에 살고 있는 대부분 주민들은 휴전협정 당시 마을주민으로 등록되었던 사람들과 그 후손들이다. 그 이외의 주민들은 거주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 자유의 마을로 불리는 대성동마을에 사는 주민들은 군 입대를 선택적으로 행하고 토지에 대한 경작권만이 인정되어 지방세 면세 혜택 등을 받는다.

대성동마을의 주민으로 인정 되면 출입증이 발급되어 이를 통해 신원확인을 받는다. 주민들은 통일대교의 출입은 24시간 가능하고 JSA의 출입은 주간에 비교적 자유롭다. 마을 주민들은 방문객과 같이 경호병의 호위하에 출입을 해야 하는 수고스러움에서 제외된다.





1960년 문화주택 전경(출처:국가기록원자료, e-영상역사관)

대성동 주민의 거주권은 일 년에 240일(8개월 정도)을 마을에서 거주해야 유지되기 때문에 매일 민정반에서 마을주민 인원체크를 한다. 마을주민 인원체크는 동절기와 하절기 다른 시간에 진행된다.

마을 밖에서 거주하지만 거주권이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는 병원에 입원한 경우와 군에 입대한 경우, 그리고 자녀의 교육을 위해 외지 생활을 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될 때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마을을 담당하고 있는 부대 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마을 안에는 초등학교만 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을 밖으로 나가야 한다. 대성동 학생들은 대부분 문산에 있는 학교로 진학한다. 과거 대성동 초등학교 졸업 시 전국의 모든 학교에 지원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공동학군제가 실시되어 문산 등 파주 관내의 중고등학교로만 진학이 가능하게 되었다. 지금은 대부분의 가정에 자가용이 있어서 마을에서 통학을 하는 주민들도 있지만 교통수단이 없던 시절에는 진학을 위해서 무조건 마을 밖에 거주해야만 했다.

대성동마을에는 마을의 대소사에 관여하는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가 있고 주민이 상을 당했을 시 돕기 위한 상조회, 그리고 생산 활동을 통해 서로 이익을 증진시키는 생업조직 등의 마을조직이 있다. 다른 농촌마을과는 다르게 외부와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 대성동마을에서 마을 내 조직은 마을주민들의 자급자족적인 생활양식에 있어 필수불가결하다.

표16. 대성동마을 개요

구 분	내 용
명 칭	자유의 마을(대성동마을)
행 정 구 역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
위 치	북위 37°56′28.03″, 동경 126°40′44.92″
생 업	농업
기 후	연평균기온 10.4℃, 강수량 1,184㎜
주변 주요시설	DMZ, 판문점, 도라산전망대, 남북출입국사무소, 자유의 다리, 군사분계선
자 연 환 경	대덕산(大德山, 해발237m), 백학산(白鶴山, 해발229m), 도라산(都羅山, 해발 267m), 진봉산(進鳳山, 해발 400m), 덕물산(德物山, 해발288m), 군장산(軍藏山, 해발 278m), 여니산(如尼山, 해발241m), 분지천, 사천(沙川)

다) 대성동의 생업

대성동마을의 주요 생업인 농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논농사로 대성동에서는 연간 약 2250톤의 쌀이 생산된다. 또한 마을 대부분의 농경지는 마사토로 배수가 잘되어 인삼과 콩을 재배하기에 적합하다. 콩 재배의 역사는 일제강점기에 군내국민학교의 학교 마크가 콩잎이었을 정도로 길다. 그 외 마을의 밭작물로는 고추, 마늘, 양파, 호박 깨 등이 있다.

6·25 전쟁 전에는 지금보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토가 적었기 때문에 작물을 조금씩 재배할 수밖에 없었고 논보다는 밭이 많았고 삼포밭(인삼밭)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이 논농사로 경작된다. 시대에 따라 기르는 작물도 변화하였다. 과거 조, 보리, 밀 농사를 많이 지었지만 현재는 거의 하지 않는다.

대성동마을의 토지는 UN군에 의해 관리되므로 주민들에게 토지의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고 경작권만 인정된다. 그에 따라 주민들 간의 공식적인 매매는 불가능하고 대신 주민들에게 한해서 경작권이 매매된다. 경작권은 6·25전쟁 직후 마을로 주민들이 돌아오게 되면서 부여되었다. 돌아온 주민들이 자신이 경작할 농토를 개간하면 UN군은 그 땅에 대한 경작권을 주민들에게 주었다. 에 의해 농토는 다시 들어온 주민들이 개간해서 만들었는데 당시 토지에 대한 경작권은 그 토지를 개간한 사람이 갖게 되었다.

마을 주민이 경작하는 농지 중에는 군사분계선 근처에 있는 농지도 있다. 이 경우 하루 전날 미리 일정을 알려야 한다. 그러면 군 당국에서는 농지 주변의 위험요소를 카메라로 사전에 확인하고 다음 날 주민과 함께 농지로 향한다. 주로 인원점검을 할 때 이러한 사항들을 함께 확인한다고 한다. 현재 군사분계선 지역과 가장 근접한 부분은 방축골 지역으로 이곳으로 농사일을 갈 때에는 1개 분대 정도의 병력과 함께 간다.

생산된 농산물은 주로 농협이나 정부수매로 판매되지만 현재는 마을 내 조합을 결성하여 판매하려고 준비 중이다. 마을 이름을 앞세워 마을의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품질 좋

은 농산물이라는 측면을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함이다.

한편 대성동마을 주민들은 무분별한 개발 및 환경파괴와는 거리가 먼 마을의 청정 자연환경 속에서 주민들만의 생활 풍습을 영위해왔다. 과거 JSA상황은 오늘날과 같이 삼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정된 구역에 한해 정식으로 허가를 내어 사냥하도록 했다. 마을 주민들은 대성동의 약자인 'TSD'라고 쓴 노란 완장을 차고 'TSD Hunting' 팀으로 인가 사냥을 하였다. 종종 사냥을 하다가 지정된 영역을 벗어나면 일명 '몽키하우스'로 불리는 미국영창에 끌려가 조사를 받기도 했다. 또 사냥을 하러 산을 돌아다니다 보면 발에 지뢰가 걸리기도 했다. 밀렵을 엄격히 규제하는 법이 제정된 뒤 허가를 받은 사람만 사냥허가철에 사냥을 할 수 있다.

라) 대성동의 세시풍속

대성동마을 풍속으로는 천렵이 있다. 마을 산 뒤쪽의 샘이 잘 나오는 우물이 있고 그 옆에는 연못이 있다. 연못으로 흘러드는 물이 많아 고기도 많이 있었다. 6·25이전에는 이곳에서 천렵을 많이 해먹었다. 천렵날이 되면 주민들이 밀가루나 솥 등 천렵에 필요한 물건과 음식들을 가지고 모인다. 천렵 때 잡히는 고기는 붕어, 메기, 쏘가사리 등 우리나라에서 잘 잡히는 고기들이 잡혔다. 천렵 시기는 복중에 많이 했고 주로 중복 지나 말복 전쯤으로 잡았다. 그러나 개천의 범람을 막기 위해 제방을 쌓으면서 연못은 사라지게 되었고 이러한 풍습도 마을 주민들에게서 앗아갔다.

마을의 어린이들은 꼴을 베러 갈 때 노는 '꼴단치기', 벼를 벨 때 하는 '벼뭇내기' , 전쟁놀이, '쥐불놀이' 등을 하고 놀았다. 꼴단치기는 낫치기의 일종으로 꼴을 베러간 아이들이 한 움큼씩 꼴을 모아 쌓아두고 거기에 낫을 던지는데 낫이 가장 똑바로 꽂힌 사람이 꼴단을 가져가는 놀이었다. '벼뭇내기'는 10뭇 또는 20뭇을 가장 빨리 베어 묶는 사람이 이기는 놀이이다. 벼를 빨리 베기 위해서 하는 놀이였다. 쥐불놀이는 겨울에 많이 했는데 일상적인 놀이로도 하고 8월 보름날 달맞이(추석) 때나 정월대보름 같은 명절에도 했다.

마) 대성동 사람들의 일생의례

대성동마을 주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거주권을 인정받기란 꽤 까다롭다. 휴전 당시 마을(행정구역상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에 주소지를 둔 사람의 직계만 거주할 수 있었다. 시집온 며느리는 주민이 될 수 있지만, 결혼한 딸은 떠나야하는 등 거주권 심사가 까다로워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민의 수는 큰 변화가 없다. 여자가 시집을 와서 대성동마을에서 살 수 있지만 남자들은 이 곳 대성동 출신 마을 처녀와 결혼을 해도 이곳에서 살 수가 없다고 한다. 이는 병역 면제 받으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에 따라 대성동에서는 혼인식 때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대례를 치르고 혼인 당일 신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과거에는 신랑이 동네 처녀에게 장가들러 왔을 때는 '재꾸러미 던지기'라 하여 재를 봉투에 담아 두었다가 신랑에게 던지는 풍습도 있었다. 또 혼인 후 첫날밤을 보내는 신랑 신부를 엿보는 풍습도 전해졌다. 장가를 든 후 며칠 후에 신랑이 신부와 함께 처가에 가면, 동네사람들이 모여서 신랑을 매달고 "너 뭐 먹었어? 너 신부집에 와서 뭐 먹었냐? 하나씩 대라."며 신랑의 발바닥을 때린다. 그러면 신부집에서는 그 음식을 하나씩 그대로 내다 놓아야 한다.

한편 대성동마을 주민들은 과거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날 저녁 만신을 불러 '자리걷이'를 많이 했다고 한다. 자리걷이는 만신이 죽은 사람의 혼이 들어왔다고 하면서 망인의 소리를 내는 것으로 주로 망인이 상주들에게 하는 말을 전한 한다. 요즈음도 자리걷이 하는 집이 간혹 있다. 대성동이 태성으로 불렸을 때는 '나리굴 무당'이라고 하는 대성동마을의 단골 만신이 자리걷이를 했다. 나리굴 무당은 이웃의 마을 나리굴에 사는 만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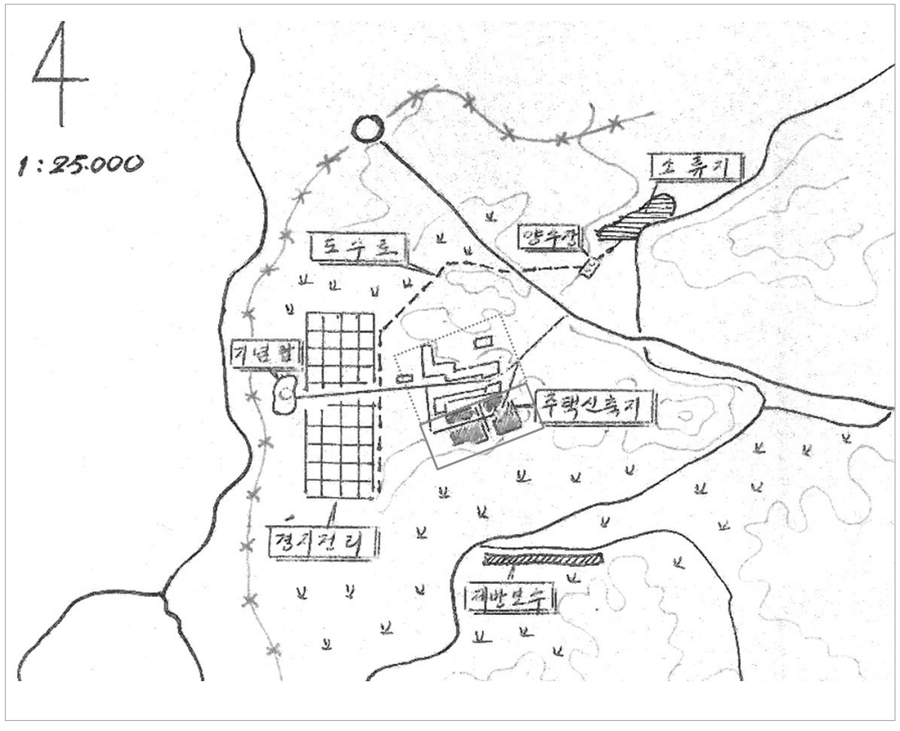
또 마을 사람들은 만신의 굿을 통해 치병을 염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큰 병이 아닌 경우 소위 민간요법에 의지했다. 오늘날은 자가용이 있어 주민이 아프면 문산이나 금촌에 있는 병원으로 향하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못해 가정에서 치료를 행했다. 예컨대 감기 걸려서 열이 나고 하면 콩나물에 파를 넣고 끓여서 먹고 땀을 내면 낫는다고 생각했다. 당시는 콩나물을 집에서 길러서 먹었기 때문에 흔했기 때문이다. 또 배탈이 나면 옛날에는 양귀비를 길렀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끓여서 먹으면 나았다. 양귀비 중에서도 특히 대를 삶아 먹었는데, 지금은 양귀비를 키우면 걸리기 때문에 집에서 키울 수 없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도 장염 같은 것에는 양귀비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다.

오늘날에도 마을 내에는 보건소 등의 의료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경비대대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후송되거나 경비대대 내 의료진의 진료를 받는다. 또 응급 상황인 경우 출입허가를 받으면 외부의 구급대가 들어올 수 있다고 한다. 현재에는 이렇게 군의 협조로 빨리 후송 될 수 있지만 전쟁 중에는 군에서도 물자 등이 부족하여 마을 내에서 환자가 발생해도 후송이 가능할 때까지 무기한 기다려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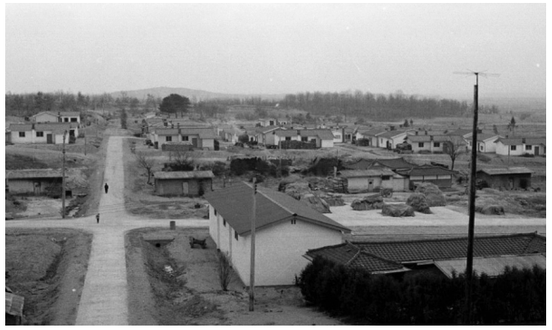
바) 대성동의 개발계획

1971년 시작해 1972년 완료된 대성동 종합개발을 통해 대성동마을은 대대적으로 재편성·배치되었다. 개발사업의 주요 내용은 대북선전 목적의 주택신축, 국기게양대 설치 등과 주민의 자립영농을 위한 경지정리사업이 주를 이루었다. 주요인사에게 완공식을 기념해 발송한 안내장에는 대성동종합개발의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감도가 첨부되어 있어 참고할 만하다.

한편 1979년에는 대성동종합개발이 재개 되어 그 다음해인 1980년 12월 준공되었다. 이 개발은 북한 기정동마을(평화의마을)에 대응하여 대북 선전목적을 위한 마을현대화와 1971년부터 추진해왔던 DMZ 주변의 농지개발 및 경지정리사업에 그 중요도를 두고 있었다. 1971년 개발을 통해 구마을과 신마을이 나란히 자리 잡고 있었던 대성동마을에는 1979년 종합개발을 통해 구마을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구마을 자리는 격자로 구획하여 주택필지와 공공필지가 조성되었다.



1972 대성동 개발사업 개발계획도(출처:국가기록원, 1972 대성동종합개발)



1973년 대성동마을 전경



1981년 대성동마을 전경

1980년에는 바둑판식 도로망과 상하수도시설, 각종 공공건물 등의 인프라시설과 현대식주택이 조성되었다. 또한 주변의 광대한 농경지가 경지 정리되면서 마을주민들은 대규모 영농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접경지 마을의 특수성으로 인해 정부의 시책으로 이루어진 두 차례의 종합개발을 통해 마을이 국가적 계획에 따라 전면적으로 배치되면서 구축된 마을 인프라는 주민들의 삶의 방식에 있어서도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결국 대성동종합개발을 통해 대성동마을은 남한 내 여느 농촌마을의 모습을 벗고 현대화된 농촌마을로 재탄생하였으며 그에 따라 주민들의 삶의 양식도 재편성되었다.

이처럼 정부 주도하에 진행된 대성동종합개발은 마을 내 여러 인프라 구축을 통해 마을 주민들의 삶에 직간접적인 변화를 끼쳤지만 그 중에서도 주민들이 주거하는 주거 시설에 가장 직접적인 변화를 불러왔다. 전쟁 당시 폭격으로 인해 거의 모든 주택 시설이 파괴되자 앞서 언급했듯 마을 주민들은 움막이나 토굴을 짓고 살았다. 1959년에 이르러 보건사회복지부와 미국 USOM에서 무상으로 문화주택과 가옥에 사용할 기와를 제공했다. 문화주택의 경우, 부실 공사와 농가에 맞지 않는 설계를 이유로 주민 측이 입주를 거부하였고 보수공사를 하는 등 곡절을 겪었다. 주민들은 1972년 종합개발이 이루어 질 때까지 기존의 전통 가옥과 문화주택에서 생활하였다. 지금 대성동마을에 남아 있는 주택의 대부분은 1980년에 지어진 것으로 1979년부터 1980년까지 종합개발의 일환 사업이었다. 이를 통해 기존에 남아 있던 전통가옥(기와집, 초가집 등)과 새마을주택이 모두 헐리고 마을 전체에 현대식주택단지가 조성되었다.

이와 같이 대성동마을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민정반(JSA)과의 동행을 통해 경험함으로써 그들의 삶을 이해한다. 이 과정에서 관람객은 동시에 그들의 삶과 문화가 이렇게 밖에 형성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 즉, 남북한 분단이라는 대치의 상황을 인지하게 된다.

나. 평화와 통일이 시작되는 곳



AR 증강현실을 활용한 전시 사례 1(출처:강화호국박물관)

6·25전쟁 이후 최초의 평화지역이자 대한민국 최북단 마을 등 대성동이 갖는 역사지리적 의미와 가치 그리고 미래 비전을 영상을 통해 설명한다. 이를 위해 대성동마을이 남북 교류 및 화해의 장으로서 처음 물꼬를 튼 1984년의 사례를 제시한다. 또한 개성공단이 남북 평화 통일의 측면에서 가지는 의미를 설명하고 그 지리적 범위를 대성동마을로 확장하여 대성동마을 역시 남북한 관계 개선의 기점에 있음을 역설한다.

1984년 7월 초순부터 중순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경기 중부지방에는 수재가 발생하였다. 이 수해는 사상자 70여 명, 재산피해 670여 억 원의 피해를 입혔다. 설상가상으로 수해복구가 이루어진지 1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8월 말 다시금 집중호우가 덮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측은 남한의 수재민을 위해 구호물품을 전달하고자 뜻을 밝혔다. 이에 남북적십자 간 실무접촉이 이루어졌고 수재물자 인도·인수 작업이 1984년 9월 29일부터 10월 4일에 걸쳐 진행되기로 합의되었다. 총 6일의 인수 기간 중 판문점을 통한 인수는 9월 29일과 30일 양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는 대성동마을 공터에 설치된 남한 적십자 임시본부를 통해 이루어졌다. 즉 대성동마을은 당시 냉전의 와해로 인해 싹튼 평화적 분위기에서 남북 간 화해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한편 대성동마을에서 서남쪽으로 약 4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개성공단은 한민족이 함께 번영을 향해 나아가는 상징적인 장소이다. 개성공단은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교류협력의 일환으로 같은 해 8월 9일 남쪽의 현대 아산과 북쪽의 아태, 민경련 간 '개성공업지구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 체결이 조성의 단초가 되었다. 그 후 2003년 6월 개성공단 착공식, 2004년 6월 시범단지 2만 8천평 부지조성과 10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사무소가 개소되었다. 그 후 약 3년 뒤인 2007년 6월 1단계 2차 분양업체를 선정하였고 10월에 1단계 기반시설 준공이 있은 후 점진적으로 확대·발전하였으며 그 결과 2010년 9월에는 입주기업 생산액이 10억 달러를 돌파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2012년 1월에는 북측 근로자가 5만 명을 돌파했다.

이처럼 남북한의 공동 협력의 장인 개성공단은 대성동마을에서 공단 전체 모습이 보일 정도로 마을과 가까운 위치에 있다. 그에 따라 훗날 남북관계가 보다 진전되어 이러한 협력의 폭이 넓어져 개성공단이 확대되면 인접하고 있는 대성동과 기정동마을도 평화와 상생의 마을로 거듭날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대성동마을이 위치한 지정학적 공간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시작되는 기점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R 증강현실을 활용한 전시 사례2(출처:강화호국박물관)

(5) 200m 눈앞의 군사분계선 (팔각정→국기게양대)

① 전시 개요

불과 2백 미터 앞에 군사분계선을 앞두고 있으면서 북한군 초소 및 마을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팔각정을 통해 분단과 휴전의 현실을 상기시킨다. 관람객이 팔각정, 마을길, 국기게양대로 이어지는 안보투어길을 따라 걸으면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에 대

한 경각심이 자연스럽게 일게 된다. 이러한 전쟁에 대한 인식은 인위적인 전시 공간이 아닌 실제 군사적,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팔각정과 국기게양대를 전시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극화된다.

한편 안보투어길과 마을 곳곳에 QR코드 및 NFC 기반의 모바일 증강현실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람객이 능동적으로 관람 상황에서 과거의 역사와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한다. QR코드는 바코드보다 훨씬 방대한 양의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격자무늬의 2차원 코드로 방문객은 각자 소유한 스마트 폰을 활용해 QR코드를 스캔하여 저장된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또한 가상현실의 한 분야로 실제 환경에 가상 사물이나 정보를 합성하여 원래 환경에서 존재하는 사물처럼 보이도록 하는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그래픽 기법을 사용하여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② 전시 프로그램(안)

가. 방탄유리의 팔각정



대성동 팔각정(1980년 완공)



방탄유리 시공 후 대성동 팔각정(출처:연합뉴스)

망원경으로 북한군 초소와 기정동마을을 조망하게 함으로써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에 대한 경각심과 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또한 투명 모니터와 증강현실을 팔각정 내에 구축, 구현하여 전시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 설명을 보충한다.

전시 공간인 팔각정은 1980년 12월 18일 파주시에서 방문객들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 마을에서 북한과 가장 가까운 지점에 설치된 시설물이다. 이 지점은 마을 지명의 유래가 된 대성(台城)이라는 토성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다. 팔각정에서는 망원경 없이 북한의 기정동마을과 개성공단 그리고 개성의 송악산까지 전망할 수 있다.

팔각정은 1980년 설립될 당시 2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자(亭子) 형태로 만들어졌다. 30년 후인 2010년에는 남북한의 긴장 상황에서 총격 등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충돌에 대비하여 2층 북측 방향 전면부 3개면에 방탄유리가 설치되었다. 이 때 설치된 방탄유리와 적군이라는 인식으로 강화된 방탄유리를 통해 바라보는 희뿌연 북한의 모습은 분단의 실상을 실감하게 하는 동시에 불투명한 남북한 관계를 상기시킨다.

한편, 팔각정은 동명(同名) 마을인 제주도의 대성동마을과 자매결연이 맺어진 장소이기도 하다. 1993년 5월 13일 서부전선 최북단인 파주 대성동마을과 최남단인 제주도 남원읍 대성동마을은 동명을 인연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결연식에서 두 마을 대표들이 지역 특산물을 서로 교환하고, 비록 한자와 그 의미는 다르지만 한글로는 동명인 인연을 기념하면서 앞으로 두 마을 간의 돈독한 관계 유지를 다짐했다.

나. 같은 하늘아래 2개의 깃발

국내 최대 높이의 국기게양대와 세계 최대의 높이인 북한 인공기를 동시에 조망하며 대성동마을을 수호하는 민정반(JSA)을 견학한다. 보다 높은 하늘을 향해 경쟁적으로 치솟은 서로 다른 두 개의 국기를 통해 현 한반도의 분단 현실을 인지한다. 같은 바람에 말없이 펄럭이는 두 국기가 보이지 않는 신경전에 의해 서로 다른 위치에 걸려있는 모습을 통해 이러한 분단 인식은 강화된다. 또한 국기게양대 옆인 민정반 사무실을 방문하여 민정반의 역사와 주요 임무 등 대성동마을에서의 기능과 의미를 살펴본다.

대성동마을의 게양대를 방문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관람객은 게양대에 내재된 남북한의 심리적 대결 구도를 읽을 수 있다. 또한 관람객은 오늘날 점점 더 심화되



공회당 옆 국기게양대(출처:국가기록원 자료, 1975년)



현재 국기게양대(2014)

대성동마을 국기게양대

고 있는 정치적, 군사적인 긴장관계 속에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남북한의 상황을 떠올리게 되며 이는 정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완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전쟁의 연장임을 이해한다.

국기게양대는 초기 대성동 공회당 언덕 위에 건립하기로 계획되었으나, 1979년부터 1983년 사이에 이루어진 대성동 제2차 종합개발 공사 중인 1980년 12월 18일 현재의 위치에 세워졌다. 85m의 높이로 국기게양대는 설립되었으나 국기봉이 짧아 국기 게양 및 하기 시 국기가 손상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이에 1981년 12월부터 1982년 1월에 걸쳐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국기봉의 높이를 약 15m 더 높여 99.8m로 보강하였다.

이처럼 국기 손상의 문제로 국기게양대를 증축하여 군사분계선 너머의 북한에서도 충분히 잘 보일 만큼 높게 설치된 것이다. 국기게양대에 걸린 대형의 태극기는 북한의 인공기와 마주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도 역시 남한을 의식하여 높게 인공기를 게양했다. 기정동마을의 인공기 게양대도 원래는 80m 남짓의 높이로 설치되었으나, 남한의 게양대가 보수공사를 마쳐 더욱 높아지고 난 1년 후 재공사에 착수했다. 1982년 2월 16일 북한은 약 165m 높이로 시공한 첨탑에 가로 30m, 세로 15m의 인공기를 게양했다.

(6) 인류평화의 세계유산으로(마을회관)

① 전시 개요



현 마을회관

본 전시에서는 인류평화의 문화유산, DMZ 청정자연 생태 등 대성동마을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해 국내외 홍보한다. 대성동마을이 세계문화유산으로서 지니는 의미와 가치를 역설하고 실제 등재를 위한 노력과 실현을 설명한다. 또한 전시공간에 평화통일을 위한 온 국민의 염원과 열정을 결집하는 온·오프라인 참여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성동마을이 갖는 평화와 통일의 상징성을 강화한다. 즉, 본 전시에서는 대성동마을이 분단의 상징에서 인류평화의 상징으로 나아가고 있는 과정임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성과를 전시한다. 마을회관을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면서 동시에 회관 일정 공간에 대성동마을의 청정 자연 환경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대성동마을 브랜드 숍(Brand Shop)을 계획한다. 브랜드 숍에서는 대성동마을의 특산품 외에도 대성동마을의 역사와 상징적 의미 그리고 주민들의 삶과 문화 등 전시를 테마로 한 다양한 아트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한다. 이는 대성동마을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경제적인 삶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

이는 대성동마을 농가와 연계한 체류형 농촌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기대할 수 있는 효과이다. 대성동마을에서는 체류형 프로그램을 시행하면 우선 마을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방문객의 체류에 필요한 하드웨어 혹은 소프트웨어의 인프라를 마을 주민들이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은 부수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체류형 농촌프로그램은 현재 다양한 농촌 마을에서 마을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의 한 형태이다. 또한 대성동마을에서도 주민들과의 협의 하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방문객에게 대성동마을에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제공한다면 전시의 연장선상에서 전시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보다 심도 있게 전할 수 있다. 방문객은 실제 마을 주민의 생활에 침투·편입되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비교적 최근 신축되어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 대성동마을회관을 전시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개성공단과 북쪽이 바라다보이는 옥상의 관망대를 또 하나의 전시 공간 및 체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전시공간으로 활용될 대성동마을회관은 대성동마을 제1차 종합개발이 진행되던 1972년에 신축된 것으로 2층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다. e-영상역사관에는 당시 마을 주민들과 학생들이 벽돌을 나르며 도왔던 모습이 영상으로 남아 있어 마을회관이 대성동마을 사람들의 힘으로 설립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 후 마을회관은 1997년 신축되었다. 회관 내에는 마을식당과 구판장, 노인정, 회의실과 롯데시네마(영화관) 등의 시설이 구축되어 현재까지 마을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회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구조로 이루어 졌으며 옥상에 관망대가 있다. 이 관망대에서는 서쪽으로 개성공단과 기정동마을, 북서쪽으로는 개성의 송악산이 바라다보인다.

② 전시 프로그램(안)

가. 분단의 상징에서 세계의 유산으로

세계 평화의 상징으로서 대성동마을이 지닌 상징적 가치와 DMZ를 세계의 자연, 문화, 기록, 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홍보한다. 본 전시는 대성동마을 주변의 식생 자원과 문화적 자원을 소개한다. 또한 이러한 마을 자원이 가지는 가치와 의미를 역설함과 동시에 세계의 자연, 문화, 기록, 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홍보한다.

DMZ 지역에는 약 반 세기동안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채 수많은 생명이 공존하고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DMZ 지역에는 식물 2237종, 포유류 45종, 조류 260종, 양서·파충류 31종, 어류 143종 등 2710 여종이 서식하고 있다.

DMZ 지역의 산에는 떡갈나무와 신갈나무의 2차 식생과 물억새·억새초지가 발달해 있고 계곡에는 달뿌리풀과 갈대가 풀 바다를 이루고 있다. 또한 사향노루, 산양, 삵과 같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생존하고 있으며 장단반도 일원에는 두더지, 오소리, 너구리, 대륙족제비, 고양이,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다람쥐, 멧밭쥐, 멧토끼 등의 동물과 법적보호종인 삵이 발견되고 있다.

대성동에서는 집박쥐의 분(糞)과 오소리가 서식하고 있는 굴이 발견되었고 삼림지대에 흰 넓적다리 붉은 쥐가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마을 북쪽에 위치한 자연습지는 조류가 활동하기에 적합한 환경으로 매년 계절에 따라 철새들이 머물렀다 간다. 대성동 야산에는 딱새류를 비롯하여 뻐꾸기류, 딱따구리류, 까마귀류가, 경작지 부근에는 할미새류, 멧새류, 도요새류 등이 관찰된다고 한다. 대성동 자유의 마을 인근 농경지에는 1966년 2월과 1979년 1월에 국제적 멸종위기 종인 "따오기" 1개체가 관찰되었다. 대성동마을 저수지에서는 철마다 다른 조류가 머물렀다 간다. 여름철에 백로류인 덤불해오라기, 가을부터 겨울, 봄에 오리류, 겨울에 천연기념물인 두루미, 재두루미가 휴식을 취하고 있다.

마을 신설저수지와 임진강 지류인 사천수계의 소수로(小水路)에서는 피라미, 끄리, 누치, 참마자, 미꾸리, 동자개, 얼룩동사리 등이 서식하고 있다. 또한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대성동마을의 구성저수지와 임진강 지류인 사천수계의 수로(水路)에는 피라미, 끄리, 붕어, 묵납자루, 점줄종개, 동자개, 얼룩동사리, 잉어 등이 공존하고 있다.

대성리에는 주로 상수리나무가 우거져 있는데 특히 해발 50m미만인 군내면 대성동 주변의 구릉지에는 상수리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다. 마을의 상수리나무 군락은 숲지붕층(林冠層)에 우점하고 있고 키가 작은 나무층(관목층)인 상수리나무, 갈참나무, 떡갈나무, 신갈나무 등의 참나무류와 개옻나무, 보리수나무, 붉나무, 노린재나무, 희잎나무 등의 식물군락과 함께 생육하고 있다. 숲바닥에는 상수리나무의 실생(seedling)을 비롯하여 낙엽활엽수림을 구분하는 진단종(diagnostic species)인 반상록성 초본 노루발풀이 존재한다.

2010년에는 새로 4목 22종의 곤충이 발견되었으며 멸종 위기의 2급 곤충인 애기뿔소소똥구리(Copris tripartitus)와 왕은점표범나비(Fabriciana nerippe)도 그 중 하나이다. 이처럼 대성동 주면 DMZ 지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동식물들의 낙원으로 계속해서 멸종 위기의 생물들이 관찰되고 있는 세계적인 자연의 보고이다.

그에 따라 대성동 주변의 동식물 서식지를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호되어야 하는 자원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남한 정부는 현재 DMZ 내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파주지역 DMZ포럼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DMZ 세계평화공원 파주유치촉구 파주시민서명서'를 통일부에 전달해 파주지역에 유치해야 하는 당위성을 역설할 계획이다. 따라서 본 전시는 대성동 주변 DMZ의 청정 자연과 그 속에서 살고 있는 동식물을 소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자연 유산임을 알린다.

한편 대성동마을 주변에는 자연 유산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유적이 발견되어 새로운 가치를 부여받고 있다. 백제가 고구려와 대치하던 4세기에서 5세기대 근초고왕의 북진정책 때 전략적 요충지인 대성동 주변에 축조되어진 것으로 보이는 토성부터 고려시대 용문청동 재떨이와 조선시대 토기, 기와, 도자기, 맷돌 편에 이르기까지 역사시대의 다양한 유물들이 마을 주변에 편재해있다. 또한 강릉 김씨의 집성촌답게 마을에는 강릉 김씨의 선조들 묘역이 산포되어 있다.

나. 특산품 판매장

청정자연에서 생산된 대성동의 특산품을 판매하고 전시를 테마로 한 다양한 아트상품을 판매한다. 특산물 판매는 마을을 대표하여 홍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시 관람한 후의 기념품으로서도 의미를 갖는다. 관람객은 특산품을 통해 마을의 청정 자연환경을 상기하게 된다. 또한 중간단계 없이 관람객에게 판매함으로써 마을 주민의 경제적 이익 증진에 기여를 한다.

한편 특산품 판매장에서는 전시를 테마로 한 다양한 아트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한다. 이를 통해 대성동마을의 이미지가 형상화 되고 그에 따라 마을을 대표하는 이미지가 정

착된다. 이는 마을의 정체성을 반영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대성동마을만의 특성 상징적인 이미지를 심어준다.

대성동 주민들은 현재 “DMZ 대성동”이라는 상품명으로 마을에서 재배한 고춧가루, 참깨, 녹두, 개성인삼, 도토리묵 가루, 된장, 들깨, 메주, 참기름, 백태, 서리태를 판매한다. “맑은 물”, “맑은 공기”, “JSA청정농산물”등과 같은 슬로건으로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및 인간에 유해한 재배 과정으로 생산된 농산물과 차별화한 것이 전략이다. 현재 주민들을 대표한 대성동 부녀회를 생산자 명으로 등록, 부인회를 중심으로 관리 및 판매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특산물 판매체계는 아직 온전히 구축되지 않고 비정기적이며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마을 회관 내 특산품 상설 판매장을 설치하고 안정적으로 특산물을 수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산물 판매장에서는 대성동의 청정 자연환경에서 공해 없이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면서도 동시에 농산물의 성분 및 효능에 대해서도 설명하도록 한다. 경기 파주 통일마을 홈페이지(http://uni.invil.org/)의 ‘특산품 자랑’ 게시판에서는 통일마을의 특산품뿐 아니라 ‘대성동직거래농산물’이라는 항목을 통해 대성동의 농산물을 홍보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고 필요한 식품영양학적 정보들을 추가하여 농산품 전시공간으로 형성한다.

파주 통일마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대성동의 농산품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간략히 그 내용을 정리한다.

비무장 지대 내 마을인 대성동의 자연의 빛으로 직접 말린 태양초 고춧가루는 세계유일의 DMZ안의 무공해 청정지역인 대성동마을의 특산품중 하나로 이상적인 기후조건과 무공해 퇴비사용으로 생산한 공해 없는 고추로서 한국 전래의 매콤하면서 달달한 고추 맛이 아주 뛰어나다. 껍질이 두꺼워 고춧가루가 많이 나오며 붉은 빛이 고와 김장용, 매운탕, 실고추, 고추장용으로 최상품이다.

대성동마을의 또 하나의 특산물은 자연이 살아 숨 쉬는 곳에서 생산된 무공해 참깨이다. 참깨에는 50% 내외의 기름과 22% 내외의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칼슘과 인 등의 중요한 영양분을 많이 지니고 있으며 세사민, 세사몰린 등의 강력한 항산화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산패에 대한 안정성이 높고 국민보건상 매우 중요한 식품이다. 볶은 깨의 주성분은 단백질과 지방이며 무기질과 칼슘이 매우 많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대성동 참깨는 단백질의 질이 매우 우수하여 구성 아미노산이 동물성단백질에 비해서 조금도 뒤지지 않는 등 아주 우수하다.

비록 대성동 주민이 경작할 수 있는 토지가 한정되었기에 생산량은 적지만 대성동은 참깨 재배의 적지로서 임진강의 비옥한 사질양토에서 재배되는 대성동참깨는 기름이 많이 나고 특유의 고소한 맛과 향이 있으며 각종 영양소가 골고루 담겨있고 품질이 우수하여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또한 마을 주민들은 생산된 참깨를 가지고 참기름을 만드는데 직접 짜서 담았기에 고소한 맛과 향이 일품이다. 대성동 참기름은 사천강변의 풍부한 유기물이 함유된 토양에서 생산되는 품질 좋은 대성동 참깨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되는 무공해 참기름이다. 참깨의 단백질은 필수아미노산을 여러 종류 포함하고 있으므로 콩과 맞먹을 정도로 영양가가 있다.

한편 마을에서 생산된 녹두는 필수 아미노산과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이다. 녹두에는 철과 카로틴이 많이 있다.

대성동마을은 인삼을 키우기에 지리적 여건이 적합하다고 한다. 밤과 낮의 기온 차가 좋고 바람 역시 잘 통하고 토양의 물 빠짐도 좋다. 그래서인지 인삼의 향 또한 월등히 진하다고 한다. 지금은 생산 농가가 적어 소량의 인삼이 재배되고 있으나 점차 늘어날 추세로 보인다.

인삼은 뿌리가 마치 사람 모양을 닮은 식물로 잎은 가을에 말라죽지만 뿌리 부분은 살아 있는 다년생 반음지성의 숙근초이다. 인삼의 학명은 panax ginseng C.A.Meyer(1893)인데 어원을 보면 (pan:모든것),(axos:의약)으로 만병통치약으로 불린다.

인삼은 북위 30°~40°지역에서 자생하는 약용 식물로 우리나라는 33.7°~43.1°에서 재배되며 38°선(DMZ)상에 자라잡고 있는 ‘자유의 마을’ 대성동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그 인삼을 예로부터 유명한 개성인삼이라 하였고 대성동마을 주민들은 과거 인삼을 재배하여 개성시내에서 팔았다고 한다.

대성동마을 주민들은 마을의 맑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자생한 도토리를 주워 햇볕에 말린 후 껍질을 까서 도토리 열매를 갈아서 보자기에 짠 다음 그 앙금을 물과 섞어 다시 그 앙금을 가라 앉힌다. 이를 3-4회 반복한 후 밑에 있는 앙금을 햇볕에 말려 가루로 만든 것이 도토리묵 가루이다. 가루가 희며 묵을 만들었을 때는 묵의 색이 검붉은색이 된다. 대성동 도토리묵가루로 만든 도토리묵은 쫀득쫀득하고 그 맛은 더없이 좋다.

장단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콩을 사용하고 전통의 재래 방식으로 만들어 구수하고 단백한 옛 고향 된장 맛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그에 따라 대성동마을에서도 질 좋은



대성동마을의 특산물, 들깨(출처:경기 파주 통일마을 홈페이지)



대성동마을의 특산물, 백태(출처:경기 파주 통일마을 홈페이지)

콩이 생산된다. 된장에는 비린내를 없애는 교취효과가 있는데, 이것은 된장의 주성분인 단백질이 여러 냄새를 흡착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등어나 게 등 비린내 나는 생선요리와 일부 조수육 요리에 된장을 섞어 쓰면 비린내를 없애고 맛을 돋울 수 있다.

청정 지역인 비무장 지대(DMZ)의 맑고 깨끗한 공기, 비옥한 토양에서 재배된 무공해 들깨도 다른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다. 들깨는 색깔에 따라 세 종류로 분류되는데, 흰색인 흰깨와 검은 색의 검은깨, 갈색인 들깨로 나눈다. 이들은 성분 면에서 별 차이가 없으나 칼슘 성분에서는 검은깨가 1100mg으로 매우 많으며 흰깨가 630mg으로 들깨에 비해 많이 들어 있다. 한편 잎은 장아찌, 튀김 등의 조리에 이용되므로 채소로의 가치가 있다. 들깻잎 100g중에는 비타민 A가 20,000 I.U., 비타민 B1 0.01mg, B2 0.4mg, 니아신 0.5mg, 비타민 C 85mg이 들어 있고 비타민 E와 F가 들어 있는 우수한 식품이다.

마을 주민들은 장단 지역인 비무장 지대 내 대성동마을에서 직접 재배한 콩을 가마솥에 넣고 장작으로 불을 때 삶은 콩을 절구에 쪄서 손수 만든다. 이는 옛 우리 조상들의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든 것이다.

메주의 기원은 우리나라에서 삼국시대 초기에 만들어져 장류를 만드는 기본이 되어왔다. 메주를 만드는 방법은 잘 여문 콩을 선별하여 물에 불린 후 → 삶기 → 절구에 찧기 → 모양만들기 → 겉말림(2~3일간) → 재우기(짚을 포개어 쓰움. 4주) → 햇볕에 말리기 → 다시재우기(2개월) 순으로 한다. 메주가 만들어 지는 원리는 메주덩이를 따뜻한 곳에 보관하는 동안 볏짚이나 공기 중의 미생물이 자연적으로 접종되어 발육하며 단백질 분해 효소와 전분분해 효소를 분비하여 콩의 성분을 변환시킨다. 이렇게 되면 간장이나 된장 등의 고유한 맛과 향기를 내는 미생물이 더 번식하여 메주가 완성된다.

옛 장단소학교의 모표(모자에 달린 학교 마크)도 콩잎이고 그 당시 지리 부도(사회 교과서)에도 소개 되었다고 한다. 비무장 지대(DMZ) 내 있는 대성동마을은 장단 소학교까지 직선거리로 4km이며 이북5도 장단 군민회기 또한 콩잎이다. 이를 통해 장단 지역의 콩이 과거부터 유명했음을 알 수 있다. 대성동마을에서 재배한 백태는 비록 소량 생산으로 한정 판매되고 있지만 알이 크고 눈이 뚜렷하고, 타 지역 콩에 비해 구수한 맛이 자랑한다.

또한 콩은 일찍이 오곡의 하나로 꼽혀왔으며 전분식품인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에게는 쌀에 부족한 단백질과 지방질을 보완 공급하는데 안성맞춤이다. 또한 콩은 식품으로의 기능이외에 비타민 E 성분이 많이 들어 있다. 기온의 차가 크고, 토양의 물 빠짐이 좋은 DMZ 대성동마을에서 재배한 서리태는 알이 크고 눈이 뚜렷하여 타 지역에 비해 구수함이 더하다.

이렇게 대성동마을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은 마을의 청정 환경에서 마을 주민들의 피와 땀의 결실로 맛이 우수하고 건강하다는 점을 전시하고 특산품 판매장에서 실제 판매한다. 이렇게 마을회관 내 특산품 판매장을 활성화시켜 대성동마을 주민들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는 동시에 대성동마을의 깨끗한 자연 환경을 홍보한다.

6) 대성동마을 체험프로그램 제안

대성동마을과 그 주변의 전통마을들은 한국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평화롭던 여느 농촌 시골마을과 다르지 않았다. 현재 북한에 속하는 개성 인근마을로 나름의 문화와 전통을 이어가던 곳이었다. 특히, 서울에서 개성을 지나 의주로 가는 의주길(1번 국도)에 인접하여 있어 주변 도시와의 교류도 어렵지 않은 지리적 이점이 많은 마을이었다. 하지만 분단과 한국전쟁으로 이곳은 타의에 의해 정치적, 군사적 특수한 환경에 놓이게 되었고, 이에 대성동마을은 타의에 의해 변화를 요구받게 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마을 주민들 역시 고향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UN의 관할 하에 놓인 여러 가지 불편한 행정사항 등 여러 가지 고충을 감내하며 지내야 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이 정부로부터의 많은 관심과 지원 대상이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대성동마을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DMZ 안쪽에 위치한 마을로 60~70년대 북한과 치열한 체제 경쟁 하에 놓인 정부로서는 서로의 민낯을 가감 없이 바라다 볼 수 있는 대성동마을이야 말로 남한의 체제우월과 경제력을 자랑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기 때문이었다.

대성동마을의 배치와 주택 변화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맞물려 변화해 왔다. 1960년까지만 해도 북한에 대비해 경제적으로 열세를 보인 우리나라는 당시의 실정에 맞게 1959년 UN군의 협조 속에서 문화주택과 공공시설을 대성동마을에 보급해 주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대성동마을은 자연환경과 지형지세에 순응한 전통마을이었고, 주택은 대부분 초가집, 기와집이었으며, 농업은 대부분 인력과 우경에 의존하는 열악한 농촌마을이이었다. 1970년 전국적으로 시작된 '새마을운동'과 더불어 대성동마을에도 큰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근면, 자조, 자립정신을 바탕으로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특히, 대성동마을의 경우 주변 농경지에 대한 경지정리와 농기계 보급, 새로운 주택단지(선전마을) 조성 및 '새마을주택' 공급, 기반시설 확충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지만 이때 지어진 '새마을주택' 역시 1959년 지어진 '문화주택'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시멘트블럭조 건물에 슬레이트 지붕을 얹은 열악한 주택으로 냉난방에 매우 취약했으며, 당시 한 가족이 6~7명, 많게는 10명까지 되었던 농촌가족에 비해 너무도 협소한 15평 이하의 주택이 공급된 것이다. 이는 빠른 시일에 성과를 보아야하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북한의 선전마을인 기정동마을에 뒤지지 않기 위해 겉모습에 치중했던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1980년대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대성동마을에도 현대화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는데, 이 역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한 '대성동종합개발' 덕분이었다. 대성동 주변 농경지(DMZ 내 유휴지) 개발과 농지정리를 통해 대단위 영농, 기계화 영농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더불어 관개수로와 농업용 저수지 등이 확보되었다. 기존 구마을과 신마을로 나뉘어 있던 대성동마을은 마을현대화계획에 따라 구마을의 초가집, 기와집과 신마을의 새마을주택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으며, 이를 대신해 현대식주택이 모든 가구에 보급되었다. 또한 모든 주택이 북한을 향해 서향을 하는 현대화된 선전마을로 새롭게 태어났다.

1980년 현대식주택이 보급된 이후 3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마을주민들 대부분은 아직도 이 주택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그간 가족 수의 변화(초창기에는 1가구당 보통 6~8명 내외에서 최근에서 2~4명으로 줄어들었다. 부모들이 별세하고, 장성한 자녀들이 도시로 떠나거나 도시생활을 병행하면서 거주인원은 중장년 부부들이 주를 이룬다.), 주생활 양식의 변화와 현대화된 시설확충(각 세대별 개인차량, 농기계 등이 보편화 되었고, 예전의 장작아궁이에서 연탄보일러, 기름보일러 최근에는 태양열발전을 이용한 난방이 보편화되고 있다.)으로 마을의 공동창고와, 마을회관 등의 공동시설과 가구별 대형창고(주차, 농기계보관 등) 등이 다수 보급되면서 잘사는 농촌마을로 거듭나고 있다.

이러한 대성동마을의 현대화 과정은 마을의 발전을 가져오기는 하였으나, 반대로 대성동마을에 대대로 내려온 마을환경과 주거·생활문화는 급속히 사라지는 개기가 되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이곳 대성동마을에 외지인이 들어와 살기 어렵고, 마을이 생겨나면서부터 살아온 원주민이 대부분이어서 주민들의 기억과 소중히 간직해온 생활용품들 속에서 예전 대성동마을의 모습과 문화를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분단의 아픔과 역사를 담과 있는 다양한 시설물(북한 가장 가까이 바라다 보이는 팔각정, 1959년 건립된 공회당, 1972년 마을창고, 우리나라 최고 높이를 자랑하는 국기게양대, 인근의 판문점과 판문교) 등이 남아 있어 앞으로 대성동마을의 보존하고 개발하는데 인문적, 문화자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분단 이후 대성동마을에 민간인이 모여 살면서 이 마을은 '자유의 마을'로 불리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아래 놓인 북한의 기정동마을은 '평화의 마을'로 불리고 있다. 삼엄한 군사적 대치가 엄연한 상황 아래서 '자유'와 '평화'는 이곳을 반어적으로 표현하는 의미로 다가오지만, 한편으로는 대성동마을, 더 나아가 한민족이 이루어야할 궁극적 목표로 다가온다. 동독과 서독의 접경지역과 접경지 마을처럼 향후 통일시대의 상징적 마을로 대성동마을과 기정동마을의 역사적, 지리적 정체성을 지금부터 발굴하고 보존해나아가야 할 것이다.

대성동마을의 변천과 현재의 주택들 모습, 철책선 너머로 보이는 기정동마을과 개성 송악산, 북한 인공기 등은 북한을 가장 지근거리에 두고 생활해야 하는 대성동마을 주민들의 삶의 기억과 애환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소중한 문화적 자신일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분단현실과 통일의 필요성을 직접 피부에 와 닿을 수 있게 하는 소중한 유산이다. 이에 대성동마을과 주택, 공공시설물 등은 우리나라 분단의 역사가 살아 있는 유물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마을을 가꾸고 알릴 수 있는 좋은 자원이 될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대성동마을 체험루트와 활용방안을 제시하면서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1) 대성동마을 체험 대상

· 자유와 평화 : 마을의 역사와 의미 있고 이야기 거리가 있는 주택 및 공공시설물을 선정하여 이를 연계하여 이곳을 찾는 탐방객들이 주택의 변화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관람코스 개발.

체험 대상	전시주제
1959년 공회당(자유의 집)	• 분단 이전 대성동마을 역사 • 분단 이후 유엔군이 관할하던 치외법권 지역 • 당시 대성동 주민들의 어려웠던 시절에 대한 회고
1972년 마을창고	• 새마을주택 조성과 대성동마을의 개발 • 새마을운동과 조국근대화사업의 결과물 • 잘사는 농촌마을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
1980년 전시주택	• 80년대 북에 대해 우리의 체제와 경제력을 자랑할 수 있도록 만든 현대식 주택(전시주택) (그림 같은 이층집, 발코니, 삼각지붕 등 우수한 외관 • 웰빙마을·부농마을(청정 자연환경과 특산물)
태성과 팔각정	• 마을의 지명유래가 된 삼국시대 토성인 '태성' • 바로 앞에 바라다 보이는 북한의 기정동 '평화의 마을' 체험
마을회관 옥상 망원경	• 대성동마을 한번에 둘러보기 • 저 멀리 개성의 송악산 체험
국기게양대, 민정반	• 한민족이지만 분단되어 살아야하는 우리민족의 비극 • 평화와 자유의 중요성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다시 느끼기

(2) 대성동마을을 체험을 위한 공공시설 재활용 방안

① 공회당(자유의 집) : 현재 방치되어 있는 공회당 건물을 정비하여 마을전시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을주민들 역시 외지에서 손님이 방문했을 때 마을의 역사와 현황 등에 대해 설명해줄 장소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공회당은 1959년 지어진 건물로 마을의 역사로 볼 때 매우 의미 있는 건물로 건축사적으로도 보존가치가 충분하다고 하겠다. 향후, 등록문화재로 지정받아 보존관리하는 방법도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하겠다. 그 활용 용도는 다음과 같다.

가. 마을역사 : 대성동마을의 역사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마을 역사관

나. 반공교육 및 통일교육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반공과 통일교육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음

② 1970년대 마을창고 : 1972년 대성동개발 당시 지어진 건물 중 마을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건물이다. 당시는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대성동을 개발하기 시작한 시기로, 새마을운동 시기와 겹쳐져 있다. 당시로서는 마을의 유일한 공동창고로, 가을걷이 이후 추곡수매가 이곳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를 기억하는 마을주민들에게는 공회당과 더불어 마을의 상징적 장소이자, 외지인에게는 1972년 당시의 모습을 엿볼 수 있게 하는 건물이다. 그 활용용도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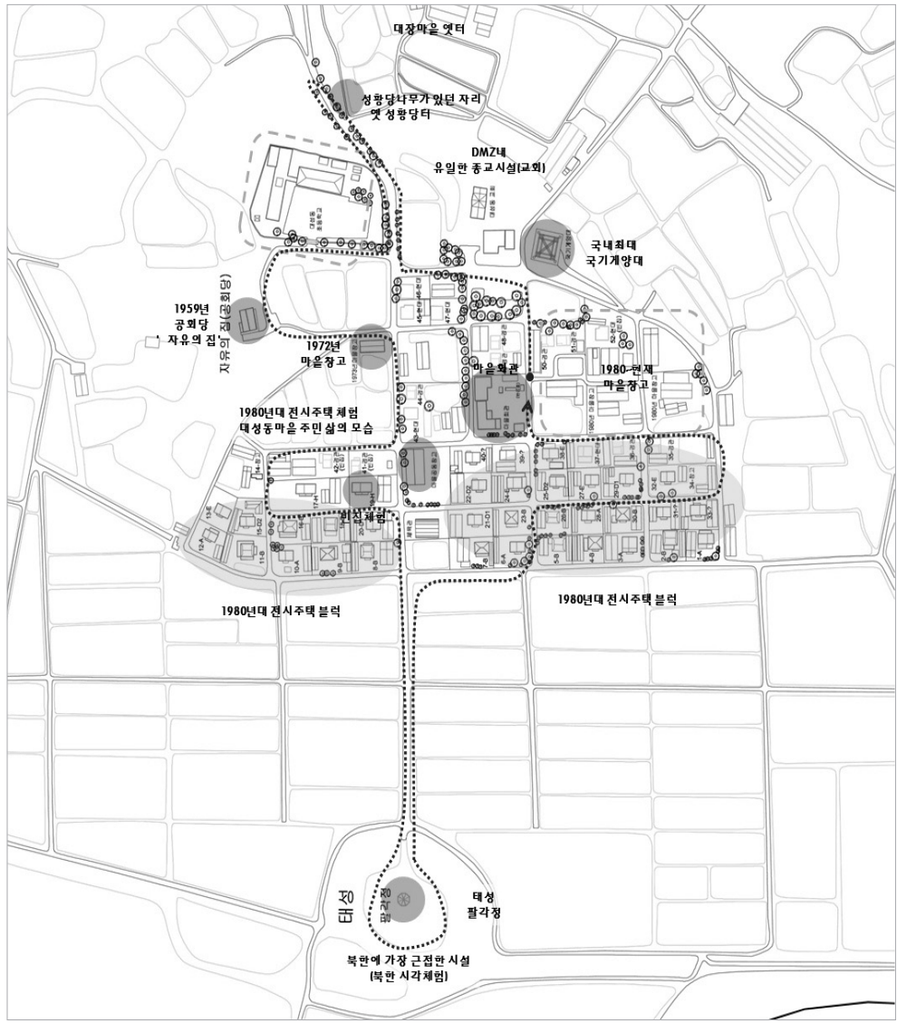
가. 대성동마을 친환경 농업현황 전시

나. 마을에서 예전에 사용했던 농기구 전시

(3) 체험 루트 개발

각 주제에 맞게 체험할 수 있는 효율적인 동선과 볼거리, 체험 중심

마을입구 성황당터(마을의 역사 인식) → 대성동초등학교(미래 통일의 주역) → 공회당(1959년 분단 직후의 상황과 마을의 역사) → 마을창고(새마을운동과 잘사는 농촌마을) → 전시주택 일곽(최북한 대성동마을 주민들의 삶 엿보기) → 태성과 팔각정(좀 더 가까이 북한을 체험하기) → 마을회관(38선을 넘어 개성으로) → 국기게양대(민주, 자유 대한민국 다시 느끼기)



10-4 문화자원 활용방안 수립을 위한 사례

– 철원두루미 마을과 한국 DMZ 평화 생명 교육마을, 영월박물관 교육특구 –

1) 머리말

파주 대성동마을 문화자원의 활용과 운영을 위하여 연구팀은 대성동마을과 유사한 환경을 지닌 강원도의 철원두루미 마을과 한국DMZ평화생명동산 교육마을을 선정하여 2014년 11월 4일(화)부터 11월 5일(수)까지 1박2일간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2015년 1월 6일부터 1월 7일까지 1박 2일간 영월박물관 고을 특구를 현지 조사하였다. 이 벤치마킹은 두 마을에서 어떻게 문화자원을 활용하고 실행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따라서 이 사례조사에서는 두 마을의 시설 현황과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파악한 후 파주 대성동마을에 적용하여 마을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강원도 철원 두루미평화마을

철원 두루미평화마을은 철원군 철원읍에 위치한 대마1, 2리로 신철원에서 서북쪽으로 15km, 휴전선과는 맞닿아 있는 마을이다. 남쪽으로는 철원군 월하리, 서쪽으로는 경기도 연천군과 경계를 이루며 동쪽으로는 민통선지역으로 안보관광지가 백마고지 전적비, 월정리, 노동당사, 철의 삼각전망대 등이 있다. 현재 이 마을에는 180가구가 거주하고 있다.[289]

(1) 배경 및 역사

두루미평화마을은 6·25전쟁으로 지뢰밭과 황무지가 된 민통선 지역을 1968년 국방력 강화 대공 심리전 식량증산 목적을 가지고 피와 땀으로 개척한 향군 마을이다. 개척 당시 낮에는 농토에서 일하고 밤에는 보초를 서면서 마을을 개척하였다. 6·25전쟁 당시 최대의 격전지였던 것과 같이 강인하고 생동감 넘치는 마을이다. 두루미평화마을은 정부에서 국방력 강화와 식량증산의 목적에 부합하는 모델인 이스라엘의 기부스 농장을 견학 후 방공정신이 투철한 재향군인 150명을 1967년 2월 가입주시킴으로써 두루미평화마을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두루미 평화 마을회관 전경

두루미평화마을은 옛 철원의 곡창지대로 전쟁 전에는 북한에 속하였으며 평지로써 기름진 땅이었으나 25년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관계로 거목이 우거져 있었고 휴전선 근방에서 해마다 산불을 놓아 동식물들도 살수 없는 땅이었다. 또 이곳은 6·25전쟁 중 가장 치열한 접전을 벌인 곳으로 양측이 수없이 많은 지뢰로 뒤덮인 땅이었으나 두루미평화마을의 초기 개척 주민들과 군부대 장병과 함께 지뢰를 제거하고 거목을 제거하면서 이룩하였다.

두루미평화마을의 초기 주민들은 천막생활을 하면서 국수 덜냉이(국수를 물에 불린 것)를 먹어가면서 작업하였다. 150명이 15개조(각조 10명)로 나누어서 공동으로 개간하여 농사를 지었다. 1968년 8월 30일 입주 후 약 3년간은 공동 농사를 지었으며 3년 뒤부터 개인 분배를 시작하여 8년째 되는 해는 각 가정이 자체적으로 농사를 지었다. 두루미평화마을 주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면서 큰 마을을 형성시켰다.

(2) 마을 전통생활

두루미평화마을은 1968년에 생긴 이래 척사대회, 입주기념식 등을 통해 전통문화를 계승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해마다 정월 대보름날 윷놀이, 떡 매치기, 음식경연대회, 널뛰기, 투호, 팔씨름 등 전통 민속놀이를 계승하고 있다. 두루미평화마을은 이러한 행사를 통해 잊혀가는 전통놀이를 복원하고 이 마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살리고 있다.

이 마을은 또한 4월말에서 5월 초에 행해지는 노인축제를 통해 경로사상을 증진하고 아이들에게 우리 민족의 전통인 경로사상과 농악 등을 가르치고 있다. 특히 노인잔치에서는 묘장초등학교 어린이들의 공연과 절을 하는 행사를 통하여 경로사상을 고취하고

289) 이 원고는 강원 철원 두루미평화마을 web 사이트인 http://dmz.invil.org/에 나온 내용을 요약하였다.



두루미평화마을 개척비

있다. 떡 메치기를 하면서 백마고지 오대쌀로 떡을 만들어 먹으며 단합과 화합을 도모하고 있다.

두루미평화마을의 주민은 다른 농촌마을과는 달리 일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많다. 인구통계연보에서도 인구 구성비가 다른 철원보다 젊은 편으로 단합, 화합과 협동이 잘되는 마을이다. 때문에 다른 지역의 농촌 현실과 달리 마을 일 처리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으며 자라나는 10대 청소년들이 많은 마을이다. 두루미평화마을은 10대 청소년들이 성인이 될 때 쯤, 두루미평화마을이 통일시대 중심적인 지역으로 많은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두루미평화 마을은 주민들의 단합을 위하여 줄다리기, 축구, 홀라후프, 피구 등의 체육행사를 매년 갖고 있으며 36년 전에 150가구가 현재의 230가구로 확대되었다.

(3) 마을시설

① 마을정보 센터

○ 주　소 :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대마길 38번지
○ 관리자 : 정보화운영위원장 이근용
○ 규　모 : 20평

마을정보센터는 그 동안 정보화에 메말라 있던 두루미평화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마을정보센터는 인터넷교육 등을 통한 정보이용 및 정보화교육장으로 활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두루미평화마을에 농촌지역 정보화를 전파하는 매체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또한, 문화적 측면에서 다양한 종류의 CD와 DVD가 구비되어 있다. 소외되었던 농촌지역에서 누리기 힘들었던 영화감상 등의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소규모 문화공간으로 활용된다. 월~금 오전 09:00~오후 07:00 까지 개방되어 있어 마을주민 모두가 편리한 시간에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

② 대마교회

○ 주　소 :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187(2/3)
○ 건립년도 : 1969.12
○ 대표자명 : 임태교 목사
○ 설립목적 : 영혼구원과 새로운 삶, 진실, 섬김
○ 대마교회 연혁
- 1969년 12월 설립
- 1997년 사택 신축공사
- 1999년 교회당 신축공사 (대지:1400평 , 교회당: 200여평)
- 2009년 11월 현 임태교 목사님 부임

대마교회는 아름다운 전원 교회로서 1969년에 설립된 후 마을 선교활동, 영혼구원, 중국 북방지역에 교회당 건축 지원, 현지 선교사 지원, 지역 군부대 선교 지원 등을 하고 있다. 대마교회는 대한민국 최전방 백마고지에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다. 성도들의 협력과 피 눈물 나는 섬김의 정신은 전원교회의 모델이다. 대마교회 출신 목회자는 5명이며, 현재 교회에서 중국 북방 교회 건축 지원, 중국 선교사 지원, 군부대 선교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대마교회 전경

③ 두루미 평화관

○ 유 형 : 펜션

○ 위 치 :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23-28



두루미 평화관 및 체험관

두루미 평화관은 식당과 펜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식당은 마을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유기농산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산채비빔밥, 매운탕, 된장찌개, 순두부 등의 메뉴가 있다. 두루미 평화관 식당은 산명호 청정 일급수에서 잡은 고기를 매운탕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 두루미 평화관 식당은 가족적인 식당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숙박과 안보관광 및 체험을 하면서 영양보충과 휴식을 할 수 있는 곳이다.

(4) 교육 프로그램

① 희망의 솟대 만들기

○ 목 적 : 가족의 바람과 희망을 담은 솟대를 만들어 봄

○ 시 기 : 연중 가능

○ 체험장소 : 두루미평화관

○ 재료 및 시설 : 솟대용 긴 나무, 나뭇가지, 낫, 끌, 드릴 등

○ 솟대 제작 과정

1. 10m 정도의 나무를 골라 끝을 가늘게 깎음
2. 미리 모형을 만들어 참가자들에게 보이며 직접 작업하는 과정을 설명함
3. 마을 주민들이 참가자들을 가르쳐 주면서 작업을 진행함

두루미평화마을은 홍수와 화마를 방지하는 오리 솟대 만들기 행사를 하고 있다.

② 철새배움터

○ 목 적 : 철새에 대한 이해와 탐조행사의 요점을 배우는 시간

○ 장 소 : 두루미평화관

○ 재료 및 시설 : 철원지역 철새학습에 관한 사진, 영상자료, 기타시설

○ 체험 즐기기

- 철원지역에 날아오는 철새에 대한 자료 준비
- 철새모형과 이동경로, 생태를 알 수 있는 패널 등의 자료 비치
- 사진과 영상자료를 수집하여 철새가 없는 계절에 활용하여 청정이미지 고양과 겨울철 방문 유도
- 탐조행사의 사전행사 성격이므로 주의사항과 특이사항 등을 정확히 안내

○ 의 의 :

- 철새를 중심으로 한 갖가지 행사 내용을 첨가시켜 철새 관광지로서의 철원의 이미지를 부각
- 철새는 청정지역이라는 연상 작용을 불러일으키므로, 향후 두루미평화마을의 이미지 홍보에 중요한 의미
- 도전, 철새퀴즈대회, 내가 찍은 철새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

두루미평화마을은 겨울철에 두루미를 바로 앞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두루미가 많이 찾아오는 곳이다. 마을에서 찍은 영상자료와 사진 및 서식환경을 설명하고 생태계를 조명 하는 것으로 방문자들이 두루미, 독수리 등 많은 철새들의 생태를 알 수 있다. 또한 고성능 망원경을 설치하여 철새들의 움직임을 직접 관찰할 수 있다.

겨울철에는 특히 두루미와 독수리를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는 곳이다. 철새가 찾아오는 시기에 이벤트 행사로 철새종류 맞히기, 내가 찍은 철새, 철새퀴즈대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철새에 대한 이해와 생태를 탐조하는 행사이다. 철색의 낙원은 마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문구로, 철새(두루미)가 찾아오는 마을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마을 홍보와 인지도 향상에 초점을 맞춘 이 행사는 이벤트적인 특성을 지니며, 특히 철새가 많은 시기에 이루어지게 된다.

③ 지뢰제거 프로그램

○ 목 적 : 지뢰에 대한 체험을 통해 평화에 대한 생각을 불어넣어 줌

○ 시 기 : 연중 가능

○ 재료 및 시설 : 금속탐지기, 모형지뢰

○ 체험 즐기기

- 진행자는 지뢰와 연관된 마을상황을 설명함
- 지뢰는 미리 진행자(마을주민)가 마을이나 체험 장소 주변에 숨겨둠
- 찾아야 할 지뢰의 모형을 보여주고 주의사항을 알려줌
- 참가자 수가 어느 정도 된다면 서로 지뢰를 매설하여 흥미를 유도함
- 일정시간 내에 많은 지뢰를 제거하거나 특정 지뢰를 찾아낸 가족에게는 별도의 시상

'지뢰를 제거하라'는 두루미평화마을의 독특한 테마로 입주 당시 황무지와 지뢰로 덮인 지역을 개간한 것을 가상하여 행하는 것이다. 지금도 지뢰로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설명과 지뢰가 주는 피해 등을 설명하고 가상지뢰를 제거함으로써 다가올 통일시대에 지뢰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행사이다.

(5) 문화유적

① 노동당사

○ 유적명칭 : 노동당사

○ 위 치 :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관전리

철원군 철원읍 관전리(동경 127°12′5″, 북위 38°15′3″)에 위치해 있으며 이 건물은 1946년도 공산 치하에서 지역 주민들의 강제 노력 동원과 모금에 의해 완공된 지상 3층의 무철근 콘크리트 건축물이다. 당시 이 당사를 건축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성금이란 명목하에 1개 리단위로 백미 200가마씩의 자금과 인력 또는 장비를 총동원시켜 1946년 초에 착공하여 완공된 연 건평 570평의 소련식 공법의 건축물이다. 이 당사 내부 구조상의 특징은 각 실마다 방음벽과 보안 유지를 위한 특수 설계로 시공되었으며 내부 구조물 축조 작업 시에는 보안을 위하여 열성당원 이외에 일반인의 작업 동원을 일절 금하였다.



노동당사 전경

1947년 초부터 이 당사에서는 중앙당으로부터 지령되는 극비사업과 철원, 김화, 평강, 포천, 연천지역 주민들의 동향 사찰은 물론, 대남공작을 주도한 공산치하에서 중부지역의 주요 업무를 관장했던 곳이다. 이 당사에서는 공산 치하에서 수많은 반공 인사들에게 무자비한 심문, 고문, 학살 등 만행을 저지른 현장이기도 하다. 당사 뒤편에 위치했던 방공호 속에서는 당시 참살 당했던 인골과 함께 만행에 사용했던 실탄과 철사 줄들이 발견되고 있다.

철원군에서는 안보 및 유적지를 발굴함으로써 후세에 남길 사적 자료를 기록 보존하고 있다. 이 고장 일대에 산재되어 있는 공산 치하에서 공산당이 저지른 만행의 현장과 잔해, 전흔들을 발굴 보존함으로써 실증적이고 살아 있는 방공 교육의 도장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현장에 각종 시설과 부지 등을 정리하여 보호 관리하고 있다.

② 도피안사(到彼岸寺)

○ 소 재 지 :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 450번지

○ 지정사항 : 국보 제63호 철조비노사나불좌상, 보물 제223호 삼층석탑

도피안사는 서기 865년 통일신라시대 제48대 경문왕 5년에 도선국사가 향도 천여 명


도피안사 전경

을 거느리고 영원한 안식처인 피안과 같은 곳에 이르렀다고 하여 화개산 현 위치에 창건된 사찰이다. 통일신라시대 대표적인 국보 제63호 철조비로사나불좌상을 봉안하고 보물 제223호 삼층석탑을 조성 후 사찰이름을 도피안사(到彼岸寺)로 명명하였다고 한다. 서기 1898년 조선 광무 2년에 재화를 입어 법운스님이 재건하였고 1941년 1월 당시 주지 김의권 스님이 사찰을 개수하여 전통사찰로 이어져 왔다. 1950년 6·25전쟁으로 완전 소실된 것을 1957년 11월 육군 제15사단에서 복원한 후 군부대에서 관리하다가 1986년 사찰관리권이 민간으로 이관되면서 1988년 대저광전과 삼성각을 개축하고 범종각, 사천왕문 등을 중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③ 백마고지 전투지

○ 소 재 지 :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산명리 215번지 일대

○ 관 리 자 : 제5보병사단

○ 관리번호 : 16-2-56 "백마고지 전투전적비"의 부대시설


백마고지전승비

1952년 10월 국군 9사단이 중공군 제38군과 6·25전쟁 시기 가장 치열하게 고지 쟁탈전을 전개하던 곳이다. 1952년 10월 6일 철원 서북방 395고지(효성산 남단)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9사단은 중공군 제38군 3개 사단의 공격을 받았다. 이때부터 10월 15일까지 열흘간 395고지를 사이에 두고 12차례 전투가 반복되면서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었지만 UN 군의 지원을 받은 국군 제9사단은 마침내 고지를 장악하였다. 전투과정에서 제9사단은 총 3천 4백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중공군은 1만 4천여 명이 전사하였다. 극심한 공중폭격과 포격으로 민둥산이 되어버린 모습이 마치 백마가 누워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후부터 395고지 일대를 백마고지라 부르게 되었다.

(6) 특산품 판매

① 백마고지 오대쌀

백마고지 오대 쌀은 중부 내륙지방에서 최대 곡창지대의 청정 환경에서 재배되는 맛이 좋은 쌀이다. 철원 백마고지 오대 쌀은 일급수인 역곡천 물과 산명호 물로 재배하고 있으며, 두루미평화마을의 토양은 북쪽의 오리산에서 분화한 화산암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철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고 배수가 잘되어서 미질이 좋은 쌀이다. 철원 두루미평화마을은 철원지방의 특색인 높은 일교차로 인해 병충해 발생이 적고 유기물이 풍부한 황토 흙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영양가와 맛이 좋다.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철원 백마고지 오대 쌀을 브랜드로 만들어 고품질화를 이루고 있다. 친환경 쌀 단체 등 각종 단체와 협력하여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종합 시설을 설치하고 체계적인 생산과 판매를 통해 침체되어 가는 쌀 산업에 활력을 넣어 주고 있다.

② 백마고지 느타리버섯

○ 생산방법 : 패널 또는 블록 재배사를 통한 재배

○ 특 징 : 탄력성, 색과 광택이 선명, 맛이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가격

○ 향후계획 및 전망 : 백마고지 느타리버섯은 높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작목반을 중심으로 교육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과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백마고지 느타리버섯을 재배하고 있다. 백마고지 느타리버섯은 청정 환경에서 재배되는 버섯이다. 특히 민통선 지역인 두루미평화마을은 역곡천물과 산명호에서 내려오는 물로 재배하고 있다. 환경부에서 인정한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재배되고 있는 무공해 느타리버섯인 것이다.

③ 백마고지 오이

○ 생산방법 : 비가림 하우스 재배

○ 특 징 : 저장성, 먹으면 아삭거리는 소리, 맛이 좋은 오이, 육질이 단단함. 다른 지역의 오이와 달리 무게가 많이 나감, 발효퇴비로 생산

○ 향후계획 및 전망 : 백마고지 오이는 발효퇴비를 사용하여 맛있고 품질 좋은 유기 농산물 오이를 재배하고 있다. 두루미평화마을의 백마고지 오이는 주로 백침

계 오이로서 저장성이 좋고 맛이 있으며 빛깔은 연녹색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철원의 높은 일교차와 휴전선 지역에서 내려오는 일급수 물로 재배하고 있으며 또 이곳은 환경부 지정 청정지역으로 오염되지 않은 오이이다.

④ 백마고지 벌꿀

○ 브랜드명 : 백마고지 벌꿀
○ 생산종류 : 양봉
○ 재배농가 : 7 가구
○ 생산방법 : 여름철 아카시아 벌꿀
○ 특　　징 : 백마고지 벌꿀은 철원의 넓은 들판과 백마고지 등 야산에서 채취한 것이다. 백마고지 벌꿀은 이상적인 종합영양제로 꽃가루 특유의 비타민, 단백질, 미네랄, 방향성 물질, 아미노산 등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효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식품'이라고 한다. 백마고지 벌꿀은 철원지역의 청정공기와 맑은 물에서 자라는 식물들에서 채취한 벌꿀로 비무장지대에서 자라는 꽃에서 채취한다. 백마고지 벌꿀은 당분이 원래 꽃에 있던 수크로오스가 꿀벌의 입에서 나오는 효소의 활동으로 전환된 과당과 포도당으로 변화된 단당류이기 때문에 흡수가 쉽고 칼로리원으로서 영양가가 높다.

⑤ 백마고지 삼지구엽초

○ 분　　류 : 매자나무과
○ 다른이름 : 선령비, 조선음양곽, 양광엽, 엽발초, 닻꽃
○ 생약명칭 : 음양곽(淫羊藿)
○ 재배시기 : 개화기-4~5월, 결실기-7월
○ 가공과정

1. 삼지구엽초를 건조하여야 하는데 용매로는 물을 이용한 것과 에탄올을 이용한 방법이 있음.
2. 삼지구엽초를 건조시 열수 추출일 경우는 90℃로 7시간 추출하여 최대 수율이 되고 에탄올 추출은 농도가 50%이며 70℃로 가열하여 7시간 추출에서 최대수율이 됨.

○ 삼지구엽초 복용법

1. 먼저 주전자나 탕약기에 물을 끓인다.
2. 구입한 삼지구엽초(음양곽)를 물에 가볍게 흔들어 헹군다.
   (물 2리터에 삼지구엽초 20g 정도)
3. 물이 끓으면 물에서 헹구어 낸 삼지구엽초를 넣는다.
   (감초나 대추 등을 첨가시 쓴 맛이 줄어듬)
4. 끓이는 시간은 10분~15분 정도가 적당하다.
   (약한 불로 은근히 끓히며 너무 오랫동안 끓이지 않도록 함)
5. 삼지구엽초(음양곽) 특유의 약간 쓰고 떫은 맛이 싫다면 꿀이나 설탕을 첨가하여 음용한다.
6. 끓여낸 차는 냉장고에 밀봉된 용기에 보관하며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끈하게 데워 먹는다.

백마고지 삼지구엽초는 삼지구엽초가 자라기 좋은 조건을 구비하고 있으며 깨끗한 물과 공기, 화산 분출생성 된 화강암, 현무암 등이 배수가 잘 된다. 이러한 환경은 잔뿌리가 많은 구엽초의 뿌리를 썩지 않게 하고 환경부가 지정한 청정 환경 지역의 생산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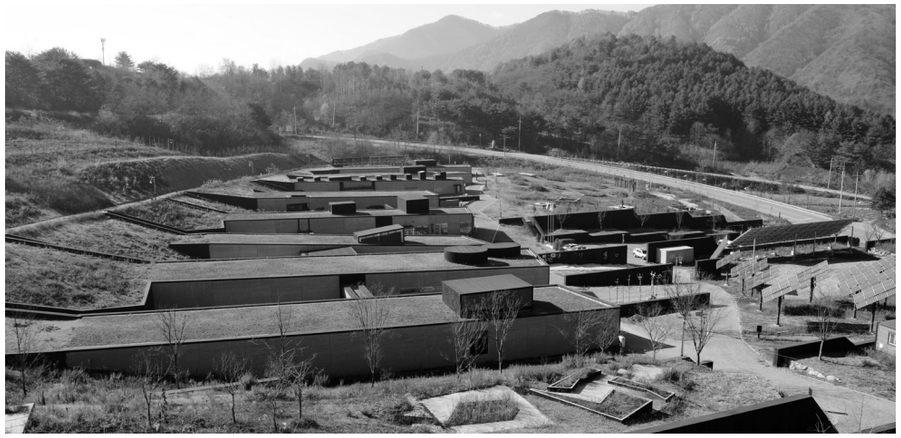
3) 한국DMZ평화생명동산 교육마을

한국 전쟁으로 갈라진 한반도의 비무장지대(DMZ)는 전쟁, 대결, 죽임, 차단을 상징하는 장소로 인식되어 왔다. 이 비무장지대(DMZ) 일원을 "자연과 생명의 터전"으로 만들고자 "한국DMZ평화생명동산 교육마을"이 건립되었다. DMZ 일원의 생태계와 역사, 문화를 올바르게 보존하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드높이는 "바람직한 발전의 전형"을 창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더 나아가 DMZ의 평화와 생명 가치를 구체화, 생활화하고 드높이는 운동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다.[2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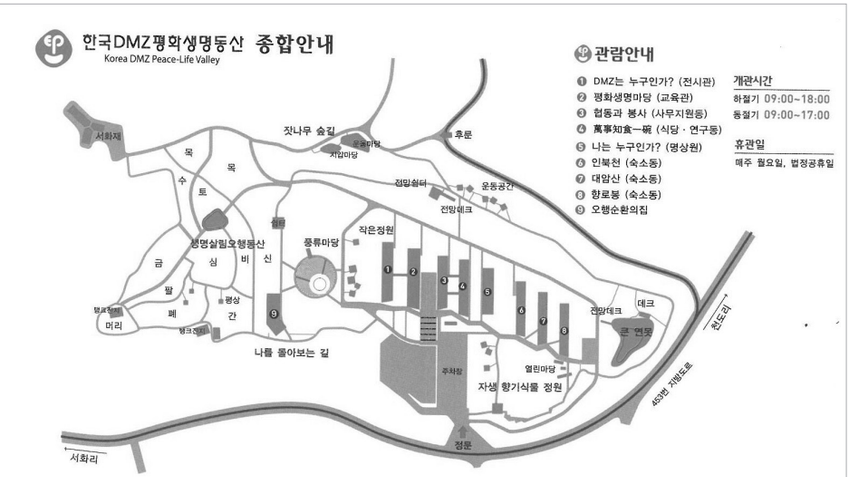
(1) 배경 및 역사

한국DMZ평화생명동산 교육마을은 1998년 인제군의 남북 강원도 교류 협력기획단에서 인제군 서화면 가전지구를 답사하고 평화생태공원화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본격

290) 이 원고는 강원 철원 두루미평화마을 web 사이트인 http://www.dmzecopeace.com/html_new/ index.php 나온 내용과 한국DMZ평화생명동산에서 발행된 소책자 등을 활용하여 요약하였다.



한국DMZ평화생명동산 교육마을 전경



한국DMZ평화생명동산 교육마을 시설 배치도

적으로 이루어졌다. 1999년에 한국DMZ평화생명동산 교육마을 설립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 해에 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다. 2004년에 한국DMZ평화생명동산 교육마을 사업부지가 확정되었고 2005년에 사업추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2006년에는 인제군 서화면 점 고개 일대에 건평 997평, 대지 37,000평에 한국DMZ평화생명동산 교육마을이 지열과 태양열 등 친환경적으로 착공되었다. 2008년부터는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실시하여 주민 의료봉사, 평화생명 체험교육, 생명살림 오행동산 조성, DMZ 생태 문화역사 전국사진 공모전[291], '서화평화 도서관' 설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1년에는 인제 DMZ 평화생명문화제,

291) (사)한국DMZ평화생명동산, DMZ 생태문화역사 전국사진공모전 작품집, 마르금기획, 2011, pp.1~33.

DMZ 일원의 생태계를 위해 외래 식물 제거활동, 무료 법률 상담 및 의료 봉사활동, DMZ 해설가 양성교육(심화과정) 등의 사업을 통해 주변의 농촌마을과 연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지뢰생태공원"과 "생명연구 동산"을 만들어 관람객과 주변의 농촌마을, 그리고 일반인에게 생명과 평화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2) 시설

한국DMZ평화생명동산 교육마을의 시설은 명상원, 전시관, 사무동, 식당, 교육동, 숙소, 야외극장, 생명살림 오행동산, 오행순환의 집, 생태체험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생들은 조금 더 평화롭고 생명에 이로운 생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신조를 지키며 생활하게 교육을 받는다.

1. 전기, 물, 그리고 모든 물자를 아낀다. 5분 목욕, 손수건 쓰기 습관을 기른다.
2. 물을 망가트리는 활성제를 쓰지 않고 직접 만든 비누를 쓴다.
3. 가공식품, 즉석식품, 튀김음식, 그리고 고기류를 덜 쓰고 커피대신 옥수수차를 마신다.
4. 휴대전화, 컴퓨터, TV는 쓰지 않는다.
5. 일찍 자고(밤10시 이전), 일찍 일어나는(아침 5시경) 자연의 흐름과 일치하는 생활을 한다.

한국DMZ평화생명동산 교육마을 전시관은 6·25전쟁으로 인해 생긴 DMZ 일원의 자연의 가치와 소중함을 체험하고, 평화와 생명을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의 소주제는 1. 아픈 상처를 치유하다, 2. 평화·생명이 숨 쉬는 중동부산악지역, 3. 푸른 숲길을 따라, 4. 자연과 사람이 함께 만드는 땅, 5. 생태계의 순환고리, 6.가치와 미래에 대한 메시지로 나누어 전시를 전개하고 있다. 이 전시를 통해 6·25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상처를 치유하고 자연적으로 생성된 생태계의 보고를 통해 생명의 가치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생명살림 오행동산은 머리(頭), 팔, 폐(肺), 간(肝), 심(心), 비(脾)로 조성되어 있다. 머리는 하늘의 기운을 받는 통로이고 폐는 호흡을 통해 외부와 소통하는 곳이다. 간은 몸에 있는 독소를 분해하고 심(心)은 활동과 휴식을 때에 맞게 조절한다. 비는 음식을 먹어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며 신(腎)은 정(精)을 보존한다. 오행동산에는 몸을 다섯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로 구분되어 있다. 목(木)은 중풍, 자존심, 분노와 관계되어 있고 화(火)는 신경증, 봉사, 기쁨과 관계되어 있다. 토(土)는

위장병, 화합, 생각을 관장하며, 금(金)은 폐병, 결단, 슬픔과 관계된다. 수(水)는 부종, 지혜, 공포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동산에는 오행과 관련하여 사람들에게 유익한 식물을 조성하여 놓았다.[292]

이 한국DMZ평화생명동산 교육마을 뿐만 아니라 지뢰 생태공원은 서화면 가전리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인북천 우안습지 1,000,000㎡에 생태탐방시설 4,664㎡를 조성하였다. 주요시설로는 생태탐방로, 생태교육장 등으로 쓰는 관찰 데크를 조성하였고 전체지역이 완전히 보존된 지뢰생태공원이다. 또한 생명 연구동산은 서화면 가전리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의 밭농사 지역에 297,522㎡를 조성하여 한반도의 식물 종 수집, 재배 등 공간조성, 특히 미래의 종자전쟁에 대비하여 다가올 제4의 물결인 생명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한반도 식물종의 최대 확보와 연구기지로 조성하고 있다.

(3) 교육 · 체험 프로그램

한국DMZ평화생명동산의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은 DMZ 일원의 마을주민과 군부대 현장교육, 시민단체와 기업의 임·직원, 초·중·고·대학생 대상의 대중교육과 지도자 교육, 지구촌 평화교육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다. 생태 체험은 과거 농경지가 자연천이 된 가전리 습지, 한반도 고유의 민물고기가 다양한 임북천, 사향노루와 산양이 살고 있는 금강산 향로봉, 4,200년 전 태고적 역사를 간직한 대암산 용늪 등 DMZ 일원의 생태계를 교육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민통선 현장체험으로는 을지전망대, 제4땅굴, 가칠봉 OP, 펀치볼 민통선 마을 등 분단의 현장에서 평화와 통일의 소중함을 체득하게 된다. 농촌체험은 DMZ 일원 최전방 농촌마을의 역사와 문화, 주민의 삶 속으로 함께 들어가 농사일을 체험하는 것이다. 이 이외에 명상, 노동,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 명상원에서는 국선도와 단전 호흡 강의를 통해 건강한 삶을 교육하고 있다.[293] 또한 생명과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국제학술대회 등을 통하여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 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은 주변의 문화유적과 자연 환경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제를 중심으로 한 축제체험은 빙어축제, DMZ평화생명문화제, 용대리 황태축제, 미산리 고로쇠축제, 진동리 산나물축제, 내설악강변축제, 만해축제 등이 실시되고 있다. 또한

292) (사)한국DMZ평화생명동산, 생명 살림 오행동산 해설, 한국DMZ평화생명동산 2010-02호, 2010, pp.1~23.
293) (사)한국DMZ평화생명동산, 국선도와 단전 호흡의 이해, 한국DMZ평화생명동산 2010-04호, 2010, pp.1~30.



민주주의 국제학술대회 후 기념촬영

주변의 월학리 냇강 마을은 수려한 경관과 더불어 문화자원을 활용한 농촌체험 관광지로 대암산 고로쇠 수액과 토종꿀, 송이, 산나물 등이 유명하다. 서화리의 파프리카는 당도가 높고 맛이 좋아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 이 지역의 특산품은 곰치, 마, 오미자, 송이버섯, 인진쑥, 쌀, 황태, 토종꿀 등이 있어 음식체험 프로그램의 자원이 되고 있다.

(4) 주변의 문화자원

한국DMZ평화생명동산 교육마을 주변에는 많은 자연환경과 문화시설, 그리고 유적들이 분포되어 있다. 인제지역에 설악산 대청봉, 대암산 용늪, 대승폭포, 십이선녀탕 계곡, 내린천계곡, 방동약수, 백담사, 합강정이 있다. 또한 주변에 방태산자연휴양림, 용대자연휴양림, 하추자연휴양림, 곰배령 등이 일반인에게도 개방되어 있다. 또한 이 일대에는 산촌민속박물관, 목공예갤러리, 백담사 만해마을, DMZ 대암산 생태학교, 내설악 예술인촌 등이 분포되어 있어 한국DMZ평화생명동산 교육마을과 같은 기능의 기관들이 자연환경과 생명의 교육과 체험활동을 하고 있다.

① 대암산

대암산은 강원도 서화면 북면과 양구군 동면 해안면에 있는 산으로 용늪과 심적산림습원이 있다. 용늪은 해발 1,280m에 위치한 고층습원으로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다. 심적산림습원은 대암산 자락의 해발 700m에 위치해 있는데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되어 있다. 습지지역 내에는 큰 물길을 따라서 풀이 밀집하여 서식하고 있다.

② 금강산 향로봉

향로봉은 강원 인제군, 고성군의 경계에 있는 산(높이 1,293㎡)이다. 태백산맥의 북부에 위치하며 신라시대에는 가리라봉(迦里羅峰)이라 불렀다. 한반도의 3대 광역생태축 가운데 남북의 생태축인 비무장지대가 만나는 지점이다. 이 지역은 1973년 7월 10일 천연기념물 제247호인 "향로봉, 건봉산 천연보호구역"으로 약 83.3㎢의 면적이 지정되었고 2008년 10월 산림유전자보호림으로 지정되었다. 향로봉 정상은 건목과 초지가, 능선에는 다양한 종류의 숲이 발달되어 있다. 지역 주민들은 매년 휴식년제를 두고 야생꿀, 송이, 산나물 등을 채취한다. 고로쇠 나무의 수액은 최소 15년에서 16년을 주기로 채취함으로써 환경 보호에 힘쓰고 있다.[294)]

③ 자연이 만든 습지 가전리

인제에서 금강산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한 가전리는 강원도 중동부의 백두대간이 남북으로 지나가고 있으며 동으로는 향로봉(1298m), 서로는 가칠봉(1242m)사이의 DMZ 남방철책선과 민간인 통제선(민통선) 소양강 최상류 오른쪽 기슭에 위치한다. 이 지역에서 백두대간 중 가장 낮은 삼재령을 넘어 동쪽으로 외금강, 북쪽으로 내금강으로 통한다. 이 지역은 6·25전쟁이후로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어 자연습지로 복원되었고 식물과 동물의 천국이 되었다.

④ 을지전망대와 제4땅굴

해발 1,049m에 위치한 을지전망대는 양구 동북방 27km,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약 1m 남쪽지점 해안분지를 이루고 있는 가칠봉의 능선에 위치하고 있다. 전망대에서는 금강산 비로봉, 차일봉, 월출봉, 미륵봉, 일출봉 등을 볼 수 있다. 전망대 근처에 위치한 제4땅굴은 1978년 제3땅굴이 발견된 후 12년만인 1990년에 양구 동북방 26km 비무장지대 안에서 발견되었다. 군사분계선에서 1,2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제4땅굴은 너비 1.7m, 높이 1.7m, 깊이 지하 145m, 길이 2.1km에 달한다.

294) (사)한국DMZ평화생명동산, 평화·생명·통일의 길–통일신문명의 건설, 한국DMZ평화생명동산 2010 통일교육자료집, 2010, pp.42~45.

4) 영월 박물관 고을 특구

영월 박물관 고을 특구는 오염되지 않은 생태환경을 토대로 조성한 Eco-Museum 단지 라고 할 수 있다. 영월군은 신활력 사업으로 2005년부터 박물관 고을을 육성하기 시작해 2008년 12월에 박물관 고을 특구로 지정되었다. 영월 박물관 고을은 2012년 지식경제부에서 지방자치단체 147개 특구 대상으로 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성과 평가에서 우수 특구가 되었다.

영월박물관협회는 영월군 소재 박물관, 미술관 협의체로서 건전한 활동을 통하여 민족문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상호간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영월박물관협회에서는 협회 박물관·미술관의 진흥발전을 위한 지원, 정보교류 및 홍보, 연구발표회, 학술지 및 회지 발간, 박물관·미술관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 지원, 전문 인력 교육, 강원도지사(시장·군수 포함)의 위탁 사무 및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부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영월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박물관의 문화콘텐츠가 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영월의 테마박물관을 지원하고 있다.[295)]

(1) 배경 및 역사

영월군은 관광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선정해 전략적으로 추진해 왔다. 영월군의 박물관 고을 육성 사업은 지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측면과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차별성 강조는 물론 세계적인 관광산업 조류에도 부응하는 것이다. 영월군에서 신활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박물관 고을 육성 사업의 기본 전략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박

295) 이 글은 http://www.ywmuseum.com/home/page/sub1/01_01_02.jsp를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물관을 유치하고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에 신활력 사업비를 집중 투입하는 데 있다. 또한 인재 육성·활용과 네트워크 구축, 테마 체험 프로그램 및 문화 상품 개발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가치를 기획 · 가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소프트 경쟁력 향상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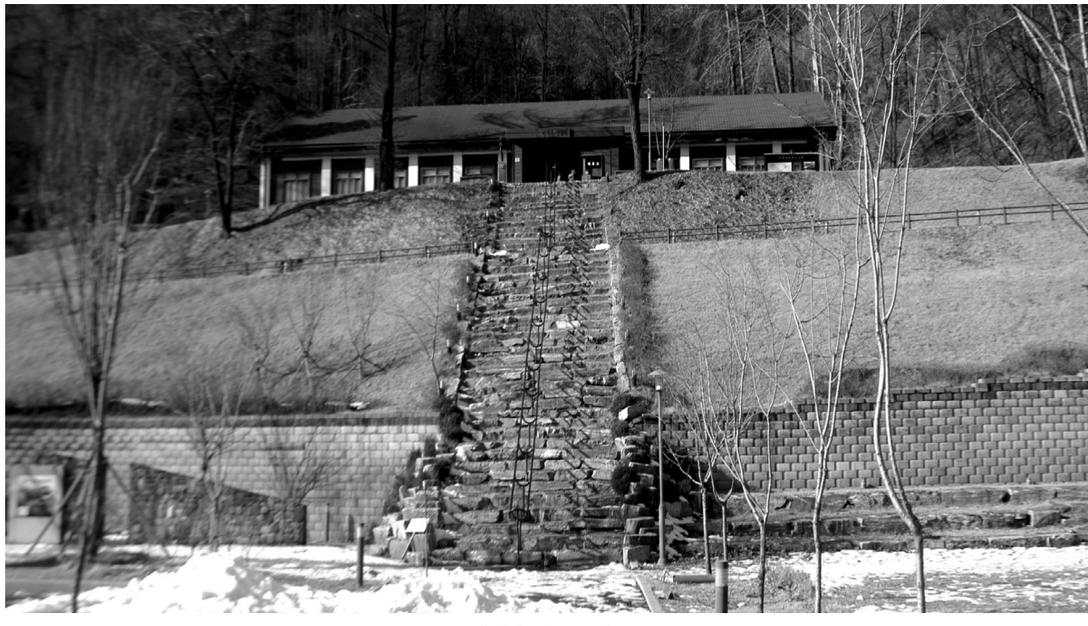
박물관 고을 육성 사업은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광시너지 효과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다. 또 영월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교육 및 문화지역으로서의 영월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주민 참여를 통한 소득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성공적인 박물관 고을 육성을 위해서는 각 박물관이 위치한 마을과의 공동 번영이 중요하며, 지역주민이 함께 호흡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다. 또한 사립박물관의 활성화를 위해 소프트웨어 부분에 집중 투자하고 기념품 개발이나 박물관 브랜드의 구체화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영월의 박물관 고을 특구에는 조선민화박물관(2000.07.29.), 국제현대미술관(2001. 10. 13), 묵산미술박물관(2002. 05. 05), 영월곤충박물관(2002. 05. 04), 호야지리박물관(2007. 12. 08), 영월화석박물관(2007. 12. 15), 영월박물관협회(2008. 10. 28 제1대 이대암 회장 취임), 호안다구박물관(2008. 11. 08), 쾌연재도자미술관(2009. 05. 12), 세계민속악기박물관(2009. 05. 19), 영월아프리카미술박물관(2009. 11. 02), 영월종교미술박물관(2010. 04. 10), 영월근현대생활사박물관(2012. 04. 28), 영월초등교육박물관(2012. 04. 28), 영월미디어기자박물관(2012. 05. 24), 인도미술박물관(2012. 05. 26)과 같은 박물관의 활동으로 이루어 졌다.

이 이외에도 영월에는 강원도 탄광문화체험촌, 영월 동강생태공원, 별마로천문대, 난고 김삿갓 문화관, 영월 동굴 생태관, 고씨동굴 등 자연 생태환경을 활용하여 문화자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 강원도 탄광문화촌

영월삼거리에서 좌회전해서 415번 지방도로를 따라 평창 미탄면으로 가다보면 1930년~1970년대에 석탄을 캐던 탄광마을인 마차리가 나온다. 영월군 북면 마차리 일대 옛 영월광업소(마차탄광) 터에 조성된 탄광문화촌(88,566㎡)은 생활관(444.81㎡), 갱도체험관 100m, 야외전시·공연장, 위령탑, 편의시설 등을 갖춰 광산촌의 생활모습과 광부, 가족,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재현했다. 관람객이 직접 도보로 지하갱도를 탐험하면서 다



강원도 탄광생활관 전경

양한 영상매체와 작동모형을 통하여 광부의 생활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296]

영월 광업소는 1950년 11월 대한석탄공사 창립으로 조선전력주식회사에서 이관하여 운영하게 된다. 1956년 이 지역의 석탄을 실어내 가려고 충청북도 제천에서 영월까지 잇는 영월선이 부설되었다. 영월선이 깔리자 영월의 석탄은 서울을 포함하여 전국의 여러 도시로 쉽게 팔려 나갈 수 있게 되어 상대적으로 생산량이 부쩍 늘어나게 된다. 영월 광업소에서 생산된 석탄은 영월화력발전소로 운반되었다. 1966년도의 영월 광업소의 석탄 생산량은 307,254톤이며 영월화력발전소의 석탄 소비량은 353,034톤으로 영월 광업소에 생산된 석탄 대부분이 화력발전소에서 소비되었다.

① 전시개요

강원도 탄광문화촌을 통해 탄광촌 거리를 보며 옛 광부들의 삶을 느껴 볼 수 있도록 전시가 구성되어 있다. 도입부의 탄광촌 마차골 방문객들을 위한 환영의 장에는 상징조

296) http://blog.daum.net/sbs1234/5692647



탄광 생활관 내부 전시

형물과 권양기 롤러가 설치되어 있다. 탄광문화 교육의 장에는 탄광촌의 생활 모습을 재조명한 마차리 탄광 생활관이 ECO 마차골 즐김의 장에는 검은 탄광촌에서 푸른 탄광촌으로 변화된 자연 및 인문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탄광정비 전시장이 있다. 마지막으로 채탄현장 체험의 장에는 광부들의 애환과 땀이 서린 광산 갱도와 작업과정에 대한 마차리 탄광 체험관이 마련되어 있다.[297]

② 탄광생활관

탄광생활관에는 배급소, 마차상회, 이발관, 선술집, 양조장, 뻥튀기아저씨 등이 모형으로 설치되어 있다. 또한 1960년대 초등학교 교실을 그대로 재현한 영상 자료실이 있다. 학교에서 수업을 받듯이 교실에 배치된 의자에 앉아 「우리나라 석탄 산업」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구성된 영상수업을 받는다. 영상 관람이 끝나면 학교 내부 공간에 패널로 연출된 석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교실 내부 창문과 뒷 벽면을 이용하여 다양한 석탄에 대한 자료를 패널과 광물 자료를 통해 소개하여 자연스럽게 석탄 산업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한다. 학교 내부에는 관련 소품을 배치하여 60년대 말 마차 초등학교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마차리의 탄광촌과 버스정류장, 그리고 영월의 과거, 현재, 미래를 묘사하면서 전시를 마무리 하고 있다. 영월 광업소에서 생산된 탄은 삭도 시설을 통해 영월 화력발전소로 직행되었다. 1톤의 무게의 삭도가 움직일 때마다 탄을 싣고 지나다녔다. 돌아 올 때는 물건까지 실어 날랐던 영월의 상징물이었던 삭도의 이동과정을 영상과 모형이 서로 연통되는 2D 애니메이션으로 구성하여 단순 설명적인 정보전달 형식에서 벗어난 시각적 효과를 자극하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코너로 구성하였다. 퇴관 전에 만나는 연출공간으로 관람객의 휴게와 편의를 돕고 휴식을 취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제공되는 게

297) http://www.coaltour.com/hb/machari

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영월 주민의 생활상을 이해하고 과거의 영월을 돌아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한다. 퇴관부 마지막 전시공간으로서 탄광으로 인해 풍요로웠던 광산촌의 과거를 추억하고 그리고 점차 잊혀져만 가는 광산촌을 인식하여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해 가는 영월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LCD 모니터에서는 과거 탄광촌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콘텐츠로 구성하고 관람자들한테 제공되는 정보를 터치스크린 형태에 모니터를 통해 연출하였다.

③ 탄광체험관

가. 갱도사무실

갱도사무실은 갱도내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주사무실로서, 갱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작업 공정을 파악하고 지원장비, 지원인력 등을 통제하는 관리공간이다. 갱도사무실은 갱전체를 관리 · 감독하는 갱장과 수하의 계장, 감독이 갱도 업무에 대해 작업을 지시하고 전달받는 유일한 사무공간이다. 갱도사무실에는 안전 수칙과 보안규칙, 보안일지, 작업일지 등의 작업관련 비품과 구급장비, 의약장비 등의 안전비품, 그리고 광산사무실과 연결되는 인터폰 등이 있다.

나. 광부작업복체험

갱도 내 작업을 위해서 안전모와 작업복은 광부들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장비이다. 관람전 관람객들이 안전모와 작업복을 착용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코너로 구성한다.

다. 작업장 가는 길

지하갱도로 진입하는 효과를 영상과 효과음을 통해 작업을 마친 광부들이 나오는 화면을 상영하여, 광부작업조의 교대가 이루어진다.

라. 굴진, 발파, 동발설치

갱도를 만들어가면서 세우는 동발(지주라고도 함)은 사다리꼴 모양으로 세우는데, 그 규격은 개발초기부터 지금까지 점차 넓어지고 높아지는 추세이다. 1980년대에는 넓이가 3m이던 것이 1990년대 들어 너비 3m30cm, 높이 2m50cm, 앞 동발과의 거리는 80cm로 넓어졌다. 막장에서는 동발 지주목을 세울 때 나무가 자라는 방향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세운다. 즉 나무 윗부분이 아래를 향하고, 뿌리 부분이 위를 향하게 세운다. 하중을 받는 부분이 측면보다는 상부에서 내려누르는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단단한 나무 밑 부분을 위로 하게 하여 힘을 받아도 나무가 잘 안 갈라지도록 했다.

마. 광부의 얼굴

검게 탄이 묻은 얼굴 속에서 하얀 치아를 드러내며 해맑게 웃는 광부의 모습, 고된 노동 속에서 한숨을 돌리는 모습 등 광부의 갱도 속의 삶이 잘 표현된 사진을 대형 이미지 그래픽 패널을 통해 전시하였다.

바. 막장작업장

채탄은 탄층에서 석탄을 채취하는 과정으로 석탄의 부존 여건에 따라 채취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국내 석탄층은 그 부존 상태가 불량하여 외국과 같이 대형 시설과 장비에 의한 대량 생산방식을 적용하지 못하고 우리만의 독특한 채탄방식을 적용하였다. 현재까지 적용되어 온 채탄법을 크게 분류하면, 탄층 내에 승갱도를 진행시켜 그 상부한계 지점부터 석탄을 채취하여 하부로 점차 내려오는 승채탄과 좌우 수평방향으로 갱도를 진행시켜 그 한계 지점부터 후퇴하면서 석탄을 채취하는 연층채탄으로 대별할 수 있다.

가스검침은 대기 중의 공기와 달리 광산 갱내에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폭발성인 메탄가스(CH4), 유독성 가스인 일산화탄소(CO) 등이 혼합되어 있어 갱내 작업자들은 각종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수시 측정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사. 일일광부 체험

막장(채탄) 작업장 관람을 끝낸 후 관람객들이 갱도 내 광부들의 작업을 일부분 체험할 수 있는 동발매기 코너이다.

④ 야외전시관

가. 권양기

원통형의 드럼에 와이어 로프를 감아, 도르래를 이용해서 중량물(重量物)을 높은 곳으로 들어 올리거나 끌어당기는 기계이다. 사갱이나 수갱에서 석탄이나 기자재, 인원 등의 운반을 위한 견인장치로 로프 끝에 광차 등을 연결시키고 로프를 드럼에 감아 끌어올린다. 광산에서는 와이어 로프에 의한 운반이 많다. 로프는 가는 소선인 철사를 꼬아서 자승을 만들고 다시 이 자승을 여러 개 꼬아서 만든다.

나. 압축기

압축공기를 동력으로 하는 채탄 굴진막장에 동력을 공급하고 채탄막장에 신선한 공기를 보내는 압축공기기계이다.

다. 인차

작업장이 장거리일 때 광부를 작업장 가까이 수송하는 차로서 운행되는 갱도의 형태에 따라 수평갱 인차, 사갱 인차로 분류된다.

라. 광차

광산에서 채굴된 광석이나 석탄을 운반하는 욕기로 적재량은 1톤이다.

마. 후황기(大·小)

갱내 공기는 탄층에서 발생하는 가스와 발파에 의한 연기, 분진 등으로 인해 신선하지 못하다. 후황기는 좋지 못한 공기를 빼내고 공기를 넣어주는 장비이다.

바. 티플러, 광차, 레일

광차에 있는 석탄을 쏟아내는 장치로 광차를 티플러 속으로 밀어 넣은 후 회전을 하여 석탄을 쏟아내는 장치이다. 광차의 용량에 따라 1톤용, 2톤용, 3톤용이 있다.[298]

이 영월탄광문화촌 인근에는 영월술빛마을, 영월삼굿마을, 선령약수터, 연하폭포, 연하동굴 등 문화자원이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문화자원은 탄광문화촌과 함께 연계하여 관광코스로 활용되고 있다.

(3) 영월 동강생태공원

영월 동강생태공원은 동강생태정보센터,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 에코빌리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동강생태정보센터만 개관되어 있고 나머지는 조성 중에 있다. 수려한 자

298) http://www.ywmuseum.com/section/tankwang/page/index.jsp



영월동강생태공원 전경

연환경과 희귀동식물을 비롯해 수많은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는 동강은 태고적 원시의 상태를 간직한 생태계의 보고이다. 구불구불 뱀 모양의 사행천에 수달과 원앙이 살고, 자연의 숨결을 간직한 동굴과 동강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아름다운 명산들까지 천혜의 비경, 그대로를 담아 흐르는 강이다. 영월 동강 생태관에서는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해 영월 동강의 우수한 생물자원을 보전하고 생태 · 문화적 생명력을 지켜가고 있다.

동강의 우수한 생물자원의 보전과 탐방객의 자연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생태 · 문화적 생명력을 지켜가기 위해 건립된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로서 동강생태정보 센터, 곤충산업 육성지원 센터, 동강테마 식물원이 있다. 동강에는 조류 총92종, 어류 총32종, 곤충 총1,514종, 식물 총956종, 동굴 총71개소, 포유류 총41종, 파충류 총16종, 양서류 총9종 등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동강 생태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자연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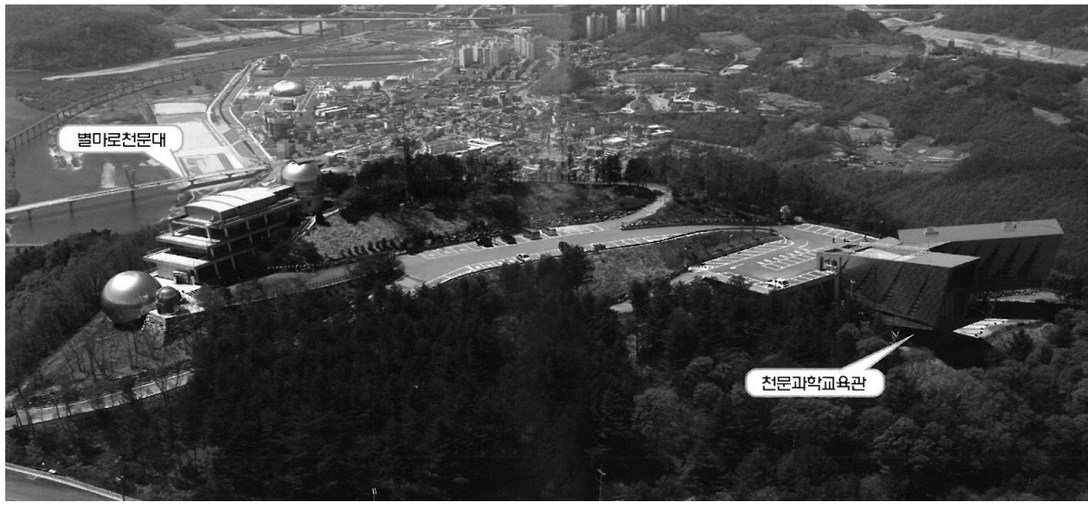


영월동강생태공원 조감도

습을 통해 동강의 우수한 생물자원을 보전하고 생태적 문화적 생명력을 지켜나가는 교육센터이다. 동강생태정보센터는 동강의 지형, 지질, 동강의 소리, 물고기, 새 등의 전시관과 3D 가상래프팅 체험 시설을 갖추고 있다.[299]

(4) 별마로천문대

별마로천문대는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산59번지 봉래산 정상에 위치해 있다. 시민천문대 최상의 관측조건인 해발 799.8m에 자리하고 있다. 지름 80cm 주망원경과 여러 대의 보조망원경이 설치되어 있어 달이나 행성, 별을 잘 관측할 수 있다. 천문대가 위치한 봉래산 정상에는 활공장이 있어 넓은 시야로 풍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영월읍내 야경도 천체관측과 함께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한다. 별마로천문대에는 직경 80cm 주망원경을 비롯하여 보조망원경 10여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내부에는 천문전시실과 시청각 교재실, 주관측실 및 보조관측실이 있어서 신비로운 우주세계를 보여준다. 층 로비에는 고인의 우주관, 태양모형과 푸코진자, 행성모형에 대한 자료가 전시되어 있으며 키오스크 검색을 통해 천문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정보열람이 가능하다.[300]



별마로 천문대 전경

299) http://www.donggang-ecopark.com/
300) http://www.yao.or.kr/

① 천체투영실

천체투영실에 설치되어있는 투영기는 8.3m 돔 스크린에 가상의 별을 투영하여 날씨에 상관없이 밤하늘을 감상할 수 있으며 별자리 찾는 법이나 관련 신화를 재미있게 들을 수 있다.

② 2층 시청각실

2층 시청각실에서는 우주관련 다큐멘터리를 시청할 수 있다. 다큐멘터리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 우주에 대한 이해를 보다 넓고 깊게 해 주고 있다.

③ 3층 전망대 및 휴게실

3층 전망대에서는 주위 풍경을 넓은 시야로 감상할 수 있다. 전망대는 동쪽을 향해 있으며 정면에 태백산을 볼 수 있고 남쪽으로는 소백산, 북쪽으로는 백덕산을 볼 수 있다. 3층 복도에는 천문학 발달에 영향을 크게 준 과학자를 소개하고 있다.

④ 보조관측실

보조관측실에는 굴절망원경과 반사망원경 등 다양한 망원경이 있어서 행성, 은하, 성운, 성단, 달표면, 태양의 흑점 등을 자세히 관찰 할 수 있다. 낮에 방문하시면 태양필터를 이용하여 흑점을 볼 수 있고 밤에는 달이나 행성, 별을 감상할 수 있다.

⑤ 주관측실

주관측실에는 800mm 리치크레티앙 반사망원경이 설치되어 있다. 해발 800m에 설치된 8m 원형 돔 안에서 성운, 성단, 은하 등 우주의 실제 모습을 자세히 관측할 수 있다. 또한, 비디오카메라와 TV가 설치되어 있어 달의 표면을 자세히 볼 수 있다.

(5) 난고김삿갓문화관

강원 영월군 하동면 김삿갓면 김삿갓로 216-22(와석리 913)에 위치해 있는 김삿갓문화관은 시비와 문학의 거리가 조성되어 있으며, 김삿갓의 묘와 생가가 있다. 김삿갓 유적지는 하동면 와석리 노루목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은 차령산맥과 소백산맥 준령의 북단과 남단에 위치하며, 경북 영주시와 충북 단양군과 경계를 이루는 3도 접경지역으로 산맥의 형상이 노루가 엎드려 있는 모습이라 하여 노루목이라 불려오고 있다. 또한 김삿갓



난고 김삿갓 문학관 전경



난고 김삿갓 문학관 야외공연 전시장

유적지내에 흐르는 '곡동천'은 여름철에는 유리알처럼 맑고 풍부한 수량이 기암괴석 사이로 넘쳐흐르고 가을에는 형언각색 단풍으로 인하여 보는 이의 가슴을 평온하게 만들어 주는 신비로운 곳이다.

난고 김병연은 안동김씨 시조인 고려 개국공신 삼중대광태사선생의 후예이고 휴암공파계 제24대 손이다. 1807년(순조 7년) 3월 13일 경기도 양주군 회천면 회암리에서 아버지 안근과 어머니 함평이씨 사이에서 차남으로 태어났다. 본명은 병연(炳淵), 자는 성심(成深), 호는 난고(蘭皐), 별호는 김삿갓 또는 김립(金笠)이다. 그는 영월 동현에서 실시한 백일장에서 시제 "논정가산충절사탄김익순죄통우천"에 대하여 가산 군수 정씨를 예찬하고 선천 부사이자 방어사이던 조부 김익순을 호되게 비판하는 글을 지어 장원을 하였다. 그러나 후일 모친으로부터 집안 내력을 듣고 조상을 욕되게 한 죄인이라는 자책감에 영월군 김삿갓면 와석리 어둔으로 옮겨 은둔생활을 하였으며 22세 때 아들 학균을 낳은 뒤 상경하여 이름을 김란, 자를 이명, 호를 지상으로 바꾸고 안응수의 문객으로 들어가 공부를 시작하였다. 24세가 되던 해 권문에 기대어 출세하려는 생각을 단념하고 귀가하여 형 병하에게 아들 학균을 입양시키고 그해 차남 익균을 얻었지만 처자식을 남겨둔 채 방랑길에 올랐다. 그때부터 푸

른 하늘을 볼 수 없는 죄인이라고 자책하며 삿갓을 쓰고 죽장을 짚고 다녔으므로 김삿갓 또는 김립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선생은 금강산 유람을 시작으로 함경도에서 제주도까지 전국각지를 방랑하면서 서민들의 애환과 양반들의 잘못 된 생활상을 시로 옮겼으며, 도산서원 아랫마을과 황해도 곡산에서는 훈장으로 글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차남 익균이 여러 번 찾아와 귀가하자는 간청을 끝내 물리치고 54세 때에는 지리산 등을 방랑하다 3년 만에 쇠약한 몸으로 선비의 집에 다시 돌아와 1863년(철종14년) 3월 29일(57세) 별세하여 마을 동편 산록에 안장되었다. 그로부터 3년 후에 차남 익균이 지금의 묘인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와석리 노루목에 이장하였다.

일제강점기에 이응수(李應洙)에 의해 김립시집(金笠詩集)이 간행되었고, 묘역 주변에는 김삿갓의 문학과 사상을 기리기 위한 난고 김삿갓 문학관과 이응수 선생 공적비가 있다. 난고 김삿갓 문학관에서는 난고 김병연의 생애와 발자취를 좇아 일생을 바친 정암 박영국선생의 김삿갓 연구 자료가 전시되어 있고,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김삿갓 관련 자료를 상영하고 있다. 난고 김삿갓 문학관은 강원도 시책 사업인 “강원의 얼 선양 사업”의 하나로 2003년 10월 개관했다. 김삿갓 선생의 생애와 문학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 그의 정신을 기리고 있다.[301]

(6) 영월동굴생태관

영월동굴생태관은 동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가지고 있는 자료, 구할 수 있는 자료, 보여주고 싶은 자료를 관람객들에게 어떻게 알차고 효과적으로 전달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거기에 맞춰 설계한 우리나라 최초의 전시 시설이다. 전시품목과 내용은 평소에 많은 사람들이 동굴에 대해 이해하고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대부분의 내용은 나열식 보다 문답식으로 풀어나가며 흥미를 가지도록 하였다. 동굴학은 과학과 인문학 외에도 스포츠까지 포함하는 종합 학문이고 각 분야에서 노력하는 전문가들에 의해 계속 연구되고 있다. 희망 회원들을 모집하여 수준에 맞는 동굴을 직접 탐험하면서 동굴과 자연에 대해 보다 알찬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302]

301) http://cafe.daum.net
302) http://www.ywmuseum.com/section/donggul/page/



영월 동굴생태관 전경

영월 동굴 생태관은 각 분야 동굴 전문가들의 자료를 관람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 할 수 있도록 시설이 설계되었다. 지하1층은 전시관과 동굴연구소, 회의실을 갖추고 있고 지하 1, 2층 전시관은 5개 구역으로 나누어 “석회는 누가 만드나?”, “숨어있는 동굴생물”, “어두워도 부딪히지 않아”, “박쥐에 대한 진실”, “신비한 동굴탐험” 등 14개의 테마로 구성되어 있다. 생태관의 전시물 정보들은 문답식으로 관람객이 직접 문제를 풀어가며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지하1층에는 동굴탐험에 필요한 장비, 착용법 등을 알 수 있는 거꾸로 탐험대 전시와 지금의 동굴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관찰 할 수 있도록 전시하였다. 기획전시실에서는 “동굴 길잡이”, “반갑다! 동굴”이라는 제목으로 다채롭게 변화하는 꼽등이, 옆새우, 박쥐, 노래기 등 동굴생물의 다양하고 특징 있는 움직임이 영상이미지를 통해 상영된다. “거꾸로 세계를 만나자”파트에서는 동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수억 년 전 지금의 석회암을 만든 생물들을 알아보고 암석화 되는 과정을 통해 석회암지대의 생성과정과 영월지역에서 생성된 다양한 암석을 관찰할 수 있다.

거꾸로 탐험대는 동굴탐험에 사용되는 장비의 착용방법에 대해 알 수 있으며, 동굴탐사 관련 장비를 실물전시하고 있다. 동굴의 나이는 “나도 동굴탐험가”, “석회는 누가 만드나”, “돌이 녹는다”, “동굴들의 비밀”, “다시 돌을 만든다”에서 다루었다. 숨어있는 동



영월 동굴 생태관 배부 전시 전경

굴생물은 수억 년 전 지금의 석회암을 만든 생물을 알아보고 암석화되는 과정을 통해 석회암 형성과정을 설명한다. 영월지역에서 생성된 다양한 암석을 전시, 관찰 할 수 있다. “영월의 다양한 동굴”, “복잡한 고씨동굴”, “신나는 거꾸로 세계”, “CAVE EXPLORER(4D 라이더), 동굴탐험의 입체 영상을 통해 신나는 동굴탐험을 경험하세요”, “명예 동굴수호자” 등의 주제로 전시되어 있다. 또한 관람객이 고씨동굴을 비롯한 영월지역 동굴의 배경을 합성크로마키 촬영시스템을 이용하여 촬영할 수 있다.

지하2층에는 포유류이면서도 비행이 가능한 박쥐를 비롯하여 동굴에 서식하는 동굴생물들을 영상, 표본 등으로 관찰할 수 있다. 제2전시실과 실제 동굴생물을 관찰한 후 고씨동굴의 비공개 구간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3전시실이 있다. 거꾸로 사는 생물 박쥐에서 박쥐의 생김새, 어두운 동굴에서 사물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초음파 등 생물학적 특성을 영상을 통해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영월지역의 동굴에 설치한 무인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박쥐의 생활사를 실시간과 편집 영상으로 볼 수 있다. “날아다니는 포유류”, “재미있는 박쥐 얼굴”, “박쥐, 무얼 먹고 살까?”, “동면에서 깨어나기”, “어두워도 부딪히지 않아”, “박쥐에 관한 진실”, “박쥐의 24시 등 대야굴에 서식하는 박쥐의 모습을 5대의 CCTV를 통해 원하는 위치를 선택하여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동굴에 서식하는 동굴생물들이 동굴에 들어오기까지의 경로와 어둠 속에서 퇴화된 시각대신 발달한 동굴생물의 감각기관에 대해 소개한다. “동굴에 왜왔니?”, “더듬이가 되어보자!”, “빛이 없으면 필요 없어요”, “동굴생물과의 조우”, “동굴환경의 다양성”, “동굴생물의 서로 다른 생활”, “영월동굴의 정복자들”, “고씨동굴의 먹이사슬” 등의 주제로 전시를 하고 있다. 동굴 탐험 회원을 모집하여 동굴과 자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고 있다. 영월동굴 생태관에서는 동굴관련 특별전, 동굴탐험, 지질, 영월의 동굴, 박쥐 등 동굴 생물과 생태계 등을 조사, 연구하고 있다.

(7) 영월 아프리카미술박물관

영월 아프리카미술관은 아프리카 여러 부족들의 생활, 의식, 신앙, 축제 등과 관련하여 만들어진 문화상품, 조각, 그림, 생활도구, 장신구 등 현대미술 작품을 상설 전시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다양한 문화를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 주한 아프리카대사관이 출품한 문화전을 비롯하여 아프리카인들의 관념세계를 표현한 인물상, 조각 등을 통하여 아프리카의 미술을 이해 할 수 있다. 아프리카 미술의 소재, 제작기법, 미술적 특징 등이 현대미술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를 알아 볼 수 있도록 전시하고 있다.

상설전시관(1층)에서는 아프리카 부족의 전통조각과 현대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아프리카 고미술과 연관될 수 있는 근현대작품을 비교 전시, 아프리카 미술의 진수를 찾아볼 수 있다. 기획전시관(2층)에서는 북아프카체험전 “마그레브”- KOICA 지구체험관 이동전시를 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북서부 지역의 마그레브(Maghreb)는 “해가 지는 서쪽”이라는 뜻의 아랍어로 사하라사막과 지중해, 아틀라스 산맥이 공존하는 지역이다. 이 전시는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3개국의 다채롭고 흥미로운 문화를 소개한다. 마그래브의 삶의 터전인 사하라의 아름다움과 사막의 확산 문제 등 환경에 대한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303]



아프리카 미술박물관 전경

303) http://www.aamy.kr/museum/museum_02.php

5) 맺음말

이상으로 강원도 철원의 두루미평화마을과 한국DMZ평화생명교육마을, 영월 박물관 고을 특구의 문화자원 환경과 활용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강원도 철원의 두루미평화마을은 정부에서 국방력 강화와 식량증산의 목적으로 방공정신이 투철한 재향군인 150명을 1967년 2월 가입주시킴으로써 두루미평화마을의 역사가 시작되어 47년이 지난 마을이다. 이 마을은 척사대회, 입주기념식, 정월 대보름날 윷놀이, 떡메치기, 음식경연대회, 널뛰기, 투호, 팔씨름 등 전통 민속놀이를 발전 계승시키고 있다.

이 철원 두루미평화마을은 마을 정보센터에서 인터넷교육 등을 통한 정보이용 및 정보화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이외에 대마교회, 두루미 평화관과 체험관, 묘장초등학교, 대마보건진료소, 경로당, 노인대학 등의 공공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정보화 마을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두루미 평화마을에서는 희망의 솟대 만들기, 두루미, 독수리 등 많은 철새들의 생태를 고성능 망원경으로 관찰할 수 있다. 또한 지뢰에 대한 체험을 통해 평화에 대한 생각을 불어 넣어 주고 가상지뢰를 제거함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통일시대에 지뢰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 두루미 마을의 인근의 문화유적으로 노동당사, 도피안사, 백마고지 전투지 등을 활용하여 유적답사 코스로 활용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 마을의 특산품인 백마고지 오대쌀, 느타리버섯, 오이, 벌꿀, 삼지구엽초 등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비무장지대(DMZ) 일원을 "자연과 생명의 터전"으로 만들고자 설립된 "한국DMZ평화생명 교육마을"은 DMZ 일원의 생태계와 역사, 문화를 올바르게 보존하면서 교육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드높이는 "바람직한 발전의 전형"을 창출하고 있다. 한국DMZ평화생명교육마을의 시설은 명상원, 전시관, 사무동, 식당, 교육동, 숙소, 야외극장, 생명살림 오행동산, 오행순환의 집, 생태체험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기능에 맞도록 교육 및 활용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주변의 문화유적과 생태환경을 활용하여 생명과 평화 등 사람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교육에 힘쓰고 있다.

한국DMZ평화생명교육마을의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은 DMZ 일원의 주민과 군부대 현장교육, 시민단체와 기업 임·직원, 초·중·고·대학생 대상의 대중교육과 지도자 교육, 지구촌 평화교육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다. 과거 농경지가 자연천이 된 가전리 습지, 한반도 고유의 민물고기가 다양한 임북천, 사향노루와 산양이 살고 있는 금강산 향로봉, 4,200년 전 태고적 역사를 간직한 대암산 용늪 등 DMZ 일원의 생태계 등이 교육의 현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민통선 현장체험으로 을지전망대, 제4땅굴, 가칠봉 OP, 펀치볼 민통선 마을 등 분단의 현장에서 평화와 통일의 소중함을 체득할 수 있는 자원이다. 농촌체험은 DMZ 일원 최전방 농촌마을의 역사와 문화, 주민의 삶 속으로 함께 들어가 농사일을 체험할 수 있다.

영월군의 박물관 고을 육성 사업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박물관을 유치하고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에 신활력 사업비를 집중 투입하는데 있다. 또한 인재 육성·활용과 네트워크 구축, 테마 체험 프로그램 및 문화 상품 개발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소프트 경쟁력 향상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박물관 고을 육성 사업은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광시너지 효과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 영월의 박물관 고을 특구에 있는 박물관 중에 강원도 탄광문화체험촌, 영월 동강생태공원, 별마로천문대, 난고 김삿갓 문화관, 영월 동굴 생태관, 고씨동굴 등 자연 생태환경을 활용하여 문화자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파주 대성동 마을도 이 두 마을을 모델로 삼아 대성동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교육 및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마을로 발전시켜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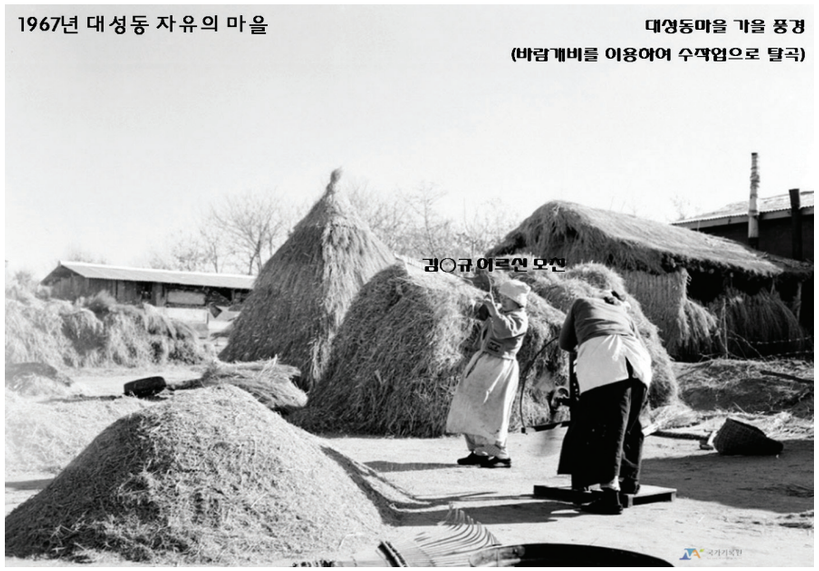
부록.
사진으로 보는 대성동마을의 과거와 현재

1. 옛 사진 속 대성동마을

1-1 국가기록원자료로 보는 대성동마을의 옛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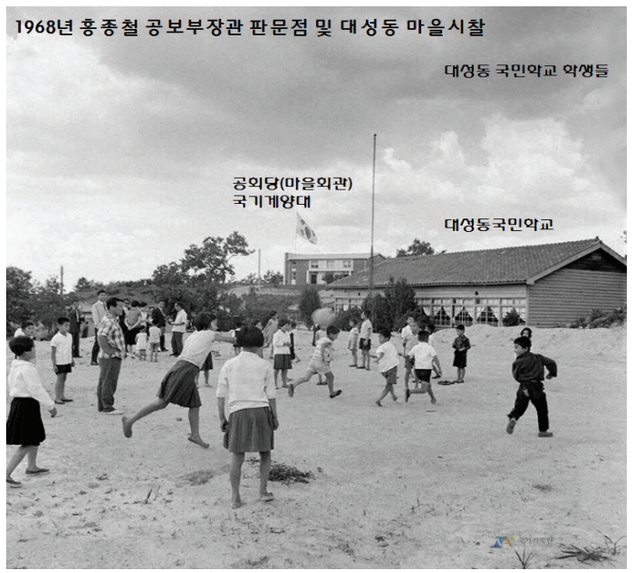



1967년 대성동 자유의 마을
대성동마을 가을 풍경
(바람개비를 이용하여 수작업으로 탈곡)
김○규 어르신 모친


1967년 대성동 자유의 마을
대성동국민학교 앞 어르신들
김○규 씨
(김○수 씨 조부)
김○용 씨
(김○찬 씨 조부)
박○선 씨
전○원 씨
김○영 씨
김○이 씨
(전○순 씨 장인)
김○준 씨
(김○규 씨 부친)
김○수 씨
김○성 씨
(김○구 씨 조부)
김○옥 씨


1967년 대성동 자유의 마을
대성동마을 겨울 풍경
(할아버지와 어린이들 사진)
구○순 씨
(구○우, 구○우 씨 조부)
김○룡 씨
(김○래 씨 부친)
대성동국민학교
선생님
공회당 건물
구○우 씨
박○익
(박○순 씨 아들)


1967년 대성동 자유의 마을
대성동마을 풍경
양지말
공회당(마을회관)
대성동국민학교
문화주택
(시설이 원악하여
상고나 다음 없었음)
문화주택
(슬레이트 위 용마루 곰새)
초가집
집단이 집집마다 사방에 있었음
음지말


1968년 홍종철 공보부장관 판문점 및 대성동 마을시찰
대성동 국민학교 학생들
공회당(마을회관)
국기게양대
대성동국민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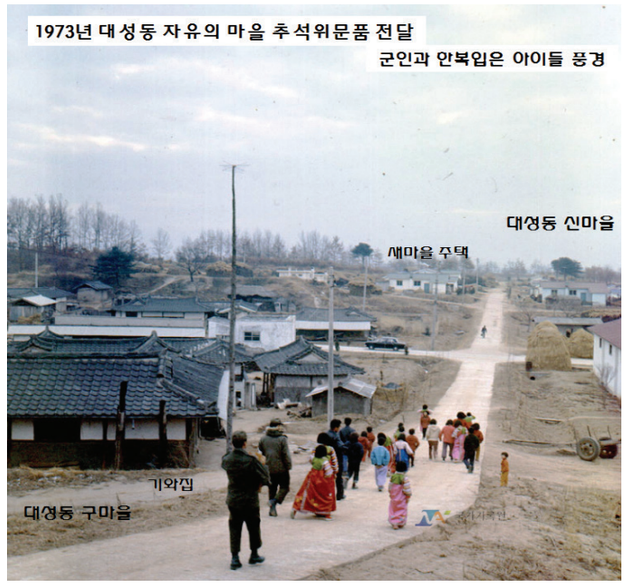

1970년 대성동 자유의 마을 위안공연 당시
자유의 집
출 연 예 인 단


1970년 대성동 자유의 마을 위안공연 당시
대성동 국민학교 학생들
대성동국민학교 본관
(후에 태권도 연무관으로 사용)
국민학교 선생님(부부교사)과 아이들


1970년 대성동 자유의 마을 위문공연 당시
대성동 공회당(자유의 집)
김○규 씨 모친
김○규 씨 누님
김○옥
김○옥
전○근
전○순
김○호
김○역
김○계 씨
모친
전○근 씨 모친


1970년 대성동 자유의 마을 연말선물전달
1972년 준공된 새마을주택 앞에서


1970년 대성동 자유의 마을 연말선물전달
연말 선물을 전달받는 대성동 주민과 악생들(공회당 앞)
자유의 집
年末結物
年末結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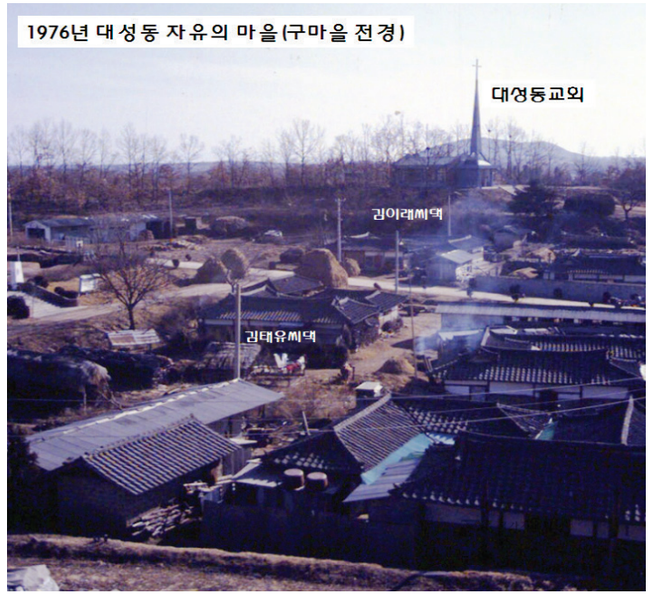

1973년 대성동 자유의 마을 추석위문품 전달
군인과 안복입은 아이들 풍경
대성동 신마을
새마을 주택
기와집
대성동 구마을


1973년 대성동국민학교 제5회 졸업식
대성동 마을 풍경
새마을 주택
대성동 신마을
대성동 구마을
기와집


1974년 대성동 자유의 마을 추석선물 전달
공회당 앞 아이들 민속놀이 풍경


1976년 대성동국민학교 전경


1970년 대성동 자유의 마을 위문
대성동 공회당(자유의 집)
전○순
권○수
권○희
권○혜
권○혜
권○규
권○영
구○원
권○원
권○옥
전○원
혜○득
권○홍
권○여
권○미
새 해 선 물


1976년 대성동 자유의 마을(구마을 전경)
대성동교회
김이래씨댁
김태유씨댁


1976년 대성동 자유의 마을(신마을 전경)
목탄 뭐야 빈이
날아간 나무
초가집이었는데
기와집으로 바뀜


1976년 대성동 자유의 마을(신마을 전경)
1972년 조영된 새마을 주택


1977년 문화공보부 대성동 자유의 마을 새해선물 전달
대성동 마을창고 추곡수매 풍경
대성동공동창고


1978년 문화공보부 대성동 자유의 마을
추석선물 전달
자유의 집
권○규
선○출
권○혜
권○희
선○권
권○혜
권○유
교생선생님
문화공보부
문화공보부
추석선물


1980년 주택입주식
대성동 주택입주
1980. 9. 19
박고 정의로운 복지사회 건설
추석선물







1-2 주민들의 서랍 속 사진으로 보는 대성동마을



대성동어린이 서울초청(김일규 소장)



대성동국민학교 경주 수학여행(김일규 소장)



대성동초등학교 본관으로 쓰인 건물에 만든 태권도장(김일규 소장)



대성동 주민 중앙청 방문 기념사진(김경래 소장)



마을사업으로 시도했던 양봉(김경래 소장)



통일로 표지석 앞의 김경래 씨 부부(김경래 소장)



효녀상 수상식(김일규 소장)



김경래 씨 따님 초등학교 졸업식
- UN군 사령부 대장이 직접 졸업장을 수여(김경래 소장)



대성동초등학교 운동회 (김일규 소장)

윷놀이 한판
- 뒤 쪽으로 옛날 초가집의 모습이 보인다. (김일규 소장)

2 대성동마을의 현재



대성동마을 입구의 현판



대성동마을 진입로



마을 버스정류장



마을회관 옥상에서 내려다 본 대성동마을



동그랑산 자리에 들어선 팔각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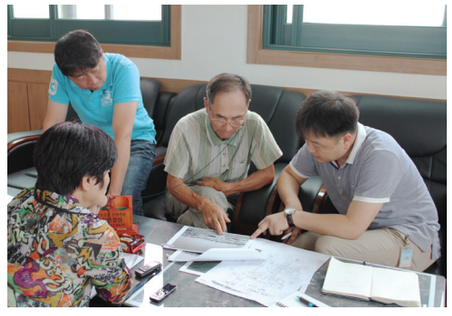
3 대성동마을에서

◆ 대성동마을 주민설명회




◆ 주민들과 함께하기



• **기획**
이길재 (경기도청 균형발전기획실 DMZ정책담당관)
황수진 (파주시청 문화관광과 과장)
조유전 (경기문화재연구원 원장)

• **진행 · 발간**
임순택 (경기도청 균형발전기획실 DMZ정책팀장)
오흥철 (경기도청 균형발전기획실 DMZ정책담당관 주무관)
이귀순 (파주시청 문화관광과 콘텐츠진흥팀장)
이승철 (파주시청 문화관광과 주무관)

김지욱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학연구팀 팀장)
이헌재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학연구팀 수석연구원)
이은솔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학연구팀 연구원)

• **조사·집필**
이수자 ((전) 중앙대학교 교수)
김종대 (중앙대학교 비교민속학과 교수)
김지욱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학연구팀 팀장)
이헌재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학연구팀 수석연구원)
남창근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학연구팀 전문연구원)
이은솔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학연구팀 연구원)

• **사진제공**
박세운 (대성동마을 주민)
김웅래 (대성동마을 출신/인덕대학교 방송연예과 교수)
김현래 (대성동 강릉 김씨 동원군파 종친회 회장)

• **도움주신 주민들**
김동구 대성동마을이장, 김경래, 김동예, 김동찬, 김묘연, 김병래, 김복순, 김상래, 김영애, 김용성, 김일규, 김정순, 김진웅, 김태유, 남경옥, 박운학, 박필선, 이금순, 전창권, 홍승순, 황연의(가나다순)

DMZ
파주 대성동마을
문화자원조사

다시 고향마을로 돌아온 사람들
경기도 DMZ 자유의 마을 대성동

발 행 일 : 2014. 12.
발 행 인 : 경기도 · 파주시
인 쇄 : 경인일보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442-83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학연구팀

※ 이 책의 내용에 대한 무단인용을 금하며 필요시 경기문화재연구원으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